

정책보고서 2021-76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068-13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임덕영

이태진·하은솔·이병재·남윤재·남기철·정원오·민소영·신원우·송아영·이기재



■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남윤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 교수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1. 4. 16.)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7
제2절 연구 목적	58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59
제2장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61
제1절 실태조사 내용과 주요 변화내용	63
제2절 조사방법	73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89
제4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04
제3장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 일시집계조사	107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109
제2절 거리노숙인의 규모	119
제3절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와 일반적 특징	126
제4절 쪽방주민의 규모와 일반적 특징	152
제4장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면접조사	165
제1절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67
제2절 경제활동	177
제3절 건강 및 의료	210
제4절 주거	264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	330

제6절 코로나19 관련 사항	383
제7절 2016년도 및 2021년도 실태조사 주요결과 비교	392
제5장 결론	415
제1절 노숙인 등 규모 추이 및 제언	417
제2절 노숙인 등 욕구별 실태 및 정책적 함의	421
참고문헌	437
부록	439
부록1. 일시집계조사 조사표	439
부록2. 면접조사 조사표	451
부록3.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추가문항 분석	475

표 목차

〈표 2-1-1〉 2021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개요	63
〈표 2-1-2〉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의 기본설계	65
〈표 2-1-3〉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 내용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67
〈표 2-1-4〉 2021년도 면접조사 조사문항 설정 원칙	68
〈표 2-1-5〉 일시집계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변화(2016년도, 2021년도)	69
〈표 2-1-6〉 면접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변화(2016년도, 2021년도)	71
〈표 2-2-1〉 거리노숙인 집계 대상의 정의	74
〈표 2-2-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복지시설 사업내용	75
〈표 2-2-3〉 시설노숙인 집계 대상의 정의	76
〈표 2-2-4〉 선행연구의 쪽방 및 쪽방주민 정의	77
〈표 2-2-5〉 거리노숙인 거점 규모 변화 및 최종거점의 확정	79
〈표 2-2-6〉 2021년도 면접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84
〈표 2-3-1〉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일시집계조사 결과	90
〈표 2-3-2〉 권역별 거점규모별 노숙인 현황	91
〈표 2-3-3〉 권역별 거점수 및 노숙인 규모 현황	92
〈표 2-3-4〉 거점 규모별 조사 노숙인 수 현황	93
〈표 2-3-5〉 권역별 거점 규모별 표본 거점수 현황	93
〈표 2-3-6〉 권역별 거점 규모별 조사 노숙인 수 현황(안)	94
〈표 2-3-7〉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노숙인 현황	95
〈표 2-3-8〉 권역별 시설노숙인 모집단 현황	96
〈표 2-3-9〉 각 층별 시설노숙인 표본배분 현황	96
〈표 2-3-10〉 권역별 쪽방주민의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98
〈표 2-4-1〉 권역별 거점 규모별 거리노숙인 응답 현황	104
〈표 2-4-2〉 권역별 및 성별 거리노숙인 응답 현황	104
〈표 2-4-3〉 권역별 및 시설유형별 시설노숙인 응답 현황	105
〈표 2-4-4〉 성별 및 시설유형별 시설노숙인 응답 현황	105
〈표 2-4-5〉 권역별 및 성별 쪽방주민의 응답자 수 현황	106
〈표 3-1-1〉 노숙인 등의 규모	109
〈표 3-1-2〉 지역별 노숙인 등의 규모	111
〈표 3-1-3〉 인구 1만명 당 노숙인 등의 규모	112
〈표 3-1-4〉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113

〈표 3-1-5〉 노숙인 등의 규모	114
〈표 3-1-6〉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노숙인 집계 규모 비교	117
〈표 3-1-7〉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쪽방주민 집계 규모 비교	118
〈표 3-2-1〉 성별 및 미성년 거리노숙인 현황	120
〈표 3-2-2〉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의 규모	121
〈표 3-2-3〉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	122
〈표 3-2-4〉 거리노숙인 규모별 기초자치단체 현황	123
〈표 3-2-5〉 세부장소별 거리노숙인 현황	124
〈표 3-2-6〉 광역자치단체 및 거리노숙 세부장소별 거리노숙인 현황	125
〈표 3-3-1〉 노숙인 생활시설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127
〈표 3-3-2〉 생활시설 노숙인 규모별 현황	128
〈표 3-3-3〉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129
〈표 3-3-4〉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130
〈표 3-3-5〉 인구 1만 명 당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131
〈표 3-3-6〉 생활시설 노숙인 성별 현황	132
〈표 3-3-7〉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전체)	132
〈표 3-3-8〉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남성)	133
〈표 3-3-9〉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여성)	133
〈표 3-3-10〉 생활시설 노숙인 중 노인(65세 이상) 규모	134
〈표 3-3-11〉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20~39세) 규모	135
〈표 3-3-12〉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실태(전체)	136
〈표 3-3-13〉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실태(심한장애)	137
〈표 3-3-14〉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실태(심하지 않은 장애)	138
〈표 3-3-15〉 노숙인시설 코로나19 현황	139
〈표 3-3-16〉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전체)	139
〈표 3-3-17〉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남성)	141
〈표 3-3-18〉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여성)	141
〈표 3-3-19〉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전체)	142
〈표 3-3-20〉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남성)	142
〈표 3-3-21〉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여성)	142
〈표 3-3-22〉 생활시설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전체)	143
〈표 3-3-23〉 생활시설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남성)	143
〈표 3-3-24〉 생활시설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여성)	144
〈표 3-3-25〉 생활시설 노숙인 의료지원 현황(전체)	144

〈표 3-3-26〉 생활시설 노숙인 의료지원 현황(남성)	145
〈표 3-3-27〉 생활시설 노숙인 의료지원 현황(여성)	146
〈표 3-3-28〉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전체)	146
〈표 3-3-29〉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남성)	147
〈표 3-3-30〉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여성)	147
〈표 3-3-31〉 생활시설 노숙인 가족 현황	148
〈표 3-3-32〉 생활시설 노숙인 질병이환 실태	148
〈표 3-3-33〉 생활시설 유형별 노숙인 주요 질병이환 실태	152
〈표 3-4-1〉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비교	153
〈표 3-4-2〉 쪽방주민 지역별 성별 현황 비교	154
〈표 3-4-3〉 쪽방주민 성별 연령대 현황	154
〈표 3-4-4〉 쪽방주민 지역별 연령대 현황	155
〈표 3-4-5〉 쪽방주민 지역별 가구 현황 비교	156
〈표 3-4-6〉 쪽방주민 지역별 미성년 포함 가구(가족 거주) 현황	156
〈표 3-4-7〉 쪽방주민 주민등록 현황	157
〈표 3-4-8〉 쪽방주민 지역별 주민등록 현황 비교	157
〈표 3-4-9〉 쪽방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8
〈표 3-4-10〉 쪽방주민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158
〈표 3-4-11〉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159
〈표 3-4-12〉 쪽방주민 지역별 의료지원 현황	159
〈표 3-4-13〉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전체)	160
〈표 3-4-14〉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심한장애)	161
〈표 3-4-15〉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심하지 않은 장애)	162
〈표 3-4-16〉 쪽방주민 코로나19 현황	163
〈표 4-1-1〉 거처유형별 면접조사 응답자 수	167
〈표 4-1-2〉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	168
〈표 4-1-3〉 면접조사 응답자의 주민등록 현황 (거처유형별)	169
〈표 4-1-4〉 면접조사 응답자의 주민등록 현황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69
〈표 4-1-5〉 면접조사 응답자의 지역 분포 현황	170
〈표 4-1-6〉 면접조사 응답자의 장애등록 현황	170
〈표 4-1-7〉 면접조사 응답자의 중복장애 여부	171
〈표 4-1-8〉 면접조사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비율 (거처유형별)	172
〈표 4-1-9〉 면접조사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비율 (연령별, 성별)	172
〈표 4-1-1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실태 (거처유형별)	173

〈표 4-1-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실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74
〈표 4-1-12〉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 경험 여부	174
〈표 4-1-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	175
〈표 4-1-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가능) (거처유형별)	176
〈표 4-1-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가능)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77
〈표 4-2-1〉 현재 근로활동상태 (거처유형별)	178
〈표 4-2-2〉 현재 근로활동 실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79
〈표 4-2-3〉 노숙시기에 따른 고용유형별 근로상태 이력 (거처유형별)	180
〈표 4-2-4〉 노숙시기에 따른 고용유형별 근로상태 이력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81
〈표 4-2-5〉 노숙이전에서 노숙직전 근로상태 변화	182
〈표 4-2-6〉 노숙직전에서 노숙직후 근로상태 변화	183
〈표 4-2-7〉 현재 근로상태별 근로개월수 이력	184
〈표 4-2-8〉 노숙유형별 근로개월수 이력	184
〈표 4-2-9〉 근로상태 변화 (거처유형별)	186
〈표 4-2-10〉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거처유형별)	187
〈표 4-2-11〉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87
〈표 4-2-12〉 주된 일(직장) 구직경로 (거처유형별)	188
〈표 4-2-13〉 주된 일(직장) 구직경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89
〈표 4-2-14〉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시간) (거처유형별)	189
〈표 4-2-15〉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시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0
〈표 4-2-16〉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업종) (거처유형별)	191
〈표 4-2-17〉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업종)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1
〈표 4-2-18〉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1순위) (거처유형별)	192
〈표 4-2-19〉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3
〈표 4-2-20〉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2순위) (거처유형별)	194
〈표 4-2-21〉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2순위)(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4
〈표 4-2-22〉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거처유형별)	195
〈표 4-2-23〉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6
〈표 4-2-24〉 주 수입원 - 1순위 (거처유형별)	197
〈표 4-2-25〉 주 수입원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8
〈표 4-2-26〉 주 수입원 - 2순위 (거처유형별)	199
〈표 4-2-27〉 주 수입원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199
〈표 4-2-28〉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거처유형별)	200
〈표 4-2-29〉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01

〈표 4-2-30〉	노숙인 등의 주요 수입원 비중과 월평균 소득 분포	201
〈표 4-2-31〉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1순위 (거처유형별)	202
〈표 4-2-32〉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03
〈표 4-2-33〉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2순위 (거처유형별)	204
〈표 4-2-34〉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04
〈표 4-2-35〉	부채여부 (거처유형별)	205
〈표 4-2-36〉	부채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05
〈표 4-2-37〉	부채규모 (거처유형별)	206
〈표 4-2-38〉	부채규모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06
〈표 4-2-39〉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거처유형별)	207
〈표 4-2-40〉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07
〈표 4-2-41〉	노숙인 등의 채무상태: 2016년과 2021년의 비교	208
〈표 4-2-42〉	저축 유무 (거처유형별)	208
〈표 4-2-43〉	저축 유무 (연령별, 성별, 장애별)	209
〈표 4-2-44〉	총저축액과 월평균 저축액 (거처유형별)	209
〈표 4-2-45〉	총저축액과 월평균 저축액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0
〈표 4-3-1〉	주관적 건강상태 (거처유형별)	211
〈표 4-3-2〉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1
〈표 4-3-3〉	음주여부 (거처유형별)	212
〈표 4-3-4〉	음주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2
〈표 4-3-5〉	음주횟수 (거처유형별)	213
〈표 4-3-6〉	음주횟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3
〈표 4-3-7〉	음주량 (거처유형별)	214
〈표 4-3-8〉	음주량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4
〈표 4-3-9〉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 (거처유형별)	215
〈표 4-3-10〉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6
〈표 4-3-11〉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거처유형별)	217
〈표 4-3-12〉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7
〈표 4-3-13〉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18
〈표 4-3-14〉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8
〈표 4-3-15〉	대사성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19
〈표 4-3-16〉	대사성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19
〈표 4-3-17〉	심장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20
〈표 4-3-18〉	심장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0

〈표 4-3-19〉 심장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21
〈표 4-3-20〉 심장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1
〈표 4-3-21〉 호흡기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22
〈표 4-3-22〉 호흡기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2
〈표 4-3-23〉 호흡기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23
〈표 4-3-24〉 호흡기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3
〈표 4-3-25〉 간장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24
〈표 4-3-26〉 간장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4
〈표 4-3-27〉 간장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25
〈표 4-3-28〉 간장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5
〈표 4-3-29〉 위장관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26
〈표 4-3-30〉 위장관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6
〈표 4-3-31〉 위장관질환 치료유무 (거처유형별)	227
〈표 4-3-32〉 위장관질환 치료유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7
〈표 4-3-33〉 정신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28
〈표 4-3-34〉 정신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8
〈표 4-3-35〉 정신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29
〈표 4-3-36〉 정신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29
〈표 4-3-37〉 신경계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30
〈표 4-3-38〉 신경계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0
〈표 4-3-39〉 신경계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30
〈표 4-3-40〉 신경계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1
〈표 4-3-41〉 뇌졸중 중풍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31
〈표 4-3-42〉 뇌졸중 중풍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2
〈표 4-3-43〉 뇌졸중 중풍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32
〈표 4-3-44〉 뇌졸중 중풍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3
〈표 4-3-45〉 관절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34
〈표 4-3-46〉 관절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4
〈표 4-3-47〉 관절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35
〈표 4-3-48〉 관절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5
〈표 4-3-49〉 척추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36
〈표 4-3-50〉 척추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6
〈표 4-3-51〉 척추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37
〈표 4-3-52〉 척추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7

〈표 4-3-53〉 외상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38
〈표 4-3-54〉 외상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8
〈표 4-3-55〉 외상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239
〈표 4-3-56〉 외상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39
〈표 4-3-57〉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40
〈표 4-3-58〉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0
〈표 4-3-59〉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41
〈표 4-3-60〉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1
〈표 4-3-61〉 암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42
〈표 4-3-62〉 암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2
〈표 4-3-63〉 암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43
〈표 4-3-64〉 암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3
〈표 4-3-65〉 피부병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44
〈표 4-3-66〉 피부병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4
〈표 4-3-67〉 피부병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245
〈표 4-3-68〉 피부병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5
〈표 4-3-69〉 기타 감염병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46
〈표 4-3-70〉 기타 감염병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6
〈표 4-3-71〉 기타 감염병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246
〈표 4-3-72〉 기타 감염병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7
〈표 4-3-73〉 눈코목귀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47
〈표 4-3-74〉 눈코목귀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8
〈표 4-3-75〉 눈코목귀질환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248
〈표 4-3-76〉 눈코목귀질환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49
〈표 4-3-77〉 치과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249
〈표 4-3-78〉 치과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0
〈표 4-3-79〉 치과질환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250
〈표 4-3-80〉 치과질환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1
〈표 4-3-81〉 코로나19 유병현황 (거처유형별)	251
〈표 4-3-82〉 코로나19 유병현황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2
〈표 4-3-83〉 코로나19 치료유무 (거처유형별)	252
〈표 4-3-84〉 코로나19 치료유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2
〈표 4-3-85〉 기타 질환 유병비율 및 치료여부	253
〈표 4-3-86〉 유병비율 상위 5개 질환 (거처유형별)	254

〈표 4-3-87〉 유병비율 상위 5개 질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5
〈표 4-3-88〉 치료경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질환 (거처유형별)	256
〈표 4-3-89〉 치료경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질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7
〈표 4-3-90〉 몸이 아플 때 대처 (거처유형별)	258
〈표 4-3-91〉 몸이 아플 때 대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59
〈표 4-3-92〉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거처유형별)	260
〈표 4-3-93〉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61
〈표 4-3-94〉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거처유형별)	262
〈표 4-3-95〉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62
〈표 4-3-96〉 지난 1년 동안 입원 횟수 (거처유형별)	263
〈표 4-3-97〉 지난 1년 동안 입원 횟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63
〈표 4-4-1〉 거리노숙 경험 여부	264
〈표 4-4-2〉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연도 (거처유형별)	266
〈표 4-4-3〉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경과 연수 (거처유형별)	266
〈표 4-4-4〉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연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67
〈표 4-4-5〉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경과 연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68
〈표 4-4-6〉 거리노숙 계기 - 1순위 (거처유형별)	269
〈표 4-4-7〉 거리노숙 계기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70
〈표 4-4-8〉 거리노숙 계기 - 2순위 (거처유형별)	271
〈표 4-4-9〉 거리노숙 계기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72
〈표 4-4-10〉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 (거처유형별)	274
〈표 4-4-11〉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의 이전) (거처유형별)	276
〈표 4-4-12〉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의 이전의 이전) (거처유형별)	278
〈표 4-4-13〉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 (거처유형별)	280
〈표 4-4-14〉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 (거처유형별)	283
〈표 4-4-15〉 노숙이전 주거 변화 (상위 3순위)	285
〈표 4-4-16〉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 (연령별)	287
〈표 4-4-17〉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 (성별, 장애유무별)	289
〈표 4-4-18〉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1순위 (거처유형별)	291
〈표 4-4-19〉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92
〈표 4-4-20〉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2순위 (거처유형별)	293
〈표 4-4-21〉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94
〈표 4-4-22〉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거처유형별)	296
〈표 4-4-23〉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97

〈표 4-4-24〉	노숙 중 피해 경험 (거처유형별)	298
〈표 4-4-25〉	노숙 중 피해 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299
〈표 4-4-26〉	노숙생활 중 피해 장소 (거처유형별)	301
〈표 4-4-27〉	성별 노숙생활 중 피해 장소 (거처유형별)	303
〈표 4-4-28〉	지역별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304
〈표 4-4-29〉	지역별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경과연수	305
〈표 4-4-30〉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06
〈표 4-4-31〉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경과연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06
〈표 4-4-32〉	지역별 쪽방 거주 면적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08
〈표 4-4-33〉	지역별 쪽방 1인 최저주거면적 기준 여부(14㎡ 미달 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08
〈표 4-4-34〉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310
〈표 4-4-35〉	지역별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보증금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11
〈표 4-4-36〉	지역별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월 임대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12
〈표 4-4-37〉	지역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 체납 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13
〈표 4-4-38〉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1) (지역별)	314
〈표 4-4-39〉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1)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16
〈표 4-4-40〉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2) (지역별)	317
〈표 4-4-41〉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2)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19
〈표 4-4-42〉	쪽방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지역별)	320
〈표 4-4-43〉	쪽방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21
〈표 4-4-44〉	현재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지역별)	322
〈표 4-4-45〉	현재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23
〈표 4-4-46〉	쪽방상담소 이용정도 (지역별)	324
〈표 4-4-47〉	쪽방상담소 이용정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25
〈표 4-4-48〉	쪽방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 여부	326
〈표 4-4-49〉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별)	327
〈표 4-4-50〉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28
〈표 4-4-51〉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지역별)	329
〈표 4-4-52〉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29
〈표 4-5-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서 필요한 도움 항목의 수 (거처유형별)	330
〈표 4-5-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거처유형별)	331
〈표 4-5-3〉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서 필요한 도움 항목 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33
〈표 4-5-4〉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34
〈표 4-5-5〉	노숙 이전/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거처유형별)	337

〈표 4-5-6〉 노숙 이전/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40
〈표 4-5-7〉 쪽방주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343
〈표 4-5-8〉 노숙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거처유형별)	343
〈표 4-5-9〉 노숙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45
〈표 4-5-10〉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 1, 2순위 (거처유형별)	346
〈표 4-5-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 1,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48
〈표 4-5-12〉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중 상위 3개 서비스(거처유형별)	349
〈표 4-5-13〉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중 상위 3개 서비스(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50
〈표 4-5-14〉 서비스 정보 접근 경로 (거처유형별)	351
〈표 4-5-15〉 서비스 정보 접근 경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52
〈표 4-5-16〉 가장 필요한 지원 (거처유형별)	353
〈표 4-5-17〉 가장 필요한 지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54
〈표 4-5-18〉 식사해결방법 (거처유형별)	355
〈표 4-5-19〉 식사해결방법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56
〈표 4-5-20〉 가족/친지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358
〈표 4-5-21〉 가족/친지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359
〈표 4-5-22〉 비노숙인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360
〈표 4-5-23〉 비노숙인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361
〈표 4-5-24〉 노숙인 친구/동료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362
〈표 4-5-25〉 노숙인 친구/동료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363
〈표 4-5-26〉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이용시설 노숙인 포함)	363
〈표 4-5-27〉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364
〈표 4-5-28〉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 여부 (거처유형별)	364
〈표 4-5-29〉 거리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 여부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365
〈표 4-5-30〉 오늘 밤 잘 장소 (거처유형별)	365
〈표 4-5-31〉 오늘 밤 잘 장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66
〈표 4-5-32〉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 1, 2순위 (거처유형별)	367
〈표 4-5-33〉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 1,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68
〈표 4-5-34〉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잠자리 유형별)	369
〈표 4-5-35〉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거처유형별)	370
〈표 4-5-36〉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71
〈표 4-5-37〉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거처유형별)	372
〈표 4-5-38〉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72
〈표 4-5-39〉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거처유형별)	373

〈표 4-5-40〉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거처유형별)	374
〈표 4-5-41〉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75
〈표 4-5-42〉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75
〈표 4-5-43〉 가장 중요한 생활시설 입소 이유 (거처유형별)	376
〈표 4-5-44〉 가장 중요한 생활시설 입소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77
〈표 4-5-45〉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거처유형별)	378
〈표 4-5-46〉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79
〈표 4-5-47〉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거처유형별)	380
〈표 4-5-48〉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81
〈표 4-5-49〉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거처유형별)	381
〈표 4-5-50〉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82
〈표 4-6-1〉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워진 정도 (거처유형별)	383
〈표 4-6-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워진 정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84
〈표 4-6-3〉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워진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385
〈표 4-6-4〉 하루 마스크 착용 시간	386
〈표 4-6-5〉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387
〈표 4-6-6〉 광역자치단체별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388
〈표 4-6-7〉 긴급재난지원금 유무 (중앙정부, 지자체) (거처유형별)	389
〈표 4-6-8〉 긴급재난지원금 유무 (중앙정부, 지자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390
〈표 4-6-9〉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유무 (중앙정부, 지자체)	391
〈표 4-7-1〉 노숙인 등의 규모 (2016년도, 2021년도)	393
〈표 4-7-2〉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의 규모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394
〈표 4-7-3〉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395
〈표 4-7-4〉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396
〈표 4-7-5〉 거리노숙인 성별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396
〈표 4-7-6〉 생활시설 노숙인 성별 및 생애주기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397
〈표 4-7-7〉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398
〈표 4-7-8〉 생활시설 연고자 및 주민등록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398
〈표 4-7-9〉 쪽방주민 성별 및 생애주기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399
〈표 4-7-10〉 쪽방주민 주민등록, 가구원 수 및 기초보장 현황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399
〈표 4-7-11〉 거리노숙인 현재 근로활동상태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400
〈표 4-7-12〉 생활시설 노숙인 현재 근로활동상태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400
〈표 4-7-13〉 쪽방주민 및 노숙인 등 전체 현재 근로활동상태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401
〈표 4-7-14〉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2016년도, 2021년도)	401

〈표 4-7-15〉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여부 (2016년도, 2021년도)	402
〈표 4-7-16〉 거처유형별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상위 3개 항목 (1순위, 2016년도)	403
〈표 4-7-17〉 거처유형별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상위 3개 항목 (1순위, 2021년도)	403
〈표 4-7-18〉 거처유형별 주관적 건강상태 (2016년도, 2021년도)	404
〈표 4-7-19〉 몸이 아플 때 대처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음'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404
〈표 4-7-20〉 유병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질환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405
〈표 4-7-21〉 치료경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질환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406
〈표 4-7-22〉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1순위 상위 3개 항목 (2016년도)	407
〈표 4-7-23〉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1순위 상위 3개 항목 (2021년도)	407
〈표 4-7-24〉 생활시설 노숙인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2016년도, 2021년도)	408
〈표 4-7-25〉 생활시설 노숙인의 옮기고 싶은 거처 (2016년도, 2021년도)	409
〈표 4-7-26〉 쪽방 생활 시작한 시기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410
〈표 4-7-27〉 쪽방주민 주거비 현황 (2016년도, 2021년도)	410
〈표 4-7-28〉 쪽방계속 거주 의사 (2016년도, 2021년도)	411
〈표 4-7-29〉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2016년도, 2021년도)	411
〈표 4-7-30〉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2016년도, 2021년도)	411
〈표 4-7-31〉 노숙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2016년도, 2021년도)	412
〈표 4-7-32〉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상위 3개 항목 (2016년도)	413
〈표 4-7-33〉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상위 3개 항목 (2021년도)	413
〈표 4-7-34〉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상위 3개 항목 (2016년도)	414
〈표 4-7-35〉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상위 3개 항목 (2021년도)	414
〈표 5-1-1〉 연차별 집계에서 나타난 노숙인 등 규모	418
〈부표 1〉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응답자 수	475
〈부표 2〉 거리노숙인 노숙 경험	476
〈부표 3〉 면접조사에 참여한 거리노숙인이 있는 거점 수	476
〈부표 4〉 거점 당 '본인 포함 잠을 자는 노숙인 수' 응답 분포	477
〈부표 5〉 거점 당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 노숙인 수 차이	478

그림 목차

[그림 1] 2021년도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8
[그림 2] 지역별 노숙인 규모 (쪽방주민 제외)	9
[그림 3]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	10
[그림 4] 지역별 생활시설 노숙인 규모	11
[그림 5] 지역별 쪽방주민 규모	12
[그림 6] 거주유형별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2016년도 비교)	13
[그림 7] 노숙인 등의 규모 추이	14
[그림 8] 생활시설별 입소기간 현황	15
[그림 9] 생활시설별 노인, 장애인, 병원입원, 청년 비율	16
[그림 10] 거리노숙인 성별 세부장소 현황	17
[그림 11]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 현황	18
[그림 12] 생활시설별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19
[그림 13] 생활시설별 노숙인 의료보장 현황	19
[그림 14] 쪽방주민 성별 연령대 현황	20
[그림 15]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	21
[그림 16] 쪽방주민 지역별 가구원 수 실태	22
[그림 17] 쪽방주민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3
[그림 18] 쪽방주민 지역별 의료보장 현황	24
[그림 19] 거주유형별 현재 근로활동상태	25
[그림 20]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2016년도 비교)	26
[그림 21]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27
[그림 22] 주요 수입원	28
[그림 23]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항목	29
[그림 24]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30
[그림 25]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31
[그림 26] 주관적 건강상태	32
[그림 27] 몸이 아플 때 대처	33
[그림 28] 알코올 의존성 평가	34
[그림 29] 우울증 평가도구 CES-D 11문항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35
[그림 30] 유병률 현황	36
[그림 31]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37

[그림 32] 정신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38
[그림 33] 관절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39
[그림 34] 거리노숙 경험 여부	40
[그림 35] 거리노숙 계기	41
[그림 36] 노숙이전 주거 변화	42
[그림 37]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43
[그림 38] 노숙 중 피해 경험	44
[그림 39]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보증금 및 임대료	45
[그림 40] 노숙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비교 (2016년도와 비교)	46
[그림 41]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47
[그림 42] 거처유형별 가장 필요한 지원	48
[그림 43] 식사해결방법	49
[그림 44] 일시보호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여부 (2016년도와 비교)	50
[그림 45]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51
[그림 46] 가장 중요한 시설 입소 이유	52
[그림 47] 거처유형별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53
[그림 48] 거처유형별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 (중앙정부, 지자체)	54
[그림 2-2-1] 거리노숙인 거점 및 규모 파악 작성양식	78
[그림 2-2-2] 거리노숙인 조사지역 선정 과정	79
[그림 3-1-1] 노숙인 등의 규모	110
[그림 3-1-2] 노숙인 등의 규모 추이 (2009~2021)	114
[그림 3-1-3] 노숙인 규모 추이 (2009~2021)	115
[그림 3-3-1] 생활시설 노숙인 중 노인(65세 이상) 비율	134
[그림 3-3-2]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20~39세) 비율	135
[그림 3-3-3] 생활시설별 노숙인 입소기간 현황	140
[그림 3-3-4] 생활시설 노숙인 유연고자 형태	147
[그림 3-4-1]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153

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배경 및 목적

- ❶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7조 및 제9조).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공공 및 민간 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등임(「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❷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등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노숙인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첫째, 「노숙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노숙인 등의 정의에 기반하여 노숙인 등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함.
 - 둘째, 「노숙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노숙인 실태조사 항목을 고려하고 최근의 변화 등을 반영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등의 인구사회학적·노숙특성·경제·주거·의료·인적 네트워크·복지서비스 등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
 - 셋째, 현행 노숙인 등의 규모, 실태 및 욕구 진단에 기반하여 중·장기 노숙인 등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함의 및 시사점을 제안함.
 - 넷째, 이상을 통해 2021년 예정되어 있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2.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구성

조사구분	목적 및 내용	대상
(1차) 일시집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파악 및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시설명, 노숙인 등의 수, 성별, 연령대, 가족단위 노숙여부 등 조사일시: 2021년 5월 14일(금) 00:00~05:00 조사방법: CAPI(거리, 일부지역 종이조사) 및 웹(시설·쪽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당일 지자체 및 노숙인 시설에 세 차례 확인과정을 통해 확정된 거점에서 숙박하는 거리노숙인 ※ 2020년 10월 간담회, 2020년 11월 예비조사, 2021년 4월 최종 확정 조사당일 노숙인 이용·생활시설에서 숙박한 노숙인 조사당일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한 쪽방주민
(2차)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건강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경제활동, 코로나19 사항 조사기간: 2021년 6월 3일(목) ~2021년 7월 2일(금) 조사방법: CAPI (일부지역 종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집계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등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250명(253명 조사완료) - 시설노숙인 1,200명(1,197명 조사완료) - 쪽방주민 250명(250명 조사완료)

가. 일시집계조사

㉠ 조사대상의 정의

- (거리노숙인) 조사시점에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거리, 텐트, 건물 주변, 공원, 지하도,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이나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계단실, 창고, 차고, 차, 역)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잠자리에 든 사람 및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
- (시설노숙인) 조사당일 이용·생활시설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병원에 입원한 노숙인 과 외출·외박하는 노숙인 포함)
- (쪽방주민) 조사당일 쪽방 상담소에서 파악되고 있는 쪽방주민

㉠ 조사시점

- 2021년 5월 14일 (금) 00:00~05:00

㉠ 조사방식

- (거리노숙인) 현장전문가와 전문조사원이 팀(2인 1팀)을 이루어 사전에 확정된 거점을 조사시점에 방문하여 CAPI(일부 종이조사표 사용)를 활용하여 집계함
- (시설노숙인) 조사 당일 근무자가 기관으로 배부된 고유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 (쪽방주민) 조사 당일 근무자가 기관으로 배부된 고유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 일시집계조사 주요 조사내용

구분	공통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포함)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	쪽방주민
규모 및 일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 성별 - 연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처 세부장소 - 가족 노숙 - 조사장소의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입원중 인원 - 외출·외박하는 인원 - 장애실태 - 코로나19 현황 - 시설에서 잠을 자는 가족수 - 병원 입원중 가족수 - 외출·외박하는 가족수 - 영유아 포함 가족수 - 입소기간 - 주민등록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의료지원 현황 - 연고자 유무 및 유형 - 질병이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현황 (영유아포함 가족수) - 주민등록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의료지원 현황 - 장애 실태 - 코로나19 현황

나. 면접조사

㉠ 조사대상

-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 거리노숙인이 확인된 조사거점에서 표본 추출된 250명
- (시설노숙인) 전국의 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의 노숙인 1,200명
- (쪽방주민) 전국의 10개 쪽방상당소가 있는 지역의 쪽방주민 250명

㉠ 조사기간

- 2021년 6월 3일 (목) ~ 2021년 7월 2일 (금)

㉠ 조사완료 대상 수

- 거리노숙인 253명, 시설노숙인 1,197명, 쪽방주민 250명

㉠ 조사방식

- (거리노숙인) 현장전문가와 전문조사원이 팀(2인 1팀)을 이루어 거리노숙인이 확인된 조사 거점을 방문하여 CAPI(일부 종이조사표 사용)를 활용하여 진행함
- (시설노숙인) 전문 조사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담당자의 현장 지원 및 협조 하에 CAPI(일부 종이조사표 사용)를 활용하여 진행함
- (쪽 방 주 민) 전문 조사원이 쪽방지역을 방문하여 쪽방상당소 담당자의 현장 지원 및 협조 하에 CAPI(일부 종이조사표 사용)를 활용하여 진행함

④ 면접조사 주요 조사내용

구분	공통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포함)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	쪽방주민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 성별 - 연령대 - 직접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처 세부장소 - 가족 노숙 - 조사장소의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입원중 인원 - 외출·외박하는 인원 - 장애실태 - 코로나19 현황 - 시설에서 잠을 자는 가족수 - 병원 입원중 가족수 - 외출·외박하는 가족수 - 영유아 포함 가족수 - 입소기간 - 주민등록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의료지원 현황 - 연고자 유무 및 유형 - 질병이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현황 (영유아포함) - 주민등록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의료지원 현황 - 장애 실태 - 코로나19 현황
경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로상태 및 근로이력 - 지난 4주 내 구직경험 여부 및 방법 - 희망하는 일자리 -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 - 주된 수입원 -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 지난 3개월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 부채 여부, 규모 -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저축 여부 및 규모 			

구분	공통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포함)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	쪽방주민
건강 및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질병 유형별 유무 및 치료여부 -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 병원 가지 못한 이유 - 응급실 이용 및 입원 횟수 - 음주여부 및 빈도, 음주량, 알코올릭 자가진단척도 - 우울척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 경험 있는 경우) 처음 거리노숙 시작 시기 - 거리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 거주한 거주유형 및 변화 이력 - 주거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 현 거처의 면적, 시세, 보증금, 월임대료, 일세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임대료 체납 여부 - 현 거주지 내부시설 - 거처에서 느끼는 불편함 -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 쪽방상담소 이용 정도 - 앞으로 쪽방촌에 거주할 의사 - 계속 살고 싶은 이유 -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구분	공통	거리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포함)	생활시설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	쪽방주민
사회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만족도 - 가장 도움이 됐던 서비스 (1, 2순위) - 서비스 접근경로 - 가장 필요한 지원 - 식사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경험여부 - 오늘밤 잠자리 -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 가장 주요한 시설 입소 이유 -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코로나 19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정도 - 마스크 착용 시간 -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 긴급재난지원금 유무(중앙정부, 지자체) 			

3.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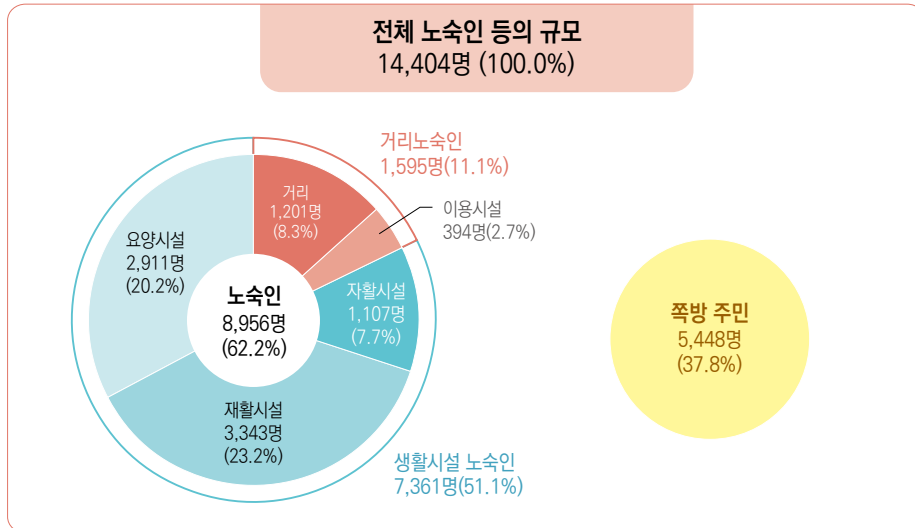
가.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 : 일시집계조사

㉠ 노숙인 등의 규모

- 2021년 5월 14일 기준 일시집계조사 결과, 노숙인 등은 14,404명으로, 이 중 쪽방 주민을 제외한 노숙인은 8,956명(62.2%), 쪽방주민은 5,448명(37.8%)로 집계되었음.
- 노숙인 중 거리노숙인은 1,595명(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포함)으로 11.1%, 생활시설 노숙인은 자활시설 1,107명(7.7%), 재활시설 3,343명(23.2%), 요양시설 2,911명(20.2%)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1] 2021년도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



주: 1) 거리노숙인은 집계 당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과 집계 당시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시설 노숙인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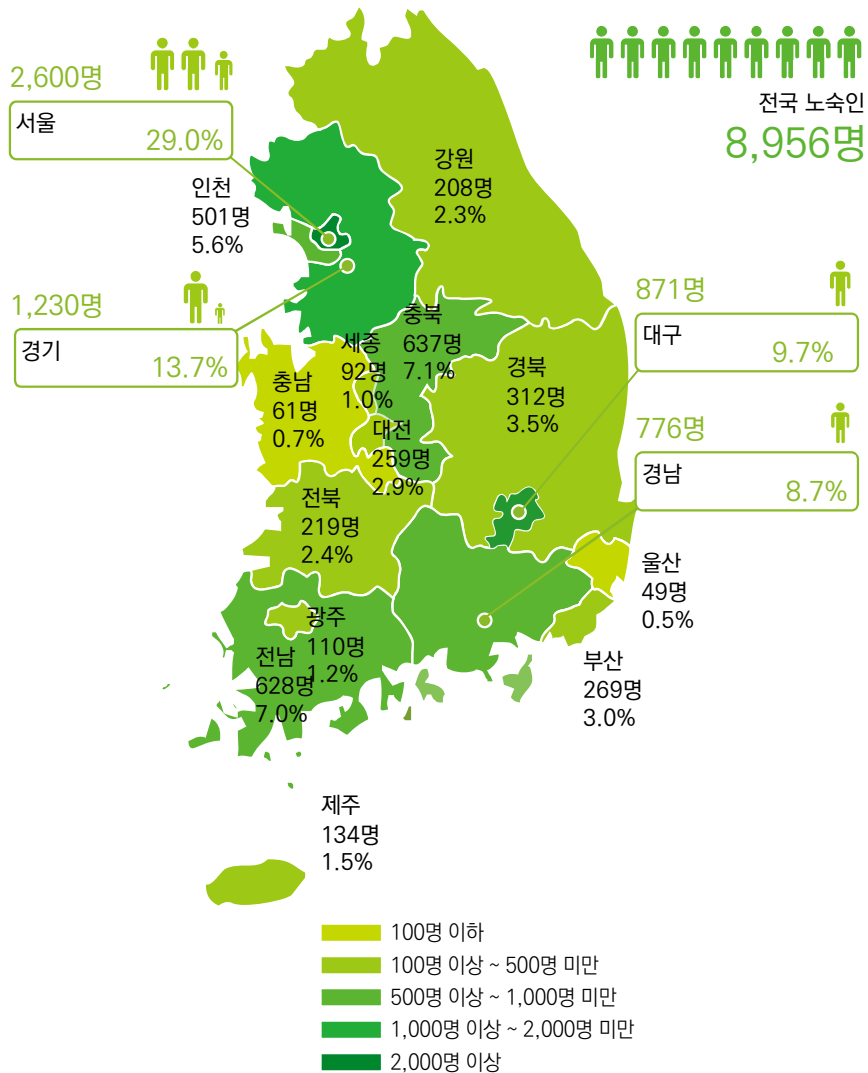
2) 비율은 노숙인 등 전체에 대한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노숙인 규모

- 노숙인(쪽방주민 제외) 중 29.0%에 해당하는 2,600명이 서울에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경기 1,230명(13.7%), 대구 871명(9.7%), 경남 776명(8.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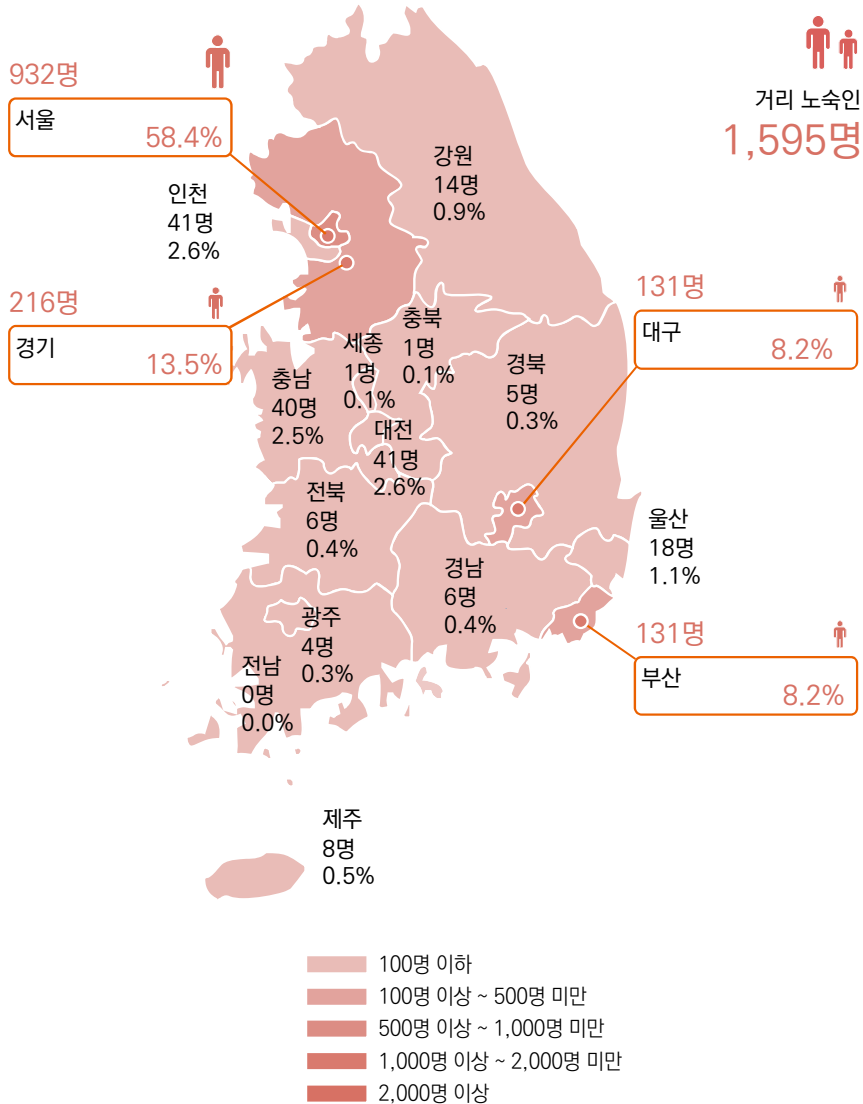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노숙인 규모 (쪽방주민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서울(58.4%), 경기(13.5%)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대구(8.2%) 및 부산(8.2%)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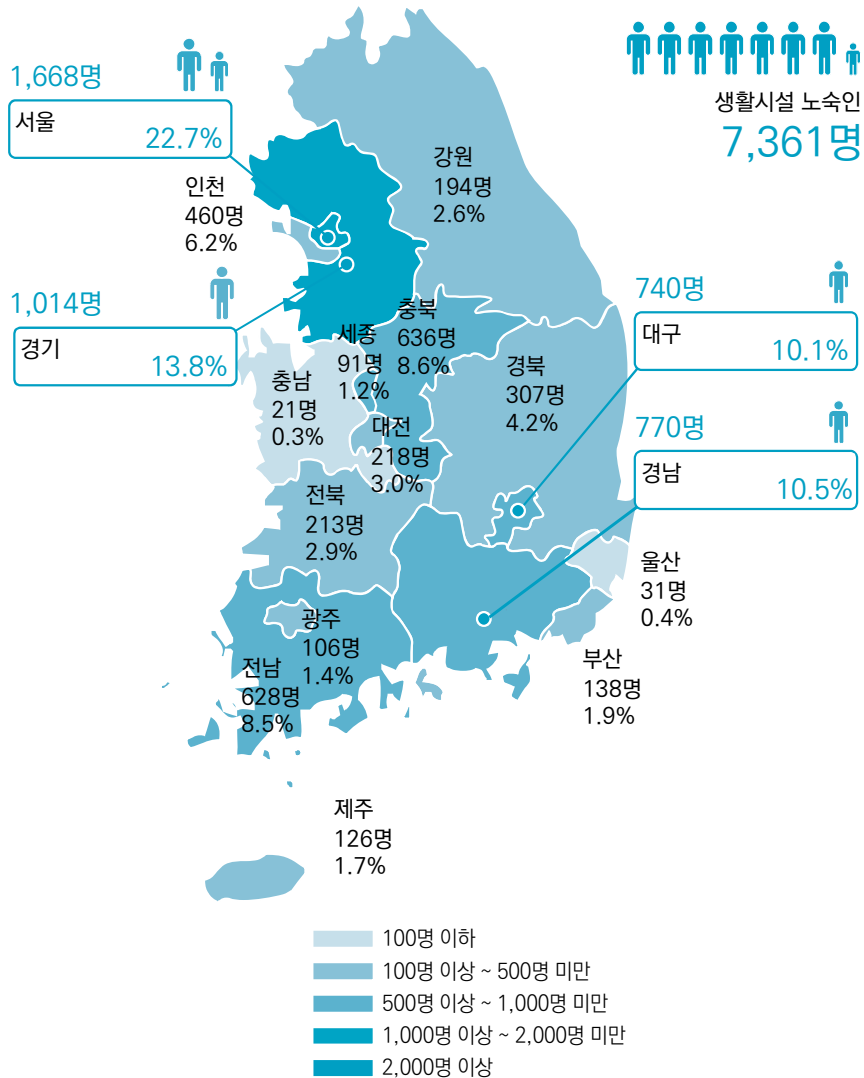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생활시설 노숙인은 서울(22.7%), 경기(13.8%), 경남(10.5%), 대구(10.1%)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그림 4] 지역별 생활시설 노숙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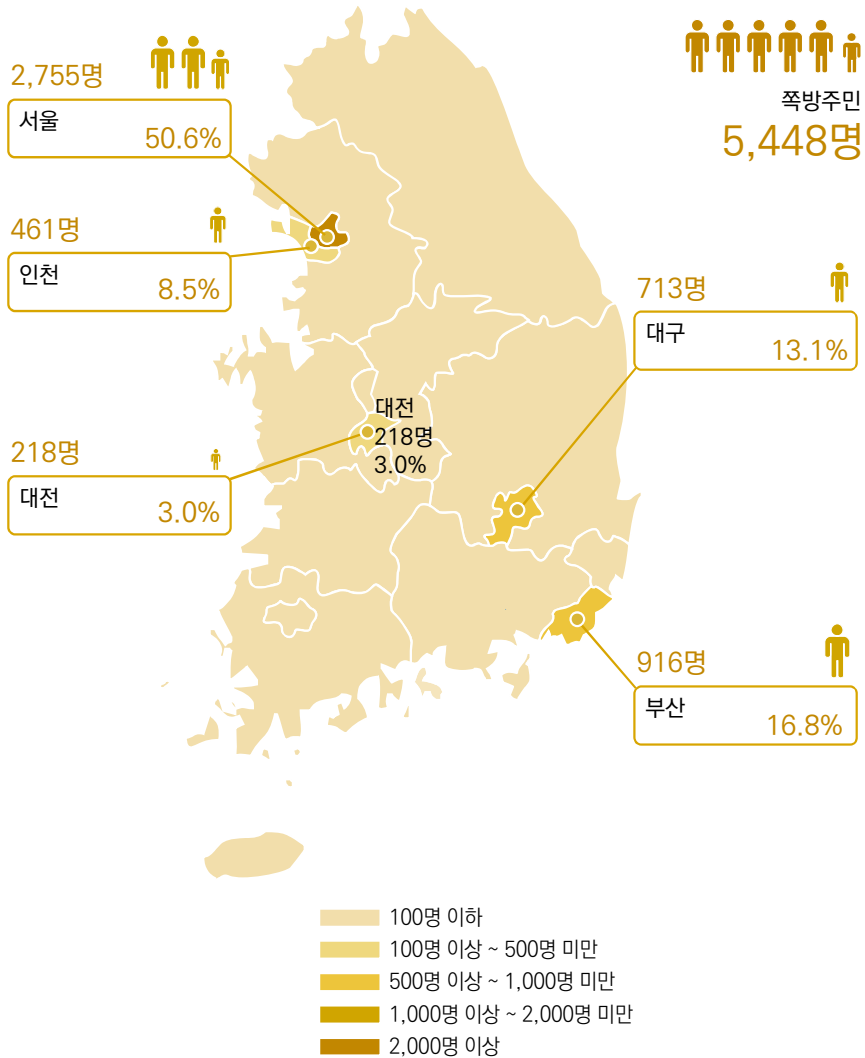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쪽방주민 분포

- 쪽방주민은 쪽방상담소가 있는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서 집계하였으며, 서울에 절반 이상인 2,755명(50.6%)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지역별 쪽방주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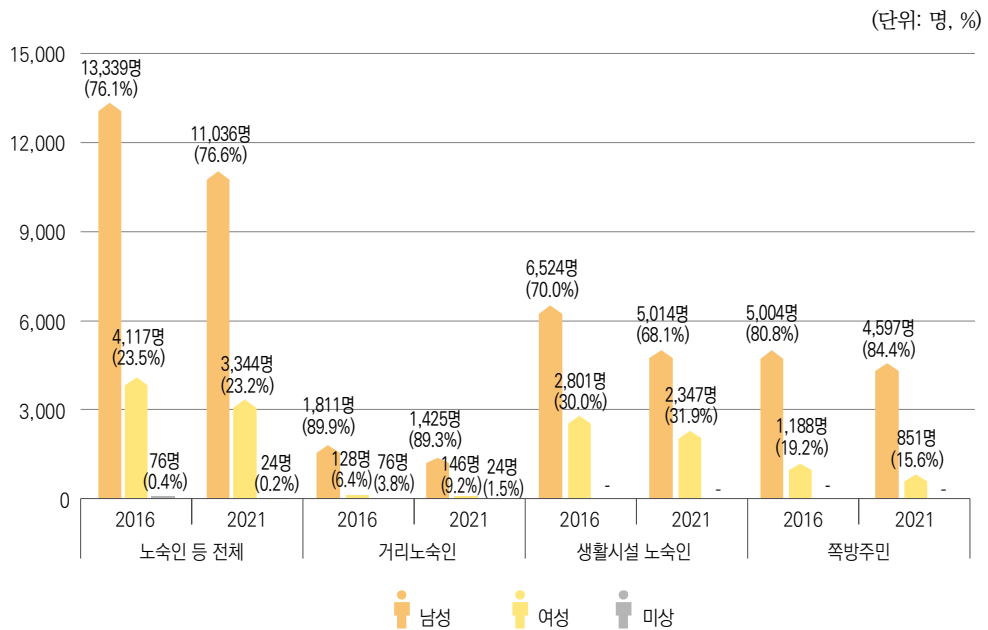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거처유형별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 남성 노숙인 등은 11,036명(76.6%), 여성 노숙인 등은 3,344명(23.2%)로 집계되었으며, 모든 거처 유형에서 성별 절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거리노숙인 여성만 절대수가 증가하였음.
- 2016년과 비교할 때 노숙인 등 전체에서 여성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여성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 6] 거처유형별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2016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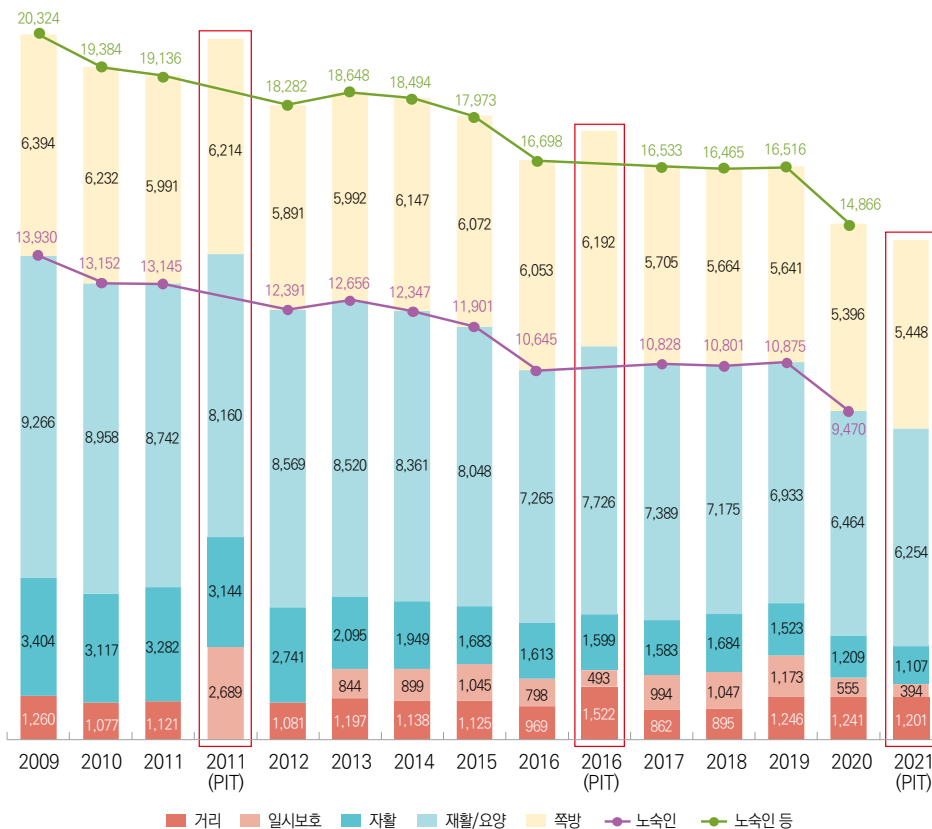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4, p.170, p.185.

④ 노숙인 등의 규모 추이

- 노숙인 등의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연말 지자체로부터 취합하는 데이터와,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제 조사하는 일시집계조사(PIT)로 파악되고 있음.
- 행정자료에 의해 파악한 노숙인 등의 규모는 2009년 20,324명에서 2020년 14,866명으로 11년 사이 5,5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시집계조사로 파악한 노숙인 등의 규모는 2011년 20,207명에서 2016년 17,532명, 2021년 14,404명으로 10년간 5,803명(28.7%)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노숙인 등의 규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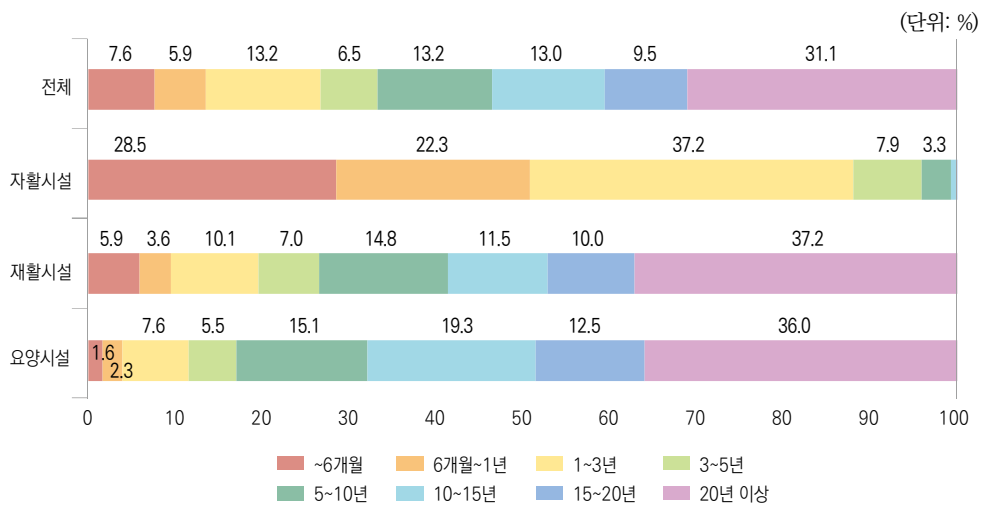
자료: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 연도별).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생활시설별 노숙인 입소기간

-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31.1%이며, 10~15년 13.0%, 15~20년 9.5% 등 10년 이상 장기 입소자 비율이 절반을 넘은 53.6%임.
- 특히 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입소자 중 20년 이상 거주 비율은 각각 36.0%, 37.2%를 나타내 장기간 시설 입소자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자활시설은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훨씬 짧으나 49.2%가 1년을 초과하여 입소하고 있음.

[그림 8] 생활시설별 입소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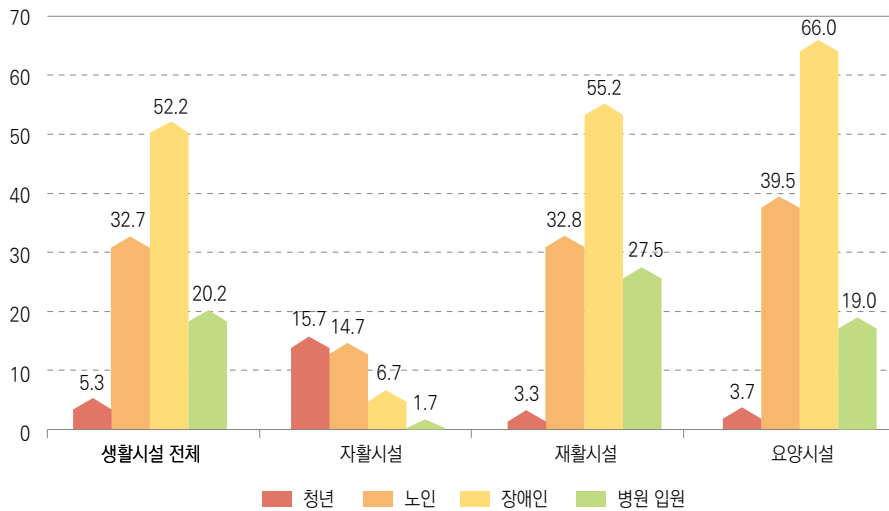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 노인, 장애인, 병원입원 중인 현황

- 생활시설 전체에서 청년 비율은 5.3%인 데 반해 노인 비율은 32.7%이며, 등록장애인은 52.2%, 병원에 입원 중인 입소자는 20.2%임.
- 각 비율은 시설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며 자활시설은 청년 비율이 높고 노인이나 장애인, 병원 입원 중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재활 및 요양시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냄.
- 특히 요양시설은 노인 39.5%, 장애인 66.0%로 요양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림 9] 생활시설별 노인, 장애인, 병원입원, 청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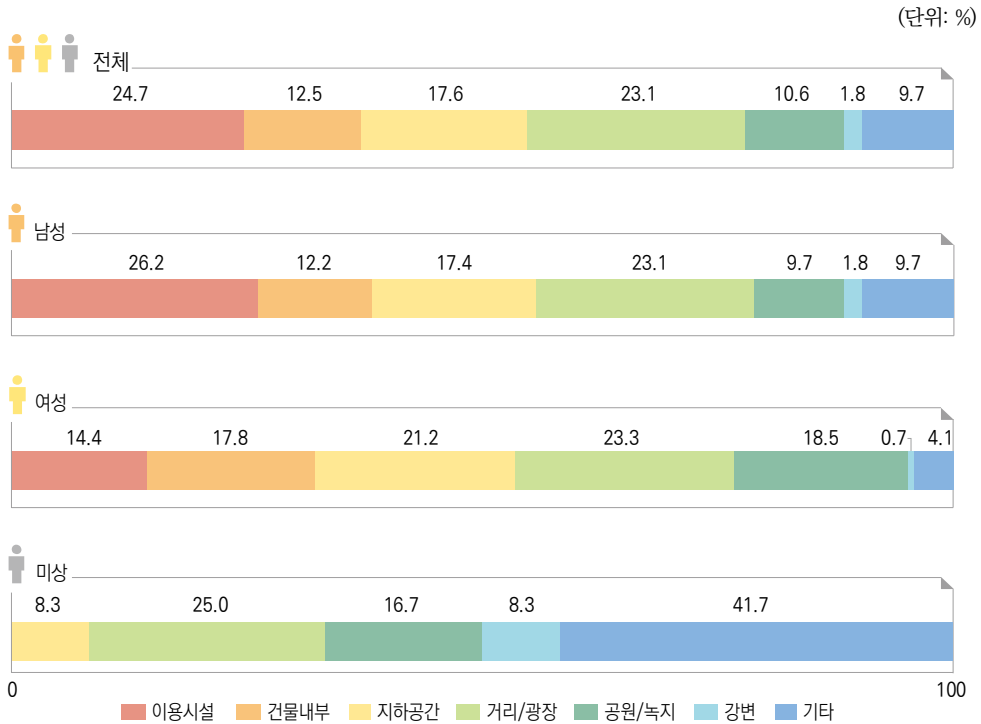


주: 청년, 노인, 장애인, 병원 입원, 노숙인 수의 비율은 각 유형별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를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거리노숙인 성별 세부장소 현황

- 거리노숙인(이용시설 노숙인 포함)의 거처는 이용시설이 24.7%, 거리/광장 23.1%, 지하공간 17.6%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6.2%가 이용시설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거리/광장 23.1%, 지하공간 17.4%의 순인 반면, 여성은 거리/광장이 23.3%, 지하공간 21.2%, 공원/녹지 18.5%, 건물내부 17.8% 순임.

[그림 10] 거리노숙인 성별 세부장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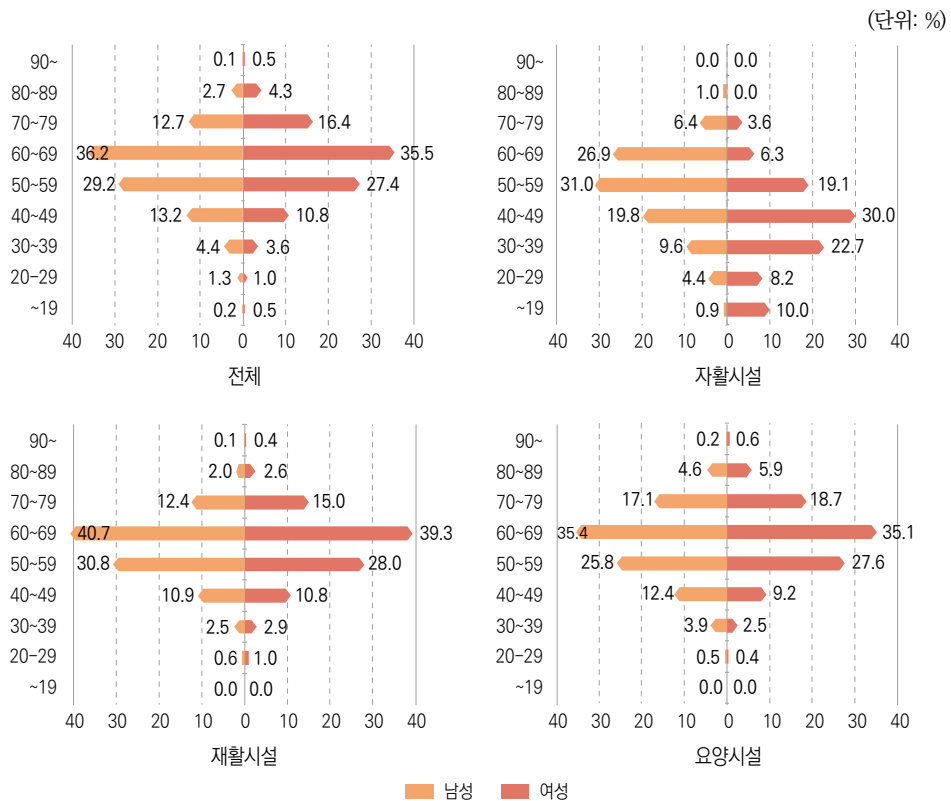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생활시설별 노숙인 연령 현황

- 생활시설의 노숙인 연령 분포는 50대 28.6%, 60대 36.0%, 70대 13.9% 등 50~70대에 집중되어 있음.
- 시설별로는 자활시설은 40대 20.8%, 50대 29.8%, 60대 24.9%, 70대 6.1% 로 상대적으로 젊은 비율이 높으며 재활·요양시설은 각각 50대 30.0%, 60대 40.3%, 70대 13.1%, 요양시설은 50대 26.6%, 60대 35.2%, 70대 17.8%로 고연령층이 많음.
-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70대 이상 비율이 다소 높은 등(남성 15.5%, 여성 21.2%) 높은 연령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

[그림 11]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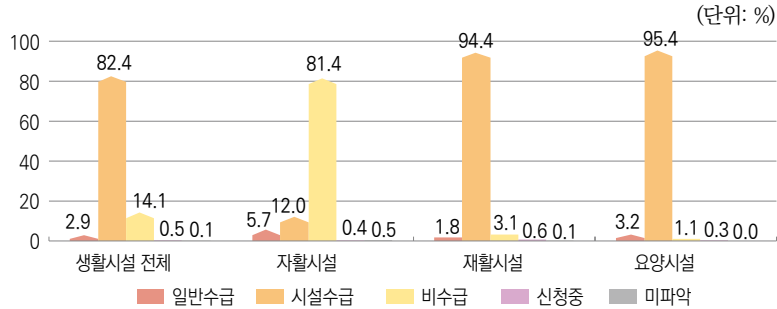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생활시설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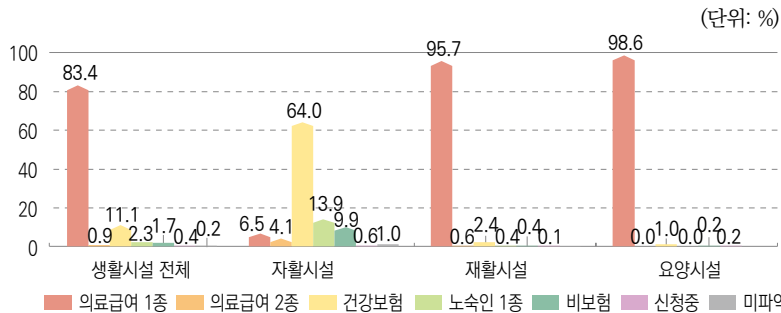
- 생활시설 노숙인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실태는 시설수급이 82.4%이며 일반수급이 2.9%로 노숙인 등 전체의 약 85%가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남.
- 재활 및 요양시설은 95% 정도가 시설 수급자인 반면, 자활시설은 81.4%가 비수급자로 자활시설 입소자 중 상당수가 공공부조제도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음.
- 생활시설별 의료보장 현황
- 생활시설 노숙인의 의료보장 현황으로 전체 83.4%가 의료급여 1종, 그 외 건강보험(11.1%), 의료급여 2종(2.3%) 순이며, 비보험 상태는 1.7%임.
- 재활 및 요양시설은 95% 이상이 의료급여 1종인 반면, 자활시설은 64.0%가 건강보험임.

[그림 12] 생활시설별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그림 13] 생활시설별 노숙인 의료보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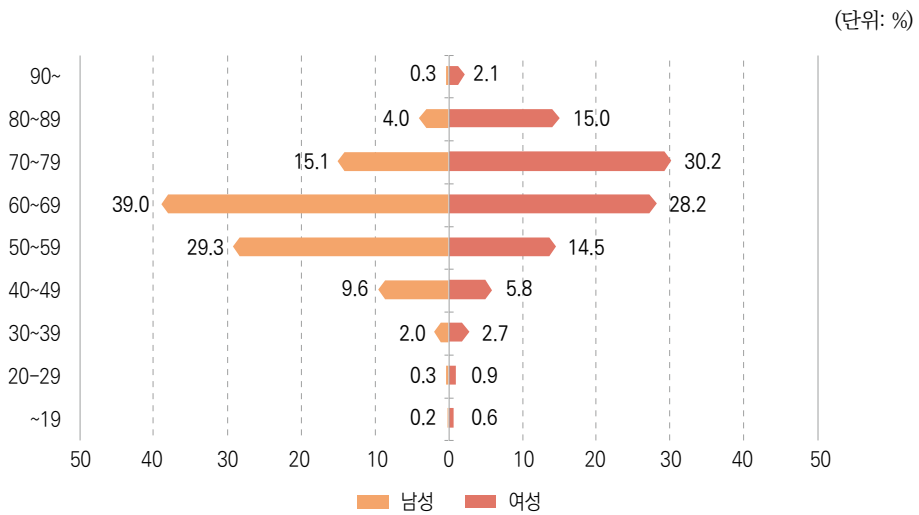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㉔ 쪽방주민 성별 연령대 현황

- 전체 연령대 분포는 50~70대에 약 80%가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동 연령대 비율이 매우 높음.
- 남성보다 여성이 70대 이상 고연령층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80대 이상의 비율도 17.1%에 달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4] 쪽방주민 성별 연령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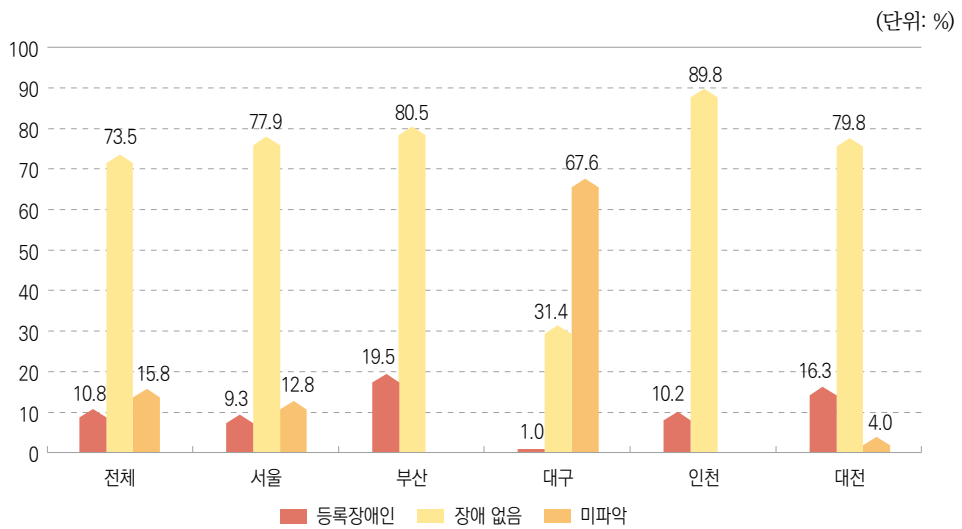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

- 쪽방주민 중 10.8%가 등록된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 9~19%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15]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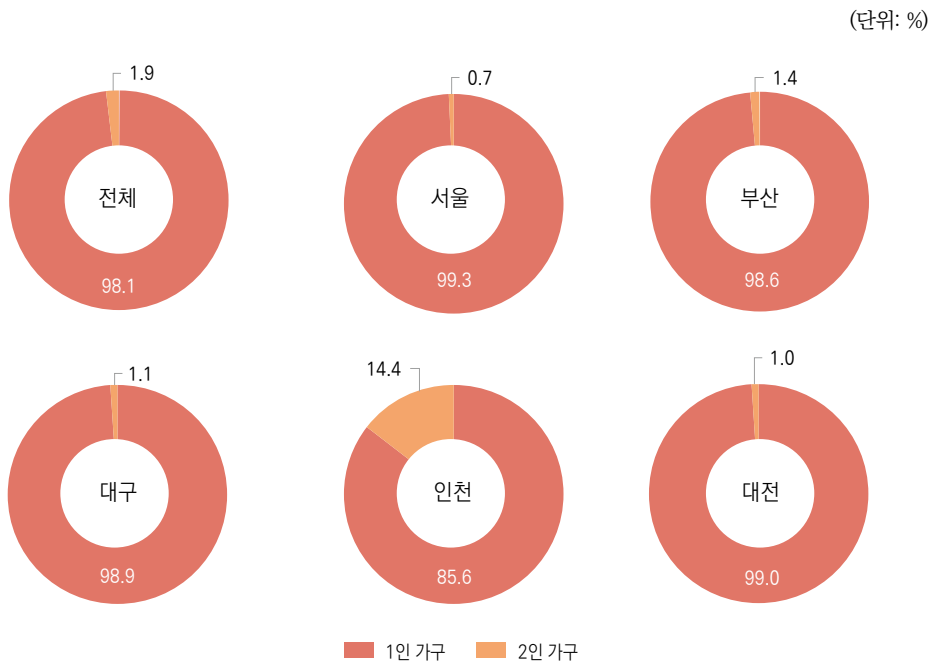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㉞ 쪽방주민 지역별 가구원 수 실태

- 쪽방주민의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인천의 경우 2인 가구가 14.4%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6] 쪽방주민 지역별 가구원 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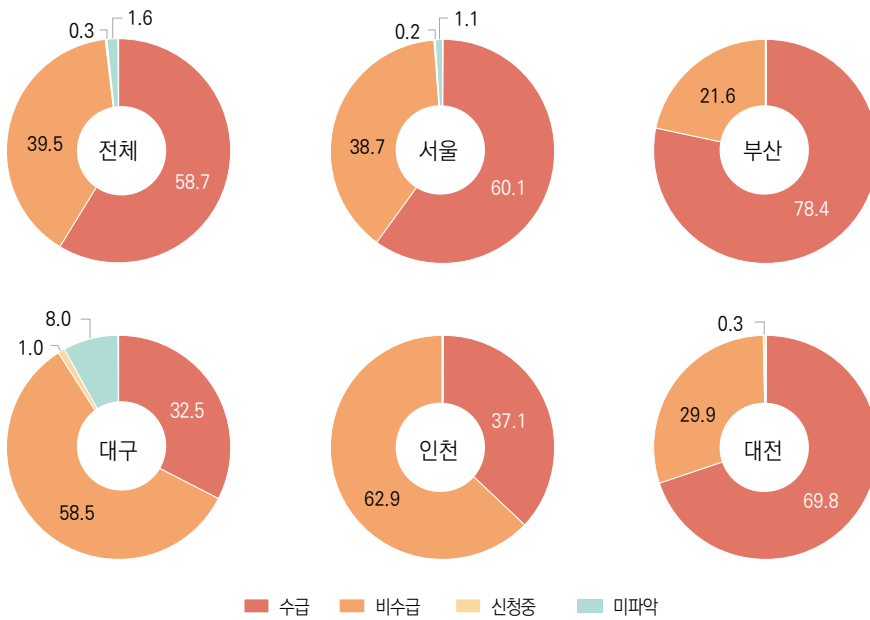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쪽방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쪽방주민 중 58.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전은 60% 이상이 수급자인 반면, 대구와 인천은 절반에 못 미치는 32.5%, 37.1%로 집계되었음.

[그림 17] 쪽방주민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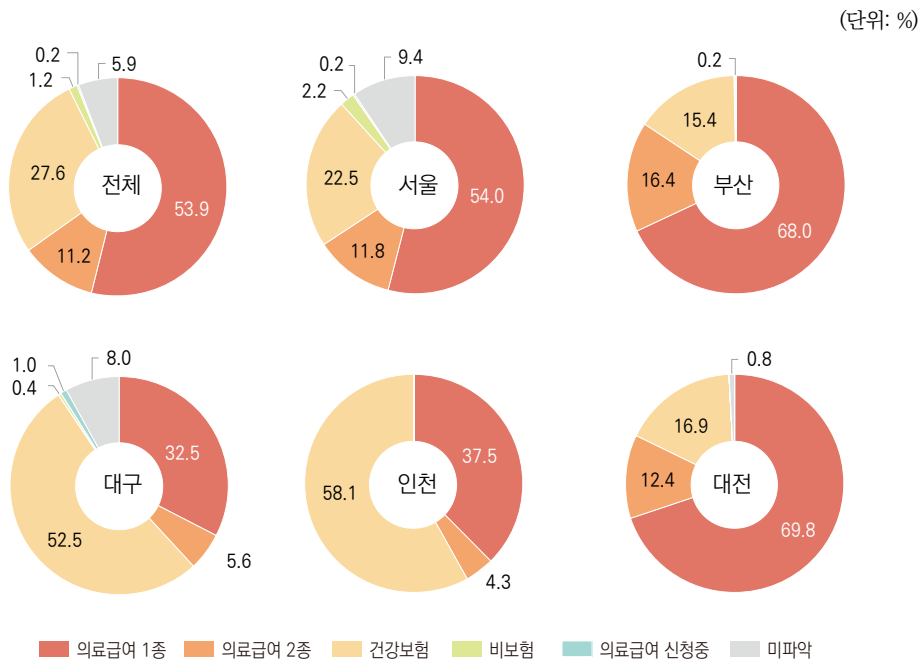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㉞ 쪽방주민 지역별 의료보장 현황

- 쪽방주민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53.9%, 2종 수급자는 11.2%로 전체 약 65% 정도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건강보험 27.6%였으며 비보험인 상태는 1.2%였음.
-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절반을 넘었으며, 대구와 인천은 건강보험 비율이 절반을 넘어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8] 쪽방주민 지역별 의료보장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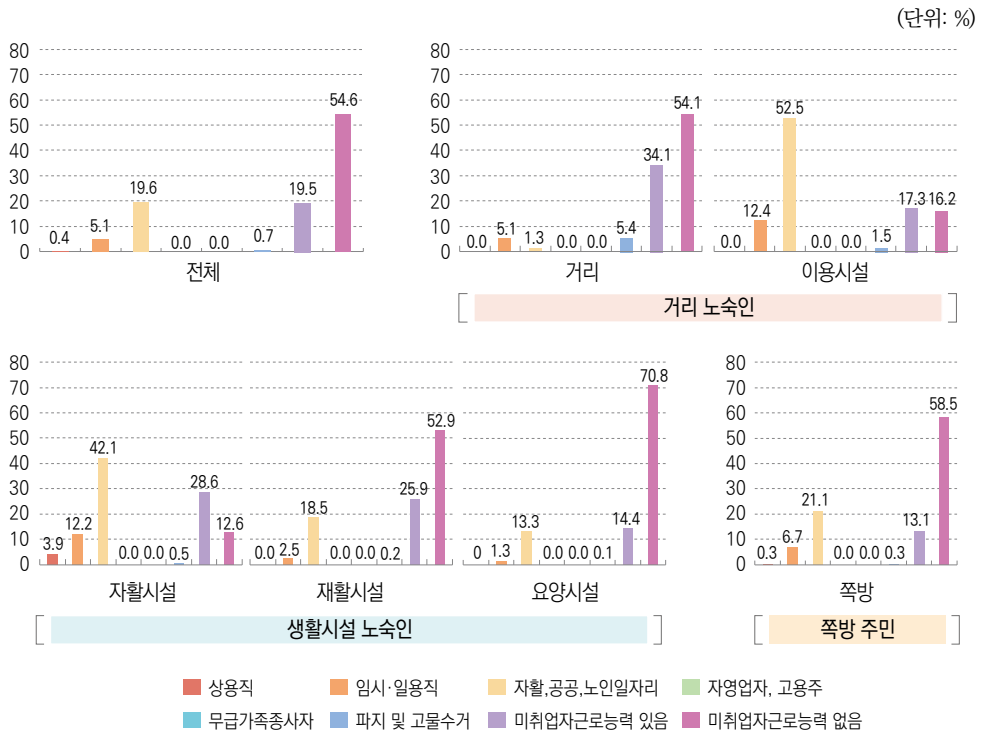
나.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 면접조사

1) 경제활동

㉠ 현재 근로활동상태

- 미취업자가 대다수인 74.1%를 차지(근로능력無 54.6%, 근로능력有 19.5%)하고 있으며, 근로상태 중에는 ‘자활, 공공, 노인일자리’가 19.6%로 다수를 나타내고 있음.
- 이용시설과 자활시설은 미취업자 비율이 각각 33.5%, 41.2%로 낮은 편인 반면, 그 외 거처유형은 모두 미취업자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19] 거처유형별 현재 근로활동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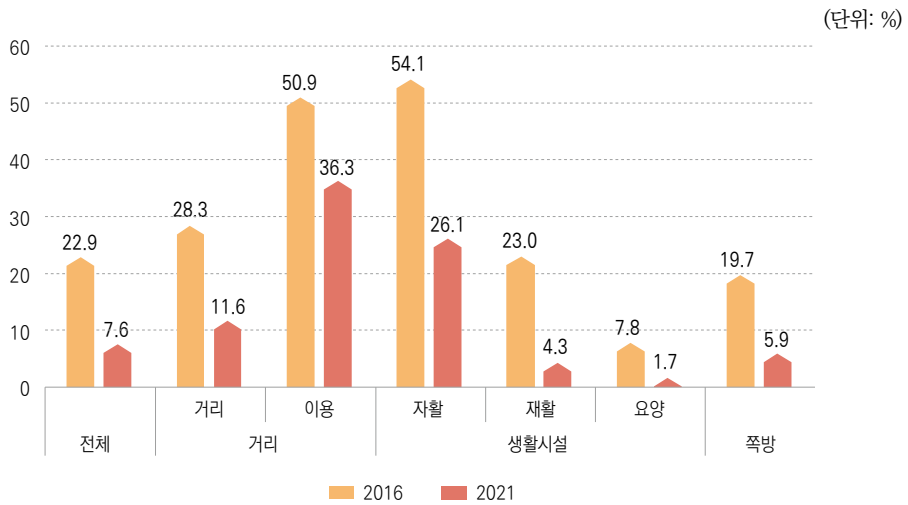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㉔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 일(직장)을 구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전체 7.6%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조사 결과의 22.9%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결과임.
- 또한 모든 거쳐에서 2016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경험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층이 많은 재활, 요양, 쪽방 뿐 아니라 거리노숙인도 최근 구직활동을 한 비율은 매우 낮음.

[그림 20]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2016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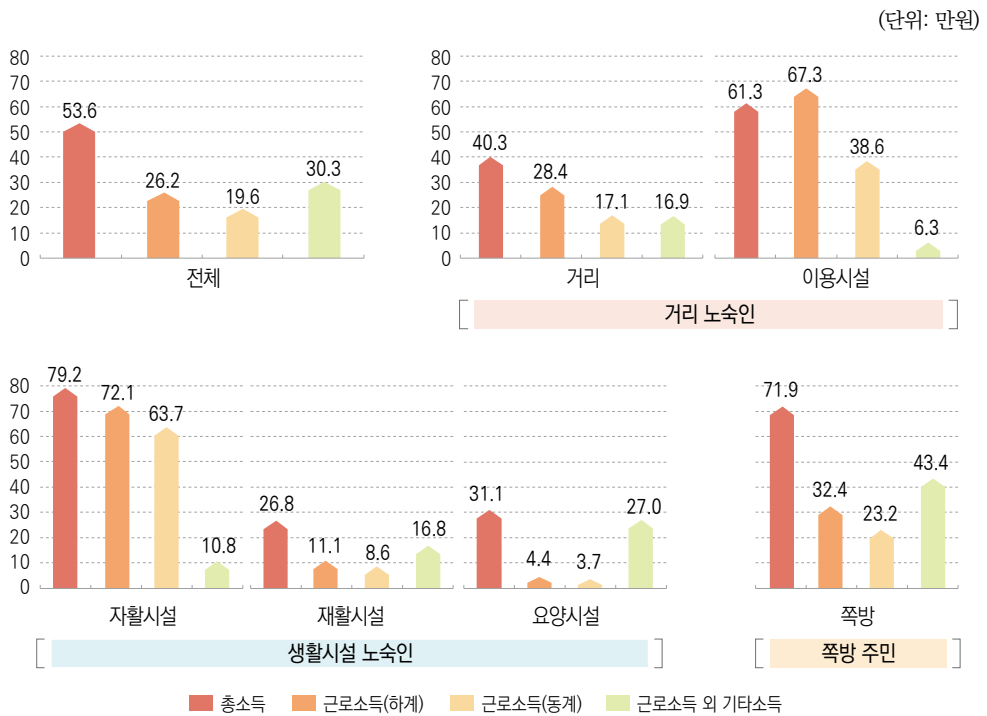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p.198.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 지난 1년간 월평균소득은 전체 5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유형별로는 자활시설이 79.2만원으로 가장 높고, 쪽방주민 71.9만원이 다음이었음.
- 그 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각각 26.8만원, 31.1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을 보였음.

[그림 21]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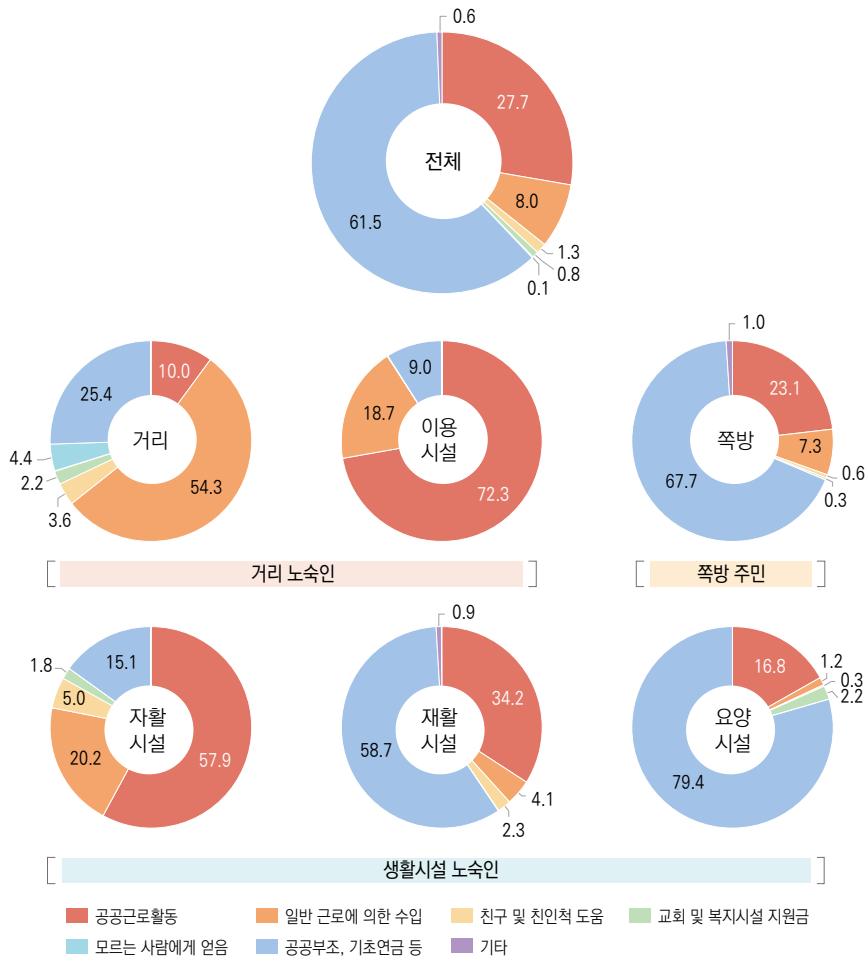
주: 총소득은 하계, 동계의 근로소득을 각각 7개월, 5개월로 나눠 월평균으로 기입한 수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평균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주요 수입원

- 노숙인 등의 주요 수입원 (1순위) 은 공공부조 및 기초연금 등이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공공근로활동 27.7%, 일반근로 8.0% 순이었음.
- 재활과 요양, 쪽방주민은 공공부조 및 기초 연금이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나며, 거리 노숙인은 일반근로, 이용시설 및 자활시설은 공공근로활동의 비율이 높음.

[그림 22] 주요 수입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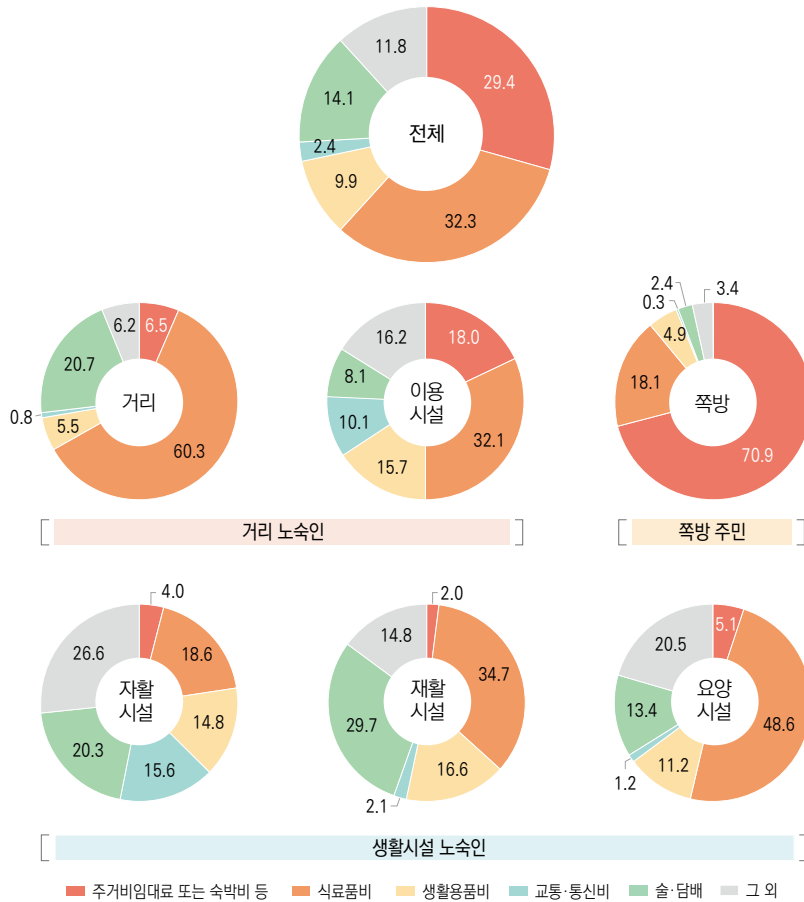
주: 공공근로활동에는 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이, 일반 근로에는 상용 및 임시일용직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항목

- 노숙인 등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출항목(1순위)은 식료품비로 32.3%이며 주거비 29.4%, 술·담배 14.1%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유형별로는 쪽방과 자활시설을 제외하면 식료품비의 비율이 가장 높고, 쪽방은 임대료, 자활시설은 술·담배 비중이 가장 높음.

[그림 23]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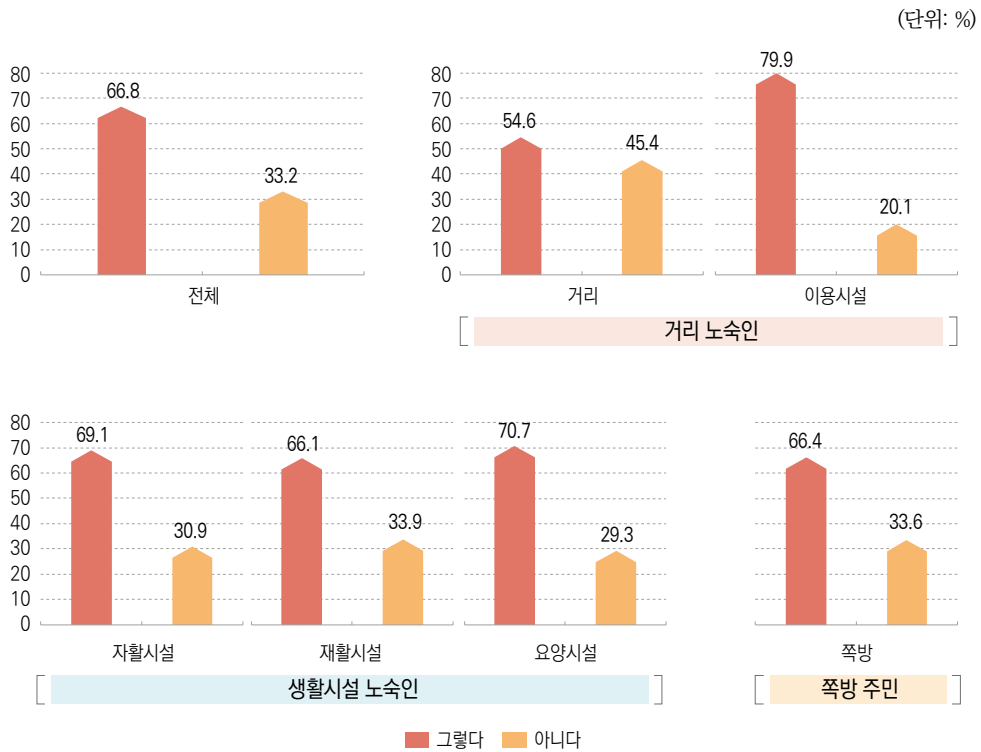


주: 지출 항목은 주거비임대료 또는 숙박비 등,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피복신발비, 생활용품비, 교통·통신비, 술·담배와 그 외 지출로 구성됨(오락게임·도박, 저축, 부채빚 갚기, 가족송금, 기타 지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를 질문한 결과, 노숙인 등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6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음.
- 대부분의 거처유형에서 응답자의 60~70% 정도가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거리노숙인이 가장 낮은 54.6% 비율을 나타내었음.

[그림 24]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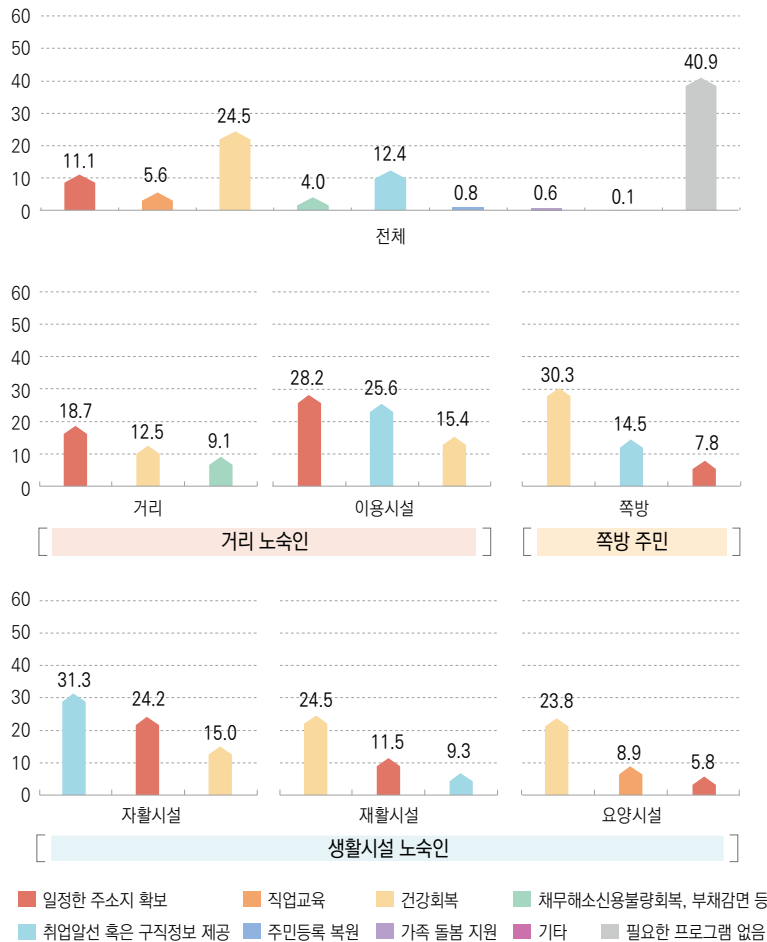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40.9%)을 제외하면 ‘건강회복’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냄.
- 거리노숙인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 쪽방주민과 재활·요양시설은 ‘건강회복’, 자활 시설은 ‘취업알선 및 구직정보 제공’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거주유형별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25]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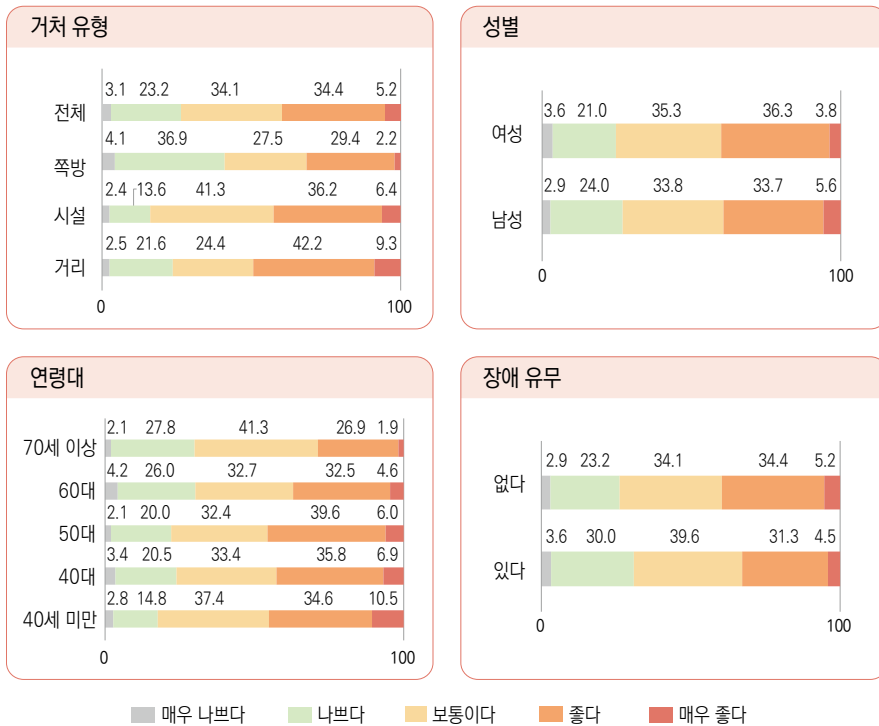
2) 건강 및 의료

㉠ 주관적 건강상태

- 노숙인 등 전체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 5.2%, ‘좋다’ 34.4%, ‘보통이다’ 34.1%, ‘나쁘다’ 23.2%, ‘매우 나쁘다’ 3.1%로 나타남.
- 거처유형별로는 쪽방, 시설, 거리(이용시설 포함) 순으로, 연령대는 대체로 젊을수록 ‘좋다’ 및 ‘매우 좋다’의 비율이 높음.
- 성별은 큰 차이가 없으며 장애유무별로는 ‘장애 없음’이 ‘장애 있음’보다 ‘좋다’ 및 ‘매우 좋다’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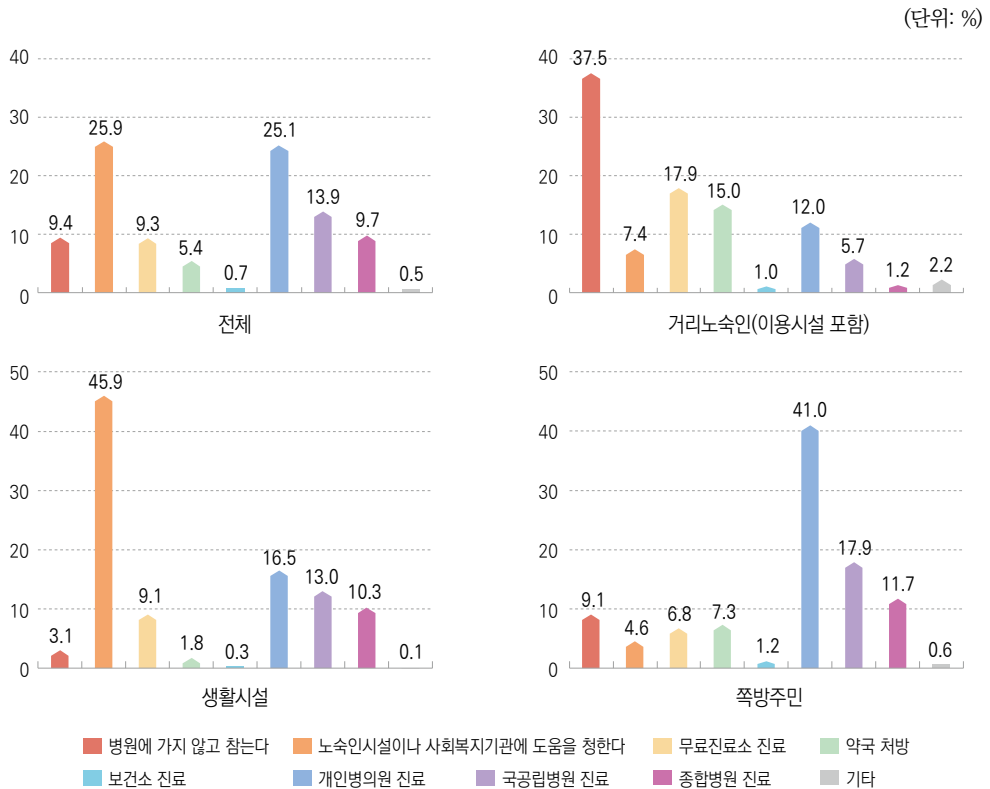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몸이 아플 때 대처

- 노숙인 등 전체에서 ‘노숙인 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개인병의원 진료’로 25.1%였음.
-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은 ‘노숙인 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가 45.9%, 쪽방주민은 ‘개인병의원’이 41.0%로 가장 높았음.

[그림 27] 몸이 아플 때 대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알코올 의존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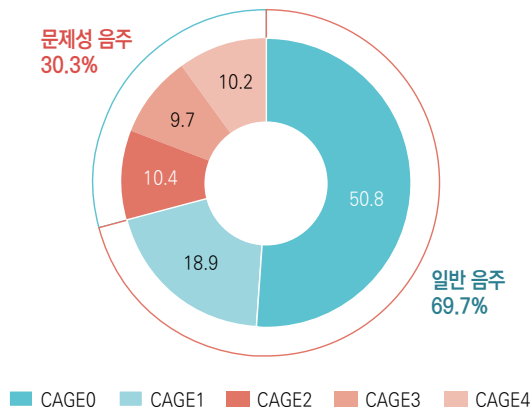
- CAGE 질문에 2개 이상 '그렇다'라 응답하여 '문제성 음주'로 판단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3%로 나타났다.

참고: CAGE 질문은 아래의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이 중 2가지 이상 항목에서 '그렇다'고 응답하는 경우 문제성 음주를 의심할 수 있음

- ① (C: Cut down)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② (A: Annoyed)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 ③ (G: Guilty)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 ④ (E: Eye-opener) 술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그림 28] 알코올 의존성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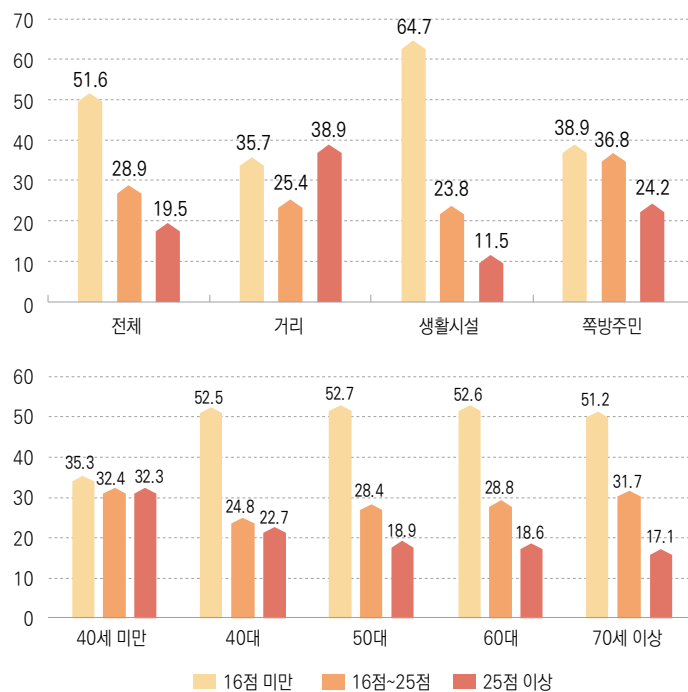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우울증 평가 결과

- 우울증 평가도구 CES-D 11 문항에 따라 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16점 이상)는 전체 48.4%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리는 64.3%, 생활시설은 35.3%, 쪽방주민은 61.0%로 나타나 생활시설을 제외하면, 과반수 이상이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타 연령대에 비해 우울증 비율이 매우 높아 노숙 상태에 있는 청년에 대한 우울증 등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음.

[그림 29] 우울증 평가도구 CES-D 11문항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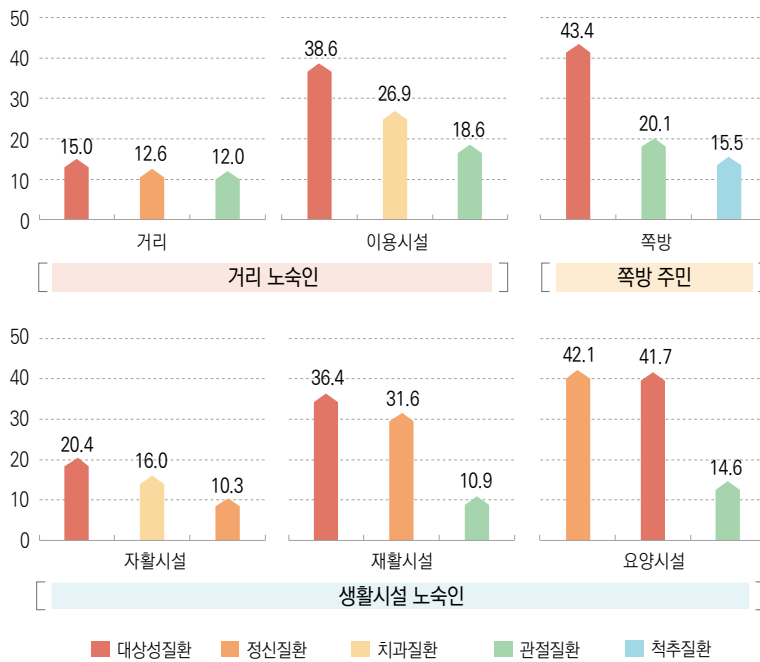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유병률 현황

- 질병 유무에 대해 질문¹⁾한 결과에 대하여 유병비율 상위 3개의 질환을 살펴보면, 노숙인 등 전체에서 대사성 질환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22.5%, 관절질환 15.1%의 순이었음.
- 그 외 거주유형별 상위 3개의 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치과질환(자활, 16.0%), 척추질환(쪽방, 15.5%)이었음.

[그림 30] 유병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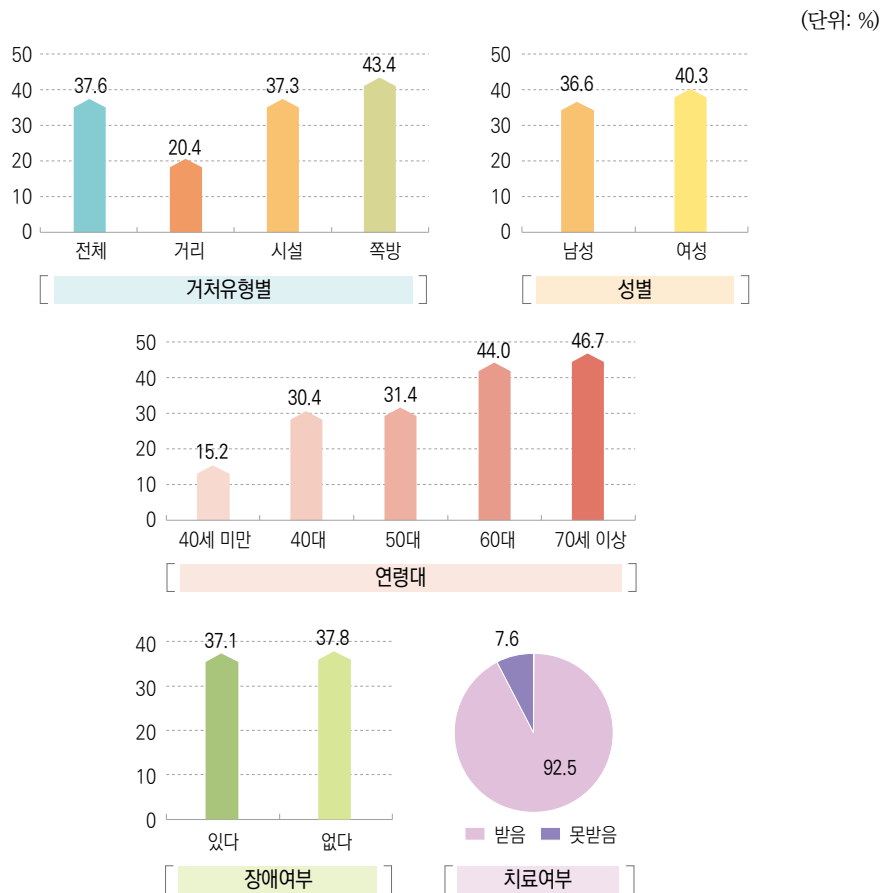


1) 질문에 포함된 질환 항목은 총 19개로 ① 대사성질환 ② 심장질환 ③ 호흡기질환 ④ 간장질환 ⑤ 위장관질환 ⑥ 정신질환 ⑦ 신경계질환 ⑧ 뇌졸중·중풍 ⑨ 관절질환 ⑩ 척추질환 ⑪ 외상 ⑫ 비뇨기계질환 및 부인과질환 ⑬ 암 ⑭ 피부병 ⑮ 기타감염병 ⑯ 눈코목귀 질환 ⑰ 치과질환 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⑲ 기타 임.

④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 노숙인 등 전체에서 가장 유병비율이 높다고 응답된 대사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전체 37.6%가 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유형별로 쪽방주민 43.4%, 생활시설 37.3%, 거리(이용시설 포함) 20.4%의 순이었으며, 연령대는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이 유병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치료경험 비율은 92.5%로 높은 편임.

[그림 31]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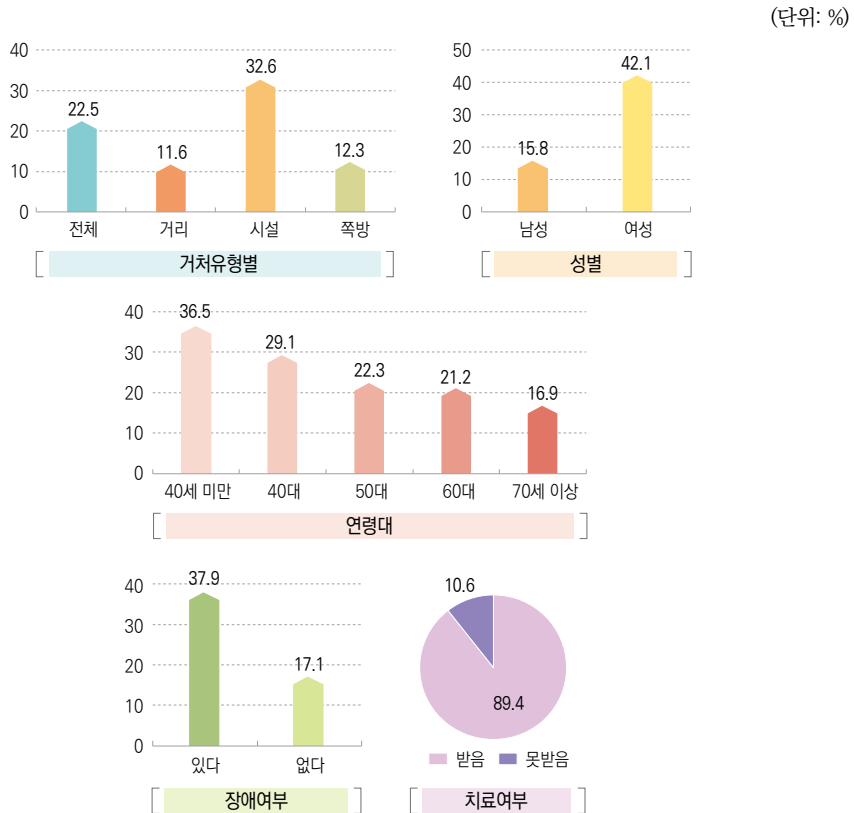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㉔ 정신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 노숙인 등 전체에서 유병비율이 두 번째 높다고 응답된 정신질환(조현병·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은 전체 22.5%가 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유형별로 생활시설 32.6%로 가장 높았으며, 쪽방주민 12.3%, 거리 11.6%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유병비율이 높았음.
- 치료경험 비율은 89.4% 으로 높은 편²⁾임.

[그림 32] 정신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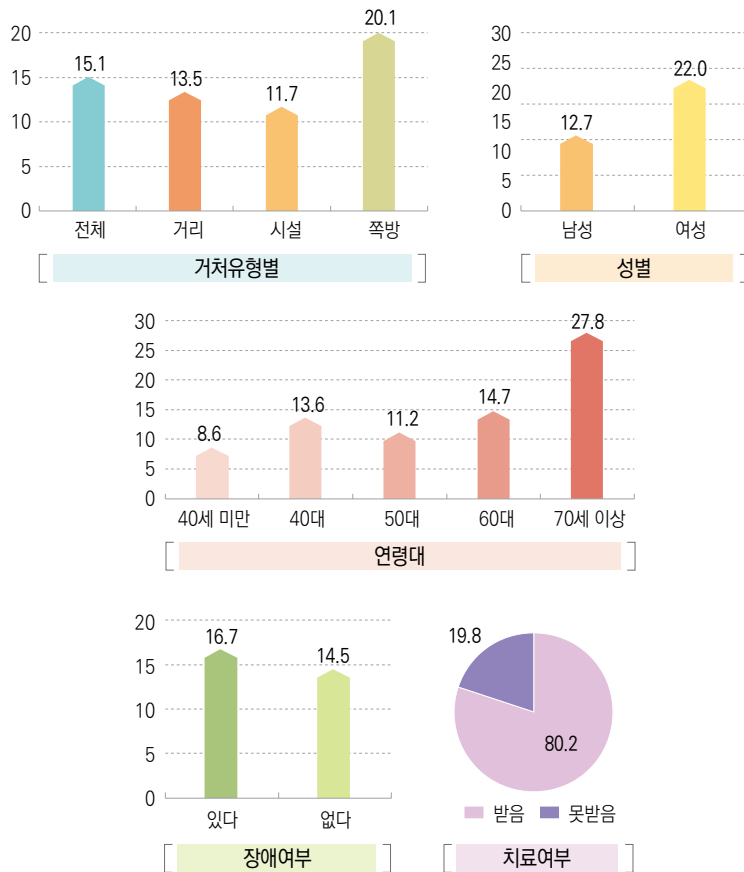
2) 정신질환의 경우 거주 유형별 치료경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생활시설 노숙인은 94.6%, 쪽방주민은 88.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거리노숙(이용시설포함)은 32.1%에 지나지 않아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관절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 노숙인 등 전체에서 유병비율이 세 번째 높다고 응답된 관절질환(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무릎관절질환, 발목관절질환 등)은 전체 15.1%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유형별로 쪽방주민 20.1%, 거리 13.5%, 생활시설 11.7%의 순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유병비율이 높았으며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치료경험 비율은 80.2%로 앞서의 대사성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33] 관절질환 유병상태 및 치료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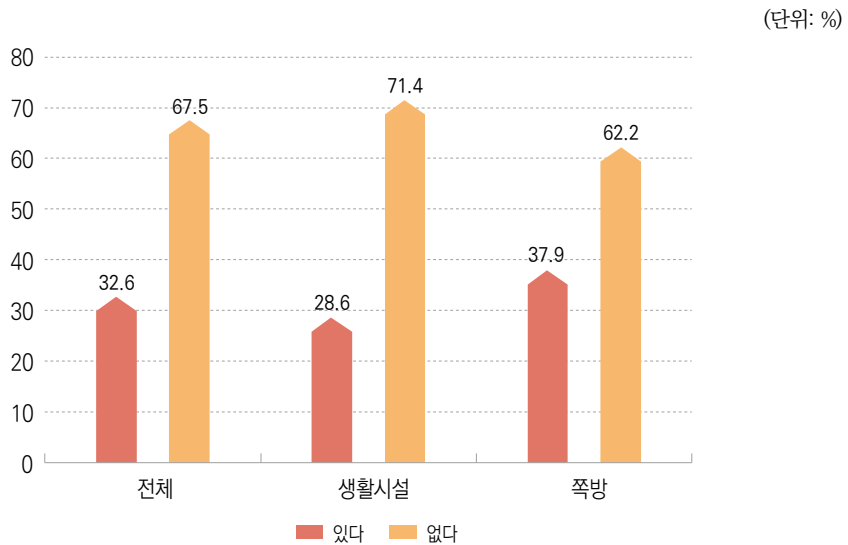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3) 주거

㉠ 거리노숙 경험 여부

- 생활시설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게 과거 거리노숙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32.6%의 응답자가 ‘경험있음’으로 응답하였음.
- 생활시설 노숙인 중 거리노숙 경험자 비율은 28.6%로 거리노숙을 거치지 않은 시설 입소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쪽방주민 중 거리노숙 경험자 비율은 37.9%로 생활시설보다 다소 높음.

[그림 34] 거리노숙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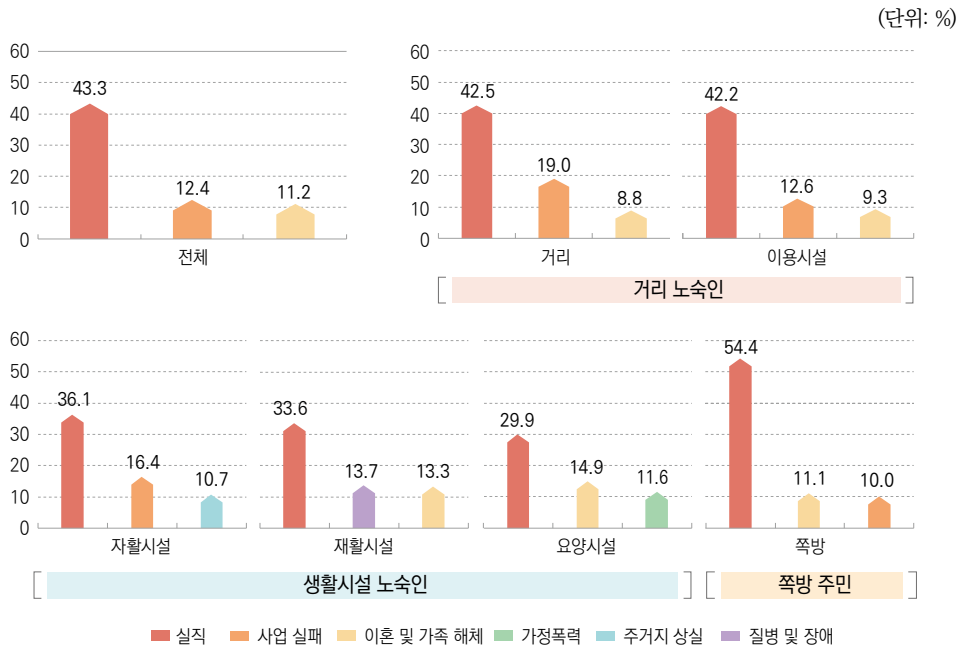
주: 조사시점에 거리노숙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이용시설일시보호/종합지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거리노숙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거리노숙 계기

- 거리노숙 경험자를 대상으로 그 계기를 물어본 결과(1순위)³⁾, 실직(43.3%), 사업실패(12.4%), 이혼 및 가족해체(11.2%)의 순으로 나타남.
- 거리노숙인은 실직(42.5%), 사업실패(19.0%), 이혼 및 가족해체(8.9%) 순이며, 이용시설은 동일한 순서로 각각 42.2%, 12.6%, 9.3%로 거리노숙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
- 생활시설은 모두 실직이 가장 응답률이 높으나, 자활시설은 주거지 상실, 재활시설은 질병 및 장애, 요양시설은 가정폭력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음.
- 쪽방주민은 실직(54.4%), 이혼 및 가족해체(11.1%), 사업실패(1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 거리노숙 계기



주: 거주유형별 거리노숙 계기는 3순위까지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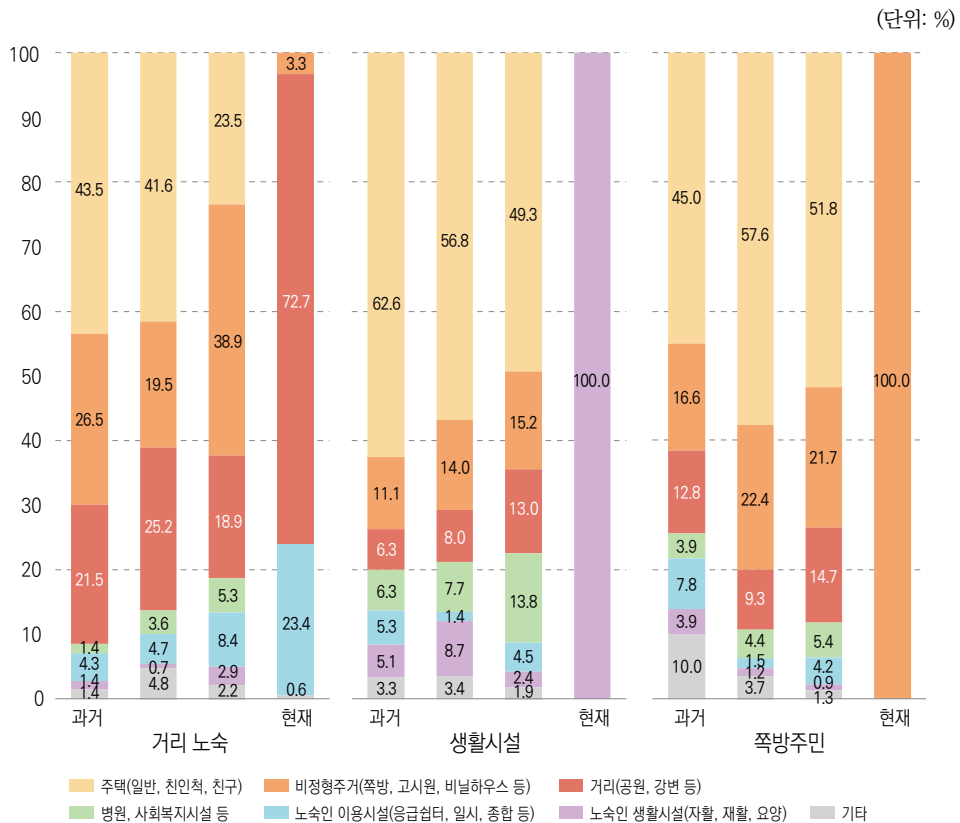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3) 응답 항목은 실직, 사업실패, 이혼 및 가족해체, 배우자 사망, 가정폭력, 성폭력,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신용불량 또는 파산, 주거지 상실, 질병 및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게임 및 도박 중독, 사회복지시설 퇴소, 교정시설 출소임.

㉞ 노숙이전 주거 변화

- 현재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비정형 주거 경험률이 비교적 높으며, 거리와 비정형주거 생활을 반복하다 현재에 이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비정형 주거나 거리 노숙 경험 등 비교적 다양한 열악한 거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설 입소 전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율도 높은 편임.
- 쪽방주민은 주택 이외에 비정형주거나 거리노숙 경험 비율이 높은 편임.

[그림 36] 노숙이전 주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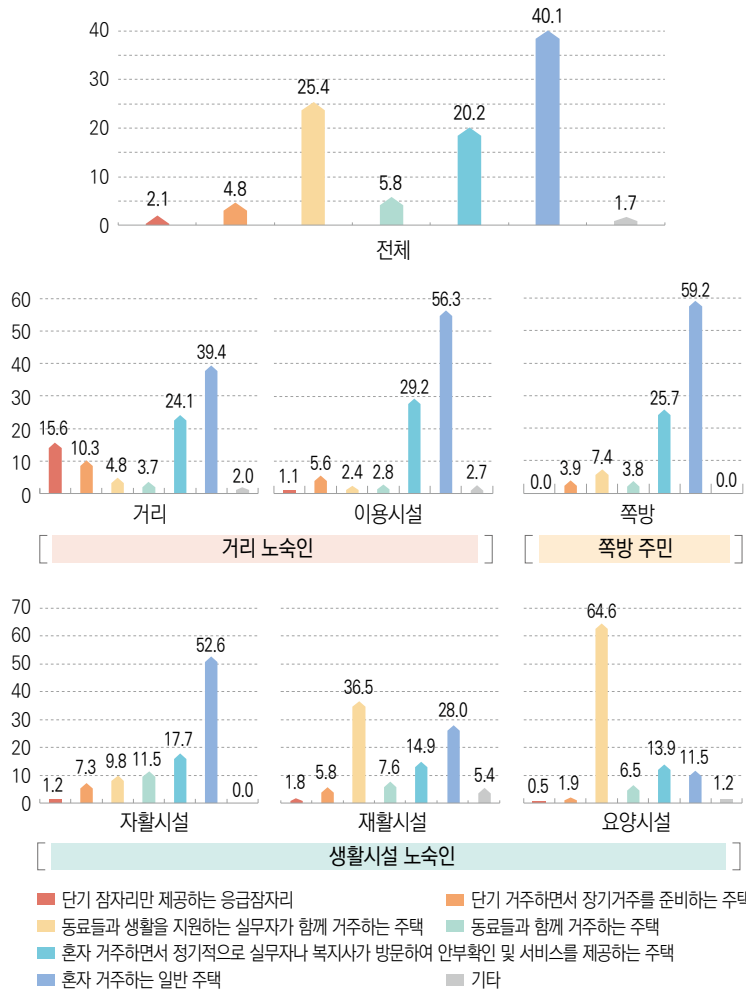
주: '현재'부터 왼쪽으로, '현재의 이전', '현재의 이전의 이전',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과거)'에 해당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 노숙인 등 전체를 살펴보면, ‘혼자 거주하는 일반주택’(40.1%),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25.4%)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재활 및 요양시설은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선호하는 반면,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은 혼자 거주하는 일반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37]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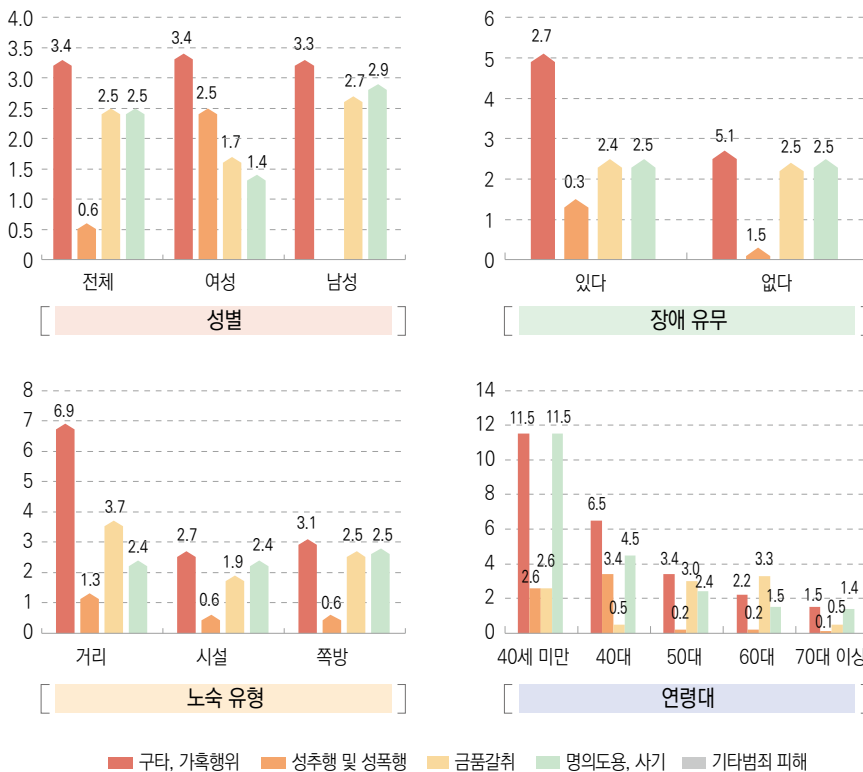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㉔ 노숙 중 피해 경험

- 노숙인 등 전체에서 피해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구타, 가혹행위’(3.4%), ‘금품갈취’ 및 ‘명의도용, 사기’(2.5%), ‘성추행 및 성폭행’(0.6%) 순임.
- 성별로 비교해 보면,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응답은 여성은 2.5%였으며 남성 응답자는 없었으며, ‘금품 갈취’나 ‘명의도용, 사기’는 남성 비율이 높으며 ‘구타, 가혹행위’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음.

[그림 38] 노숙 중 피해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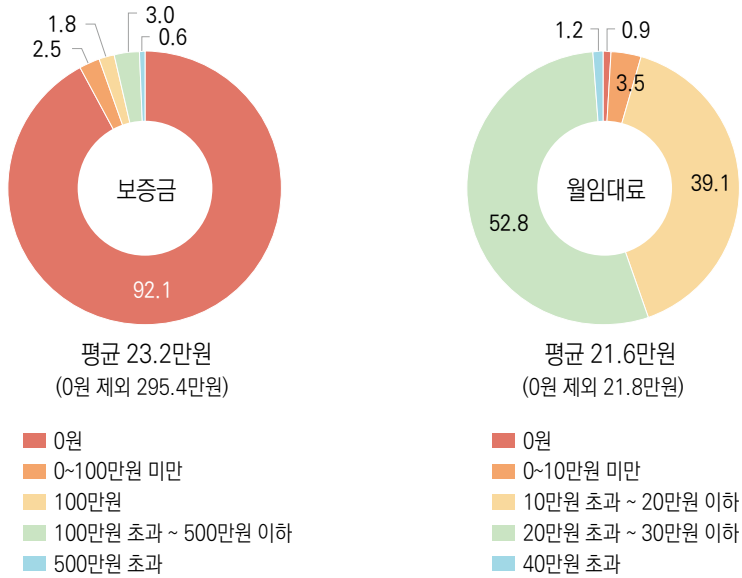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쪽방의 보증금 및 임대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보증금은 평균 23.2만원이나 보증금 0원 비율이 9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0원을 제외한 평균값은 295만 4천원).
- 월임대료는 평균 21.6만원으로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가 52.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음.

[그림 39]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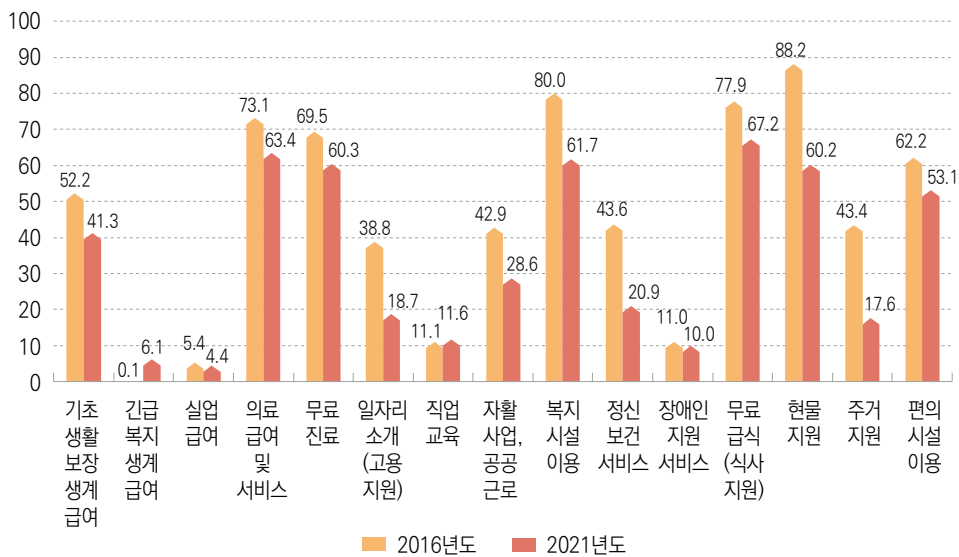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2016년도와 비교)

- 노숙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2016년도에 비해 2021년도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물지원과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 소개 및 고용지원, 주거지원 등의 이용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직업교육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변화에는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그림 40] 노숙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비교 (2016년도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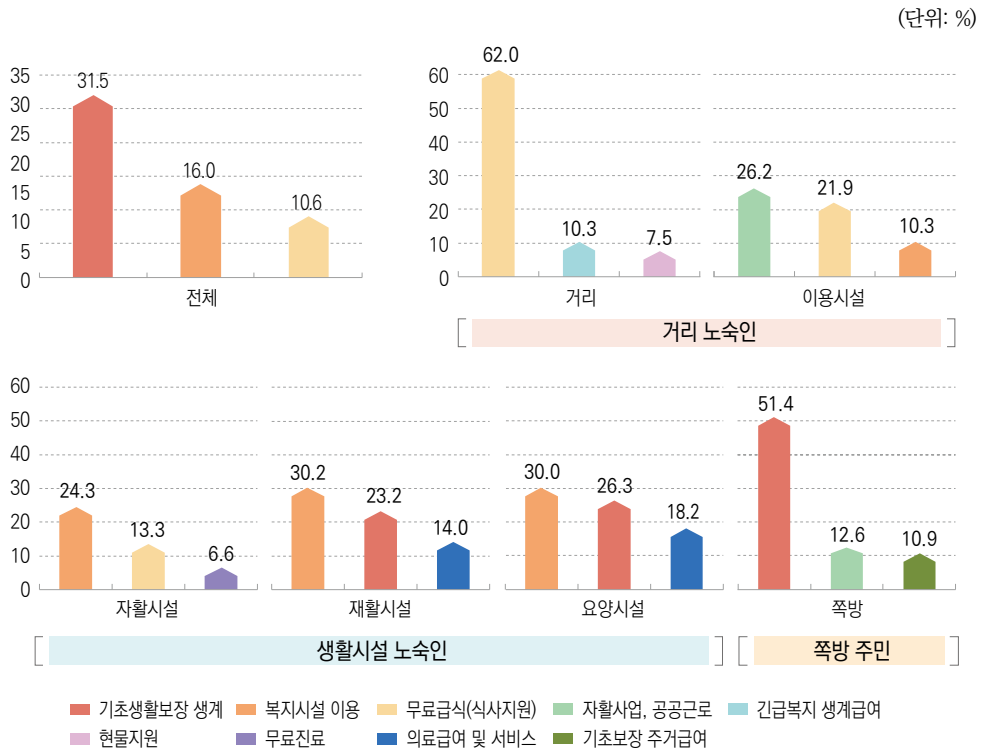


주: 1) 2016년 긴급복지 생계급여는 생계 및 의료지원을 포함
 2) 2016년 주거지원은 임시주거지원을 의미, 2021년 주거지원은 임시주거지원과 임대주택 등을 포함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pp.329-332.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 노숙인 등 전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응답 (31.5%)되었으며 다음 복지시설 이용(16.0%), 무료급식 (10.6%), 의료급여 및 서비스(9.9%) 순으로 나타남.
- 거처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은 무료급식(거리 62.0%, 이용시설 21.9%), 생활시설은 복지시설 이용(자활 24.3%, 재활 30.2%, 요양 30.0%), 쪽방주민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1.4%)로 나타났음.

[그림 41]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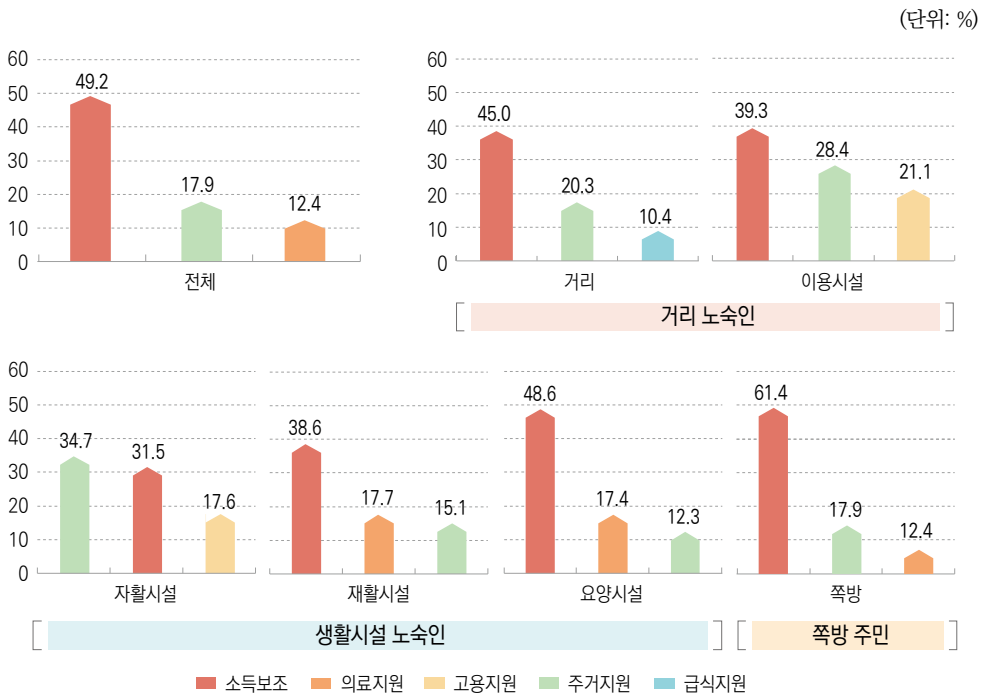


주: 거처유형별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순위가 높은 3순위까지만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가장 필요한 지원

- 노숙인 등 전체에서 소득보조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지원(17.9%), 의료지원(12.4%)의 순이었음.
- 거주유형별로 거리노숙은 소득보조(거리노숙 45.0%, 이용시설 39.3%), 생활시설은 자활 시설은 주거지원(34.7%)인 반면 재활 및 요양시설은 소득보조(각각 38.6%, 48.6%), 쪽방주민은 소득보조 (61.4%)를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응답하였음.

[그림 42] 거주유형별 가장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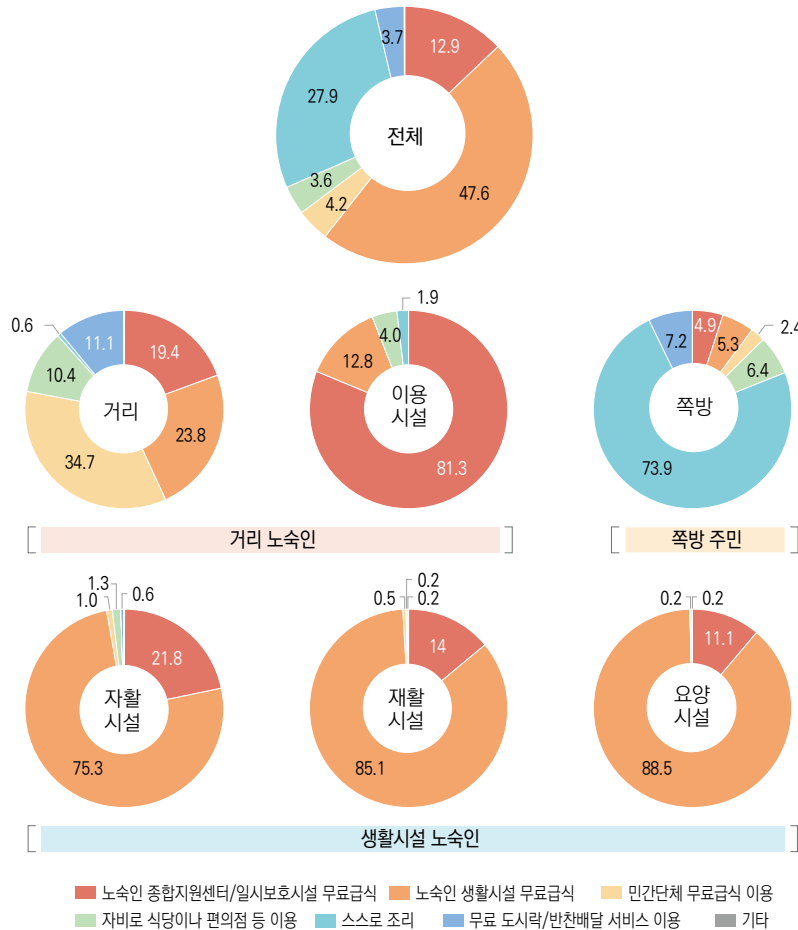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식사해결방법

- 노숙인 전체는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스스로 조리’(27.9%),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12.9%) 순이었음.
- 거처유형별로 응답이 상이하며 거리노숙은 ‘민간단체 무료급식’(34.7%), 이용시설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81.3%), 생활시설은 생활시설 무료급식(자활 75.3%, 재활 85.1%, 요양 88.5%), 쪽방주민은 ‘스스로 조리’가 73.9%임.

[그림 43] 식사해결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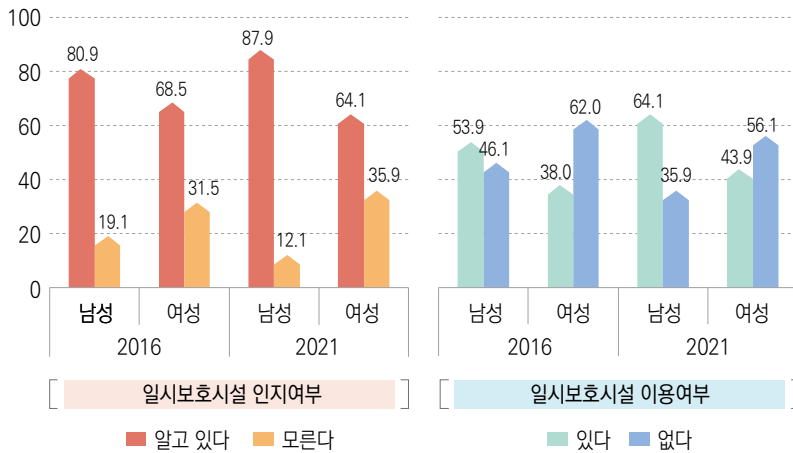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㉞ 거리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여부

- 일시보호시설 인지여부를 2016년도 조사와 비교한 결과, 남성은 인지율이 높아진 반면(80.9%→87.9%), 여성은 낮아졌음(68.5%→64.1%).
- 일시보호시설 이용률을 2016년도 조사와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이용경험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남성: 53.9%→64.1%, 여성 38.0%→43.9%).

[그림 44] 일시보호시설 인지여부 및 이용여부 (2016년도와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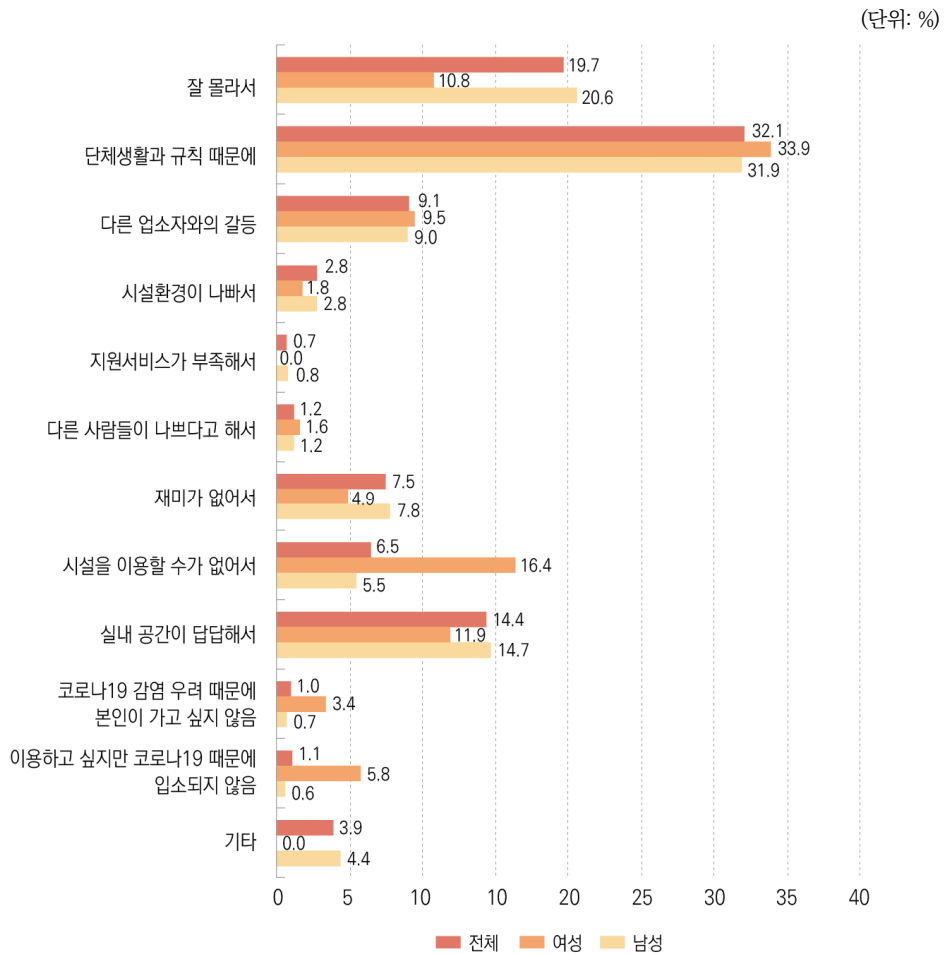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p.296.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거리노숙인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2.1%), ‘잘 몰라서’(19.7%),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14.4%)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나(각각 31.9%, 33.9%), 여성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16.4%), 남성은 ‘잘 몰라서’(20.6%)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5]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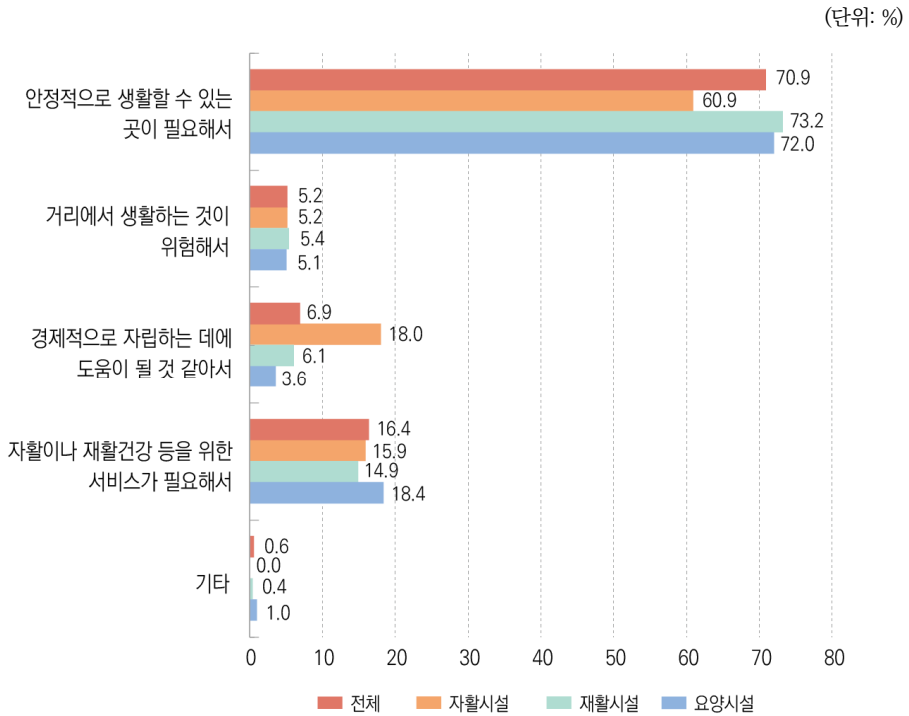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생활시설 입소 이유

- 생활시설 노숙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 입소 이유’를 물은 결과, 모든 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의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 ‘자활이나 재활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의 응답이 많았는데, 자활시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의 응답비율이 타 시설에 비해 높았음.

[그림 46] 가장 중요한 시설 입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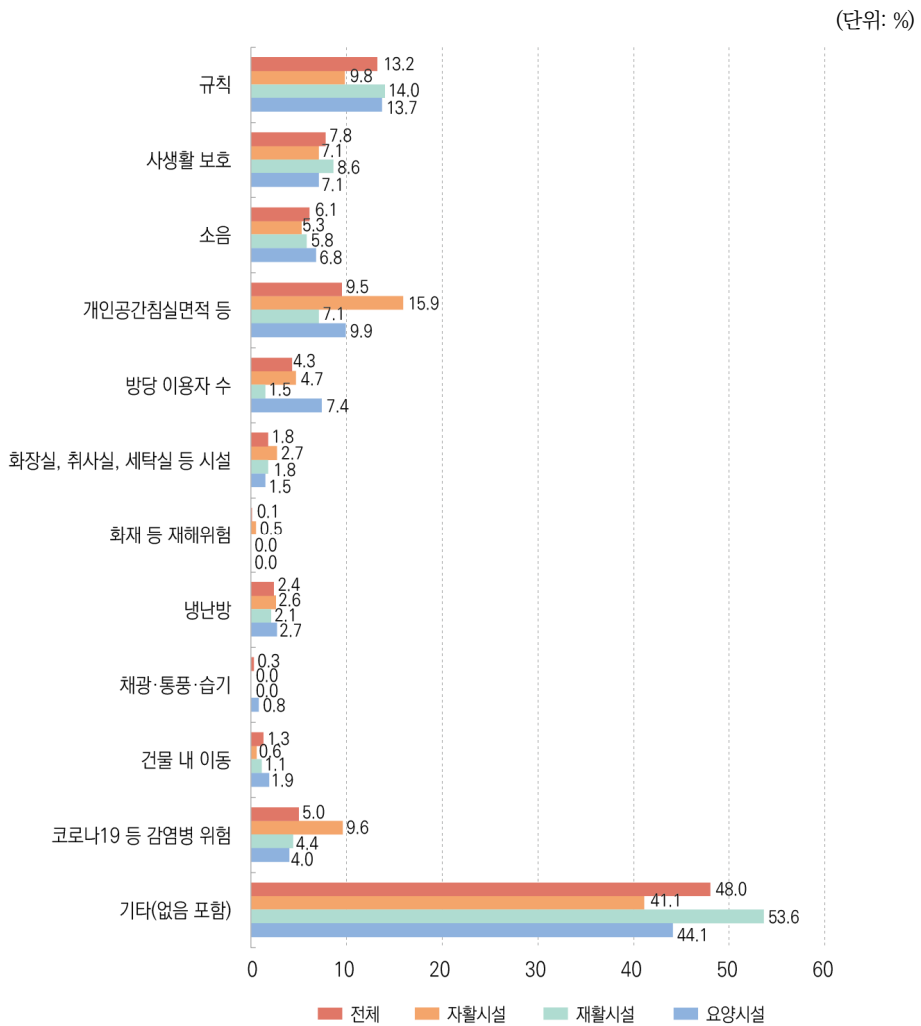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 생활시설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 생활시설 노숙인에게 ‘불편한 부분’을 물어본 결과, ‘기타’(없음 포함)가 48.0%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규칙’ 13.2%, ‘개인공간(침실면적 등)’ 9.5% 순이었음.
- 시설 유형별 ‘기타’(없음 포함)를 제외하면 자활시설은 ‘개인공간(침실면적 등)’이 15.9%,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규칙’이 각각 14.0%, 13.7% 응답되었음.

[그림 47] 거처유형별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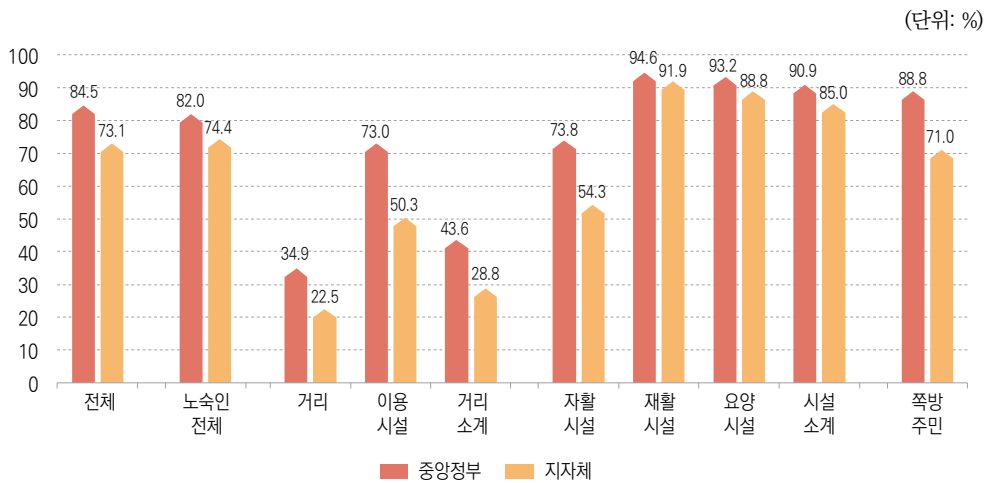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④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

-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률은 중앙정부는 84.5%, 지자체는 73.1%로 나타났음.
- 생활시설은 중앙정부 90.9%, 지자체 85.0%이며 쪽방주민은 88.8%, 71.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거리노숙은 중앙정부 34.9%, 지자체 22.5%, 이용시설은 중앙정부 73.0%, 지자체 50.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8] 거처유형별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 (중앙정부, 지자체)



주: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에 시행된 모든 국민에게 가구 수(1인가구 40만원)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노숙문제는 주거,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서, 문제의 규모와 실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노숙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숙인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들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를 노숙인으로 셀 것인가”와 같은 노숙인 개념 규정 문제, 조사자의 관점 및 관찰 편차, 파악되지 않는 비가시성 문제, 노숙인의 이동성 문제 등 노숙 상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쟁점들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노숙 양태가 상이하고, 거처유형별로 그 특성이 매우 달라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 방식을 고안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조사 결과의 대표성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은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는 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노숙인 등 관련 정책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직 노숙인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기존의 부랑인 정책과 이원화된 상태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노숙인 및 부랑인 정책은 통합되었고, 여기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된 ‘노숙인 등’이라는 정책 개념이 탄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법에서는 기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전국 규모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노숙인복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이 법에 근거한 첫 번째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2016년도에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대상을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으로 규정하고, 노숙 규모를 파악하

기 위한 일시집계조사와 노숙인의 노숙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체계적인 일시집계조사를 위하여 전국의 지역별 거리노숙 거점 리스트가 다양한 주체들의 반복적 검토를 통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거처유형, 성별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하고 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로부터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규모 및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체계적인 형태로 취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노숙인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실태조사 이후 노숙인 등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조금씩 체계화 및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복지법」 제정 이후 동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두 번째 전국 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1차 실태조사와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방법적·내용적으로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정보 누적에 따른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항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5년 만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단위의 노숙인 규모 및 실태,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생산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등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노숙인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숙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노숙인 등의 정의에 기반하여 노숙인 등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함

둘째, 「노숙인복지법」에 규정하는 노숙인 실태조사 항목을 고려하고 최근의 변화 등을 반영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 등의 인구사회학적·노숙특성·경제·주거·의료·인적 네트워크·복지서비스 등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

셋째, 현행 노숙인 등의 규모, 실태 및 욕구 진단에 기반하여 중·장기 노숙인 등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함의 및 시사점을 제안함

넷째, 이상을 통해 2021년 예정되어 있는 제2차 노숙인 등 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이 연구는 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 내용 및 구성 등 전체 연구를 개괄하였다.

제2장에서는 실태조사 개요를 소개한다. 2016년도 조사에서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조사방법과 표본설계 및 가중치 내용을 소개하고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였다.

제3장은 일시집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한다. 먼저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를 살펴보고, 다음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으로 나누어 규모 및 일반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한다.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포함하여,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코로나19 관련 사항,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와의 비교 등 총 7절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분석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향후 조사 방법론상 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실태조사 내용과 주요 변화내용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4절 표본의 일반적 특징

제 2 장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실태조사 내용과 주요 변화내용

1. 실태조사의 개요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로(「노숙인복지법」 제9조), 2016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두 가지 조사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 PIT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시점의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의 규모와 일반적 특성을 각각 파악한다. 두 번째 면접조사는 일시집계조사에서 산출된 노숙인 모집단을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노숙인 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를 도입하여 일시집계조사(거리노숙인) 및 면접조사(모든 거주유형)에 활용하였다. CAPI는 종이 설문을 컴퓨터로 대체하여 수행하는 조사를 말하며, 설문 결과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조사 Data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1-1〉 2021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개요

조사구분	목적 및 내용	대상
(1차) 일시집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파악 및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시설명, 노숙인 등의 수, 성별, 연령대, 가족단위 노숙여부 등 조사일시: 2021년 5월 14일(금) 00:00~05:00 조사방법: CAPI(거리, 일부지역 종이조사) 및 웹 (시설·쪽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당일 지자체 및 노숙인 시설에 세 차례 확인과정을 통해 확정된 거점에서 숙박하는 거리노숙인 ※ 2020년 10월 간담회, 2020년 11월 예비조사, 2021년 4월 최종 확정 조사당일 노숙인 이용·생활시설에서 숙박한 노숙인 조사당일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한 쪽방주민
(2차)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건강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경제활동, 코로나19 사항 조사기간: 2021년 6월 3일(목) ~2021년 7월 2일(금) 조사방법: CAPI(일부지역 종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집계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등 중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250명(253명 조사완료) - 시설노숙인 1,200명(1,197명 조사완료) - 쪽방주민 250명(250명 조사완료)

자료: 연구진 작성

2. 사전연구를 통한 실태조사 조사계획의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가 시행되기 전 해(2020년)에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이하 「사전연구」; 이태진 외, 2020)를 수행하였다. 「사전연구」를 실시한 목적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 각각의 시행계획 및 조사설계의 기본방향을 사전에 수립하여, 2021년에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1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계획은 「사전연구」에서 도출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가.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의 기본 방향

일시집계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으로, 객관성, 일관성, 정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2021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는 두 번째 법정 실태조사로, 기존의 전국 단위 일시집계조사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⁴⁾ 집계조사가 방법론적·내용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노숙인의 종단적 추이와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표 2-1-2>와 같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계대상에 대한 엄격한 규정, 집계일시로서 봄이나 가을의 심야 시간대, 집계장소의 계승을 통한 알려진 장소(Known Places) 기반의 접근, 수집정보의 일관성 및 조사양식의 표준화, 지역거점 기관의 설정, 예비조사를 통한 거점 확정, 집계조사원 교육 및 노숙인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력의 활용 등이 조사의 핵심적 특징으로 지속되도록 하였다.

4) 2021년도의 노숙인 일시집계조사는 이전 시기 일시집계조사 경험으로 인해 그 목적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준거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시집계조사 시행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제약 요소도 가지고 있다. 조사내용과 방법을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크게 전환하기는 어렵다. 반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나 수준을 감안할 때, 바꾸어야 할 주요한 방법적 부분은 전국적으로 5회 정도의 시점에 해당하는 2021년 일시집계조사에서 바꾸는 것이 나중의 시점에 바꾸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이태진 외, 2020, p.117).

〈표 2-1-2〉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의 기본설계

구분	기본 설계
①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이 일시집계조사에 관한 총괄적 책임, 실제 조사 진행은 민간 협력으로 수행 - 기존 일시집계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 향후의 정기적 지속화 필요성 - 정확한 집계를 위해 집계의 대상은 분명하게 규정하되, 과소추정의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집계불가능성(uncountable)과 집계누락(uncounted)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계 조사지역을 최대한 발굴하고, 집계지침을 통한 조사원의 교육 등을 강화
② 집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집계시간에 집계장소에서 실제 머무르고 있는 인원수를 조사하여 집계: 시설이나 쪽방에서의 기타인원(병원 입원 등)에 대해서는 시설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되, 이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 -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집계대상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규정 -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 포함 대상의 설정을 준용
③ 집계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나 최근의 서울시 일시집계조사의 집계일시 선정 방식을 준용 -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해 3월에서 5월 사이 혹은 10월로 설정 - 주말이나 공공부조 수급일 직후를 제외함 - 가급적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를 사전 설정하되 날씨 변동성을 감안하여 예비일을 활용 - 야간 노숙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심야의 시간대로 설정하며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의 시간대 중에서 3시간 이내의 시간을 활용
④ 집계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일시집계조사 방법의 계승을 통한 알려진 장소(Known Places) 기반의 접근 - 거리노숙인 집계조사 거점(spot)은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2019년 조사거점을 기반으로 적절성에 대한 검토 후 활용 - 2019년 조사거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역의 노숙인 서비스 관련 주체가 일차적으로 수정을 위한 활동 수행 - 조사거점은 그 변화를 감안하여 일시집계조사 직전에 예비조사 등을 활용하여 최종 확정 - 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한 일시집계조사 거점은 조사가 이루어진 시설과 쪽방에 대해 개별적으로 명기하여 집계조사의 포괄범위를 확인 가능하도록 함 -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일시집계조사 관련된 누락장소에 대한 명기가 필요함(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내 노숙인이 기거하는 다중이용시설, 누락된 시설이나 쪽방 등)
⑤ 집계조사의 수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계조사의 수집정보 내용 역시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의 내용을 준용함 -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전체 수와 아울러 미성년 수, 가족 동반 노숙인 수를 집계함 - 다만, 알코올릭 노숙인에 대한 집계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 - 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해서는 전체 수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한 추가적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 - 수집 정보의 내용은 일시집계조사의 조사양식을 통해 표준화하며 이는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의 양식 혹은 서울시의 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양식을 준용함
⑥ 집계조사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집계조사의 실제 진행은 조사거점의 수정과 확정을 위한 논의과정이 중요함(그림 2-2-2) 참조: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의 과정을 준용함) - 노숙인 집계에 책임성을 가진 지역 거점기관의 설정, 집계조사원의 모집(2인 1조의 복수의 인원이 집계, 노숙인 업무 전문성을 가진 인력 함께 활용), 집계조사 지침의 개발과 교육, 예비조사를 통한 조사거점 확정, 본 조사 진행 시 조사원 안전 확보 등 지원계획 마련

자료: 이태진 외(2020),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19-123.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나. 2021년도 면접조사의 기본 방향

1) 표본설계 개선방향 및 조사전략

면접조사는 일시집계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숙인 규모와 지역적 분포에 기반하여 조사 모집단을 설정한다. 그런데 일시집계조사는 1년 중 특정 시점에 실시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노숙의 특성까지 반영된 정확한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목표 모집단과 조사가 가능한 조사 모집단(일시집계조사로 얻어진 표본 추출률)간의 괴리는 면접조사 결과의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노숙인 대상 면접조사의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조사 지역(거점) 선정 시 조사의 현실적인 한계로 노숙인이 있는 거점이 누락되거나, 해당 거점의 평균 노숙인 수의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조사거점에 대한 표본은 거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점 리스트에서 누락되는 거점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확정하였다. 또한 노숙인 수의 측정 오차를 파악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시 해당 거점의 정보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즉 응답하는 거리노숙인에게 해당 거점에서 숙박하였는지를 묻어서 표본에서 설정한 거점의 노숙인 여부를 확인하고, 보통 해당 거점에 몇 명의 거리노숙인이 잠을 자는 지를 물어 일시집계조사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⁵⁾ 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경우에는 2016년도의 표본설계 방식을 준용하였다.

목표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보다 직접적인 조사 전략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 간의 시간적 간격을 줄이는 것이다. 2016년도 조사 당시, 일시집계조사가 종료되고 난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심층 면접조사가 진행되어 일시집계조사에서 확인되었던 조사거점이 1개월 사이에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조사 간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여 거점변동과 노숙인의 이동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였다. 조사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변동성이 큰 거리노숙인 면접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5)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와 표본추출 간 관계를 알아보는 추가조사의 결과는 부록 3에 수록하였다.

2) 면접조사 문항

면접조사는 유형별(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로 표본추출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인의 욕구와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숙생활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노숙을 예방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내용과 2016년도 실태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노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조사 연구진이 검토하고, 현장 실무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표 2-1-3〉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 내용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노숙인 등의 현황 ·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 노숙인 등이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8호. <https://www.law.go.kr/법령/노숙인복지법시행규칙> 에서 2021년 11월 10일 인출.

연구진은 2016년도 면접조사 조사표를 〈표 2-1-4〉의 조사문항 설정 원칙에 준거해 검토하였다. 노숙인 등이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조사가 진행되는 환경(거리, 시설 등)을 고려하여 조사 문항의 수준과 분량을 결정하였고, 노숙 유형별(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상이한 노숙의 양태를 고려하여 유형별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조사 문항은 종단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16년도와 일관되게 유지하되, 정책적 수요(코로나19, 주거, 일자리 등)가 높은 문항은 추가하고,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한 2016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 대한 「성인지 관점 검토결과」⁶⁾를 반영하여 여성 노숙인의 여건이 실태조사에 고려되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6) 이 검토결과는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조사표 6종(거리, 시설, 쪽방주민 각각의 일시집계 및 면접조사 조사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양성평등정책담당관-792호(2021.4.30. 「노숙인 실태조사」 질문지에 대한 성인지 관점 검토 결과 통보)로 통보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일시집계 시 자녀동반 실태 파악 문항 설정 ② 노숙인 질환 상태에 부인과 질환 항목 추가(일시/면접 공통) ③ 성추행 및 성폭력 관련 피해의 빈도 및 장소 특성 등 고려 ④ 노숙인 자립지원 필요한 항목에 '돌봄지원' 추가 ⑤ 항목 중 "호적" 대체 용어 수정 ⑥ 노숙 계기에 '성폭력' 항목 추가 등이었음.

〈표 2-1-4〉 2021년도 면접조사 조사문항 설정 원칙

구분	조사문항 설정 원칙
조사대상자의 특성 고려	노숙인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고, 거리에서의 조사환경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음. 어려운 용어(개념)나 복잡한 질문, 그리고 정밀한 측정을 요하는 척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최대한 간략한 문항으로 구성하여야 함. 면접 문항은 가능하다면 30분 이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가) 여성 노숙인의 여건이 실태조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함
유형별 조사문항 구성	노숙인의 양태가 다양하므로, 유형별 조사 문항이 상이하게 구성되어야 함. 거리노숙인, 시설이용노숙인, 시설생활노숙인, 쪽방 등 주거취약집단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조사문항을 구성함
조사의 일관성	이 조사는 5년마다 반복되는 조사임. 그러므로 시계열에 따른 변화, 즉 중단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16년의 조사에서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사항목은 제거하고, 정책개발이나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야 하나, 가능하다면 조사항목의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사 문항에 큰 오류가 없다면 자구 수정이나 조사 문항의 배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이태진 외(2020).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63-165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변화

가. 일시집계조사의 내용과 변화

일시집계조사는 2021년 5월 14일 자정(5월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0시)에 실시되었다.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는 10월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집계일시가 10월에서 5월로 변경되었다. 거리노숙인 규모는 5월과 10월이 유사하여 계절 영향에 따른 수치의 변동이 크지는 않으나, 10월 일시집계조사 후 11월에 면접조사를 하게 될 경우 노숙의 특성상 계절(겨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어서 12월은 보건복지부 보고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집계조사가 이루어지는 달로, 연이은 전국 단위 노숙 집계는 현장에 피로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조사 일정은 5월로 최종 결정되었다.⁷⁾

일시집계조사 내용은 〈표 2-1-5〉와 같이 변경되었다. 2016년도 실태조사의 양식과 내용을 준용하였으나, 영역별로 검토된 부분들을 추가·삭제하였다. 거리노숙인 및 이

7) 또한, 2021년은 제2차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도 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 일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용시설노숙인 일시집계조사의 경우, 알코올 의존증 관련 노숙인 집계 문항을 삭제하였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문제는 만성노숙이라는 정책적 관심에서 조사항목에 포함된 것이나, 관찰에 기반한 조사 방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정보수집과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집계를 하지 않았다.

생활시설 노숙인과 쪽방주민 조사의 경우는 각각 노숙인 시설 또는 쪽방상담소 실무자가 응답을 하게 된다. 2016년도 실태조사와는 다르게 장애와 질병이환 실태는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장애 실태의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 후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생활시설 노숙인 조사에는 당일 외출·외박하는 인원도 함께 파악하여 노숙인이 과소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의료지원 현황도 파악하였다. 또한 생활시설 입소자 및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주민의 코로나19 확진자 실태도 추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숙인의 실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질환 세부 명칭에서 여성 발병률이 높은 항목을 예시에 추가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 동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유아 가족 수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파악하였다.

〈표 2-1-5〉 일시집계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변화(2016년도, 2021년도)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변경사항	
공통	조사지역	조사지역		
	성별	성별		
	연령대	연령대		
거리 노숙인	세부장소 유형	세부장소유형		
	알코올 의존증 노숙인		문항삭제	
	가족 노숙	가족 노숙		
시설 노숙인	조사장소의 특이사항	조사장소의 특이사항		
	시설유형	시설유형		
	법정보호 정원	법정보호 정원		
	조사당일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조사당일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조사당일 병원 입원중 인원(자활/재활/요양만)	조사당일 병원 입원중 인원(자활/재활/요양만)		
		조사당일 외출·외박하는 인원(자활/재활/요양만)	문항신설	
		장애실태	문항신설	
		코로나19 현황	문항신설	
	가족 이용자수		시설에서 잠을 자는 가족수	문항수정
			병원 입원중 가족수(자활/재활/요양만)	문항수정
			외출·외박하는 가족수(자활/재활/요양만)	문항수정
	이 중 영유아 포함 가족수*	문항수정		
입소기간	입소기간			
주민등록 현황	주민등록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문항신설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변경사항
	연고자 유무 및 유형	의료지원 현황	문항신설
	질병이환 실태(장애포함)	연고자 유무 및 유형 질병이환 실태*	문항수정
쪽방 주민	가족 노숙	가족 노숙(영유아포함 가족수)*	문항수정
	주민등록 현황	주민등록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의료지원 현황	의료지원 현황	
		장애 실태	문항신설
		코로나19 현황	문항신설

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792호(2021.4.30. 「노숙인 실태조사」 질문지에 대한 성인지 관점 검토 결과 통보)를 반영하여 문항을 전면 검토 및 수정함

나. 면접조사의 내용과 변화

면접조사의 문항은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숙인 실태조사 항목을 고려하고 최근의 변화 등을 반영하되 조사 결과가 노숙인 정책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문항 설계가 추진되었다. 2016년도 실태조사 조사 문항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영향 평가 문항,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책 욕구 및 평가문항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노숙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문항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건강(의료) 및 심리 영역에서는 의료서비스(응급실, 입원 등) 이용,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문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질병 유형에서는 예시에 없어 누락될 위험이 높은 여성 질환(부인과 질환, 갑상선암, 유방암 등)이 포함되도록 선택지를 수정하였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주거생활 영역에서는 노숙인의 주거 이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기존 문항을 보다 직관적으로 응답하기 쉬운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현재 거처유형과 머문 기간을 물어본 후, 그 이전과 그보다 더 이전에는 어디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물어보아 조사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주거지원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신설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과 자립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고 추가하였으며, 노숙인의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영역도 새로 구성하였다. 또한, 일부 문항에서는 가족 돌봄 지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선택지를 수정하였다.

거리노숙인 조사표에서는 30일 이내의 거리노숙 경험과 장소를 묻고, 해당 장소에서의 거리노숙 기간, 평균 노숙인 수를 물어 거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설노숙인 조사표에서는 비슷한 문항을 하나(처음 시설에서 생활 시작한 시기)로 줄이고, 쪽방주민 조사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체납 문제를 추가하되 식료품비와 난방비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2-1-6〉 면접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변화(2016년도, 2021년도)

조사표 영역	2016년도	2021년도	변경사항
건강 (의료) 및 심리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 유형별 유무 및 치료여부	질병 유형별 유무 및 치료여부*	보기수정
	장애 등록 여부	장애 등록 여부	
	장애 등급 및 유형, 중복장애 여부	장애 정도 및 유형, 중복장애 여부	문항수정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및 이유	병원 가지 못한 (또는 시설/기관 도움받지 못한) 이유	문항수정
	응급실 이용횟수 및 입원 횟수	응급실 이용횟수 및 입원 횟수	문항신설
음주여부 및 빈도, 음주량, 알코올릭 자가진단척도	음주여부 및 빈도, 음주량, 알코올릭 자가진단척도	음주여부 및 빈도, 음주량, 알코올릭 자가진단척도	
	우울척도	우울척도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문항신설
주거 생활	거주한 거주유형 및 오래 거주한 순위(노숙이전/이후)	거주한 거주유형 및 변화 이력(현재에서 시간역순)	문항수정
		주거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문항신설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문항신설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및 장소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및 장소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및 장소*	보기수정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만족도	
	가장 도움이 됐던 서비스(1, 2, 3순위)	가장 도움이 됐던 서비스(1, 2순위)	문항수정
	서비스 접근경로	서비스 접근경로	
	가장 필요한 지원	가장 필요한 지원	보기수정
자립 및 경제 활동	식사해결방법	식사해결방법	문항신설
	근로능력		문항삭제
	한글 및 숫자사용 어려움 정도		문항삭제
	현재 근로상태 및 근로이력(노숙직후, 노숙직정, 노숙이전)	현재 근로상태 및 근로이력(노숙직후, 노숙직정, 노숙이전)	
	근로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문항삭제
	지난 4주 내 구직경험 여부 및 방법	지난 4주 내 구직경험 여부 및 방법	
	희망하는 일자리(근무시간, 업종,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희망하는 일자리(근무시간, 업종,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문항신설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	보기수정
주된 수입원	주된 수입원	보기수정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총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총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지난 3개월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지난 3개월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보기수정	

72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조사표 영역	2016년도	2021년도	변경사항
	부채 여부, 규모	부채 여부, 규모	
	부채 발생원인		문항삭제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저축 여부 및 규모(총액, 월평균 저축액)	저축 여부 및 규모(총액, 월평균 저축액)	
	노숙 탈피를 위한 시도		문항삭제
코로나 19 관련 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정도	문항신설
		마스크 착용 시간	문항신설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문항신설
		긴급재난지원금 유무(중앙정부, 지자체)	문항신설
기본 사항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출생연도, 혼인상태, 자녀, 최종학력)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출생연도, 혼인상태, 자녀, 최종학력)	보기수정
	주민등록상태	주민등록상태	보기수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유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유형	보기수정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 경험여부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 경험여부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직접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직접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거리 노숙인		30일 이내 거리노숙 경험 유무 및 거리노숙 장소(이곳 혹은 다른 곳)	문항신설
		(이곳 노숙) 거리노숙 기간 및 인원	문항신설
		(다른 곳 노숙) 노숙한 장소, 거리노숙 기간 및 인원	문항신설
	처음 노숙 시작 시기	처음 거리노숙 시작 시기	문항수정
	최근(이번) 거리노숙 시작 시기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거리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문항수정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경험여부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경험여부	
	오늘밤 잠자리	오늘밤 잠자리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보기수정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시설 노숙인	처음 노숙 시작 시기	(거리노숙 경험 있는 경우) 처음 거리노숙 시작 시기	문항수정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거리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문항수정
	현재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문항삭제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가장 주요한 시설 입소 이유	가장 주요한 시설 입소 이유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보기수정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보기수정	
쪽방 주민	(거리노숙 경험 있는 경우) 처음 노숙 시작 시기	(거리노숙 경험 있는 경우) 처음 거리노숙 시작 시기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거리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문항수정
	쪽방(현거처)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문항수정
	현 거처의 면적, 시세, 보증금, 월임대료, 일세	현 거처의 면적, 시세, 보증금, 월임대료, 일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임대료 체납 여부	문항신설
현 거주지 내부시설	현 거주지 내부시설		

조사표 영역	2016년도	2021년도	변경사항
거처에서 느끼는 불편함		거처에서 느끼는 불편함	보기수정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한달 식료품비 및 (동계) 난방비			문항삭제
쪽방상당소 이용 정도		쪽방상당소 이용 정도	
앞으로 쪽방촌에 거주할 의사		앞으로 쪽방촌에 거주할 의사	
계속 살고 싶은 이유		계속 살고 싶은 이유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792호(2021.4.30. 「노숙인 실태조사」 질문지에 대한 성인지 관점 검토 결과 통보)를 반영하여 문항을 전면 검토 및 수정함.

제2절 조사방법

1. 일시집계조사

가. 조사 대상의 정의

1) 거리노숙인

「노숙인복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노숙인 등”이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앞선 2016년도 조사의 거리노숙인 조작적 정의를 준용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집계를 위한 조작화⁸⁾를 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조사시점에 거리노숙인을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거리, 텐트, 건물 주변, 공원, 지하도,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이나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계단실, 창고, 차고, 차, 역 등)이나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잠자리에 든 사람 및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으로 정

8) 집계대상으로서 거리노숙인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조사로는 2011년, 2016년 전국 단위 조사 및 서울특별시 일시집계조사(2020)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본 조사가 준용하고 있는 정의인 2016년도 실태조사의 정의가 가장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조사별 거리노숙인의 정의 및 쟁점 등에 대해서는 이 태진 외(2020)의 pp.91-116을 참조.

의하였다. 또한 잠자리에 든다는 의미는 누워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잠을 자고 있다는 의미는 침낭이나 담요, 박스 등 취침을 위한 장비 안이나 위 혹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거 적절성이 낮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사람(시설 생활자, 쪽방주민 등)은 제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포함하였다. 본 조사의 거리노숙인의 정의는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거리노숙인(rough sleeper)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표 2-2-1〉 거리노숙인 집계 대상의 정의

구분	정의
거리노숙인으로 집계되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기타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 거리, 텐트, 건물 주변, 공원, 지하도,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 거처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이나 기타 장소: 계단실, 창고, 차고, 차, 역,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곳 ※ 잠자리에 든다는 의미는 누워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잠을 자려고 한다는 의미는 침낭이나 담요, 박스 등 취침을 위한 장비 안이나 위 혹은 근처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있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포함한다.
거리노숙인으로 집계되지 않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쉼터, 응급쉼터, 캠핑장, 기타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지(공원장 등)에 오락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야외에 있는 사람이나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나 무단점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를 끊기 위한 순번대기를 위해 야외에 누워있는 사람 - 피크닉을 위한 자리를 펴고 가족친지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 등 노숙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 ○ 조사시점 이전에 그 지역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나 저녁 시간에는 있었지만 집계조사를 할 시점에는 없는 사람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비어 있는 잠자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걸어 다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 중에는 침낭이나 담요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잠자리에 들려는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그들은 거리에서 잠을 잘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명백하게 잠자리를 잡고 있거나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사람(시설 생활, 쪽방 거주민)은 제외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 시설노숙인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이용시설에는 일시보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가 있으며, 생활시설에는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시설이나 진료시설의 경우, 급식이나 의료 등 특정한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곳으로 노숙인이 시설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시켰다. 또한 쪽방상담소는 거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조사당일 이용·생활시설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병원에 입원한 노숙인과 외출·외박하는 노숙인 포함)을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표 2-2-2〉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노숙인 복지시설 사업내용

종류	사업내용 및 기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 의료, 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이외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 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자활시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 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에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노숙인 진료시설	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쪽방상담소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기타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된 사업내용 및 기준이 없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에 있는 업무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p.20, p.29, p.30

〈표 2-2-3〉 시설노숙인 집계 대상의 정의

종류	정의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
생활시설 노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3) 쪽방주민

「노숙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동법에 의거하여 노숙인 이외에 쪽방주민도 포함하였다.

그런데 쪽방에 대한 법적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각 쪽방상담소별 쪽방에 대한 정의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2 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정의하였다(이태진 외, 2017, p.58). 또한 쪽방주민은 “불안정한 직업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유지가 어려워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되, 실제 조사에서의 조작적 정의로는 “조사당일 쪽방 상담소에서 파악되고 있는 쪽방주민”이라 규정하고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이진우 외(2017), 「쪽방, 쪽방촌, 쪽방상담소: 쪽방촌 실태조사를 통한 쪽방상담소 기능 재정립 방안」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쪽방상담소의 정의를 바탕으로 쪽방에 대한 특징을 “①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정도, ② 주로 단신 계층, 수급자나 비정규직·노숙 경험자들의 주거, ③ 화장실·목욕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간 ④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로 임차할 수 있는 주거 공간”라고 종합하였으나, 일부 쪽방상담소는 이와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엄밀하게 통일된 정의는 성립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이진우 외, 2017, p.12).

이외에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주택이외의 거처’ 내에 혼재된 주거 형태로 ‘쪽방’을 언급하면서 2016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진미윤 외, 2018, p.11). 또한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2016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쪽방을 별도의 거처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다만 “주거의 최후 보루”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가구들이 선택하는 열악한 공간으로 인식’(최은영 외, 2018, p.27)된다는 쪽방의 사회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다수 연구에서는 쪽방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주로 2016년도 실태조사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활용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16년도 실태조사의 정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2-2-4〉 선행연구의 쪽방 및 쪽방주민 정의

구분	쪽방 및 쪽방주민의 정의
이태진 외 (2017)	- (쪽방)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 - (쪽방주민) 조사당일 쪽방 상담소에서 파악되고 있는 쪽방주민(불안정한 직업과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유지가 어려워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진우 외 (2017)	- ① 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정도, ② 주로 단신 계층, 수급자나 비정규직·노숙 경험자들의 주거, ③ 화장실·목욕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간 ④ 보증금 없이 월세나 일세로 임차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진미윤 외 (2018)	- 2016년도 실태조사의 정의를 인용함
최은영 외 (2018)	- 2016년도 실태조사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적 의미를 추가함 - ‘쪽방을 별도의 거처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다만 ‘주거의 최후 보루’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가구들이 선택하는 열악한 공간으로 인식’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58-59.
2) 이진우 외(2017). 쪽방촌 실태조사를 통한 쪽방상담소 기능 재정립 방안.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p.12.
3) 진미윤 외(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p.11.
4) 최은영 외(2018).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도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p.27.

나. 조사내용 및 방법

일시집계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1년 5월 14일(금) 자정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5시간 이내)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지원이 집중되는 폭염·혹한기가 아니며, 기초생활 수급일 직후 등 조사에 영

향을 주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낱짜를 선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지침 등도 고려하였다. 본 조사의 준비단계에서 노숙 유형별 조사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 거리노숙인

거리노숙인의 집계는 거리노숙인이 있다고 알려진 장소(Known Places)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2016년도 실태조사가 시행된 이후, 거리노숙인 집계 경험이 누적되면서 거점(spot)에 대한 정보도 축적되어 왔다. 2016년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월 말 표준화된 양식([그림 2-2-1] 참조)을 통해 조사거점과 거리노숙인 규모를 취합하면서 노숙인 거점 관리가 체계화되고, 거점 정보 관리가 안정화되었다.

[그림 2-2-1] 거리노숙인 거점 및 규모 파악 작성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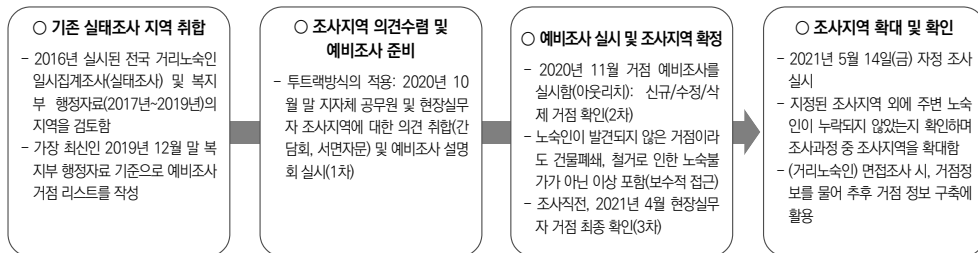
* 거리노숙인 거점 및 노숙인 수									
구분	광역시	자치도	거점명	spot	조사일자	노숙인 수	변경여부	변경일자	비고(거점특이사항)
전국(개)				500		619			
서울(개)				499		573			
	서울시	종로구	SK근처 공원	1	2017.12.08	2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1	2017.12.08	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역	1	2017.12.08	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지하도(광화문역)	1	2017.12.08	13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앞	1	2017.12.08	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지하차도	1	2017.12.08	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9년말 기준)

이번 조사의 조사지역(거점)을 확정하기 위해 [그림 2-2-2]와 같이 조사지역 선정 과정을 거쳤다. 먼저, 최근 5년의 전국일시집계조사 거리노숙인 거점을 검토하였다. <표 2-2-5>에서 보듯이, 2016년도 실태조사의 일시집계조사는 1,227개소이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359개 거점이 확인되었다. 2020년 10월 말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1,359개의 거점에 대한 확인 및 예비조사(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2020년 11월 거점 예비조사가 진행되었고, 전국 지자체 및 현장 실무자가 직접 아웃리치를 나가 신규거점을 발굴하고, 거점 변동사항(거점명 수정, 삭제 등)을 파악하였다. 거점 확인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거점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거점의 삭제에는 보수적 접근을 취하였다. 특히 아웃리치 담당자가 최근에 노숙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거리노

숙인 거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 변화(건물폐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등으로 인한 노숙불가가 아닌 이상, 노숙인이 발견되지 않은 거점은 모두 검토 후 조사거점에 포함하였다. 본 조사 직전인 2021년 4월 조사 담당자에게 1,527개 (2020.11. 예비조사 결과) 거점 리스트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고, 최종 1,548개의 조사거점이 확정되었다.

[그림 2-2-2] 거리노숙인 조사지역 선정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2-5> 거리노숙인 거점 규모 변화 및 최종거점의 확정

(단위: 개소, 명)

구분	거점 (개소)	거리노숙인 규모 (명)
2016년 10월말 기준 (실태조사)	1,227	1,522
2017년 12월말 기준 (행정자료)	1,485	1,112
2018년 12월말 기준 (행정자료)	1,525	1,035
2019년 12월말 기준 (행정자료)	1,359	1,246
2020년 11월말 기준 (예비조사)	1,527	1,292
2021년 4월말 기준 (최종거점)	1,548	-

자료: 2016년 실태조사는 이태진 외(2017), 2017년, 2018년, 2019년 행정자료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20년 예비조사는 이태진 외(2020)의 거점확인 조사 결과, 2021년은 실태조사(2021.5.14) 직전 현장실무자 확인 거점

일시집계조사 실시 전 2021년 5월 6일(목)~5월 12일(수)에는 조사원을 선발하고 현장실무자와 팀을 구성하였다. 먼저, 현장실무자 조사 참여 확인을 위해서 조사기관에서 실무자와 1차 연락을 진행하였고, 실무자의 조사 참여가 확정된 거점(spot)부터 순차적으로 조사원이 배치되었다. 조사원은 실무자와 2차 연락을 하여 조사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현장실무자 변경사항을 최종 확인하여 조사원과 현장실무자 2인 1팀이 구성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5월 11일(화) 수도권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되었다. 5월 11일(화)~5월 13일(목) 조사거점을 사전에 방문하여 GPS 정보 및 조사거점 특이사항을 확인하였다. 5월 13일(목) 22:00~23:00에는 거점별 조사원 및 현장실무자가 배치된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5월 14일(금) 자정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는 현장전문가와 조사기관 조사원이 팀(2인 1팀)을 이루어 사전에 확정된 1,548개 거점을 방문하여 해당 거점의 거리노숙인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 총 203명의 현장전문가와 198명의 조사기관 조사원이 최종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인천, 강원 등 현장전문가가 미참여한 21개 거점은 조사원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그 외 예비조사원 40명, 현장감독관 17명도 배치되었다.

조사 방법은 CAPI를 활용하였다. CAPI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거리노숙인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였고, 조사원은 CAPI 입력 방법을 교육을 통하여 습득했다. 부득이하게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할 비상 상황 등을 대비하여 종이조사표를 병행하여 이용하도록 했다.

조사 당일인 5월 14일 날씨는 대체로 맑았으며 5대 광역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기준으로 최저기온은 14.1~18.0℃, 최고기온은 23.4~31.8℃이며, 광주를 제외하면 비가 오지 않았다. 광주는 '햇무리 및 비'였지만 강수량은 미비하여 0.0mm이었다(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해당날짜 검색). 따라서 전국적인 날씨는 거리노숙인 집계조사를 진행하기에 비교적 양호했다고 할 수 있다.

2) 시설노숙인

2021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128개 시설(미인가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은 21개소, 자활시설 52개소, 재활시설 34개소, 요양시설 21개소이다.

5월 12일(수)에 노숙인 시설 담당자들에게 URL 및 SMS 문자와 교육자료를 발송하고, 5월 12일(수)~13일(목)에 담당자에게 교육자료와 URL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시작 안내 문자를 2회 발송(15시, 23시)하였다. 조사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시

시스템에 대한 필요 정보들이 이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5월 14일(금) 자정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는 각 시설의 조사당일 근무자에게 사전에 배부된 URL을 통한 온라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와 동일하게 2021년 5월 14일(금)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00:00~05:00)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복 집계 예방을 위해 자정을 원칙으로 집계하였다.

3) 쪽방주민

조사 대상 쪽방상담소는 전국의 총 10개 쪽방상담소였다. 쪽방주민의 규모 파악을 위해서 쪽방상담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조사당일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쪽방주민 현황을 시설노숙인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조사하였다.

5월 12일(수)에 노숙인 쪽방상담소 담당자들에게 URL 및 SMS 문자와 교육자료를 발송하고, 5월 12일(수)~13일(목)에 담당자에게 교육자료와 URL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조사 시작 안내 문자를 2회 발송(15시, 23시)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에 대한 필요 정보들이 이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5월 14일(금) 자정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시간도 시설노숙인과 동일하게 2021년 5월 14일(금)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00:00~05:00)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복 집계 예방을 위해 자정을 원칙으로 집계하였다.

다. 조사의 과정 및 자료의 처리

1) 거리노숙인

2인 1조의 조사팀(현장전문가와 조사원)은 사전에 연락처를 공유하고 조사전일 밤 11시에 첫 번째 시작 거점 주변에서 만나 전체적인 거점 이동을 논의하고 조사를 준비하였다. 이후 조사당일 새벽 0시부터 첫 번째 거점부터 방문하면서 노숙인 현황을 집계하고, 집계가 완료되면 두 번째 거점으로 이동하면서 배분된 지점 모두를 이동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거점 거리 이동이 먼 경우 자차나 택시를 통해 거점을 이동하면서 조사하였다.

집계 시 거리노숙인에 대한 판별은 현장전문가가 주로 실시하되 조사원과 서로 협의 하에 노숙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노숙인의 규모가 과대 및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거점별로 노숙인 집계 결과는 조사원이 CAPI에 1차적으로 기입하며, 이후 현장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인천국제공항(T1, T2) 거점의 경우, 조사 전 미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기관의 협조 하에 집계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평상시에 노숙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도 개방했던 공공장소가 폐쇄된 경우, 사전에 폐쇄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문한 경우라면 0으로 집계하고 특이사항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당일 CAPI로 입력된 데이터는 로직 검증 및 전산 검증을 거쳐 최종 데이터로 산출되었다. 또한 1차 데이터 검토 이후 응답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요청하여 응답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2) 시설노숙인

조사는 각 시설의 조사 당일 근무자가 기관 고유로 배부된 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표와 조사지침서(매뉴얼)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협조공문과 함께 하루 전에 배부되었으며, 또한 광역 지자체 및 노숙인 관련 전국 협회(노숙인복지실천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도 조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각 시설에서는 집계 기준에 맞게 조사당일 숙박하고 있는 입소자를 파악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현장 여건상 온라인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종이조사표에 1차 입력 후 온라인에 다시 입력하거나, 종이조사표를 조사기관에 이메일 혹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온라인으로 취합된 데이터는 조사기관에서 검토 후 응답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시설에 요청하여 수정 및 보완되었다.

3) 쪽방주민

쪽방주민에 대한 조사는 시설노숙인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각 쪽방상담소의 조사당일 근무자가 사전에 배부된 각 상담소 고유의 URL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표와 조사지침서(매뉴얼)는 각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조사협조공문과 함께 배부되었고, 쪽방상담소에서는 집계 기준에 맞게 조사당일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파악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시설노숙인과 동일하게 조사기관에서 검증 후 응답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상담소에 요청하여 응답을 보완하였다.

2. 면접조사

가. 조사대상

거리노숙인은 2021년 5월 14일 0시 기준 거리노숙인이 있다고 파악되어 있던 1,548개 조사거점에 대한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중 노숙인이 1명 이상 출현한 지역은 376개 조사거점(24.3%)이었고, 이들 지역에서 파악된 총 노숙인은 1,201명이었다. 시설노숙인은 2021년 5월 14일 0시 기준 128개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노숙인 수는 7,755명이었다. 쪽방주민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기준 전국 쪽방상담소가 있는 10개 지역에서 파악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 있는 쪽방주민은 총 5,448명으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는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표본추출틀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거리노숙인은 노숙인이 1명 이상 출현한 거점(376개)과 노숙인이 전혀 없었던 1,172개 거점으로부터 권역별로 5개 이상 거점을 추출하였고, 거리노숙인의 지역적 분포 및 거점별 노숙인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된 표본배분을 바탕으로 추출된 거점에 있는 253명의 거리노숙인을 조사하였다. 시설노숙인은 전국의 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된 1,197명을 조사하였다. 쪽방주민은 전국의 10개 쪽방상담소가 있는 지역의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된 250명을 조사하였다.

나. 조사내용 및 방법

면접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재배치하여 총 6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코로나19 영향이 조사되었다. 또한 거처 유형별(거리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실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통문항과 거처유형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2-2-6〉 2021년도 면접조사의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조사표 영역	조사대상
면접 조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출생연도, 혼인상태, 자녀, 최종학력)	기본사항	공통
	주민등록상태	기본사항	공통
	장애 등록 여부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장애 정도 및 유형, 중복장애 여부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유형	기본사항	공통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 경험여부	기본사항	공통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기본사항	공통
경제 활동	현재 근로상태 및 근로이력(노숙직후, 노숙직정, 노숙이전)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지난 4주 내 구직경험 여부 및 방법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희망하는 일자리(근무시간, 업종,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주된 수입원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총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지난 3개월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부채 여부, 규모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저축 여부 및 규모(총액, 월평균 저축액)	자립 및 경제활동	공통
건강 및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질병 유형별 유무 및 치료여부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병원 가지 못한 (또는 시설/기관 도움받지 못한) 이유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응급실 이용횟수 및 입원 횟수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음주여부 및 빈도, 음주량, 알코올릭 자가진단척도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우울척도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주거	(거리노숙 경험 있는 경우) 처음 거리노숙 시작 시기	유형별	공통
	거리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유형별	공통
	거주한 거주유형 및 변화 이력(현재에서 시간 역순)	주거생활	공통
	주거 선택시 우선 고려사항	주거생활	공통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주거생활	공통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및 장소	주거생활	공통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유형별	쪽방
	현 거처의 면적, 시세, 보증금, 월임대료, 일세	유형별	쪽방

구분	조사내용	조사표 영역	조사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임대료 체납 여부	유형별	쪽방
	현 거주지 내부시설	유형별	쪽방
	거처에서 느끼는 불편함	유형별	쪽방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유형별	쪽방
	쪽방상답소 이용 정도	유형별	쪽방
	앞으로 쪽방촌에 거주할 의사	유형별	쪽방
	계속 살고 싶은 이유	유형별	쪽방
	이주가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곳	유형별	쪽방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건강(의료) 및 심리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여부 및 만족도	사회복지서비스	공통
	가장 도움이 됐던 서비스(1, 2순위)	사회복지서비스	공통
	서비스 접근경로	사회복지서비스	공통
	가장 필요한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공통
	식사해결방법	사회복지서비스	공통
사회 복지 서비스	직접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기본사항	공통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및 경험여부	유형별	거리/이용
	오늘밤 잠자리	유형별	거리/이용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유형별	거리/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유형별	거리/이용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유형별	거리/이용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유형별	생활시설
	가장 주요한 시설 입소 이유	유형별	생활시설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유형별	생활시설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유형별	생활시설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유형별	생활시설
	코로나 19 관련 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정도	코로나19 관련 사항
마스크 착용 시간		코로나19 관련 사항	공통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코로나19 관련 사항	공통
긴급재난지원금 유무(중앙정부, 지자체)		코로나19 관련 사항	공통

주: 조사대상의 '거리/이용'은 집계 당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과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시설 노숙인을 의미함.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 노숙인을 의미함.

면접조사는 일시집계조사에서 파악된 노숙인 등의 모집단 현황을 토대로 표본배분 및 추출과정을 거쳐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을 조사원이 직접 만나 구두에 의한 질문에 응답자가 구두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원은 응답한 내용을 CAPI의 컴퓨터(태블릿PC)에 옮겨 입력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컴퓨터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조사표에 기록하여 조사를 마친 후 컴퓨터 입력을 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21년 6월 3일(목)부터 7월 2일(금)까지 시행하였으며, 거리노숙인은 253 표본, 시설노숙인은 1,197표본, 쪽방주민은 250표본을 조사완료하였다.

1) 거리노숙인

거리노숙인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조사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일시집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현장전문가와 조사원이 팀(2인 1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실시 전 2021년 6월 2일(수), 3일(목) 양일에 걸쳐 조사원과 현장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일 수도권에서, 3일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투입되는 조사원과 현장 실무자가 많아 조사원과 현장실무자 교육이 별도로 실시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사원과 현장전문가는 수도권 교육을 녹화한 영상 파일을 송부하여 시청하게 하였고 뒤에 주요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쳤다.

조사는 노숙인이 확인된 거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노숙인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일시집계조사에서 노숙인이 출현하지 않은 거점의 경우도 일부 추출하여 노숙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다. 조사는 총 3회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표본추출된 거점에서만 목표한 거리노숙인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근처 거점으로 거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시설노숙인

조사 실시 전 거리노숙인과 동일하게 2021년 6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 조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조사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담당자는 현장 지원과 관리 역할로 일부 담당자만 조사원 교육에 참여하였다. 시설노숙인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담당자의 현장 지원 및 관리 하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3) 쪽방주민

쪽방주민 면접조사 조사원 교육도 2021년 6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조사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은 시설노숙인 대상 조사원과 동일한 절차로 선발되었다. 쪽방주민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원이 쪽방지역을 방문하면 쪽방 담당자의 현장 지원 및 안내, 관리 하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 조사의 과정 및 자료의 처리

1) 거리노숙인

사전에 확정된 조사거점에 현장전문가와 조사원이 2인 1조로 방문하여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찾아가 조사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간대는 현장 사정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거리노숙인 판별을 위해 현장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잠자리에 들 무렵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전문가와 조사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현장 실무자는 면접 대상 거리노숙인을 판별하고 최초 접근하여, 조사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조사원은 문항을 순서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응답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현장전문가는 조사 진행 시 밀착 감독하여 응답자의 응답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응답자나 조사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일차적으로 설문이 완성되면 조사원은 누락되었거나 잘못 응답된 문항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서 CAPI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에디팅을 진행하였다. 응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면 조사완료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답례품(양말세트, 우산 중 택 1)과 방역물품을 제공하였다.

2) 시설노숙인

시설노숙인의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시설 담당자의 협조와 관리 하에 직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은 시설담당자에게 방문 가능 일정을 협의하고, 해당 일정에 조사원이 시설에 방문하여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거리노숙인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설문이 완성되면 조사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서 CAPI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에디팅을 진행하였다. 응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면 조사완료에 대

한 감사 인사와 함께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동일한 답례품과 방역물품을 지급하였다.

조사 진행 전 시설 담당자가 조사 취지 및 진행 방법, 조사원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후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설 담당자는 응답자의 응답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보충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응답자 또는 조사원에게 도움을 주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되, 조사문항 중 시설 관련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조사 진행 과정에서 동일 장소 배석은 배제하고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조사원이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지참 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외부인 출입을 자체적으로 전면 통제된 2개 시설은, 두 시설이 동일한 법인의 동일한 부지에 위치하여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원교육을 실시한 후, 시설 담당자를 서로 교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시설 담당자가 CAPI가 익숙치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종이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당일 실사책임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고, 검증하였다.

3) 쪽방주민

쪽방주민의 면접조사도 시설노숙인의 면접조사와 동일하게 조사원이 쪽방상당소에 방문일자를 협의하여 방문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쪽방상당소 직원은 조사대상 거주자를 선정하고 조사원이 조사진행 시 조사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조사원의 조사를 관리하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쪽방상당소와 관련된 문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사 진행 과정에서 쪽방상당소 담당자는 배제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단을 기준으로 표본 추출 기준(N번째)에 따라 대상자를 추출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섭외된 쪽방주민 중 일부는 시설의 사정상 현장실무자와 동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조사원 2~3인이 방문 후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역시 일차적으로 설문이 완성되면 조사원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응답된 문항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질문하는 단계가 진행되었다. 조사 이후 조사원이 입력된 CAPI 데이터를 최종 검토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후 조사에 대한 답례로 응답자에게 답례품 및 방역물품을 지급하였다.

제3절 표본설계 및 가중치

1. 표본설계

가. 모집단 현황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대한 표본설계는 전국의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규모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인 노숙인 등은 「노숙인 복지법」의 노숙인 등 정의(제2조)와 조사의 실현가능성 및 정책적 유효자료를 고려하여 ① 거리 노숙인, ② 시설입소 노숙인, ③ 쪽방상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쪽방주민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21년 기준의 전국의 거리노숙인, 시설입소 노숙인 및 쪽방주민이며, 조사모집단은 2021년 5월 14일 기준으로 파악된 거리노숙인, 시설 노숙인 및 쪽방주민이다.

본 조사의 조사대상인 노숙인 등은 거주지가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이 있어 이들의 거주 지역을 한정하여 조사모집단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한 표본추출틀은 일시집계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거리노숙인 거점 리스트, 쪽방 거주지 리스트, 각종 노숙인 관련 시설 리스트 등으로 한다.

〈표 2-3-1〉은 2021년 5월 14일 실시된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거리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48개 조사거점을 조사하였다. 이 중 노숙인이 1명 이상 출현한 지역은 376개 조사거점(24.3%)이었고, 이들 지역에서 파악된 총 노숙인은 1,201명이었다. 시설노숙인은 2021년 5월 14일 기준 128개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노숙인 수는 7,755명이었다. 쪽방주민의 현황은 2021년 5월 14일 기준 전국 쪽방상담소가 있는 10개 지역에서 파악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 있는 쪽방주민은 총 5,448명으로 파악되었다.

〈표 2-3-1〉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일시집계조사 결과

(단위: 개소, 명)

시도	거리노숙			시설노숙		쪽방	
	조사 거점	발견 거점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 상당소	쪽방 주민
계	1,548	376	1,201	128	7,755	10	5,448
서울	533	162	612	37	1,988	5	2,755
부산	84	28	115	6	154	2	916
대구	68	30	116	9	755	1	713
인천	101	18	41	5	460	1	461
광주	17	4	4	2	106	-	-
대전	125	20	30	7	229	1	603
울산	28	12	18	1	31	-	-
세종	11	1	1	1	91	-	-
경기	330	68	188	21	1042	-	-
강원	74	8	14	7	194	-	-
충북	25	1	1	4	636	-	-
충남	56	12	40	1	21	-	-
전북	21	5	6	5	213	-	-
전남	24	0	0	7	628	-	-
경북	16	3	5	5	307	-	-
경남	12	3	6	7	770	-	-
제주	23	1	4	3	130	-	-

주: 1) 거리노숙의 '발견거점'은 거리노숙인이 1명 이상 발견된 거점을 의미함.

2) 시설의 지역구분은 관할 지자체가 아닌 소재 지자체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표본추출틀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대상 조사는 거주 장소에 따라 거리노숙, 시설노숙, 쪽방주민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로 각각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나. 각 모집단별 표본설계

1) 거리노숙인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일시집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준시점에서 거리노숙인이 1명 이상 출현한 지점은 총 376개 거점이다. 일부 시도는 거리노숙인이 발견되는 거점이 없거나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층을 설정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이고,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이

다.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이고,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강원권은 강원이다.

〈표 2-3-2〉는 각 지역층 및 거점규모별 노숙인 수 현황이다. 거점 내 노숙인 수의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1,548개 거점 중 일시집계조사에서 노숙인 1명 이상 출현한 거점 376개소(24.3%)를 살펴보면, 1~2인 출현 거점이 68.6%(258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3~4인은 16.0%(60개소), 5~9인은 9.8%(37개소), 10~19인은 3.5%(13개소), 20~39인은 1.6%(6개소), 40인 이상은 0.5%(2개소)로 파악되었다.

거점규모 크기에 따른 노숙인 수를 살펴보면, 1~4인 거점이 전체 노숙인 수의 43.4%(521명)이며, 5~9인은 20.7%(249명), 10~19인은 14.2%(171명), 20~39인은 13.2%(162명), 40인 이상은 8.2%(98명)를 차지하고 있다. 노숙인 5명 이상이 관측된 거점 수는 58개소로 전체의 15.4%이지만, 해당 거점 내의 노숙인은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2〉 권역별 거점규모별 노숙인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0명	1~2인	3~4인	5~9인	10~19인	20~39인	40인 이상	전체
거점 수	전국	1,172	258	60	37	13	6	2	1,548
	수도권	716	169	41	23	8	5	2	964
	충청권	183	25	6	3	-	-	-	217
	영남권	132	48	12	10	5	1	-	208
	호남권	75	9	1	-	-	-	-	85
	강원권	66	7	-	1	-	-	-	74
노숙인 수	전국	0	318	203	249	171	162	98	1,201
	수도권	0	211	140	151	101	140	98	841
	충청권	0	30	20	22	-	-	-	72
	영남권	0	60	39	69	70	22	-	260
	호남권	0	10	4	-	-	-	-	14
	강원권	0	7	-	7	-	-	-	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노숙인 1명 이상이 출현한 총 376개 거점 중 수도권이 248개소(66.0%)로 가장 많고, 영남권이 76개소(20.2%)로 나타나, 수도권과 영남권 두 개 권역에 전체 거점의 86.2%가 집중되어 있다. 노숙인 수로 살펴보면 1,201명 중 수도권에 841명(70.0%),

영남권에 260명(21.6%)이 분포하고 있다.

〈표 2-3-3〉은 노숙인 1명 이상이 출현한 거점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거점 및 노숙인 수와 거점당 노숙인 수 기술통계량이다. 전국적으로 거점당 평균 3.2명이 집계되었으며,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3.4명으로 거점당 평균 노숙인이 많다.

전국 자료에서 거점당 노숙인 수에 대한 왜도는 5.4이다. 이는 거점에 따라 노숙인 수 분포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고, 일부 소수의 거점에 많은 노숙인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3-3〉 권역별 거점수 및 노숙인 규모 현황

(단위: 개, 명, %)

권역별	거점수	노숙인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동계수 (CV: %)	왜도
		거점당 평균						
전국	376	1201	3.2	5.4	1	52	158.8	5.4
수도권	248	841	3.4	6.1	1	52	290.5	5.2
충청권	34	72	2.1	1.9	1	8	55.9	2.1
영남권	76	260	3.4	4.2	1	22	300.0	2.5
호남권	10	14	1.4	1.0	1	4	55.6	2.7
강원권	8	14	1.8	2.1	1	7	65.6	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거리노숙인 대상 조사의 표본크기는 25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6년도 실태조사의 표본크기인 200명에서 50명 증가한 것이며,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의 오차의 한계가 $\pm 5.5\%p$ 를 만족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5인 이상이 기거하고 있는 거점에 전체 노숙인의 56% 이상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거리노숙인 5인 이상이 기거하고 있는 58곳은 전수 추출하였고, 노숙인 1~4인이 관측된 거점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을 통하여 표본 거점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일시집계조사 당시 거리노숙인이 없었던 1,172곳 중 40곳을 추출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표본추출틀 구축 당시에는 거리노숙인이 없었지만, 이후 거리노숙인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모집단 누락을 없애기 위함이다. 수도권 20곳(서울 10곳, 경기와 인천 각각 5곳), 나머지 지역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으로부터 각각 5곳 이상을 추출하여 노숙인 수 파악과 노숙인 대

상 실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각 거점규모별 표본배분은 1~4인 규모와 5인 이상 규모에 대해서 해당 규모층의 노숙인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규모 구분(전수층)에 대해서 153명을 배분하였고, 나머지 97명은 1~4인 규모에 배분하였다. 1~4인 규모 내에서 1~2인 규모와 3~4인 규모에 대해서는 노숙인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표본 거점에서 조사하는 노숙인 수는 거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표 2-3-4>~<표 2-3-6>은 각 거점규모별 조사 노숙인 수와 각 권역 및 거점규모별 표본 거점수, 조사 노숙인 수 현황이다.

<표 2-3-4> 거점 규모별 조사 노숙인 수 현황

(단위: 명)

거점 규모	1~2인	3~4인	5~9인	10~19인	20~39인	40인 이상 ⁹⁾
조사 노숙인 수	1인	2인	2인	3인	4인	8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2-3-5> 권역별 거점 규모별 표본 거점수 현황

(단위: 개)

구분	0인	1~2인	3~4인	5~9인	10~19인	20~39인	40인 이상	전체	
배분 거점 수	전국	40	59	19	37	13	6	2	176
	수도권	20	38	12	23	8	5	2	108
	충청권	8	6	2	3	-	-	-	19
	영남권	6	11	4	10	5	1	-	37
	호남권	3	2	1	-	-	-	-	6
	강원권	3	2	-	1	-	-	-	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9) 2021년 일시집계조사에서 노숙인 40명 이상인 거점은 2곳이며, 각각 46명, 52명이었음.

〈표 2-3-6〉 권역별 거점 규모별 조사 노숙인 수 현황(안)

(단위: 개, 명, %)

구분	1~2인	3~4인	5~9인	10~19인	20~39인	40인 이상	전체
전국	59	38	74	39	24	16	250
배분 거점 수	수도권	38	24	46	24	20	168
	충청권	6	4	6	0	0	16
	영남권	11	8	20	15	4	58
	호남권	2	2	0	0	0	4
	강원권	2	0	2	0	0	4

자료: 연구진 작성.

본 조사에서 5인 이상 규모의 거점은 전수추출하고, 1~2인 및 3~4인 거점은 각 권역별 내에서 거점 노숙인 규모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후 계통 추출하였다.

표본 거점에서 면접조사는 현장 실무자의 도움을 얻어 2016년도 실태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 노숙인을 추출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즉 추출된 거점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장 인접한 조사대상 노숙인을 기점으로 북동쪽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추출하였고, 선정된 조사대상이 조사 불가능한 경우 북쪽 우측 방향 최인접 대상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추출된 거점 내 조사대상이 없는 경우 시간대 혹은 조사일자를 달리 하여 해당 거점을 최대 3회까지 방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리 노숙인 대상 면접조사는 전체 표본크기가 250명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권역별 노숙인 통계작성은 불가능하며, 지역 구분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설노숙인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본 연구에서 시설노숙인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추출틀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취합한 각 시도별 노숙인 시설리스트이며, 총 128개 시설이다. 〈표 2-3-7〉은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노숙인 현황이다.

시설 내 노숙인 수는 총 7,755명이며, 1개 시설당 평균 노숙인 수는 60.6명이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양시설이 138.6명으로 가장 많고 재활시설 98.3명, 자활시설 21.3명, 일시보호·종합지원센터 18.8명 순이다. 시설 수는 자활시설이 52개소로

가장 많고, 재활시설이 34개소, 요양시설이 21개소, 일시보호·종합지원센터가 21개소 순이다. 입소자 수는 재활시설이 3,343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시설 2,911명, 자활시설 1,107명, 일시보호·종합지원센터가 394명 순이다.

〈표 2-3-7〉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노숙인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일시보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당	노숙인당		시설당	노숙인당		시설당	노숙인당		시설당	노숙인당			
전국	21	394	18.8	52	1,107	21.3	34	3,343	98.3	21	2,911	138.6	128	7,755	60.6
서울	7	320	45.7	19	523	27.5	7	160	22.9	4	985	246.3	37	1,988	53.7
부산	2	16	8.0	3	51	17.0	0	0	0.0	1	87	87.0	6	154	25.7
대구	2	15	7.5	5	97	19.4	1	462	462.0	1	181	181.0	9	755	83.9
인천	0	0	0.0	1	17	17.0	1	388	388.0	3	55	18.3	5	460	92.0
광주	0	0	0.0	1	13	13.0	1	93	93.0	0	0	0.0	2	106	53.0
대전	2	11	5.5	4	88	22.0	1	130	130.0	0	0	0.0	7	229	32.7
울산	0	0	0.0	1	31	31.0	0	0	0.0	0	0	0.0	1	31	31.0
세종	0	0	0.0	0	0	0.0	1	91	91.0	0	0	0.0	1	91	91.0
경기	4	28	7.0	11	198	18.0	4	368	92.0	2	448	224.0	21	1042	49.6
강원	2	0	0.0	2	17	8.5	1	54	54.0	2	123	61.5	7	194	27.7
충북	0	0	0.0	1	10	10.0	2	162	81.0	1	464	464.0	4	636	159.0
충남	0	0	0.0	1	21	21.0	0	0	0.0	0	0	0.0	1	21	21.0
전북	0	0	0.0	2	39	19.5	2	120	60.0	1	54	54.0	5	213	42.6
전남	0	0	0.0	0	0	0.0	5	514	102.8	2	114	57.0	7	628	89.7
경북	1	0	0.0	1	2	2.0	1	75	75.0	2	230	115.0	5	307	61.4
경남	0	0	0.0	0	0	0.0	5	600	120.0	2	170	85.0	7	770	110.0
제주	1	4	4.0	0	0	0.0	2	126	63.0	0	0	0.0	3	130	43.3

주: 시설의 지역구분은 관할 지자체 구분이 아닌 소재 지자체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시설노숙인 면접조사에서는 거리노숙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으로 지역층을 구분하였다. 이후 시설유형(재활, 요양, 자활, 일시보호·종합지원센터)에 따라 2차 층화하였다. 〈표 2-3-8〉은 각 층별 시설 수 및 시설노숙인 현황이다.

〈표 2-3-8〉 권역별 시설노숙인 모집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권역	일시보호· 종합지원센터		자활		재활		요양		합계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시설	노숙인
전국	21	394	52	1,107	34	3,343	21	2,911	128	7,755
수도권	11	348	31	738	12	916	9	1,488	63	3,490
충청권	2	11	6	119	4	383	1	464	13	977
영남권	5	31	10	181	7	1,137	6	668	28	2,017
호남권	1	4	3	52	10	853	3	168	17	1,077
강원권	2	0	2	17	1	54	2	123	7	1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시설노숙인 면접조사의 표본크기는 1,200명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의 오차의 한계가 $\pm 2.9\%$ p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설노숙인 면접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노숙인이 거주하는 시설이고, 2차 추출단위는 시설노숙인 개인이다. 시설노숙인 면접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시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 노숙인이 없거나 현원이 10인 이하로 소규모인 19개 시설을 제외한 109개 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2-3-9〉는 각 권역 및 시설유형별 표본배분 현황이다. 각 권역별 및 시설유형별 총 노숙인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였다. 각 권역 및 시설유형 내 각 시설별 표본배분은 각 시설별 노숙인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표본시설의 표본크기가 최소 2인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표 2-3-9〉 각 층별 시설노숙인 표본배분 현황

(단위 : 명)

권역	일시보호· 노숙인종합	자활	재활	요양	전체
전국	62	171	517	450	1,200
수도권	51	112	142	232	537
충청권	3	19	59	70	151
영남권	5	28	175	103	311
호남권	3	8	133	26	170
강원권	0	4	8	19	31

자료: 연구진 작성.

최종적으로 각 시설 내에서는 시설노숙인의 성별, 연령별 현황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 다만, 시설유형 중 ‘일시보호·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성별 및 연령별 모집단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배분하지 않고 시설 내 노숙인 명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명부 기준으로 계통 추출하였다. 명부가 없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 연령 구분에 따라 고르게 추출될 수 있도록 조사시간대를 달리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3) 쪽방주민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쪽방주민 대상 면접조사에서 ‘쪽방주민’은 쪽방상담소가 있는 지역(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인천, 대전, 대구 각 1개소)을 기준으로 조사 당일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조사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범위 내에서 조사결과를 활용해야 하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활용해야 하며, 그 이상의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쪽방주민 대상 면접조사의 표본크기는 25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의 오차의 한계가 $\pm 6.3\%p$ 를 만족하는 수준이다. 전체 쪽방주민 대상 면접조사의 조사범위를 지역별 쪽방 상담소가 있는 쪽방 10개 지역으로 국한함에 따라 표본크기는 크지 않다.

쪽방주민 대상 면접조사에서 표본배분은 시도별 쪽방주민 수 기준의 제곱근 비례배분 후 성별 비율에 따른 비례배분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선 시도별 표본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별 쪽방주민 규모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시도별로 표본크기를 배분하였다. 시도 내 표본배분은 배분된 시도별 표본크기를 시도별 성별 모집단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 시도 내 지역별 표본배분은 배분된 시도별 표본을 지역(서울 5개, 부산 2개)별 모집단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

〈표 2-3-10〉는 쪽방주민의 각 권역별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이다. 모집단 현황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수는 5,448명이고, 이 중 남자가 4,597명, 여자가 851명이다. 쪽방주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2,755명이 거주하고, 부산에 916명, 대구 713명, 인천 461명, 대전에 603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표본크기는 250명이고, 제곱근 비례배분법에 따라 배분된 각 지역의 표본크기

는 서울 84명, 부산 49명, 대구 43명, 인천 35명, 대전 39명이다. 성별 표본크기는 남자가 206명, 여자가 44명이다.

〈표 2-3-10〉 권역별 쪽방주민의 모집단 및 표본배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모집단			표본규모					
	계	남	여	계	남		여		
					추출률	추출률	추출률	추출률	
서울(영등포)	488	366	122	15	(3.5)	11	(3.0)	4	(3.3)
서울(서울역)	930	810	120	28	(3.4)	24	(3.0)	4	(3.3)
서울(돈의동)	534	496	38	17	(3.6)	15	(3.0)	2	(5.3)
서울(남대문)	506	447	59	15	(3.6)	13	(2.9)	2	(3.4)
서울(동대문)	297	242	55	9	(3.4)	7	(2.9)	2	(3.6)
소계	2,755	2,361	394	84	(3.5)	70	(3.0)	14	(3.6)
부산(진구)	476	440	36	25	(4.8)	23	(5.2)	2	(5.6)
부산(동구)	440	383	57	24	(5.0)	21	(5.5)	3	(5.3)
소계	916	823	93	49	(4.9)	44	(5.3)	5	(5.4)
대구	713	641	72	43	(5.6)	39	(6.1)	4	(5.6)
인천	461	296	165	35	(7.2)	22	(7.4)	13	(7.9)
대전	603	476	127	39	(6.0)	31	(6.5)	8	(6.3)
계	5,448	4,597	851	250	(4.6)	206	(4.5)	44	(5.2)

자료: 연구진 작성.

각 지역에서 쪽방주민에 대한 표본선정 과정은 2016년도 실태조사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다. 각 지역 내 쪽방상당소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장 인접한 쪽방촌의 쪽방가구를 기점으로 하여 추출률의 역수로 정의된 추출간격에 따른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 가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 쪽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한 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쪽방가구가 조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북쪽 우측 방향 최인접 쪽방가구로 대체하되, 부재중인 경우 시간대를 달리하여 3회까지 방문하도록 하였다.

2. 가중치 산출 및 추정 방법

가. 가중치 작성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설계가 각각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가중치 작성도 각각의 면접조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1)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거리노숙인 면접조사에서 표본추출은 층화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거점이고, 2차 추출단위는 거리노숙인 개인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거점 수만큼을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각 표본 거점에서 조사하는 노숙인 수는 거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산출하여 가중치의 변동을 줄였다.

거리노숙인 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된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 설계 가중치: } w_{hij} = \frac{1}{p_{hi}^{(1)}} \times \frac{1}{p_{hi}^{(2)}}$$

여기서, $p_{hi}^{(1)}$ 는 h 층의 i 번째 표본거점의 추출확률이고, $p_{hi}^{(2)}$ 는 h 층의 i 번째 표본거점의 내 조사대상자 추출확률이다.

본 연구에서 응답률의 차이로 인한 추정상의 편향(bias)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되었다. 무응답 조정 단계에서는 각 표본 거점을 무응답 조정 셀로 이용하였다.

$$\text{- 무응답 조정계수: } w_{hi}^R = \frac{T_{hi}}{t_{hi}}$$

- 무응답 조정 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w_{hi}^R$

여기서, T_{hi} 는 h 층의 i 번째 표본거점의 표본 노숙인 수이고, t_{hi} 는 h 층의 i 번째 표본거점의 실제 응답 노숙인 수이다.

사후층화 조정은 권역과 규모 층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후층화 조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 사후층화 조정계수: $post_{adj}^{(h)} = \frac{P_h}{\hat{P}_h}$

- 최종 가중치: $w_{hij}^f = w_{hij} \times w_{hi}^R \times post_{adj}^{(h)}$

여기서, P_h 는 h 층의 총 노숙인 수(일시집계 결과)이고, $\hat{P}_h = \sum_{i=1}^{n_h} \sum_{j=1}^{t_{hi}} w_{hij}^r$ 는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에 의한 h 층의 노숙인 총수 추정값이다.

2) 시설노숙인 면접조사

시설노숙인 면접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은 앞서 제시한 거리노숙인 면접조사를 위한 가중치 작성과정과 유사하다. 시설노숙인 면접조사를 위한 표본추출도 층화2단 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시설이고, 2차 추출단위는 시설노숙인 개인이다. 시설노숙인 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된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설계 가중치: $w_{hij} = 1/p_{hi} = \frac{M_{hi}}{m_{hi}}$

여기서, h 는 층 구분, i 는 표본 시설 구분, j 는 응답 노숙인을 나타내는 첨자이고, M_{hi} 는 h 층의 i 번째 표본 시설의 총 노숙인 수, m_{hi} 는 i 번째 시설의 표본 노숙인 수이다.

각 표본 시설을 무응답 조정 셀로 이용하였으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text{- 무응답 조정계수: } w_{hi}^R = \frac{m_{hi}}{r_{hi}}$$

여기서, r_{hi} 는 h 층의 i 번째 시설노숙인의 표본크기이고, r_{hi} 는 h 층의 i 번째 시설노숙인의 응답 노숙인 수이다.

사후층화 조정은 권역과 시설 유형 층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후층화 조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text{- 사후층화 조정계수: } post_{adj}^{(h)} = \frac{X_h}{\hat{X}_h}$$

$$\text{- 최종 가중치: } w_{hij}^f = w_{hij}^R \times w_{hi}^R \times post_{adj}^{(h)}$$

여기서, X_h 는 h 층의 시설 노숙인 총수이고, \hat{X}_h 는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에 의한 h 층의 시설 노숙인 총수 추정값이다.

3) 쪽방주민 면접조사

쪽방주민 면접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도 앞선 두 조사의 가중치 작성과정과 유사하다. 쪽방주민 면접조사의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된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 설계가중치}(h\text{지역 } i\text{번째 쪽방상담소 내 } j\text{번째 주민): } w_{hij} = \frac{M_{hi}}{m_{hi}}$$

여기서, M_{hi} 는 h 층의 i 번째 쪽방상담소 내 총 쪽방 수, m_{hi} 는 h 층의 i 번째 쪽방상담소 지역 내 표본 쪽방 수이다.

각 표본 쪽방상당소를 무응답 조정 셀로 이용하였으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text{- 무응답 조정계수: } w_{hi}^R = \frac{T_{hi}}{t_{hi}}$$

여기서, T_{hi} 는 h 층의 i 번째 쪽방상당소 내 표본 대상의 전체 쪽방주민 수, t_{hi} 는 h 층의 i 번째 쪽방상당소 내 표본 대상자 중 응답 쪽방주민 수이다.

사후층화 조정은 권역 층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후층화 조정을 거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text{- 사후층화 조정계수: } post_{adj}^{(h)} = \frac{X_h}{\hat{X}_h}$$

$$\text{- 최종 가중치: } w_{hij}^f = w_{hij} \times w_{hi}^R \times post_{adj}^{(h)}$$

여기서, X_h 는 h 층의 쪽방주민 총수이고, \hat{X}_h 는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에 의한 h 층의 쪽방주민 총수 추정값이다.

나. 추정 방법

본 조사에서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dots}}$$

여기서, w_{hij}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
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추출단위인 거점이나 시설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거점이나
시설의 응답자 수이다.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량의 분산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추출단위인 거점이나 시설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거점이나 시설의 응답자 수이다.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은 전체 응답

자에 대한 가중치 합계,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와 95% 신
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rse(\bar{y}) = \frac{\sqrt{var(\bar{y})}}{\bar{y}} \times 100(\%), \text{ 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제4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거리노숙인 면접조사에서는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전체 1,548개 거점 중 176개 표본 거점을 추출한 후 각 표본 거점의 규모에 따라 해당 표본거점에서 조사되는 표본수를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표 2-4-1〉은 각 권역 및 성별 응답 거리노숙인 수 현황이다. 본 조사를 통해서 253명의 응답을 얻었는데, 이 중 수도권의 응답자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권에서 63명이 응답하였다. 거점 규모별 응답자 중 남자가 227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자는 26명이다.

〈표 2-4-1〉 권역별 거점 규모별 거리노숙인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명	1~4인	5~9인	10~19인	20~39인	40인 이상	전체
전국	7	74	80	52	28	12	253
수도권	4	45	50	32	25	12	168
충청권	0	8	6	0	0	0	14
영남권	3	16	21	20	3	0	63
호남권	0	4	0	0	0	0	4
강원권	0	1	3	0	0	0	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2-4-2〉 권역별 및 성별 거리노숙인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전국	227	26	253
수도권	150	18	168
충청권	13	1	14
영남권	56	7	63
호남권	4	0	4
강원권	4	0	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시설노숙인 조사는 총 10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 2-4-3〉은 시설노숙인의 각 권역 및 시설유형별 응답 현황이다. 시설노숙인 응답자는 총 1,197명이며,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시설 응답자가 517명으로 가장 많고, 요양시설 응답자가

450명, 자활시설 응답자는 171명, 일시보호시설·종합지원센터 응답자는 59명이 조사되었다. 지역별 응답자 현황은 수도권에서 537명, 영남권에서 311명, 호남권에서 167명, 충청권에서 151명, 강원권에서 31명이 조사되었다. <표 2-4-4>는 각 시설유형 및 성별 현황이다. 전체 1,197명의 응답자 중 남자가 828명, 여자는 369명이다.

<표 2-4-3> 권역별 및 시설유형별 시설노숙인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전국	59	171	517	450	1,197
수도권	51	112	142	232	537
충청권	3	19	59	70	151
영남권	5	28	175	103	311
호남권	0	8	133	26	167
강원권	0	4	8	19	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2-4-4> 성별 및 시설유형별 시설노숙인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전체	828	369	1,197
이용시설	54	5	59
자활시설	150	21	171
재활시설	385	132	517
요양시설	239	211	4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주민 조사는 쪽방상당소가 있는 지역(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인천, 대전, 대구 각 1개소)으로 조사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표본크기는 250명으로 결정하였다. <표 2-4-5>는 쪽방주민 조사의 각 권역 및 성별 응답자 현황이다. 전체 응답자는 250명이고, 이 중 남자가 206명, 여자가 44명이다. 조사에 응답한 쪽방주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서 84명, 부산 49명, 대구 43명, 인천 35명, 대전 39명 등이 조사되었다.

〈표 2-4-5〉 권역별 및 성별 쪽방주민의 응답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남	여	전체
서울(영등포)	11	4	15
서울(서울역)	24	4	28
서울(돈의동)	15	2	17
서울(남대문)	13	2	15
서울(창신동, 구 동대문)	7	2	9
서울 소계	70	14	84
부산(진구)	23	2	25
부산(동구)	21	3	24
부산 소계	45	5	49
대구	39	4	43
인천	22	13	35
대전	31	8	39
계	206	44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3장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 일시집계조사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제2절 거리노숙인의 규모

제3절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와 일반적 특징

제4절 쪽방주민의 규모 및 일반적 특징

제 3 장

노숙인 등의 규모 및 분포: 일시집계조사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1.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2021년 일시집계조사 결과¹⁰⁾에서 전국적으로 이용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그리고 쪽방주민을 모두 합한 전체 노숙인 등 규모는 14,404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5년 전의 2016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3,128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약 17.8% 가량 감소하였다. 거리노숙인(거리와 이용시설 이용자 포함)과 생활시설 노숙인을 합한 노숙인은 8,956명으로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2,384명(약 21%) 감소하였다.

〈표 3-1-1〉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

구분	노숙인 등 전체									
	총계 (A=B+J)	합계 (B=C+F)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J)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소계 (C=D+E)	거리(D)	이용 시설(E)	소계 (F=G+H+I)	자활 시설(G)	재활 시설(H)	요양 시설(I)		
2021년 전국	14,404 (100.0)	8,956 (62.2)	1,595 (11.1)	1,201 (8.3)	394 (2.7)	7,361 (51.1)	1,107 (7.7)	3,343 (23.2)	2,911 (20.2)	5,448 (37.8)
2016년 전국	17,532 (100.0)	11,340 (64.7)	2,015 (11.5)	1,522 (8.7)	493 (2.8)	9,325 (53.2)	1,599 (9.1)	4,290 (24.5)	3,436 (19.6)	6,192 (35.3)

주: 거리노숙인(C)은 집계 당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D)과 집계 당시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시설 노숙인(E)을 의미함(C=D+E).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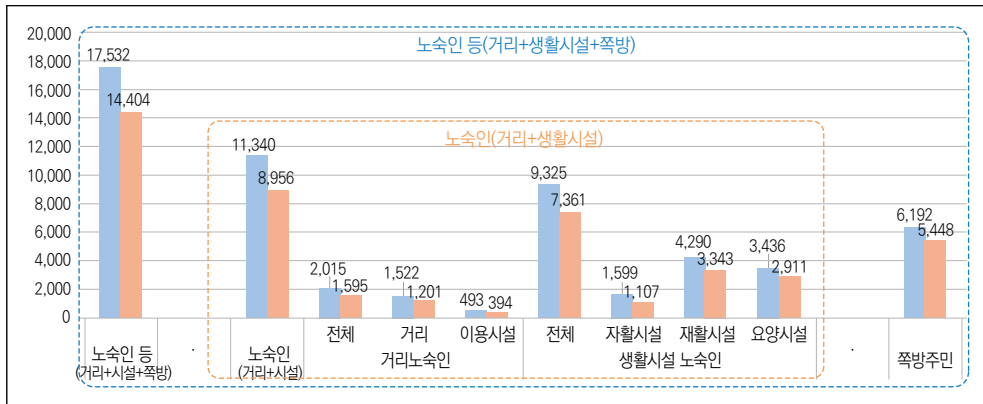
10) 일시집계조사 결과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거나 비율의 합이 10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노숙인 등을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1,59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에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소위 Rough Sleeper와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포함된다. 이 중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거리노숙인은 1,201명이다.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해 밤을 보내는 거리노숙인은 394명이다. 생활시설 노숙인은 자활시설 1,107명, 재활시설 3,343명, 요양시설 2,91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노숙인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리노숙인이 11.1%, 생활시설 노숙인은 51.1%를 나타내었다.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는 재활시설(23.2%), 요양시설(20.2%)에서 집계된 인원이 자활시설(7.7%)에서 집계된 인원보다 많다. 전체적으로 노숙인 등이 집계된 비율은 각 거처유형별로 201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며, 고르게 2016년도 조사결과 대비 약 20% 안팎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쪽방주민은 5,448명으로 역시 2016년 조사결과 6,192명보다 감소(12.0%)하였다.

[그림 3-1-1]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7.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전체 노숙인 등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에 전국 노숙인 등의 37.2%, 인천 6.7%, 경기 8.5%가 있어 수도권에 전체 노숙인 등의 52.4%가 분포하고 있다. 비수도권 중에는 대구가 11.%, 부산 8.2% 순이다.

노숙인 등 중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을 살펴보면, 지역별 분포는 서울에 전국 노숙인의 29.0%, 경기도에 13.7%, 인천에 5.6%가 있어 수도권에 전체 노숙인의 43.7%가

분포하고 있다. 전체 노숙인의 규모는 서울, 경기, 대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는 서울에만 전국 거리노숙인의 58.4%인 932명이 집계되고 있다. 거리노숙인의 규모는 서울, 경기도에 이어 부산과 대구가 같은 수를 나타내었다.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는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충북, 전남의 순서로 나타나 대형 시설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노숙인의 수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점이 확인된다.

〈표 3-1-2〉 지역별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

구분	노숙인 등 전체									
	합 계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합 계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포함)		생활시설 노숙인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14,404	(100.0)	8,956	(100.0)	1,595	(100.0)	7,361	(100.0)	5,448	(100.0)
서울	5,355	(37.2)	2,600	(29.0)	932	(58.4)	1,668	(22.7)	2,755	(50.6)
부산	1,185	(8.2)	269	(3.0)	131	(8.2)	138	(1.9)	916	(16.8)
대구	1,584	(11.0)	871	(9.7)	131	(8.2)	740	(10.1)	713	(13.1)
인천	962	(6.7)	501	(5.6)	41	(2.6)	460	(6.2)	461	(8.5)
광주	110	(0.8)	110	(1.2)	4	(0.3)	106	(1.4)	0	(0.0)
대전	862	(6.0)	259	(2.9)	41	(2.6)	218	(3.0)	603	(11.1)
울산	49	(0.3)	49	(0.5)	18	(1.1)	31	(0.4)	0	(0.0)
세종	92	(0.6)	92	(1.0)	1	(0.1)	91	(1.2)	0	(0.0)
경기	1,230	(8.5)	1,230	(13.7)	216	(13.5)	1,014	(13.8)	0	(0.0)
강원	208	(1.4)	208	(2.3)	14	(0.9)	194	(2.6)	0	(0.0)
충북	637	(4.4)	637	(7.1)	1	(0.1)	636	(8.6)	0	(0.0)
충남	61	(0.4)	61	(0.7)	40	(2.5)	21	(0.3)	0	(0.0)
전북	219	(1.5)	219	(2.4)	6	(0.4)	213	(2.9)	0	(0.0)
전남	628	(4.4)	628	(7.0)	0	(0.0)	628	(8.5)	0	(0.0)
경북	312	(2.2)	312	(3.5)	5	(0.3)	307	(4.2)	0	(0.0)
경남	776	(5.4)	776	(8.7)	6	(0.4)	770	(10.5)	0	(0.0)
제주	134	(0.9)	134	(1.5)	8	(0.5)	126	(1.7)	0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한편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한다면, 지역별로도 전체 노숙인 수 감소 경향에 비추어 고르게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감소가 눈에 띈다. 서울지역은 거리노숙인 932명, 생활시설 노숙인 1,666명으로 합계 2,600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조사의 합계 수치 3,591명에 비해 거의 1,000명 가량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따라 전국 노숙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도의 31.7%에서 29.0%로 감소하였고,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62.9%

에서 58.4%로 감소하였다.

쪽방주민을 제외한 지역별 노숙인의 규모를 각 지역 인구 1만 명 당 수준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은 인구 1만 명 당 1.73명이다. 2016년 2.19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충북이 인구 1만명 당 3.99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인구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에 대형 노숙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생활시설 노숙인이 인구 1만명 당 3.98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다. 충북지역의 거리노숙인은 인구 1만명 당 0.01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대구는 3.62명인데 생활시설 노숙인이 3.08명, 거리노숙인 0.55명으로 생활시설 노숙인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 거리노숙인은 두 번째의 수치로 고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시설 노숙인의 비율이 높은 곳은 충북 이외에도 대구, 세종, 경남, 제주, 서울, 인천 순이다.

〈표 3-1-3〉 인구 1만명 당 노숙인 등의 규모

(단위: 명)

구분	합계	노숙인 등 전체			
		합계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포함)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2.78	1.73	0.31	1.42	1.05
서울	5.60	2.72	0.97	1.74	2.88
부산	3.52	0.80	0.39	0.41	2.72
대구	6.59	3.62	0.55	3.08	2.97
인천	3.28	1.71	0.14	1.57	1.57
광주	0.76	0.76	0.03	0.73	-
대전	5.92	1.78	0.28	1.50	4.14
울산	0.43	0.43	0.16	0.28	-
세종	2.54	2.54	0.03	2.51	-
경기	0.91	0.91	0.16	0.75	-
강원	1.35	1.35	0.09	1.26	-
충북	3.99	3.99	0.01	3.98	-
충남	0.29	0.29	0.19	0.10	-
전북	1.22	1.22	0.03	1.19	-
전남	3.41	3.41	0.00	3.41	-
경북	1.18	1.18	0.02	1.17	-
경남	2.33	2.33	0.02	2.31	-
제주	1.99	1.99	0.12	1.87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행정안전부(2021). 행정구역(시군구)별 총인구수. 2021년 5월 기준.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포함)은 서울이 인구 1만명 당 1명에 가까운 0.97명이 고 대구가 0.55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서울은 2016년도 조사에서 인구 1만명 당 거리노숙인 1.23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도

조사에서 인구 1만 명 당 거리노숙인 0.39명에서 2021년 0.31명으로 감소하였다.

노숙인 등 전체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6.6%인 11,036명, 여성이 23.2%인 3,344명이다. 쪽방주인을 제외한 노숙인 만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로는 71.9%인 6,439명은 남성, 27.8%인 2,493명은 여성이다.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미상은 24명(0.3%)이다. 성별 차이는 거리노숙인의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데 거리노숙인은 89.3%인 1,425명이 남성, 9.2%인 146명이 여성, 1.5%인 24명이 성별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침낭 등에서 취침하고 있는 경우 성별이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다.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남성이 68.1%, 여성이 31.9%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거리노숙인에서의 남성 비율이 현저히 높다. 그러나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한다면 거리노숙인 중 여성의 비율은 6.4%에서 9.2%로 증가하였고 절대수치에서도 128명에서 146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노숙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이번 결과에서 여성 거리노숙인의 수만 증가하였다는 점은 유의할만한 사항이다.

〈표 3-1-4〉 노숙인 등의 성별 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미상	전체
합 계		11,036 (76.6)	3,344 (23.2)	24 (0.2)	14,404 (100.0)
노숙인 등 전체	노숙인 전체	6,439 (71.9)	2,493 (27.8)	24 (0.3)	8,956 (100.0)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포함)	1,425 (89.3)	146 (9.2)	24 (1.5)	1,595 (100.0)
	생활시설 노숙인	5,014 (68.1)	2,347 (31.9)	-	7,361 (100.0)
	쪽방주민	4,597 (84.4)	851 (15.6)	-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행정 자료와 실태조사 집계 결과 비교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숙인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대개는 PIT(Point-in-Time count) 등 일제조사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행정 자료나 보고수치를 취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난 12년 간의 행정집계 수치와 2011년, 2016년 그리고 이번 2021의 실태조사(PIT) 자료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 〈표 3-1-5〉와 같다.

〈표 3-1-5〉 노숙인 등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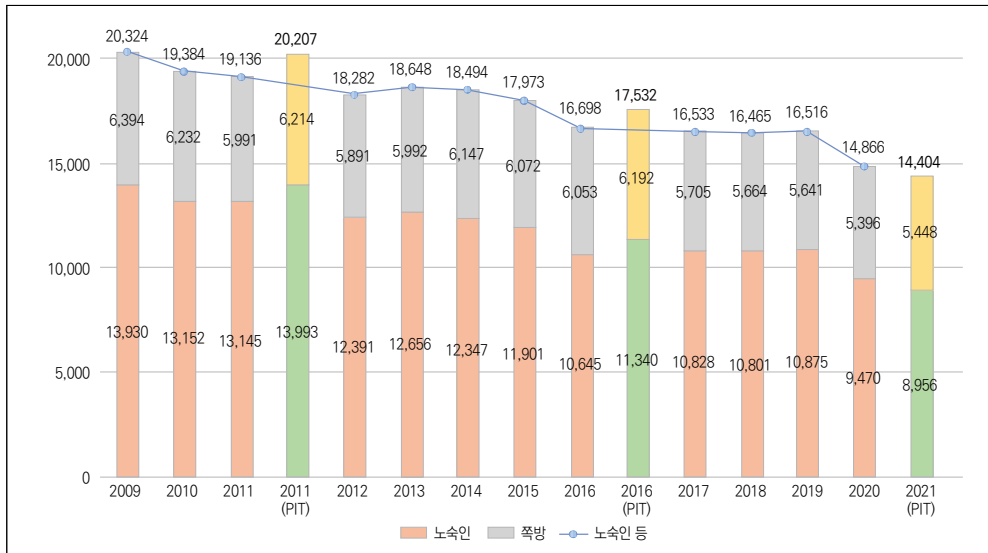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노숙인 등	합계	노숙인					쪽방주민	
			거리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		
2009	행정	20,324	13,930	1,260	-	3,404	9,266	6,394	
2010	행정	19,384	13,152	1,077	-	3,117	8,958	6,232	
2011	행정	19,136	13,145	1,121	-	3,282	8,742	5,991	
	PIT	20,207	13,993	2,689		3,144	8,160	6,214	
2012	행정	18,282	12,391	1,081	-	2,741	8,569	5,891	
2013	행정	18,648	12,656	1,197	844	2,095	4,829	3,691	5,992
2014	행정	18,494	12,347	1,138	899	1,949	4,549	3,812	6,147
2015	행정	17,973	11,901	1,125	1,045	1,683		8,048	6,072
2016	행정	16,698	10,645	969	798	1,613	3,890	3,375	6,053
	PIT	17,532	11,340	1,522	493	1,599	4,290	3,436	6,192
2017	행정	16,533	10,828	862	994	1,583	4,123	3,266	5,705
2018	행정	16,465	10,801	895	1,047	1,684	3,922	3,253	5,664
2019	행정	16,516	10,875	1,246	1,173	1,523	3,772	3,161	5,641
2020	행정	14,866	9,470	1,241	555	1,209	3,497	2,968	5,396
2021	PIT	14,404	8,956	1,201	394	1,107	3,343	2,911	5,448

주: 2016년 PIT 조사는 10월 20일에, 2021년 PIT 조사는 5월 14일에 실시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3-1-2] 노숙인 등의 규모 추이 (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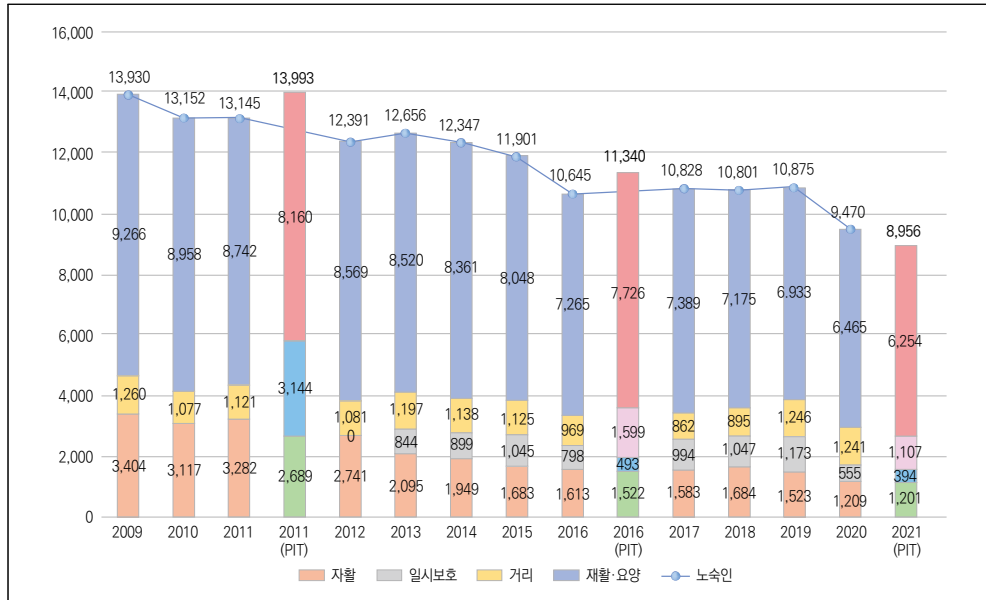
(단위: 명)



주: 1) 노숙인 등은 노숙인(자활+일시보호+거리+재활·요양)과 쪽방주민의 총합
 2) 2011, 2016, 2021년도 실태조사(PIT 조사) 결과는 별도 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3-1-3] 노숙인 규모 추이 (2009~2021)

(단위: 명)



주: 1) 노숙인은 자활+일시보호+거리+재활·요양의 합이며 쪽방주민은 제외함.

2) 2011, 2016, 2021년도 실태조사(PIT 조사) 결과는 별도 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각 연도별).

노숙인 특히 거리노숙인의 규모에는 계절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시점의 차이는 조사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며, 행정집계와 일제조사의 시점이 해마다 일치하지 않으므로 직접 조사결과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대개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행정집계 결과가 일제조사 결과에 비해 과소보고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2011년도 및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의 경험이다. 행정집계 결과를 통해 이번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나, 2021년에는 행정집계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번 2021년 5월의 일시집계조사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시된 2020년말 행정조사와 비교를 하였다. 이전까지의 행정조사와 비교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행정조사 결과보다 수치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가까운 2020년 말 행정조사의 결과보다 실태조사의 결과가 수치가 작다. 이는 조사시점이 행정조사는 연말이었는데 실태조사는 익년도 5월에 이루어진 결과를 비교한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의 원인 등이 다양하게 감안될 수 있으나 노숙인 수의 감소는 2021년도 조사에서 분명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개의 경우 일시보호시설과 같은 이용시설을 활용하는 거리노숙인의 수치는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만, 이용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밤을 보내는 거리노숙인(rough sleeper)은 집계거점의 파악 등에 따라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집계조사를 통해 파악된 거리노숙인 수가 지난 2020년 행정집계의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22개 거점에 대해 그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역 광장 주변의 경우(행정집계조사에 비해 22명 증가)에는 겨울철의 행정집계와 봄철의 일시집계조사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인접지역의 응급대피소가 폐쇄되면서 광장에서 밤을 보내는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가장 많은 인원 수가 감소한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지역의 경우(행정집계조사에 비해 47명 감소) 코로나19 유행 이후 검표를 통해 터미널에서 대기승객 외에는 머무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감소하였다. 감소한 인원은 인근의 다른 노숙 거점이나 확인되지 않은 (이에 따라 거리노숙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거리노숙인 수의 감소는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주요 거점별로 증가나 감소의 원인과 맥락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점을 통한 일시집계방식(PIT)으로 거리노숙인 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노숙인(the uncouncted : 집계거점에 있지만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노숙인. 집계방식의 개선과 노하우의 증진으로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과 ‘집계될 수 없는 노숙인(the uncountable : 집계거점이 아닌 곳에서 밤을 보내는 거리노숙인. 지속적인 거리노숙인 집계거점의 발굴과 관리를 통해 집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과 같은 감염병 창궐로 인해 거리노숙인의 생활 장소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소위 풍선효과라 일컫는 것처럼 인근 지역으로 거리노숙인의 생활 장소가 흩어졌을 수 있다. 이 때 산재된 곳이 집계거점으로 포착되지 않으면 거리노숙인 감소와 같은 착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거리노숙인 감소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집계거점의 관리와 감소인원의 이동 혹은 노숙으로부터의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존에 실태조사와 행정집계와의 가장 큰 차이는 거리노숙인 특히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수치 부분에서 부각되곤 했다. 행정집계에서는 특히 거리노숙인 집계거점의 파악이 부족했던 것이다. 2016년도 조사에도 행정집계보다 거리

노숙인이 553명 더 많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는 행정 집계 수치와의 차이가 40명으로 줄어들었고 행정집계의 결과가 오히려 더 컸다. 집계된 노숙인 수의 감소는 전반적 경향이라고 할 때, 거리노숙인에 대한 행정조사와 실태 조사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집계의 거점(spot)이 최근의 행정집계에서는 과거보다 관리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집계거점 수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6년도 실태조사 시 거리노숙인 집계 거점은 1,254개, 2020년 말의 행정집계는 1,468개이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거리노숙인 집계 거점 수는 1,548개이었다.

〈표 3-1-6〉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노숙인 집계 규모 비교

(단위: 명)

연도	구분	복지부 행정 집계(A) (12월 행정조사)	실태조사(B) (2021년 5월 2016년 10월)	차이(B-A)	
2021년도	전체 노숙인	9,470	8,956	-514	
	거리	거리	1,796	1,595	-201
		이용시설	1,241	1,201	-40
	생활시설	이용시설	555 *일시보호	394 *이용시설	-161
		생활시설	7,674	7,361	-313
		자활시설	1,209	1,107	-102
		재활시설	3,497	3,343	-154
	요양시설	2,968	2,911	-57	
	2016년도	전체 노숙인	10,645	11,340	+695
거리		거리	1,767	2,015	+248
		이용시설	969 798 *일시보호	1,522 493 *이용시설	+553 -305
생활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8,878	9,325	+447
		자활시설	1,613	1,599	-14
		재활·요양시설	7,265	7,726	+461

주: 이용시설은 복지부 행정자료의 경우 일시보호시설 이외 시설 등의 일시보호 노숙인원을 집계한 것이며, 실태조사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노숙인을 집계한 것임.

자료: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6, 2021)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2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쪽방주민의 규모는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 5,44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750명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완전한 감소 수치이고, 대전은 증가수치이다. 2020년 12월의 행정자료와 비교하면 〈표 3-1-7〉과

같다. 서울역 인근 등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서는 쪽방주민 수의 감소가 있었지만,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 증가가 있었고 특히 대전지역에서의 큰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52명 증가하였다.

그런데 쪽방주민의 수에 대한 일시집계는 직접 조사자가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쪽방 상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를 토대로 하여 집계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에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표 3-1-7〉 행정자료와 실태조사의 쪽방주민 집계 규모 비교

(단위: 명)

	구분	복지부 행정 집계(A) (12월 행정조사)	실태조사(B) (2021년 5월 2016년 10월)	차이(B-A)	
2021년도	전체	5,396	5,448	+52	
	서울	영등포	500	488	-12
		서울역	1,007	930	-77
		돈의동	540	534	-6
		남대문	508	506	-2
		창신동 (구)동대문	319	297	-22
		합계	2,874	2,755	-119
	부산	부산진구	479	476	-3
		동구	446	440	-6
		합계	925	916	-9
	대구	713	713	0	
인천	426	461	+35		
대전	458	603	+145		
2016년도	전체	6,063	6,192	+129	
	서울	영등포	521	547	+26
		서울역	1,068	1,212	+144
		돈의동	555	576	+21
		남대문	761	893	+132
		동대문	328	329	+1
		합계	4,399	4,487	+88
	부산	부산진구	439	446	+7
		동구	646	445	-201
	대구	875	872	-3	
	인천	455	469	+14	
대전	415	403	-12		

자료: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20)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3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제2절 거리노숙인의 규모

거리노숙인은 집계 당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과 집계 당시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밤을 보낼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시설 노숙인을 의미한다. 이용시설에 있는 노숙인을 거리노숙인에 포함하는 이유는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응급잠자리나 편의를 제공하지만, 생활시설처럼 일정기간 이상의 정규적 입소거주자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 결과 거리노숙인은 1,595명으로 생활시설 노숙인을 포함한 전체 노숙인(8,956명) 중 17.8%를 차지하며, 전체 거리노숙인 1,595명 중 거리에서 집계된 노숙인은 1,201명으로 75.3%, 이용시설에서 집계된 노숙인은 394명으로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거리노숙인의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거리노숙인 중 남성이 89.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발견된 노숙인 중에는 남성이 87.6%, 이용시설인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발견된 노숙인 중에는 남성이 각각 89.0%, 99.1%로 나타났다. 전체 거리노숙인 중 미성년 노숙인은 거리에서 남성과 여성 각각 8명씩 총 16명이 집계되었다. 이용시설에서는 미성년 노숙인이 집계되지 않았다. 생활시설 노숙인에 비해 거리노숙인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여성 거리노숙인은 24시간 코인 세탁시설이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과 같이 잘 포착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집계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거리보다도 여성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이용시설의 절대 부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거리노숙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성에 비해, 안전과 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등 이용시설이 여성 노숙인에게 이용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있다.

〈표 3-2-1〉 성별 및 미성년 거리노숙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거리	이용시설		전체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남성	소계	1,052 (87.6)	154 (89.0)	219 (99.1)	1,425 (89.3)
	성인	1,044	154	219	1,417
	미성년	8	0	0	8
여성	소계	125 (10.4)	19 (11.0)	2 (0.9)	146 (9.2)
	성인	117	19	2	138
	미성년	8	0	0	8
미상	24 (2.0)	0	0	0	24 (1.5)
전체	1,201 (100.0)	173 (100.0)	221 (100.0)	1,59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광역시자치단체별로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전체 거리노숙인의 58.4%(932명)가 집계되었고, 다음으로 경기에서 13.5%(216명),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8.2%(131명)가 집계되었다. 거리에서 집계된 노숙인만을 살펴보면 서울(51.0%, 612명) > 경기(15.7%, 188명) > 대구(9.7%, 116명) > 부산(9.6%, 115명) 순으로 노숙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시설에서 집계된 노숙인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14개소)에서만 집계되었는데, 서울에서 81.2%(394명 중 320명), 경기에서 7.1%(394명 중 28명)가 집계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 등 지원체계가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충남과 인천은 상대적으로 많은 거리노숙인 수에 비해 거리노숙인 지원체계의 지원역할이 취약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3-2-2〉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의 규모

(단위: 명, %)

구분	거리		이용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1,201	(100.0)	394	(100.0)	1,595	(100.0)
서울	612	(51.0)	320	(81.2)	932	(58.4)
부산	115	(9.6)	16	(4.1)	131	(8.2)
대구	116	(9.7)	15	(3.8)	131	(8.2)
인천	41	(3.4)	0	(0.0)	41	(2.6)
광주	4	(0.3)	0	(0.0)	4	(0.3)
대전	30	(2.5)	11	(2.8)	41	(2.6)
울산	18	(1.5)	0	(0.0)	18	(1.1)
세종	1	(0.1)	0	(0.0)	1	(0.1)
경기	188	(15.7)	28	(7.1)	216	(13.5)
강원	14	(1.2)	0	(0.0)	14	(0.9)
충북	1	(0.1)	0	(0.0)	1	(0.1)
충남	40	(3.3)	0	(0.0)	40	(2.5)
전북	6	(0.5)	0	(0.0)	6	(0.4)
전남	0	(0.0)	0	(0.0)	0	(0.0)
경북	5	(0.4)	0	(0.0)	5	(0.3)
경남	6	(0.5)	0	(0.0)	6	(0.4)
제주	4	(0.3)	4	(1.0)	8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계된 전체 거리노숙인의 89.3%인 1,425명이 남성이다. 여성 노숙인은 146명으로 9.2%, 성별 미상인 경우가 24명, 1.5%이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을 살펴봐도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다. 거리노숙인 절대수가 작아서 1~2명의 여성 노숙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여성 노숙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인천 10명(24.4%) 정도이다. 인천은 성별 미상인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남성 노숙인의 비율이 63.4%(26명)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3-2-3〉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미상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1,425	(89.3)	146	(9.2)	24	(1.5)	1,595	(100.0)
서울	830	(89.1)	92	(9.9)	10	(1.1)	932	(100.0)
부산	116	(88.5)	7	(5.3)	8	(6.1)	131	(100.0)
대구	117	(89.3)	14	(10.7)	0	(0.0)	131	(100.0)
인천	26	(63.4)	10	(24.4)	5	(12.2)	41	(100.0)
광주	3	(75.0)	1	(25.0)	0	(0.0)	4	(100.0)
대전	40	(97.6)	1	(2.4)	0	(0.0)	41	(100.0)
울산	17	(94.4)	1	(5.6)	0	(0.0)	18	(100.0)
세종	1	(100.0)	0	(0.0)	0	(0.0)	1	(100.0)
경기	200	(92.6)	15	(6.9)	1	(0.5)	216	(100.0)
강원	14	(100.0)	0	(0.0)	0	(0.0)	14	(100.0)
충북	1	(100.0)	0	(0.0)	0	(0.0)	1	(100.0)
충남	38	(95.0)	2	(5.0)	0	(0.0)	40	(100.0)
전북	5	(83.3)	1	(16.7)	0	(0.0)	6	(100.0)
전남	0	(0.0)	0	(0.0)	0	(0.0)	0	(0.0)
경북	4	(80.0)	1	(20.0)	0	(0.0)	5	(100.0)
경남	5	(83.3)	1	(16.7)	0	(0.0)	6	(100.0)
제주	8	(100.0)	0	(0.0)	0	(0.0)	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거리노숙인의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면, 200명 이상 밀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3개 지역으로 서울의 중구와 용산구,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모두 서울로 서울의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밀집도가 높은 기초자치체(100~199명)는 1개 지역으로 경기 수원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는 2016년도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40~99명이 집계된 기초자치체는 7개 지역인데 2016년 조사결과와 8개 지역에 비교하여 대구 동구가 거리노숙인 인원이 늘면서 새로 진입하였고, 서울 서초구와 충남 천안시는 인원이 감소하면서 40명 미만지역으로 바뀌었다. 서울의 서대문구와 종로구, 부산의 진구와 동구, 경기 성남시는 2016년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40명에서 99명 사이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해당하였다. 20~39명이 집계된 지역은 6개, 10~19명이 집계된 지역은 8개, 5~9명 집계된 지역은 16개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1인 이상 집계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79개 지역인데 이중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비중인 38개 지역에서는 4명 이하로 밀집도가 낮았으며, 이 중 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리노숙인이 1명 발견되었다.

〈표 3-2-4〉 거리노숙인 규모별 기초자치단체 현황

규모	기초자치체명	수
200명 이상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영등포구	3
100~199명	경기 수원시	1
40~99명	경기 성남시, 서울 서대문구, 부산 부산진구,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7
20~39명	충남 천안시, 서울 서초구, 대구 북구, 대전 동구, 서울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6
10~19명	서울 광진구, 부산 중구, 인천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동대문구, 강원 원주시, 대구 달서구	8
5~9명	인천 미추홀구, 울산 동구, 제주 제주시, 서울 구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인천 부평구, 경기 안양시, 경기 안산시	16
1~4명	서울 마포구, 부산 북구,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사상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서울 금천구, 서울 강동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울주군, 세종시 조치원읍, 경기 과천시, 경기 화성시, 경기 광주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안동시	37

주: 이용시설 노숙인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전체 거리노숙인 1,595명 중 이용시설에서 집계된 노숙인은 394명으로 전체 거리노숙인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5.3%의 거리노숙인은 지하공간이나 거리 및 건물 내부, 공원 등에서 집계되었다. 이용시설 외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견된 장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거리/광장(23.1%) > 지하공간(17.6%) > 건물내부(12.7%) > 공원/녹지(10.6%) 순이었다. 이는 2016년도 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2016년도 일시집계조사가 10월 말의 다소 추운 날씨에 이루어져 지하공간이 거리/광장보다 거리노숙인 수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번 2021년 조사는 5월에 이루어져 거리/광장에서 지하공간보다 더 많은 수의 거리노숙인 집계가 이루어졌다. 노숙의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리노숙인이 발견된 장소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에 비해 이용시설에서 집계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남성 노숙인은 26.2%가 이용시설에서 집계되었지만, 여성 노숙인은 14.4%만이 이용시설에서 집계되었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여성 거리노숙인의 이용시설 집계 비율이 낮은 사실은 여성 노숙인을 위한 이용시설 서비스의 결핍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표 3-2-5〉 세부장소별 거리노숙인 현황

(단위: 명, %)

세부장소	남성		여성		미상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이용시설	373	(26.2)	21	(14.4)	0	(0.0)	394	(24.7)
건물내부	174	(12.2)	26	(17.8)	0	(0.0)	200	(12.5)
지하공간	248	(17.4)	31	(21.2)	2	(8.3)	281	(17.6)
거리/광장	329	(23.1)	34	(23.3)	6	(25.0)	369	(23.1)
공원/녹지	138	(9.7)	27	(18.5)	4	(16.7)	169	(10.6)
강변	25	(1.8)	1	(0.7)	2	(8.3)	28	(1.8)
기타	138	(9.7)	6	(4.1)	10	(41.7)	154	(9.7)
전체	1,425	(100.0)	146	(100.0)	24	(100.0)	1,59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견되는 장소는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적으로는 이용시설과 거리/광장의 경우가 거리노숙인이 가장 많이 집계되는 장소인데, 이용시설의 활동이 활발한 서울과 대전지역에서는 이용시설에서의 거리노숙인 집계 비율이 특히 높다. 이 밖의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 지역에서는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지하도)가 많아 건물내부나 지하공간에서 거리노숙인이 많이 집계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공간에서의 거리노숙인 집계는 더 적고, 건물내부와 거리/광장, 공원/녹지 등에서 집계된 거리노숙인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6〉 광역자치단체 및 거리노숙 세부장소별 거리노숙인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용시설	거리노숙 세부장소						거리노숙인 전체
		건물내부	지하공간	거리/광장	공원/녹지	강변	기타	
서울	320 (34.3)	33 (3.5)	169 (18.1)	231 (24.8)	111 (11.9)	6 (0.6)	62 (6.7)	932 (100.0)
부산	16 (12.2)	34 (26.0)	35 (26.7)	31 (23.7)	2 (1.5)	1 (0.8)	12 (9.2)	131 (100.0)
대구	15 (11.5)	42 (32.1)	29 (22.1)	28 (21.4)	15 (11.5)	2 (1.5)	0 (0.0)	131 (100.0)
인천	0 (0.0)	11 (26.8)	3 (7.3)	21 (51.2)	5 (12.2)	0 (0.0)	1 (2.4)	41 (100.0)
광주	0 (0.0)	1 (25.0)	0 (0.0)	1 (25.0)	2 (50.0)	0 (0.0)	0 (0.0)	4 (100.0)
대전	11 (26.8)	4 (9.8)	8 (19.5)	3 (7.3)	3 (7.3)	4 (9.8)	8 (19.5)	41 (100.0)
울산	0 (0.0)	2 (11.1)	0 (0.0)	7 (38.9)	5 (27.8)	1 (5.6)	3 (16.7)	18 (100.0)
세종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경기	28 (13.0)	43 (19.9)	31 (14.4)	35 (16.2)	23 (10.6)	2 (0.9)	54 (25.0)	216 (100.0)
강원	0 (0.0)	1 (7.1)	1 (7.1)	2 (14.3)	0 (0.0)	8 (57.1)	2 (14.3)	14 (100.0)
충북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충남	0 (0.0)	22 (55.0)	3 (7.5)	3 (7.5)	1 (2.5)	4 (10.0)	7 (17.5)	40 (100.0)
전북	0 (0.0)	4 (66.7)	0 (0.0)	0 (0.0)	1 (16.7)	0 (0.0)	1 (16.7)	6 (100.0)
전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경북	0 (0.0)	2 (40.0)	0 (0.0)	2 (40.0)	1 (20.0)	0 (0.0)	0 (0.0)	5 (100.0)
경남	0 (0.0)	0 (0.0)	2 (33.3)	0 (0.0)	0 (0.0)	0 (0.0)	4 (66.7)	6 (100.0)
제주	4 (50.0)	0 (0.0)	0 (0.0)	4 (50.0)	0 (0.0)	0 (0.0)	0 (0.0)	8 (100.0)
전체	394 (24.7)	200 (12.5)	281 (17.6)	369 (23.1)	169 (10.6)	28 (1.8)	154 (9.7)	1,59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제3절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와 일반적 특징

1.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노숙인시설의 유형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이다. 본 조사에서는 생활시설 노숙인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에 있는 노숙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노숙인의 경우는 거리노숙인으로 분류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다. 급식시설과 진료시설은 급식이나 의료 등 특정한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곳으로, 노숙인이 시설에 머물러서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은 관계로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쪽방상담소는 지역별 쪽방주민을 파악하는 거점으로 쪽방주민 관련 내용은 별도로 후술한다.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우는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에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0, p.20). 다만 실제의 시설운영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분류가 엄격하게 지켜 지지는 않는다.

조사된 노숙인 생활시설은 총 107개소로, 자활시설 52개소, 재활시설 34개소, 요양시설 21개소이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총 119개소의 시설이 있었는데 자활시설이 10개소 감소하는 등 총 시설 수는 12개소 감소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노숙인 복지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시설의 28.0%(30개소)이며, 다음으로는 경기 15.9%(17개소), 대구와 전남이 각각 6.5%(7개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도 조사 결과에 비교하여 서울의 시설 수가 6개 감소하였고 이 중 5개는 자활시설의 감소이다. 부

산이 3개, 대전이 2개 시설이 감소하였고, 다른 지역은 2016년도 조사결과와 같거나 1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단, 본 조사에서는 노숙인 생활시설의 지역을 현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숙인 생활시설의 지역별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3-3-1〉 노숙인 생활시설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전체	52	(100.0)	34	(100.0)	21	(100.0)	107	(100.0)
서울	19	(36.5)	7	(20.6)	4	(19.0)	30	(28.0)
부산	3	(5.8)	0	(0.0)	1	(4.8)	4	(3.7)
대구	5	(9.6)	1	(2.9)	1	(4.8)	7	(6.5)
인천	1	(1.9)	1	(2.9)	3	(14.3)	5	(4.7)
광주	1	(1.9)	1	(2.9)	0	(0.0)	2	(1.9)
대전	4	(7.7)	1	(2.9)	0	(0.0)	5	(4.7)
울산	1	(1.9)	0	(0.0)	0	(0.0)	1	(0.9)
세종	0	(0.0)	1	(2.9)	0	(0.0)	1	(0.9)
경기	11	(21.2)	4	(11.8)	2	(9.5)	17	(15.9)
강원	2	(3.8)	1	(2.9)	2	(9.5)	5	(4.7)
충북	1	(1.9)	2	(5.9)	1	(4.8)	4	(3.7)
충남	1	(1.9)	0	(0.0)	0	(0.0)	1	(0.9)
전북	2	(3.8)	2	(5.9)	1	(4.8)	5	(4.7)
전남	0	(0.0)	5	(14.7)	2	(9.5)	7	(6.5)
경북	1	(1.9)	1	(2.9)	2	(9.5)	4	(3.7)
경남	0	(0.0)	5	(14.7)	2	(9.5)	7	(6.5)
제주	0	(0.0)	2	(5.9)	0	(0.0)	2	(1.9)

주: 노숙인 생활시설의 지역구분은 현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음.¹¹⁾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조사된 노숙인 생활시설 규모를 보면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중 50.5%(54개소)가 30인 미만 시설이었으며, 31.8%(34개소)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시설인 것을 알 수

11)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2020) 및 행정집계에서 노숙인시설의 지역구분을 행정 관할 지자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시설의 현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서울의 자활시설 1개소(63명), 재활시설 1개소(35명), 요양시설 1개소(332명)가 본 조사에서 경기로 분류되었으며, 부산의 재활 2개소(합계 318명), 요양 1개소(78명)가 본 조사에서 경남으로 분류되었다. (괄호는 이번 조사 시 인원)

있다. 반면 300인 이상 시설이 아직도 5개소가 있으며,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규모 시설도 14개소가 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 수가 12개 감소하면서 30인 미만의 시설이 9개 감소하였다. 100인에서 300인 규모의 시설은 5개, 300인 이상 규모 시설은 1개소 감소하였다. 반면, 30인에서 100인 규모의 시설이 3개소 증가하였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30인 미만인 시설이 대부분인 반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시설규모가 큰 편이다.

〈표 3-3-2〉 생활시설 노숙인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30인 미만	43	(82.7)	6	(17.6)	5	(23.8)	54	(50.5)
30인 이상 ~ 100인 미만	9	(17.3)	16	(47.1)	9	(42.9)	34	(31.8)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0	(0.0)	10	(29.4)	4	(19.0)	14	(13.1)
300인 이상	0	(0.0)	2	(5.9)	3	(14.3)	5	(4.7)
전체	52	(100.0)	34	(100.0)	21	(100.0)	10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은 총 7,361명으로 이 중 자활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1,107명, 재활 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3,343명, 요양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2,911명이었다. 법정보호 인원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법정인원 1,710명인데 비해 1,107명 입소, 재활시설은 법정인원 4,298명 대비 3,343명 입소, 요양시설은 법정인원 3,864명 대비 2,911명 입소를 나타내고 있다. 노숙인 생활시설 전체의 입소율이 약 74.6%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이 시설유형별 입소율의 차이는 2016년도 조사결과에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시설의 법정인원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논의도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 전체적 입소율은 90% 정도로 특히 재활시설이 거의 100%의 입소율을 나타내었던 바 있다. 노숙인 생활시설 중에서 재활시설에 가장 많은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요양시설에서 많은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각 시설에 오늘밤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과 오늘밤 병원에 입원 중인 인원을 부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시설의 경우 현원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 이상(27.5%)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시설은 5명 중에서 1명(19.0%)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활시설 입소인 중에서 약 27~28% 정도, 요양시설 입소인 중에서 약 19~20%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2016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재활시설의 경우에는 병원입원 인원은 거의 없으며 외출이나 외박인원이 전체 입소현원의 9%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3〉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재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법정보호	1,710 (17.3)	4,298 (43.5)	3,864 (39.1)	9,872 (100.0)
현원	1,107 (15.0)	3,343 (45.4)	2,911 (39.5)	7,361 (100.0)
오늘밤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984 (88.9)	2,415 (72.2)	2,356 (80.9)	5,755 (78.2)
오늘밤 병원에 입원 중인 인원	19 (1.7)	918 (27.5)	553 (19.0)	1,490 (20.2)
오늘 외출/외박하는 인원	104 (9.4)	10 (0.3)	2 (0.1)	116 (1.6)

주: 오늘밤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과 오늘밤 병원에 입원 중인 인원, 오늘 외출/외박하는 인원의 총 합은 현원과 동일하며, 각각의 비율은 현원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광역자치단체별로 생활시설 노숙인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생활시설 노숙인의 22.7%(1,66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3.8%(1,014명), 경남 10.5%(770명), 대구 10.1%(740명) 순이었다.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시설은 서울(47.2%, 523명) > 경기(17.9%, 198명) > 대구(8.8%, 97명) > 대전(7.9%, 88명) 순으로 노숙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시설은 경남(17.9%, 600명) > 전남(15.4%, 514명) > 대구(13.3%, 462명) > 인천(11.6%, 388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의 경우는 서울(33.3%, 985명) > 충북(15.9%, 464명) > 경기(15.4%, 443명) > 경북(7.9%, 2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4〉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서울	523	(47.2)	160	(4.8)	985	(33.8)	1,668	(22.7)
부산	51	(4.6)	0	(0.0)	87	(3.0)	138	(1.9)
대구	97	(8.8)	462	(13.8)	181	(6.2)	740	(10.1)
인천	17	(1.5)	388	(11.6)	55	(1.9)	460	(6.2)
광주	13	(1.2)	93	(2.8)	0	(0.0)	106	(1.4)
대전	88	(7.9)	130	(3.9)	0	(0.0)	218	(3.0)
울산	31	(2.8)	0	(0.0)	0	(0.0)	31	(0.4)
세종	0	(0.0)	91	(2.7)	0	(0.0)	91	(1.2)
경기	198	(17.9)	368	(11.0)	448	(15.4)	1,014	(13.8)
강원	17	(1.5)	54	(1.6)	123	(4.2)	194	(2.6)
충북	10	(0.9)	162	(4.8)	464	(15.9)	636	(8.6)
충남	21	(1.9)	0	(0.0)	0	(0.0)	21	(0.3)
전북	39	(3.5)	120	(3.6)	54	(1.9)	213	(2.9)
전남	0	(0.0)	514	(15.4)	114	(3.9)	628	(8.5)
경북	2	(0.2)	75	(2.2)	230	(7.9)	307	(4.2)
경남	0	(0.0)	600	(17.9)	170	(5.8)	770	(10.5)
제주	0	(0.0)	126	(3.8)	0	(0.0)	126	(1.7)

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숙인 생활시설의 지역구분은 소재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역 기준인 지자체 관할 기준으로 집계수치와는 차이가 남. 만약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집계를 따른다면, 서울시에서 재활시설 35명 증가 및 요양시설 332명 증가와 자활시설 63명 증가(같은 수의 경기 감소), 부산시에서 재활 318명 증가와 요양시설 78명 증가(같은 수의 경남 감소)가 나타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를 각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만 명 당 수준으로 살펴보면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는 인구 1만 명 당 1.42명이며, 이는 2016년도 조사결과와의 1.80명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98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전남 3.41명, 대구 3.08명, 세종 2.51명의 순서이다. 세종은 2016년도 4.44명의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은 1.74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번째를 나타내었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시설은 인구 1만 명 당 0.65명, 요양시설은 0.56명, 자활시설은 0.21명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활시설의 경우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재활시설은 전남

2.79명, 세종이 2.51명 수준이며, 요양시설의 경우는 충북 2.91명, 서울 1.03명으로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5〉 인구 1만 명 당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단위: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전체	0.21	0.65	0.56	1.42
서울	0.55	0.17	1.03	1.74
부산	0.15	0.00	0.26	0.41
대구	0.40	1.92	0.75	3.08
인천	0.06	1.32	0.19	1.57
광주	0.09	0.64	0.00	0.73
대전	0.60	0.89	0.00	1.50
울산	0.28	0.00	0.00	0.28
세종	0.00	2.51	0.00	2.51
경기	0.15	0.27	0.33	0.75
강원	0.11	0.35	0.80	1.26
충북	0.06	1.01	2.91	3.98
충남	0.10	0.00	0.00	0.10
전북	0.22	0.67	0.30	1.19
전남	0.00	2.79	0.62	3.41
경북	0.01	0.28	0.87	1.17
경남	0.00	1.80	0.51	2.31
제주	0.00	1.87	0.00	1.87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행정안전부(2021). 행정구역(시군구)별 총인구수. 2021년 5월 기준.

생활시설 노숙인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5,014명, 여성은 2,347명으로 생활시설 노숙인의 68.1%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은 90%이상(997명)이 남성 노숙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재활시설의 경우 3명 중 1명(29.4%)이 여성 노숙인이며, 요양시설의 경우 남성 노숙인은 56.9%(1,656명), 여성 노숙인은 43.1%(1,255명)로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6〉 생활시설 노숙인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남성	997	(90.1)	2,361	(70.6)	1,656	(56.9)	5,014	(68.1)
여성	110	(9.9)	982	(29.4)	1,255	(43.1)	2,347	(31.9)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대의 비중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비중이 28.6%로 그 다음이었다. 이는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점에 비해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입소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의 경우는 5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60대 이상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활시설의 경우는 30세 미만인 경우도 6.6%(83명)로 젊은 연령이 꽤 생활하는 반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모든 시설 유형에서 2016년도 조사결과보다는 입소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표 3-3-7〉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전체)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9	20	(1.8)	0	(0.0)	0	(0.0)	20	(0.3)
20~29	53	(4.8)	23	(0.7)	13	(0.4)	89	(1.2)
30~39	121	(10.9)	87	(2.6)	96	(3.3)	304	(4.1)
40~49	230	(20.8)	364	(10.9)	321	(11.0)	915	(12.4)
50~59	330	(29.8)	1002	(30.0)	775	(26.6)	2,107	(28.6)
60~64	190	(17.2)	769	(23.0)	557	(19.1)	1,516	(20.6)
65~69	85	(7.7)	578	(17.3)	469	(16.1)	1,132	(15.4)
70~79	68	(6.1)	439	(13.1)	518	(17.8)	1,025	(13.9)
80~89	10	(0.9)	74	(2.2)	151	(5.2)	235	(3.2)
90~	0	(0.0)	7	(0.2)	11	(0.4)	18	(0.2)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활시설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 층에 많이 분포되고 있어 40세 미만이 남성은 15%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은 40.9%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자활시설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더 낮다는 점은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표 3-3-8〉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남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9	9	(0.9)	0	(0.0)	0	(0.0)	9	(0.2)
20~29	44	(4.4)	13	(0.6)	8	(0.5)	65	(1.3)
30~39	96	(9.6)	59	(2.5)	65	(3.9)	220	(4.4)
40~49	197	(19.8)	258	(10.9)	206	(12.4)	661	(13.2)
50~59	309	(31.0)	727	(30.8)	428	(25.8)	1,464	(29.2)
60~64	187	(18.8)	533	(22.6)	301	(18.2)	1,021	(20.4)
65~69	81	(8.1)	428	(18.1)	285	(17.2)	794	(15.8)
70~79	64	(6.4)	292	(12.4)	283	(17.1)	639	(12.7)
80~89	10	(1.0)	48	(2.0)	77	(4.6)	135	(2.7)
90~	0	(0.0)	3	(0.1)	3	(0.2)	6	(0.1)
전체	997	(100.0)	2,361	(100.0)	1,656	(100.0)	5,01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9〉 생활시설 노숙인 연령별 현황(여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9	11	(10.0)	0	(0.0)	0	(0.0)	11	(0.5)
20~29	9	(8.2)	10	(1.0)	5	(0.4)	24	(1.0)
30~39	25	(22.7)	28	(2.9)	31	(2.5)	84	(3.6)
40~49	33	(30.0)	106	(10.8)	115	(9.2)	254	(10.8)
50~59	21	(19.1)	275	(28.0)	347	(27.6)	643	(27.4)
60~64	3	(2.7)	236	(24.0)	256	(20.4)	495	(21.1)
65~69	4	(3.6)	150	(15.3)	184	(14.7)	338	(14.4)
70~79	4	(3.6)	147	(15.0)	235	(18.7)	386	(16.4)
80~89	0	(0.0)	26	(2.6)	74	(5.9)	100	(4.3)
90~	0	(0.0)	4	(0.4)	8	(0.6)	12	(0.5)
전체	110	(100.0)	982	(100.0)	1,255	(100.0)	2,34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연령인 65세 이상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생활시설 노숙인 7,361명 중에서 노인 노숙인은 32.7%로 2,410명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 중에서 노인 남성 노숙인은 1,574명, 노인 여성 노숙인은 836명으로 노인 남성의 비중이 노인 여성의 비중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양시설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2016년도 조사결과와 비슷하지만, 노인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경향이 나타난다(201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전체 9,325명 중 24.1%인 2,246명이 노인).

<표 3-3-10> 생활시설 노숙인 중 노인(65세 이상) 규모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노인 노숙인	163	(14.7)	1,098	(32.8)	1,149	(39.5)	2,410	(32.7)
남성	155	(95.1)	771	(70.2)	648	(56.4)	1,574	(65.3)
여성	8	(4.9)	327	(29.8)	501	(43.6)	836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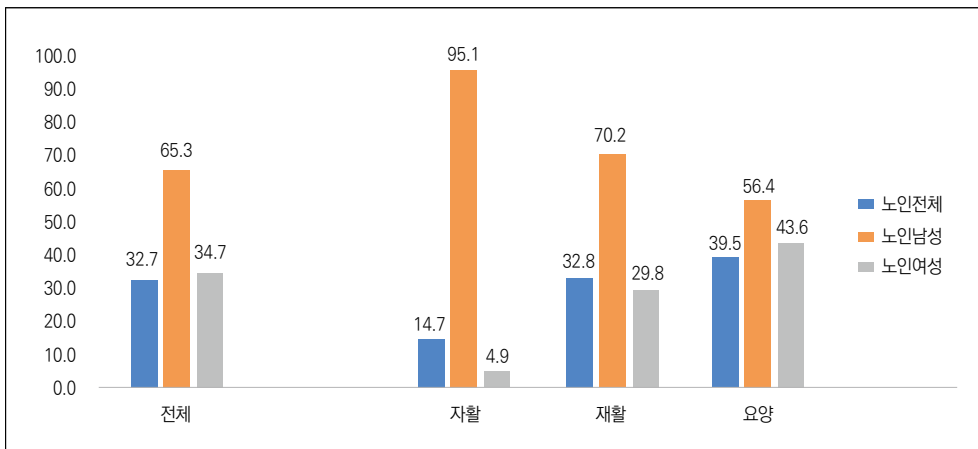
주: 1) 노인 노숙인은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숙인 수를 의미함.

2) 노인 노숙인 수의 비율은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를 100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생활시설의 노인 노숙인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그림 3-3-1] 생활시설 노숙인 중 노인(65세 이상) 비율

(단위: %)



주:1) 노인 노숙인은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숙인 수를 의미함.

2) 노인 노숙인 수의 비율은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를 100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생활시설의 노인 노숙인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20~39세의 인구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청년 노숙인은 5.3%로 393명이었다. 이는 2016년 조사 결과 청년 717명(7.7%)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청년 남성 노숙인은 285명(72.5%), 청년 여성 노숙인은 108명(27.5%)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과 반대로 자활시설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7%로 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청년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1〉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20~39세) 규모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청년 노숙인	174	(15.7)	110	(3.3)	109	(3.7)	393	(5.3)
남성	140	(80.5)	72	(65.5)	73	(67.0)	285	(72.5)
여성	34	(19.5)	38	(34.5)	36	(33.0)	108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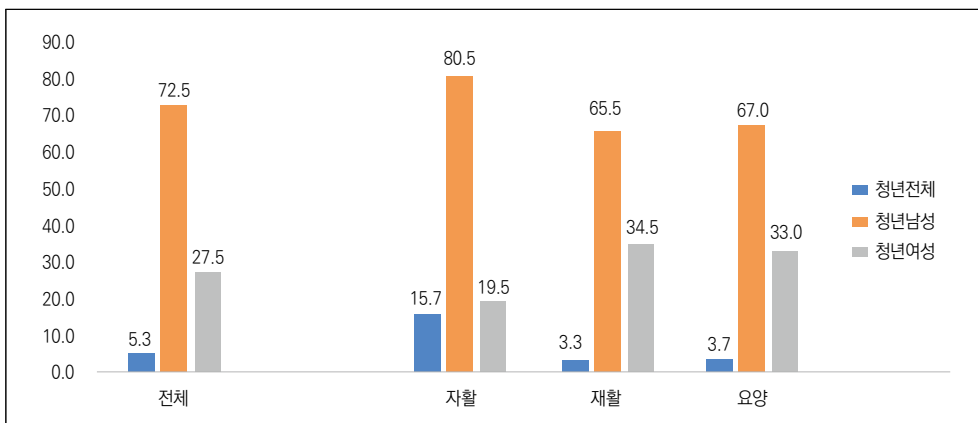
주: 1) 청년 노숙인은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숙인 수를 의미함.

2) 청년 노숙인 수의 비율은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를 100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생활시설의 청년 노숙인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그림 3-3-2〕 생활시설 노숙인 중 청년(20~39세) 비율

(단위: %)



주: 1) 청년 노숙인은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20~39세의 노숙인 수를 의미함.

2) 청년 노숙인 수의 비율은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를 100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생활시설의 청년 노숙인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2. 생활시설 노숙인의 일반적 특징

생활시설 노숙인의 장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7,361명 중에서 46.8%는 장애가 없지만 52.2%는 등록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크다. 자활 시설은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6.7%에 불과하지만, 재활시설은 55.2%, 요양시설은 66.0%가 등록장애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각각 전체 입소자 중에서 2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는 지적장애가 전체 입소자의 28.4%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12〉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실태(전체)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장애 유무	미파악	9	(0.8)	33	(1.0)	30	(1.0)	72	(1.0)
	장애없음	1,024	(92.5)	1,465	(43.8)	959	(32.9)	3,448	(46.8)
	등록장애인	74	(6.7)	1,845	(55.2)	1,922	(66.0)	3,841	(52.2)
	중복장애인	3	(0.3)	63	(1.9)	86	(3.0)	152	(2.1)
장애 종류	지체장애	26	(2.3)	142	(4.2)	174	(6.0)	342	(4.6)
	뇌병변장애	3	(0.3)	68	(2.0)	135	(4.6)	206	(2.8)
	시각장애	12	(1.1)	23	(0.7)	32	(1.1)	67	(0.9)
	청각장애	2	(0.2)	45	(1.3)	41	(1.4)	88	(1.2)
	언어장애	1	(0.1)	17	(0.5)	12	(0.4)	30	(0.4)
	지적장애	22	(2.0)	711	(21.3)	827	(28.4)	1,560	(21.2)
	자폐성장애	1	(0.1)	0	(0.0)	4	(0.1)	5	(0.1)
	정신장애	10	(0.9)	862	(25.8)	734	(25.2)	1,606	(21.8)
	신장장애	1	(0.1)	1	(0.0)	8	(0.3)	10	(0.1)
	심장장애	0	(0.0)	0	(0.0)	0	(0.0)	0	(0.0)
	호흡기장애	0	(0.0)	1	(0.0)	10	(0.3)	11	(0.1)
	간장애	0	(0.0)	0	(0.0)	7	(0.2)	7	(0.1)
	안면장애	0	(0.0)	0	(0.0)	0	(0.0)	0	(0.0)
	장루·요루장애	0	(0.0)	2	(0.1)	7	(0.2)	9	(0.1)
뇌전증(간질)장애	1	(0.1)	4	(0.1)	17	(0.6)	22	(0.3)	

주: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를 중복으로 집계하여 등록장애인 총 수보다 장애 총계가 더 많이 집계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심한 장애가 확인된 3,060명에 대해 장애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44.2%(1,354명)는 지적장애, 42.2%(1,290명)는 정신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심한 장애가 있는 자활시설 입소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도 각각 7명과 2명이 나타나고 있다. 재활시설에서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전체의 90% 이상이고 지체장애가 4.3%이다. 요양시설은 지적장애가 45.0%, 정신장애 38.7%인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5.7%(각각 91명) 정도씩 나타나고 있다.

〈표 3-3-13〉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실태(심한장애)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지체장애	7	(41.2)	62	(4.3)	91	(5.7)	160	(5.2)
뇌병변장애	1	(5.9)	36	(2.5)	91	(5.7)	128	(4.2)
시각장애	2	(11.8)	6	(0.4)	16	(1.0)	24	(0.8)
청각장애	0	(0.0)	23	(1.6)	20	(1.3)	43	(1.4)
언어장애	0	(0.0)	15	(1.0)	7	(0.4)	22	(0.7)
지적장애	4	(23.5)	636	(43.7)	714	(45.0)	1,354	(44.2)
자폐성장애	0	(0.0)	0	(0.0)	4	(0.3)	4	(0.1)
정신장애	2	(11.8)	675	(46.3)	613	(38.7)	1,290	(42.2)
신장장애	1	(5.9)	1	(0.1)	8	(0.5)	10	(0.3)
심장장애	0	(0.0)	0	(0.0)	0	(0.0)	0	(0.0)
호흡기장애	0	(0.0)	1	(0.1)	9	(0.6)	0	(0.0)
간장애	0	(0.0)	0	(0.0)	0	(0.0)	0	(0.0)
안면장애	0	(0.0)	0	(0.0)	0	(0.0)	0	(0.0)
장루·요루장애	0	(0.0)	0	(0.0)	4	(0.3)	4	(0.1)
뇌전증(간질)장애	0	(0.0)	2	(0.1)	9	(0.6)	11	(0.4)
계	17	(100.0)	1,457	(100.0)	1,586	(100.0)	3,06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903명에 대해 장애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역시 정신장애(35.0%)와 지적장애(22.8%)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체장애(20.2%)의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활시설의 경우에는 지체장애가 30.6%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14〉 생활시설 노숙인 장애실태(심하지 않은 장애)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지체장애	19	(30.6)	80	(19.1)	83	(19.7)	182	(20.2)
뇌병변장애	2	(3.2)	32	(7.6)	44	(10.4)	78	(8.6)
시각장애	10	(16.1)	17	(4.1)	16	(3.8)	43	(4.8)
청각장애	2	(3.2)	22	(5.3)	21	(5.0)	45	(5.0)
언어장애	1	(1.6)	2	(0.5)	5	(1.2)	8	(0.9)
지적장애	18	(29.0)	75	(17.9)	113	(26.8)	206	(22.8)
자폐성장애	1	(1.6)	0	(0.0)	0	(0.0)	1	(0.1)
정신장애	8	(12.9)	187	(44.6)	121	(28.7)	316	(35.0)
신장장애	0	(0.0)	0	(0.0)	0	(0.0)	0	(0.0)
심장장애	0	(0.0)	0	(0.0)	0	(0.0)	0	(0.0)
호흡기장애	0	(0.0)	0	(0.0)	1	(0.2)	1	(0.1)
간장애	0	(0.0)	0	(0.0)	7	(1.7)	7	(0.8)
안면장애	0	(0.0)	0	(0.0)	0	(0.0)	0	(0.0)
장루·요루장애	0	(0.0)	2	(0.5)	3	(0.7)	5	(0.6)
뇌전증(간질)장애	1	(1.6)	2	(0.5)	8	(1.9)	11	(1.2)
계	62	(100.0)	419	(100.0)	422	(100.0)	90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021년 초 서울지역의 일시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한 바 있었다.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 시설 중 93%(119개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7%(9개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용시설이 21개소 중 5개소인 23.8%에서 1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자활시설은 3개소(5.8%)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재활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요양시설은 1개소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표 3-3-15〉 노숙인시설 코로나19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코로나 발생 현황				코로나 확인자 명
	확진자 있음		확진자 없음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이용시설	5	(23.8)	16	(76.2)	118
자활시설	3	(5.8)	49	(94.2)	3
재활시설	0	(0.0)	34	(100.0)	0
요양시설	1	(4.8)	20	(95.2)	1
전체	9	(7.0)	119	(93.0)	1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입소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31.1%(2,291명)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으로는 1년에서 3년 동안 머물고 있는 생활시설 노숙인이 13.2%(970명)와 5년에서 10년 동안 입소하고 있는 생활시설 노숙인이 13.2%(971명)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년에서 15년 사이인 경우도 13.0%(950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보면 자활시설의 경우는 3년 미만 머물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88% 가량 되지만,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는 5년 이상 머물고 있는 경우가 각 70%와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6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입소 노숙인의 입소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16〉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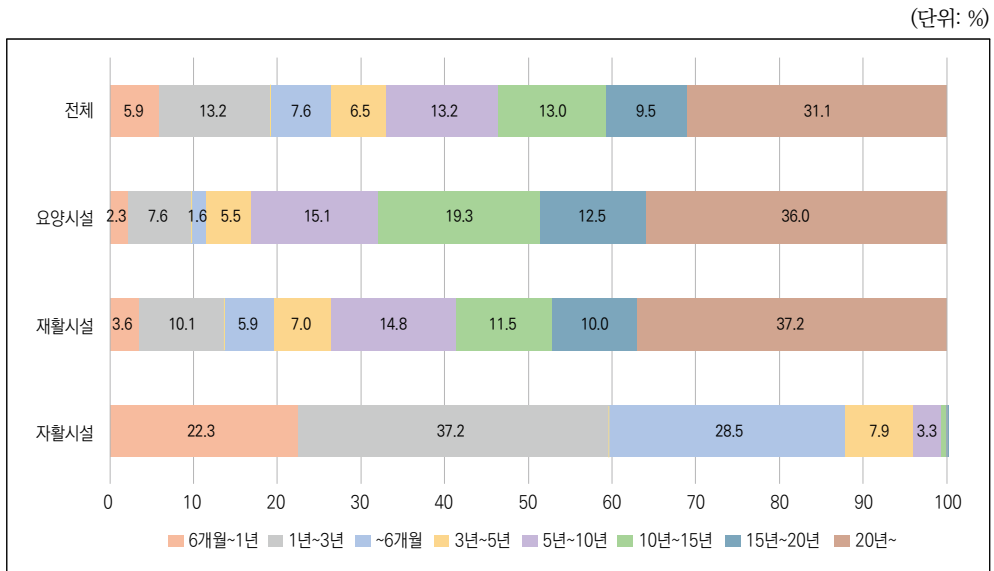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6개월	315	(28.5)	196	(5.9)	47	(1.6)	558	(7.6)
6개월-1년	247	(22.3)	119	(3.6)	67	(2.3)	433	(5.9)
1-3년	412	(37.2)	338	(10.1)	220	(7.6)	970	(13.2)
3-5년	88	(7.9)	233	(7.0)	161	(5.5)	482	(6.5)
5-10년	36	(3.3)	494	(14.8)	441	(15.1)	971	(13.2)
10-15년	7	(0.6)	386	(11.5)	562	(19.3)	955	(13.0)
15-20년	2	(0.2)	335	(10.0)	364	(12.5)	701	(9.5)
20년~	0	(0.0)	1,242	(37.2)	1,049	(36.0)	2,291	(31.1)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시간별 현황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의 경우가 장기 입소의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림 3-3-3] 생활시설별 노숙인 입소기간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17〉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남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6개월	289	(29.0)	176	(7.5)	45	(2.7)	510	(10.2)
6개월-1년	219	(22.0)	105	(4.4)	66	(4.0)	390	(7.8)
1-3년	366	(36.7)	288	(12.2)	161	(9.7)	815	(16.3)
3-5년	83	(8.3)	182	(7.7)	120	(7.2)	385	(7.7)
5-10년	32	(3.2)	401	(17.0)	306	(18.5)	739	(14.7)
10-15년	6	(0.6)	256	(10.8)	365	(22.0)	627	(12.5)
15-20년	2	(0.2)	222	(9.4)	214	(12.9)	438	(8.7)
20년~	0	(0.0)	731	(31.0)	379	(22.9)	1,110	(22.1)
전체	997	(100.0)	2,361	(100.0)	1,656	(100.0)	5,01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18〉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별 현황(여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6개월	26	(23.6)	20	(2.0)	2	(0.2)	48	(2.0)
6개월-1년	28	(25.5)	14	(1.4)	1	(0.1)	43	(1.8)
1-3년	46	(41.8)	50	(5.1)	59	(4.7)	155	(6.6)
3-5년	5	(4.5)	51	(5.2)	41	(3.3)	97	(4.1)
5-10년	4	(3.6)	93	(9.5)	135	(10.8)	232	(9.9)
10-15년	1	(0.9)	130	(13.2)	197	(15.7)	328	(14.0)
15-20년	0	(0.0)	113	(11.5)	150	(12.0)	263	(11.2)
20년~	0	(0.0)	511	(52.0)	670	(53.4)	1,181	(50.3)
전체	110	(100.0)	982	(100.0)	1,255	(100.0)	2,34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주민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1.0%(77명)만이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6년도 조사 결과(2.8%, 257명)에서보다도 더 줄어든 수치이다. 성별로도 남성 여성 모두 1% 안팎의 낮은 수치이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는 여성이 주민등록이 없는 비율이 4.9%로 다소 높게 나타났던 바 있다.

〈표 3-3-19〉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전체)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	1,086	(98.1)	3,319	(99.3)	2,868	(98.5)	7,273	(98.8)
무	18	(1.6)	16	(0.5)	43	(1.5)	77	(1.0)
미파악	3	(0.3)	8	(0.2)	0	(0.0)	11	(0.1)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20〉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남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	978	(98.1)	2,344	(99.3)	1,636	(98.8)	4,958	(98.9)
무	16	(1.6)	12	(0.5)	20	(1.2)	48	(1.0)
미파악	3	(0.3)	5	(0.2)	0	(0.0)	8	(0.2)
전체	997	(100.0)	2,361	(100.0)	1,656	(100.0)	5,01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21〉 생활시설 노숙인 주민등록 현황(여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	108	(98.2)	975	(99.3)	1,232	(98.2)	2,315	(98.6)
무	2	(1.8)	4	(0.4)	23	(1.8)	29	(1.2)
미파악	0	(0.0)	3	(0.3)	0	(0.0)	3	(0.1)
전체	110	(100.0)	982	(100.0)	1,255	(100.0)	2,34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입소자 7,361명 중 시설수급인 경우가 전체의 82.4%(6,068명)이고 일반수급인 경우가 2.9%(214명)였다. 대부분이 수급자인 것을 볼 수 있다. 비수급자인 경우는 14.1%(1,037명)이었다. 그러나 시설유형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는 거의 대부분인 94.4%와 95.4%가 시설수급인데 비해서 자활시설은 수급자가 아닌 비율이 81.4%(901명)이다.

〈표 3-3-22〉 생활시설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전체)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일반수급	63	(5.7)	59	(1.8)	92	(3.2)	214	(2.9)
시설수급	133	(12.0)	3,157	(94.4)	2,778	(95.4)	6,068	(82.4)
비수급	901	(81.4)	105	(3.1)	31	(1.1)	1,037	(14.1)
신청중	4	(0.4)	20	(0.6)	10	(0.3)	34	(0.5)
미파악	6	(0.5)	2	(0.1)	0	(0.0)	8	(0.1)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18.9%, 946명)가 여성인 경우보다 비수급인 비율(3.9%, 91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 자활시설에서 비수급인 경우가 많고,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 시설수급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표 3-3-23〉 생활시설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남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일반수급	54	(5.4)	33	(1.4)	62	(3.7)	149	(3.0)
시설수급	110	(11.0)	2,210	(93.6)	1,560	(94.2)	3,880	(77.4)
비수급	825	(82.7)	96	(4.1)	25	(1.5)	946	(18.9)
신청중	2	(0.2)	20	(0.8)	9	(0.5)	31	(0.6)
미파악	6	(0.6)	2	(0.1)	0	(0.0)	8	(0.2)
전체	997	(100.0)	2,361	(100.0)	1,656	(100.0)	5,01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24〉 생활시설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여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일반수급	9	(8.2)	26	(2.6)	30	(2.4)	65	(2.8)
시설수급	23	(20.9)	947	(96.4)	1,218	(97.1)	2,188	(93.2)
비수급	76	(69.1)	9	(0.9)	6	(0.5)	91	(3.9)
신청중	2	(1.8)	0	(0.0)	1	(0.1)	3	(0.1)
미파악	0	(0.0)	0	(0.0)	0	(0.0)	0	(0.0)
전체	110	(100.0)	982	(100.0)	1,255	(100.0)	2,34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의료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입소자 7,361명 중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는 11.1%(317명), 의료급여 1종인 경우가 83.4%(6,142명), 의료급여 2종인 경우가 0.9%(65명), 노숙인 1종인 경우가 2.3%(168명)이었다. 아무런 보장 체계가 없이 비보험인 경우는 1.7%(128명)이었다. 의료보장 역시 소득보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설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자활시설은 전체의 64.0%(703명)이 건강보험 대상자였고, 노숙인 1종인 경우가 13.9%(154명)이었다. 반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는 거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1종 대상자(재활시설 95.6%, 요양시설 98.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25〉 생활시설 노숙인 의료지원 현황(전체)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의료급여 1종	72	(6.5)	3,199	(95.7)	2,871	(98.6)	6,142	(83.4)
의료급여 2종	45	(4.1)	19	(0.6)	1	(0.0)	65	(0.9)
건강보험	708	(64.0)	80	(2.4)	29	(1.0)	817	(11.1)
노숙인 1종	154	(13.9)	14	(0.4)	0	(0.0)	168	(2.3)
비보험	110	(9.9)	13	(0.4)	5	(0.2)	128	(1.7)
신청중	7	(0.6)	14	(0.4)	5	(0.2)	26	(0.4)
미파악	11	(1.0)	4	(0.1)	0	(0.0)	15	(0.2)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에 의료급여 1종의 비율이 더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활시설인 경우에도 노숙인 1종 급여가 별로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¹²⁾ 전체적으로 여성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비율도 낮아 의료급여 1종의 의존율이 95.0%로 압도적이다(남성은 78.0%).

〈표 3-3-26〉 생활시설 노숙인 의료지원 현황(남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의료급여 1종	63	(6.3)	2,227	(94.3)	1,622	(97.9)	3,912	(78.0)
의료급여 2종	39	(3.9)	19	(0.8)	1	(0.1)	59	(1.2)
건강보험	623	(62.5)	70	(3.0)	24	(1.4)	717	(14.3)
노숙인 1종	152	(15.2)	14	(0.6)	0	(0.0)	166	(3.3)
비보험	107	(10.7)	13	(0.6)	5	(0.3)	125	(2.5)
신청중	4	(0.4)	14	(0.6)	4	(0.2)	22	(0.4)
미파악	9	(0.9)	4	(0.2)	0	(0.0)	13	(0.3)
전체	997	(100.0)	2,361	(100.0)	1,656	(100.0)	5,01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12) 의료급여 노숙인 1종의 자격 요건은 노숙인복지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1.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종합지원센터 포함),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이므로(보건복지부, 2020, p.120), 주로 자활시설 노숙인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활시설에서도 노숙인 1종 수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7〉 생활시설 노숙인 의료지원 현황(여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의료급여 1종	9	(8.2)	972	(99.0)	1,249	(99.5)	2,230	(95.0)
의료급여 2종	6	(5.5)	0	(0.0)	0	(0.0)	6	(0.3)
건강보험	85	(77.3)	10	(1.0)	5	(0.4)	100	(4.3)
노숙인 1종	2	(1.8)	0	(0.0)	0	(0.0)	2	(0.1)
비보험	3	(2.7)	0	(0.0)	0	(0.0)	3	(0.1)
신청중	3	(2.7)	0	(0.0)	1	(0.1)	4	(0.2)
미파악	2	(1.8)	0	(0.0)	0	(0.0)	2	(0.1)
전체	110	(100.0)	982	(100.0)	1,255	(100.0)	2,34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에게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등 연고자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62.5%(4,603명)는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활시설의 경우에는 연고자가 있는 비율이 46.8%(518명)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표 3-3-28〉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전체)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연고자	518	(46.8)	2,205	(66.0)	1,880	(64.6)	4,603	(62.5)
무연고자	589	(53.2)	1,138	(34.0)	1,031	(35.4)	2,758	(37.5)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주: 연고자 유무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한 시설(1개 시설, 19명 노숙인)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여성의 경우 연고자가 있는 비율이 60.3%로 남성 63.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남성의 유연고자 비율이 71.4%인데 여성은 55.6%로 낮게 나타난 영향이 크다. 다만 자활시설에서는 여성의 유연고자 비율이 71.8%로 남성의 44.0%보다 높다.

〈표 3-3-29〉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남성)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연고자	439	(44.0)	1,567	(66.4)	1,182	(71.4)	3,188	(63.6)
무연고자	558	(56.0)	794	(33.6)	474	(28.6)	1,826	(36.4)
전체	997	(100.0)	2,361	(100.0)	1,656	(100.0)	5,014	(100.0)

주: 연고자 유무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한 시설(1개 시설, 19명 노숙인)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표 3-3-30〉 생활시설 노숙인 연고자 유무(여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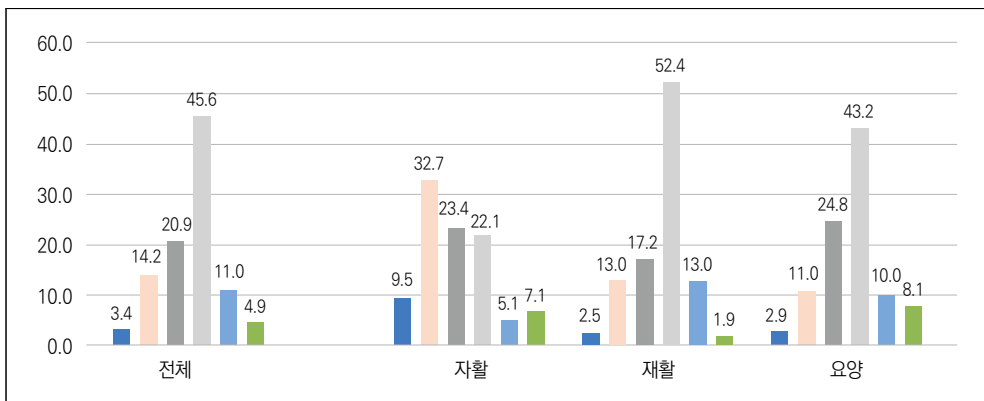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연고자	79	(71.8)	638	(65.0)	698	(55.6)	1,415	(60.3)
무연고자	31	(28.2)	344	(35.0)	557	(44.4)	932	(39.7)
전체	110	(100.0)	982	(100.0)	1,255	(100.0)	2,347	(100.0)

주: 연고자 유무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한 시설(1개 시설, 19명 노숙인)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연고자의 형태는 자활시설의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가 32.7%로 많고,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형제(재활시설 52.4%, 요양시설 43.2%)인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도 형제인 경우가 45.6%로 높게 나타나고 다음은 자녀 20.9%, 부모 14.2%이다.

〔그림 3-3-4〕 생활시설 노숙인 유연고자 형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3가구가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을 포함한 가구는 14가구로 42.4% 수준이었다. 이는 2016년도 조사결과의 71.8%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 보면 자활시설에서는 미성년을 포함한 경우가 51.9%인 14가구로 나타나는데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는 미성년을 포함한 가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재활시설과 요양 시설에는 가족 노숙인이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표 3-3-31〉 생활시설 노숙인 가족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족 이용자	27	(100.0)	3	(100.0)	3	(100.0)	33	(100.0)
미성년 포함	14	(51.9)	0	(0.0)	0	(0.0)	14	(42.4)
미성년 미포함	13	(48.1)	3	(100.0)	3	(100.0)	19	(57.6)
평균 가구원 수	5.4		1.0		1.5		3.3	

주: 생활시설 노숙인 가족 현황의 케이스가 너무 작으므로 해석에 유의하기 바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생활시설 노숙인의 질병이환 실태를 살펴보았다. 생활시설 노숙인의 질병이환 실태의 경우는 질병 및 장애가 없는 노숙인은 기입을 하지 않았으며, 병원이나 의사의 진단 판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 사람에게 여러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질병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중복 집계가 이루어졌다.

〈표 3-3-32〉 생활시설 노숙인 질병이환 실태

(단위: 명, %)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대사성질환	467	(34.9)	1,519	(19.8)	2,163	(23.3)	4,149	(22.7)
고혈압	252	(54.0)	708	(46.6)	946	(43.7)	1,906	(45.9)
당뇨병	131	(28.1)	415	(27.3)	497	(23.0)	1,043	(25.1)
고지혈증	84	(18.0)	396	(26.1)	720	(33.3)	1,200	(28.9)
심장질환	19	(1.4)	65	(0.8)	110	(1.2)	194	(1.1)
협심증	8	(42.1)	21	(32.3)	23	(20.9)	52	(26.8)
심근경색	7	(36.8)	10	(15.4)	22	(20.0)	39	(20.1)
심부전	4	(21.1)	16	(24.6)	35	(31.8)	55	(28.4)
기타	0	-	18	(27.7)	30	(27.3)	48	(24.7)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호흡기질환	28	(2.1)	162	(2.1)	232	(2.5)	422	(2.3)
폐결핵	1	(3.6)	28	(17.3)	86	(37.1)	115	(27.3)
천식	16	(57.1)	25	(15.4)	64	(27.6)	105	(24.9)
폐기종	2	(7.1)	18	(11.1)	7	(3.0)	27	(6.4)
만성기관지염	7	(25.0)	37	(22.8)	39	(16.8)	83	(19.7)
기타	2	(7.1)	54	(33.3)	36	(15.5)	92	(21.8)
간장질환	12	(0.9)	127	(1.7)	163	(1.8)	302	(1.7)
B형간염	5	(41.7)	52	(40.9)	64	(39.3)	121	(40.1)
C형간염	1	(8.3)	4	(3.1)	15	(9.2)	20	(6.6)
알코올성간염	3	(25.0)	5	(3.9)	13	(8.0)	21	(7.0)
간경화	0	-	31	(24.4)	28	(17.2)	59	(19.5)
기타	3	(25.0)	35	(27.6)	43	(26.4)	81	(26.8)
위장관질환	31	(2.3)	436	(5.7)	365	(3.9)	832	(4.6)
역류성식도염	11	(35.5)	117	(26.8)	62	(17.0)	190	(22.8)
위십이지장염	3	(9.7)	240	(55.0)	198	(54.2)	441	(53.0)
위십이지장궤양	8	(25.8)	29	(6.7)	21	(5.8)	58	(7.0)
치질	8	(25.8)	33	(7.6)	56	(15.3)	97	(11.7)
기타	1	(3.2)	17	(3.9)	28	(7.7)	46	(5.5)
정신질환	136	(10.2)	2,207	(28.8)	1,650	(17.8)	3,993	(21.9)
조현병	28	(20.6)	1,424	(64.5)	1,123	(68.1)	2,575	(64.5)
우울증	48	(35.3)	302	(13.7)	121	(7.3)	471	(11.8)
조증	3	(2.2)	64	(2.9)	46	(2.8)	113	(2.8)
알코올중독	47	(34.6)	258	(11.7)	52	(3.2)	357	(8.9)
약물중독	1	(0.7)	1	(0.0)	0	-	2	(0.1)
기타	9	(6.6)	158	(7.2)	308	(18.7)	475	(11.9)
신경계질환	17	(1.3)	376	(4.9)	694	(7.5)	1,087	(5.9)
간질	2	(11.8)	138	(36.7)	249	(35.9)	389	(35.8)
치매	11	(64.7)	196	(52.1)	348	(50.1)	555	(51.1)
파킨슨씨병	3	(17.6)	25	(6.6)	62	(8.9)	90	(8.3)
기타	1	(5.9)	17	(4.5)	35	(5.0)	53	(4.9)
뇌졸중(중풍)	14	(1.0)	163	(2.1)	184	(2.0)	361	(2.0)
뇌경색	10	(71.4)	134	(82.2)	137	(74.5)	281	(77.8)
뇌출혈	4	(28.6)	29	(17.8)	47	(25.5)	80	(22.2)
관절질환	41	(3.1)	225	(2.9)	300	(3.2)	566	(3.1)
어깨관절질환	15	(36.6)	26	(11.6)	42	(14.0)	83	(14.7)
고관절질환	1	(2.4)	34	(15.1)	40	(13.3)	75	(13.3)
무릎관절질환	19	(46.3)	96	(42.7)	114	(38.0)	229	(40.5)
발목관절질환	4	(9.8)	30	(13.3)	21	(7.0)	55	(9.7)
기타	2	(4.9)	39	(17.3)	83	(27.7)	124	(21.9)

150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척추질환	67	(5.0)	139	(1.8)	196	(2.1)	402	(2.2)
디스크	44	(65.7)	55	(39.6)	59	(30.1)	158	(39.3)
척추분리증	0	(0.0)	7	(5.0)	22	(11.2)	29	(7.2)
척추측만증	22	(32.8)	31	(22.3)	30	(15.3)	83	(20.6)
척추골절	1	(1.5)	20	(14.4)	19	(9.7)	40	(10.0)
기타	0	(0.0)	26	(18.7)	66	(33.7)	92	(22.9)
외상	0	(0.0)	40	(0.5)	74	(0.8)	114	(0.6)
외상성뇌병변	0	(0.0)	22	(55.0)	22	(29.7)	44	(38.6)
사지몸통골절	0	(0.0)	16	(40.0)	51	(68.9)	67	(58.8)
기타	0	(0.0)	2	(5.0)	1	(1.4)	3	(2.6)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66	(4.9)	291	(3.8)	517	(5.6)	874	(4.8)
신부전	2	(3.0)	12	(4.1)	54	(10.4)	68	(7.8)
전립선비대증	39	(59.1)	193	(66.3)	292	(56.5)	524	(60.0)
방광요도염	10	(15.2)	55	(18.9)	73	(14.1)	138	(15.8)
질염	15	(22.7)	19	(6.5)	30	(5.8)	64	(7.3)
기타	0	(0.0)	12	(4.1)	68	(13.2)	80	(9.2)
암	20	(1.5)	63	(0.8)	131	(1.4)	214	(1.2)
위암	3	(15.0)	18	(28.6)	21	(16.0)	42	(19.6)
간암	2	(10.0)	1	(1.6)	8	(6.1)	11	(5.1)
폐암	2	(10.0)	10	(15.9)	15	(11.5)	27	(12.6)
대장암	5	(25.0)	8	(12.7)	19	(14.5)	32	(15.0)
갑상선암	3	(15.0)	3	(4.8)	7	(5.3)	13	(6.1)
유방암	1	(5.0)	7	(11.1)	23	(17.6)	31	(14.5)
기타	4	(20.0)	16	(25.4)	38	(29.0)	58	(27.1)
피부병	15	(1.1)	240	(3.1)	336	(3.6)	591	(3.2)
곰팡이성피부염	0	(0.0)	27	(11.3)	215	(64.0)	242	(40.9)
세균성피부염	0	(0.0)	3	(1.3)	15	(4.5)	18	(3.0)
아토피성피부염	12	(80.0)	9	(3.8)	15	(4.5)	36	(6.1)
건선	2	(13.3)	190	(79.2)	25	(7.4)	217	(36.7)
기타	1	(6.7)	11	(4.6)	66	(19.6)	78	(13.2)
기타 감염병	0	(0.0)	11	(0.1)	18	(0.2)	29	(0.2)
음	0	(0.0)	3	(27.3)	0	(0.0)	3	(10.3)
사면발이	0	(0.0)	0	(0.0)	0	(0.0)	0	(0.0)
성병	0	(0.0)	1	(9.1)	18	(100.0)	19	(65.5)
기타	0	(0.0)	7	(63.6)	0	(0.0)	7	(24.1)
눈코목귀 질환	57	(4.3)	146	(1.9)	306	(3.3)	509	(2.8)
백내장	22	(38.6)	52	(35.6)	149	(48.7)	223	(43.8)
녹내장	7	(12.3)	23	(15.8)	43	(14.1)	73	(14.3)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비염	22	(38.6)	31	(21.2)	51	(16.7)	104	(20.4)
후두염	1	(1.8)	3	(2.1)	0	(0.0)	4	(0.8)
중이염	4	(7.0)	15	(10.3)	16	(5.2)	35	(6.9)
기타	1	(1.8)	22	(15.1)	47	(15.4)	70	(13.8)
치과질환	349	(26.1)	1,447	(18.9)	1,839	(19.8)	3,635	(19.9)
치아질환	127	(36.4)	430	(29.7)	357	(19.4)	914	(25.1)
잇몸질환	96	(27.5)	265	(18.3)	459	(25.0)	820	(22.6)
치아결손	126	(36.1)	714	(49.3)	992	(53.9)	1,832	(50.4)
턱관절장애	0	(0.0)	0	(0.0)	3	(0.2)	3	(0.1)
기타	0	(0.0)	38	(2.6)	28	(1.5)	66	(1.8)
전체	1,107	(100.0)	3,343	(100.0)	2,911	(100.0)	7,361	(100.0)

주: 각 질환의 상위구분(대사성질환,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에 대한 비율은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각각의 전체를 100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질환의 하위구분(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비율은 질환의 상위구분(예: 대사성질환)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전체적으로는 대사성질환(22.7%), 정신질환(21.9%), 치과질환(19.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생활시설 유형별로는 자활시설은 대사성질환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치과질환 26.1%였다. 재활시설은 정신질환(28.8%)과 대사성질환(19.8%), 요양시설은 대사성질환(23.3%)과 치과질환(19.8%)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6년도 조사 결과와 이번 2021년도 조사 결과에서 시설 유형별로 가장 두드러진 질병이환 상태를 살펴보면 <표 3-3-33>과 같다. 3순위까지의 질병을 살펴본 결과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의 3가지 질환이 모든 시설유형에서 가장 많은 3가지 질환이었다. 자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는 대사성질환 > 치과질환 > 정신질환의 순서를 나타내었고, 재활시설에서는 정신질환 > 대사성질환 > 치과질환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이 순서는 2016년도 조사결과와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 동일하다. 다만 5년 전 조사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유형에서 주요 질병의 이환비율이 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3-3-33〉 생활시설 유형별 노숙인 주요 질병이환 실태

(단위: %)

2016년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질환	(비율)	질환	(비율)	질환	(비율)	질환	(비율)
1순위	대사성질환	31.2	정신질환	22.6	대사성질환	18.8	대사성질환	18.7
2순위	치과질환	29.8	치과질환	17.3	정신질환	15.4	정신질환	18.6
3순위	정신질환	7.3	대사성질환	17.1	치과질환	15.0	치과질환	17.1
2021년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전체	
	질환	(비율)	질환	(비율)	질환	(비율)	질환	(비율)
1순위	대사성질환	34.9	정신질환	28.8	대사성질환	23.3	대사성질환	22.7
2순위	치과질환	26.1	대사성질환	19.8	치과질환	19.8	정신질환	21.9
3순위	정신질환	10.2	치과질환	18.9	정신질환	17.8	치과질환	19.9

주: 2016년 보고자료에서는 '장애'가 질병유형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1년 조사결과 보고에서는 장애별 주는 질병과 따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비교함.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9.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제4절 쪽방주민의 규모와 일반적 특징

1. 쪽방주민의 규모

본 조사는 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대구·인천·대전에 각각 1개소의 쪽방상담소 등 10개 쪽방상담소를 통해 진행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쪽방의 면적을 기준으로 쪽방을 정의하여 조사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 상한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형태를 취하지 못해 쪽방상담소에 등록 되어 서비스 제공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지역별 쪽방주민의 규모를 살펴보면, 쪽방상담소가 5개소 존재하는 서울에서 50.6%가 집계되어 쪽방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16년도 조사에서 서울지역이 57.4%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줄어든 수치이다. 서울지역의 쪽방주민은 2016년도 3,577명에서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는 2,75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쪽방주민이 2016년도 6,192명에서 2021년

도 5,443명으로 감소한 것은 서울지역의 감소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서는 약간 증가하거나 유사한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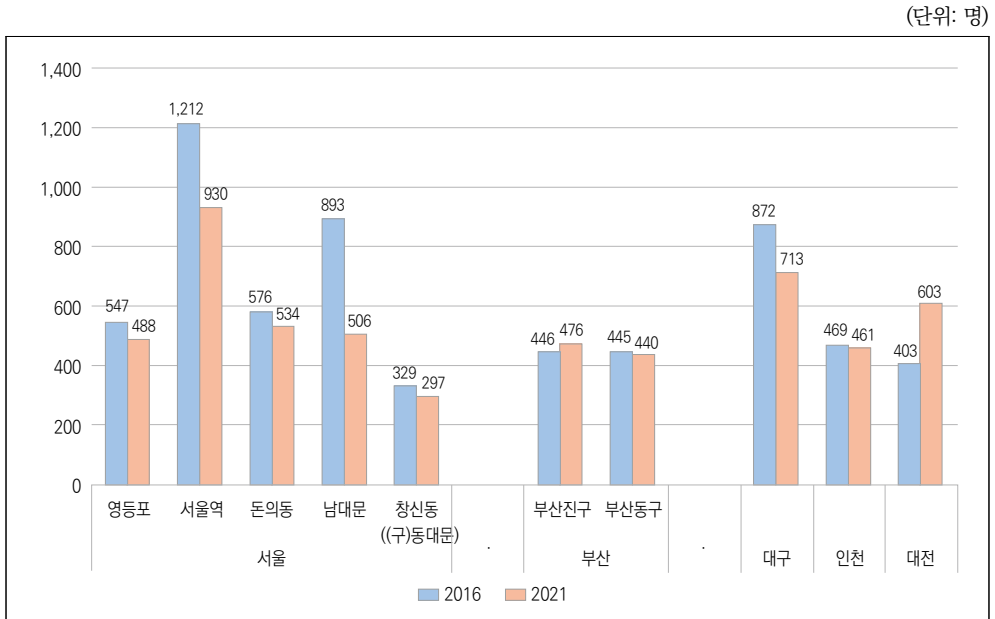
〈표 3-4-1〉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비교

(단위: 명, %)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명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	547	(8.8)	488	(9.0)	-59
	서울역쪽방상담소	1,212	(19.6)	930	(17.1)	-282
	돈의동쪽방상담소	576	(9.3)	534	(9.8)	-4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893	(14.4)	506	(9.3)	-387
	창신동쪽방상담소 (구)동대문쪽방상담소	329	(5.3)	297	(5.5)	-32
	소계	3,577	(57.4)	2,755	(50.6)	-822
부산	부산진구쪽방상담소	446	(7.2)	476	(8.7)	+30
	부산동구쪽방상담소	445	(7.2)	440	(8.1)	-5
	소계	891	(14.4)	916	(16.8)	+25
대구	대구쪽방상담소	872	(14.1)	713	(13.1)	-159
인천	인천쪽방상담소	469	(7.6)	461	(8.5)	-8
대전	대전쪽방상담소	403	(6.5)	603	(11.1)	+200
전체	6,192	(100.0)	5,448	(100.0)	-7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그림 3-4-1〕 쪽방상담소별 쪽방주민 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쪽방주민의 성별은 남성이 84.4%, 여성이 15.6%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보다 차이가 조금 더 커진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는 85% 이상이 남성인 반면 인천의 경우는 남성이 64.2%, 대전은 남성이 78.9%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2〉 쪽방주민 지역별 성별 현황 비교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2,361	(85.7)	394	(14.3)	2,755	(100.0)
부산	823	(89.8)	93	(10.2)	916	(100.0)
대구	641	(89.9)	72	(10.1)	713	(100.0)
인천	296	(64.2)	165	(35.8)	461	(100.0)
대전	476	(78.9)	127	(21.1)	603	(100.0)
전체	4,597	(84.4)	851	(15.6)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쪽방주민의 성별 연령대 현황을 보면, 남성은 60대가 39.0%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3%였다. 2016년 조사결과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아졌다. 여성은 70대가 30.2%, 60대가 28.2%를 나타내었다. 역시 2016년 조사결과보다는 연령이 높아졌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령이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3〉 쪽방주민 성별 연령대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9	9	(0.2)	5	(0.6)	14	(0.3)
20-29	15	(0.3)	8	(0.9)	23	(0.4)
30-39	93	(2.0)	23	(2.7)	116	(2.1)
40-49	442	(9.6)	49	(5.8)	491	(9.0)
50-59	1,349	(29.3)	123	(14.5)	1,472	(27.0)
60-64	1,030	(22.4)	105	(12.3)	1,135	(20.8)
65-69	764	(16.6)	135	(15.9)	899	(16.5)
70-79	695	(15.1)	257	(30.2)	952	(17.5)
80-89	186	(4.0)	128	(15.0)	314	(5.8)
90~	14	(0.3)	18	(2.1)	32	(0.6)
전체	4,597	(100.0)	851	(100.0)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연령대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는 모든 지역에서 5% 내외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모든 지역에서 6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34.6%로 가장 고령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4-4〉 쪽방주민 지역별 연령대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9	4	(0.1)	0	(0.0)	0	(0.0)	10	(2.2)	0	(0.0)
20~29	8	(0.3)	1	(0.1)	1	(0.1)	13	(2.8)	0	(0.0)
30~39	52	(1.9)	23	(2.5)	9	(1.3)	22	(4.8)	10	(1.7)
40~49	257	(9.3)	86	(9.4)	71	(10.0)	45	(9.8)	32	(5.3)
50~59	793	(28.8)	254	(27.7)	233	(32.7)	81	(17.6)	111	(18.4)
60~64	570	(20.7)	181	(19.8)	198	(27.8)	73	(15.8)	113	(18.7)
65~69	451	(16.4)	177	(19.3)	84	(11.8)	58	(12.6)	129	(21.4)
70~79	475	(17.2)	153	(16.7)	91	(12.8)	86	(18.7)	147	(24.4)
80~89	135	(4.9)	39	(4.3)	23	(3.2)	60	(13.0)	57	(9.5)
90~	10	(0.4)	2	(0.2)	3	(0.4)	13	(2.8)	4	(0.7)
합계	2,755	(100.0)	916	(100.0)	713	(100.0)	461	(100.0)	60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가구현황을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가 1% 안팎이며, 가구 평균 가구원수가 1.01명 혹은 1.03명 정도로 낮게 나타나 사실상 쪽방에는 단독가구만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2인 이상 가구가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평균 가구원수는 1.2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 인천지역 쪽방의 평균 가구원수 1.44명보다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인천지역의 쪽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2016년도 조사결과에 이어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5〉 쪽방주민 지역별 가구 현황 비교

(단위: 가구, 명, %)

구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총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명)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서울	2,720	(99.3)	18	(0.7)	2,738	(100.0)	1.01
부산	893	(98.6)	13	(1.4)	906	(100.0)	1.01
대구	713	(98.9)	8	(1.1)	721	(100.0)	1.01
인천	320	(85.6)	54	(14.4)	374	(100.0)	1.23
대전	582	(99.0)	6	(1.0)	588	(100.0)	1.03
전체	5,228	(98.1)	99	(1.9)	5,327	(100.0)	1.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쪽방주민의 지역별 미성년 포함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인 이상 가구는 99가구로 총 220명이 집계되었으며, 이 중 미성년을 포함한 2인 이상 가구는 15가구, 49명으로 집계되었다. 인천과 대전에서 각각 6가구, 서울에서 3가구가 집계되었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서울 8가구, 부산 1가구, 대구 2가구, 인천 4가구, 대전이 1가구 등 16가구이었다.

〈표 3-4-6〉 쪽방주민 지역별 미성년 포함 가구(가족 거주) 현황

(단위: 가구, 명, %)

구분	미성년 포함				미성년 미포함				전체 2인 이상 가구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	(비율)	명	(비율)	가구	(비율)	명	(비율)	가구	(비율)	명	(비율)
서울	3	(16.7)	6	(17.1)	15	(83.3)	29	(82.9)	18	(100.0)	35	(100.0)
부산	0	(0.0)	0	(0.0)	13	(100.0)	23	(100.0)	13	(100.0)	23	(100.0)
대구	0	(0.0)	0	(0.0)	8	(100.0)	-	-	8	(100.0)	-	-
인천	6	(11.1)	22	(15.6)	48	(88.9)	119	(84.4)	54	(100.0)	141	(100.0)
대전	6	(100.0)	21	(100.0)	0	(0.0)	0	(0.0)	6	(100.0)	21	(100.0)
전체	15	(15.2)	49	(22.3)	84	(84.8)	171	(77.7)	99	(100.0)	22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쪽방주민의 일반적 특징

쪽방주민의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84.3%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성 83.4%, 여성 89.7%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확인되지 않은 미파악의 비율이 15% 가깝게 나타나(2016년에는 미파악 비율이 3.7%) 주민등록 보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7〉 쪽방주민 주민등록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유	3,832	(83.4)	763	(89.7)	4,595	(84.3)
무	40	(0.9)	16	(1.9)	56	(1.0)
미파악	725	(15.8)	72	(8.5)	797	(14.6)
전체	4,597	(100.0)	851	(100.0)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원은 1% 가량(56명) 뿐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전체의 1/4이 넘는 26.9%(740명)와 대구 지역에서 8.0%(57명)가 미파악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는 14.6%가 미파악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1%이지만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다.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는 대구에서 17.9%(156명) 미파악이 나타난 것 외에는 미파악 사례수가 크지 않아(3.7%)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90.3%, 없는 경우가 6.0%로 나타난 바 있다(이태진 외, 2017, p.187).

〈표 3-4-8〉 쪽방주민 지역별 주민등록 현황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		무		미파악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1,972	(71.6)	43	(1.6)	740	(26.9)	2,755	(100.0)
부산	907	(99.0)	9	(1.0)	0	(0.0)	916	(100.0)
대구	653	(91.6)	3	(0.4)	57	(8.0)	713	(100.0)
인천	461	(100.0)	0	(0.0)	0	(0.0)	461	(100.0)
대전	602	(99.8)	1	(0.2)	0	(0.0)	603	(100.0)
전체	4,595	(84.3)	56	(1.0)	797	(14.6)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다음으로 쪽방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는 58.7%, 주거급여는 49.9%가 수급을 받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생계급여 수급률이 약간 더 높고, 여

성이 남성보다 주거급여 수급률이 약간 더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쪽방주민의 열악한 주거생활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수급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53.3%의 기초보장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표 3-4-9〉 쪽방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생계급여	수급	2,711 (59.0)	486 (57.1)	3,197 (58.7)		
	비수급	1,814 (39.5)	337 (39.6)	2,151 (39.5)		
	신청중	9 (0.2)	5 (0.6)	14 (0.3)		
	미파악	63 (1.4)	23 (2.7)	86 (1.6)		
주거급여	수급	2,275 (49.5)	441 (51.8)	2,716 (49.9)		
	비수급	1,420 (30.9)	248 (29.1)	1,668 (30.6)		
	신청중	15 (0.3)	5 (0.6)	20 (0.4)		
	미파악	887 (19.3)	157 (18.4)	1,044 (19.2)		
전체	4,597 (100.0)	851 (100.0)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을 보면, 부산과 대전이 70~80%대의 높은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인천과 대구는 30~40%대의 낮은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지역은 생계급여 수급률은 60.1%인데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수급률이 35.0%로 낮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쪽방상담소에서 확인하지 못한 비율이 32.1%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4-10〉 쪽방주민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생계급여	수급	1,655 (60.1)	718 (78.4)	232 (32.5)	171 (37.1)	421 (69.8)				
	비수급	1,066 (38.7)	198 (21.6)	417 (58.5)	290 (62.9)	180 (29.9)				
	신청중	5 (0.2)	0 (0.0)	7 (1.0)	0 (0.0)	2 (0.3)				
	미파악	29 (1.1)	0 (0.0)	57 (8.0)	0 (0.0)	0 (0.0)				
주거급여	수급	964 (35.0)	714 (77.9)	353 (49.5)	188 (40.8)	497 (82.4)				
	비수급	901 (32.7)	198 (21.6)	296 (41.5)	273 (59.2)	0 (0.0)				
	신청중	5 (0.2)	4 (0.4)	7 (1.0)	0 (0.0)	4 (0.7)				
	미파악	885 (32.1)	0 (0.0)	57 (8.0)	0 (0.0)	102 (16.9)				
전체	2,755 (100.0)	916 (100.0)	713 (100.0)	461 (100.0)	60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쪽방주민의 의료보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료급여 1종이 53.9%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이 27.6%, 의료급여 2종은 11.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 13.3%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번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쪽방주민의 1.2%만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의료급여의 비중이 높아졌다.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3-4-11〉 쪽방주민 의료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의료급여 1종	2,485	(54.1)	451	(53.0)	2,936	(53.9)
의료급여 2종	532	(11.6)	77	(9.0)	609	(11.2)
건강보험	1,264	(27.5)	240	(28.2)	1,504	(27.6)
비보험	50	(1.1)	16	(1.9)	66	(1.2)
의료급여 신청중	7	(0.2)	5	(0.6)	12	(0.2)
미파악	259	(5.6)	62	(7.3)	321	(5.9)
전체	4,597	(100.0)	851	(100.0)	5,448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지역별로 구분해 볼 때 부산과 대전의 경우는 의료급여 1종이 70% 가깝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쪽방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과 일치하는 결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급여도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대구와 인천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50%를 넘고 있다.

〈표 3-4-12〉 쪽방주민 지역별 의료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의료급여 1종	1,487	(54.0)	623	(68.0)	232	(32.5)	173	(37.5)	421	(69.8)
의료급여 2종	324	(11.8)	150	(16.4)	40	(5.6)	20	(4.3)	75	(12.4)
건강보험	619	(22.5)	141	(15.4)	374	(52.5)	268	(58.1)	102	(16.9)
비보험	61	(2.2)	2	(0.2)	3	(0.4)	0	(0.0)	0	(0.0)
의료급여 신청중	5	(0.2)	0	(0.0)	7	(1.0)	0	(0.0)	0	(0.0)
미파악	259	(9.4)	0	(0.0)	57	(8.0)	0	(0.0)	5	(0.8)
전체	2,755	(100.0)	916	(100.0)	713	(100.0)	461	(100.0)	60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쪽방주민의 장애실태를 지역별로 확인한 결과, 등록 장애인은 10.8%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19.5%, 대전 16.3%, 인천 10.2%, 서울 9.3%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는 쪽방상담소에서 주민이 장애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5.1%), 시각장애(1.7%), 청각장애(1.5%), 정신장애(1.4%) 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4-13〉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전체)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장애유무	미파악	353	(12.8)	0	(0.0)	482	(67.6)	0	(0.0)	24	(4.0)	859	(15.8)
	장애없음	2,146	(77.9)	737	(80.5)	224	(31.4)	414	(89.8)	481	(79.8)	4,002	(73.5)
	등록장애인	256	(9.3)	179	(19.5)	7	(1.0)	47	(10.2)	98	(16.3)	587	(10.8)
	중복장애인	17	(0.6)	0	(0.0)	0	(0.0)	0	(0.0)	3	(0.5)	20	(0.4)
장애종류	지체장애	128	(4.6)	90	(9.8)	2	(0.3)	19	(4.1)	41	(6.8)	280	(5.1)
	뇌병변장애	33	(1.2)	12	(1.3)	1	(0.1)	0	(0.0)	9	(1.5)	55	(1.0)
	시각장애	46	(1.7)	22	(2.4)	2	(0.3)	6	(1.3)	15	(2.5)	91	(1.7)
	청각장애	44	(1.6)	16	(1.7)	0	(0.0)	8	(1.7)	11	(1.8)	79	(1.5)
	언어장애	3	(0.1)	3	(0.3)	2	(0.3)	3	(0.7)	3	(0.5)	14	(0.3)
	지적장애	41	(1.5)	10	(1.1)	0	(0.0)	2	(0.4)	11	(1.8)	64	(1.2)
	자폐성장애	2	(0.1)	0	(0.0)	0	(0.0)	0	(0.0)	0	(0.0)	2	(0.0)
	정신장애	43	(1.6)	19	(2.1)	0	(0.0)	6	(1.3)	10	(1.7)	78	(1.4)
	신장장애	5	(0.2)	2	(0.2)	0	(0.0)	0	(0.0)	1	(0.2)	8	(0.1)
	심장장애	0	(0.0)	2	(0.2)	0	(0.0)	1	(0.2)	0	(0.0)	3	(0.1)
	호흡기장애	3	(0.1)	1	(0.1)	0	(0.0)	1	(0.2)	0	(0.0)	5	(0.1)
	간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안면장애	0	(0.0)	0	(0.0)	0	(0.0)	1	(0.2)	0	(0.0)	1	(0.0)
	장루·요루장애	0	(0.0)	2	(0.2)	0	(0.0)	0	(0.0)	0	(0.0)	2	(0.0)
	뇌전증(간질)장애	6	(0.2)	0	(0.0)	0	(0.0)	0	(0.0)	0	(0.0)	6	(0.1)

주: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를 중복으로 집계하여 등록장애인 총 수보다 장애 총계가 더 많이 집계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장애 중에서 심한 장애의 경우 서울지역의 152명 등 전체적으로 243명이 확인되었는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25.1%), 지적장애(21.0%), 정신장애(19.3%)가 심한 장애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표 3-4-14〉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심한장애)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지체장애	32	(21.1)	14	(33.3)	0	(0.0)	8	(36.4)	7	(26.9)	61	(25.1)
뇌병변장애	13	(8.6)	2	(4.8)	1	(100.0)	0	(0.0)	4	(15.4)	20	(8.2)
시각장애	6	(3.9)	4	(9.5)	0	(0.0)	1	(4.5)	4	(15.4)	15	(6.2)
청각장애	16	(10.5)	5	(11.9)	0	(0.0)	2	(9.1)	2	(7.7)	25	(10.3)
언어장애	2	(1.3)	0	(0.0)	0	(0.0)	2	(9.1)	3	(11.5)	7	(2.9)
지적장애	38	(25.0)	5	(11.9)	0	(0.0)	2	(9.1)	6	(23.1)	51	(21.0)
자폐성장애	1	(0.7)	0	(0.0)	0	(0.0)	0	(0.0)	0	(0.0)	1	(0.4)
정신장애	35	(23.0)	8	(19.0)	0	(0.0)	4	(18.2)	0	(0.0)	47	(19.3)
신장장애	4	(2.6)	2	(4.8)	0	(0.0)	0	(0.0)	0	(0.0)	6	(2.5)
심장장애	0	(0.0)	1	(2.4)	0	(0.0)	1	(4.5)	0	(0.0)	2	(0.8)
호흡기장애	3	(2.0)	1	(2.4)	0	(0.0)	1	(4.5)	0	(0.0)	5	(2.1)
간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안면장애	0	(0.0)	0	(0.0)	0	(0.0)	1	(4.5)	0	(0.0)	1	(0.4)
장루·요루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뇌전증(간질)장애	2	(1.3)	0	(0.0)	0	(0.0)	0	(0.0)	0	(0.0)	2	(0.8)
계	152	(100.0)	42	(100.0)	1	(100.0)	22	(100.0)	26	(100.0)	243	(100.0)

주: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를 중복으로 집계하여 등록장애인 총 수보다 장애 총계가 더 많이 집계되어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서울지역의 202명 등 445명이 확인되었는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49.4%), 시각장애(17.1%), 청각장애(12.1%)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4-15〉 쪽방주민 지역별 장애실태(심하지 않은 장애)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지체장애	96	(47.5)	76	(55.5)	2	(33.3)	11	(44.0)	34	(45.3)	219	(49.2)
뇌병변장애	20	(9.9)	10	(7.3)	0	(0.0)	0	-	5	(6.7)	35	(7.9)
시각장애	40	(19.8)	18	(13.1)	2	(33.3)	5	(20.0)	11	(14.7)	76	(17.1)
청각장애	28	(13.9)	11	(8.0)	0	(0.0)	6	(24.0)	9	(12.0)	54	(12.1)
언어장애	1	(0.5)	3	(2.2)	2	(33.3)	1	(4.0)	0	(0.0)	7	(1.6)
지적장애	3	(1.5)	5	(3.6)	0	(0.0)	0	(0.0)	5	(6.7)	13	(2.9)
자폐성장애	1	(0.5)	0	(0.0)	0	(0.0)	0	(0.0)	0	(0.0)	1	(0.2)
정신장애	8	(4.0)	11	(8.0)	0	(0.0)	2	(8.0)	10	(13.3)	31	(7.0)
신장장애	1	(0.5)	0	(0.0)	0	(0.0)	0	(0.0)	1	(1.3)	2	(0.5)
심장장애	0	(0.0)	1	(0.7)	0	(0.0)	0	(0.0)	0	(0.0)	1	(0.2)
호흡기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간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안면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루·요루장애	0	(0.0)	2	(1.5)	0	(0.0)	0	(0.0)	0	(0.0)	2	(0.5)
뇌전증(간질)장애	4	(2.0)	0	(0.0)	0	(0.0)	0	(0.0)	0	(0.0)	4	(0.9)
계	202	(100.0)	137	(100.0)	6	(100.0)	25	(100.0)	75	(100.0)	445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쪽방상담소 10개소의 관할 쪽방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개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4개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5개 쪽방 상담소 중 4개의 지역에서, 부산과 대구의 쪽방상담소 각 1개소 지역에서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확진자의 수는 서울에서 21명, 부산과 대구에서는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대전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16〉 쪽방주민 코로나19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코로나 발생 현황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 있음		확진자 없음		
	개소	(비율)	개소	(비율)	명
서울	4	(80.0)	1	20.0	21
부산	1	(50.0)	1	50.0	1
대구	1	(100.0)	0	(0.0)	1
인천	0	(0.0)	1	100.0	0
대전	0	(0.0)	1	100.0	0
전체	6	(60.0)	4	40.0	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05. 14. 기준) 원자료.



제4장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면접조사

제1절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제2절 경제활동

제3절 건강 및 의료

제4절 주거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

제6절 코로나19 관련 사항

제7절 2016년도 및 2021년도 실태조사 주요결과 비교

제4장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면접조사

제1절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¹³⁾ 응답자는 총 1,700명이며, 거처 유형별로 거리 253명(14.9%), 이용시설 59명(3.5%), 자활시설 171명(10.1%), 재활시설 517명(30.4%), 요양시설 450명(26.5%), 쪽방주민 250명(14.7%)이 조사되었다.

〈표 4-1-1〉 거처유형별 면접조사 응답자 수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응답자수	253	59	171	517	450	1,450	250	1,700
(비율)	(14.9)	(3.5)	(10.1)	(30.4)	(26.5)	(85.3)	(14.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74.7%, 여성은 25.3%이며, 연령대별 분포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1.6%, 3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 사별, 이혼’이 43.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41.6%, 중졸 22.3%, 고졸 29.8% 순으로 조사되었다.

면접조사 응답자의 특징을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거리노숙의 경우(이용시설 포함) 남성이 90.5% 응답한 반면, 생활시설은 남성이 63.9%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거리노숙의 남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비해 생활시설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요양시설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58.6%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는 거리노숙인의 경우(이용시설 포함) 50대 41.0%, 60대 35.7%로 상대적으로 5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60대가 40.6%, 50대

13) 면접조사 결과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거나 비율의 합이 10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8.4%로 60대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노숙인은 응답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혼인상태는 거처 유형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학력은 재활시설 노숙인 및 요양시설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초졸 이하가,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은 고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면접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성별	남성	89.8	92.9	90.5	89.3	75.1	41.4	63.9	84.4	69.0	74.7
	여성	10.2	7.1	9.5	10.7	24.9	58.6	36.1	15.6	31.0	25.3
연령	40세 미만	4.9	4.1	4.7	17.8	3.9	2.9	5.6	5.4	3.5	4.7
	40대	8.8	31.1	13.9	25.0	11.4	8.5	12.3	12.6	7.6	10.7
	50대	43.5	32.4	41.0	25.0	29.8	28.3	28.4	30.8	32.8	31.6
	60대	38.1	27.6	35.7	23.7	46.3	40.4	40.6	39.7	36.3	38.4
	70세 이상	4.7	4.8	4.7	8.5	8.7	20.0	13.1	11.5	19.8	14.6
혼인상태	미혼	55.5	68.8	58.5	54.9	56.4	52.4	54.6	55.3	50.6	53.6
	유배우	4.7	1.0	3.9	2.8	2.5	1.6	2.2	2.5	1.4	2.1
	동거	0.4	0.0	0.3	1.4	1.8	2.0	1.8	1.5	0.3	1.1
	별거,사별,이혼	39.5	30.2	37.3	40.9	39.2	44.1	41.4	40.6	47.7	43.3
최종학력	초졸 이하	24.5	31.2	26.0	12.6	36.8	56.7	41.0	38.2	47.2	41.6
	중졸	28.9	20.1	26.9	22.8	22.5	15.9	19.9	21.2	24.1	22.3
	고졸	38.1	44.2	39.5	48.7	34.9	22.5	32.1	33.5	23.5	29.8
	대졸이상	8.5	4.6	7.6	15.9	5.8	4.9	7.0	7.1	5.1	6.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응답자의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이 5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입소한 시설에 등록'이 34.2%로 두 응답 항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거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자활시설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현재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이 가장 많은 반면,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입소한 시설에 등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시설 노숙인은 '다른 지역에 등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은 '말소' 비율이 34.7%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2016년도

조사 시의 28.8%보다 5.9%p 높은 수치이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상태의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입소한 시설에 등록’ 비율이 높았다. 장애 유무별로 살펴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입소한 시설에 등록’이, 장애가 없는 경우는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의 비율이 높았다.

〈표 4-1-3〉 면접조사 응답자의 주민등록 현황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	31.5	41.7	33.8	52.4	32.8	27.5	33.7	33.7	93.9	56.3
입소한 시설에 등록	0.5	3.3	1.1	35.6	66.4	70.9	63.5	51.8	4.9	34.2
다른 지역에 등록	28.0	53.4	33.9	10.7	0.6	1.4	2.5	8.4	1.2	5.7
거주불명 등록	4.9	0.0	3.8	0.0	0.0	0.1	0.0	0.7	0.0	0.5
말소	34.7	1.5	27.1	1.4	0.2	0.0	0.3	5.3	0.0	3.3
출생등록 없음	0.4	0.0	0.3	0.0	0.0	0.0	0.0	0.1	0.0	0.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1-1-4〉 면접조사 응답자의 주민등록 현황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	49.9	54.2	58.0	52.4	66.7	61.9	39.8	45.4	60.1	56.3
입소한 시설에 등록	32.7	32.9	30.7	38.8	30.9	27.2	55.1	51.8	28.1	34.2
다른 지역에 등록	13.0	10.6	5.8	4.6	2.0	6.1	4.3	1.9	7.0	5.7
거주불명 등록	0.7	0.4	0.7	0.3	0.2	0.6	0.1	0.1	0.6	0.5
말소	3.6	1.9	4.7	3.8	0.0	4.2	0.6	0.9	4.2	3.3
출생등록 없음	0.0	0.0	0.0	0.0	0.2	0.0	0.1	0.0	0.0	0.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450)	100.0 (1,138)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27.1%, 충청권 11.5%, 호남권 7.5%, 강원권 1.4% 순이다. 지역구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도권 52.4%, 비수도권 47.6%이다. 또한 서울과 비서울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34.9%, 비서울 65.1%이다.

〈표 4-1-5〉 면접조사 응답자의 지역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권역별	수도권	72.8	82.0	74.9	65.8	26.8	51.1	42.3	48.5	59.0	52.4
	충청권	5.4	4.1	5.1	10.7	12.1	15.9	13.4	11.8	11.1	11.5
	영남권	19.6	13.9	18.3	17.3	34.0	22.9	27.1	25.4	29.9	27.1
	호남권	1.1	0.0	0.8	4.7	25.5	5.8	14.6	12.0	0.0	7.5
	강원권	1.1	0.0	0.8	1.5	1.6	4.2	2.6	2.3	0.0	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구분1	수도권	72.8	82.2	75.0	65.8	26.8	51.1	42.3	48.5	59.0	52.4
	비수도권	27.2	17.8	25.0	34.2	73.2	48.9	57.7	51.5	41.0	4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 구분2	서울	50.4	78.9	56.9	48.1	4.5	22.4	18.1	25.5	50.6	34.9
	비서울	49.6	21.1	43.1	51.9	95.5	77.6	81.9	74.5	49.4	6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장애등록 여부를 물어본 결과, 노숙인 등 전체 25.7%가 장애 등록을 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거주유형별로는 재활·요양 시설이 각각 36.6%, 49.5%로 등록 장애인 비율이 높았으며,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은 10%가 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나 젊은 연령대인 40세 미만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장애 등록 비율이 높았다(45.0%).

〈표 4-1-6〉 면접조사 응답자의 장애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예	5.7	8.6	6.4	8.3	36.6	49.5	37.4	31.6	16.0	25.7
아니오	94.3	91.4	93.6	91.7	63.4	50.5	62.6	68.4	84.0	74.3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구분	연령					성별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예	34.2	25.5	24.5	25.5	26.7	19.2	45.0	25.7		
아니오	65.8	74.5	75.5	74.5	73.3	80.8	55.0	74.3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장애 등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복장애 유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7%가 ‘중복장애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유형별로는 자활시설과 이용시설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였으나, 응답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중복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다소 높았다.

〈표 4-1-7〉 면접조사 응답자의 중복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중복장애 있음	0.0	18.2	5.5	23.9	4.8	8.2	7.2	7.1	9.4	7.7
중복장애 없음	100.0	81.8	94.5	76.1	95.2	91.8	92.8	92.9	90.6	92.3
합계	100.0 (16)	100.0 (5)	100.0 (21)	100.0 (14)	100.0 (193)	100.0 (206)	100.0 (413)	100.0 (434)	100.0 (42)	100.0 (476)

구분	연령					성별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중복장애 있음	4.3	18.2	9.2	6.3	2.5	8.9	6.2	7.7
중복장애 없음	95.7	81.8	90.8	93.7	97.5	91.1	93.8	92.3
합계	100.0 (27)	100.0 (50)	100.0 (150)	100.0 (190)	100.0 (59)	100.0 (266)	100.0 (210)	100.0 (4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거처유형별로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노숙인 등 전체에서는 정신장애가 10.9%로 가장 높았으며 지체장애(7.5%), 지적장애(4.7%) 순이었으며, 모두 재활 및 요양시설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거리노숙(이용시설 포함)에서는 지체장애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 1.3%, 뇌병변과 시각장애가 각각 0.9%의 순이었다. 생활시설은 정신장애(19.7%), 지체장애(7.5%), 지적장애(7.3%) 순이었으며 쪽방주민은 지체장애 (9.2%), 지적장애(2.4%), 신장장애(1.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은 지적장애(17.1%)와 정신장애(4.4%), 40대는 정신장애(8.7%)와 지적장애(8.7%), 50대는 정신장애(13.2%), 지적장애(5.1%), 60대는 정신장애(11.4%) 및 지체장애(7.3%), 60세 이상은 지체장애(12.6%) 및 정신장애(6.8%)순이었다. 비교적 젊을수록 정신 및 지적장애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체장애 비율이 높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정신장애 비율이 25.2%로 매우 높았으며 남성은 지체장애가 7.6%로 가장 높았다.

〈표 4-1-8〉 면접조사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비율 (거처유형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지체장애	1.7	3.3	2.0	5.1	6.8	9.2	7.5	6.5	9.2	7.5
뇌병변장애	0.8	1.5	0.9	0.6	0.8	3.5	1.8	1.7	1.4	1.6
시각장애	0.6	1.8	0.9	0.6	0.4	1.4	0.8	0.8	1.4	1.1
청각장애	0.0	0.0	0.0	0.0	0.4	1.0	0.6	0.5	1.0	0.6
언어장애	0.0	3.6	0.8	0.0	0.5	1.1	0.7	0.7	0.6	0.7
지적장애	1.1	0.0	0.8	1.9	6.1	10.6	7.3	6.1	2.4	4.7
자폐성장애	0.0	0.0	0.0	0.0	0.4	0.4	0.4	0.3	0.6	0.4
정신장애	1.7	0.0	1.3	0.0	21.6	25.1	19.7	16.2	1.9	10.9
신장장애	0.0	0.0	0.0	2.0	1.7	4.5	0.4	2.3	1.5	2.0
심장장애	0.0	0.0	0.0	0.0	0.4	0.2	0.3	0.2	0.8	0.5
호흡기장애	0.0	0.0	0.0	0.6	0.0	0.7	0.4	0.3	0.6	0.4
간장애	0.0	0.0	0.0	0.0	0.2	0.0	0.1	0.1	0.0	0.0
안면장애	0.0	0.0	0.0	0.6	0.0	0.3	0.2	0.2	0.3	0.2
장루·요루장애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뇌전증(간질)장애	0.0	0.0	0.0	0.6	0.7	1.4	1.0	0.8	0.3	0.6

주: 중복장애는 2개 이상 장애유형을 응답하였으므로, 각 응답비율의 합은 장애등록 비율을 초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1-9〉 면접조사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비율 (연령별, 성별)

(단위: %)

구분	연령					성별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지체장애	8.2	8.4	5.0	7.3	12.6	7.6	7.3	7.5
뇌병변장애	0.9	2.8	1.0	1.7	1.7	1.2	2.7	1.6
시각장애	1.0	0.0	0.8	1.7	0.7	1.2	0.8	1.1
청각장애	0.0	0.5	0.1	0.5	2.5	0.7	0.5	0.6
언어장애	0.0	0.4	1.3	0.4	0.3	0.8	0.3	0.7
지적장애	17.1	8.7	5.1	2.7	2.2	3.3	8.8	4.7
자폐성장애	1.8	2.1	0.1	0.0	0.3	0.4	0.3	0.4
정신장애	4.4	10.5	13.2	11.4	6.8	6.0	25.2	10.9
신장장애	0.0	0.0	0.0	0.5	0.0	0.2	0.2	2.0
심장장애	0.0	2.1	0.0	0.4	0.6	0.6	0.0	0.5
호흡기장애	0.0	2.1	0.1	0.3	0.3	0.6	0.0	0.4
간장애	0.0	0.0	0.0	0.1	0.0	0.1	0.0	0.0
안면장애	0.0	0.0	0.4	0.1	0.5	0.1	0.8	0.2
장루·요루장애	0.0	0.0	0.0	0.0	0.1	0.0	0.0	0.0
뇌전증(간질)장애	2.3	0.5	0.4	0.7	0.3	0.5	1.1	0.6

주: 중복장애는 2개 이상 장애유형을 응답하였으므로, 각 응답비율의 합은 장애등록 비율을 초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 여부를 물어본 결과, 생계급여 수급 63.1%, 의료급여 수급 67.3%, 주거급여 수급 26.1%로 분석되었다. 교육급여는 거의 응답되지 않았다.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매우 낮은 수급 비율을 보이며, 자활시설도 20~30% 수준이다.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비율이 높지만 주거급여 수급 비율은 낮았다. 쪽방주민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모두 50% 대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을 받는 비율이 높아졌다. 성별로는 여성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장애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비율이 높았으며 주거급여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1-1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실태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생계 급여	수급	5.7	8.1	6.3	21.5	85.2	96.2	80.0	66.0	58.2	63.1
	비수급	94.3	91.9	93.7	78.5	14.8	3.8	20.0	34.0	41.8	36.9
의료 급여	수급	6.8	25.6	11.1	39.7	95.0	96.9	87.4	73.0	57.9	67.3
	비수급	93.2	74.4	88.9	60.3	5.0	3.1	12.6	27.0	42.1	32.7
주거 급여	수급	2.6	9.4	4.2	3.5	10.3	8.5	8.5	7.7	56.7	26.1
	비수급	97.4	90.6	95.8	96.5	89.7	91.5	91.5	92.3	43.3	73.9
교육 급여	수급	0.0	0.0	0.0	1.3	0.0	0.0	0.2	0.2	0.0	0.1
	비수급	100.0	100.0	100.0	98.7	100.0	100.0	99.8	99.8	100.0	99.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1-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 실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생계 급여	수급	54.7	54.5	54.6	68.1	77.1	56.9	81.5	87.7	54.6	63.1
	비수급	45.3	45.5	45.4	31.9	22.9	43.1	18.5	12.3	45.4	36.9
의료 급여	수급	58.9	63.1	59.2	72.8	76.4	62.6	81.4	89.9	59.5	67.3
	비수급	41.1	36.9	40.8	27.2	23.6	37.4	18.6	10.1	40.5	32.7
주거 급여	수급	24.8	19.0	25.2	26.0	34.1	28.9	17.7	24.3	26.7	26.1
	비수급	75.2	81.0	74.8	74.0	65.9	71.1	82.3	75.7	73.3	73.9
교육 급여	수급	0.0	0.9	0.0	0.0	0.0	0.0	0.4	0.0	0.1	0.1
	비수급	100.0	99.1	100.0	100.0	100.0	100.0	99.6	100.0	99.9	99.9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450)	100.0 (1,138)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 신청 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경험있음' 응답 비율은 전체 12.2%였다. 거처 유형별 높은 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재활시설 24.6%, 쪽방주민 20.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면 비교적 고른 분포로 '경험있음'이라 응답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장애 없는 경우가 장애 있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표 4-1-12〉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경험있음	6.0	4.9	5.8	8.7	24.6	0.0	10.4	7.1	20.0	12.2
경험없음	94.0	95.1	94.2	91.3	75.4	100.0	89.6	92.9	80.0	87.8
합계	100.0 (229)	100.0 (43)	100.0 (272)	100.0 (81)	100.0 (11)	100.0 (2)	100.0 (94)	100.0 (366)	100.0 (58)	100.0 (424)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경험있음	11.8	2.8	10.5	16.9	16.8	10.9	22.2	5.1	12.6	12.2
경험없음	88.2	97.2	89.5	83.1	83.2	89.1	77.8	94.9	87.4	87.8
합계	100.0 (32)	100.0 (68)	100.0 (167)	100.0 (129)	100.0 (28)	100.0 (379)	100.0 (45)	100.0 (22)	100.0 (402)	100.0 (4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였음에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 ‘모르겠다’가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순이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모르겠다’는 40대와 70세 이상에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는 4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 장애유무 별에 따라 다소 분포의 차이는 있으나,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1-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26.0	0.0	22.1	0.0	0.0	0.0	0.0	12.8	5.8	8.2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8.2	0.0	7.0	39.1	0.0	0.0	29.0	16.1	23.4	20.8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37.0	50.0	39.5	41.3	0.0	0.0	30.6	35.6	11.5	19.9
모르겠다	24.7	50.0	27.9	6.5	25.0	0.0	11.3	21.5	47.5	38.4
기타	4.1	0.0	3.5	13.0	75.0	0.0	29.0	14.1	11.9	12.6
합계	100.0 (21)	100.0 (2)	100.0 (23)	100.0 (8)	100.0 (3)	100.0 (0)	100.0 (11)	100.0 (34)	100.0 (10)	100.0 (44)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0.0	0.0	22.4	1.5	0.0	10.7	0.0	33.3	7.9	8.2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32.0	25.0	22.4	22.8	0.0	17.5	34.1	0.0	21.2	20.8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68.0	25.0	13.6	14.2	37.5	17.2	29.7	0.0	20.3	19.9
모르겠다	0.0	50.0	31.3	41.6	62.5	38.6	36.3	0.0	39.1	38.4
기타	0.0	0.0	10.2	19.8	0.0	16.0	0.0	66.7	11.5	12.6
합계	100.0 (3)	100.0 (4)	100.0 (19)	100.0 (14)	100.0 (4)	100.0 (35)	100.0 (9)	100.0 (2)	100.0 (42)	100.0 (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묻은 결과,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36.4%), 근로능력이 있어서(36.5%), 주소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18.2%)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0%를 차지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전체 응답 중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

았다는 응답과 주소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모두 42.6%로 가장 높았다. 이용, 자활, 재활시설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어서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응답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근로능력이 있어서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두드러졌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69.7%).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61.7%).

〈표 4-1-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가능)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42.6	48.7	43.8	21.2	0.0	0.0	18.8	36.8	35.8	36.4
정부지원 받고 싶지 않아서	18.8	2.7	15.7	1.4	0.0	0.0	1.3	11.6	10.0	11.0
근로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15.1	34.9	18.9	38.0	75.0	0.0	40.6	24.9	56.8	36.5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2.2	0.0	1.8	30.9	25.0	100.0	31.9	10.2	0.0	6.5
명의도용된 재산 때문	2.7	0.0	2.2	1.5	0.0	0.0	1.3	2.0	1.2	1.7
주소지 확보 어려움	42.6	12.3	36.8	1.2	0.0	0.0	1.0	26.8	3.1	18.2
기타	0.5	8.2	2.0	12.1	0.0	0.0	10.8	4.5	0.0	2.8
합계	124.5 (208)	106.8 (41)	121.1 (249)	106.3 (73)	100.0 (8)	100.0 (2)	105.6 (83)	116.8 (332)	106.9 (48)	113.2 (380)

주: 복수응답으로 합계 백분율이 100을 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1-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가능)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제도나 절차를 몰라서	39.5	32.0	30.4	44.8	39.6	32.6	69.7	61.7	35.0	36.4
정부지원 받고 싶지 않아서	0.0	1.7	13.1	15.9	5.4	10.5	16.1	14.9	10.8	11.0
근로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41.9	51.7	41.5	24.3	29.0	39.3	12.1	10.5	38.0	36.5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7.8	8.7	4.5	6.2	13.1	6.7	4.3	4.8	6.6	6.5
명의도용된 재산 때문	1.7	0.0	0.8	1.8	8.7	1.9	0.0	0.0	1.8	1.7
주소지 확보 어려움	16.9	10.2	22.9	18.0	9.2	18.4	16.4	3.7	19.0	18.2
기타	0.0	0.0	3.7	3.5	2.7	3.2	0.0	4.3	2.7	2.8
합계	107.8 (29)	104.2 (64)	116.9 (148)	114.5 (115)	107.6 (24)	112.5 (344)	118.6 (36)	100.0 (20)	113.9 (360)	113.2 (380)

주: 복수응답으로 합계 백분율이 100을 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2절 경제활동

1. 근로활동 실태

다음의 〈표 4-2-1〉은 노숙인 등이 현재 거리 노숙상황에서 혹은 노숙인 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어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숙인 등은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상태가 74.2%였는데, 주관적 판단에 따른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미취업상태는 거리노숙인이 34.1%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88.2%). 어떤 형태이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용시설이 가장 높았고(66.4%) 다음으로 자활시설 58.7% 이었다. 근로활동의 유형으로 자활, 공공,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비율이 타 일자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19.6%),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간 노동시장(상용직, 임시일용직, 파지 및 고물수거)에서의 근로는 6.2%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에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2-1〉 현재 근로활동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상용직	0.0	0.0	0.0	3.9	0.0	0.0	0.6	0.5	0.3	0.4
임시·일용직	5.1	12.4	6.8	12.2	2.5	1.3	3.5	4.1	6.7	5.1
자활, 공공, 노인일자리	1.3	52.5	13.0	42.1	18.5	13.3	20.0	18.7	21.1	19.6
자영업자, 고용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파지 및 고물수거	5.4	1.5	4.5	0.5	0.2	0.1	0.2	1.0	0.3	0.7
미취업자 (근로능력 있음)	34.1	17.3	30.3	28.6	25.9	14.4	21.8	23.4	13.1	19.5
미취업자 (근로능력 없음)	54.1	16.2	45.4	12.6	52.9	70.8	54.0	52.3	58.5	54.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인 등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표 4-2-2〉와 같다.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미취업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70세 이상은 92.6%가 미취업자였다. 고령층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가 압도적 다수(70세 이상 82.4%)였지만, 40세 미만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상태가 34.7%로 가장 높았다. 근로능력이 있는 30대, 40대, 50대 노숙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 근로활동 실태는 여성 노숙인이 남성 노숙인에 비해 미취업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노숙인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무별로는 장애 등록된 노숙인이 그렇지 않은 노숙인보다 미취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현재 근로활동 실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상용직	0.0	0.0	0.6	0.4	0.4	0.5	0.0	0.0	0.5	0.4
임시·일용직	16.4	9.0	7.4	1.8	2.0	5.7	3.3	3.1	5.8	5.1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8.2	27.2	25.3	18.6	5.0	21.5	14.0	11.4	22.4	19.6
자영업자, 고용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파지 및 고물수거	0.0	0.6	0.6	1.3	0.0	1.0	0.0	0.2	0.9	0.7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34.7	27.7	23.3	15.8	10.2	20.8	15.7	15.8	20.0	19.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30.7	35.6	42.8	62.1	82.4	50.5	67.0	69.5	49.5	54.7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현재 노숙인의 직업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숙이전, 노숙직전, 노숙직후 등으로 시기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2-3〉과 같이 요약된다. 노숙이전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는데, 임시·일용직은 14.5%로 상용직 10.1%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자영업은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숙이전의 직업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응답의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의 추세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노숙직전에는 미취업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56.8%), 임시·일용직의 비율도 25.6%로 비중이 급증하였다. 노숙직후에는 상용직 종사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미취업의 비율과 공공일자리 취업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는 노숙이전에는 8.0%에 불과하였는데, 노숙직전에는 22.6%로 급증하였고, 노숙직후에는 24%로 증가하였다. 노숙이전, 노숙직전, 노숙직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용직과 자영업 비율 감소하였고, 임시 일용직 비율과 미취업(실업) 비율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2-3〉 노숙시기에 따른 고용유형별 근로상태 이력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① 노숙직후								
상용직	0.0	0.0	0.0	1.1	0.4	0.0	0.3	0.3
임시·일용직	14.2	39.4	20.0	31.0	20.7	5.7	16.3	17.0
자활,공공,노인일자리	2.0	26.5	7.6	26.6	12.8	10.2	13.8	12.6
자영업자, 고용주	0.0	0.0	0.0	0.0	0.2	0.2	0.2	0.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0	0.0	0.3	0.1	0.1
파지 및 고물수거	6.9	0.0	5.4	1.0	1.0	0.8	0.9	1.8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37.1	23.9	34.1	28.2	25.4	14.9	21.6	24.0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39.8	10.2	33.0	12.2	39.6	67.9	46.7	44.1
② 노숙직전								
상용직	4.1	26.1	9.1	15.1	10.7	5.7	9.4	9.3
임시·일용직	35.9	29.9	34.5	29.1	32.2	11.4	23.5	25.6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7	1.8	1.7	9.1	0.9	1.9	2.6	2.4
자영업자, 고용주	2.6	4.8	3.1	6.1	5.1	2.0	4.0	3.8
무급가족종사자	0.9	1.5	1.0	0.0	0.9	1.7	1.1	1.1
파지 및 고물수거	2.3	1.3	2.2	0.7	0.4	1.1	0.7	1.0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30.3	20.3	28.0	29.7	22.0	17.2	21.3	22.6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22.2	14.2	20.3	10.2	27.7	58.9	37.4	34.2
③ 노숙이전(②의 이전)								
상용직	8.8	15.7	10.4	18.8	9.6	7.2	10.0	10.1
임시·일용직	20.8	15.7	19.6	17.1	15.5	9.3	13.3	14.5
자활,공공,노인일자리	0.0	5.1	1.2	1.6	0.4	1.0	0.8	0.9
자영업자, 고용주	6.9	9.6	7.5	3.7	3.7	4.6	4.0	4.7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0	0.7	1.6	0.7	1.1	0.9
파지 및 고물수거	2.1	0.0	1.6	0.6	1.1	0.0	0.6	0.8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4.6	8.6	5.5	9.7	8.4	8.4	8.6	8.0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1.0	9.6	3.0	5.4	11.6	3.1	7.3	6.5
모름/해당없음	55.9	35.7	51.3	42.4	48.3	65.7	54.3	53.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주: 쪽방주민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노숙 이전에서 노숙 직후로 오면서 ‘미취업 근로능력 없음’의 비율이 높아지며, 연령이 젊을수록 ‘미취업 근로능력 있음’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장애 유무별로는 장애 없는 경우보다 장애 있는 경우가 모든 시점에서 미취업 ‘근로능력 없음’의 비율이 높다.

〈표 4-2-4〉 노숙시기에 따른 고용유형별 근로상태 이력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① 노숙직후										
상용직	0.0	0.6	0.2	0.2	0.6	0.4	0.0	0.0	0.4	0.3
임시·일용직	29.1	26.6	18.8	14.7	4.2	20.4	9.5	11.0	19.8	17.0
자활, 공공일자리	7.9	16.6	11.3	13.0	13.0	13.5	10.8	12.3	12.8	12.6
자영업자, 고용주	0.0	0.0	0.0	0.2	0.6	0.1	0.2	0.2	0.1	0.1
무급가족종사자	0.0	0.0	0.4	0.0	0.0	0.0	0.4	0.0	0.2	0.1
파지/고물수거	0.0	0.4	2.1	2.2	1.6	2.4	0.4	0.5	2.3	1.8
미취업(근로능력 있음)	36.2	25.6	24.5	23.8	15.6	26.8	17.7	17.8	26.8	24.0
미취업(근로능력 없음)	26.8	30.1	42.8	46.0	64.5	36.4	61.1	58.2	37.6	44.1
② 노숙직전										
상용직	17.9	12.8	9.4	7.8	6.9	10.7	6.4	3.9	11.8	9.3
임시·일용직	26.8	26.0	28.4	26.1	15.1	30.3	15.0	16.3	29.9	25.6
자활, 공공일자리	2.6	3.8	0.8	3.0	3.1	2.6	2.0	1.7	2.7	2.4
자영업자, 고용주	0.0	2.1	2.6	5.7	4.6	4.3	2.8	2.1	4.7	3.8
무급가족종사자	0.0	0.6	1.0	1.0	2.5	0.7	1.9	0.7	1.3	1.1
파지/고물수거	0.0	0.0	1.3	1.0	1.7	1.0	1.1	1.0	1.0	1.0
미취업(근로능력 있음)	23.2	23.4	23.6	23.5	15.3	23.7	19.9	22.5	22.6	22.6
미취업(근로능력 없음)	29.5	31.3	32.9	31.8	51.0	26.7	50.9	51.9	26.0	34.2
③ 노숙이전(②의 이전)										
상용직	6.9	13.3	10.2	10.2	7.6	12.9	3.9	6.8	11.6	10.1
임시·일용직	14.2	17.8	15.0	14.4	9.8	17.2	8.4	10.6	16.3	14.5
자활, 공공일자리	0.0	2.0	1.0	0.9	0.0	0.7	1.3	1.2	0.8	0.9
자영업자, 고용주	0.0	1.8	4.9	5.5	6.7	6.0	1.7	4.4	4.8	4.7
무급가족종사자	1.2	0.0	0.5	1.7	0.0	0.6	1.4	1.1	0.8	0.9
파지/고물수거	0.0	0.6	0.9	0.9	0.8	0.8	0.8	0.5	0.9	0.8
미취업(근로능력 있음)	10.8	6.7	7.0	8.7	8.5	7.7	8.7	5.7	9.1	8.0
미취업(근로능력 없음)	10.0	6.1	5.9	6.7	6.2	6.5	6.4	5.4	7.0	6.5
모름/해당없음	56.9	51.6	54.8	51.2	60.3	47.6	67.2	64.4	48.8	53.7
합계	100.0 (80)	100.0 (188)	100.0 (451)	100.0 (569)	100.0 (162)	100.0 (1,055)	100.0 (395)	100.0 (434)	100.0 (1,016)	100.0 (1,450)

주: 쪽방주민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시점 간 근로상태 변화를 행렬로 살펴보면 근로상태의 하락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노숙이전에서 노숙직전으로 근로상태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의 57.6%는 미취업자(실업자)로 변화되었고, 30%는 임시·일용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하락하였다. 자영업자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29.6%가 임시·일용직으로 변화되었고, 실업상태로 전락한 경우는 55.8%에 달하였다. 노숙이전에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노숙직전에 76.7%가 미취업자(실업상태)로 변화되었다.

〈표 4-2-5〉 노숙이전에서 노숙직전 근로상태 변화

(단위: %, 명)

노숙이전 \ 노숙직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활,공공,노인일자리	자영업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파지 및 고물수거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합계
상용직	0.0	30.0	1.9	9.0	1.3	0.2	33.1	24.5	100.0
임시·일용직	10.2	0.0	5.8	3.7	0.9	2.7	42.2	34.5	100.0
자활,공공,노인일자리	8.6	13.9	0.0	0.0	0.0	8.5	32.1	36.9	100.0
자영업자, 고용주	6.5	29.6	3.6	0.0	2.9	1.5	29.1	26.7	100.0
무급가족종사자	17.6	0.0	0.0	0.0	0.0	0.0	41.3	41.2	100.0
파지 및 고물수거	0.0	12.7	0.0	0.0	0.0	0.0	65.6	21.7	100.0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23.7	37.8	6.5	6.3	4.5	4.6	0.0	16.6	100.0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19.9	51.1	0.0	6.4	3.2	1.2	18.3	0.0	100.0
모름/무응답	7.7	27.2	1.3	2.8	0.2	0.0	17.5	43.4	100.0
합계	9.3	25.6	2.4	3.8	1.1	1.0	22.6	34.2	100.0

주: 쪽방주민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직전에서 노숙직후로의 변화 또한 이전에서 직전으로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으로 점차 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상용직으로 남아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남아 있던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54.8%가 다시 실업상태(미취업자)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앞의 〈표 4-2-5〉 노숙이전에서 노숙직전으로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실업상태를 제외하고 임시·일용직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표 4-2-6〉 노숙직전에서 노숙직후로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율 못지않게 공공일자리(자

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표 4-2-6〉 노숙직전에서 노숙직후 근로상태 변화

(단위: %, 명)

노숙직전 \ 노숙직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활, 공공, 노인 일자리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파지 및 고물수거	미취업자 (근로능력 있음)	미취업자 (근로능력 없음)	합계
상용직	0.7	37.7	13.7	0.0	0.0	1.4	21.2	25.2	100.0
임시·일용직	0.6	29.0	12.7	0.0	0.0	2.9	24.1	30.7	100.0
자활, 공공, 노인 일자리	0.0	11.0	45.2	0.0	0.0	0.0	19.2	24.7	100.0
자영업자, 고용주	1.4	28.7	12.6	3.4	0.0	0.0	34.1	19.8	100.0
무급가족종사자	0.0	13.3	13.3	0.0	10.2	0.0	58.2	5.1	100.0
파지 및 고물수거	0.0	13.3	16.7	0.0	0.0	27.8	25.6	16.7	100.0
미취업자 (근로능력 있음)	0.0	11.1	20.8	0.0	0.0	2.3	52.3	13.5	100.0
미취업자 (근로능력 없음)	0.0	5.6	4.5	0.0	0.0	0.2	4.0	85.6	100.0
합계	0.3	17.0	12.7	0.1	0.1	1.8	24.0	44.1	100.0

주: 쪽방주민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현재 근로상태별 근로개월수 이력을 살펴보면, 현재 상용직은 노숙을 하기 전인 노숙직전과 노숙이전에 약 18년 2개월 (218.7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활, 공공, 노인일자리와 임시·일용직인 경우에는 각각 약 16년 9개월 (203개월), 14년 8개월(177.1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노숙을 하기 전에 약 18년 8개월(22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의 이유가 근로단절 및 노숙으로 이어졌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노숙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노숙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근로를 한 경우가 많았다. 노숙 직후에는 근로활동 유지기간이 노숙을 하기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 실직과 같은 취업상태 변동이 노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7〉 현재 근로상태별 근로개월수 이력

(단위: 개월)

구분	현재		노숙직후		노숙직전		노숙이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용직	79.2	110.1	28.6	40.4	52.9	52.0	165.8	98.8
임시·일용직	36.2	45.9	31.2	45.5	76.4	82.5	100.7	118.7
자활, 공공, 노인일자리	26.6	47.9	45.5	58.9	103.5	112.4	99.5	100.1
자영업자·고용주	-	-	-	-	-	-	-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파지 및 고물수거	72.3	75.3	47.4	29.8	67.7	74.9	46.0	58.0
미취업자 (근로능력 있음)	-	-	31.1	49.6	74.5	84.8	91.4	113.5
미취업자 (근로능력 없음)	-	-	68.7	83.3	112.6	118.0	112.4	110.7

주: 쪽방주민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2-8〉 노숙유형별 근로개월수 이력

(단위: 개월)

구분		거리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주민
현재	평균	50.7	14.5	11.7	47.0	43.9	28.2
	표준편차	69.8	43.2	15.6	77.3	49.4	40.2
노숙직후	평균	17.1	45.3	28.1	62.7	57.6	-
	표준편차	23.6	72.8	44.8	78.7	61.7	-
노숙직전	평균	86.1	88.9	74.5	111.4	96.1	-
	표준편차	98.0	96.8	101.0	114.0	102.4	-
노숙이전	평균	66.0	88.1	122.8	111.4	105.1	-
	표준편차	69.8	89.9	134.1	115.9	104.1	-

주: 쪽방주민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근로상태 변화 이력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노숙이전에 대부분 민간부문 일자리(임시일용, 상용, 자영업)에 있었으며, 임시일용직 비중이 가장 많았다. 거리노숙인은 노숙 직전까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다 일부는 실업상태로 빠지고, 노숙 직후에는 계속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패턴을 보였다. 자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노숙이전에는 상용직에 있다가, 노숙직전과 직후에는 임시

일용직으로, 현재는 공공일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활시설 노숙인은 중간에 실업을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어 다시 재취업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노숙인은 노숙하기 전에 임시일용직과 미취업 상태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근로이력을 보였다. 노숙직후 재활시설 노숙인은 미취업 상태로 있거나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거쳐 공공일자리로 가는 패턴을, 요양시설 노숙인은 미취업 상태로 있거나 공공일 자리를 유지하는 패턴으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 쪽방주민은 근로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재 미취업이거나 공공일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거처유형별 근로상태 변화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이 아래의 표이다. 거처유형별로 근로상태 변화를 각 시기별로 응답 비율이 높은 3순위와 해당 근로상태의 평균 개월 수를 나타내었다. 현재 거처에 이르기까지 근로상태가 열악해 짐을 알 수 있다.

〈표 4-2-9〉 근로상태 변화 (거처유형별)

(단위: %, 개월)

거처유형	순위	④ 노숙이전 (③ 이전)		③ 노숙직전		② 노숙직후		① 현재	
거리노숙인	1	임시·일용직 (20.8%)	32.7	임시·일용직 (35.9%)	85.7	미취업자(근로능력無) (39.8%)	33.0	미취업자(근로능력無) (54.1%)	50.2
	2	상용직 (8.8%)	120.9	미취업자(근로능력有) (30.3%)	25.8	미취업자(근로능력有) (37.1%)	15.6	미취업자(근로능력有) (34.1%)	50.5
	3	자영업자, 고용주 (6.9%)	109.3	미취업자(근로능력無) (22.2%)	30.6	임시·일용직 (14.2%)	11.9	파지 및 고물수거 (5.4%)	91.6
이용시설	1	상용직 (15.7%)	135.2	임시·일용직 (39.4%)	82.8	임시·일용직 (39.4%)	58.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52.5%)	13.1
	2	임시·일용직 (15.7%)	37.6	자활·공공·노인일자리 (26.5%)	6.0	자활·공공·노인일자리 (26.5%)	25.8	미취업자(근로능력有) (17.3%)	39.7
	3	미취업자(근로능력無)/ 자영업자, 고용주 (9.6%)	94.4/128.6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3.9%)	13.4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3.9%)	79.7	미취업자(근로능력無) (16.2%)	38.6
자활시설	1	상용직 (18.8%)	167.0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9.7%)	15.6	임시·일용직 (31.0%)	39.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42.1%)	12.5
	2	임시·일용직 (17.1%)	85.0	임시·일용직 (29.1%)	63.9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8.2%)	11.7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8.6%)	8.5
	3	미취업자(근로능력有) (9.7%)	15.3	상용직 (15.1%)	116.9	자활·공공·노인일자리 (26.6%)	15.9	미취업자(근로능력無) (12.6%)	32.2
재활시설	1	임시·일용직 (15.5%)	89.4	임시·일용직 (32.2%)	104.4	미취업자(근로능력無) (39.6%)	41.4	미취업자(근로능력無) (52.9%)	149.6
	2	미취업자(근로능력無) (11.6%)	168.6	미취업자(근로능력無) (27.7%)	134.4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5.4%)	34.9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5.9%)	49.1
	3	상용직 (9.6%)	134.3	미취업자(근로능력有) (22.0%)	68.0	임시·일용직 (20.7%)	65.9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8.5%)	48.1
요양시설	1	임시·일용직 (9.3%)	93.1	미취업자(근로능력無) (58.9%)	81.8	미취업자(근로능력無) (67.9%)	44.8	미취업자(근로능력無) (70.8%)	155.2
	2	미취업자(근로능력有) (8.4%)	78.0	미취업자(근로능력有) (17.2%)	75.9	미취업자(근로능력有) (14.9%)	61.8	미취업자(근로능력有) (14.4%)	76.1
	3	상용직 (7.2%)	131.3	임시·일용직 (11.4%)	89.2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0.2%)	48.5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3.3%)	46.1
쪽방주민	1	-	-	-	-	-	-	미취업자(근로능력無) (58.5%)	80.6
	2	-	-	-	-	-	-	자활·공공·노인일자리 (21.1%)	17.1
	3	-	-	-	-	-	-	미취업자(근로능력有) (13.1%)	60.0

주: 1) 개월은 근로상태 평균 기간을, %는 응답자 비율을 나타냄.

2) 거리노숙인은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을 의미함.

3) 쪽방주민은 현재 근로상태만 조사함.

4) '모름' 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숙인 등은 평균 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시설 노숙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6.3%), 자활시설 노숙인이 26.1%로 그 다음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각각 4.3%, 1.7%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노숙인 비율이 떨어졌다. 특히 거리노숙(28.3%→11.6%), 이용시설(50.9%→36.3%), 자활시설(54.1%, 26.1%)의 감소폭이 컸다(이태진 외, 2017, p.206).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노숙인의 고령화 및 만성화, 코로나19의 영향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4-2-10〉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그렇다	11.6	36.3	17.2	26.1	4.3	1.7	6.6	8.6	5.9	7.6
아니다	88.4	63.7	82.8	73.9	95.7	98.3	93.4	91.4	94.1	92.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구직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40세 미만과 40대에서 구직경험이 높은 반면 50대, 60대, 70세 이상으로 갈수록 구직경험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40세 미만의 젊은 노숙인은 지난 4주간 구직경험이 16.6%였으나, 60대는 4.4%, 70세 이상은 1.3%로 떨어지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자리 구하는 비율이 높고, 장애가 있는 경우 구직경험은 2.9%에 불과하다.

〈표 4-2-11〉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그렇다	16.6	16.3	10.1	4.4	1.3	8.8	3.9	2.9	9.2	7.6
아니다	83.4	83.7	89.9	95.6	98.7	91.2	96.1	97.1	90.8	92.4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노숙인 시설이 12.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안내소 였다(7.1%). 2016년도 조사에서는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활용 비율이 31.5%인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이태진 외, 2017, p.206). 거리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사설안내소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8.4%),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노숙인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이용시설 22.1%, 자활시설 23.3%).

〈표 4-2-12〉 주된 일(직장) 구직경로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공공안내소 (고용지원센터, 동사무소)	4.7	12.7	6.5	27.1	2.8	1.7	6.0	6.1	8.9	7.1
사설안내소	8.4	11.1	9.1	9.3	3.0	2.4	3.7	4.7	4.3	4.6
노숙인 시설	5.8	22.1	9.6	23.3	20.6	11.0	17.2	15.7	6.5	12.3
사회복지기관	0.7	3.5	1.3	4.1	4.0	1.8	3.1	2.8	4.7	3.5
매체광고(신문, 잡지, 정보지 등)	1.7	11.2	3.9	6.2	2.6	0.3	2.2	2.5	2.3	2.4
인터넷	0.2	11.4	2.8	12.2	2.5	0.0	3.0	2.9	1.1	2.3
친척, 친구, 동료	3.3	3.5	3.3	5.4	2.5	1.0	2.3	2.5	6.7	4.1
학교나 학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접 탐문	3.7	0.0	2.9	1.1	1.3	0.0	0.7	1.1	1.7	1.3
직장을 구하지 않음	71.4	24.5	60.7	11.2	60.8	81.9	61.7	61.5	63.9	62.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은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율(21.2%)을 나타내며 그 외 연령대는 모두 '노숙인 시설'이 가장 높다. 성별로 보면, 모두 노숙인 시설이 가장 높으며 남성은 공공안내소의 비율도 8.8%로 높은 편이다. 장애 유무에 따른 응답 비율도 노숙인 시설이 가장 높다.

〈표 4-2-13〉 주된 일(직장) 구직경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공공안내소 (고용지원센터, 동사무소)	6.7	9.6	7.7	8.3	1.4	8.8	2.3	2.1	8.9	7.1
사설안내소	7.3	3.5	6.1	3.9	2.7	5.6	1.6	2.0	5.5	4.6
노숙인 시설	11.1	18.7	15.8	10.7	4.4	12.6	11.3	13.9	11.7	12.3
사회복지기관	5.6	4.3	4.4	2.7	2.5	4.3	1.0	2.4	3.9	3.5
매체광고(신문, 잡지, 정보지 등)	7.9	5.1	3.5	1.0	0.2	2.9	1.2	0.5	3.1	2.4
인터넷	21.2	8.0	1.1	0.1	0.0	2.5	1.7	1.6	2.5	2.3
친척, 친구, 동료	1.5	5.3	5.2	3.8	2.2	4.4	3.0	3.6	4.2	4.1
학교나 학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접 탐문	2.0	0.8	1.5	1.3	1.4	1.3	1.6	0.3	1.8	1.3
직장을 구하지 않음	36.7	44.8	54.7	68.2	85.2	57.7	76.4	73.8	58.4	62.4
합계	100.0 (90)	100.0 (205)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원하는 일자리 조건은 거처유형별로 차이가 많았는데, 이용시설 노숙인과 자활시설 노숙인은 전일제(8시간 노동)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 노숙인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거나 시간제 파트 노동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전일제 근로에 선호도가 낮고(3.9%), 시간제 및 반일제 근로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7%).

〈표 4-2-14〉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시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전일제(하루8시간)	8.2	42.1	16.0	55.8	14.3	4.1	16.5	16.4	22.2	18.6
시간제 및 반일제 (하루 4시간 정도)	9.6	10.9	9.9	20.9	9.8	12.7	12.6	12.1	14.4	13.0
상관없음	19.8	30.5	22.3	16.3	16.3	6.3	12.4	14.2	4.9	10.7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62.4	16.5	51.8	7.0	59.6	76.8	58.5	57.3	58.5	57.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가 젊을수록 그리고 남성인 경우와 장애가 없는 경우가 전일제(하루 8시간)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관없음' 응답 비율도 대체로 동일하다. 반면 시간제 및 반일제 희망은 이와는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장애가 있는 경우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2-15〉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시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전일제(하루8시간)	33.8	31.8	25.9	13.4	1.8	23.5	3.9	7.1	22.6	18.6
시간제 및 반일제 (하루 4시간 정도)	22.2	12.6	14.3	11.9	10.1	12.4	14.7	14.0	12.6	13.0
상관없음	21.2	16.5	11.4	10.4	2.6	12.7	4.9	6.0	12.4	10.7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22.8	39.1	48.3	64.3	85.5	51.4	76.5	72.9	52.4	57.7
합계	100.0 (90)	100.0 (205)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원하는 일자리 업종을 건설일용직, 경비, 청소(미화), 생산제조,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고 노숙인 등 전체의 선호 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거주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호하는 업종의 차이가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은 '건설 일용직'(19.7%), 이용시설 노숙인은 '서비스업'(25.3%)을 선호하였다. 자활시설 노숙인은 '생산제조'(21.5%)와 '서비스업'(26.0%)을, 쪽방주민은 '청소(미화)'를 가장 선호하는(12.6%)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6〉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업종)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건설일용직	19.7	8.2	17.0	13.0	7.3	1.0	5.7	7.8	10.0	8.7
경비	2.2	14.1	5.0	16.6	3.3	1.5	4.6	4.7	2.7	3.9
청소(미화)	6.8	13.7	8.4	10.1	5.4	4.4	5.7	6.2	12.6	8.6
생산제조	5.4	17.5	8.1	21.5	12.0	8.4	12.0	11.2	4.6	8.8
서비스업	2.3	25.3	7.5	26.0	7.8	5.8	9.7	9.3	9.2	9.3
기타	1.3	4.8	2.1	5.8	4.6	2.1	3.8	3.5	2.4	3.1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62.4	16.5	51.8	7.0	59.6	76.8	58.5	57.3	58.5	57.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미화)’를 선호하고(60대 10.2%), 40세 미만 및 40대의 젊은 연령은 ‘생산제조’(47.4%)와 ‘서비스업’(45.1%)을 선호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건설일용직’(11.4%), 여성은 ‘서비스업’(8.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표 4-2-17〉 원하는 일자리 조건(근무업종)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건설일용직	8.8	10.6	13.8	6.7	1.2	11.4	0.5	4.1	10.2	8.7
경비	2.0	2.0	3.9	5.4	2.1	5.2	0.0	1.4	4.8	3.9
청소(미화)	5.5	7.5	7.4	10.2	8.7	10.0	4.4	6.6	9.3	8.6
생산제조	26.1	21.6	10.0	5.0	1.0	9.0	8.1	8.1	9.0	8.8
서비스업	29.1	16.0	12.2	5.6	1.3	9.4	8.8	4.8	10.8	9.3
기타	5.7	3.2	4.3	2.8	0.3	3.5	1.7	2.1	3.4	3.1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22.8	39.1	48.3	64.3	85.5	51.4	76.4	72.8	52.5	57.7
합계	100.0 (90)	100.0 (205)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일자리를 구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1순위는 ‘임금’(19.3%)이었으며, 다음으로 ‘고용의 안정성’(11.4%)과 ‘근무시간’(6.0%)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그런데 여

기서도 노숙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용시설 노숙인은 ‘기숙사나 거처 등 주거지원 조건’에 대해 7.3%가 중요한 1순위 조건으로 선택하였다. 자활시설 노숙인은 ‘임금’보다도 ‘고용의 안정성’을 1순위 조건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임금 31.2%, 고용안정성 36.9%).

〈표 4-2-18〉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1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임금	26.4	30.6	27.4	31.2	16.5	5.4	14.3	16.8	23.5	19.3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1.4	6.3	2.5	15.2	3.7	5.9	6.3	5.6	6.7	6.0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2.9	27.8	8.6	36.9	12.7	5.0	13.3	12.4	9.9	11.4
출퇴근 편의	2.9	0.0	2.2	2.9	0.7	0.2	0.8	1.1	0.0	0.7
장래발전 가능성	0.4	0.0	0.3	1.5	0.5	1.7	1.1	1.0	0.0	0.6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1.8	6.8	2.9	4.0	3.6	2.5	3.2	3.2	1.2	2.4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0.9	4.9	1.8	0.0	0.0	1.2	0.5	0.7	0.0	0.5
기숙사나 거처제공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1.0	7.3	2.4	1.3	2.8	0.9	1.8	1.9	0.0	1.2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0.0	0.0	0.0	0.0	0.0	0.0	0.0	0.0	0.3	0.1
기타	0.0	0.0	0.0	0.0	0.0	0.2	0.1	0.1	0.0	0.0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62.4	16.5	51.8	7.0	59.6	76.8	58.5	57.3	58.5	57.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미만에서 ‘임금’보다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성별, 장애유무별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순위는 ‘임금’이었다.

〈표 4-2-19〉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임금	25.3	25.4	25.7	17.2	4.7	22.4	10.1	12.9	21.5	19.3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9.5	9.1	6.5	5.1	3.6	6.2	5.4	4.9	6.3	6.0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26.8	16.8	13.2	9.1	4.9	13.8	4.5	6.6	13.1	11.4
출퇴근 편의	5.4	0.6	0.9	0.3	0.0	0.7	0.6	0.3	0.8	0.7
장래발전 가능성	1.6	2.0	0.3	0.5	0.3	0.8	0.0	0.7	0.6	0.6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7.0	2.7	2.7	2.4	0.4	2.5	2.4	1.1	2.9	2.4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0.7	1.6	0.3	0.3	0.0	0.5	0.4	0.4	0.5	0.5
기숙사나 거처제공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0.9	2.3	1.7	0.8	0.6	1.5	0.2	0.2	1.6	1.2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0.0	0.0	0.4	0.0	0.0	0.2	0.0	0.0	0.2	0.1
기타	0.0	0.5	0.0	0.0	0.0	0.1	0.0	0.0	0.1	0.0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22.8	39.1	48.3	64.3	85.5	51.4	76.5	72.9	52.4	57.7
합계	100.0 (90)	100.0 (205)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2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임금’, ‘근무시간’, ‘고용의 안정성’ 세 가지 조건이 유사한 비율로 선택되고 있다. 일자리 조건 2순위에서는 거처유형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20〉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2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임금	5.8	23.3	9.8	27.8	9.6	6.2	11.0	10.8	11.0	10.9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8.4	8.1	8.3	18.8	7.4	3.8	7.7	7.8	14.8	10.5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13.8	29.9	17.5	14.8	9.8	5.9	9.0	10.6	10.0	10.4
출퇴근 편의	2.6	3.4	2.7	10.2	3.1	2.5	3.9	3.7	1.0	2.7
장래발전 가능성	0.9	0.0	0.7	1.3	0.4	0.0	0.4	0.4	0.8	0.6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0.0	5.0	1.1	9.9	3.5	2.0	3.9	3.4	1.6	2.7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2.6	5.6	3.3	3.0	2.8	0.7	2.0	2.2	1.3	1.9
기숙사나 거처제공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3.6	5.7	4.1	6.0	2.7	1.6	2.7	3.0	0.7	2.1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0.0	1.2	0.3	1.1	0.7	0.3	0.6	0.6	0.2	0.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62.4	16.5	51.8	7.0	59.6	76.8	58.5	57.3	58.5	57.7
모름	0.0	1.5	0.3	0.0	0.4	0.0	0.2	0.2	0.0	0.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2-21〉 원하는 일자리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2순위)(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임금	20.3	14.9	13.9	7.3	7.4	12.9	4.8	5.1	12.9	10.9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18.6	10.8	13.3	10.4	1.6	12.1	5.1	5.7	12.1	10.5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10.8	15.7	13.0	9.5	3.1	11.8	6.3	7.7	11.3	10.4
출퇴근 편의	8.6	5.4	3.0	1.8	0.6	2.6	3.0	2.3	2.9	2.7
장래발전 가능성	0.9	2.9	0.5	0.1	0.4	0.4	1.2	1.0	0.5	0.6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5.1	5.2	2.0	3.1	0.6	3.4	0.7	2.2	2.9	2.7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4.4	2.5	2.2	1.9	0.0	2.0	1.5	1.7	1.9	1.9
기숙사나 거처제공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4.8	2.6	3.4	1.3	0.3	2.7	0.5	1.3	2.4	2.1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3.7	0.8	0.1	0.2	0.6	0.5	0.5	0.2	0.5	0.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22.8	39.1	48.3	64.3	85.5	51.4	76.4	72.8	52.5	57.7
모름	0.0	0.0	0.3	0.1	0.0	0.2	0.0	0.0	0.2	0.1
합계	100.0 (90)	100.0 (205)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건강회복’이 가장 높은 응답률(24.5%)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제공’(12.4%), ‘일정한 주거지 확보’(11.1%)의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활시설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은 건강회복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과 일정한 주거지 확보가 중요한 지원이었다. 그리고 이 유형의 노숙인에게는 ‘일정한 주거지 확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원이었다. 건강회복은 재활시설 노숙인과 요양시설 노숙인에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쪽방주민에게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평가되었다.

채무해소와 주민등록 복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활 및 요양시설 노숙인에 비해 구직에 대한 욕구(needs)가 큰 집단인 거리의 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등에서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는 9.1%, 9.6%, 12.6%의 응답자가 필요한 지원으로 선택하였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주민등록 복원’에 대한 응답률이 7.9%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2-22〉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일정한 주소지 확보	18.7	28.2	20.9	24.2	11.5	5.8	11.2	13.0	7.8	11.1
직업교육	1.9	4.8	2.6	9.5	6.6	8.9	7.9	6.9	3.3	5.6
건강회복	12.5	15.4	13.2	15.0	24.5	23.8	22.8	21.0	30.3	24.5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9.1	9.6	9.2	12.6	4.8	0.8	4.4	5.3	1.9	4.0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	7.2	25.6	11.5	31.3	9.3	5.6	11.2	11.2	14.5	12.4
주민등록 복원	7.9	1.6	6.5	0.0	0.3	0.0	0.2	1.4	0.0	0.8
가족 돌봄 지원	0.6	0.0	0.5	1.8	0.2	0.5	0.6	0.6	0.6	0.6
기타	0.0	0.0	0.0	0.0	0.4	0.0	0.2	0.1	0.0	0.1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42.0	14.7	35.7	5.6	42.4	54.6	41.7	40.6	41.6	40.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연령별로도 차이가 났다. 40세 미만에서는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2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알선 등 구직정보제공’이 22.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른 연령에서는 건강회복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와 구직 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은 2016년도 조사결과와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회복’, ‘취업알선’, ‘주소지 확보’는 동일한 순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나타났다. 즉 노숙인이 취업을 위해서는 건강회복과 취업정보, 그리고 안정적 주거지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4-2-23〉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일정한 주소지 확보	24.4	18.1	11.8	9.4	4.4	13.2	4.9	5.1	13.1	11.1
직업교육	8.9	9.8	4.7	4.7	5.5	5.0	7.3	6.4	5.3	5.6
건강회복	16.1	22.1	23.1	26.9	25.5	24.4	24.6	27.1	23.6	24.5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11.4	8.3	4.3	3.1	0.4	4.9	1.4	2.9	4.4	4.0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	22.5	12.7	15.9	11.9	2.9	14.3	7.0	6.1	14.	12.4
주민등록 복원	0.0	0.2	0.9	1.4	0.2	0.9	0.5	0.2	1.1	0.8
가족 돌봄 지원	3.2	2.7	0.0	0.3	0.0	0.2	1.6	0.6	0.5	0.6
기타	0.0	0.0	0.1	0.0	0.3	0.1	0.0	0.0	0.1	0.1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13.6	26.1	39.2	42.3	60.8	37.0	52.7	51.5	37.3	40.9
합계	100.0 (90)	100.0 (205)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소득과 지출 실태

노숙인 등의 수입원을 살펴보면,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에 의한 수입이 61.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지원에

의한 수입원이 27.7%로 나타났다. 일반근로에 의한 수입원은 8.0%에 불과하였다.

재활 및 요양시설의 경우 각각 92.9%, 96.2%가 공적 프로그램에서 주 수입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공공부조나 공공일자리에 의한 수입원보다 일반근로에 의한 수입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 주 수입원이 공공근로활동인 경우가 72.3%로 가장 높았다. 자활시설의 경우 공공근로 57.9%, 일반근로 20.2%를 합쳐 78.1%의 노숙인의 주 수입원이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용시설 노숙인과 자활시설 노숙인은 근로활동이, 재활시설 노숙인과 요양시설 노숙인은 공공부조 및 기초연금 등 공적소득보장 제도가 주 수입원이었다.

〈표 4-2-24〉 주 수입원 - 1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시 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공공근로활동	10.0	72.3	40.6	57.9	34.2	16.8	30.4	31.5	23.1	27.7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	54.3	18.7	36.9	20.2	4.1	1.2	5.4	8.6	7.3	8.0
친구 및 친인척 도움	3.6	0.0	1.8	5.0	2.3	0.3	1.8	1.8	0.6	1.3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2.2	0.0	1.1	1.8	0.0	2.2	1.3	1.3	0.3	0.8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4.4	0.0	2.2	0.0	0.0	0.0	0.0	0.2	0.0	0.1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25.4	9.0	17.4	15.1	58.7	79.4	60.7	56.3	67.7	61.5
기타	0.0	0.0	0.0	0.0	0.9	0.0	0.3	0.3	1.0	0.6
합계	100.0 (61)	100.0 (41)	100.0 (102)	100.0 (128)	100.0 (329)	100.0 (332)	100.0 (215)	100.0 (789)	100.0 (215)	100.0 (1,106)

주: 공공근로활동에는 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이, 일반 근로에는 상용 및 임시일용직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주 수입원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와 일반 근로활동을 합하여 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원의 비율은 40대가 5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49.8%로 나타났다. 50대까지는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보장제도 수급률이 남성보다 높고, 근로활동 참여를 통한 수입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 공공부조 수급비율이 높고 근로활동 참여를 통한 수입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5〉 주 수입원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공공근로활동	25.5	40.7	37.4	26.0	6.4	31.9	16.3	13.3	33.4	27.7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	16.5	11.2	12.4	4.8	2.8	9.4	4.3	3.3	9.9	8.0
친구 및 친인척 도움	2.5	3.6	1.6	0.8	0.0	1.1	1.7	1.0	1.4	1.3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2.2	0.9	0.8	0.5	1.0	0.6	1.3	1.5	0.5	0.8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0.0	0.7	0.2	0.0	0.0	0.2	0.0	0.0	0.2	0.1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53.3	42.3	47.0	66.8	89.8	55.9	76.4	80.8	53.8	61.5
기타	0.0	0.5	0.5	1.1	0.0	0.9	0.0	0.0	0.9	0.6
합계	100.0 (61)	100.0 (131)	100.0 (311)	100.0 (429)	100.0 (174)	100.0 (785)	100.0 (321)	100.0 (365)	100.0 (741)	100.0 (1,106)

주: 공공근로활동에는 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이, 일반 근로에는 상용 및 임시일용직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 주요 수입원 중 2순위에 대한 응답을 거처 유형별 그리고, 연령별, 성별, 장애 유무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노숙인 등 전체적으로 2순위 주요수입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9.5%)이었고, 다음으로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이 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거처유형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친구 및 친인척 도움이 24.5%로 2순위 수입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40세 미만 및 40대 노숙인과 장애가 있는 노숙인은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이 각각 12.4%, 12.6%, 9.1%로 2순위 수입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2-26〉 주 수입원 - 2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공공근로활동	1.0	4.8	2.9	10.8	9.2	3.1	6.8	6.4	1.7	4.3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	4.7	11.9	8.2	25.1	6.3	6.2	9.3	9.2	3.4	6.5
친구 및 친인척 도움	24.5	0.0	12.5	4.5	5.2	3.2	4.2	5.1	0.8	3.1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5.5	5.4	5.5	9.9	5.1	6.9	6.6	6.5	10.6	8.4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15.9	0.0	8.1	1.4	0.3	1.3	0.9	1.6	0.3	1.0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1.2	0.0	0.6	5.9	10.9	10.7	10.0	9.1	10.1	9.5
기타	0.0	0.0	0.0	0.0	0.3	0.0	0.1	0.1	0.0	0.1
모름/무응답	47.3	77.8	62.3	42.3	62.7	68.6	62.0	62.0	73.1	67.1
합계	100.0 (61)	100.0 (41)	100.0 (102)	100.0 (128)	100.0 (329)	100.0 (332)	100.0 (215)	100.0 (789)	100.0 (215)	100.0 (1,106)

주: 공공근로활동에는 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이, 일반 근로에는 상용 및 임시일용직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2-27〉 주 수입원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공공근로활동	5.9	3.3	3.7	5.0	3.8	4.6	3.4	4.3	4.2	4.3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	7.2	11.8	7.7	5.8	2.8	7.3	4.5	4.8	7.2	6.5
친구 및 친인척 도움	5.7	2.1	5.0	2.6	1.1	2.6	4.6	3.4	3.1	3.1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12.4	12.6	9.4	7.0	6.0	8.6	7.9	9.1	8.1	8.4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1.3	0.3	1.1	1.1	1.1	1.2	0.4	0.7	1.2	1.0
공공부조, 기초연금 등	3.3	6.3	10.6	12.7	4.3	9.4	9.9	9.1	9.7	9.5
기타	0.0	0.0	0.0	0.1	0.0	0.1	0.0	0.0	0.1	0.1
모름/무응답	64.1	63.7	62.6	65.8	80.9	66.2	69.3	68.5	66.5	67.1
합계	100.0 (61)	100.0 (131)	100.0 (311)	100.0 (429)	100.0 (174)	100.0 (785)	100.0 (321)	100.0 (365)	100.0 (741)	100.0 (1,106)

주: 공공근로활동에는 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이, 일반 근로에는 상용 및 임시일용직이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노숙인 등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이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은 하절기(4월~10월)와 동절기(11월~3월)의 평균값으로 구하였다.

지난 1년간 노숙인 등의 월평균소득은 53.6만원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전체 평균은 38.4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생계급여 1인 가구 최저보장 수준인 548,349원을 밑돈다.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노숙인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았고, 자활시설 노숙인의 월평균소득이 가장 높았다(79.2만원). 거리 노숙인은 이용시설 노숙인과 그렇지 않은 노숙인 간에 월평균소득 차이가 컸다(약 21만원). 계절별로 동계보다 하계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 현상도 거리의 노숙인에게 더 증폭되어 나타났다.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숙인의 경우 하계와 동계 소득 격차가 월평균 2.7만원(18만원-15.3만원)에 불과한데, 거리 노숙인의 경우 19.8만원(47.5만원-27.7만원)에 달하였다.

〈표 4-2-28〉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거처유형별)

(단위: 만원)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총소득	40.3	61.3	50.6	79.2	26.8	31.1	37.0	38.4	71.9	53.6
근로소득(하계)	28.4	67.3	47.5	72.1	11.1	4.4	18.0	21.0	32.4	26.2
근로소득(동계)	17.1	38.6	27.7	63.7	8.6	3.7	15.3	16.5	23.2	19.6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16.9	6.3	11.7	10.8	16.8	27.0	20.3	19.4	43.4	30.3

주: 총소득은 하계, 동계의 근로소득을 각각 7개월, 5개월로 나눠 월평균으로 기입한 수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평균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소득수준이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남성노숙인은 여성노숙인에 비해 평균 약 20만원 정도 소득수준이 높았고, 등록장애 노숙인에 비해 비장애 노숙인의 월평균 소득이 약 19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9〉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만원)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 총소득	61.0	57.5	55.8	51.1	50.9	59.0	39.1	40.1	59.0	53.6
2) 근로소득(하계)	31.8	40.3	38.1	19.4	9.7	32.8	8.4	7.1	33.8	26.2
3) 근로소득(동계)	27.5	32.6	28.0	13.6	7.5	24.3	6.8	6.7	24.7	19.6
4)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31.1	20.6	22.0	34.2	42.2	29.9	31.4	33.2	29.1	3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노숙인 등의 월평균 소득 분포상태를 수입원에 따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표이다.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월평균 수입의 평균값은 50.9만원으로 나타났고,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의 평균값은 63.8만원으로 공공근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공공부조의 평균값은 39.4만원으로 공공근로이든 일반근로이든 근로활동을 통한 수입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4-2-30〉 노숙인 등의 주요 수입원 비중과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만원)

구분	비율(%)	p25(만원)	중위(만원)	p75(만원)	평균(만원)
수입 없음	34.9	0	0	0	0
공공근로활동	19.1	17.0	40.0	70.0	50.9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	5.9	29.5	45.0	91.5	63.8
친구 및 친인척 도움	1.1	10.0	20.0	30.0	23.7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0.8	2.0	15.0	40.0	23.7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0.2	6.5	10.0	32.5	19.5
공공부조	37.8	25.0	30.0	55.0	39.4
기타	0.3	63.0	63.0	63.0	83.4
근로활동(공공근로활동 및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					
총소득(만원)	-	20.0	41.5	74.5	54.0
근로소득(만원): 하계(4~10월)	-	13.5	40.0	75.0	51.7
근로소득(만원): 동계(11~3월)	-	0.0	22.5	60.0	40.4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만원)	-	0.0	0.0	5.0	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노숙인의 경제활동에서 지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 비중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이었고, 다음으로 주거비였다. 주거비 비중이 높은 것은 쪽방주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쪽방주인을 제외한 노숙인은 식료품비 다음으로 술·담배가 높은 지출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2-31〉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1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거비(임대료 또는 숙박비 등)	6.5	18.0	9.1	4.0	2.0	5.1	3.5	4.6	70.9	29.4
식료품비	60.3	32.1	53.8	18.6	34.7	48.6	37.8	40.8	18.1	32.3
보건의료비	1.9	0.0	1.4	3.4	6.9	6.5	6.2	5.3	2.3	4.2
피복신발비	4.3	1.2	3.6	5.1	3.4	6.1	4.7	4.5	0.0	2.8
생활용품비	5.5	15.7	7.8	14.8	16.6	11.2	14.2	13.0	4.9	9.9
교통·통신비	0.8	10.1	3.0	15.6	2.1	1.2	3.8	3.6	0.3	2.4
술·담배	20.7	8.1	17.8	20.3	29.7	13.4	21.8	21.1	2.4	14.1
오락(게임, 도박)	0.0	1.3	0.3	0.7	0.0	0.0	0.1	0.1	0.3	0.2
저축	0.0	6.7	1.5	10.7	3.3	7.4	6.0	5.2	0.0	3.2
부채(빚) 갚기	0.0	1.8	0.4	3.9	0.8	0.0	0.9	0.8	0.2	0.6
가족송금(자녀교육비 포함)	0.0	5.2	1.2	1.7	0.0	0.0	0.3	0.4	0.0	0.3
기타 지출	0.0	0.0	0.0	1.1	0.4	0.5	0.6	0.4	0.6	0.5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지출 1순위 실태를 제시하였다. 연령별 지출실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60대와 70대에서 높고(각각 5.2%, 5.7%), 30대와 40대 젊은 층에서는 술·담배와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저축은 70세 이상과 40대에서 비율이 높았고(4.3%, 4.2%), 부채(빚) 갚기는 4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2.9%)이었다.

남성은 주거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33.1%) 여성은 식료품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49.4%). 남성은 상대적으로 술·담배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저축의 비율이 높았다.

〈표 4-2-32〉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주거비(임대료 또는 숙박비 등)	24.6	19.2	30.3	27.8	40.9	33.1	18.6	20.6	32.5	29.4
식료품비	31.3	28.3	33.8	32.9	30.9	26.5	49.4	40.3	29.5	32.3
보건의료비	0.0	2.0	3.6	5.2	5.7	3.7	5.7	5.4	3.8	4.2
피복신발비	1.8	3.3	2.5	3.6	1.6	1.7	6.2	4.6	2.2	2.8
생활용품비	10.8	13.5	10.4	10.2	5.4	10.5	8.2	13.3	8.8	9.9
교통·통신비	5.0	5.7	1.1	2.4	1.7	2.9	0.9	1.3	2.7	2.4
술·담배	18.9	20.7	14.2	13.4	9.2	17.7	3.3	8.7	16.0	14.1
오락(게임, 도박)	0.7	0.5	0.3	0.0	0.0	0.3	0.0	0.0	0.3	0.2
저축	1.8	4.2	3.0	2.9	4.3	2.1	6.6	5.4	2.5	3.2
부채(빚) 갚기	2.9	1.0	0.6	0.5	0.0	0.7	0.2	0.3	0.7	0.6
가족송금(자녀교육 비 포함)	1.2	1.2	0.1	0.0	0.3	0.2	0.3	0.0	0.4	0.3
기타 지출	1.0	0.4	0.0	1.1	0.0	0.5	0.5	0.0	0.7	0.5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큰 비중의 지출 2순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43.4%), 생활용품비(16.7%), 피복·신발비(8.8%), 술·담배(8.3%), 주거비(7.7%), 보건의료비(5.1%), 교통·통신비(4.0%) 등의 순서였다. 거리의 노숙인에게는 식료품비 다음으로 술·담배의 비중이 2순위에서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2%).

〈표 4-2-33〉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2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거비	5.8	5.2	5.6	0.4	0.9	1.5	1.0	1.9	17.3	7.7
식료품비	30.0	29.6	29.9	21.3	35.0	27.7	30.1	30.0	65.7	43.4
보건의료비	5.7	1.2	4.7	5.0	7.0	4.5	5.7	5.5	4.3	5.1
피복신발비	13.1	3.1	10.8	5.2	8.9	22.3	13.7	13.1	1.6	8.8
생활용품비	18.2	11.9	16.8	28.3	22.5	26.4	24.9	23.4	5.6	16.7
교통·통신비	2.8	13.8	5.3	10.4	5.4	2.5	5.0	5.0	2.1	4.0
술·담배	22.6	20.7	22.2	15.4	9.9	5.3	8.9	11.4	3.2	8.3
오락/게임/도박	0.9	3.1	1.4	1.3	0.9	0.3	0.7	0.9	0.0	0.5
저축	0.0	5.0	1.1	6.0	3.3	3.0	3.6	3.2	0.2	2.1
부채(빚) 갚기	0.6	1.8	0.9	3.4	0.4	0.1	0.7	0.8	0.0	0.5
가족송금	0.0	0.0	0.0	1.2	0.4	0.2	0.4	0.4	0.0	0.2
기타 지출	0.0	0.0	0.0	1.1	0.2	0.5	0.4	0.3	0.0	0.2
모름/무응답	0.2	4.8	1.3	1.1	5.1	5.8	4.8	4.1	0.0	2.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2-34〉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주거비	5.4	8.0	8.4	6.9	8.8	8.0	6.7	4.9	8.7	7.7
식료품비	33.3	30.0	41.7	45.6	54.5	47.5	31.3	35.8	46.0	43.4
보건의료비	1.6	4.5	4.3	5.0	8.3	4.3	7.3	5.5	4.9	5.1
피복신발비	10.4	8.6	10.6	8.2	6.1	6.1	16.7	15.3	6.5	8.8
생활용품비	22.8	21.5	14.0	17.7	14.5	14.3	23.9	23.7	14.3	16.7
교통·통신비	7.4	9.6	4.4	2.2	2.4	4.5	2.3	2.8	4.3	4.0
술·담배	7.0	10.3	10.4	8.7	1.9	10.5	1.8	5.1	9.5	8.3
오락/게임/도박	3.5	1.0	0.3	0.4	0.3	0.6	0.3	0.2	0.7	0.5
저축	3.2	2.9	2.1	2.0	1.2	1.6	3.5	1.8	2.1	2.1
부채(빚) 갚기	3.6	0.8	0.7	0.0	0.0	0.5	0.3	0.2	0.6	0.5
가족송금	0.7	0.4	0.0	0.3	0.3	0.2	0.3	0.2	0.2	0.2
기타 지출	0.0	0.3	0.2	0.2	0.3	0.2	0.3	0.2	0.2	0.2
모름/무응답	1.0	2.2	3.0	2.9	1.4	1.6	5.3	4.3	2.0	2.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인 등의 부채 관련 상태를 살펴보면 노숙인 등 전체의 25.6%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처유형별로는 이용시설 노숙인과 자활시설 노숙인이 각각 63.9%,

56.2%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 노숙인은 각각 20.7%, 6.7%로 상대적으로 부채가 있다는 비율이 낮았다.

〈표 4-2-35〉 부채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있음	26.5	63.9	35.1	56.2	20.7	6.7	20.5	23.3	29.6	25.6
없음	60.6	36.1	55.0	38.7	78.1	90.8	77.2	73.0	68.3	71.3
모름	12.9	0.0	10.0	5.0	1.2	2.5	2.3	3.7	2.1	3.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연령층에서 부채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59.5%),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노숙 이전에 파산,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보다 비장애 노숙인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6〉 부채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음	59.5	46.0	29.9	17.3	12.3	30.9	10.0	11.7	30.4	25.6
없음	36.7	50.9	66.9	79.6	84.7	66.0	86.8	85.8	66.2	71.3
모름	3.8	3.1	3.2	3.0	3.0	3.1	3.2	2.4	3.4	3.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부채의 규모는 평균 3,644.4만 원이었고, 중위값은 1,200만 원이었다. 부채액 평균값은 3,955.1만원과 2,247.6만원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이 상대적으로 부채율은 낮지만(각각 26.5%, 29.6%), 부채액 평균값은 7,637만원과 4271.4만원으로 타 유형의 노숙인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다.

〈표 4-2-37〉 부채규모 (거처유형별)

(단위: 만원,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최소값	100	50	50	26	10	17	10	10	90	10
최대값	100,000	30,000	100,000	20,000	10,000	8,000	20,000	100,000	40,000	100,000
중위값	1,500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1,030	1,500	1,200
평균	7,637.0	3,955.1	6,098.0	2,247.6	1,822.3	1,805.4	1,995.5	3,166.0	4,271.4	3,644.4
표준편차	1,7953.2	5,877.2	14,320.6	2,934.2	2,227.5	2,061.8	2,532.1	8,152.0	7,109.3	7,736.4
응답자	(71)	(37)	(108)	(97)	(111)	(42)	(250)	(358)	(71)	(4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부채액의 규모는 연령에 따라 상승하였는데, 40세 미만의 평균 부채액은 1,609.3만원, 40대 1,261.7만원, 50대 3,633.5만원, 60대 이상은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부채액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남성 노숙인의 평균 부채액은 3,871.1만원, 여성 노숙인은 1,571.6만 원, 장애 노숙인은 2,132.2만원, 비장애 노숙인은 3,846.4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4-2-38〉 부채규모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만원,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최소값	100	30	10	17	50	10	90	17	10	10
최대값	12,000	30,000	3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	12,000	100,000	100,000
평균	1,609.3	2,161.7	3,633.5	5,037.3	5,780.8	3,871.1	1,571.6	2,132.2	3,846.4	3,644.4
표준편차	2,577.1	3,889.9	4,947.5	11,885.1	11,246.2	8,078.9	2,365.9	3,030.9	8,141.1	7,736.4
응답자	(51)	(95)	(145)	(113)	(25)	(383)	(46)	(47)	(382)	(4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여부에 대해서는 노숙인 등 전체의 6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노숙인의 자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 신용불량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는 노숙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2-39〉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그렇다	54.6	79.9	65.2	69.1	66.1	70.7	67.9	67.1	66.4	66.8
아니다	45.4	20.1	34.8	30.9	33.9	29.3	32.1	32.9	33.6	33.2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노숙인이 가장 높은 비율(75.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40세 미만 노숙인이 70.5%로 높은 비율이었다. 남성이 여성 노숙인보다 채무불이행비율이 높았으며, 장애 유무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0〉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그렇다	70.5	64.5	75.8	59.8	46.0	67.9	56.7	69.9	66.4	66.8
아니다	29.5	35.5	24.2	40.2	54.0	32.1	43.3	30.1	33.6	33.2
합계	100.0 (51)	100.0 (95)	100.0 (145)	100.0 (113)	100.0 (25)	100.0 (383)	100.0 (46)	100.0 (47)	100.0 (382)	100.0 (4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유형별 부채관련 상태를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 4-2-43〉과 같다. 2016년에 비해 2021년의 노숙인 등의 채무상태는 부채여부, 신용불량여부, 그리고 부채액수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채가 없는 경우가 62%에서 71.3%로 증가하였으며, 신용불량상태도 77.1%에서 66.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의 평균도 6,876만원에서 3,644만원으로 낮아졌다(이태진 외, 2017, p.214).

〈표 4-2-41〉 노숙인 등의 채무상태: 2016년과 2021년의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2016년		2021년	
	부채여부	신용불량여부	부채여부	신용불량여부
있다(그렇다)	35.5	77.1	25.6	66.8
없다(아니다)	62.0	22.9	71.3	33.2
모르겠다	2.5	-	3.1	-
합계	100.0	100.0	100.0	100.0
부 채 액				
부채액 평균	6,876		3,644.4	
부채액 중위값	1,000		1,200	
표준편차	33,392		7736.4	

자료: 1)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저축을 하는 노숙인은 전체적으로 23.2%였는데, 자활시설 노숙인의 저축률이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 다음으로 요양시설 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2-42〉 저축 유무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그렇다	2.1	27.1	7.8	48.9	26.2	31.6	31.8	27.2	16.4	23.2
아니다	97.9	72.9	92.2	51.1	73.8	68.4	68.2	72.8	83.6	76.8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 저축 경향은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굳이 차이를 확인하자면 40대 노숙인의 저축 비율이 가장 높았다(28.1%).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 노숙인이 남성 노숙인보다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3〉 저축 유무 (연령별, 성별, 장애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그렇다	20.0	28.1	21.2	23.5	23.9	21.7	27.6	23.3	23.1	23.2
아니다	80.0	71.9	78.8	76.5	76.1	78.3	72.4	76.7	76.9	76.8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총저축액은 노숙인 전체 평균 3,188.4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총액은 쪽방주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 이용시설, 거리노숙인 순서였다. 월평균 저축액은 이용시설 노숙인 가장 많았고(303.8만원), 다음으로 자활시설 노숙인(192.4만원), 쪽방주민(103.9만원) 순이었다.

〈표 4-2-44〉 총저축액과 월평균 저축액 (거처유형별)

(단위: 만원)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총저축액	1,237.4	1,297.7	1,285.3	1,990.2	2,196.8	3,480.1	2,654.5	2,580.1	4,872.0	3,188.4
월평균 저축액	33.5	303.8	248.3	192.4	83.3	97.6	114.2	121.5	103.9	116.8
응답자	(6)	(15)	(21)	(83)	(147)	(129)	(359)	(380)	(33)	(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살펴보면, 총저축액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지만(5,216.4만원) 월평균 저축액은 40대 노숙인이 162.3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월평균 저축액이 많았고(각각 128.8만원, 88.9만원), 장애 노숙인보다 비장애 노숙인의 월평균 저축액이 많았다(각각 89.7만원, 126.3만원). 그런데 총 저축액은 남성 노숙인과 여성 노숙인, 그리고 장애 노숙인과 비장애 노숙인 간 역전되어 나타났다.

〈표 4-2-45〉 총저축액과 월평균 저축액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만원,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총저축액	3,244.3	1,910.3	3,419.3	2,651.3	5,216.4	3,085.7	3,426.9	3,546.9	3,063.1	3,188.4
월평균 저축액	153.1	162.3	107.9	110.2	102.2	128.8	88.9	89.7	126.3	116.8
응답자	(18)	(64)	(108)	(163)	(60)	(282)	(131)	(125)	(288)	(4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3절 건강 및 의료

1. 건강 실태

가. 주관적 건강 수준

주관적 건강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매우 나쁘다’ 3.1%, ‘나쁘다’ 23.2%, ‘보통’ 34.1%, ‘좋다’ 34.4%, ‘매우 좋다’ 5.2%이었다. 이 중에서 ‘좋다’ 혹은 ‘매우 좋다’라 응답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39.6%였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29.6%이었는데, 이에 비해 약 10%p 상승하였다(이태진 외, 2017, p.217). 이를 거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이용시설 포함)이 51.5%, 생활시설이 42.6%, 쪽방주민이 31.6%로 주관적 건강 수준은 쪽방주민이 낮았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로 발표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2020년)에서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5.6%(전국의 중앙값, 2020년 조사)인 것을 고려할 때(질병관리청, 2020, p.11) 노숙인 등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은 일반수준에 비해 15%p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주관적 건강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① 매우 나쁘다	2.3	3.3	2.5	1.1	2.0	3.5	2.4	2.5	4.1	3.1
② 나쁘다	21.2	22.6	21.6	7.1	14.9	14.5	13.6	15.1	36.9	23.2
③ 보통이다	27.1	15.5	24.4	46.9	40.7	40.0	41.3	38.1	27.5	34.1
④ 좋다	40.4	48.3	42.2	35.4	34.4	38.6	36.2	37.4	29.4	34.4
⑤ 매우 좋다	9.0	10.2	9.3	9.5	8.1	3.4	6.4	7.0	2.2	5.2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되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매우 낮아졌다. 또한 성별과 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4-3-2〉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① 매우 나쁘다	2.8	3.3	2.1	4.2	2.1	2.9	3.6	3.6	2.9	3.1
② 나쁘다	14.7	20.5	20.0	26.0	27.8	24.0	21.0	21.0	24.0	23.2
③ 보통이다	37.4	33.4	32.4	32.7	41.3	33.8	35.3	39.6	32.2	34.1
④ 좋다	34.6	35.8	39.6	32.5	26.8	33.7	36.3	31.3	35.4	34.4
⑤ 매우 좋다	10.5	6.9	6.0	4.6	1.9	5.6	3.8	4.5	5.4	5.2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나. 음주 실태와 알코올 의존성

음주여부를 물어본 결과 35.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6년도의 40.0%에 비해 5.0%p 낮아진 수치이다(이태진 외, 2017, p.246). 거처별로는 거리가 75.0%로 가장 높으며 쪽방주민 45.6%, 이용시설 40.8% 순이었다. 요양시설이 1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40세 미만, 40대, 50대가 40%대로 비교적 높으며 60대가 33.7%, 70세 이상이 16.7%로 낮아진다. 성별로는 남성이 43.3%임에 반해 여성이 10.6%로 차이가 크다. 장애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0.0%로 장애가 있다는 경우 20.7%보다 약 20%p 높았다.

〈표 4-3-3〉 음주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그렇다	75.0	40.8	67.2	40.4	20.6	10.8	16.7	28.7	45.6	35.0
아니다	25.0	59.2	32.8	59.6	79.5	89.2	80.3	71.3	54.4	65.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4〉 음주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그렇다	41.1	40.1	42.4	33.7	16.7	43.3	10.6	20.7	40.0	35.0
아니다	58.9	59.9	57.6	66.3	83.3	56.7	89.4	79.3	60.0	65.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음주 횟수는 노숙인 등 전체에서 월 1회 이상 26.4%, 월 2~4회 24.3%, 주 2~3회 29.6%, 주 4회 이상 19.7% 등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거리노숙의 경우 주 4회 이상 비율이 42.4%로 자주 술을 마시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월 1회 이상이 각각 61.0%, 77.4%로 마시더라도 자주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 4회 이상 비율은 2016년도의 18.5%에 비해 다소 증가한 19.7%였다(이태진 외, 2017, p.247).

연령대별로는 횟수 분포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주4회 이상이 남성은 21.0%여성은 4.0%, 장애 없는 경우가 21.7%, 있는 경우 8.9%로 여성보다 남성이, 장애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자주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음주횟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폭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월 1회 이상	3.0	14.6	4.6	38.7	61.0	77.4	57.7	34.2	18.2	26.4
월 2~4회	18.2	40.4	21.3	42.3	18.4	13.3	24.7	23.2	25.5	24.3
주 2~3회	36.4	32.7	35.9	17.4	10.4	3.1	11.0	22.0	37.5	29.6
주 4회 이상	42.4	12.3	38.2	1.6	10.2	6.2	6.7	20.6	18.7	19.7
합계	100.0 (183)	100.0 (24)	100.0 (207)	100.0 (68)	100.0 (99)	100.0 (61)	100.0 (228)	100.0 (435)	100.0 (109)	100.0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6〉 음주횟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월 1회 이상	33.1	25.5	19.2	34.2	20.5	24.8	45.7	46.8	22.7	26.4
월 2~4회	25.9	25.8	24.6	21.1	36.2	24.0	28.0	20.2	25.1	24.3
주 2~3회	26.8	20.7	35.7	26.6	30.2	30.2	22.2	24.2	30.6	29.6
주 4회 이상	14.3	28.1	20.5	18.1	13.0	21.0	4.0	8.9	21.7	19.7
합계	100.0 (32)	100.0 (83)	100.0 (202)	100.0 (198)	100.0 (29)	100.0 (496)	100.0 (48)	100.0 (81)	100.0 (463)	100.0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음주량을 살펴보면, 노숙인 등 전체는 1명 이상 2명 미만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반병이상 1명 미만이 22.1%, 2명 이상 4명 미만이 14.7% 이었다. 거처 유형별 및 연령대별, 성별, 장애별 등은 모두 음주횟수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4-3-7〉 음주량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1-2잔	0.9	7.9	1.8	6.1	22.6	62.1	26.1	15.4	6.1	10.8
반병 미만	10.5	4.0	9.6	6.3	16.4	7.1	11.3	10.5	10.4	10.5
반병 이상 1병 미만	25.0	13.7	23.5	24.5	16.9	7.4	174.2	20.0	24.2	22.1
1병 이상 2병 미만	36.2	45.8	37.5	40.6	26.6	13.4	28.1	32.2	43.5	37.8
2병 이상 4병 미만	19.9	24.4	20.5	19.6	15.1	9.4	15.2	17.6	11.7	14.7
4병 이상	7.5	4.3	7.1	3.0	2.3	3.5	2.2	4.3	4.0	4.2
합계	100.0 (183)	100.0 (24)	100.0 (207)	100.0 (68)	100.0 (99)	100.0 (61)	100.0 (228)	100.0 (435)	100.0 (109)	100.0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8〉 음주량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2잔	5.9	9.2	10.1	12.8	11.3	9.4	28.4	25.8	8.2	10.8
반병 미만	20.9	4.0	10.3	10.4	15.2	9.6	20.9	14.6	9.7	10.5
반병 이상 1병 미만	20.4	13.3	17.7	30.1	19.9	22.5	16.7	18.8	22.6	22.1
1병 이상 2병 미만	42.2	36.9	44.8	31.3	31.2	39.6	15.9	30.0	39.1	37.8
2병 이상 4병 미만	8.3	30.6	13.8	13.4	3.7	14.4	18.1	4.1	16.6	14.7
4병 이상	2.4	6.0	3.3	2.1	18.6	4.5	0.0	6.8	3.7	4.2
합계	100.0 (32)	100.0 (83)	100.0 (202)	100.0 (198)	100.0 (29)	100.0 (496)	100.0 (48)	100.0 (81)	100.0 (463)	100.0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문제음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CAGE 질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CAGE 질문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조사에서는 2016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2)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 3)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 4) 술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없애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본 분석에서는 기준에 따라 4개의 응답 중 2개 이상에 ‘그렇다’고 응답할 경우 문제 음주로 파악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문제성 음주(‘그렇다’ 응답 2~5개)에 포함되는 비율은 30.3%였다. 이는 2016년도 조사의 45.3%에 비해서 약 15.0% 낮아진 수치이다(이태진 외, 2017, p.253).

거처 유형별로 문제성 음주를 살펴보면, 거리노숙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재활 32.3%, 쪽방주민 28.9% 순이다. 요양시설이 17.5%로 가장 낮았다.

〈표 4-3-9〉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일 반 음 주	0	48.5	60.0	50.1	49.1	46.0	62.1	50.4	50.3	51.4	50.8
	1	12.7	20.0	13.7	22.5	21.7	20.4	21.6	18.1	19.8	18.9
	소계	61.2	80.0	63.8	71.6	67.7	82.5	72.0	68.4	71.2	69.7
문 제 성 음 주	2	14.1	4.4	12.7	8.5	11.1	6.7	9.4	10.9	9.9	10.4
	3	12.5	12.5	12.5	10.9	7.7	6.7	8.5	10.3	9.1	9.7
	4	12.2	3.1	11.0	8.9	13.5	4.1	10.1	10.4	9.9	10.2
	소계	38.8	20.0	36.2	28.3	32.3	17.5	28.0	31.6	28.9	30.3
합계		100.0 (183)	100.0 (24)	100.0 (207)	100.0 (68)	100.0 (99)	100.0 (61)	100.0 (228)	100.0 (435)	100.0 (109)	100.0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1.2%, 장애 유무 별로는 장애 없음이 33.2%로 높았다.

〈표 4-3-10〉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일반 음주	0	48.2	48.9	48.8	53.0	55.5	49.8	63.3	60.3	49.1	50.8
	1	34.8	7.2	18.0	21.7	17.5	19.0	18.9	25.3	17.8	18.9
	소계	83.0	56.1	66.8	74.7	73.0	68.8	82.2	85.6	66.9	69.7
문제성 음주	2	5.0	11.2	13.4	6.2	18.6	10.8	5.4	5.9	11.2	10.4
	3	4.6	22.9	5.3	12.1	1.4	9.7	8.8	3.0	10.9	9.7
	4	7.4	9.8	14.4	7.0	7.0	10.7	3.6	5.4	11.1	10.2
	소계	17.0	43.9	33.1	25.3	27.0	31.2	17.8	14.3	33.2	30.3
합계		100.0 (32)	100.0 (83)	100.0 (202)	100.0 (198)	100.0 (29)	100.0 (496)	100.0 (48)	100.0 (81)	100.0 (463)	100.0 (5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 정신건강(우울) 실태

정신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한국어판 축약형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를 활용하였다. 원천도인 CES-D는 20문항이나 본 설문에서는 11문항의 축약형 버전으로 활용하였다. 본 11문항의 축약형 CES-D 척도는 2016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전체 문항의 응답을 더한 후 20/11을 곱하여 사용하였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유력 우울증) 25점 이상은 우울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이태진 외, 2017, p.260).

전체 응답자 중 우울증(16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는 38.4%였다. 이는 2016년도 조사의 51.9%보다 약 13.5%p 감소한 수치이다.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이 16점 이상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이용시설이 57.3%이다. 거리 및 이용시설을 포함한 소계는 64.3%인데, 2016년도의 69.0%보다 다소 낮아졌다. 다음으로 쪽방주민이 61.0%였는데, 이는 2016년도 조사의 82.6%에 비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거리노숙과 쪽방주민 모두 60% 이상이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라 파악된다.

〈표 4-3-11〉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16점 미만	33.6	42.7	35.7	60.6	67.9	62.5	64.7	59.2	38.9	51.6	
우울증 유력	16점 이상- 25점 미만	22.4	35.4	25.4	27.7	20.4	26.1	23.8	24.1	36.8	28.9
	25점 이상	43.9	21.9	38.9	11.6	11.6	11.4	11.5	16.7	24.2	19.5
	소계	66.3	57.3	64.3	39.3	32.0	37.5	35.3	40.8	61.0	48.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64.7%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2016년도의 43.6%에 비하면 약 21.1%p 높아진 수치이다. 그 외 성별이나 장애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4-3-12〉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6점 미만	35.3	52.5	52.7	52.6	51.2	50.5	54.9	54.8	50.5	51.6	
우울증 유력	16점 이상- 25점 미만	32.4	24.8	28.4	28.8	31.7	28.8	29.1	29.4	28.7	28.9
	25점 이상	32.3	22.7	18.9	18.6	17.1	20.7	16.0	15.7	20.9	19.5
	소계	64.7	47.5	47.3	47.4	48.8	49.5	45.1	45.1	49.6	48.4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유병비율 및 치료경험

가. 질환별 유병비율 및 치료경험

1)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37.6%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주민 43.4%, 요양시설 41.7%, 이용시설 38.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은 15.2%인 데 반해 70세 이상은 46.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4-3-13〉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처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처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질병 있음	15.0	38.6	20.4	28.4	36.4	41.7	37.3	34.1	43.4	37.6
질병 없음	85.0	61.4	79.6	71.6	63.7	58.3	62.7	65.9	56.6	62.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14〉 대사성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15.2	30.4	31.4	44.0	46.7	36.6	40.3	37.1	37.8	37.6
질병 없음	84.9	69.6	68.6	56.0	53.3	63.3	59.7	62.9	62.2	62.4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대사성 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92.5%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이 99.4%, 쪽방주민 94.5%, 이용시설 92.1% 순으로 높았으며, 거리가 63.2%로 가장 낮았다. 한편 연령별로는 50대가 88.6%로 가장 낮았으나 연령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성별, 장애 유무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4-3-15〉 대사성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63.2	92.1	75.7	88.3	99.4	87.5	92.8	90.9	94.5	92.5
치료 경험 없음	36.8	8.0	24.3	11.7	0.6	12.6	7.2	9.1	5.5	7.6
합계	100.0 (43)	100.0 (23)	100.0 (66)	100.0 (49)	100.0 (187)	100.0 (195)	100.0 (431)	100.0 (497)	100.0 (114)	100.0 (6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16〉 대사성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93.6	93.5	88.6	94.7	91.7	92.5	92.3	93.5	92.1	92.5
치료 경험 없음	6.4	6.5	11.4	5.3	8.3	7.5	7.7	6.5	7.9	7.6
합계	100.0 (9)	100.0 (62)	100.0 (164)	100.0 (272)	100.0 (104)	100.0 (441)	100.0 (170)	100.0 (174)	100.0 (437)	100.0 (6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5.1%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쪽방주민 7.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요양시설 4.9%, 재활시설 3.8% 순이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60대 7.6%, 70세 이상 8.0% 등 고령자 층에서 유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 외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유병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3-17〉 심장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질병 있음	2.2	3.4	2.5	1.6	3.8	4.9	3.9	3.7	7.6	5.1
질병 없음	97.8	96.6	97.5	98.4	96.2	95.1	96.1	96.4	92.4	94.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18〉 심장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2	4.3	1.8	7.6	8.0	5.28	4.7	5.9	4.8	5.1
질병 없음	99.8	95.7	98.2	92.4	92.0	94.7	95.4	94.1	95.2	94.9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심장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90.8%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이용시설이 100.0%(응답자 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활시설 94.5, 쪽방주민 91.4% 순이었다. 자활시설이 63.1%로 가장 낮았으며(응답자 3명), 거리노숙은 79.8%(응답자 6명)이었다. 하지만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87.0%로 가장 낮았으나 연령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97.0%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애가 없는 응답자 88.2%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외 성별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3-19〉 심장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79.8	100.0	86.1	63.1	94.5	90.7	90.6	90.0	91.4	90.8
치료 경험 없음	20.2	0.0	13.9	37.0	5.6	9.3	9.4	10.0	8.6	9.2
합계	100.0 (6)	100.0 (2)	100.0 (8)	100.0 (3)	100.0 (18)	100.0 (25)	100.0 (46)	100.0 (54)	100.0 (24)	100.0 (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20〉 심장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100.0	89.5	100.0	87.0	96.1	92.6	84.7	97.0	88.2	90.8
치료 경험 없음	0.0	10.5	0.0	13.0	3.9	7.4	15.3	3.0	11.8	9.2
합계	100.0 (1)	100.0 (4)	100.0 (12)	100.0 (42)	100.0 (19)	100.0 (57)	100.0 (21)	100.0 (23)	100.0 (55)	100.0 (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3) 호흡기질환 (폐결핵, 천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5.4%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쪽방주민과 재활시설이 각각 6.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요양시설 4.0%, 자활시설 3.3% 순이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60대 7.1%, 70세 이상 5.0% 등 고령자 층에서 유병률이 올라갔다. 그 외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유병률은 전체 평균인 약 5%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3-21〉 호흡기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질병 있음	20	1.6	1.9	3.3	6.8	4.0	5.1	4.5	6.8	5.4
질병 없음	98.0	98.4	98.1	96.7	93.2	96.0	94.9	95.5	93.2	94.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22〉 호흡기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0	4.7	4.5	7.1	5.0	5.3	4.7	5.2	5.5	5.4
질병 없음	100.0	95.3	95.5	92.9	95.0	94.7	95.4	94.8	94.5	94.6
합계	100.0 (9)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호흡기 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5.7%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이 97.3%로 가장 높았으며, 쪽방 주민 90.7%, 자활시설 81.7% 순이었다. 거리노숙은 57.1%(응답자 4명), 이용시설은 0%(응답자 1명) 이었다. 거리노숙과 이용시설은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연령별로는 60대가 78.5%로 가장 낮았으나 연령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 및 장애 유무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3-23〉 호흡기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57.1	0.0	45.9	81.7	97.3	59.8	84.4	81.3	90.7	85.7
치료 경험 없음	42.9	100.0	54.1	18.4	2.7	40.2	15.6	18.7	9.3	14.3
합계	100.0 (4)	100.0 (1)	100.0 (5)	100.0 (6)	100.0 (35)	100.0 (21)	100.0 (62)	100.0 (67)	100.0 (15)	100.0 (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24〉 호흡기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0.0	100.0	93.7	78.5	87.5	83.7	92.7	89.7	84.4	85.7
치료 경험 없음	0.0	0.0	6.3	21.6	12.5	16.3	7.3	10.3	15.6	14.3
합계	0.0 (0)	100.0 (8)	100.0 (16)	100.0 (43)	100.0 (15)	100.0 (63)	100.0 (19)	100.0 (23)	100.0 (59)	100.0 (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4) 간장질환 (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간염, 간경화 등)

간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3.1%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쪽방주민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요양시설 2.6%, 재활시설 2.5% 순이었다. 자활시설이 1.6%로 가장 낮았고 이용시설 1.8%, 거리노숙 2.3% 순으로 낮았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40대가 4.1% 순이었다. 여성 1.5%에 비해 남성이 3.7%로 약 2배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장애 없는 경우가 3.3%, 있는 경우가 2.7%였다.

〈표 4-3-25〉 간장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2.3	1.8	2.1	1.6	2.5	2.6	2.4	2.3	4.4	3.1
질병 없음	97.7	98.3	97.9	98.4	97.5	97.4	97.6	97.7	95.6	96.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26〉 간장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7.5	4.1	3.5	2.4	2.0	3.7	1.5	2.7	3.3	3.1
질병 없음	92.5	95.9	96.5	97.6	98.0	96.3	98.5	97.3	96.8	96.9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간장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5.0%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자활시설이 100.0%(응답자 2명)으로 가장 높으며 재활시설 91.5%, 쪽방주민 85.6% 순이었다. 이용시설은 0.0%였으며(응답자 1명) 거리노숙 80.0%, 요양시설 82.4% 순으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4.2%로 가장 낮았으며, 40세 미만, 40대, 70세 이상은 100.0%였다. 남성은 83.0%인데 반해 여성은 100.0%로 여성 치료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가 없는 경우(87.1%)가 장애가 없는 경우(77.9%)보다 높았다.

〈표 4-3-27〉 간장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80.0	0.0	64.9	100.0	91.5	82.4	88.5	84.4	85.6	85.0
치료 경험 없음	20.0	100.0	35.1	0	8.5	17.6	11.5	15.6	14.5	15.0
합계	100.0 (7)	100.0 (1)	100.0 (8)	100.0 (2)	100.0 (13)	100.0 (12)	100.0 (27)	100.0 (35)	100.0 (12)	100.0 (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28〉 간장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100.0	100.0	74.2	80.4	100.0	83.0	100.0	77.9	87.1	85.0
치료 경험 없음	0.0	0.0	25.8	19.7	0.0	17.1	0.0	22.1	12.9	15.0
합계	100.0 (5)	100.0 (6)	100.0 (18)	100.0 (13)	100.0 (5)	100.0 (9)	100.0 (8)	100.0 (12)	100.0 (35)	100.0 (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5) 위장관질환 (역류성식도염,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 궤양, 치질 등)

위장관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8.0%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이용시설 9.6%, 요양시설 9.5%, 재활시설 8.5% 순으로 높았다. 거리노숙이 3.7%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쪽방주민과 자활시설이 각각 7.8%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60대가 9.7%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8.4%로 고령의 비율이 높았지만 40대가 7.9% 등 대체로 연령대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성별은 남성 7.8%, 여성 8.4%였으며, 장애 있음 9.6%, 장애 없음 7.4%이다.

〈표 4-3-29〉 위장관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3.7	9.6	5.0	7.8	8.5	9.5	8.8	8.1	7.8	8.0
질병 없음	96.3	90.4	95.0	92.3	91.5	90.5	91.2	91.9	92.2	92.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30〉 위장관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6.3	7.9	6.0	9.7	8.4	7.8	8.4	9.6	7.4	8.0
질병 없음	93.7	92.1	94.0	90.3	91.6	92.2	91.6	90.4	92.6	92.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위장관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9.5%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쪽방주민이 96.8%로 가장 높았으며, 재활 93.0%, 요양 88.0% 순이었다. 한편 거리노숙 52.0%, 이용시설 53.5%로 거리 및 이용 시설 노숙인은 생활시설 노숙인에 비해 치료경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96.3%로 높은 수준이며 50대가 82.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92.4%로 남성의 88.5%보다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가 94.2%로 장애가 없는 경우 87.4% 보다 ‘치료경험 있음’의 비율이 높았다.

〈표 4-3-31〉 위장관질환 치료유무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52.0	53.5	52.7	83.3	93.0	88.0	89.6	85.3	96.8	89.5
치료 경험 없음	48.0	46.5	47.3	16.7	7.0	12.0	10.4	14.8	3.2	10.5
합계	100.0 (12)	100.0 (6)	100.0 (18)	100.0 (11)	100.0 (44)	100.0 (45)	100.0 (100)	100.0 (118)	100.0 (22)	100.0 (1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32〉 위장관질환 치료유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100.0	85.5	82.7	90.8	96.3	88.5	92.4	94.2	87.4	89.5
치료 경험 없음	0	14.5	17.3	9.2	3.7	11.5	7.6	5.8	12.6	10.5
합계	100.0 (4)	100.0 (15)	100.0 (35)	100.0 (61)	100.0 (25)	100.0 (98)	100.0 (42)	100.0 (47)	100.0 (93)	100.0 (1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6) 정신질환 (조현병·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22.5%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요양시설이 42.1%로 가장 높으며, 재활시설 31.6%, 거리노숙 12.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36.6%로 가장 높은 유병 비율을 보이며, 40대 29.1%, 50대 22.3%, 60대 21.2%, 70세 이상 16.9%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병 비율은 감소한다. 성별은 여성이 42.1%로 남성의 15.8%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 유무에서는 장애 있음의 경우가 37.9%, 장애 없음의 경우가 17.1%로 장애 있음의 유병 비율이 매우 높다.

〈표 4-3-33〉 정신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12.6	8.0	11.6	10.3	31.6	42.1	32.6	28.6	12.3	22.5
질병 없음	87.4	92.0	88.4	89.7	68.4	57.9	67.4	71.4	87.7	77.5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34〉 정신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36.6	29.1	22.3	21.2	16.9	15.8	42.1	37.9	17.1	22.5
질병 없음	63.5	80.0	77.7	78.8	83.1	84.2	57.9	62.1	82.9	77.5
합계	1000 (9)	1000 (20)	1000 (532)	1000 (66)	1000 (21)	1000 (126)	1000 (43)	1000 (47)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정신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9.4%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이 97.0%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 시설 92.8%, 자활시설 91.6%였다. 한편, 거리노숙은 27.4%로 매우 낮았으며 이용 시설도 60.0%에 그쳤다. 시설 생활인에 비해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신질환 지원이 매우 미진하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촉구된다. 여성이 91.6%로 남성의 87.5%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치료 경험이 있었다. 또한 장애 있음이 95.2%로 장애 없음 85.0%에 비해 약 10.0%p 치료 경험 있음이 높았다.

〈표 4-3-35〉 정신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27.4	60.0	32.1	91.6	97.0	92.8	94.6	89.8	88.1	89.4
치료 경험 없음	72.6	43.0	67.9	8.4	3.0	7.3	5.4	10.2	11.9	10.6
합계	100.0 (30)	100.0 (6)	100.0 (36)	100.0 (18)	100.0 (167)	100.0 (173)	100.0 (358)	100.0 (394)	100.0 (30)	100.0 (4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36〉 정신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85.3	92.4	92.6	89.1	80.5	87.5	91.6	95.2	85.0	89.4
치료 경험 없음	14.7	7.6	7.4	10.9	19.5	12.5	8.4	4.8	15.0	10.6
합계	100.0 (32)	100.0 (58)	100.0 (137)	100.0 (161)	100.0 (36)	100.0 (214)	100.0 (210)	100.0 (195)	100.0 (229)	100.0 (4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7) 신경계질환(간질, 치매, 파킨슨씨병 등)

신경계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4.1%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요양시설이 7.5%로 가장 높으며, 쪽방주민 3.6% 재활시설 3.5%, 거리노숙 3.4% 순이었다. 이용시설은 ‘질병 있음’ 응답자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5.5%, 60대 4.2% 등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유병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3%로 남성 3.7%보다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가 7.0%로 없는 경우의 3.1%보다 높았다.

〈표 4-3-37〉 신경계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3.4	0.0	2.6	2.0	3.5	7.5	4.8	4.4	3.6	4.1
질병 없음	96.6	100.0	97.4	98.0	96.5	92.6	95.2	95.6	96.4	95.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38〉 신경계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2.4	3.2	3.9	4.2	5.5	3.7	5.3	7.0	3.1	4.1
질병 없음	97.6	96.8	96.1	95.8	94.5	96.3	94.7	93.0	96.9	95.9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신경계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9.3%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시설 90.8%, 거리노숙 86.6%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96.6%로 남성의 85.7%보다, 장애 유무로는 장애 있음이 92.4%로 장애 없음 86.8%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9〉 신경계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86.6	0.0	89.6	80.8	100.0	90.8	93.2	92.5	82.8	89.3
치료 경험 없음	13.4	0.0	13.4	19.2	0.0	9.2	6.8	7.5	17.2	10.7
합계	1000 (9)	00 (0)	1000 (9)	1000 (4)	1000 (18)	1000 (35)	1000 (57)	1000 (66)	1000 (8)	1000 (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40〉 신경계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100.0	100.0	77.3	90.0	100.0	85.7	96.6	92.4	86.8	89.3
치료 경험 없음	0.0	0.0	22.7	10.0	0.0	14.3	3.4	7.6	13.2	1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5)	(22)	(34)	(11)	(49)	(25)	(29)	(45)	(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8) 뇌졸중·중풍(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중풍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3.8%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주민이 4.7%로 가장 높으며, 요양시설 4.2%, 재활시설 4.0% 순이었다. 한편 거리노숙은 0.2%, 이용시설은 1.1%로 낮은 유형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유병비율을 나타내었다. 70세 이상이 6.6%로 가장 높으며, 60대 4.8%, 50대 3.4%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1%로 여성의 2.9%보다 다소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가 5.1%로 없는 경우의 3.3%보다 높았다.

〈표 4-3-41〉 뇌졸중 중풍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0.2	1.1	0.4	2.6	4.0	4.2	3.8	3.2	4.7	3.8
질병 없음	99.8	98.9	99.6	97.4	96.1	95.8	96.2	96.8	95.3	9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	(59)	(312)	(171)	(517)	(450)	(1,138)	(1,450)	(25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42〉 뇌졸중 중풍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0	1.7	3.4	4.8	6.6	4.1	2.9	5.1	3.3	3.8
질병 없음	100.0	98.3	96.6	95.2	95.4	95.9	97.2	94.9	96.7	96.2
합계	100.0 (9)	100.0 (20)	100.0 (52)	100.0 (65)	100.0 (21)	100.0 (126)	100.0 (43)	100.0 (47)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뇌졸중·중풍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9.6%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리 및 이용시설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응답자 각각 1명), 재활시설 95.3%, 요양시설 94.6% 순이었다. 한편 자활시설이 72.9%로 가장 낮았으며 쪽방주인이 85.8%로 두 번째로 낮은 거처유형이었다. 거리 및 이용시설의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해석에는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이 94.0%로 남성의 88.5%보다, 장애 유무로는 장애 있음이 9.5%로 장애 없음 85.8%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3〉 뇌졸중 중풍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100.0	100.0	100.0	72.9	95.3	94.6	92.7	92.9	85.8	89.6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27.1	4.7	5.4	7.3	7.1	14.2	10.4
합계	100.0 (1)	100.0 (1)	100.0 (2)	100.0 (4)	100.0 (19)	100.0 (18)	100.0 (41)	100.0 (43)	100.0 (15)	100.0 (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44〉 뇌졸중 중풍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0.0	100.0	83.3	88.3	100.0	88.5	94.0	96.5	85.8	89.6
치료 경험 없음	0.0	0.0	16.7	11.7	0.0	11.5	6.0	3.5	14.2	10.4
합계	0.0 (0)	100.0 (2)	100.0 (17)	100.0 (27)	100.0 (12)	100.0 (46)	100.0 (12)	100.0 (19)	100.0 (39)	100.0 (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9) 관절질환 (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무릎관절질환, 발목관절질환 등)

관절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15.1%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주 유형별로는 쪽방주민이 20.1%로 가장 높으며, 이용시설 18.6%, 요양시설 14.6% 순이었다. 반면 자활시설 6.7%, 재활시설 10.9%로 낮은 유병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유병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70세 이상이 27.8%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60대가 14.4%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2.0%로 남성의 12.7%에 비해 약 2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장애 유무에 따른 유병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3-45〉 관절질환 유병실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질병 있음	12.0	18.6	13.5	6.7	10.9	14.6	11.7	12.1	20.1	15.1
질병 없음	88.0	81.4	86.5	93.3	89.1	85.4	88.3	87.9	79.9	84.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46〉 관절질환 유병실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8.6	13.6	11.2	14.7	27.8	12.7	22.0	16.7	14.5	15.1
질병 없음	91.4	86.4	88.8	85.3	72.2	87.3	78.0	83.3	85.5	84.9
합계	100.0 (9)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관절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0.2%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은 90.8%로 가장 높았으며 자활시설 88.1%, 요양시설 86.1% 순이었다. 거리노숙 42.7%, 이용시설 67.1%로 ‘치료 경험 있음’의 비율이 낮았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이 88.9%로 남성의 75.2%보다 약 13%p 높았다. 장애 유무에 따른 치료경험 실태는 장애 있음 78.7%, 장애 없음 80.9%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3-47〉 관절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42.7	67.1	50.3	88.1	90.8	86.1	88.2	80.2	80.3	80.2
치료 경험 없음	57.3	32.9	49.7	11.9	9.2	13.9	11.8	19.8	19.7	19.8
합계	100.0 (31)	100.0 (12)	100.0 (43)	100.0 (12)	100.0 (58)	100.0 (62)	100.0 (132)	100.0 (175)	100.0 (57)	100.0 (2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48〉 관절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43.5	83.3	81.1	76.1	87.8	75.2	88.9	78.7	80.9	80.2
치료 경험 없음	56.5	16.7	18.9	24.0	12.2	24.8	11.1	21.3	19.1	19.8
합계	100.0 (4)	100.0 (25)	100.0 (61)	100.0 (91)	100.0 (51)	100.0 (148)	100.0 (84)	100.0 (72)	100.0 (160)	100.0 (2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0)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분리증, 척추측만증,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11.0%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쪽방주민이 15.5%로 가장 높으며, 이용시설 15.4%, 재활시설 8.9% 순이었다. 반면 거리노숙은 5.3%로 낮은 유병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5.5%로 가장 높았으며 40세 미만도 13.8%로 높은 편이었다. 40~60대 유병 비율이 각각 9.5%, 8.4%, 11.5%로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2.1%로 남성의 10.7%보다 다소 높았으며 장애가 없는 경우 11.7%가 장애가 있는 경우 9.2%보다 다소 높았다.

〈표 4-3-49〉 척추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5.3	15.4	7.7	8.2	8.9	8.2	8.5	8.3	15.5	11.0
질병 없음	94.7	84.6	92.4	91.8	91.1	91.8	91.5	91.7	84.5	89.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50〉 척추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13.8	9.5	8.4	11.5	15.5	10.7	12.1	9.2	11.7	11.0
질병 없음	86.2	90.5	91.6	88.5	84.5	89.3	87.9	90.8	88.3	89.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척추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1.4%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은 88.5%로 가장 높았으며 자활 시설 85.2%, 쪽방주민 83.4% 순이었다. 거리노숙 51.6%, 이용시설 78.0%로 ‘치료 경험 있음’의 비율이 낮았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이 85.0%로 남성의 80.0%보다 약 5%p 높았다. 장애 유무에 따른 치료경험 실태는 장애 있음 75.1%, 장애 없음 83.1%로 장애가 없는 경우의 치료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3-51〉 척추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51.6	78.0	63.8	85.2	88.5	74.3	82.5	79.2	83.4	81.4
치료 경험 없음	48.4	22.1	36.2	14.8	11.8	25.7	17.5	20.8	16.6	18.6
합계	1000 (17)	1000 (10)	1000 (27)	1000 (15)	1000 (45)	1000 (35)	1000 (95)	1000 (122)	1000 (44)	1000 (1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52〉 척추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63.6	79.0	81.9	84.3	81.4	80.0	85.0	75.1	83.1	81.4
치료 경험 없음	36.5	21.0	18.1	15.7	18.7	20.0	15.0	24.9	16.9	18.6
합계	1000 (9)	1000 (16)	1000 (46)	1000 (67)	1000 (28)	1000 (123)	1000 (43)	1000 (38)	1000 (128)	1000 (1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1) 외상 (외상성 내병변, 사지·몸통 골절 등)

외상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1.4%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이용시설이 4.7%로 가장 높으며, 그 외 거처에서는 0.6~2.6%의 분포를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 없이 0.0~2.0%의 분포를 보이며, 성별, 장애 유무에 따른 분포도 1.2~2.0%를 보인다.

〈표 4-3-53〉 외상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0.6	4.7	1.6	1.0	1.3	2.6	1.8	1.7	0.8	1.4
질병 없음	99.4	95.3	98.4	99.0	98.7	97.4	98.2	98.3	99.2	98.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54〉 외상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0	2.0	1.4	1.5	1.0	1.2	2.0	2.0	1.2	1.4
질병 없음	100.0	98.0	98.6	98.5	99.0	98.8	98.0	98.0	98.8	98.6
합계	1000 (9)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외상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96.7%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여 외상에 대한 치료 경험은 타 질병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을 제외하면 외상을 진단받은 모든 응답자는 치료를 받았으며, 요양시설도 91.2%였다. 이와 같이 높은 비율의 치료 경험은 성별 및 장애유무에 따른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94.7~100.0%의 비율을 보였다.

〈표 4-3-55〉 외상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100.0	100.0	100.0	100.0	100.0	91.2	94.9	95.8	100.0	96.7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0.0	0.0	8.8	5.1	4.2	0.0	3.3
합계	100.0 (1)	100.0 (3)	100.0 (4)	100.0 (1)	100.0 (6)	100.0 (12)	100.0 (19)	100.0 (23)	100.0 (3)	100.0 (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56〉 외상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0.0	100.0	100.0	92.3	100.0	94.8	100.0	100.0	94.7	96.7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7.7	0.0	5.2	0.0	0.0	5.3	3.3
합계	0.0 (0)	100.0 (4)	100.0 (7)	100.0 (12)	100.0 (3)	100.0 (17)	100.0 (9)	100.0 (10)	100.0 (16)	100.0 (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2)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신부전, 전립성비대증, 방광·요도염, 질염 등)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5.2%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요양시설이 8.9%로 가장 높으며, 자활시설 5.5%, 이용시설 4.8% 순이었다. 거리노숙은 2.4%로 낮은 유병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7.4%가 다음으로 높아 연령대와 유병현황과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2%로 남성의 4.9%보다 다소 높았다. 장애가 있는 경우 9.1%로 장애가 없는 경우 3.9%보다 높았다.

〈표 4-3-57〉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2.4	4.8	2.9	5.5	4.3	8.9	6.3	5.7	4.4	5.2
질병 없음	97.7	95.2	97.1	94.5	95.7	91.1	93.7	94.3	95.6	94.8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58〉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1.1	7.4	3.1	5.5	8.5	4.9	6.2	9.1	3.9	5.2
질병 없음	98.9	92.6	96.9	94.5	91.5	95.2	93.8	91.0	96.1	94.8
합계	1000 (9)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5.3%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은 응답자 전원(23명)이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거리노숙은 56.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비율이 낮은 거처로 이용시설 72.7%, 쪽방주민 80.3% 순이었다.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73.7%로 가장 낮았으며 성별로는 여성 92.8%보다 남성 82.0%가 낮았다. 장애는 '장애 있음'의 경우가 96.1%인 데 반해 '장애 없음'이 76.5%로 낮은 경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4-3-59〉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56.5	72.7	62.7	68.9	100.0	89.8	90.2	87.5	80.3	85.3
치료 경험 없음	43.5	27.3	37.3	31.1	0.0	10.2	9.8	12.5	19.7	14.8
합계	100.0 (4)	100.0 (3)	100.0 (7)	100.0 (9)	100.0 (23)	100.0 (45)	100.0 (77)	100.0 (84)	100.0 (10)	100.0 (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60〉 비노기계 질환 및 부인과 질환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100.0	84.3	100.0	85.1	73.7	82.0	92.8	96.1	76.5	85.3
치료 경험 없음	0.0	15.7	0	14.9	26.3	18.0	7.2	3.9	23.5	14.8
합계	100.0 (1)	100.0 (9)	100.0 (18)	100.0 (48)	100.0 (18)	100.0 (68)	100.0 (31)	100.0 (43)	100.0 (51)	100.0 (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3) 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2.8%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자활시설이 4.2%로 가장 높으며, 요양시설 3.8%, 쪽방주민 3.0% 순이었다. 거리노숙은 0.4%, 이용시설은 0.0%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3%, 50대 2.9%, 60대 3.0%, 70세 이상이 3.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비율이 높아졌으며, 40세 미만은 ‘질병 있음’ 응답자가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5%로 남성의 2.3%보다 다소 높았다. 장애가 있는 경우 4.1%로 장애가 없는 경우 2.4%보다 높았다.

〈표 4-3-61〉 암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질병 있음	0.4	0.0	0.3	4.2	2.5	3.8	3.3	2.7	3.0	2.8
질병 없음	99.6	100.0	99.7	95.8	97.5	96.2	96.7	97.3	97.0	97.2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62〉 암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0	2.3	2.9	3.0	3.4	2.3	4.5	4.1	2.4	2.8
질병 없음	100.0	97.7	97.1	97.0	96.6	97.8	95.5	95.9	97.6	97.2
합계	1000 (9)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암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95.6%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자활시설과 요양시설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자활시설은 90.1%, 요양시설은 88.1%였다. 연령대는 50대가 100.0%였으며 40대가 86.9%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100.0%, 여성은 89.2%, 장애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95.6%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4-3-63〉 암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100.0	0.0	100.0	90.1	100.0	88.1	92.6	92.8	100.0	95.6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9.9	0.0	11.9	7.4	7.2	0.0	4.4
합계	100.0 (2)	100.0 (0)	100.0 (2)	100.0 (7)	100.0 (12)	100.0 (17)	100.0 (36)	100.0 (38)	100.0 (7)	100.0 (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64〉 암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0.0	86.9	100.0	96.1	90.8	100.0	89.2	95.6	95.6	95.6
치료 경험 없음	0.0	13.1	0.0	3.9	9.2	0.0	10.8	4.4	4.4	4.4
합계	0.0 (0)	100.0 (2)	100.0 (14)	100.0 (20)	100.0 (9)	100.0 (28)	100.0 (17)	100.0 (18)	100.0 (27)	100.0 (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4) 피부병 (곰팡이성 피부염, 세균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

피부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4.3%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자활시설이 6.3%로 가장 높으며, 이용시설 5.9%, 요양시설 4.6% 순이었다. 거리노숙은 3.4%, 재활시설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2.4%로 가장 낮은 등, 대체로 연령대의 역순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8%로 여성의 2.9%보다 높았으며 ‘장애 있음’의 경우가 6.3%로 ‘장애 없음’의 경우의 3.7%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4-3-65〉 피부병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3.4	5.9	4.0	6.3	3.7	4.6	4.5	4.4	4.3	4.3
질병 없음	96.6	94.1	96.0	93.7	96.3	95.4	95.5	95.6	95.7	95.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66〉 피부병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8.5	7.6	2.8	4.9	2.4	4.8	2.9	6.3	3.7	4.3
질병 없음	91.5	92.4	97.2	95.1	97.6	95.2	97.1	93.8	96.3	95.7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피부병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86.4%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은 100.0%로 '질병 있음' 응답자 모두가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쪽방은 93.4%, 자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각각 88.6%, 85.1%였다. 반면 거리노숙은 43.8%, 이용시설은 27.8%를 나타내어 매우 낮은 응답비율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63.4%로 가장 낮은 치료경험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 50대의 72.3%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을 나타냈다. 남성 86.5%, 여성 86.2%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가 95.9%로 없는 경우의 80.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표 4-3-67〉 피부병 치료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43.8	27.8	38.3	88.6	100.0	85.1	91.5	82.4	93.4	86.4
치료 경험 없음	56.3	72.2	61.7	11.4	0.0	14.9	8.5	17.7	6.6	13.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68〉 피부병 치료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90.6	100.0	72.3	90.7	63.4	86.5	86.2	95.9	80.8	86.4
치료 경험 없음	9.4	0.0	27.7	9.3	36.6	13.5	13.8	4.1	19.2	13.6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6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5) 기타 감염병 (음, 사면발이, 성병 등)

음, 사면발이, 성병 등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0.1%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요양시설의 0.7%를 제외하면 모든 거처에서 '질병 있음' 응답자는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및 60대에 각각 0.2% 응답자가 있었으며, 성별은 여성 0.5%이고 남성은 없었다. 장애 유무로는 0.5% 모두 장애가 있는 응답자였다.

〈표 4-3-69〉 기타 감염병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0.0	0.0	0.0	0.0	0.0	0.7	0.3	0.2	0.0	0.1
질병 없음	100.0	100.0	100.0	100.0	100.0	99.4	99.7	99.8	100.0	99.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70〉 기타 감염병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0	0.0	0.2	0.2	0.0	0.0	0.5	0.5	0.0	0.1
질병 없음	100.0	100.0	99.8	99.8	100.0	100.0	99.5	99.5	100.0	99.9
합계	1000 (9)	1000 (20)	1000 (53)	1000 (66)	1000 (21)	1000 (126)	1000 (43)	1000 (47)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음, 사면발이, 성병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수가 적긴 하지만 모두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4-3-71〉 기타 감염병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0.0	100.0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2)	1000 (2)	1000 (2)	00 (0)	1000 (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72〉 기타 감염병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0.0	0.0	100.0	100.0	0.0	0.0	100.0	0.0	100.0	100.0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00	00	1000	1000	00	00	1000	00	1000	1000
	(0)	(0)	(1)	(1)	(0)	(0)	(2)	(0)	(2)	(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6) 눈코목귀질환

눈코목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6.0%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이용시설이 14.2%로 가장 높으며, 요양시설 10.1%, 자활시설 9.2% 순이었다. 거리노숙은 3.6%, 재활시설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70세 이상이 7.3%로 대체로 연령대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5.5%로 여성의 7.4%보다 높았으며 ‘장애 있음’의 경우가 7.0%로 ‘장애 없음’의 경우의 5.6%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4-3-73〉 눈코목귀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3.6	14.2	6.1	9.2	3.7	10.1	7.0	6.9	4.5	6.0
질병 없음	96.4	85.8	94.0	90.8	96.3	89.9	93.0	93.1	95.5	9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	(59)	(312)	(171)	(517)	(450)	(1,138)	(1,450)	(25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74〉 눈코목귀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3.1	3.1	4.7	7.7	7.3	5.5	7.4	7.0	5.6	6.0
질병 없음	96.9	96.9	95.3	92.3	92.8	94.5	92.6	93.1	94.4	94.0
합계	1000 (9)	1000 (20)	1000 (53)	1000 (66)	1000 (21)	1000 (126)	1000 (43)	1000 (47)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눈코목귀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78.4%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자활시설은 100.0%로 ‘질병 있음’ 응답자 모두가 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은 94.6%, 쪽방주민은 81.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거리노숙은 12.0%로 매우 낮았으며, 이용시설도 63.7%였다. 거리노숙과 이용시설은 응답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0세 미만과 40대는 100.0%로 응답자 전원이 치료경험이 있었으며, 50대 73.2%, 60대 73.2%, 70세 이상 82.8%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5.6%로 남성의 75.1%보다 약 10%p 높았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가 81.6%로 없는 경우의 77.0%보다 다소 높았다.

〈표 4-3-75〉 눈코목귀질환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12.0	63.7	39.8	100.0	94.6	75.2	84.7	77.2	81.4	78.4
치료 경험 없음	88.0	36.3	60.2	0.0	5.4	24.8	15.3	22.8	18.7	21.7
합계	1000 (7)	1000 (9)	1000 (16)	1000 (16)	1000 (20)	1000 (44)	1000 (80)	1000 (9)	1000 (13)	1000 (1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76〉 눈코목귀질환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1000	1000	78.4	73.2	82.8	75.1	85.6	81.6	77.0	78.4
치료 경험 없음	0.0	0.0	21.6	26.8	17.2	24.9	14.5	18.4	23.1	21.7
합계	1000 (3)	1000 (6)	1000 (27)	1000 (52)	1000 (21)	1000 (75)	1000 (34)	1000 (35)	1000 (74)	1000 (1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7) 치과질환

치과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11.8%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이용시설이 26.9%, 재활시설이 16.0%로 가장 높으며, 그 외 거처에서는 8.3%~12.5%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7~12.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과 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표 4-3-77〉 치과질환 유병상태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폭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10.2	26.9	14.1	16.0	8.3	12.5	11.2	11.7	12.0	11.8
질병 없음	89.8	73.1	86.0	84.0	91.7	87.5	88.8	88.3	88.0	88.2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78〉 치과질환 유병상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12.3	12.3	10.7	12.8	11.0	12.5	9.9	10.1	12.4	11.8
질병 없음	87.7	87.7	89.3	87.2	89.0	87.6	90.1	89.9	87.6	88.2
합계	1000 (9)	1000 (20)	1000 (53)	1000 (66)	1000 (21)	1000 (12)	1000 (43)	1000 (47)	1000 (1,22)	1000 (1,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치과질환에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전체 61.3%가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재활시설은 82.4%로 가장 높았으며 자활 시설 67.8%, 쪽방주민 63.0%였다. 거리노숙은 18.8%로 매우 낮았으며, 이용시설 48.6%, 요양시설 58.2% 순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81.7%였으며 60대 이하는 56.7~63.1%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79.3%로 남성의 59.4%보다 약 20%p 높았다. 장애유무에 따른 치료 경험여부는 '장애 있음'이 74.7%로 '장애 없음' 57.5%보다 약 17%p 높았다.

〈표 4-3-79〉 치과질환 치료경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18.8	48.6	31.9	67.8	82.4	58.2	68.5	60.2	63.0	61.3
치료 경험 없음	81.2	51.4	68.1	32.2	17.6	41.8	31.5	39.8	37.0	38.7
합계	1000 (28)	1000 (17)	1000 (45)	1000 (26)	1000 (45)	1000 (52)	1000 (123)	1000 (168)	1000 (35)	1000 (2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80〉 치과질환 치료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63.1	59.3	56.7	58.0	81.7	59.4	79.3	74.7	57.5	61.3
치료 경험 없음	36.9	40.8	43.3	42.0	18.3	43.6	20.7	25.3	42.5	3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27)	(59)	(84)	(26)	(159)	(44)	(47)	(156)	(2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0.2%가 ‘질병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거주 유형별로 요양시설 1명과 쪽방주민 1명의 응답자가 코로나 19 유병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50대 1인, 70세 이상 1인이며, 모두 남성이며 장애 유무별로 각 1인이었다.

〈표 4-3-81〉 코로나19 유병현황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질병 있음	0.0	0.0	0.0	0.0	0.0	0.2	0.1	0.1	0.4	0.2
질병 없음	100.0	100.0	100.0	100.0	100.0	99.8	99.9	99.9	99.7	9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	(59)	(312)	(171)	(517)	(450)	(1,138)	(1,450)	(25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82〉 코로나19 유병현황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질병 있음	0.0	0.0	0.4	0.0	0.3	0.2	0.0	0.2	0.2	0.2
질병 없음	100.0	100.0	99.6	100.0	99.7	99.8	100.0	99.8	99.8	99.8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2명 모두 '치료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4-3-83〉 코로나19 치료유무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치료 경험 있음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0.0 (0)	0.0 (0)	0.0 (0)	0.0 (0)	0.0 (0)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84〉 코로나19 치료유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치료 경험 있음	0.0	0.0	100.0	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치료 경험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0.0 (0)	0.0 (0)	100.0 (1)	0.0 (0)	100.0 (1)	100.0 (2)	0.0 (0)	100.0 (1)	100.0 (1)	100.0 (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9) 기타 질환

그 외 기타 질환으로 변비, 갑상선질환, 빈혈 등이 진단 받은 질병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질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3-85〉 기타 질환 유병비율 및 치료여부

(단위: 명, %)

질병	응답비율 (가중치 적용)	치료 여부	응답자 수
만성두통	0.1	100.0	2
갑상선질환	0.2	100.0	4
하지정맥류	0.1	0.0	1
통풍	0.1	100.0	2
감기	0.0	100.0	1
빈혈	0.1	59.8	3
변비	0.4	100.0	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나.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 및 치료 경험이 적은 질환

1)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 5개를 살펴보면, 전체 노숙인 등에서는 대사성질환이 37.6%로 유병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 정신질환 22.5%, 관절질환 15.1%, 치과질환 11.8%, 척추질환 11.0% 순이었다.

거처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대사성질환이 가장 높은 유병비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은 거리노숙, 재활시설, 요양시설은 정신질환, 이용시설과 자활시설은 치과질환, 쪽방주민은 관절질환이었다. 세 번째로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은 거리노숙, 이용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이 관절질환, 자활시설이 정신질환, 쪽방주민이 척추질환이었다.

〈표 4-3-86〉 유병비율 상위 5개 질환 (거처유형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	대사성 질환 (15.0)	대사성 질환 (38.6)	대사성 질환 (20.4)	대사성 질환 (36.4)	대사성 질환 (41.7)	대사성 질환 (43.4)	대사성 질환 (37.6)
2	정신질환 (12.6)	치과질환 (26.9)	치과질환 (16.0)	정신질환 (31.6)	정신질환 (42.1)	관절질환 (20.1)	정신질환 (22.5)
3	관절질환 (12.0)	관절질환 (18.6)	정신질환 (10.3)	관절질환 (10.9)	관절질환 (14.6)	척추질환 (15.5)	관절질환 (15.1)
4	치과질환 (10.2)	척추질환 (15.4)	눈코목귀 질환 (6.1)	척추질환 (8.9)	치과질환 (12.5)	정신질환 (12.3)	치과질환 (11.8)
5	척추질환 (5.3)	눈코목귀 질환 (14.2)	척추질환 (7.7)	위장관질 환 (8.5)	눈코목귀 질환 (10.1)	치과질환 (12.0)	척추질환 (11.0)
평균 유병비율	4.4	8.6	6.4	7.8	10.2	8.6	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 별로 유병비율 상위 5개 질환을 살펴보면, 전 연령 구간에서 대사성질환이 가장 높았으나,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높다. 성별로는 여성은 정신질환, 남성은 대사성 질환, 장애 유무별로는 장애 있는 응답자는 정신질환, 장애 없는 응답자는 대사성 질환이 가장 높았다. 젊은 연령대와 여성이 정신질환 비율이 높다는 점은, 노숙 예방과 대응에서 정신건강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표 4-3-87〉 유병비율 상위 5개 질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	정신 질환 (36.6)	대사성 질환 (30.4)	대사성 질환 (31.4)	대사성 질환 (44.0)	대사성 질환 (46.7)	대사성 질환 (36.6)	정신 질환 (42.1)	정신 질환 (37.9)	대사성 질환 (37.8)
2	대사성 질환 (15.2)	정신 질환 (29.1)	정신 질환 (22.3)	정신 질환 (21.2)	관절 질환 (27.8)	정신 질환 (15.8)	대사성 질환 (40.3)	대사성 질환 (37.1)	정신 질환 (17.1)
3	척추 질환 (13.8)	관절 질환 (13.6)	관절 질환 (11.2)	관절 질환 (14.7)	정신 질환 (16.9)	관절 질환 (12.7)	관절 질환 (22.0)	관절 질환 (16.7)	관절 질환 (14.5)
4	치과 질환 (12.3)	치과 질환 (12.3)	치과 질환 (10.7)	치과 질환 (12.8)	척추 질환 (15.5)	치과 질환 (12.5)	척추 질환 (12.1)	치과 질환 (10.1)	치과 질환 (12.4)
5	관절 질환 (8.6)	척추 질환 (9.5)	척추 질환 (8.4)	척추 질환 (11.5)	치과 질환 (11.0)	척추 질환 (10.7)	치과 질환 (9.9)	위장관 질환 (9.6)	척추 질환 (11.7)
평균 유병 비율	6.4	8.0	6.8	9.0	9.8	7.6	9.9	9.8	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치료 경험이 적은 질환

다음은 치료 경험이 적은 질환을 살펴본다. ‘질병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치료 경험 유무를 물어보았을 때 ‘치료 경험 있음’의 비율이 낮은 질환 상위 5개를 살펴보았다.

노숙인 등 전체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치료 경험을 나타내는 질환은 치과질환으로 전체 평균 61.3%이다. 눈코목귀질환 78.4%, 관절질환 80.2%, 척추질환 81.4%, 간장질환 85.0% 순이다.

거처 유형별로 평균 치료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거리노숙 60.7%, 이용시설 57.6%로, 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응답자가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생활시설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은 각각 84.4%, 95.3%, 85.3%로 재활시설 생활인의 치료 경험이 가장 높다. 쪽방주민은 88.1%를 나타내었다.

거처 유형별 ‘치료 경험 있음’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질환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은 눈코목귀질환 12.0%, 이용시설은 피부병 27.8%, 자활시설은 심장질환 63.1%, 재활시

설 및 요양시설, 쪽방시설은 모두 치과질환으로 각각 82.4%, 58.2%, 63.0%를 나타내었다. 그 외 ‘치료 경험 있음’의 비율이 낮은 질환으로는 거리는 치과질환 18.8% 및 정신질환 27.4%, 이용시설은 치과질환 48.6% 및 위장관 질환 53.5%, 자활시설은 치과질환 67.8% 및 비노기계 및 부인과 68.9%, 재활시설은 척추질환 88.5%, 관절질환 90.8%, 요양시설은 호흡기질환 59.8% 및 척추질환 74.3%, 쪽방주민은 비노기계 및 부인과 80.3% 및 관절질환 80.3%를 나타내었다.

〈표 4-3-88〉 치료경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질환 (거처유형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	눈코목귀 질환 (12.0)	피부병 (27.8)	심장질환 (63.1)	치과질환 (82.4)	치과질환 (58.2)	치과질환 (63.0)	치과질환 (61.3)
2	치과질환 (18.8)	치과질환 (48.6)	치과질환 (67.8)	척추질환 (88.5)	호흡기질환 (59.8)	비노기계 및 부인과 (80.3)	눈코목귀질환 (78.4)
3	정신질환 (27.4)	위장관질환 (53.5)	비노기계 및 부인과 (68.9)	관절질환 (90.8)	척추질환 (74.3)	관절질환 (80.3)	관절질환 (80.2)
4	관절질환 (42.7)	정신질환 (60.0)	뇌졸중 증후 (72.9)	간장질환 (91.5)	눈코목귀질환 (75.2)	눈코목귀질환 (81.4)	척추질환 (81.4)
5	피부병 (43.8)	눈코목귀질환 (63.7)	신경계질환 (80.8)	위장관질환 (93.0)	간장질환 (82.4)	신경계질환 (82.8)	간장질환 (85.0)
평균 치료 경험 비율	60.7	57.6	84.4	95.3	85.3	88.1	8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 성별 및 장애에 따라 평균 치료경험 비율을 살펴본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이 가장 낮은 79.5%를 나타내며 40대가 91.1%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는 모두 80%대이다. 성별은 여성이 91.7%로 남성의 85.6%보다 높다. 장애 유무별로는 장애가 있는 경우가 90.0%로 장애가 없는 경우 85.9%보다 약 5%p 높다.

연령별 치료 경험이 가장 낮은 질환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은 관절질환 43.5%였으며 40~60대는 치과질환으로 각각 59.3%, 56.7%, 58.0%, 70세 이상은 피부병 63.4%였다.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치과질환으로 각각 59.4%, 79.3%였다. 장애별

로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치과질환으로 각각 74.7%, 57.5%였다.

〈표 4-3-89〉 치료경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질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	관절 질환 (43.5)	치과 질환 (59.3)	치과 질환 (56.7)	치과 질환 (58.0)	피부병 (63.4)	치과 질환 (59.4)	치과 질환 (79.3)	치과 질환 (74.7)	치과 질환 (57.5)
2	치과 질환 (63.1)	척추 질환 (79.0)	피부병 (72.3)	눈코목 귀질환 (73.2)	비뇨기계 및 부인과 질환 (73.7)	눈코목 귀질환 (75.1)	척추 질환 (85.0)	척추 질환 (75.1)	비뇨기계 및 부인과 질환 (76.5)
3	척추 질환 (63.6)	관절 질환 (83.3)	간장 질환 (74.2)	관절 질환 (76.1)	정신 질환 (80.5)	관절 질환 (75.2)	눈코목 귀질환 (85.6)	간장 질환 (77.9)	눈코목 귀질환 (77.0)
4	정신 질환 (85.3)	비뇨기계 및 부인과 질환 (84.3)	신경계 질환 (77.3)	호흡기 질환 (78.5)	척추 질환 (81.4)	척추 질환 (80.0)	피부병 (86.2)	관절 질환 (78.7)	피부병 (80.8)
5	피부병 (90.6)	위장관 질환 (85.5)	눈코목 귀질환 (78.4)	간장 질환 (80.4)	치과 질환 (81.7)	비뇨기계 및 부인과 질환 (82.0)	관절 질환 (88.9)	눈코목 귀질환 (77.0)	관절 질환 (80.9)
평균 유병 비율	79.5	91.1	86.2	86.0	88.8	85.6	91.7	90.0	8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3. 의료서비스 이용

가. 몸이 아플 때 대처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숙인 등 전체의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은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로 25.9%, ‘개인병 의원진료’ 25.1%, ‘국공립병원 진료’ 13.9% 순이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노숙인 등 전체에서는 9.4%였으나 거리노숙인 42.6%,

이용시설 20.5%로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에 대한 소계 비율은 37.5%였다. 이 비율은 2016년도 조사의 31.0%에 비해 6.5%p 높은 비율이다. 생활시설은 각각 1.1~6.6%의 분포를 보이며 소계 3.1%를 나타낸다. 쪽방주민은 9.1%이다. 이는 2016년도 조사의 3.9%, 14.1%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이태진 외, 2017, p.244).

〈표 4-3-90〉 몸이 아플 때 대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42.6	20.5	37.5	6.6	3.6	1.1	3.1	9.6	9.1	9.4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7.2	8.2	7.4	29.6	54.5	42.3	45.9	38.6	4.6	25.9
무료진료소 진료	15.4	26.6	17.9	7.0	12.8	5.7	9.1	10.8	6.8	9.3
약국처방	17.3	7.0	15.0	7.0	1.4	0.2	1.8	4.3	7.3	5.4
보건소 진료	0.2	3.5	1.0	1.1	0.2	0.2	0.3	0.5	1.2	0.7
개인병의원 진료	12.4	10.9	12.0	15.2	15.1	18.5	16.5	15.6	41.0	25.1
국공립병원 진료	2.0	18.0	5.7	31.9	5.4	14.4	13.0	11.6	17.9	13.9
종합병원 진료	0.0	5.4	1.2	1.1	7.0	17.6	10.3	8.6	11.7	9.7
기타	2.9	0.0	2.2	0.5	0.0	0.0	0.1	0.5	0.6	0.5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의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은 12.8%이며, 70세 이상이 2.8%로 가장 낮다. 성별로는 남성이 10.7%로 여성의 5.6%보다 약 5.1%p 높으며 장애가 없는 경우가 11.6%로 장애가 있는 경우 3.1%에 비해 8.5%를 나타내었다.

〈표 4-3-91〉 몸이 아플 때 대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9.5	10.7	12.8	8.7	2.8	10.7	5.6	3.1	11.6	9.4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28.3	21.3	24.7	29.1	22.4	22.8	34.9	36.8	22.1	25.9
무료진료소 진료	3.7	8.2	12.0	9.5	5.6	9.3	9.1	10.0	9.1	9.3
약국처방	6.3	5.0	6.5	4.9	4.4	6.9	1.1	2.5	6.4	5.4
보건소 진료	0.9	0.9	0.1	1.0	1.3	0.9	0.2	1.2	0.6	0.7
개인병의원 진료	28.2	29.4	24.0	22.3	31.0	24.2	27.9	22.2	26.2	25.1
국공립병원 진료	14.8	14.9	13.3	12.9	17.2	14.5	12.3	10.4	15.1	13.9
종합병원 진료	7.9	9.4	6.3	11.4	13.8	10.1	8.7	13.1	8.6	9.7
기타	0.5	0.4	0.4	0.3	1.6	0.7	0.2	0.9	0.4	0.5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문4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및 ‘노숙인 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로 응답한 사람에 한하여 몸이 아플 때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가 45.9%였다. 다음이 ‘병원비 때문에’ 32.6%였다. 2016년도에는 ‘병원비 때문에’가 72.6%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가 12.6%로 ‘병원비 때문에’가 큰 폭으로 줄고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이태진 외, 2017, p.245).

거처 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은 ‘병원비 때문에’ 응답비율이 85.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용시설은 ‘병원비 때문에’가 69.3%였으며, 기타가 25.4%였다. 자활시설은 ‘병원비’가 56.2%,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69.2%, 66.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쪽방주민은 ‘병원비 때문에’가 47.0%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응답 비율은 노숙인 등 전체에서 3.4%였으며, 재활시설이 6.5%로 가장 높았다.

〈표 4-3-92〉 몸이 아픈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병원비 때문에	85.3	69.3	82.9	56.2	15.9	8.9	18.3	30.1	47.0	32.6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4.5	5.3	4.7	21.9	69.2	66.8	63.0	52.3	9.7	45.9
병원이 멀리 있 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6	0.0	2.2	2.0	2.2	13.2	5.7	5.1	15.4	6.6
건강보험이 체납 되어서	1.4	0.0	1.2	2.0	0.3	0.0	0.4	0.5	1.7	0.7
병원에서 차별을 해서	4.1	0.0	3.5	6.2	0.0	0.6	0.9	1.4	14.6	3.4
코로나19로 인해 서 공공병원을 이 용할 수 없어서	1.4	0.0	1.2	1.7	6.5	0.7	4.1	3.5	2.6	3.4
기타	0.8	25.4	4.4	10.0	5.9	9.7	7.6	7.0	9.0	7.3
합계	100.0 (138)	100.0 (18)	100.0 (156)	100.0 (64)	100.0 (295)	100.0 (163)	100.0 (522)	100.0 (678)	100.0 (34)	100.0 (7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병원비 때문에’의 응답비율은 40대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37.9%, 여성이 18.5%로 남성이 약 2배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의 비율이 높아지며, 남성보다 여성이, 장애 없음보다 장애 있음이 높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병원비’ 지원 뿐 아니라 병원까지 함께 동행하고 간병까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3-93〉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병원비 때문에	35.0	48.9	34.0	28.1	29.5	37.9	18.5	15.0	39.9	32.6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었 서	32.3	28.6	45.0	49.6	57.5	41.2	58.6	63.0	38.9	45.9
병원이 멀리 있 어 오래 걸리기 때문에	6.9	6.5	9.3	5.9	1.4	5.0	11.1	10.3	5.2	6.6
건강보험이 체납 되어서	6.9	1.6		0.4		0.4	1.5		1.0	0.7
병원에서 차별을 해서	6.9		4.8	3.5		4.4	0.5		4.8	3.4
코로나19로 인 해서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 서	5.4	4.9	4.9	2.1	1.4	3.9	2.1	4.1	3.1	3.4
기타	6.5	9.4	2.1	10.3	10.2	7.1	7.7	7.6	7.2	7.3
합계	100.0 (41)	100.0 (81)	100.0 (242)	100.0 (281)	100.0 (67)	100.0 (526)	100.0 (186)	100.0 (217)	100.0 (495)	100.0 (7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나.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및 병원 입원 횟수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및 병원 입원 횟수를 물어보았다.

먼저 응급실 이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4.9%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자활시설이 8.7%로 가장 높고 거리가 6.1%, 쪽방주민 5.1%였다.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4.9%, 2.7%였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이용 횟수를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 1.6회 이용하였으며, 이용시설이 평균 3.7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거처 유형은 대체로 1~2회 사이였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및 40대가 가장 높은 7.4%, 8.2%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3%로 여성 3.8%보다 다소 높았으며 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는 4.8%, 5.0%로 거의 없었다.

〈표 4-3-94〉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있음	6.1	4.4	5.8	8.7	4.9	2.7	4.6	4.9	5.1	4.9
없음	93.2	95.6	93.8	91.3	95.0	97.0	95.2	95.0	94.3	94.7
응답거부	0.6	0.0	0.5	0.0	0.2	0.2	0.2	0.2	0.6	0.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평균 횟수	1.1	3.7	1.6	1.3	1.2	1.4	1.3	1.4	1.9	1.6
표준편차	0.8	2.2	1.4	0.7	0.5	.9	0.7	0.9	1.3	1.1
응답자 수	13	3	16	14	25	13	52	68	12	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95〉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음	7.5	8.2	4.7	4.2	4.0	5.3	3.8	4.8	5.0	4.9
없음	92.5	91.8	95.3	94.8	96.0	94.3	95.8	94.9	94.6	94.7
응답거부	0.0	0.0	0.0	1.0	0.0	0.4	0.3	0.3	0.4	0.4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평균 횟수	1.4	2.6	1.2	1.4	1.4	1.6	1.2	2.1	1.4	1.6
표준편차	0.9	1.6	0.5	1.0	1.0	1.2	0.4	1.6	0.8	1.1
응답자 수	6	11	26	28	9	64	16	19	61	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지난 1년 동안 병원 입원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9.7%가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처 유형별로는 재활시설이 11.8%로 가장 높고 쪽방주민 10.7%, 자활시설 9.0% 순이었다. 입원 횟수는 평균 2.4회이며, 쪽방주민이 평균 2.8회로 가장 입원 횟수가 많았으며, 이용시설이 1.0회로 가장 적었다. 그 외 거처 유형은 대체로 1~2회 사이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회로 입원횟수가 가장 잦았으며, 60대 2.4회, 70세 이상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2.8회로 남성 2.3회보다 많았으며, 장애가 있는 경우가 3.0회

로 없는 경우 2.1회보다 잦았다.

〈표 4-3-96〉 지난 1년 동안 입원 횟수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폭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있음	5.3	4.1	5.0	9.0	11.8	8.5	10.1	9.1	10.7	9.7
없음	94.8	95.9	95.0	91.0	88.2	91.2	89.8	90.8	88.6	90.0
응답거부	0.0	0.0	0.0	0.0	0.0	0.2	0.1	0.1	0.6	0.3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평균 횟수	2.0	1.0	1.8	1.6	2.5	1.8	2.1	2.1	2.8	2.4
표준편차	2.3	0.0	2.1	1.9	2.6	1.9	2.3	2.3	2.8	2.5
응답자 수	15	3	18	16	60	39	115	133	25	1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3-97〉 지난 1년 동안 입원 횟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명,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음	7.5	8.2	4.7	4.2	4.0	5.3	3.8	4.8	5.0	4.9
없음	92.5	91.8	95.3	94.8	96.0	94.3	95.8	94.9	94.6	94.7
응답거부	0.0	0.0	0.0	1.0	0.0	0.4	0.3	0.3	0.4	0.4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평균 횟수	1.0	4.3	1.5	2.4	2.9	2.3	2.8	3.0	2.1	2.4
표준편차	0.0	2.7	1.7	2.4	3.2	2.4	2.9	2.9	2.3	2.5
응답자 수	6	13	44	72	23	122	36	47	111	1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4절 주거

1. 거리노숙 경험

노숙인 등의 거리노숙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¹⁴⁾를 보면, 생활시설 입소자 중 거리노숙 경험 비율은 28.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자활시설 입소자가 42.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재활시설(31.0%), 요양시설(20.6%) 순으로 나타났다. 쪽방 주민 중 37.9%가 거리노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거리노숙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의 경우 48.9%가 거리노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15.8%로 나타나 연령간 거리노숙 경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을 기준으로 거리노숙을 경험한 비율에서 남성(39.7%)이 여성(13.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장애가 없을 경우 거리노숙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거리노숙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있다	-	-	-	42.4	31.0	20.6	28.6	28.6	37.9	32.6
없다	-	-	-	57.6	69.0	79.4	71.4	71.4	62.2	67.5
합계	-	-	-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138)	100.0 (250)	100.0 (1,388)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다	48.9	45.2	38.9	29.1	15.8	39.7	13.5	22.6	36.5	32.6
없다	51.1	54.8	61.1	70.9	84.2	60.3	86.5	77.4	63.5	67.5
합계	100.0 (72)	100.0 (157)	100.0 (404)	100.0 (553)	100.0 (202)	100.0 (980)	100.0 (408)	100.0 (455)	100.0 (933)	100.0 (1,3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14) 조사시점에 거리노숙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이용시설(일시보호/종합지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거리노숙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음.

다음으로 거리노숙 경험이 있는 노숙인 등¹⁵⁾을 대상으로 처음 경험한 시기를 조사하였다(〈표 4-4-2〉).

거처유형별로 분석해 볼 때, 노숙인 등 전체를 기준으로 2017년 이후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7.5%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조사시점 6개월 이내(2021년)에 노숙을 시작한 노숙인이 6.5%로 2016년 조사에서 1년 이내 비율인 21.7%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0년에 거리노숙을 시작한 거리노숙인 비율은 11.8%이며,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활시설의 경우 2020년에 거리노숙을 시작한 비율은 9.4%로 나타나 거리노숙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활시설 입소자의 19.0%가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재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비해 2020년에 거리노숙을 시작한 비율이 높았다.

쪽방주민의 경우 2020년 이후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비율이 4.4%로 2018년, 2019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거리노숙인과 생활시설 입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경과 연수로 나타내면 〈표 4-4-3〉과 같다. 노숙인 등의 약 절반은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해로부터 10년이 넘었다.

15) 조사시점에 거리노숙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이용시설(일시보호/종합지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포함

〈표 4-4-2〉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연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1990년 이전	2.3	7.0	3.4	0.0	11.2	7.2	7.5	5.7	14.8	8.9
1990~1999	8.7	8.2	8.6	7.6	13.7	12.3	11.9	10.4	15.2	12.1
2000~2004	6.8	7.7	7.0	15.2	11.0	20.9	14.8	11.3	13.1	11.9
2005~2009	12.1	19.9	13.9	9.0	10.7	15.2	11.6	12.6	8.3	11.1
2010~2014	14.6	13.4	14.3	13.5	16.5	19.1	16.6	15.6	19.4	16.9
2015	3.6	0.0	2.8	6.1	3.6	4.5	4.4	3.7	3.4	3.6
2016	12.2	1.8	9.8	7.0	1.9	5.8	4.2	6.7	6.7	6.7
2017	3.9	3.4	3.8	5.3	4.3	7.0	5.3	4.6	4.1	4.5
2018	10.0	3.3	8.4	5.5	9.4	2.7	6.6	7.4	5.0	6.6
2019	9.8	10.0	9.9	9.6	9.6	1.1	7.2	8.4	5.8	7.5
2020	13.4	6.2	11.8	19.0	8.2	4.1	9.4	10.5	1.9	7.5
2021	2.7	19.2	6.5	2.2	0.0	0.0	0.5	3.2	2.5	2.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71)	100.0 (158)	100.0 (102)	100.0 (331)	100.0 (643)	100.0 (84)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4-3〉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경과 연수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1년 미만	10.7	20.4	12.9	11.0	3.9	0.0	4.3	8.2	3.4	6.5
1년 이상 2년 미만	8.8	6.9	8.4	17.1	6.9	4.1	8.4	8.4	5.2	7.3
2년 이상 5년 미만	25.0	14.8	22.7	18.9	21.4	15.7	19.2	20.8	13.0	18.1
5년 이상 10년 미만	19.2	13.5	17.9	21.3	12.9	19.7	16.7	17.3	17.3	17.3
10년 이상 20년 미만	21.6	26.0	22.6	11.4	24.1	29.8	22.9	22.8	22.8	22.8
20년 이상	14.7	18.3	15.5	20.4	30.9	30.8	28.5	22.7	38.2	28.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71)	100.0 (158)	100.0 (102)	100.0 (331)	100.0 (643)	100.0 (84)	100.0 (727)

주: 기준은 면접조사 시점(2021년 6월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한편, 2021년 기준으로 40대와 50대가 40세 미만보다 거리노숙을 처음 시작한 비율이 높았다. 2018년~2020년 3년 기준으로는 40세 미만의 경우 거리노숙을 처음 시작한 비율(47.7%)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여성(13.8%)이 남성(10.0%)보다 거리노숙을 처음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거리노숙을 처음 시작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여성이 거리노숙 경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최근에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없는 노숙인이 장애가 있는 노숙인에 비해 최근 4년간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4〉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연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990년 이전	0.0	4.8	7.7	10.5	23.6	8.6	10.8	17.9	7.2	8.9
1990~1999	0.0	3.8	14.0	12.9	26.2	11.8	14.4	18.4	10.9	12.1
2000~2004	1.6	16.5	8.8	17.2	2.5	10.7	21.9	14.6	11.4	11.9
2005~2009	8.8	16.9	9.3	12.1	6.1	11.3	9.8	13.2	10.7	11.1
2010~2014	32.8	20.0	17.6	12.9	12.5	17.5	11.8	18.7	16.6	16.9
2015	2.1	2.3	3.4	5.0	1.7	3.7	2.4	1.4	4.0	3.6
2016	3.1	2.0	11.1	4.0	9.1	7.0	3.9	3.0	7.4	6.7
2017	1.7	1.1	3.8	7.2	3.3	4.9	1.0	5.4	4.3	4.5
2018	14.2	10.0	7.5	3.8	1.7	6.6	6.2	0.3	7.8	6.6
2019	13.9	7.8	7.7	6.1	6.8	7.9	4.1	3.9	8.2	7.5
2020	19.6	10.4	4.4	7.8	4.9	7.1	10.7	3.3	8.2	7.5
2021	2.3	4.5	4.8	0.7	1.7	2.9	3.1	0.0	3.5	2.9
합계	100.0 (49)	100.0 (117)	100.0 (266)	100.0 (250)	100.0 (45)	100.0 (632)	100.0 (95)	100.0 (114)	100.0 (623)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4-5〉 거리노숙 처음 경험한 경과 연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년 미만	15.7	7.4	7.5	3.6	5.6	6.2	9.2	0.5	7.6	6.5
1년 이상 2년 미만	11.3	8.2	5.7	8.5	3.5	7.6	4.6	2.8	8.1	7.3
2년 이상 5년 미만	25.1	20.3	20.0	14.7	13.7	18.8	12.3	10.5	19.5	18.1
5년 이상 10년 미만	25.6	15.9	19.7	14.6	13.4	17.6	14.6	15.0	17.7	17.3
10년 이상 20년 미만	20.8	31.9	20.3	24.3	11.7	23.4	17.5	24.6	22.4	22.8
20년 이상	1.6	16.3	26.9	34.4	52.3	26.5	41.8	46.6	24.7	28.1
합계	100.0 (49)	100.0 (117)	100.0 (266)	100.0 (250)	100.0 (45)	100.0 (632)	100.0 (95)	100.0 (114)	100.0 (623)	100.0 (727)

주: 기준은 면접조사 시점(2021년 6월말)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 계기는 주요한 노숙 원인뿐만 아니라 가장 열악한 주거상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 문제를 이해하고 노숙인의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본 조사에서는 거리노숙 경험이 있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거리노숙 계기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거처유형별로 거리노숙 계기 1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노숙인 전체 기준으로 실직(37.3%)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업실패,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직, 사업실패, 신용불량 혹은 파산,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지 상실 등 경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의 응답을 합하면 66.0%로 집계된다.

실직은 모든 거처유형에서 거리노숙 계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하지만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 입소자, 쪽방주민에 비해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실직을 선택한 비율이 낮은 반면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비율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거처유형별로 생활하는 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능력이 낮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

는 질병 및 장애, 혹은 이로 인한 가족해체로 인하여 거리노숙을 하게 된 비율이 높다고 하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의 경우는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거리노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쪽방주민의 경우에도 실직, 이혼 및 가족해체, 사업 실패 외 신용불량 또는 파산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거리노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거리노숙 계기 - 1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실직	42.5	42.2	42.4	36.1	33.6	29.9	33.1	37.3	54.4	43.3
사업 실패	19.0	12.6	17.5	16.4	9.7	7.6	10.6	13.7	10.0	12.4
이혼 및 가족해체	8.8	9.3	8.9	10.4	13.3	14.9	13.1	11.2	11.1	11.2
배우자 사망	2.3	1.2	2.0	1.5	0.0	1.6	0.8	1.4	0.0	0.9
가정폭력	3.6	2.8	3.4	3.3	4.9	11.6	6.5	5.1	3.3	4.5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0.2	0.0	0.2	2.8	1.2	1.0	1.5	0.9	0.0	0.6
신용불량 또는 파산	2.7	6.7	3.6	7.0	4.3	1.1	4.0	3.8	7.4	5.1
주거지 상실	6.1	4.9	5.8	10.7	3.2	5.4	5.5	5.6	4.3	5.2
질병 및 장애	6.4	3.0	5.6	3.0	13.7	11.0	10.6	8.4	2.2	6.2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6.0	0.0	4.7	4.8	8.3	9.7	8.0	6.5	3.3	5.4
게임 및 도박 중독	0.6	3.0	1.1	1.5	0.0	0.0	0.3	0.7	1.6	1.0
사회복지시설 퇴소	0.0	3.3	0.8	0.0	1.2	1.4	1.0	0.9	0.0	0.6
교정시설 출소	1.4	3.4	1.8	0.0	0.0	0.0	0.0	0.8	0.0	0.5
기타	0.4	7.8	2.1	2.5	6.4	4.8	5.1	3.7	2.4	3.3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71)	100.0 (158)	100.0 (102)	100.0 (331)	100.0 (643)	100.0 (84)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에 대한 계기(1순위)를 연령별, 성별, 장애여부로 구분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는 거리노숙 계기 1순위로 실직을 선택하였다.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실직으로 인한 거리노숙을 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모든 연

령대에서 가장 큰 거리노숙 계기로 선택한 실직을 제외할 때 60대 이상에서 사업 실패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이혼 및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는 4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다.

성별을 통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및 가족해체,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실직, 가정폭력, 질병 및 장애, 이혼 및 가족해체 순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무로 분석하면, 거리노숙의 계기로 장애를 가진 경우 실직, 질병 및 장애, 가정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7〉 거리노숙 계기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실직	35.0	34.8	47.3	42.4	50.7	45.9	21.3	39.1	44.1	43.3
사업 실패	6.2	7.7	11.7	15.6	15.8	13.5	3.3	4.0	14.0	12.4
이혼 및 가족해체	12.5	13.7	9.4	12.6	7.7	11.0	12.6	6.2	12.1	11.2
배우자 사망	1.8	0.0	1.6	0.5	0.0	0.4	4.4	2.0	0.7	0.9
가정폭력	10.1	7.0	2.4	4.8	3.6	3.2	15.2	11.5	3.1	4.5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0.0	1.5	0.7	0.3	0.0	0.6	0.9	1.3	0.5	0.6
신용불량 또는 파산	3.4	6.8	6.3	3.7	3.2	4.9	6.5	0.0	6.0	5.1
주거지 상실	4.8	2.7	8.8	3.3	0.7	5.1	6.0	5.8	5.1	5.2
질병 및 장애	6.1	4.6	5.2	7.1	10.6	4.9	17.0	14.9	4.6	6.2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2.1	12.3	4.0	4.5	6.3	5.7	2.5	3.4	5.7	5.4
게임 및 도박 중독	2.1	4.8	0.0	0.6	0.0	1.1	0.4	0.0	1.2	1.0
사회복지시설 퇴소	1.6	1.5	0.3	0.4	0.0	0.5	1.0	2.2	0.3	0.6
교정시설 출소	1.6	0.8	0.1	0.8	0.0	0.6	0.0	0.3	0.6	0.5
기타	12.9	1.8	2.3	3.5	1.5	2.6	8.9	9.3	2.1	3.3
합계	100.0 (49)	100.0 (117)	100.0 (266)	100.0 (250)	100.0 (45)	100.0 (632)	100.0 (95)	100.0 (114)	100.0 (613)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거리노숙 계기 2순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앞서 1순위 응답으로 모든 노숙인들이 실직을 가장 많이 선택한 점을 고려해서 거리노숙의 두 번째 계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노숙인 등 전체 기준으로 실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혼 및 가족해체, 주거지 상실,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질병 및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전체 기준으로는 이혼 및 가족해체, 실직, 주거지 상실 순으로 나타나 이혼 및 가족해체로 인한 거리노숙 경험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쪽방주민의 경우 실직, 주거지 상실로 인한 거리노숙 계기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거리노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거리노숙 계기 - 2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실직	12.6	24.1	15.3	16.9	11.9	12.8	13.3	14.2	21.9	16.9
사업 실패	9.9	5.1	8.8	3.6	6.1	2.4	4.5	6.4	5.6	6.1
이혼 및 가족해체	20.8	8.1	17.9	11.0	13.1	19.4	14.4	16.0	11.5	14.4
배우자 사망	0.9	0.0	0.7	2.3	0.6	0.0	0.8	0.8	0.0	0.5
가정폭력	1.4	1.2	1.4	4.6	1.8	2.7	2.7	2.1	4.2	2.8
성폭력	0.0	0.0	0.0	0.0	0.4	0.0	0.2	0.1	0.0	0.1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1.8	0.0	1.4	0.0	2.5	2.2	1.8	1.6	0.8	1.3
신용불량 또는 파산	10.9	13.0	11.4	10.3	6.5	4.5	6.8	8.8	5.5	7.7
주거지 상실	14.4	14.8	14.5	9.3	13.0	8.4	10.9	12.5	16.0	13.7
질병 및 장애	5.8	5.0	5.6	6.5	6.2	18.2	9.7	7.9	4.8	6.8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11.8	1.2	9.3	3.0	11.3	6.8	8.2	8.7	5.6	7.6
게임 및 도박 중독	4.3	0.0	3.3	6.5	2.4	1.0	3.0	3.1	0.9	2.4
사회복지시설 퇴소	1.1	0.0	0.9	0.0	0.7	2.0	0.9	0.9	2.6	1.5
교정시설 출소	1.0	0.0	0.8	1.4	1.7	0.0	1.2	1.0	0.0	0.7
기타	0.7	11.7	3.2	6.8	1.8	2.1	3.0	3.1	1.6	2.6
모름/무응답	2.5	15.8	5.5	17.8	19.8	17.5	18.7	12.8	19.1	15.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71)	100.0 (158)	100.0 (102)	100.0 (331)	100.0 (643)	100.0 (84)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 계기 2순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0세 미만의 경우 신용불량 또는 파산, 주거지 상실, 가정폭력, 질병 및 장애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주거지 상실, 실직, 이혼 및 가족해체 순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실직, 주거지 상실, 이혼 및 가족해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와 70대의 경우 이혼 및 가족해체가 거리노숙 계기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의 경우 실직, 이혼 및 가족해체, 주거지 상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질병 및 장애, 이혼 및 가족해체, 주거지 상실 순으로 나타나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무로 분석하면, 장애를 가진 경우 주거지 상실, 질병 및 장애, 이혼 및 가족해체 순으로 나타나 1순위에 비해 가정폭력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거리노숙 계기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실직	8.0	15.0	20.2	17.5	7.6	18.1	6.9	8.2	18.5	16.9
사업 실패	1.3	3.4	5.9	6.9	13.6	6.7	1.8	7.4	5.9	6.1
이혼 및 가족해체	2.6	11.7	12.3	17.8	24.8	14.0	17.6	9.5	15.3	14.4
배우자 사망	0.0	1.6	0.1	0.3	1.7	0.3	2.1	0.0	0.6	0.5
가정폭력	14.6	1.9	2.5	1.0	4.7	2.7	4.1	5.7	2.3	2.8
성폭력	0.0	0.0	0.2	0.0	0.0	0.0	0.7	0.0	0.1	0.1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0.8	1.9	1.2	1.6	0.0	1.4	1.0	1.5	1.3	1.3
신용불량 또는 파산	23.9	10.0	6.9	5.7	1.7	8.3	2.8	7.7	7.7	7.7
주거지 상실	15.6	17.1	15.3	10.2	14.1	13.3	17.3	14.9	13.5	13.7
질병 및 장애	13.2	7.1	6.2	7.3	0.7	5.4	18.7	14.5	5.3	6.8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4.5	7.5	6.8	8.9	8.8	8.1	3.2	4.0	8.3	7.6
게임 및 도박 중독	4.5	5.8	1.4	2.0	0.0	2.5	1.0	0.7	2.7	2.4
사회복지시설 퇴소	3.3	0.7	2.4	0.3	2.0	1.3	3.1	2.7	1.2	1.5
교정시설 출소	0.0	2.8	0.7	0.0	0.0	0.7	0.0	0.7	0.6	0.7
기타	0.0	3.7	1.9	1.9	9.8	2.9	0.0	5.7	2.0	2.6
모름/무응답	7.5	9.6	15.8	18.5	10.5	14.4	19.8	16.8	14.6	15.0
합계	100.0 (49)	100.0 (117)	100.0 (266)	100.0 (250)	100.0 (45)	100.0 (632)	100.0 (95)	100.0 (114)	100.0 (613)	100.0 (7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거주경험의 변화

노숙인 등의 거주경험의 변화는 노숙의 발생경로 및 노숙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주거지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노숙인 등의 거주경험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4단계(① 현재, ② 현재의 이전, ③ 현재의 이전의 이전(②의 이전), ④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③의 이전)로 조사되었다.

현재를 기준으로 거주실태를 거처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거리·광장(66.6%)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지하공간(17.7%), 공원·녹지(10.0%),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55.0%, 일시보호시설 45.0%로 나타났다.

생활시설과 쪽방주민의 경우 면접조사에 참여한 시점에 생활하고 있는 주거가 그대로 제시되었다. 현재 주거의 평균 거주기간으로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이 약 276개월로 거의 비슷하게 가장 길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기간이 122.8개월로 다른 거처보다 더 길게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10〉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개월)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평균개월 (응답수)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일반주택	-	-	-	-	-	-	-	-	-	-	-
친인척집	-	-	-	-	-	-	-	-	-	-	-
친구 집	-	-	-	-	-	-	-	-	-	-	-
쪽방	-	-	-	-	-	-	-	-	100.0	37.5	110.6 (250)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	-	-	-	-	-	-	-	-	-	-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	-	-	-	-	-	-	-	-	-	-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 (역, 교회 등)	4.3	-	3.3	-	-	-	-	0.6	-	0.4	30.6 (13)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	-	-	-	-	-	-	-	-	-	-
거리·광장	66.6	-	51.3	-	-	-	-	9.7	-	6.1	122.8 (163)
공원·녹지	10.0	-	7.7	-	-	-	-	1.5	-	0.9	79.9 (20)
강변	-	-	-	-	-	-	-	-	-	-	-
지하공간	17.7	-	13.7	-	-	-	-	2.6	-	1.6	34.2 (53)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	-	-	-	-	-	-	-	-	-	-
교정시설	-	-	-	-	-	-	-	-	-	-	-
병원	-	-	-	-	-	-	-	-	-	-	-
응급쉼터(응급대피 소, 응급쪽방 등)	-	-	-	-	-	-	-	-	-	-	-
일시보호시설	0.6	45.0	10.8	-	-	-	-	2.0	-	1.3	38.7 (27)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55.0	12.6	-	-	-	-	2.4	-	1.5	16.0 (33)
노숙인 자활시설	-	-	-	100.0	-	-	15.0	12.2	-	7.6	79.9 (171)
노숙인 재활시설	-	-	-	-	100.0	-	45.4	36.8	-	23.0	276.7 (517)
노숙인 요양시설	-	-	-	-	-	100.0	39.6	32.1	-	20.0	276.4 (450)
기타	0.8	-	0.6	-	-	-	0.0	0.1	-	0.1	18.0 (3)
무응답	-	-	-	-	-	-	-	-	-	-	- (15)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115.5 (1,6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현재 거처의 직전에 생활한 거처를 분석하였는데, 주거변화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노숙인 등의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처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순이었다.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처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는 동일한 순서로 분석되었다.

각 거처유형별로 분석해 볼 때 대체로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먼저 거리노숙인의 경우 거리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일반주택(15.2%)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쪽방, 일시보호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택을 제외하면 거리노숙 직전에 비정형적이거나 불완전한 주거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34.6%)이 가장 많으며, 일반주택, 쪽방, 거리·광장, 일시보호시설 등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비정형적 주거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 중 자활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직전 생활한 거처로서 일반주택(29.2%)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사회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숙 이전에 거리노숙인보다 자활시설 입소자가 일반주택에서 생활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 거리노숙을 포함해서 비정형적인 주거에서도 생활하다가 자활시설에 입소한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직전 생활한 거처로서 일반주택(46.8%)이 가장 많으며, 거리·광장,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조사대상자에 비해 시설 입소 전에 일반주택에서 생활한 비율이 높으며, 다른 한편 병원에서 생활(입원)한 비율도 높은 편이다.

생활시설 중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직전 생활한 거처로서 일반주택(45.5%)이 가장 많으며, 병원, 거리·광장,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조사대상자에 비해 시설 입소 전에 일반주택에서 생활한 비율이 높으며, 다른 한편 병원과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에서 생활(입원)한 비율도 높은 편이다.

쪽방주민의 경우 현재 쪽방에서 생활하기 직전에 생활한 거처를 분석해 보면, 일반주택(46.9%)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사회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조사대상자에 비해 현 거처 이전에 일반주택에서 생활한 비율

이 높은 편이며, 비정형적 주거와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노숙인시설 거주 경험 없이 쪽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4-11〉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의 이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개월)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평균개월 (응답수)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일반주택	15.2	13.1	14.7	29.2	46.8	45.5	43.7	38.2	46.9	41.5	387.1 (665)
친인척집	2.8	1.9	2.6	2.9	5.3	2.7	3.9	3.6	1.0	2.6	59.4 (56)
친구 집	0.7	1.3	0.9	1.3	1.3	0.5	1.0	1.0	0.5	0.8	618.6 (15)
쪽방	4.6	8.5	5.5	1.3	2.2	2.5	2.2	2.8	0.0	1.7	78.0 (45)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15.1	34.6	19.6	24.7	8.1	4.9	9.3	11.3	19.0	14.2	87.7 (233)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1.8	0.0	1.4	1.0	1.3	0.0	0.7	0.8	0.0	0.5	13.8 (15)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 (역, 교회 등)	2.5	5.6	3.2	0.6	2.9	2.3	2.3	2.5	0.4	1.7	64.4 (38)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0.7	0.0	0.5	0.7	0.4	0.5	0.5	0.5	0.9	0.6	22.9 (9)
거리·광장	8.3	8.3	8.3	13.6	11.5	7.9	10.4	10.0	12.4	10.9	164.9 (177)
공원·녹지	2.4	4.4	2.9	2.4	1.4	0.6	1.2	1.5	0.0	1.0	12.6 (23)
강변	0.6	0.0	0.5	1.4	0.0	0.2	0.3	0.3	0.4	0.3	23.9 (5)
지하공간	3.1	2.4	2.9	1.1	1.6	0.0	0.9	1.3	1.0	1.2	41.1 (23)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2.4	0.0	1.9	5.9	3.6	7.5	5.5	4.8	2.7	4.0	54.7 (72)
교정시설	0.9	1.6	1.1	0.0	0.7	0.1	0.3	0.5	0.9	0.6	47.0 (11)
병원	1.1	1.2	1.1	0.6	7.2	11.1	7.8	6.5	1.4	4.6	48.5 (89)
응급침터(응급대피소, 응급쪽방 등)	2.7	0.0	2.0	1.8	0.9	0.6	0.9	1.1	0.8	1.0	17.1 (13)
일시보호시설	3.1	6.9	4.0	5.9	1.1	4.3	3.1	3.2	1.9	2.8	22.5 (46)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0.7	0.0	0.5	0.0	0.0	1.2	0.5	0.5	1.2	0.7	50.0 (11)
노숙인 자활시설	1.9	3.7	2.3	0.0	0.9	1.6	1.0	1.3	0.8	1.1	45.6 (22)
노숙인 재활시설	0.0	0.0	0.0	0.5	0.0	2.9	1.2	1.0	0.0	0.6	802.6 (14)
노숙인 요양시설	0.0	0.0	0.0	0.0	0.3	0.0	0.1	0.1	0.0	0.1	72.0 (1)
기타	0.7	4.9	1.7	2.9	1.9	1.5	1.9	1.8	1.2	1.6	69.6 (29)
모름/해당없음	28.8	1.6	22.6	2.4	0.9	2.0	1.5	5.5	6.6	5.9	- (103)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160.5 (1,59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를 분석하면, 노숙인 등의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순이었다.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로는 동일한 순서로 분석되었다. 앞서 현재 거처 직전의 분석에서 일반주택 비율이 40%가 넘고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 거처에 대한 질문에서 무응답 비율이 55.4%로 나타나 노숙인 등의 절반 정도가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에서 바로 현재 거처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에서 노숙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좀 더 집중함으로써 노숙 예방의 효과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많은 노숙인들이 일반주택에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에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일반주택(14.5%)이 가장 많으며, 거리·광장, 공원·녹지, 지하공간 순으로 나타나 거리노숙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소를 이동하면서 거리노숙을 유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용시설의 경우 일반주택(28.4%)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거리·광장, 일시보호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정형적 주거와 거리노숙을 순환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 중 자활시설의 경우 일반주택(22.6%)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자활시설 순으로 나타나 비정형적 주거 혹은 다른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 경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재활시설의 경우 일반주택(25.9%)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노숙인 재활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주택(16.8%)이 가장 많으며, 병원, 거리·광장, 노숙인 요양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입소자 중 현재 시설 입소 직전의 이전 거처로 동일한 유형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입소자들이 생활시설→퇴소 후 다른 거처→현 생활시설의 반복적인 시설 입퇴소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퇴소 후 다른 거처에서 일반주택을 제외하면 불안정한 주거형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서비스 없이 주거안정성이 낮은 상태에서 재입소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퇴소 후 사례관리, 주거유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쪽방주민의 경우 일반주택(23.3%)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쪽방, 거리·광장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2〉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의 이전의 이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평균 (개월)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일반주택	14.5	28.4	17.7	22.6	25.9	16.8	21.8	21.0	23.3	21.9	3041 (75)
친인척집	1.7	1.6	1.7	3.7	2.4	1.6	2.3	2.1	0.6	1.6	1056 (32)
친구 집	2.9	2.8	2.9	3.5	1.4	0.0	1.2	1.5	0.4	1.1	337 (2)
쪽방	1.3	1.9	1.4	1.3	2.2	0.5	1.4	1.4	4.1	2.4	2432 (26)
고시원, 여인숙, 모텔등	2.9	18.2	6.4	9.9	4.3	0.7	6.7	4.2	4.3	4.2	41.9 (75)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0.9	4.8	1.8	1.5	0.4	0.1	0.4	0.7	0.2	0.5	243 (13)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 (역, 교회 등)	0.6	1.8	0.6	0.7	0.2	1.1	0.6	0.6	0.3	0.5	209 (11)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0.2	0.0	0.2	0.0	0.0	0.2	0.1	0.1	0.6	0.3	829 (3)
거리·광장	6.8	3.4	6.0	2.2	3.2	2.4	2.7	3.3	3.0	3.2	33.6 (5)
공원·녹지	6.1	0.0	4.7	1.3	0.6	0.2	0.5	1.3	0.7	1.1	21.8 (18)
강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지하공간	3.1	1.8	2.8	0.0	0.2	0.6	0.3	0.8	0.3	0.6	24.8 (14)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0.9	1.6	1.1	2.3	1.8	1.0	1.5	1.5	0.7	1.2	41.7 (23)
교정시설	0.0	0.0	0.0	0.0	0.2	0.0	0.1	0.1	0.0	0.1	4.0 (1)
병원	1.1	0.0	0.9	1.3	1.3	2.6	1.8	1.6	1.2	1.4	42.8 (27)
응급침터(응급 대피소, 응급쪽방 등)	0.4	0.0	0.3	0.0	0.0	0.6	0.2	0.2	0.0	0.2	5.7 (3)
일시보호시설	0.6	3.3	1.2	0.6	0.2	0.3	0.3	0.5	0.6	0.5	22.0 (10)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0.2	3.5	1.0	0.6	0.0	0.0	0.1	0.3	0.0	0.2	1.9 (4)
노숙인 자활시설	0.5	0.0	0.4	5.9	0.5	0.7	1.4	1.2	0.0	0.8	25.6 (19)
노숙인 재활시설	0.0	0.0	0.0	0.0	3.0	0.6	1.6	1.3	0.5	1.0	41.4 (19)
노숙인 요양시설	0.0	0.0	0.0	0.0	0.0	2.2	0.9	0.7	0.0	0.5	71.3 (7)
기타	0.5	9.5	2.6	6.5	0.6	0.7	1.5	1.7	1.5	1.7	70.7 (29)
모름/해당없음	55.1	17.5	46.5	36.1	51.7	67.4	55.6	53.9	57.9	55.4	- (92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136.4 (7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를 분석하면, 전체 대상자 중 약 80% 정도가 응답하지 않아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거처에 이르기까지 4단계를 거처 이동하는 노숙인들은 20%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숙인 등의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순이었다.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로는 동일한 순서로 분석되었다.

현재 거처유형별로 많은 노숙인들이 일반주택이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의 이전에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일반주택(6.4%)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거리·광장, 공원·녹지 순으로 나타나 비정형적 주거 및 거리노숙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 일반주택(22.1%)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일시보호시설,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거리·광장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비정형적 주거와 거리노숙을 순환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 중 자활시설의 경우 일반주택(19.7%)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거리·광장 순으로 나타나 비정형적 주거 혹은 거리노숙 경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재활시설의 경우 일반주택(10.2%)이 가장 많으며,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친인척집, 거리·광장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주택(4.6%)이 가장 많으며, 병원,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순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의 경우 일반주택(7.1%)이 가장 많으며, 거리·광장,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기타, 일시보호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3〉 거주경험의 변화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개월)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평균 (개월)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일반주택	6.4	22.1	10.0	19.7	10.2	4.6	9.4	9.5	7.1	8.6	644.8 (163)
친인척집	2.2	1.8	2.1	0.4	1.0	0.2	0.6	0.9	0.0	0.6	545.7 (13)
친구 집	0.0	1.8	0.4	0.4	0.6	0.0	0.3	0.4	0.0	0.2	2309.3 (5)
쪽방	0.4	1.8	0.7	0.0	0.2	0.2	0.2	0.3	0.0	0.2	18.5 (5)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4.0	9.1	5.1	2.3	1.4	0.6	1.2	2.0	1.7	1.9	503.8 (29)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0.6	3.2	1.2	2.0	0.2	0.0	0.4	0.5	0.0	0.3	1725.9 (7)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 (역, 교회 등)	0.2	1.6	0.5	0.6	0.0	0.0	0.1	0.1	0.6	0.3	20.5 (4)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0.0	0.0	0.0	0.0	0.0	0.0	0.0	0.0	0.4	0.1	48.0 (1)
거리·광장	3.5	4.9	3.8	1.7	0.8	0.3	0.7	1.3	2.1	1.6	1803.7 (25)
공원·녹지	2.4	1.5	2.2	0.6	0.4	0.0	0.3	0.6	0.0	0.4	20.0 (8)
강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하공간	0.2	0.0	0.2	0.0	0.2	0.0	0.1	0.1	0.0	0.1	12.7 (2)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0.0	0.0	0.0	0.7	0.6	0.4	0.5	0.4	0.6	0.5	28.2 (7)
교정시설	0.5	0.0	0.4	0.0	0.0	0.2	0.1	0.4	0.0	0.1	34.9 (2)
병원	0.0	0.0	0.0	0.0	0.2	0.9	0.4	0.4	0.0	0.2	1976.1 (5)
응급센터 (응급대피소, 응급쪽방 등)	0.0	0.0	0.0	0.6	0.2	0.2	0.3	0.2	0.0	0.1	10.9 (3)
일시보호시설	0.2	3.4	1.0	0.5	0.0	0.3	0.2	0.4	1.2	0.7	379.1 (7)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0.0	1.2	0.3	0.7	0.2	0.5	0.4	0.4	0.0	0.2	14.6 (5)
노숙인 자활시설	0.0	1.8	0.4	0.7	0.2	0.0	0.2	0.2	0.6	0.4	37.6 (4)
노숙인 재활시설	0.0	0.0	0.0	0.0	0.8	0.0	0.4	0.3	0.0	0.2	7.4 (4)
노숙인 요양시설	0.0	0.0	0.0	0.5	0.3	0.2	0.3	0.3	0.0	0.2	7171.5 (4)
기타	0.0	1.8	0.4	1.7	0.4	0.3	0.5	0.5	1.6	0.9	391.1 (11)
모름/해당없음	79.3	44.3	71.3	67.2	82.2	91.0	83.4	81.1	84.2	82.3	- (139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112.9 (3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위에서는 세부적인 주거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주택 유형을 중분류 형태로 구분¹⁶⁾하여 현재 거처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거처유형별로 현재 거처의 직전과 그 이전에서의 주거변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거리노숙인의 거리노숙 이전에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거리(공원, 강변 등)에서 생활하였다가 거리노숙을 시작한 주거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이전에는 주택, 거리, 비정형주거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비정형주거·거리→거리(현재)의 전형적인 주거변화 패턴을 볼 수 있다. 특히 거리노숙 직전에 주택비율이 23.5%로 다른 주거형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거리로 나온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상실에 따른 주거지원을 통한 응급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관되게 거리노숙인 중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은 많지 않아 생활시설 퇴소자들이 거리노숙보다는 다른 거처유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설 중 자활시설의 경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 입소 직전에 주택, 비정형 주거, 거리에서 생활하였다가 입소한 주거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택을 제외하면 비정형 주거와 거리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47.9%로 나타나 매우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서 입소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주택, 비정형주거,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시설 입소 직전의 거처로 이동한 경우가 거리노숙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활시설의 경우 현재 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주택에서 생활한 경우가 53.9%로 다른 거처유형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형주거와 거리 외에도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했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변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 입소 직전의 이전에 생활한 거처를 살펴보면 다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시설 입소

16) 유형화는 “주택”은 ① 일반주택(임차, 자가) ② 친인척집 ③ 친구 집, “비정형주거”는 ④쪽방, ⑤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⑥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⑦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역, 교회 등) ⑧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거리”는 ⑨ 거리·광장 ⑩ 공원·녹지 ⑪ 강변 ⑫ 지하공간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⑬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⑭ 교정시설 ⑮ 병원, “노숙인 이용시설”은 ⑯응급쉼터(응급대피소, 응급쪽방 등) 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생활시설”은 ⑲ 노숙인 자활시설 ⑳ 노숙인 재활시설 ㉑ 노숙인 요양시설 로 이루어졌음.

직전의 거처로 이동한 경우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경우 현재 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주택에서 생활한 경우가 49.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형주거와 거리보다도 병원,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거주했던 비율이 다른 생활시설 입소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변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거변화 패턴은 현재 시설 입소 직전의 이전에 다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많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노숙인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직전에 주택에서 생활한 경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앞서 거리노숙 계기와 연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경우 거리노숙의 계기로 실직 외에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질병 및 장애를 가졌거나 요양이 필요한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거 안에서 돌봄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주거로 이동하여 현재 시설로 이동한 주거변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쪽방주민의 경우 현재 쪽방 생활 직전과 그 이전에 주택에서 생활한 경우가 절반이 넘으며, 그 외에는 비정형주거와 거리에서 생활한 경험이 많아 불안정한 주거상태에서 주거변화를 경험하다가 현재 쪽방에서 생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14〉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 (거처유형별)

(단위: %, 명)

현재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택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정형주거	4.2	0.0	3.3	0.0	0.0	0.0	0.0	0.6	100.0	37.9
거리	94.3	0.0	72.7	0.0	0.0	0.0	0.0	13.7	0.0	8.6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노숙인 이용시설	0.6	100.0	23.4	0.0	0.0	0.0	0.0	4.4	0.0	2.8
노숙인 생활시설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81.1	0.0	50.7
기타	0.8	0.0	0.6	0.0	0.0	0.0	0.0	0.1	0.0	0.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현재의 이전	거리	이용시설	소계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전체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택	26.3	16.5	23.5	34.1	53.9	49.7	49.3	45.3	51.8	47.7
비정형주거	34.5	49.5	38.9	29.0	14.9	10.4	15.2	18.9	21.7	19.9
거리	20.3	15.5	18.9	18.9	14.6	8.8	13.0	13.9	14.7	14.2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6.3	2.8	5.3	6.7	11.6	19.0	13.8	12.4	5.4	9.8
노숙인 이용시설	9.0	7.0	8.4	7.9	2.0	6.1	4.5	5.1	4.2	4.8
노숙인 생활시설	2.7	3.9	2.9	0.6	1.2	4.6	2.4	2.5	0.9	1.9
기타	1.1	4.9	2.2	3.0	1.9	1.5	1.9	1.9	1.3	1.7
합계	100.0 (200)	100.0 (58)	100.0 (258)	100.0 (167)	100.0 (512)	100.0 (443)	100.0 (1122)	100.0 (1380)	100.0 (232)	100.0 (1612)
현재의 이전의 이전	거리	이용시설	소계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전체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택	42.5	39.8	41.6	46.7	61.5	56.3	56.8	53.4	57.6	54.9
비정형주거	12.4	32.4	19.5	21.1	14.7	7.6	14.0	15.2	22.4	17.7
거리	35.6	6.2	25.2	5.4	8.1	9.9	8.0	11.8	9.3	10.9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4.5	1.9	3.6	5.5	6.8	10.7	7.7	6.8	4.4	5.9
노숙인 이용시설	2.7	8.3	4.7	1.8	0.4	2.6	1.4	2.1	1.5	1.9
노숙인 생활시설	1.0	0.0	0.7	9.3	7.3	10.8	8.7	7.0	1.2	4.9
기타	1.2	11.4	4.8	10.2	1.2	2.1	3.4	3.7	3.7	3.7
합계	100.0 (121)	100.0 (48)	100.0 (169)	100.0 (109)	100.0 (251)	100.0 (149)	100.0 (509)	100.0 (678)	100.0 (106)	100.0 (784)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	거리	이용시설	소계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전체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택	41.6	45.9	43.5	62.3	66.6	53.8	62.6	57.1	45.0	53.0
비정형주거	25.2	28.2	26.5	14.6	10.1	8.4	11.1	15.5	16.6	15.9
거리	29.6	11.4	21.5	6.9	7.4	3.1	6.3	10.7	12.8	11.4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2.6	0.0	1.4	1.9	4.4	16.8	6.3	4.9	3.9	4.6
노숙인 이용시설	1.1	8.2	4.3	5.5	2.2	12.2	5.3	5.0	7.8	5.9
노숙인 생활시설	0.0	3.2	1.4	3.6	7.3	2.7	5.1	4.0	3.9	4.0
기타	0.0	3.2	1.4	5.2	2.0	3.1	3.3	2.7	10.0	5.2
합계	100.0 (52)	100.0 (33)	100.0 (85)	100.0 (55)	100.0 (97)	100.0 (40)	100.0 (192)	100.0 (277)	100.0 (37)	100.0 (3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이상의 주거변화 패턴을 거처유형별로 종합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편의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4단계(① 현재, ② 현재의 이전, ③ 현재의 이전의 이전(②의 이전), ④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③의 이전))의 역순으로(④→③→②→①) 3순위까지 응답한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거리노숙인(거리+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거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택, 비정형주거에서 생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택에서 바로 거리나 이용시설로 이동하거나 주택→비정형주거→거리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거리노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쉽게 주거상담 및 임시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노숙인 자활시설의 경우 현재 자활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주택, 비정형주거, 거리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자활시설 입소 직전인 ②단계와 그 이전 ③단계에서 비정형주거 비율이 높은 반면 ③단계와 ④단계에서 거리 거주 경험 비율이 낮은 결과를 통해 자활시설 입소 전까지 주택→비정형주거→시설 입소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숙인 재활시설의 경우 비정형주거와 거리보다는 주택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불안정 주거를 거치지 않고 주택에서 바로 시설 입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한편 자활시설 입소자에 비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활시설 입소자의 질병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자들도 시설 입소 전까지 주택, 병원, 사회복지시설, 거리, 비정형주거 등에서 생활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요양시설 입소 전에 질병 및 장애와 관련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노숙인들이 요양시설로 입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병원,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쪽방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주택, 비정형주거, 거리 순으로 생활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쪽방생활 전에 ②~④단계에서 비정형주거나 거리에서 생활한 비율이 생활시설 입소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쪽방주민들이 쪽방에서 생활하기 전에 상당히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주거변화로는 주택→비정형주거·거리→쪽방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15〉 노숙이전 주거 변화 (상위 3순위)

(단위: %, 개월)

거처유형	순위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④ (③의 직전)	현재의 이전의 이전③ (②의 직전)	현재의 이전② (①의 직전)	현재①
거리노숙인	1	주택 (41.6%) 118.1개월	주택 (42.5%) 144.1개월	비정형주거 (34.5%) 32.7개월	거리 (94.3%) 63.5개월
	2	거리 (29.6%) 23.9개월	거리 (35.6%) 28.0개월	주택 (26.3%) 195.5개월	비정형주거 (4.2%) 30.6개월
	3	비정형주거 (25.2%) 15.1개월	비정형주거 (12.4%) 28.9개월	거리 (20.3%) 36.2개월	기타 (0.8%) 18.0개월
이용시설	1	주택 (45.9%) 181.3개월	주택 (39.8%) 202.7개월	비정형주거 (49.5%) 43.7개월	이용시설 (100.0%) 26.8개월
	2	비정형주거 (28.2%) 21.8개월	비정형주거 (32.4%) 35.9개월	주택 (16.5%) 49.6개월	-
	3	거리 (11.4%) 17.9개월	기타 (11.4%) 32.9개월	거리 (15.5%) 27.2개월	-
자활시설	1	주택 (62.3%) 113.5개월	주택 (53.9%) 224.3개월	주택 (34.1%) 166.8개월	생활시설 (100.0%) 26.0개월
	2	비정형주거 (14.6%) 23.4개월	비정형주거 (29.0%) 44.8개월	비정형주거 (29.0%) 33.4개월	-
	3	거리 (6.9%) 40.4개월	생활시설 (9.3%) 25.3개월	거리 (18.9%) 38.5개월	-
재활시설	1	주택 (66.6%) 232.2개월	주택 (61.5%) 289.1개월	주택 (53.9%) 313.2개월	재활시설 (100.0%) 143.8개월
	2	비정형주거 (10.1%) 48.7개월	비정형주거 (14.7%) 40.1개월	비정형주거 (14.9%) 47.0개월	-
	3	거리 (7.4%) 18.7개월	거리 (8.1%) 15.0개월	거리 (14.6%) 38.5개월	-
요양시설	1	주택 (53.8%) 128.8개월	주택 (56.3%) 161.9개월	주택 (49.7%) 244.2개월	요양시설 (100.0%) 163.4개월
	2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6.8%) 45.3개월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0.7%) 39.9개월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9.0%) 70.0개월	-
	3	이용시설 (12.2%) 60.4개월	거리 (9.9%) 51.9개월	비정형주거 (10.4%) 73.4개월	-
쪽방주인	1	주택 (45.0%) 233.4개월	주택 (57.6%) 193.3개월	주택 (51.8%) 301.7개월	비정형주거 (100.0%) 110.6개월
	2	비정형주거 (15.9%) 20.0개월	비정형주거 (22.4%) 53.0개월	비정형주거 (21.7%) 71.3개월	-
	3	거리 (12.8%) 18.1개월	거리 (9.3%) 37.9개월	거리 (14.7%) 97.8개월	-
전체	1	주택 (53.0%) 189.0개월	주택 (54.9%) 214.8개월	주택 (47.7%) 278.4개월	생활시설 (50.7%) 133.7개월
	2	비정형주거 (15.9%) 25.6개월	비정형주거 (17.7%) 44.4개월	비정형주거 (19.9%) 56.2개월	비정형주거 (37.9%) 109.8개월
	3	거리 (11.4%) 21.2개월	거리 (10.9%) 29.9개월	거리 (14.7%) 58.8개월	거리 (8.6%) 63.5개월

주: %는 응답비율, 개월은 해당 거처의 평균거주기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거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령대별로 현재 거처의 직전과 그 이전에서의 주거변화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대체로 현재 거처 직전과 그 이전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로 이동하였거나 그 이전에서 현재 거처 직전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거처 직전에 비정형주거에서 생활하였거나 노숙인 이용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 주거에서 이동한 패턴을 분석해 보면 50대와 60대의 대상자들이 비정형주거와 거리에서 생활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의 경우 주택의 비율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동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6〉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 (연령별)

(단위: %, 명)

현재	연령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0.0	0.0	0.0	0.0	0.0	0.0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28.8	26.9	39.3	36.0	50.7	37.9
거리(공원, 강변 등)	8.9	7.0	12.0	8.4	2.9	8.6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0.0	0.0	0.0	0.0	0.0	0.0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숙터, 일시, 종합 등)	2.3	7.9	2.8	2.1	0.9	2.8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60.0	58.2	45.7	53.5	45.5	50.7
기타	0.0	0.0	0.2	0.0	0.0	0.1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700)
현재의 이전	연령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26.2	37.9	45.9	50.3	59.5	47.7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31.5	22.6	20.6	18.3	16.9	19.9
거리(공원, 강변 등)	13.6	15.5	16.5	13.3	10.7	14.2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5.4	11.9	8.6	10.3	7.6	9.8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숙터, 일시, 종합 등)	10.0	6.4	5.1	4.6	1.5	4.8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0.3	3.9	1.0	2.4	1.5	1.9
기타	3.0	1.8	2.2	0.8	2.3	1.7
합계	100.0 (86)	100.0 (197)	100.0 (501)	100.0 (626)	100.0 (202)	100.0 (1612)
현재의 이전의 이전	연령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57.8	45.8	53.4	54.2	72.9	54.9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11.5	15.7	20.6	20.3	6.1	17.7
거리(공원, 강변 등)	11.7	10.9	11.6	11.9	5.0	10.9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8.3	11.7	4.5	4.8	5.3	5.9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숙터, 일시, 종합 등)	0.0	3.7	3.9	0.0	1.1	1.9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4.8	9.5	3.9	4.3	4.6	4.9
기타	6.0	2.7	2.1	4.6	5.0	3.7
합계	100.0 (53)	100.0 (121)	100.0 (258)	100.0 (282)	100.0 (70)	100.0 (784)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	연령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42.9	37.9	54.8	64.1	45.5	53.0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9.4	18.5	18.9	9.6	32.8	15.9
거리(공원, 강변 등)	9.8	13.9	10.8	11.0	13.1	11.4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2.0	4.6	5.5	2.4	0.0	4.6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숙터, 일시, 종합 등)	1.9	12.0	7.4	2.1	8.6	6.0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2.6	9.7	1.6	4.7	0.0	4.0
기타	21.4	3.5	1.1	6.2	0.0	5.1
합계	100.0 (30)	100.0 (56)	100.0 (109)	100.0 (97)	100.0 (22)	100.0 (3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주거형태 변화를 남성과 여성의 인구학적 기준으로 그 차이점을 보면,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로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거처유형은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택 외에 비정형주거, 거리, 병원, 사회복지시설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비정형주거, 거리 순으로 나타나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로 이동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 주거를 성별로 분석해 볼 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주택, 병원,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형주거, 거리, 노숙인 이용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주거형태 변화를 분석해 보면, 장애를 가진 경우 주택,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경우 비정형주거와 거리 등 비교적 불안정한 주거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현재 거처 직전의 이전 주거를 장애유무로 분석해 볼 때, 장애를 가진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거리, 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가 현재 거처 직전의 거처로 이동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정형주거와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이동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경우 비정형주거보다는 거리에서 생활하였다가 이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좀더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다가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4-17〉 노숙이전 주거형태 유형화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현재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남성	여성	유	무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0.0	0.0	0.0	0.0	0.0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42.8	23.4	23.7	42.8	37.9
거리(공원, 강변 등)	10.3	3.4	1.7	11.0	8.6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0.0	0.0	0.0	0.0	0.0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쉼터, 일시, 종합 등)	3.4	0.8	0.9	3.4	2.8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43.3	72.4	73.7	42.7	50.7
기타	0.1	0.0	0.0	0.1	0.1
합계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현재의 이전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남성	여성	유	무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43.7	59.3	54.3	45.3	47.7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23.4	9.9	13.3	22.3	19.9
거리(공원, 강변 등)	17.0	6.2	9.3	16.0	14.2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7.3	17.2	15.2	7.9	9.8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쉼터, 일시, 종합 등)	4.8	4.7	5.2	4.6	4.8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1.8	2.1	1.8	1.9	1.9
기타	2.0	0.7	0.9	2.0	1.7
합계	100.0 (1191)	100.0 (421)	100.0 (465)	100.0 (1147)	100.0 (1612)
현재의 이전의 이전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남성	여성	유	무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53.0	63.3	65.1	52.1	54.9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19.7	9.5	8.7	20.3	17.7
거리(공원, 강변 등)	11.5	8.4	12.6	10.5	10.9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5.4	8.2	8.0	5.4	5.9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쉼터, 일시, 종합 등)	2.1	0.9	1.7	1.9	1.9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4.2	7.9	3.3	5.4	4.9
기타	4.1	1.8	0.6	4.5	3.7
합계	100.0 (621)	100.0 (163)	100.0 (178)	100.0 (606)	100.0 (784)
현재의 이전의 이전의 이전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남성	여성	유	무	
주택(일반, 친인척, 친구)	51.8	61.7	60.0	51.6	53.0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15.9	15.4	16.2	15.8	15.9
거리(공원, 강변 등)	12.9	1.0	5.1	12.8	11.4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4.7	4.2	3.1	4.9	4.6
노숙인 이용시설(응급쉼터, 일시, 종합 등)	5.2	11.6	3.6	6.5	6.0
노숙인 생활시설(자활, 재활, 요양)	4.0	3.9	2.9	4.2	4.0
기타	5.6	2.3	9.1	4.3	5.1
합계	100.0 (269)	100.0 (45)	100.0 (52)	100.0 (262)	100.0 (3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3.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및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노숙인 등의 거의 절반은 저렴한 월세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독립된 공간의 확보,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노숙인이 저렴한 주거비로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가 보장된다면 많은 노숙인들이 자립과 사회복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시사한다.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거처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먼저 거리노숙인의 경우 주거 선택 시 1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저렴한 월세’(36.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립된 공간의 확보’,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 저렴한 월세(54.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독립된 공간의 확보,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중 자활시설의 경우 저렴한 월세(53.2%)가 가장 많았으며 독립된 공간의 확보,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교통이 좋은 입지 순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저렴한 월세’ 응답 비율이 더 높으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교통이 좋은 입지’에 대한 선호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재활시설의 경우 ‘저렴한 월세’(32.8%)가 가장 많았으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교통이 좋은 입지’, ‘독립된 공간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시설과 비교해 보면, ‘저렴한 월세’와 ‘독립된 공간의 확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교통이 좋은 입지’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시설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41.5%)이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월세’,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독립된 공간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생활시설과 비교해 보면,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과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저렴한 월세’와 ‘독립된 공간의 확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로 인한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월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쪽방주민의 경우 ‘저렴한 월세’(70.7%)가 가장 많아 주거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 외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독립된 공간의 확보’,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8〉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1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저렴한 월세	36.2	54.1	40.3	53.2	32.8	19.3	30.5	32.4	70.7	46.8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15.4	3.5	12.7	5.4	6.5	6.0	6.1	7.4	6.2	6.9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8.7	10.6	9.2	10.8	26.7	41.5	30.2	26.2	9.9	20.1
교통이 좋은 입지	5.9	1.8	4.9	10.4	11.1	4.8	8.5	7.8	2.4	5.8
독립된 공간의 확보	24.8	17.3	23.1	14.3	9.5	7.3	9.4	12.0	8.1	10.5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4.9	5.9	5.2	1.8	3.3	2.1	2.6	3.1	0.2	2.0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1.5	6.8	2.7	2.4	6.9	12.6	8.5	7.4	2.1	5.4
계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2.0	0.0	1.6	0.6	1.6	5.9	3.2	2.9	0.2	1.9
기타	0.5	0.0	0.4	1.1	1.8	0.5	1.2	1.0	0.0	0.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주거 선택 시 1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저렴한 월세’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독립된 공간의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을 선호하며, 50대 이하의 경우 ‘독립된 공간의 확보’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녀 모두 ‘저렴한 월세’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렴한 월세’와 ‘독립된 공간의 확보’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고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무로 분석해 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와 관련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4-4-19〉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1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저렴한 월세	42.2	52.2	49.1	45.5	42.7	51.7	32.0	31.3	52.1	46.8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11.6	3.9	7.9	6.6	6.4	6.7	7.7	5.1	7.5	6.9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14.4	18.6	16.6	20.8	28.6	16.4	30.9	31.8	16.0	20.1
교통이 좋은 입지	10.7	5.8	6.6	5.9	2.1	5.7	6.2	6.5	5.6	5.8
독립된 공간의 확보	10.6	12.1	12.6	9.6	7.2	11.9	6.6	8.4	11.3	10.5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4.7	0.2	1.6	2.4	2.3	1.9	2.3	2.2	1.9	2.0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5.8	4.0	3.9	5.9	8.4	4.5	8.0	9.4	4.1	5.4
계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0.0	2.6	1.6	2.1	2.0	0.7	5.3	4.4	1.0	1.9
기타	0.0	0.7	0.2	1.2	0.4	0.5	1.0	0.8	0.6	0.6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주거를 선택할 때 2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노숙인 등의 약 20%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을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저렴한 월세’,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결과를 비교해 보면, 2순위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비 지원 외에 사례관리, 주거유지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거처유형별로 분석하면, 주거를 선택할 때 2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거처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22.2%)이

가장 많은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주거 선택 시 2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교통이 좋은 입지’(22.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중 자활시설의 경우 ‘교통이 좋은 입지’(23.0%), 재활시설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20.7%), 요양시설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28.0%)이 가장 많았다. 쪽방주민의 경우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25.0%)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확보를 위한 주거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표 4-4-20〉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2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저렴한 월세	14.1	18.6	15.1	14.7	20.1	11.6	15.9	15.8	14.5	15.3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15.0	6.3	13.0	12.2	10.8	9.3	10.4	10.9	25.0	16.2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22.2	21.1	22.0	18.5	20.7	21.7	20.8	21.0	24.1	22.1
교통이 좋은 입지	12.2	22.6	14.6	23.0	11.2	5.8	10.8	11.5	9.7	10.8
독립된 공간의 확보	17.8	18.0	17.9	20.1	8.5	9.1	10.5	11.9	16.2	13.5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12.3	6.7	11.0	5.0	3.5	3.9	3.9	5.2	1.9	4.0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0.0	5.3	1.2	5.9	18.1	28.0	20.2	16.6	6.7	12.9
계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5.8	0.0	4.5	0.6	2.4	6.3	3.7	3.8	1.8	3.1
기타	0.0	1.5	0.3	0.0	0.2	0.0	0.1	0.1	0.2	0.2
무응답	0.6	0.0	0.4	0.0	4.6	4.4	3.8	3.2	0.0	2.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주거 선택 시 2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확보’,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병원 치료를 받기 편

한 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과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을 선호하며, 50대 이하의 경우 '독립된 공간의 확보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녀 모두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가 있는 경우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에 대한 선호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1〉 주거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저렴한 월세	13.7	14.0	16.2	14.8	16.2	16.7	11.1	15.3	15.3	15.3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14.0	15.0	19.0	14.9	14.9	17.2	13.2	13.2	17.2	16.2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18.0	19.4	20.0	23.8	25.9	21.6	23.8	22.5	22.0	22.1
교통이 좋은 입지	22.1	11.6	10.5	10.0	9.5	10.9	10.6	9.7	11.2	10.8
독립된 공간의 확보	18.2	15.2	14.8	12.5	10.6	15.4	8.0	7.5	15.6	13.5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1.0	8.6	4.2	3.0	3.6	4.1	3.6	2.2	4.6	4.0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12.7	12.7	10.3	14.6	14.0	10.3	20.4	20.8	10.1	12.9
계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0.3	3.3	3.4	3.3	2.4	2.3	5.4	4.5	2.6	3.1
기타	0.0	0.0	0.1	0.1	0.6	0.1	0.4	0.2	0.2	0.2
무응답	0.0	0.4	1.5	2.9	2.4	1.5	3.4	4.2	1.2	2.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노숙인 등이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전체 노숙인 등의 희망 주거지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혼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실무자나 복지사가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단기 거주하면서 장기 거주를 준비하는 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희망이 가장 많게 나타난 결과는 많은 노숙인들이 주거비 지원을 통한 독립된 주거를 희망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처유형별로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거리노숙인(39.4%), 이용시설(56.3%), 자활시설(52.6%), 쪽방주민(59.2%)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활시설(36.5%)과 요양시설(64.6%)의 경우에는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거처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22〉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단기 잠자리만 제공하는 응급잠자리 (예:응급잠자리)	15.6	1.1	12.3	1.2	1.8	0.5	1.2	3.3	0.0	2.1
단기 거주하면서 장기거주를 준비하는 주택 (예: 중간주택)	10.3	5.6	9.3	7.3	5.8	1.9	4.5	5.4	3.9	4.8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공동생활주택, 그룹홈)	4.8	2.4	4.3	9.8	36.5	64.6	43.6	36.2	7.4	25.4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3.7	2.8	3.5	11.5	7.6	6.5	7.7	7.0	3.8	5.8
혼자 거주하면서 실무자나 복지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예: 지원주택)	24.1	29.2	25.3	17.7	14.9	13.9	14.9	16.9	25.7	20.2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 (예: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39.4	56.3	43.3	52.6	28.0	11.5	25.2	28.6	59.2	40.1
기타	2.0	2.7	2.2	0.0	5.4	1.2	2.9	2.8	0.0	1.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전 연령대에서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독립주거’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선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무에 대한 분석에서도 장애가 있는 경우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장애가 없는 경우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에 대한 선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거주유형,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 주거지원 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별 노숙인의 욕구에 적합한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와 지역을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표 4-4-23〉 희망하는 주거지원 유형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단기 잠자리만 제공하는 응급잠자리 (예: 응급잠자리)	1.0	3.2	2.1	2.2	1.3	2.5	0.9	0.6	2.5	2.1
단기 거주하면서 장기거주를 준비하는 주택 (예: 중간주택)	5.7	3.3	7.0	3.9	3.5	5.1	4.2	2.7	5.6	4.8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동생활주택, 그룹홈)	18.3	18.1	21.9	30.0	28.8	18.4	45.9	44.0	18.9	25.4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9.5	4.7	4.4	6.1	7.3	5.5	6.5	7.4	5.2	5.8
혼자 거주하면서 실무자나 복지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예: 지원주택)	20.0	20.9	20.0	19.9	21.0	20.5	19.2	16.2	21.6	20.2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 (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44.8	48.9	43.4	35.9	36.0	46.5	21.0	26.1	44.9	40.1
기타	1.0	0.9	1.4	2.2	2.2	1.5	2.4	3.0	1.3	1.7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4. 노숙 중 피해 경험 및 장소

노숙인 등의 노숙생활 중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행, 금품갈취, 명의도용 및 사기 등의 피해 경험을 분석하였다. 전체 노숙인 등의 6.9%는 노숙생활 중 각 피해 유형을 1개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명의도용 및 사기, 금품갈취, 성추행 및 성폭행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이 12.1%가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시설 입소자나 쪽방주민에 비해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처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은 구타 및 가혹행위(7.9%), 이용시설은 구타 및 가혹행위(3.8%)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자활시설은 명의도용 및 사기(4.4%), 재활시설은 구타 및 가혹행위(4.3%), 요양시설은 금품갈취(1.7%)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은 구타 및 가혹행위(3.1%)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와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기 피해, 금품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노숙인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16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태진 외, 2017, p.287).

〈표 4-4-24〉 노숙 중 피해 경험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구타, 가혹행위	7.9	3.8	6.9	1.5	4.3	1.3	2.7	3.5	3.1	3.3
성추행 및 성폭행	0.9	2.3	1.3	0.3	0.4	0.9	0.6	0.7	0.6	0.6
금품갈취	4.8	0.0	3.7	1.5	2.3	1.7	1.9	2.3	2.7	2.5
명의도용, 사기	2.6	1.8	2.4	4.4	2.9	1.0	2.4	2.4	2.8	2.5
계 ^{주)}	12.1 (253)	8.1 (59)	11.2 (312)	6.4 (171)	8.6 (517)	4.2 (450)	6.5 (1138)	7.4 (1450)	6.1 (250)	6.9 (1700)

주: 계는 피해 유형 중 1개 이상 응답한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피해 경험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미만의 경우 노숙생활 중 1개 이상의 피해 유형에 대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거의 20%에 가까워 노숙생활 중 범죄에 매우 취약하여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피해 경험을 분석해 보면 남녀 모두 1개 이상의 피해 유형을 경험한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금품갈취, 명의도용 및 사기의 피해 경험률이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행의 피해 경험률이 많았다.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여성에게만 경험되었는데 여성 노숙인 중 2.5%가 성추행 및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2016년 실태조사에서 여성 노숙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경험 비율인 7.2%보다는 낮아진 수치로 확인되었다(이태진 외, 2017, p.288).

또한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행의 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5〉 노숙 중 피해 경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구타, 가혹행위	11.5	6.5	3.4	2.2	1.5	3.3	3.4	5.1	2.7	3.3
성추행 및 성폭행	2.6	3.4	0.2	0.2	0.1	0.0	2.5	1.5	0.3	0.6
금품갈취	2.6	0.5	3.0	3.3	0.5	2.7	1.7	2.5	2.4	2.5
명의도용, 사기	11.5	4.5	2.4	1.5	1.4	2.9	1.4	2.5	2.5	2.5
계 ^{주)}	19.0 (90)	12.7 (206)	6.7 (532)	5.4 (656)	3.2 (216)	6.9 (1261)	6.8 (439)	9.1 (476)	6.1 (1224)	6.9 (1700)

주: 계는 피해 유형 중 1개 이상 응답한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노숙생활 중 주로 어디에서 관련된 피해를 경험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피해 유형별로 피해 경험한 장소를 살펴보면, 구타 및 가혹행위의 경우 거리(76.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용시설, 생활시설, 쪽방촌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소로는 고시

원, 집, 갯생원(삼척교육대와 비슷한 곳)으로 응답되었다.

거처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거리에서 경험하였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70% 가까이 거리라고 응답하였으나 생활시설에서 경험한 비율도 2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내에서의 노숙인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쪽방주민의 경우에도 70% 정도는 거리, 20% 정도는 쪽방촌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쪽방상당소에서도 쪽방주민의 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쪽방촌(46.8%)과 거리(45.7%)에서 대부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처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전원 거리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거리(52.4%)에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시설에서의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경험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쪽방주민의 경우 전원 쪽방촌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리 외에도 쪽방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및 성폭행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금품갈취의 경우 대부분 거리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이용시설, 생활시설, 쪽방촌에서의 경험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기타 장소로는 배, 찜질방, 친구라는 응답이 있었다. 명의도용 및 사기의 경우에도 80% 가까이 거리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쪽방촌,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나타났다. 기타장소로는 보이 스피싱, 남편, 아는 형님의 아내, 지인, 직장동료, 친구의 집 응답이 있었다.

〈표 4-4-26〉 노숙생활 중 피해 장소 (거처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구타, 가혹 행위	거 리	100.0	54.5	95.7	58.8	76.0	47.4	68.7	79.3	70.8	76.0
	이용시설	-	45.5	4.3	-	5.6	26.3	8.9	7.1	10.7	8.6
	생활시설	-	-	-	41.2	18.4	26.3	22.3	13.6	-	8.6
	쪽 방 촌	-	-	-	-	-	-	-	-	18.5	6.7
	합계	100.0 (27)	100.0 (3)	100.0 (30)	100.0 (3)	100.0 (22)	100.0 (5)	100.0 (30)	100.0 (60)	100.0 (8)	100.0 (68)
성추행 및 성폭행	거 리	100.0	100.0	100.0	100.0	92.3	26.9	52.4	68.8	-	45.7
	이용시설	-	-	-	-	7.7	23.1	16.7	10.9	-	7.4
	생활시설	-	-	-	-	-	-	-	-	-	-
	쪽 방 촌	-	-	-	-	-	50.0	31.0	20.3	100.0	46.8
	합계	100.0 (3)	100.0 (1)	100.0 (4)	100.0 (1)	100.0 (3)	100.0 (4)	100.0 (8)	100.0 (12)	100.0 (1)	100.0 (13)
금품 갈취	거 리	100.0	-	100.0	100.0	81.4	47.9	71.9	80.4	89.3	84.3
	이용시설	-	-	-	-	-	39.6	14.1	9.8	-	5.5
	생활시설	-	-	-	-	18.6	12.5	14.1	9.8	-	5.5
	쪽 방 촌	-	-	-	-	-	-	-	-	10.7	4.7
	합계	100.0 (15)	100.0 (0)	100.0 (15)	100.0 (3)	100.0 (13)	100.0 (6)	100.0 (22)	100.0 (37)	100.0 (8)	100.0 (45)
명의 도용, 사기	거 리	100.0	-	83.3	50.0	88.5	100.0	76.5	77.8	80.1	79.2
	이용시설	-	100.0	16.7	33.3	-	-	12.2	13.9	-	6.8
	생활시설	-	-	-	-	11.5	-	5.2	3.8	-	1.9
	쪽 방 촌	-	-	-	16.7	-	-	6.1	4.4	19.9	12.0
	합계	100.0 (8)	100.0 (1)	100.0 (9)	100.0 (7)	100.0 (17)	100.0 (5)	100.0 (29)	100.0 (38)	100.0 (6)	100.0 (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 장소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구타 및 가혹행위의 경우 남녀 모두 거리에서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거리에서의 경험 비율은 낮은 반면 쪽방촌과 이용시설에서 경험한 비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여성에게만 발생되었는데 대부분 쪽방촌(46.8%)과 거리(45.7%)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전원 거리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거리(52.4%)에서 많이 경험하였는데 상

대적으로 이용시설에서의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경험이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이용시설의 경우 성별로 물리적 공간 분리가 미흡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쪽방주민의 경우 전원 쪽방촌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쪽방상담소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품갈취의 경우 남녀 모두 거리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쪽방촌에서 경험한 비율도 높은 편이다. 거처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100% 거리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남성노숙인들은 거리와 생활시설에서, 여성노숙인들은 거리와 이용시설에서 금품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의 경우 남성은 거리에서, 여성은 쪽방촌에서 100%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및 사기와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 거리에서, 여성의 경우 쪽방촌에서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거처유형별로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남성은 거리 외에도 이용시설과 쪽방촌에서 여성은 거리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의 경우 남성노숙인에게만 발생되었는데 거리에서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쪽방주민의 경우 남성은 거리에서, 여성은 쪽방촌에서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 쪽방주민들이 쪽방촌에서 주요 범죄 피해 경험이 많다고 보고하여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27〉 성별 노숙생활 중 피해 장소 (거처유형별)

(단위: %)

남성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구타, 가혹 행위	거 리	100.0	100.0	100.0	50.0	74.6	100.0	71.9	44.7	86.9	84.4
	이용시설	-	-	-	-	5.9	-	5.2	3.2	13.1	7.1
	생활시설	-	-	-	50.0	19.5	-	30.0	22.6	-	8.5
	쪽 방 촌	-	-	-	-	-	-	-	-	-	-
	합계	100.0 (20)	100.0 (1)	100.0 (21)	100.0 (2)	100.0 (19)	100.0 (1)	100.0 (22)	100.0 (43)	100.0 (7)	100.0 (50)
성추행 및 성폭행	거 리	-	-	-	-	-	-	-	-	-	-
	이용시설	-	-	-	-	-	-	-	-	-	-
	생활시설	-	-	-	-	-	-	-	-	-	-
	쪽 방 촌	-	-	-	-	-	-	-	-	-	-
	합계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금품 갈취	거 리	100.0	-	100.0	100.0	79.7	68.4	80.4	87.0	100.0	93.2
	이용시설	-	-	-	-	-	-	-	-	-	-
	생활시설	-	-	-	-	20.3	31.6	19.6	12.9	-	6.8
	쪽 방 촌	-	-	-	-	-	-	-	-	-	-
	합계	100.0 (13)	100.0 (0)	100.0 (13)	100.0 (2)	100.0 (11)	100.0 (3)	100.0 (16)	100.0 (29)	100.0 (7)	100.0 (36)
명의 도용, 사기	거 리	100.0	-	83.3	46.2	88.5	100.0	75.9	78.1	100.0	87.6
	이용시설	-	100.0	16.7	35.9	-	-	12.5	14.2	-	7.6
	생활시설	-	-	-	-	11.5	-	5.4	3.9	-	2.2
	쪽 방 촌	-	-	-	17.9	-	-	6.3	4.5	-	2.5
	합계	100.0 (8)	100.0 (1)	100.0 (9)	100.0 (6)	100.0 (13)	100.0 (5)	100.0 (24)	100.0 (33)	100.0 (5)	100.0 (38)
여성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구타, 가혹 행위	거 리	100.0	-	84.8	100.0	100.0	44.4	56.5	68.4	-	48.6
	이용시설	-	100.0	15.2	-	-	27.8	21.7	19.0	-	13.8
	생활시설	-	-	-	-	-	27.8	21.7	12.7	-	9.2
	쪽 방 촌	-	-	-	-	-	-	-	-	100.0	28.4
	합계	100.0 (7)	100.0 (2)	100.0 (9)	100.0 (1)	100.0 (3)	100.0 (4)	100.0 (8)	100.0 (17)	100.0 (1)	100.0 (18)
성추행 및 성폭행	거 리	100.0	100.0	100.0	100.0	92.3	26.9	52.4	68.8	-	45.7
	이용시설	-	-	-	-	7.7	23.1	16.7	10.9	-	7.4
	생활시설	-	-	-	-	-	-	-	-	-	-
	쪽 방 촌	-	-	-	-	-	-	31.0	20.3	100.0	46.8
	합계	100.0 (3)	100.0 (1)	100.0 (4)	100.0 (1)	100.0 (3)	100.0 (4)	100.0 (8)	100.0 (12)	100.0 (1)	100.0 (13)
금품 갈취	거 리	100.0	-	100.0	100.0	100.0	34.5	50.0	58.7	-	43.5
	이용시설	-	-	-	-	-	65.5	50.0	41.3	-	30.6
	생활시설	-	-	-	-	-	-	-	-	-	-
	쪽 방 촌	-	-	-	-	-	-	-	-	100.0	25.8
	합계	100.0 (2)	100.0 (0)	100.0 (2)	100.0 (1)	100.0 (2)	100.0 (3)	100.0 (6)	100.0 (8)	100.0 (1)	100.0 (9)
명의 도용, 사기	거 리	-	-	-	100.0	-	-	-	20.0	-	16.7
	이용시설	-	-	-	-	-	-	-	-	-	-
	생활시설	-	-	-	-	-	-	-	-	-	-
	쪽 방 촌	-	-	-	-	-	-	-	-	100.0	16.7
	기타	-	-	-	-	100.0	-	-	80.0	-	66.7
합계	100.0 (0)	100.0 (0)	100.0 (0)	100.0 (1)	100.0 (4)	100.0 (0)	100.0 (5)	100.0 (5)	100.0 (1)	100.0 (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5. 쪽방주민의 주거 실태

이하에서는 쪽방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기를 분석하면 2018년 이후의 최근 시점에서 쪽방거주를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약 4년 사이에 조사대상자의 약 30%가 쪽방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1990년 이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7.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간 쪽방에 거주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로 2005년 이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부산, 대구, 인천의 쪽방주민이 비교적 최근에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18~2021년 약 4년 사이에 조사대상자의 약 65%가 쪽방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에 쪽방생활을 시작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과 대전의 경우 비교적 2016년 이전부터 쪽방생활을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28〉 지역별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단위: %, 명)

구분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1990 이전(~1989)	11.8	2.1	0.0	5.6	10.3	7.9
1990~1994	3.7	6.1	0.0	8.7	2.5	3.9
1995~1999	3.7	0.0	4.6	2.8	5.1	3.3
2000~2004	12.7	0.0	9.4	2.8	5.1	8.5
2005~2009	11.9	4.0	11.5	0.0	10.1	9.3
2010~2014	22.0	2.1	20.9	25.6	33.4	20.1
2015	9.6	4.1	0.0	2.8	0.0	5.8
2016	4.9	6.0	11.5	2.8	5.1	5.8
2017	1.8	10.4	4.6	8.7	5.1	4.6
2018	7.0	18.2	9.3	5.6	10.3	9.5
2019	4.8	14.1	7.2	11.7	5.1	7.3
2020	4.9	20.6	14.0	11.3	5.1	9.3
2021	1.2	12.2	6.9	11.5	2.5	4.8
합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4-29〉 지역별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경과연수

(단위: %, 명)

구분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1년 미만	2.4	18.4	9.2	14.3	5.1	7.3
1년 이상 2년 미만	8.5	22.5	16.6	11.5	5.1	11.8
2년 이상 5년 미만	8.8	38.6	18.4	23.2	20.5	17.6
5년 이상 10년 미만	29.1	6.2	18.4	14.1	18.1	21.4
10년 이상 20년 미만	23.0	6.2	30.2	19.9	28.1	21.4
20년 이상	28.2	8.2	7.1	17.0	23.2	20.6
합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주: 기준은 면접조사 시점(2021년 6월)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분석하면, 70세 이상에서 1999년 이전부터 생활하기 시작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쪽방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40세 이하에서는 2018년부터 쪽방 생활을 시작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비교적 최근에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교적 쪽방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18년부터 쪽방 생활을 시작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최근에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유무로는 장애를 가진 경우 비교적 일찍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반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 최근에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30〉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990이전(~1989)	-	-	5.4	4.2	23.5	6.1	18.0	10.9	7.4	7.9
1990~1994	-	8.1	-	.9	14.9	3.5	6.0	9.2	2.9	3.9
1995~1999	-	0.0	1.9	2.5	8.8	3.6	1.5	-	3.9	3.3
2000~2004	-	8.2	2.6	15.1	7.8	8.3	9.4	5.8	9.0	8.5
2005~2009	-	7.4	6.4	16.0	4.5	9.8	6.8	5.7	10.0	9.3
2010~2014	23.8	11.6	19.2	23.9	17	20.7	17.4	25.4	19.1	20.0
2015	17.2	-	11.1	4.2	-	5.9	5.1	3.8	6.2	5.8
2016	-	3.9	11.1	2.5	4.6	6.2	3.4	3.9	6.1	5.8
2017	7.0	11.4	1.6	6.3	3.2	4.3	5.8	5.8	4.3	4.6
2018	19.3	17.1	12.5	5.5	7.0	8.9	12.5	14.6	8.5	9.4
2019	15.9	11.9	10.3	4.5	4.0	7.2	7.8	7.7	7.2	7.3
2020	9.9	8.1	11.1	10.4	4.6	10.1	5.1	5.3	10.1	9.3
2021	7.0	12.3	6.7	4.0	-	5.4	1.5	1.9	5.4	4.8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4-31〉 처음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경과연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년 미만	7.0	12.3	11.6	5.6	1.4	8.1	3.0	1.9	8.3	7.3
1년 이상 2년 미만	17.8	8.1	14.8	12.3	6.0	11.9	11.4	11.2	11.9	11.8
2년 이상 5년 미만	34.2	40.4	19.7	12.7	11.4	17.5	18.3	22.2	16.7	17.6
5년 이상 10년 미만	34.4	15.5	27.5	21.6	10.7	22.1	17.2	22.1	21.2	21.4
10년 이상 20년 미만	6.6	7.4	17.2	30.2	20.1	22.5	15.3	18.6	21.9	21.4
20년 이상	0.0	16.3	9.2	17.6	50.4	17.9	34.9	24.0	19.9	20.6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주: 기준은 면접조사 시점(2021년 6월)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쪽방의 거주시설 형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주면적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쪽방주민의 71.6%는 거주면적 6.6㎡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14㎡ 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쪽방주민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이어서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4.6%로 발표된 것과 비교해서도 쪽방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강미나 외, 2020, p.75).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역별로 쪽방 거주 면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거주면적 6.6㎡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쪽방주민이 80% 이상이지만 대전의 경우 거주면적 13.3㎡ 이상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쪽방주민이 71.8%로 나타나 대조적인 실태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연령층에서 거주면적 6.6㎡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쪽방주민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70세 이상의 쪽방주민 중 22.8%가 거주면적 13.3㎡ 이상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연령층에서도 거주면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쪽방주민에 비해서는 여성 쪽방주민의 거주면적이 다소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쪽방주민의 72.9%가 6.6㎡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64.4%로 남성 쪽방주민에 비해 8%p 이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여성 쪽방주민의 경우 쪽방이지만 다소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13.3㎡ 이상의 면적)이 18.4%로 남성 쪽방주민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남성 쪽방주민이 여성 쪽방주민에 비해서는 다소 열악한 주거면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면적에서 생활하거나 반대로 다소 넓은 면적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경우 13.3㎡ 이상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주민의 비율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32〉 지역별 쪽방 거주 면적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3.3㎡	24.6	71.0	0.0	34.5	0.0	27.3				
3.4~6.6㎡ 이하	46.5	22.8	95.5	45.8	5.1	44.3				
6.7~9.9㎡ 이하	17.1	6.2	4.5	16.9	12.8	13.1				
10.0~13.2㎡ 이하	7.2	0.0	0.0	2.8	10.3	5.0				
13.3㎡ 이상	4.6	0.0	0.0	0.0	71.8	10.3				
평균	7.5	4.5	6.0	6.2	19.0	7.9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3.3㎡	19.2	16.7	32.5	33.1	13.5	31.1	6.6	17.6	29.1	27.3
3.4~6.6㎡ 이하	64.8	54.9	43.4	39.8	46.4	41.8	57.8	59.2	41.5	44.3
6.7~9.9㎡ 이하	0.0	24.5	11.6	13.2	13.5	13.5	10.4	3.7	14.8	13.1
10.0~13.2㎡ 이하	0.0	3.9	5.5	5.9	3.9	4.7	6.8	1.8	5.6	5.0
13.3㎡ 이상	16.1	0.0	6.9	8.0	22.8	8.8	18.4	17.7	8.9	10.3
평균	8.1	7.1	7.4	7.4	10.0	7.6	10.0	8.9	7.8	7.9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4-33〉 지역별 쪽방 1인 최저주거면적 기준 여부(14㎡ 미달 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14㎡ 미만	95.4	100.0	100.0	100.0	28.2	89.7				
14㎡ 이상	4.6	0.0	0.0	0.0	71.8	10.3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4㎡ 미만	84.1	100.0	93.0	92.0	77.2	91.2	81.8	82.3	91.2	89.7
14㎡ 이상	15.9	0.0	7.0	8.0	22.8	8.8	18.2	17.7	8.8	10.3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쪽방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시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을 조사하였다. 먼저 자가가구 대상 질문항목인 주택시세의 경우 100%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쪽방주민의 거주하는 쪽방에 대한 보증금 수준을 보면 보증금 역시 “0”원이라는 응답이 92.1%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을 포함하여 100만원 미만의 보증금을 낸 경우는 5.3%로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보증금 규모는 23.2만원, 0원을 제외하면 295만원 수준으로 2016년도 실태조사 분석결과(각각 19.65만원, 237.27만원)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 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태진 외, 2017, p.311).

월임대료 수준을 보면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가 5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39.1%, 10만원 이하 3.5%로 조사되어 대부분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적인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0원을 포함 시 21.6만원, 0원을 제외하면 21.8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중위임대료 수준은 2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도 2016년도 실태조사 분석 결과(각각 19.14만원, 20.17만원)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태진 외, 2017, p.311).

이미 앞에서 쪽방의 거주면적이 대부분 6.6㎡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 시 중위임대료 수준이 22만원인 것은 거주면적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쪽방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할 때 임대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4-34〉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 %, 만원)

보증금	비율	통계량
0원	92.1	"0"포함 평균: 23.2 중위: 0
0 ~ 100만원 미만	2.5	
100만원	1.8	"0"제외 평균: 295.4 중위: 100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3.0	
500만원 초과	0.6	
월임대료	비율	통계량
0원	0.9	"0"포함 평균: 21.6 중위: 22
0 ~ 10만원 이하	3.5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39.1	"0"제외 평균: 21.8 중위: 22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52.8	
40만원 초과	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보증금을 분석해 보면 대전 외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경우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전의 경우에는 쪽방주민의 23% 정도는 1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보증금이 없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다만 70세 이상의 약 20%는 보증금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증금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보면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5〉 지역별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보증금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만원)

보증금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0원	97.7	91.7	97.8	94.4	59.0	92.1
0~100만원 미만	0.0	0.0	2.2	2.8	18.1	2.5
100만원	0.0	4.1	0.0	2.8	7.6	1.8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3	4.1	0.0	0.0	10.1	3.0
500만원 초과	0.0	0.0	0.0	0.0	5.1	0.6
평균	9.1	25.0	0.7	3.6	127.0	23.2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보증금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0원	92.2	100.0	97.4	92.0	80.6	94.2	81.2	90.7	92.4	92.1
0~100만원 미만	7.8	0.0	0.8	3.1	4.2	2.0	5.2	3.6	2.3	2.5
100만원	0.0	0.0	0.0	1.4	6.4	1.0	6.0	0.0	2.1	1.8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0.0	0.0	1.7	3.4	5.9	2.5	5.8	3.9	2.8	3.0
500만원 초과	0.0	0.0	0.0	0.0	2.9	0.3	1.9	1.8	0.3	0.6
평균	0.8	0.0	3.3	14.9	84.7	12.0	83.7	62.0	15.8	23.2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월임대료를 분석해 보면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월임대료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의 쪽방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반면 대구와 대전의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쪽방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가장 많았다. 특히 대구의 경우 쪽방주민 100%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쪽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주거여건 및 편의시설 근접성 등의 차이로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별로도 월임대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0세 이하의 경우 약 70% 정도가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의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월임대료를 내는 쪽방에서 생활하

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보면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이 상대적으로 좀더 저렴한 월임대료를 내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6〉 지역별 거주하고 있는 쪽방의 주택 월 임대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월임대료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0원	0.0	2.1	0.0	2.9	2.7	0.9
0 ~ 10만원 이하	1.3	4.0	0.0	8.5	12.9	3.5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25.4	20.1	100.0	26.6	74.1	40.2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70.9	73.8	0.0	62.0	10.3	54.2
40만원 초과	2.4	0.0	0.0	0.0	0.0	1.2
평균	24.5	20.1	16.7	22.2	16.7	21.6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월임대료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0원	0.0	0.0	0.7	1.0	1.6	0.7	1.9	4.1	0.3	0.9
0 ~ 10만원 이하	7.8	3.9	2.8	3.2	4.3	2.2	10.8	7.0	2.9	3.5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17.6	23.1	37.9	39.6	56.5	41.5	32.8	35.2	41.1	40.2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74.6	73.1	58.6	54.5	34.6	54.8	50.7	53.7	54.3	54.2
40만원 초과	0.0	0.0	0.0	1.7	3.0	0.7	3.6	0.0	1.4	1.2
평균	22.8	22.2	21.6	21.4	21.7	21.6	22.0	20.3	21.9	21.6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 체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7.6%가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가 상대적으로 체납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임대료 체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9.0%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 체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여성 쪽방주민의 경우 전무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임대료 체납 경험이 더 많았다.

〈표 4-4-37〉 지역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 체납 여부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있음	9.7	6.0	9.3	5.9	0.0	7.6
없음	90.3	94.0	90.7	94.1	100.0	92.4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음	6.7	8.0	8.4	6.9	7.7	9.0	0.0	9.5	7.3	7.6
없음	93.3	92.0	91.6	93.1	92.3	91.0	100.0	90.5	92.7	92.4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구체적으로 쪽방의 내외부 시설에 대한 실태를 보고자 한다. 먼저 침실방 수는 방 1개를 가진 경우가 9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거주면적이 다소 넓은 쪽방 비율이 높은 대전에서 2개 이상의 방이 있는 비율이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와의 환기 등을 고려한 창문 유무에 있어서는 쪽방주민의 72.6%가 쪽방에 창문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창문이 없다고 한 경우도 27.4%로 높게 나타나 쪽방주민 중 일부는 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구의 쪽방에서 창문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엌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4.1%로 쪽방주민의 절반 가까이 부엌이 없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취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엌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인가를 보면 주로 공동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엌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의 쪽방에서 부엌이 없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공동사용(입식) 형태 비율이, 대전의 경우 단독사용(입식) 형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실 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쪽방주민 대부분이(82.7%) 화장실은 공

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세식 화장실인 경우가 70.7%로 많았으며, 공동사용에 재래식 화장실의 비율도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화장실 형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공동사용의 수세식 화장실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의 경우 공동사용의 재래식 화장실이, 대전의 경우 단독사용의 수세식 화장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8〉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1)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침실방	없음	0.0	0.0	0.0	0.0	0.0	0.0
	1개	96.6	100.0	100.0	100.0	81.9	96.3
	2개 이상	3.4	0.0	0.0	0.0	18.1	3.7
창문 유무	없음	14.6	67.2	11.5	31.5	41.0	27.4
	있음	85.4	32.8	88.5	68.5	59.0	72.6
부엌형태	단독사용-입식	11.7	4.1	2.2	8.2	46.2	12.7
	단독사용-재래식	0.0	2.1	2.2	2.8	15.4	2.6
	공동사용-입식	22.0	93.8	32.7	71.6	5.1	37.8
	공동사용-재래식	3.7	0.0	6.9	0.0	0.0	2.8
	없음	62.6	0.0	55.9	17.4	33.3	44.1
화장실	단독사용-수세식	10.9	2.1	2.2	11.3	59.0	13.7
	단독사용-재래식	0.0	0.0	0.0	2.8	10.3	1.4
	공동사용-수세식	78.4	97.9	46.6	74.3	20.4	70.7
	공동사용-재래식	8.3	0.0	51.2	2.8	7.6	12.0
	없음	2.4	0.0	0.0	8.7	2.7	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앞서 분석한 침실방, 창문 유무, 부엌 형태, 화장실 등 쪽방 내부 시설 형태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침실방의 경우 대체로 연령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70세 이상에서 2개 이상의 방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남녀 거주자 간에는 방 2개를 가진 쪽방주민 비율에서 여성 쪽방주민이 10.8%로 남성 쪽방주민 2.4%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 기준으로 볼 때 침실방 개수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하는 곳의 창문 유무를 분석하면, 연령별로 볼 때 40대와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문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차이를 보면 남성 쪽방주민 중 28.5%가 창문이 없다고 응답해 여성 쪽방주민 21.6%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경우 창문이 없는 쪽방에서 생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엌형태에서는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60대의 경우 부엌이 없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엌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사용의 입식 형태의 부엌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남성 쪽방주민이 부엌이 없는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쪽방주민은 공동사용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 쪽방주민은 단독사용하는 부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엌활용도가 높고 위생, 사생활 등의 이유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 쪽방주민의 단독부엌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경우 부엌이 없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단독사용의 입식 부엌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엌 형태 조건이 좀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실의 경우 공동사용의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의 경우 단독사용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좀 더 여건이 좋은 쪽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공동사용 화장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 쪽방주민 비율이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이 단독사용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4-39〉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1)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침실방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개	100.0	100.0	99.2	96.0	90.1	97.6	89.2	94.6	96.6	96.3
	2개 이상	0.0	0.0	0.8	4.0	9.9	2.4	10.8	5.4	3.4	3.7
창문 유무	없음	24.9	41.7	34.6	20.9	22.6	28.5	21.6	22.5	28.3	27.4
	있음	75.1	58.3	65.4	79.1	77.4	71.5	78.4	77.5	71.7	72.6
부엌형태	단독사용-입식	39.7	11.9	5.3	11.3	23.3	9.8	28.8	24.6	10.5	12.7
	단독사용-재래식	0.0	0.0	0.8	1.6	8.8	2.0	5.6	1.8	2.7	2.6
	공동사용-입식	60.3	56.6	43.6	30.3	30.7	40.3	24.0	30.3	39.2	37.8
	공동사용-재래식	0.0	0.0	3.7	3.4	1.5	3.3	0.0	3.8	2.6	2.8
	없음	0.0	31.6	46.6	53.4	35.7	44.6	41.6	39.5	45.0	44.1
화장실	단독사용-수세식	16.0	12.1	8.7	14.7	20.2	11.0	27.9	21.4	12.2	13.7
	단독사용-재래식	0.0	0.0	0.8	0.7	4.4	1.3	1.9	1.8	1.3	1.4
	공동사용-수세식	60.3	76.5	76.9	69.6	62.0	73.5	55.4	58.1	73.1	70.7
	공동사용-재래식	23.7	11.4	12.0	13.3	7.5	11.8	12.9	14.9	11.4	12.0
	없음	0.0	0.0	1.5	1.7	5.8	2.3	1.9	3.8	2.0	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주요한 주거시설 중 하나인 목욕시설과 관련하여 공동사용하면서 온수시설이 있는 경우가 50.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목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19.9%였다. 2016년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별도의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에 대한 비율(44.7%)보다 낮아져 그동안 다소 목욕시설에 대한 편이가 나아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에 있는 쪽방에서 목욕시설이 없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온수시설이 있는 공동사용의 목욕시설이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의 경우 온수시설이 없는 공동사용의 목욕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의 경우 온수시설이 있는 단독사용의 목욕시설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설에 대한 질문에서는 쪽방 대부분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가동하는 경우가 7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

은 경우와 있어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6.3%, 19.5%로 나타나 쪽방주민 네 명 중 한 명은 겨울기간 동안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난방시설이 없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2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거의 90%가 난방시설이 있으며 가동되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는 난방시설 면에서 나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난방형태는 주로 가스보일러(35.8%)와 전기장판(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보일러 외 전기장판 사용이 많다는 점은 쪽방주민이 난방시설이 있어도 그 시설 형태가 충분히 겨울에 생활할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가스보일러 사용이 많은 반면 대구의 경우 연탄보일러, 대전의 경우 기름보일러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0〉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2)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목욕 시설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5.4	0.0	2.2	11.3	59.1	10.5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0.0	0.0	0.0	2.8	2.5	0.5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48.9	79.9	46.6	63.0	10.1	50.7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18.3	15.9	48.9	0.0	0.0	18.3
	없음	27.5	4.1	2.2	22.8	28.2	19.9
난방 시설 유무	없음	4.6	21.9	0.0	0.0	2.5	6.3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20.5	4.0	39.4	28.4	7.8	19.5
	있으며 가동함	74.9	74.0	60.6	71.6	89.7	74.2
난방 형태	연탄보일러	1.3	0.0	55.8	11.1	21.0	11.8
	기름보일러	5.1	2.7	2.2	0.0	45.1	8.5
	가스보일러	39.6	50.5	0.0	66.2	21.0	35.8
	전기보일러	12.8	5.0	0.0	5.6	2.6	8.1
	중앙난방(지역난방)	0.0	0.0	0.0	11.5	0.0	1.0
	전기장판	36.3	41.8	41.9	5.6	10.4	32.1
	기타	5.0	0.0	0.0	0.0	0.0	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목욕시설, 난방시설, 난방형태와 관련하여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목욕시설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목욕시설이 없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온수시설이 있는 공동 목욕시설을 사용하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쪽방주민이 단독사용하면서 온수시설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경우 온수시설이 있는 단독사용의 목욕시설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장애를 가지지 않는 주민의 경우 온수시설이 있는 공동사용의 목욕시설이 있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난방시설 유무와 관련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난방시설이 있으며 가동되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지지 않는 쪽방주민의 경우 난방시설이 있으며 가동되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형태로는 연령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40세 미만과 60대의 경우 전기장판을, 40대와 50대의 경우 가스보일러를, 70대의 경우 연탄보일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가스보일러가 주요한 난방시설이었으며 이외에 남성은 전기장판과 전기보일러를, 여성 쪽방주민은 연탄 및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난방형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1〉 현재 거주하는 쪽방 내부시설(2)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목욕 시설	단독사용-온수 시설 있음	16.0	3.9	8.7	9.5	17.1	8.8	20.0	17.5	9.2	10.5
	단독사용-온수 시설 없음	0.0	0.0	0.7	0.8	0.0	0.6	0.0	1.7	0.3	0.5
	공동사용-온수 시설 있음	60.3	71.6	55.1	52.9	29.5	50.9	49.8	35.9	53.5	50.7
	공동사용-온수 시설 없음	17.0	24.5	17.2	15.6	22.9	20.3	7.7	24.9	17.0	18.3
	없음	6.7	0.0	18.2	21.2	30.6	19.5	22.5	19.9	20.0	19.9
난방 시설 유무	없음	7.8	4.4	8.1	5.1	6.2	6.9	3.3	11.5	5.3	6.3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24.4	18.7	20.7	23.1	10.0	18.8	22.9	21.4	19.1	19.5
	있으며 가동함	67.9	76.9	71.2	71.8	83.8	74.3	73.8	67.1	75.6	74.2
난방 형태	연탄보일러	26.0	4.1	5.0	10.2	26.7	11.7	12.5	14.4	11.4	11.8
	기름보일러	0.0	17.3	6.9	6.0	13.9	7.9	11.5	10.3	8.2	8.5
	가스보일러	19.2	44.8	49.3	30.1	24.0	35.3	38.4	33.4	36.3	35.8
	전기보일러	10.2	0.0	7.4	12.4	4.2	8.7	5.1	1.9	9.2	8.1
	중앙난방(지역 난방)	7.3	0.0	0.8	0.0	2.6	0.9	1.6	0.0	1.2	1.0
	전기장판	37.3	33.8	28.6	37.7	25.7	33.0	27.3	36.1	31.4	32.1
	기타	0.0	0.0	2.1	3.6	3.0	2.4	3.6	3.9	2.4	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주민이 쪽방생활을 하면 경험하는 가장 큰 불편함을 분석하면, 화장실·취사실·세탁실 등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함(34.7%)을 가장 크다고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침실 면적, 채광·통풍·습기, 소음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화장실·취사실·세탁실 등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일치하는 반면 냉난방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화장실·취사실·세탁실 등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의 경우 침실면적에 대한 불편함이, 대전의 경우 채광, 통풍, 습기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여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42〉 쪽방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규칙	1.2	0.0	0.0	11.5	0.0	1.6
냉난방	10.9	12.0	6.9	8.7	5.1	9.7
채광, 통풍, 습기	9.2	14.2	18.7	17.2	30.8	14.4
소음	13.1	12.6	2.2	5.4	15.4	11.2
침실면적	15.3	28.2	18.7	5.9	2.5	15.7
화재 등 재해위험	3.4	0.0	2.2	5.7	10.3	3.7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	34.8	24.7	51.3	37.0	28.0	34.7
사생활보호	1.2	6.2	0.0	5.9	0.0	2.2
건물 내 이동	0.0	0.0	0.0	2.8	2.7	0.5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1.2	0.0	0.0	0.0	0.0	0.6
기타	9.6	2.1	0.0	0.0	5.1	5.8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로 세분하여 보면 분석해 보면, 40세 미만의 쪽방주민들은 채광, 통풍, 습기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의 쪽방주민들은 화장실·취사실·세탁실 등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성의 경우 냉난방, 채광·통풍·습기, 침실면적 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다고 상대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화장실·취사실·세탁실, 소음, 화재 등 재해위험, 건물 내 이동 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편한 문제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쪽방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화장실·취사실·세탁실 등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경우 채광, 통풍, 습기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비율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주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낮은 비율이지만 건물 내 이동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도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4-43〉 쪽방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규칙	0.0	0.0	1.5	1.7	2.4	1.6	1.5	0.0	1.9	1.6
냉난방	17.1	11.9	11.1	6.5	11.2	10.5	5.9	11.1	9.5	9.7
채광, 통풍, 습기	42.5	3.2	14.7	15.9	10.2	14.6	12.9	27.9	11.8	14.4
소음	9.8	8.0	14.0	13.1	4.5	10.8	13.5	3.8	12.6	11.2
침실면적	0.0	8.5	16.0	21.2	10.8	17.1	7.9	13.1	16.2	15.7
화재 등 재해위험	0.0	0.0	1.7	4.1	8.1	2.4	10.4	3.2	3.7	3.7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	30.6	42.6	28.1	33.4	45.7	33.2	42.5	32.0	35.2	34.7
사생활보호	0.0	9.2	2.6	1.7	0.0	2.6	0.0	1.5	2.3	2.2
건물 내 이동	0.0	0.0	0.0	0.8	1.2	0.3	1.9	1.8	0.3	0.5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0.0	0.0	1.8	0.0	0.0	0.7	0.0	0.0	0.7	0.6
기타	0.0	16.5	8.3	1.7	5.9	6.2	3.5	5.6	5.8	5.8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분석하면, 쪽방거주지역이 비위생적이라는 점(2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생활은 특히 고령자가 많은 쪽방주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위생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네의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20.8%), 전기 등 기반시설부족(8.7%), 철거 및 퇴거 위험(7.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쪽방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어려움과 생활기반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문제들이 쪽방거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소음, 더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적되었다.

지역별로는 지역특성에 따라 현재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부산의 경우 비위생적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대구의 경우 동네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 인천과 대전의 경우 철거 및 퇴거위험을 가

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주민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쪽방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철거 및 퇴거위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 안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4-44〉 현재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동네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	16.6	22.3	51.3	20.2	2.5	20.8
철거 및 퇴거위험	3.6	0.0	0.0	22.8	33.5	7.4
전기 등 기반시설 부재	9.6	16.3	2.2	0.0	7.6	8.7
교통불편	1.1	0.0	0.0	8.3	0.0	1.3
시장, 은행 등 편의시설 부족	1.2	2.1	0.0	8.7	5.3	2.3
침수, 화재 등 재해위험	4.9	8.2	4.6	0.0	2.5	4.8
주민등록 등재 문제	0.0	0.0	0.0	2.8	0.0	0.2
열악한 교육환경	1.2	0.0	2.2	0.0	0.0	0.9
치안불안정	9.5	0.0	4.8	0.0	2.5	5.7
비위생적	24.6	34.7	32.6	5.4	22.9	25.5
복지정보와 자원부족	0.0	12.3	2.2	11.5	5.1	3.9
기타	27.7	4.1	0.0	20.2	18.1	18.4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현재 거주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로 세분하여 보면 40세 미만, 50대, 60대의 경우 비위생적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4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 동네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를 가장 많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남성 쪽방주민의 경우 동네의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와 전기 등 기반시설 부재가, 여성 쪽방주민의 경우 철거 및 퇴거위험, 교통불편, 치안불안정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비위생적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장애를 가지지 않은 쪽방주민들

의 경우 동네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에 대한 응답 비율이 장애를 가진 주민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4-4-45〉 현재 거주 지역에서 느끼는 불편함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동네 나쁜 인상과 주변인의 무시	26.3	20.6	13.3	21.8	30.7	22.3	12.9	11.0	22.7	20.8
철거 및 퇴거위험	6.7	0.0	2.5	8.4	16.7	5.6	17.0	6.9	7.5	7.4
전기 등 기반시설 부재	9.8	4.6	10.5	7.0	10.4	9.7	3.5	3.8	9.7	8.7
교통불편	0.0	0.0	3.1	0.7	0.0	0.0	8.1	1.5	1.2	1.3
시장, 은행 등 편의시설 부족	17.0	3.9	1.5	1.8	1.2	2.0	3.8	7.2	1.4	2.3
침수, 화재 등 재해위험	0.0	13.1	4.9	4.3	3.0	5.2	2.1	3.8	4.9	4.8
주민등록 등재 문제	0.0	0.0	0.7	0.0	0.0	0.3	0.0	0.0	0.3	0.2
열악한 교육환경	0.0	0.0	2.8	0.0	0.0	1.1	0.0	0.0	1.1	0.9
치안불안정	0.0	2.3	6.4	5.0	0.0	5.1	9.3	5.3	5.8	5.7
비위생적	25.3	19.9	26.5	32.2	13.9	25.8	24.3	30.9	24.5	25.5
복지정보와 자원부족	0.0	3.1	4.6	3.7	4.0	4.0	3.6	6.2	3.5	3.9
기타	14.9	11.4	23.2	15.1	20.0	19.0	15.4	23.6	17.4	18.4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복지시설인 쪽방상담소의 이용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3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일 이용(22.1%), 월 1회 이용(17.8%), 주 2~3회 이용(12.8%)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쪽방상담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5.7%인 것(이태진 외, 2017, p.318)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쪽방상담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쪽방상담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문제 발생시 이를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많은 쪽방주민이 주요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등이 잘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쪽방상담소 이용정도가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천의 경우 월1회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서울을 제외하면 쪽방상담소를 잘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월 1회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로 쪽방상담소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차이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4-46〉 쪽방상담소 이용정도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매일 이용	43.7	0.0	0.0	0.0	0.0	22.1
주2~3회 이용	20.4	2.1	2.2	8.3	10.3	12.8
월1회 이용	7.2	26.6	23.3	48.9	23.1	17.8
월2~3회 이용	7.1	22.7	4.6	11.5	23.2	11.6
잘 이용하지 않음	21.6	44.4	53.4	28.5	41.0	32.4
전혀 이용하지 않음	0.0	4.1	16.4	2.8	2.5	3.4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상담소의 이용빈도와 관련하여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일관되게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의 쪽방주민들이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있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쪽방주민의 경우 잘 이용하지 않는 경우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쪽방주민의 경우 주 2~3회 이용, 월 1회 이용, 월 2~3회 이용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장애를 가진 경우 월 1회 이용,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경우 매일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47〉 쪽방상담소 이용정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매일 이용	0.0	16.3	24.3	25.5	18.1	23.4	14.7	13.7	23.7	22.1
주2~3회 이용	17.0	8.3	9.3	14.8	15.9	11.7	18.8	10.4	13.2	12.8
월1회 이용	21.6	11.7	19.4	15.0	22.4	17.6	19.3	25.7	16.3	17.8
월2~3회 이용	17.0	13.1	9.4	15.0	7.3	10.3	18.6	9.0	12.0	11.6
잘 이용하지 않음	34.5	46.7	34.8	26.4	33.2	33.4	26.6	37.3	31.4	32.4
전혀 이용하지 않음	9.8	3.9	2.8	3.3	3.1	3.6	2.1	3.8	3.3	3.4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현재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계속해서 쪽방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40.3%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59.7%에 비해서는 약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조사의 계속 거주 희망 비율 53.8%보다 약 13%p 낮아진 것이다(이태진 외, 2017, p.310).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의 쪽방주민들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서울, 인천, 대전의 경우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를 가진 쪽방주민의 경우 계속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4-48〉 쪽방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계속 거주	32.1	50.5	74.2	42.5	20.4	40.3				
그렇지 않다	67.9	49.5	25.8	57.5	79.6	59.7				
계	100.0 (84)	100.0 (49)	100.0 (43)	100.0 (35)	100.0 (39)	100.0 (25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계속 거주	30.9	24.5	29.8	47.3	52.6	40.5	39.2	34.6	41.4	40.3
그렇지 않다	69.1	75.5	70.2	52.7	47.4	59.5	60.8	65.4	58.6	59.7
계	100.0 (10)	100.0 (18)	100.0 (81)	100.0 (87)	100.0 (54)	100.0 (206)	100.0 (44)	100.0 (42)	100.0 (208)	100.0 (2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쪽방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고 하는 경우가 63.5%로 쪽방주민 세 명 중 두 명은 주거불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더 좋은 주거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수의 쪽방주민들이 쪽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교통 편리(9.1%), 불편함이 없음(8.6%),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음(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해 볼 때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현재 쪽방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49〉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교통 편리	7.8	28.4	0.0	0.0	0.0	9.1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	7.2	12.1	0.0	6.6	0.0	6.1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7.0	0.0	0.0	20.2	12.2	5.3
불편함이 없어서	10.6	11.9	0.0	19.7	0.0	8.6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55.9	43.7	97.0	47.0	75.6	63.5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11.4	3.9	3.0	6.6	12.2	7.5
계	100.0 (27)	100.0 (25)	100.0 (32)	100.0 (15)	100.0 (8)	100.0 (107)

주: '일자리가 가까워서' '기타'는 설문항목에는 있으나 해당 응답이 없어 기재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를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0대 이상의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40세 미만의 경우 '교통 편리'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대 이하의 경우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분석하면, 남성의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음', '교통 편리',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불편함이 없음',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 '친한 이웃이 있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쪽방 거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한 이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일관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15.3%로 나타나 현재 거주하는 쪽방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후원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현재 쪽방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4-50〉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교통 편리	30.5	0.0	3.4	15.4	3.4	9.7	5.7	6.0	9.6	9.1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	22.0	0.0	0.0	5.7	12.0	2.8	24.0	6.0	6.1	6.1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25.4	34.0	2.4	4.4	2.3	4.1	12.0	5.0	5.3	5.3
불편함이 없어서	0.0	13.0	13.3	1.4	16.0	5.5	25.5	4.3	9.2	8.6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22.0	35.0	69.4	66.0	63.5	69.7	28.8	63.5	63.5	63.5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0.0	18.0	11.5	7.3	2.8	8.1	3.9	15.3	6.2	7.5
계	100.0 (4)	100.0 (5)	100.0 (27)	100.0 (44)	100.0 (27)	100.0 (89)	100.0 (18)	100.0 (18)	100.0 (89)	100.0 (107)

주: '일자리가 가까워서' '기타'는 설문항목에는 있으나 응답이 없어 기재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자 한다면 어느 곳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쪽방주민들은 일반주택의 전월세(21.1%)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72.8%)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쪽방주민의 소득이 낮고 생활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일반 주택 입주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렴한 시설이 쪽방에 비해 좋은 임대주택 입주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도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 대구의 경우 일반주택 전월세를 많이 희망한 반면 서울, 인천, 대전의 경우 정부지원 임대주택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1〉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지역별)

(단위: %, 명)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일반주택 전월세	13.2	54.2	81.4	4.9	6.5	21.1
정부지원 임대주택	81.3	45.8	9.8	95.1	77.3	72.8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0.0	0.0	0.0	0.0	16.3	2.4
농촌 등 정착	5.5	0.0	8.7	0.0	0.0	3.6
계	100.0 (57)	100.0 (24)	100.0 (11)	100.0 (20)	100.0 (31)	100.0 (1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쪽방에서 이주 시 희망하는 곳을 분석해 보면, 먼저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면 다른 연령층에서 정부지원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및 여성 모두 정부지원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특징을 보면 남성은 정부지원 임대주택과 농촌 등 정착을 상대적으로 더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일반주택 전월세,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을 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부지원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52〉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일반주택 전월세	0.0	50.2	16.9	27.6	6.3	20.9	22.4	21.7	21.0	21.1
정부지원 임대주택	100.0	49.8	76.4	69.1	78.4	73.1	71.4	69.6	73.5	72.8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0.0	0.0	0.0	0.0	15.3	1.7	6.2	2.8	2.3	2.4
농촌 등 정착	0.0	0.0	6.8	3.3	0.0	4.3	0.0	5.9	3.2	3.6
계	100.0 (6)	100.0 (13)	100.0 (54)	100.0 (43)	100.0 (27)	100.0 (117)	100.0 (26)	100.0 (24)	100.0 (119)	100.0 (1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5절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가.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노숙인 등이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10개 항목 중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를 분석하였다. 노숙인 등 전체는 10개 항목 모두에서 완전자립한 경우가 74.0%이었다.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쪽방주민 대부분(94.1%)은 완전자립 상태였으며, 거리 노숙인 중 85.9%, 생활시설 노숙인 중에는 56.3%가 10개 항목 모두에 대하여 완전자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중에서도 요양시설 노숙인의 3명 중 1명(38.3%)만이 완전자립 상태이며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표 4-5-1〉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서 필요한 도움 항목의 수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완전 자립	82.4	97.5	85.9	84.5	62.6	38.3	56.3	61.9	94.1	74.0
1-2개 도움	12.2	1.3	9.7	14.9	15.3	16.6	15.8	14.6	3.5	10.4
3-4개 도움	3.4	1.3	2.9	0.0	7.4	11.5	7.9	7.0	0.6	4.6
5-6개 도움	1.8	0.0	1.3	0.5	7.5	9.9	7.4	6.3	0.2	4.0
7-8개 도움	0.2	0.0	0.2	0.0	3.9	6.5	4.3	3.5	0.2	2.3
9-10개 도움	0.0	0.0	0.0	0.0	3.3	17.2	8.3	6.8	1.3	4.7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의 항목별 자립 상태를 살펴보면, 거리 노숙인의 경우, 몸 단장(100.0%), 교통수단이용(98.9%), 근거리외출(98.8%), 물건구매(99.1%), 약챙겨

먹기(98.7%), 전화걸고받기(98.0%), 금전관리(96.7%), 빨래(95.1%), 집안일(94.6%), 식사준비(88.9%)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완전자립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완전 자립 비율은 몸단장(90.4%), 집안일(87.6%), 빨래(84.1%), 전화 걸고받기(83.0%), 약챙겨먹기(77.4%), 물건구매(81.5%), 식사준비(77.3%), 근거리외출(75.7%), 교통수단이용(71.3%), 금전관리(68.3%) 순으로 나타나, 거리 노숙인보다 완전자립상태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시설 노숙인의 경우 완전자립상태가 자활시설이나 재활시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완전자립상태 비율 순서가 몸단장(81.4%), 집안일(75.2%), 물건구매(72.4%), 전화걸고받기(71.3%), 빨래(71.0%), 약챙겨먹기(63.3%), 근거리외출(61.6%), 식사준비(61.3%), 금전관리(52.7%), 교통수단이용(5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몸단장	완전 자립	100.0	100.0	100.0	100.0	95.0	81.4	90.4	92.2	98.4	94.5
	부분 도움	0.0	0.0	0.0	0.0	2.5	13.3	6.4	5.2	1.2	3.7
	완전 도움	0.0	0.0	0.0	0.0	2.5	5.3	3.2	2.6	0.4	1.8
집안일	완전 자립	92.9	100.0	94.6	100.0	94.3	75.2	87.6	88.9	97.6	92.2
	부분 도움	3.9	0.0	3.0	0.0	3.8	16.9	8.4	7.4	2.1	5.4
	완전 도움	3.1	0.0	2.4	0.0	1.9	7.9	4.0	3.7	0.4	2.4
식사 준비	완전 자립	85.6	100.0	88.9	95.2	85.3	61.3	77.3	79.5	96.8	86.0
	부분 도움	5.4	0.0	4.1	3.8	9.4	21.4	13.3	11.6	2.6	8.2
	완전 도움	9.1	0.0	7.0	1.0	5.3	17.4	9.4	9.0	0.6	5.8
빨래	완전 자립	93.7	100.0	95.1	98.8	90.7	71.0	84.1	86.2	95.5	89.7
	부분 도움	5.5	0.0	4.3	1.2	7.4	17.6	10.5	9.3	3.8	7.3
	완전 도움	0.8	0.0	0.6	0.0	1.9	11.4	5.4	4.5	0.6	3.0
약 챙겨 먹기	완전 자립	98.3	100.0	98.7	99.4	82.5	63.3	77.4	81.5	98.7	87.9
	부분	1.5	0.0	1.2	0.6	8.7	19.2	11.7	9.7	1.0	6.4

332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금전 관리	도 완전	0.2	0.0	0.1	0.0	8.8	17.5	10.9	8.9	0.4	5.7
	도 완전 자립	96.5	97.7	96.7	86.7	75.9	52.7	68.3	73.7	98.7	83.1
	도 부분	3.2	2.3	3.0	11.3	15.5	33.5	22.0	18.4	1.0	11.9
	도 완전	0.4	0.0	0.3	2.0	8.6	13.8	9.7	7.9	0.4	5.1
근거리 외출	도 완전 자립	98.8	98.8	98.8	98.7	80.4	61.6	75.7	80.1	97.9	86.8
	도 부분	1.2	0.0	1.0	1.3	12.5	22.9	14.9	12.3	1.5	8.2
	도 완전	0.0	1.2	0.3	0.0	7.1	15.4	9.3	7.6	0.6	5.0
물건 구매	도 완전 자립	99.2	98.8	99.1	98.8	83.7	72.4	81.5	84.8	97.7	89.7
	도 적부	0.7	1.2	0.8	1.2	8.8	11.5	8.7	7.2	1.6	5.1
	도 부분	0.0	0.0	0.0	0.0	4.1	9.8	5.7	4.7	0.3	3.0
	도 완전	0.2	0.0	0.1	0.0	3.4	6.4	4.0	3.3	0.4	2.2
전화 걸고 받기	도 완전 자립	97.4	100.0	98.0	99.4	87.8	71.3	83.0	85.9	98.4	90.6
	도 적부	2.6	0.0	2.0	0.6	6.4	9.3	6.7	5.8	0.9	4.0
	도 부분	0.0	0.0	0.0	0.0	3.0	9.6	5.2	4.2	0.3	2.7
	도 완전	0.0	0.0	0.0	0.0	2.8	9.8	5.1	4.1	0.4	2.7
교통 수단 이용	도 완전 자립	98.9	98.8	98.9	99.4	76.6	54.5	71.3	76.5	97.6	84.4
	도 적부	0.9	0.0	0.7	0.6	12.8	16.7	12.5	10.3	1.8	7.1
	도 부분	0.2	1.2	0.4	0.0	4.2	12.2	6.7	5.5	0.0	3.5
	도 완전	0.0	0.0	0.0	0.0	6.5	16.6	9.5	7.7	0.6	5.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은 72.1%, 40대는 76.4%, 50대는 78.0%, 60대는 78.0%, 그리고 70세 이상은 65.0%가 10개 영역에서 완전자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82.8%, 여성은 48.0%가 10개 영역 모두에서 완전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49.2%, 장애가 없는 경우는 82.6%가 완전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서 필요한 도움 항목 수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완전 자립	72.1	76.4	78.0	78.0	65.0	82.8	48.0	49.2	82.6	74.0
1-2개 도움	18.2	12.4	7.3	7.3	16.3	8.4	16.5	14.0	9.2	10.4
3-4개 도움	2.5	2.1	4.4	4.4	3.5	3.4	8.3	7.8	3.5	4.6
5-6개 도움	2.2	4.0	3.9	3.9	4.1	2.5	8.4	8.8	2.3	4.0
7-8개 도움	0.9	2.0	2.7	2.7	4.4	1.2	5.7	6.7	0.8	2.3
9-10개 도움	4.1	3.2	3.7	3.7	6.7	1.9	13.1	13.4	1.7	4.7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가중치 적용 자료.

항목별 자립상태를 연령대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70세 이상의 완전자립비율이 가장 떨어졌으며, 도움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식사준비(21.9%), 교통수단이용(20.3%), 빨래(18.1%), 금전관리(16.7%), 약챙겨먹기(1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완전자립비율이 떨어졌으며, 이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항목은 금전관리(37.2%), 교통수단이용(37.4%), 근거리외출(31.3%), 식사준비(28.9%), 약챙겨먹기(29.0%), 빨래(22.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완전자립비율이 떨어졌으며 이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금전관리(38.0%), 교통수단이용(36.4%), 근거리외출(32.1%), 식사(31.8%), 약챙겨먹기(2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4〉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유무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있음	없음	
몸단장	완전 자립	95.8	97.0	95.6	94.2	90.7	97.5	85.7	84.6	98.0	94.5
	부분 도움	2.4	.8	2.4	4.1	7.9	1.7	9.8	10.1	1.5	3.7
	완전 도움	1.8	2.1	1.9	1.7	1.4	0.8	4.5	5.3	0.5	1.8
집안일	완전 자립	95.0	93.7	93.1	91.9	88.7	95.3	82.9	80.5	96.2	92.2
	부분 도움	2.2	3.4	4.7	6.0	7.8	3.4	11.3	12.7	2.9	5.4
	완전 도움	2.8	2.8	2.1	2.2	3.5	1.3	5.8	6.8	0.9	2.4
식사 준비	완전 자립	85.6	90.8	87.6	86.3	78.2	91.0	71.0	68.3	92.1	86.0
	부분 도움	10.0	6.0	7.0	8.5	11.0	5.5	16.1	17.5	5.0	8.2
	완전 도움	4.4	3.2	5.5	5.2	10.9	3.5	12.8	14.3	2.9	5.8
빨래	완전 자립	94.6	90.9	91.0	90.6	81.9	93.7	77.9	74.2	95.1	89.7
	부분 도움	2.7	6.6	6.2	6.4	13.5	4.7	14.9	16.7	4.0	7.3
	완전 도움	2.8	2.4	2.7	2.9	4.6	1.7	7.1	9.1	0.9	3.0
약 챙겨 먹기	완전 자립	91.8	92.6	88.6	87.2	83.5	93.6	71.1	70.4	94.0	87.9
	부분 도움	4.5	3.4	6.1	7.5	7.0	3.5	14.9	15.3	3.3	6.4
	완전 도움	3.7	4.0	5.2	5.3	9.4	2.8	14.1	14.3	2.7	5.7
금전 관리	완전 자립	77.9	82.8	84.8	82.3	83.3	89.9	62.8	62.0	90.4	83.1
	부분 도움	17.4	10.6	10.2	13.0	11.5	7.9	23.5	24.4	7.5	11.9
	완전 도움	4.7	6.5	5.0	4.7	5.1	2.1	13.7	13.6	2.1	5.1
근거리 외출	완전 자립	93.2	88.0	88.7	85.7	82.3	92.9	68.7	67.9	93.3	86.8
	부분 도움	5.9	7.1	7.4	8.3	11.4	5.3	16.9	18.0	4.8	8.2
	완전 도움	0.9	4.9	3.9	6.0	6.3	1.8	14.4	14.1	1.8	5.0
물건 구매	완전 자립	93.2	90.8	90.4	89.6	86.3	95.1	73.5	74.8	94.8	89.7
	적은 부분 도움	3.2	2.9	4.8	5.1	8.1	2.8	12.0	11.7	2.8	5.1

구분		연령					성별		장애유무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있음	없음	
	많은 부분 도움	2.8	3.4	2.5	3.2	3.5	1.2	8.3	7.2	1.6	3.0
	완전 도움	0.8	2.9	2.3	2.1	2.1	0.8	6.2	6.3	0.8	2.2
전화 걸고 받기	완전 자립	93.2	94.2	90.7	90.2	87.9	95.5	76.1	76.2	95.5	90.6
	적은 부분 도움	0.5	1.4	4.9	4.0	5.1	3.0	7.0	8.3	2.5	4.0
	많은 부분 도움	4.1	2.4	2.2	2.9	3.1	0.8	8.4	8.2	0.8	2.7
	완전 도움	2.3	2.1	2.2	2.9	3.9	0.8	8.6	7.2	1.2	2.7
교통 수단 이용	완전 자립	90.3	87.9	86.1	83.2	79.7	91.8	62.6	64.0	91.5	84.4
	적은 부분 도움	5.5	5.8	5.9	7.7	9.4	4.4	14.9	14.0	4.7	7.1
	많은 부분 도움	4.2	2.4	3.1	3.5	4.6	1.7	8.6	8.2	1.8	3.5
	완전 도움	0.0	4.0	4.9	5.6	6.3	2.0	13.9	13.8	2.0	5.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노숙 이전과 노숙 이후를 거처유형별로 비교한다. 먼저 노숙이전에 비하여 노숙이후에 모든 서비스 항목에서 이용률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변화비율을 보인 것은 무료급식(식사지원)(59.3%p)이었으며, 복지시설이용(57.8%p), 현물지원(55.9%p), 무료진료(51.7%p), 여가문화프로그램(49.2%p), 편의시설이용(47.9%p), 의료급여 및 서비스(48.2%p),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25.4%p)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현금급여 중심으로 노숙이전과 노숙이후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경우, 거리 노숙인은 노숙 이전에 비하여 노숙 이후에도 여전히 10% 미만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생활시설의 경

우 노숙 이전에 비하여 노숙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35.2%p,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7.6%p의 이용증가율을 보였다.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복지서비스 이용의 경우, 노숙 이후 이용률이 2.0%에서 많게는 11.5%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거리노숙인의 긴급복지생계급여의 노숙이후 이용률은 11.5%이었는데, 노숙이전보다 8%p가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노숙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용률보다 더 높았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에 비하여도 더 높았다. 실업급여의 경우 거리노숙인과 생활시설 노숙인 모두 5%미만의 이용률을 보여 매우 낮았으며 보다 세부적인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시설(15.1%), 자활시설(16.0%) 노숙인의 이용률이 높았다.

의료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숙 이전과 비교한 증가율을 살펴보면, 거리 노숙인은 14.7%p 증가한 반면, 생활시설은 56.0%p 증가하였다. 무료진료의 경우 거리 노숙인의 이용률은 38.4%p 증가한 반면 생활시설은 57.8%p 증가하였다.

일자리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일자리소개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생활 전에는 5.3%가 경험하였는데, 노숙생활 이후에는 13.3%로 증가하였다. 한편 생활시설 노숙인은 15.0% 증가하였다. 직업 교육 경험은 거리노숙인(1.5% → 4.0%)과 생활시설노숙인 (2.4 → 13.4%)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는 높은 이용증가율을 보여주었는데, 거리노숙인은 4.1%에서 18.7%로 증가하였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3.1%에서 30.9%로 증가하였다. 이용시설에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참여 비율이 13.7배(63.3%)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활, 요양, 재활시설 순으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참여 비율이 상승하였다.

복지시설이용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생활 전에 비하여 19.0%p (0.5% → 19.5%)증가하였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66.9%p(4.6% → 71.5%) 증가하였다. 정신보건서비스의 경우, 거리노숙인은 노숙생활 이전에 2.3%가 경험하였는데, 노숙생활 이후에는 7.6%로 증가하였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3.6%에서 24.0%까지 증가하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28.6%인데 비하여, 노숙이후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 (20.9%)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인다. 물론 노숙 이전(3.3%)보다는 6배 상승하였다. 장애인지원서비스는 거리노숙인(0.6% → 4.5%)과 생활시설노숙인 (1.7% → 11.6%) 모두 타 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주거지원의 경우, 거리노숙인은 노숙생활이전에 1.6%의 이용경험율을 보여주었는데 노숙생활이후에는

8.7%로 증가하였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은 1.5%에서 19.6%까지 증가하였다.

다음은 무료급식 등 다양한 노숙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노숙이전과 노숙이후의 이용 경험을 보여준다. 무료급식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생활 전에는 9.5%가 경험하였는데, 노숙생활 이후에는 74.1%로 증가하였다. 생활시설 노숙인은 7.5%에서 65.6%로 증가하였다. 현물지원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생활 전에는 4.3%가 경험하였는데, 노숙생활 이후에는 58.7%로 증가하였다. 생활시설 노숙인은 4.3%에서 60.5%로 증가하였다. 편의시설이용은 6.5%에서 45.6%까지 증가하였으며, 생활시설은 4.9%에서 54.9%까지 증가하였다. 여가문화프로그램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3.2% → 10.3%)하였으며,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2.5%에서 51.7%까지 증가하였다. 법률지원 이용률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4.4%에서 24.1%로 증가한 반면, 생활시설 노숙인은 이보다 적은 1.4%에서 15.0%로 증가하였다.

〈표 4-5-5〉 노숙 이전/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거처유형별)

(단위: %, %p)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변화(%p)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노숙 이전	4.5	6.9	5.1	5.9	13.3	17.6	13.9	12.2	+29.1
	노숙 이후	7.2	8.2	7.4	13.3	50.8	60.9	49.1	41.3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노숙 이전	1.2	6.9	2.5	1.2	6.1	8.5	6.3	5.6	+14.6
	노숙 이후	2.9	9.3	4.3	7.7	28.2	25.2	23.9	20.2	
긴급복지 생계 급여	노숙 이전	3.8	2.7	3.5	1.5	1.3	1.6	1.5	1.9	+4.2
	노숙 이후	13.3	5.1	11.5	5.1	4.2	5.5	4.8	6.1	
긴급복지 주거 급여	노숙 이전	1.9	1.6	1.8	1.2	1.2	0.9	1.1	1.2	+1.8
	노숙 이후	0.8	6.2	2.0	3.5	3.5	2.8	3.2	3.0	
실업 급여	노숙 이전	1.9	7.0	3.1	11.2	4.1	2.3	4.5	4.2	+0.2
	노숙 이후	0.2	15.1	3.6	16.0	3.0	2.1	4.6	4.4	
의료급여 및 서비스	노숙 이전	3.8	11.2	5.5	7.5	16.9	22.1	17.5	15.2	+48.2
	노숙 이후	11.3	49.9	20.2	35.9	79.2	81.2	73.5	63.4	
무료진료	노숙 이전	4.3	13.6	6.5	8.2	9.9	8.6	9.1	8.6	+51.7
	노숙 이후	36.4	73.3	44.9	56.3	69.0	60.9	63.9	60.3	

338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변화 (%p)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노숙 이전	6.4	1.8	5.3	11.2	4.4	3.3	5.0	5.1	+13.6
	노숙 이후	4.9	41.5	13.3	39.4	23.9	8.0	20.0	18.7	
직업교육	노숙 이전	0.6	4.6	1.5	4.0	1.6	2.6	2.4	2.2	+9.4
	노숙 이후	0.2	16.7	4.0	18.5	18.5	5.4	13.4	11.6	
자활사업, 공공근로	노숙 이전	3.8	5.1	4.1	7.5	2.3	2.3	3.1	3.2	+25.4
	노숙 이후	3.8	68.4	18.7	47.5	39.0	15.4	30.9	28.6	
복지시설 이용	노숙 이전	0.2	1.8	0.5	5.9	4.1	4.7	4.6	3.9	+57.8
	노숙 이후	7.5	59.9	19.5	63.5	78.0	67.1	71.5	61.7	
정신보건서 비스	노숙 이전	2.2	2.4	2.3	0.6	4.8	3.3	3.6	3.3	+17.6
	노숙 이후	4.1	19.3	7.6	15.2	30.3	20.1	24.0	20.9	
장애인지원 서비스	노숙 이전	0.8	0.0	0.6	0.6	2.3	1.6	1.7	1.5	+8.5
	노숙 이후	3.4	2.9	3.3	4.5	15.7	9.6	11.6	10.0	
무료급식 (식사지원)	노숙 이전	7.4	16.6	9.5	11.9	6.6	6.9	7.5	7.9	+59.3
	노숙 이후	70.4	86.3	74.1	70.7	75.6	52.3	65.6	67.2	
현물지원	노숙 이전	3.7	6.3	4.3	5.9	4.1	3.8	4.3	4.3	+55.9
	노숙 이후	54.0	74.6	58.7	61.7	66.2	53.5	60.5	60.2	
주거지원	노숙 이전	2.1	0.0	1.6	1.5	1.8	1.1	1.5	1.5	+16.1
	노숙 이후	5.3	20.1	8.7	17.2	26.8	12.4	19.6	17.6	
편의시설이 용	노숙 이전	3.4	16.9	6.5	8.0	3.2	5.6	4.9	5.2	+47.9
	노숙 이후	34.0	84.4	45.6	57.7	69.4	37.2	54.9	53.1	
여가,문화 프로그램	노숙 이전	1.1	10.5	3.2	4.6	2.8	1.0	2.4	2.5	+49.2
	노숙 이후	1.5	39.7	10.3	41.8	65.3	64.1	61.3	51.7	
법률지원	노숙 이전	0.9	0.0	0.7	4.4	0.8	1.0	1.4	1.3	+11.9
	노숙 이후	1.1	21.4	5.7	24.1	12.7	14.1	15.0	13.2	
기타	노숙 이전	0.0	0.0	0.0	.6	0.0	0.0	0.1	0.1	+0.2
	노숙 이후	0.0	0.0	0.0	0.0	0.4	0.6	0.4	0.3	

주: 쪽방주민은 노숙 이전과 노숙 이후가 아닌 '현재의 이용 여부'만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수치는 별도로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인구특성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고연령층은 노숙이후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 중 의료급여 및 서비스(68.6%), 무료급식(67.6%), 현물지원(67.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노숙이후 서비스 이용률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여성 노숙인이 남성 노숙인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는데, 의료급여 및 서비스(70.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63.5%), 무료급식(63.3%), 무료진료(61.4%)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노숙생활이후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은 편이었는데, 의료급여 및 서비스(78.5%), 무료급식(64.8%), 무료진료(64.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63.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금급여에 대하여 70세 이상이 노숙이후에 생계급여(61.6%) 및 주거급여(43.2%) 이용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노숙이후에 생계급여(63.5%)와 주거급여(35.4%) 이용 경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무와 관련해서 장애가 있는 노숙인이 노숙이후에 생계급여(65.5%) 및 주거급여(46.7%) 이용 경험율이 높아졌다. 긴급복지를 통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이용 경험 비율은 대부분 10%미만이였다. 끝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40세 미만(10.3%), 남성(6.4%), 장애가 없는 노숙인(6.3%) 집단에서 노숙이후에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및 서비스와 무료진료 모두 고연령이면서 여성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노숙이전에 비하여 노숙이후에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서비스에 대한 인구특성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일자리소개의 경우, 40세 미만(23.8%), 남성(20.6%), 장애가 없는 노숙인(20.8%) 집단에서 노숙이후에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은 타 일자리 관련 서비스에 비하여 가장 저조하였다. 40세 미만(18.9%)과 50대(12.2%)를 제외하고 모든 인구집단 영역별 비교에서 노숙이후에 10%미만이 이용률을 보였다.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의 경우, 40세 미만(34.1%), 남성(29.7%), 장애가 없는 노숙인(29.6%) 집단에서 노숙이후에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40세 미만 집단(64.8%)에서 노숙생활 이후 이용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52.6%)과 장애가 있는 노숙인(61.0%)에서 노숙이후 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더 많았다. 정신보건서비스의 경우도 복지시설이용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26.5%), 여성(23.2%), 장애가 있는 경우

(25.9%)가 노숙이후 이용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지원서비스의 경우, 40세 미만(11.4%)과 장애가 있는 노숙인(13.5%)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무료급식은 노숙이전보다 노숙이후에 이용 경험율이 매우 높았는데, 모든 집단에서 60%이상의 무료급식 이용률이 나타났다. 현물도 노숙생활 이전보다 이후에 이용 경험율이 매우 높았다. 주거지원의 경우, 노숙이전에 비하여 노숙이후에 이용률이 높아졌으나, 대부분의 집단에서 약 15%이하인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편의시설의 경우 40대(54.6%), 남성(46.3%), 장애가 있는 노숙인(50.7%)집단에서 노숙이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40대 미만(44.1%), 여성(52.2%),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52.6%)에서 노숙생활 이후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률지원은 타 서비스에 비하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그 중에서 40세 미만(18.6%), 여성(14.5%),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13.0%)에서 노숙생활 이후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표 4-5-6〉 노숙 이전/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p)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전체	변화 (%p)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노숙 이전	13.5	13.6	9.8	12.8	14.6	11.6	13.6	16.3	10.3	12.2	+29.1
	노숙 이후	44.1	38.6	40.7	52.0	61.6	42.8	63.5	65.5	41.9	41.3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노숙 이전	2.7	4.8	4.9	5.7	9.0	5.3	6.0	8.9	4.0	5.6	+14.6
	노숙 이후	31.7	31.0	31.0	34.1	43.2	33.5	35.4	46.7	29.6	20.2	
긴급복지 생계 급여	노숙 이전	0.0	3.1	1.6	1.6	3.0	2.0	1.6	1.6	10.3	1.9	+4.2
	노숙 이후	6.2	8.4	4.8	5.1	8.0	6.2	4.7	8.7	4.8	6.1	
긴급복지 주거 급여	노숙 이전	0.0	2.3	0.5	1.4	1.9	1.3	0.9	0.5	1.6	1.2	+1.8
	노숙 이후	4.9	9.0	4.1	2.1	6.5	4.5	3.7	6.6	3.4	3.0	
실업 급여	노숙 이전	3.6	5.7	4.5	3.4	4.7	4.9	2.5	3.2	4.6	4.2	+0.2
	노숙 이후	10.3	8.6	8.0	2.9	3.1	6.4	2.9	3.4	6.3	4.4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전체	변화 (%p)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의료 급여 및 서비스	노숙 이전	14.2	12.6	15.2	16.1	16.0	15.1	15.5	20.5	12.8	15.2	+48.2
	노숙 이후	55.4	60.3	51.6	62.8	68.6	55.9	70.0	78.5	52.9	63.4	
무료 진료	노숙 이전	6.2	10.0	6.0	9.8	11.1	9.1	7.6	9.5	8.2	8.6	+51.7
	노숙 이후	54.2	53.5	56.8	54.9	64.3	55.1	61.4	64.7	53.9	60.3	
일자리 소개 (고용 지원)	노숙 이전	8.5	7.1	4.7	4.5	4.6	5.7	3.6	4.1	5.5	5.1	+13.6
	노숙 이후	23.8	24.2	24.5	14.8	11.6	20.6	13.6	13.3	20.8	18.7	
직업 교육	노숙 이전	6.9	4.6	1.0	2.0	1.1	2.4	1.8	1.3	2.6	2.2	+9.4
	노숙 이후	18.9	8.8	12.2	7.0	4.2	9.6	7.3	8.8	9.1	11.6	
자활 사업, 공공 근로	노숙 이전	3.6	5.5	1.9	3.0	5.1	3.4	2.9	1.4	4.1	3.2	+25.4
	노숙 이후	34.1	29.6	31.4	28.7	17.2	29.7	23.9	24.3	29.6	28.6	
복지 시설 이용	노숙 이전	7.3	2.0	2.7	4.8	4.1	3.6	4.4	5.1	3.3	3.9	+57.8
	노숙 이후	64.8	48.2	43.1	45.3	42.1	43.0	52.6	61.0	40.0	61.7	
정신 보건 서비스	노숙 이전	0.6	3.6	3.9	3.6	1.9	2.2	5.7	4.9	2.6	3.3	+17.6
	노숙 이후	26.5	23.2	18.9	14.0	15.6	15.4	23.2	25.9	14.4	20.9	
장애인 지원 서비스	노숙 이전	2.4	1.6	1.5	1.8	0.0	0.8	3.1	4.1	0.4	1.5	+8.5
	노숙 이후	11.4	4.9	8.0	6.6	3.8	6.4	7.5	13.5	4.3	10.0	
무료 급식 (식사 지원)	노숙 이전	13.9	10.0	5.4	7.7	10.0	8.1	7.4	6.7	8.4	7.9	+59.3
	노숙 이후	67.0	67.7	65.6	65.0	67.6	66.9	63.3	64.8	66.4	67.2	
현물 지원	노숙 이전	4.0	4.5	3.3	5.5	2.7	4.1	4.7	4.6	4.1	4.3	+55.9
	노숙 이후	60.3	61.0	58.1	59.6	67.1	60.1	61.3	62.6	59.7	60.2	
주거 지원	노숙 이전	2.2	2.8	0.5	2.0	1.1	1.4	1.9	1.2	1.7	1.5	+16.1
	노숙 이후	18.2	12.8	14.2	18.4	11.3	16.0	13.6	15.1	15.5	17.6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전체	변화 (%p)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편의 시설 이용	노숙 이전	6.6	6.0	3.9	5.6	5.8	5.1	5.3	5.2	5.2	5.2	+47.9
	노숙 이후	46.5	54.6	46.4	44.6	40.4	46.3	44.0	50.7	44.0	53.1	
여가, 문화 프로그램	노숙 이전	4.6	2.9	2.3	2.5	1.9	2.5	2.6	2.2	2.7	2.5	+49.2
	노숙 이후	44.1	39.8	37.6	42.1	41.6	36.5	52.2	52.6	36.2	51.7	
법률 지원	노숙 이전	2.2	3.4	0.4	1.5	0.0	1.2	1.4	0.5	1.6	1.3	+11.9
	노숙 이후	18.6	12.2	11.5	9.4	8.6	9.4	14.5	13.0	9.9	13.2	
기타 (노령 연금)	노숙 이전	0.0	0.0	0.0	0.2	0.0	0.1	0.0	0.0	0.1	0.1	+0.2
	노숙 이후	0.0	0.0	0.1	0.4	0.0	0.1	0.4	0.4	0.1	0.3	

주: 쪽방주민은 노숙 이전과 노숙 이후가 아닌 '현재의 이용 여부'만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수치는 별도로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한편, 쪽방주민의 노숙생활 이전과 이후 이용이 아닌, 현재의 이용 현황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무료급식(식사지원) 63.9%, 현물지원 60.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3%,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7.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노숙인 등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높다는 차이가 있으며, 무료급식(식사지원) 및 현물지원 이용률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4-5-7〉 쪽방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단위: %)

구분	쪽방주민 이용률	구분	쪽방주민 이용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3	복지시설 이용	18.3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7.0	정신건강서비스	11.4
긴급복지 생계급여	5.3	장애인지원서비스	1.1
긴급복지 주거급여	6.4	무료급식(식사지원)	63.9
실업급여	7.3	현물지원	60.8
의료급여 및 서비스	52.9	주거지원	11.8
무료진료	50.6	편의시설 이용	33.4
일자리소개(고용지원)	19.1	여가,문화 프로그램	21.8
직업교육	4.7	법률지원	6.5
자활사업, 공공근로	27.6	기타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80%이상의 만족감을 보여주었다. 3점 척도에 기반할 때, 무료진료(2.9점), 복지시설이용(2.9점), 주거지원(2.9점), 정신건강보건서비스, 편의시설 이용이 모두 2.9점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었다.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에 비하여 생활시설 노숙인의 복지서비스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는 긴급복지생계급여,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이었다. 반면 생활시설 노숙인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서비스, 무료진료, 복지시설이용, 무료급식, 현물지원, 주거지원, 편의시설이었다.

〈표 4-5-8〉 노숙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거처유형별)

(단위: 점)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	2.5	2.6	2.7	2.9	2.9	2.9	2.9	2.8	2.8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8	2.5	2.6	2.6	2.9	2.8	2.9	2.9	2.7	2.8
긴급복지 생계급여	2.9	2.7	2.9	2.8	2.7	2.7	2.7	2.8	2.3	2.6

344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긴급복지 주거급여	2.6	2.5	2.6	2.6	2.6	2.7	2.6	2.6	2.6	2.6
실업급여	2.2	2.8	2.7	2.8	2.5	2.5	2.6	2.6	2.9	2.7
의료급여 및 서비스	2.7	2.9	2.8	2.8	2.9	2.9	2.9	2.9	2.8	2.8
무료진료	2.6	2.9	2.7	2.9	2.9	2.9	2.9	2.9	2.9	2.9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1.9	2.9	2.5	2.7	2.6	2.7	2.7	2.6	2.9	2.7
직업교육	2.1	2.9	2.8	2.6	2.6	2.8	2.7	2.7	2.8	2.7
자활사업, 공공근로	2.6	2.9	2.9	2.8	2.7	2.9	2.8	2.8	3.0	2.8
복지시설 이용	2.6	2.9	2.8	2.9	2.9	2.8	2.9	2.9	2.8	2.9
정신보건서 비스	2.5	2.6	2.6	2.7	2.9	2.9	2.9	2.85	2.9	2.9
장애인지원 서비스	2.7	2.9	2.8	2.9	2.8	2.9	2.9	2.9	2.8	2.8
무료급식 (식사지원)	2.6	3.0	2.7	2.6	2.6	2.9	2.7	2.7	2.5	2.7
현물지원	2.6	2.8	2.7	2.8	2.9	2.9	2.9	2.8	2.8	2.8
주거지원	2.3	3.0	2.7	2.9	2.9	2.8	2.9	2.8	3.0	2.9
편의시설 이용	2.4	2.9	2.6	2.8	2.9	2.9	2.9	2.8	3.0	2.9
여가,문화 프로그램	2.1	2.9	2.8	2.7	2.8	2.8	2.8	2.8	2.9	2.8
법률지원	2.7	2.8	2.8	2.8	2.8	2.8	2.8	2.8	2.8	2.8
기타 (노령연금)	-	-	-	3.0	2.5	2.4	-	2.5	-	2.5

주: 1=불만족, 2=보통, 3=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층은 고르게 만족도가 높았으나 직업교육 및 장애인 지원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반대로 직업교육과 장애인 지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성별 및 장애유무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노숙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점)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	여	유	무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2.9	2.8	2.8	2.9	2.9	2.8	2.9	2.8	2.8	2.8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2.9	2.7	2.7	2.8	2.8	2.8	2.8	2.8	2.8	2.8
긴급복지 생계급여	3.0	2.7	2.5	2.7	2.7	2.7	2.6	2.4	2.8	2.6
긴급복지 주거급여	3.0	2.7	2.5	2.4	2.8	2.6	2.7	2.6	2.6	2.6
실업급여	2.9	2.9	2.7	2.7	2.7	2.8	2.7	2.7	2.8	2.7
의료급여 및 서비스	2.8	2.8	2.8	2.9	2.9	2.8	2.9	2.9	2.8	2.8
무료진료	2.9	2.9	2.9	2.8	3.0	2.8	2.9	2.7	2.9	2.9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2.7	2.7	2.7	2.7	2.9	2.7	2.8	2.6	2.7	2.7
직업교육	2.4	2.8	2.8	2.7	3.0	2.7	2.7	2.8	2.7	2.7
자활사업, 공공근로	2.9	2.8	2.9	2.8	2.9	2.8	2.9	2.8	2.9	2.8
복지시설 이용	2.7	2.9	2.9	2.9	2.8	2.8	2.9	2.9	2.9	2.9
정신보건서비스	2.9	2.7	2.8	2.9	2.9	2.8	2.9	2.8	2.8	2.9
장애인지원 서비스	2.4	2.6	2.7	2.7	3.0	2.7	2.7	2.7	2.8	2.8
무료급식 (식사지원)	2.8	2.9	2.8	2.8	2.9	2.8	2.9	2.8	2.7	2.7
현물지원	2.9	2.8	2.8	2.8	2.9	2.8	2.9	2.7	2.8	2.8
주거지원	2.9	2.9	2.9	2.9	2.8	2.9	2.9	2.8	2.9	2.9
편의시설 이용	2.9	2.8	2.9	2.9	2.9	2.9	2.9	2.9	2.9	2.9
여가,문화 프로그램	2.8	2.7	2.8	2.8	2.9	2.8	2.9	2.8	2.8	2.8
법률지원	2.9	2.8	2.8	2.8	2.9	2.8	2.9	2.8	2.8	2.8
기타 (노령연금)	-	-	2.0	2.7	-	2.7	2.5	2.4	2.7	2.5

주: 1=불만족, 2=보통, 3=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가장 도움이 되었던 1순위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31.5%), 복지시설이용(16.0%), 무료급식(10.6%), 그리고 의료급여 및 서비스(9.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2순위 서비스는 의료급여 및 서비스(19.5%),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16.5%), 무료급식(15.5%)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 경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2 순 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0.3	0.0	0.2	3.0	4.3	7.2	5.3	4.5	6.4	5.2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5	5.0	3.9	2.1	5.3	9.8	6.7	6.2	33.0	16.5
	긴급복지 생계급여	4.9	0.0	3.6	0.6	0.4	1.2	0.8	1.2	0.3	0.9
	긴급복지 주거급여	0.0	0.0	0.0	0.0	0.4	0.4	0.3	0.3	0.0	0.2
	실업급여	0.0	7.4	1.9	0.8	0.2	0.2	0.3	0.6	0.8	0.7
	의료급여 및 서비스	2.6	15.7	6.0	6.8	22.4	24.5	21.1	18.6	20.8	19.5
	무료진료	15.7	5.5	13.0	12.7	8.3	8.5	9.0	9.6	3.8	7.4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1.7	1.8	1.7	6.1	2.1	0.9	2.2	2.1	4.1	2.9
	직업교육	0.0	0.0	0.0	4.0	1.2	0.2	1.2	1.0	0.3	0.7
	자활사업, 공공근로	0.4	11.2	3.2	15.1	5.0	2.1	5.2	4.9	3.6	4.4
	복지시설 이용	4.5	9.9	5.9	11.3	11.5	12.3	11.8	10.8	1.9	7.4
	정신보건서비스	0.3	0.0	0.2	0.7	1.0	3.1	1.8	1.5	0.0	1.0
	장애인지원 서비스	0.3	0.0	0.2	0.7	0.8	0.6	0.7	0.6	0.0	0.4
	무료급식 (식사지원)	12.6	29.1	16.9	22.2	25.8	15.5	21.2	20.5	7.4	15.5
	현물지원	33.8	7.0	26.8	4.2	2.0	2.5	2.5	6.5	7.8	7.0
	주거지원	0.9	5.4	2.0	3.6	2.4	2.0	2.4	2.3	1.3	1.9
	편의시설이용	5.9	1.9	4.9	1.5	0.5	0.9	0.8	1.5	2.2	1.7
	여가,문화 프로그램	0.0	0.0	0.0	0.0	1.4	4.2	2.3	2.0	1.9	1.9
	법률지원	0.0	0.0	0.0	1.8	0.5	0.6	0.7	0.6	0.0	0.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모름/무응답	12.8	0.0	9.5	2.5	4.3	3.3	3.7	4.6	4.4	4.5	
합계	100.0 (198)	100.0 (55)	100.0 (253)	100.0 (145)	100.0 (501)	100.0 (419)	100.0 (1,065)	100.0 (1,318)	100.0 (233)	100.0 (1,5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살펴보면, 1순위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비율이 높았다. 2순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급여 및 서비스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표 4-5-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 1,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	여	유	무		
1 순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4	22.4	25.7	33.6	44.9	29.8	36.3	36.6	29.7	31.5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6	9.4	5.6	1.8	7.7	5.0	4.1	5.2	4.7	4.8
	긴급복지 생계급여	0.5	0.6	1.3	1.4	0.8	1.2	0.9	0.3	1.5	1.1
	긴급복지 주거급여	0.0	0.3	0.8	0.2	0.8	0.5	0.6	0.0	0.7	0.5
	실업급여	1.1	1.0	1.2	0.9	0.2	1.1	0.4	0.4	1.1	0.9
	의료급여 및 서비스	3.1	7.8	10.0	11.0	10.3	9.2	12.0	12.1	9.1	9.9
	무료진료	5.5	6.0	6.2	3.2	7.1	5.1	5.3	5.4	5.0	5.1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7.2	6.5	6.4	1.6	0.6	4.3	2.1	1.0	4.7	3.7
	직업교육	1.8	0.4	0.5	0.4	1.6	0.9	0.0	0.0	0.9	0.7
	자활사업, 공공근로	3.7	4.6	8.1	10.4	1.3	8.6	3.9	2.3	9.2	7.4
	복지시설 이용	20.5	18.0	13.1	16.9	17.2	15.3	18.2	18.9	15.0	16.0
	정신보건서비스	0.0	0.9	0.6	1.1	0.0	0.5	1.4	1.4	0.5	0.7
	장애인지원 서비스	0.0	0.4	0.1	0.0	0.0	0.1	0.2	0.3	0.0	0.1
	무료급식 (식사지원)	11.0	15.3	12.6	10.0	4.6	11.4	8.2	8.1	11.5	10.6
	현물지원	1.6	0.9	2.1	1.7	0.4	1.8	0.8	0.8	1.8	1.5
	주거지원	3.9	3.1	3.7	2.9	0.6	2.9	2.8	2.6	3.0	2.9
	편의시설이용	1.0	0.0	0.2	0.5	0.3	0.4	0.2	0.4	0.3	0.3
	여가, 문화 프로그램	2.2	2.1	1.2	1.4	1.6	1.2	2.1	3.6	0.7	1.5
	법률지원	2.1	0.4	0.5	1.0	0.0	0.7	0.6	0.6	0.7	0.7
	2 순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8	9.8	2.4	5.4	7.4	4.8	6.4	5.5	5.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8	10.0	15.0	18.0	18.0	17.4	13.9	17.7	16.0	16.5
긴급복지 생계급여		1.0	0.0	0.5	1.4	0.8	0.9	0.9	0.5	1.0	0.9
긴급복지 주거급여		0.0	0.0	0.3	0.0	0.5	0.1	0.3	0.0	0.2	0.2
실업급여		0.0	1.4	1.3	0.0	0.6	0.6	0.9	0.4	0.8	0.7
의료급여 및 서비스		10.5	18.5	18.0	19.7	25.2	19.0	20.8	24.6	17.6	19.5
무료진료		6.3	9.5	7.4	6.4	8.7	7.2	7.9	7.7	7.3	7.4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1.2	2.7	4.2	2.4	2.0	3.3	1.6	0.9	3.6	2.9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	여	유	무	
직업교육	5.1	0.5	0.8	0.2	0.6	0.8	0.4	0.6	0.8	0.7
자활사업, 공공근로	5.3	9.0	5.2	3.9	0.4	4.6	3.7	2.1	5.2	4.4
복지시설 이용	10.7	5.5	6.4	9.0	5.9	6.8	9.4	11.0	6.2	7.4
정신보건서비스	1.1	0.4	0.8	1.2	1.0	0.3	3.0	2.2	0.5	1.0
장애인지원 서비스	0.5	0.4	0.1	0.4	0.8	0.2	1.0	1.1	0.1	0.4
무료급식 (식사지원)	15.2	11.2	18.3	15.5	12.8	15.7	14.9	15.2	15.6	15.5
현물지원	3.2	8.5	6.7	7.8	5.6	7.9	4.4	2.7	8.5	7.0
주거지원	2.8	2.0	2.4	1.6	1.6	1.6	3.0	2.3	1.8	1.9
편의시설이용	2.3	4.1	2.0	1.1	1.0	2.2	0.5	1.0	2.0	1.7
여가,문화 프로그램	3.0	0.5	2.5	2.0	1.1	1.9	2.0	0.9	2.3	1.9
법률지원	1.1	1.4	0.3	0.0	0.5	0.3	0.6	0.4	0.4	0.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이상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응답 중 상위 3개 서비스를 거처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거리는 무료급식, 자활사업 공공근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순이며, 생활시설은 복지시설 이용, 생계급여, 무료급식 순이다. 쪽방주민은 생계급여, 자활사업 공공근로, 주거급여 순이었다.

〈표 4-5-12〉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중 상위 3개 서비스(거처유형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1	무료급식 (식사지원) (62.0)	자활사업 공공근로 (26.2)	무료급식 (식사지원) (51.6)	복지시설 이용 (24.3)	복지시설 이용 (30.2)	복지시설 이용 (30.0)	복지시설 이용 (29.3)	복지시설 이용 (25.0)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51.4)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1.5)
2	긴급복지 생계급여 (10.3)	무료급식 (식사지원) (21.9)	자활사업 공공근로 (7.9)	무료급식 (식사지원) (13.3)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23.2)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26.3)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21.8)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19.2)	자활사업, 공공근로 (12.6)	복지시설 이용 (16.0)
3	현물지원 (7.5)	복지시설 이용 (10.3)	긴급복지 생계급여 (7.6)	무료진료 (6.6)	의료급여 및서비스 (14.0)	의료급여 및서비스 (18.2)	의료급여 및서비스 (15.2)	무료급식 (식사지원) (15.4)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0.9)	무료급식 (식사지원) (1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2순위는 복지시설 이용으로 각 구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3순위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경우, 남성 및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무료급식(식사지원)이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5-13〉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1순위 중 상위 3개 서비스(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	여	유	무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3.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9)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6.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1.5)
2	복지시설 이용 (20.5)	복지시설 이용 (18.0)	복지시설 이용 (13.1)	복지시설 이용 (16.9)	복지시설 이용 (17.2)	복지시설 이용 (15.3)	복지시설 이용 (18.2)	복지시설 이용 (18.9)	복지시설 이용 (15.0)	복지시설 이용 (16.0)
3	무료급식(식사지원) (11.0)	무료급식(식사지원) (15.3)	무료급식(식사지원) (12.6)	의료급여 및 서비스 (11.0)	의료급여 및 서비스 (10.3)	무료급식(식사지원) (11.4)	의료급여 및 서비스 (12.0)	의료급여 및 서비스 (12.1)	무료급식(식사지원) (11.5)	무료급식(식사지원) (1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주류 서비스 체계로부터 접근이 쉽지 않는 특성을 가진 노숙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 경로에 대해 거처유형별로 물어본 결과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38.8%)를 통한 서비스 정보 접근이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 노숙인은 노숙인 시설 안내가 39.9%, 쪽방주민은 동료 및 지인이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표 4-5-14〉 서비스 정보 접근 경로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노숙인 시설에서 안내를 받아서	13.1	24.7	16.1	45.8	32.0	47.2	39.9	36.0	23.9	31.4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11.6	5.6	10.1	13.8	22.7	17.5	19.4	17.9	26.8	21.3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14.3	50.6	23.7	14.6	12.7	12.9	13.0	14.8	33.4	21.9
주민센터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소개로	3.2	3.7	3.3	10.8	25.6	15.2	19.4	16.8	5.7	12.5
긴급전화(120,1366 등) 안내를 통해서	0.0	1.9	0.5	2.1	0.4	0.5	0.7	0.6	0.0	0.4
직접 정보를 찾아서(인터넷 등)	7.0	7.3	7.1	8.9	2.4	1.9	3.1	3.7	4.5	4.0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의 도움으로	50.8	4.4	38.8	3.4	2.5	4.0	3.2	9.1	5.4	7.7
기타	0.0	1.8	0.5	0.7	1.8	0.8	1.2	1.1	0.4	0.8
합계	100.0 (198)	100.0 (55)	100.0 (253)	100.0 (145)	100.0 (501)	100.0 (419)	100.0 (1,065)	100.0 (1,318)	100.0 (233)	100.0 (1,5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서비스 정보 접근 경로에 대하여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숙인 시설 안내의 경우, 70세 이상(34.2%), 여성(41.5%),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35.2%)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2순위를 차지한 동료 및 지인 소개의 경우, 고연령층(70세 이상, 23.4%), 남성(24.7%), 그리고 장애가 없는 노숙인(22.6%)에서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남성 노숙인이 여성 노숙인에 비하여 공식적 통로보다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서비스 접근이 더 높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3순위를 차지하는 사회복지기관 상담은 70세 이상(25.3%), 남성(21.6%),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2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표 4-5-15〉 서비스 정보 접근 경로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노숙인 시설에서 안내를 받아서	25.4	32.8	28.9	32.6	34.2	27.9	41.5	35.2	30.0	31.4
사회복지기 관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24.8	24.1	20.2	19.5	25.3	21.6	20.5	22.0	21.0	21.3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9.3	22.8	21.7	22.7	23.4	24.7	13.7	19.8	22.6	21.9
주민센터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소개로	16.6	8.9	13.5	13.8	8.5	11.4	15.7	14.0	12.0	12.5
긴급전화 (120,1366 등) 안내를 통해서	0.3	2.2	0.3	0.1	0.0	0.3	0.7	0.4	0.4	0.4
직접 정보를 찾아서(인터 넷 등)	12.5	1.2	5.0	4.1	1.1	4.3	3.1	4.4	3.9	4.0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의 도움으로	11.0	7.1	9.4	6.5	6.7	9.1	3.7	3.4	9.2	7.7
기타	0.0	1.0	1.1	0.7	0.8	0.7	1.2	0.7	0.9	0.8
합계	100.0 (80)	100.0 (188)	100.0 (484)	100.0 (599)	100.0 (200)	100.0 (1,143)	100.0 (408)	100.0 (451)	100.0 (1,100)	100.0 (1,5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소득보조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49.2%).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17.9%), 의료지원(12.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과 생활시설 노숙인 모두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의 순서가 유사하였다.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소득보조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43.7%), 다음으로 주거지원(22.2%)이 차지하였다. 한편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도 소득보조(41.5%), 주거지원(16.9%), 그리고 의료지원(16.1%) 순서로 나타났다.

지원 항목별로 좀 더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소득보조의 경우, 요양시설 노숙인(48.6%)에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거리 노숙인 중에서

도 이용시설보다 거리생활을 하는 노숙인(45.0%)이 차지하였다. 주거지원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생활시설보다 거리 노숙인에게서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활시설 노숙인에서 가장 높은 필요도(34.7%)를 보여주었다. 의료지원의 경우는 재활시설(17.7%)과 요양시설(17.4%) 노숙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지원의 경우, 이용시설 노숙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21.1%)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자활시설(1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16〉 가장 필요한 지원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소득보조	45.0	39.3	43.7	31.5	38.6	48.6	41.5	41.9	61.4	49.2
의료지원	8.4	7.9	8.3	8.1	17.7	17.4	16.1	14.6	8.7	12.4
고용지원	6.2	21.1	9.7	17.6	7.0	2.7	6.9	7.4	5.8	6.8
주거지원	20.3	28.4	22.2	34.7	15.1	12.3	16.9	17.9	17.9	17.9
심리지원	1.2	1.6	1.3	0.0	5.4	4.2	4.1	3.6	0.0	2.2
재무상담 지원	0.6	0.0	0.5	3.6	2.2	0.2	1.6	1.4	0.3	1.0
급식지원	10.4	0.0	8.0	2.0	3.5	1.5	2.5	3.5	3.6	3.6
정신건강 지원	2.8	0.0	2.2	2.5	2.9	4.4	3.4	3.2	1.3	2.5
돌봄지원	2.5	0.0	2.0	0.0	2.5	3.9	2.7	2.5	0.2	1.7
법률지원	1.8	1.6	1.8	0.0	0.6	0.0	0.3	0.5	0.6	0.6
기타	0.6	0.0	0.4	0.0	4.6	4.9	4.0	3.3	0.0	2.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로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소득보조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50% 전후의 필요도를 보인 반면, 40세 미만에서 가장 낮은 필요도(28.8%)를 보여주었다. 40세 미만의 경우 소득보조보다는 오히려 주거지원(34.4%)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고용지원(15.9%)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15.4%)에게서, 장애가 있는 노숙인(1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17〉 가장 필요한 지원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소득보조	28.8	47.8	52.6	51.7	42.9	50.0	46.9	48.9	49.3	49.2
의료지원	4.1	7.5	9.1	14.0	21.5	11.4	15.4	16.3	11.1	12.4
고용지원	15.9	12.9	8.1	4.7	2.5	8.2	2.7	1.5	8.7	6.8
주거지원	34.4	21.3	17.9	13.7	21.2	18.6	16.0	12.2	19.9	17.9
심리지원	2.8	3.1	1.9	2.4	1.5	1.3	5.0	4.2	1.6	2.2
채무상당지원	3.1	0.4	1.5	0.9	0.0	1.0	0.9	1.1	1.0	1.0
급식지원	1.4	2.8	2.6	5.3	2.2	4.1	2.1	3.2	3.7	3.6
정신건강지원	6.2	1.3	3.0	1.9	2.5	1.7	4.9	5.7	1.4	2.5
돌봄지원	0.2	0.4	1.6	2.1	2.1	1.3	2.8	3.2	1.1	1.7
법률지원	3.0	0.6	0.3	0.7	0.0	0.7	0.1	0.6	0.6	0.6
기타	0.0	1.9	1.3	2.5	3.5	1.7	3.2	3.1	1.8	2.1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생활 중 가장 기초적 생활 유지에 중요한 식사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식사해결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47.6%)’이었다.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을 통한 무료급식 방법(3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무료급식(26.8%)이 차지하였는데, 거리 노숙인 중에서도 거리노숙 생활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사해결 방법이었다. 반면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생활시설’을 통한 무료급식 방법(88.5%)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5-18〉 식사해결방법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노숙인 종합지원센 터/일시보호 시설 무료급식	19.4	81.3	33.6	21.8	14.0	11.1	14.0	17.7	4.9	12.9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	23.8	12.8	21.3	75.3	85.1	88.5	85.0	72.9	5.3	47.6
민간단체 무료급식 이용	34.7	0.0	26.8	1.0	0.5	0.0	0.4	5.4	2.4	4.2
자비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이용	10.4	4.0	8.9	1.3	0.2	0.2	0.4	2.0	6.4	3.6
스스로 조리	0.6	1.9	0.9	0.0	0.2	0.2	0.2	0.3	73.9	27.9
무료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	11.1	0.0	8.5	0.6	0.0	0.0	0.1	1.7	7.2	3.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 식사해결방법에 대해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노숙인 생활시설을 통한 무료급식 방법은 연령층이 낮은 40세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율(54.7%)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65.6%)일수록,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69.5%)에서도 노숙인 생활시설을 통한 무료급식 방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5-19〉 식사해결방법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 시설 무료급식	16.6	21.1	13.3	11.4	8.7	13.7	10.5	11.0	13.6	12.9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	54.7	49.4	45.2	50.9	40.3	41.5	65.6	69.5	40.0	47.6
민간단체 무료급식 이용	1.8	1.9	6.1	3.5	4.7	5.1	1.6	1.1	5.3	4.2
자비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이용	2.2	3.5	3.2	4.4	3.3	4.3	1.6	2.4	4.1	3.6
스스로 조리	23.2	16.8	29.4	27.4	35.6	31.4	17.7	15.1	32.4	27.9
무료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	1.5	7.4	3.0	2.3	7.4	4.0	3.0	.9	4.7	3.7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 노숙인의 사회관계망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관계망을 가족/친지, 비노숙인 친구/동료 그리고 노숙인 친구/동료 이렇게 세 형태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관계망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친지, 그리고 비노숙인 친구/동료는 노숙 형태(거리¹⁷⁾, 시설, 쪽방)에 상관없이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노숙인 친구/동료의 경우 쪽방을 제외한 나머지 거리 및 시설노숙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숙인 인구특성별(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로 사회관계망을 분석하였다. 사회관계망의 유형별로 만난 횟수도 분석하여, 사회관계망의 긴밀도도

17) 본 절에서의 '거리노숙인'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이용시설(일시보호/종합지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 고려하였다. 통계적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응답자의 사회네트워크를 0명 (아무도 없는 경우), 1명에서 10명, 11명에서 20명 그리고 20명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가족 친지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와 사회관계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를 차지하였다. 노숙인(67.3%)과 쪽방주민(69.3%) 모두 가족 친지와 전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80.0%)이 가족이나 친지와 전혀 사회관계망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거리노숙인 보다 생활시설 노숙인이 가족이나 친지와 사회관계망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였으며, 특히 자활시설 노숙인에게서 1명에서 10명 사이의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하는 경우가 40.6%로 나타나 가장 양호한 사회적 관계망을 보여주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70세 이상 = 71.3%), 남성(70.3%), 그리고 장애가 없는 노숙인(70.5%)에게서 가족이나 친지와 사회관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40세 미만(38.9%), 여성(38.6%),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38.9%)의 경우, 1명에서 10명 사이의 가족이나 친지와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좀 더 양호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0〉 가족/친지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 시설	요양시설	소계			
0명	81.3	75.4	80.0	58.4	62.7	68.5	64.3	67.3	69.3	68.1
1~10명	18.7	24.6	20.0	40.6	37.1	31.3	35.4	32.5	30.7	31.8
11~20명	0.0	0.0	0.0	0.0	0.2	0.2	0.2	0.1	0.0	0.1
21명 이상	0.0	0.0	0.0	1.0	0.0	0.0	0.1	0.1	0.0	0.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0명	59.5	64.1	68.4	68.7	71.3	70.3	61.4	60.9	70.5	68.1
1~10명	38.9	35.9	31.5	31.2	28.7	29.5	38.6	38.9	29.3	31.8
11~20명	0.0	0.0	0.1	0.1	0.0	0.1	0.0	0.2	0.1	0.1
21명 이상	1.6	0.0	0.0	0.0	0.0	0.1	0.0	0.0	0.1	0.1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인 등의 가족이나 친지와 사회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접촉 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 이하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 노숙인의 72.4%를 차지하였다. 쪽방주민(69.6%)에 비하여 노숙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74.1%).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 노숙인보다 가족이나 친지와 접촉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은 연령층일수록(70세 이상=75.0%), 남성일수록(74.1%), 그리고 장애가 없을수록(73.0%) 가족이나 친지와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1〉 가족/친지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소계			
주1회초과	2.0	13.6	5.5	6.1	7.2	5.0	6.4	6.1	11.2	8.0
주1회이하	15.4	6.3	12.8	30.2	21.5	15.1	20.7	19.8	19.3	19.6
월1회이하	82.6	80.2	81.6	63.8	71.2	79.9	73.0	74.1	69.6	72.4
합계	100.0 (43)	100.0 (14)	100.0 (57)	100.0 (69)	100.0 (196)	100.0 (142)	100.0 (407)	100.0 (464)	100.0 (74)	100.0 (538)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주1회초과	4.0	15.5	11.3	5.4	1.5	6.2	11.9	8.5	7.6	8.0
주1회이하	28.4	15.6	17.1	20.3	23.5	19.5	19.8	20.4	19.2	19.6
월1회이하	67.5	69.0	71.6	74.2	75.0	74.1	68.3	71.1	73.0	72.4
합계	100.0 (33)	100.0 (68)	100.0 (159)	100.0 (216)	100.0 (62)	100.0 (366)	100.0 (172)	100.0 (191)	100.0 (347)	100.0 (538)

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가 0이 아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비노숙인과의 사회관계망을 보여준다. 비노숙인 아무와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이 74.4%를 차지하였으며,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쪽방(51.0%)에 비하여 노숙인(88.5%)의 비노숙인 사회관계망이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비노숙인과 어떠한 사회관계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4.6%이었는데, 생활시설 노숙인은 이보다 약간 높은 89.4%가 비노숙인과 어떠한 사회관계망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선 가족과 친지와와의 사회관계망 분포와 유사하게 자활시설 노숙인은 1명에서 10명 사이의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하는 경우가 33.9%로 나타나 가장 양호한 사회적 관계망을 보여주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70세 이상 = 77.4%), 여성(85.8%),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84.8%)에게서 비노숙인과 사회관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0세 미만(34.4%), 남성(27.9%), 그리고 장애가 없는 노숙인(28.3%의 경우, 1명에서 10명 사이의 비노숙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면서 좀 더 양호한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2〉 비노숙인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0명	86.1	79.5	84.6	65.1	93.5	94.0	89.4	88.5	51.0	74.4
1~10명	13.9	18.9	15.1	33.9	6.3	5.6	10.2	11.1	46.0	24.2
11~20명	0.0	1.6	0.4	0.3	0.2	0.4	0.3	0.3	3.0	1.3
21명 이상	0.0	0.0	0.0	0.7	0.0	0.1	0.1	0.1	0.0	0.1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0명	59.9	69.6	73.7	77.0	77.4	70.6	85.8	84.8	70.9	74.4
1~10명	34.4	30.2	25.9	22.4	17.6	27.9	13.3	12.4	28.3	24.2
11~20명	5.8	0.2	0.2	0.6	4.9	1.5	0.8	2.8	0.8	1.3
21명 이상	0.0	0.0	0.2	0.0	0.0	0.1	0.0	0.0	0.1	0.1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비노숙인과의 사회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들의 접촉 빈도를 살펴보면 월 1회 이하의 접촉 빈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5.7%를 차지하였다. 거주 유형별로 비노숙인과의 접촉 빈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쪽방주민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61.5%)이 가장 높은 반면, 노숙인은 월 1회 이하 접촉한다고 응답한 비율(49.2%)이 가장 높았다. 거리노숙인은 월1회 이하 접촉한다는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 노숙인도 월1회 이하 접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으나 거리노숙인보다는 그 비율이 낮았다. 쪽방, 생활시설, 그리고 거리노숙인 순서로 비노숙인과의 사회관계망 접촉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비교하면 40세 미만(35.1%), 남성(27.3%), 그리고 장애가 없는 경우(27.2%) 상대적으로 비노숙인과 접촉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3〉 비노숙인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1회초과	17.8	0.0	12.5	15.8	11.6	26.1	17.1	15.9	61.5	48.8
주1회이하	32.6	22.2	29.6	47.8	30.1	22.1	37.1	35.1	22.0	25.7
월1회이하	49.5	77.7	57.9	36.3	58.4	51.7	45.9	49.2	16.6	25.7
합계	100.0 (39)	100.0 (11)	100.0 (50)	100.0 (61)	100.0 (34)	100.0 (44)	100.0 (139)	100.0 (189)	100.0 (110)	100.0 (299)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주1회초과	26.6	49.5	43.1	54.2	59.6	46.9	59.2	56.4	47.3	48.8
주1회이하	38.4	16.9	32.3	22.0	20.0	25.7	25.1	25.7	25.6	25.7
월1회이하	35.1	33.5	24.4	23.8	20.5	27.3	15.8	18.2	27.2	25.7
합계	100.0 (28)	100.0 (49)	100.0 (91)	100.0 (96)	100.0 (35)	100.0 (256)	100.0 (43)	100.0 (45)	100.0 (254)	100.0 (299)

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가 0이 아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노숙인 친구/동료와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쪽방은 본 사회관계망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였다. 노숙인 친구/동료와의 사회관계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를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가족이나 친지, 비노숙인과의 사회적 관계망보다는 좀 더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 노숙인보다 노숙인 친구나 동료와의 사회관계망이 더 발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명에서 10명 사이의 노숙인 친구나 동료와 사회관계망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거리노숙인은 50.7%라고 응답하여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45.4%)보다 높았다. 생활시설의 경우도 3명 중 1명(32.4%)은 1명에서 10명 사이의 노숙인 친구나 동료와 만나거나 접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60대 =63.9%, 70세 이상 =62.5%), 여성이면서(64.9%), 장애가 있는 노숙인(70.8%)에서 노숙인 친구나 동료와 사회관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4-5-24〉 노숙인 친구/동료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0명	49.6	31.2	45.4	54.0	71.2	59.9	64.2	60.6
1~10명	47.3	62.4	50.7	42.5	24.6	37.5	32.4	35.9
11~20명	2.7	0.0	2.1	1.4	1.3	0.5	1.0	1.2
21명 이상	0.4	6.4	1.8	2.1	2.9	2.0	2.4	2.3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100.0 (1,45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0명	58.0	54.8	58.4	63.9	62.5	58.7	64.9	70.8	55.9	60.6
1~10명	38.5	39.6	37.4	33.4	35.0	37.0	33.4	26.4	40.2	35.9
11~20명	1.3	2.2	1.7	0.7	0.6	1.4	0.7	1.0	1.3	1.2
21명 이상	2.2	3.4	2.5	2.0	1.9	2.9	0.9	1.8	2.5	2.3
합계	100.0 (80)	100.0 (188)	100.0 (451)	100.0 (569)	100.0 (162)	100.0 (1,055)	100.0 (395)	100.0 (434)	100.0 (1,016)	100.0 (1,4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노숙인 친구/동료와 사회관계망이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들의 접촉 빈도를 살펴보면 주1회 이상 접촉빈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91.5%). 거리 노숙인(81.4%)에 비하여 생활시설 노숙인(95.1%)의 노숙인 친구/동료 간 사회관계망 접촉빈도가 높았다. 노숙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 환경 때문의 결과라고 보인다.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97.5%)이거나 40세 미만(95.1%)에서 노숙인 친구/동료가 사회관계망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노숙인이(95.9%),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96.8%)이 노숙인 친구나 동료와 만나거나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5〉 노숙인 친구/동료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주1회초과	80.7	83.4	81.4	85.5	96.3	98.5	95.1	91.5
주1회이하	18.3	7.0	15.1	8.6	1.8	1.3	2.9	6.1
월1회이하	1.0	9.6	3.5	5.9	1.8	0.2	1.9	2.4
합계	100.0 (131)	100.0 (41)	100.0 (172)	100.0 (77)	100.0 (167)	100.0 (159)	100.0 (403)	100.0 (575)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주1회초과	95.1	90.3	88.0	93.0	97.5	90.0	95.9	96.8	89.9	91.5
주1회이하	1.4	7.1	9.6	4.5	2.0	7.2	3.1	3.1	7.1	6.1
월1회이하	3.4	2.6	2.4	2.6	0.5	2.8	0.9	0.0	3.0	2.4
합계	100.0 (35)	100.0 (85)	100.0 (182)	100.0 (214)	100.0 (59)	100.0 (435)	100.0 (140)	100.0 (132)	100.0 (443)	100.0 (575)

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빈도가 0이 아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거리노숙인 욕구 실태

다음은 거리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생활시설 노숙인 및 쪽방주민은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거리 노숙인의 80% 이상이 일시보호시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시설 노숙인은 자신의 거처가 일시보호시설 등 이용시설이므로 응답자 전원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26〉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이용시설 노숙인 포함)

(단위: %, 명)

구분	거리		
	거리	이용시설	계
알고 있다	81.4	100.0	85.6
모른다	18.6	0.0	14.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장애 유무별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성별로는 남성(84.2%)이 여성(56.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표 4-5-27〉 일시보호시설 인지 여부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알고 있다	74.1	76.4	78.5	86.3	85.3	84.2	56.6	96.1	80.5	81.4
모른다	25.9	23.6	21.6	13.7	14.7	15.8	43.4	3.9	19.5	18.6
합계	100.0 (15)	100.0 (32)	100.0 (109)	100.0 (86)	100.0 (11)	100.0 (227)	100.0 (26)	100.0 (16)	100.0 (237)	100.0 (2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대상으로 실제로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결과, 과반(51.0%)이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28〉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 여부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거리	이용시설	계
있다	49.0	100.0	62.6
없다	51.0	0.0	37.4
합계	100.0 (203)	100.0 (59)	100.0 (2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47.9%(60대)~54.7%(40세 미만)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성별로는 남성이 50.9%, 여성이 23.4%로 여성의 1/4만이 실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장애가 있는 응답자(72.5%)가 없는 응답자(47.3%)에 비해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4-5-29〉 거리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 여부 (이용시설 노숙인 제외)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다	54.7	48.1	49.3	47.9	52.2	50.9	23.4	72.5	47.3	49.0
없다	45.3	51.9	50.7	52.2	47.8	49.1	76.6	27.6	52.7	51.0
합계	100.0 (12)	100.0 (25)	100.0 (83)	100.0 (37)	100.0 (9)	100.0 (187)	100.0 (16)	100.0 (15)	100.0 (188)	100.0 (2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오늘밤 잠자리는 거리 광장(37.9%), 일시보호시설(18.6%), 지하공간(18.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용시설 이용자임에도 오늘밤 잠자리가 일시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는 18.7%로 건물내부 (10.1%) 등이었다.

〈표 4-5-30〉 오늘 밤 잘 장소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거리	이용시설	계
건물내부	13.1	10.1	12.4
지하공간	23.8	0.0	18.4
거리·광장	48.7	1.6	37.9
공원·녹지	12.9	0.0	10.0
강변	0.4	0.0	0.3
일시보호시설	0.0	81.3	18.6
기타	1.1	6.9	2.4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은 건물내부(31.9%)에서 잠자리를 청하는 반면, 40세 미만은 거리나 광장(31.8%) 등 개방된 공간에서 잠자리를 청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거리나 광장에서 잠자리를 청하는 비율(39.8%)이 가장 높는데 반하여, 여성은 지하공간에 잠자리를 마련하는 비율(31.6%)이 높았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거리나 광장에서 잠자리를 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5-31〉 오늘 밤 잘 장소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건물내부	25.7	18.2	8.0	10.9	31.9	10.8	27.7	21.1	11.8	12.4
지하공간	23.1	10.6	19.8	19.4	17.1	17.0	31.6	26.3	17.8	18.4
거리·광장	31.8	30.4	37.5	45.2	14.8	39.8	19.2	33.9	38.2	37.9
공원·녹지	0.0	0.0	15.3	9.2	8.5	9.9	10.2	0.0	10.6	10.0
강변	0.0	0.0	0.7	0.0	0.0	0.3	0.0	0.0	0.3	0.3
일시보호시설	19.4	40.9	15.3	13.2	23.2	19.4	11.4	12.1	19.1	18.6
기타	0.0	0.0	3.5	2.2	4.5	2.7	0.0	6.6	2.2	2.4
합계	100.0 (18)	100.0 (49)	100.0 (128)	100.0 (103)	100.0 (14)	100.0 (281)	100.0 (31)	100.0 (21)	100.0 (291)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오늘밤 잠자리를 선택한 1순위 이유는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2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이용(23.3%)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거리생활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을 비교하면, 거리생활 노숙인의 가장 주요한 1순위 이유가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37.5%)이었다. 반면 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의 1순위는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41.7%)' 때문이었다. 2순위로는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26.9%)과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자원(25.5%) 순으로 나타났다. 거리생활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었다. 거리생활 노숙인의 경우 더욱 더 은둔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거리생활 노숙인의 정신 및 심리적 상태가 더욱 취약해서 나타난 결과라 추측할 수 있다.

〈표 4-5-32〉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 1, 2순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거리	이용시설	계	
1순위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37.5	1.1	29.1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21.3	30.0	23.3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이 가까워서	3.6	41.7	12.3
	따뜻해서(혹은 춥지 않아서)	13.1	6.0	11.5
	조용해서	15.5	7.6	13.7
	일을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0.0	3.5	0.8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8.0	0.0	6.2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0.5	2.4	0.9
	기타	0.5	7.7	2.2
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2순위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7.8	4.3	7.0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23.7	37.6	26.9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이 가까워서	21.9	37.5	25.5
	따뜻해서(혹은 춥지 않아서)	11.7	9.4	11.1
	조용해서	14.4	0.0	11.1
	일을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0.3	8.4	2.1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15.9	1.6	12.6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3.1	0.0	2.4
	기타	1.3	1.2	1.2
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한편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은 잠자리 선택 이유로 ‘주변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36.1%), 70세 이상은 조용한 환경(29.9%) 때문에 잠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가 잠자리를 선택한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이러한 경향이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32.4%). 또한 성별로 차이 나는 항목에 여성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10.2%)이라거나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5.8%)를 잠자리 선택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 4-5-33〉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 1, 2순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 순위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36.1	29.7	36.0	20.6	25.9	28.8	32.4	20.5	29.7	29.1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15.7	15.9	24.5	29.0	0.0	23.7	19.6	30.0	22.9	23.3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이 가까워서	16.2	26.0	8.8	9.6	20.4	12.4	11.6	5.8	12.8	12.3
	따뜻해서(혹은 춥지 않아서)	0.0	3.9	8.2	19.2	14.7	11.8	8.5	30.4	10.2	11.5
	조용해서	15.1	8.9	14.0	12.8	29.9	13.9	11.9	2.8	14.4	13.7
	일을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0.0	0.0	0.9	0.0	9.0	0.9	0.0	0.0	0.9	0.8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3.7	7.8	7.3	5.4	0.0	5.8	10.2	2.7	6.4	6.2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3.8	3.9	0.4	0.0	0.0	0.4	5.8	0.0	1.0	0.9
기타	9.3	3.8	0.0	3.4	0.0	2.4	0.0	7.9	1.8	2.2	
2 순위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14.3	6.6	5.8	7.8	4.8	7.3	3.4	13.0	6.6	7.0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32.9	42.0	21.4	26.0	30.6	26.4	31.1	30.3	26.6	26.9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이 가까워서	25.5	23.2	23.7	29.0	20.9	26.3	17.2	27.5	25.3	25.5
	따뜻해서(혹은 춥지 않아서)	3.8	11.3	13.0	10.9	3.4	11.1	11.3	16.4	10.8	11.1
	조용해서	3.7	0.0	15.1	12.8	3.8	11.3	8.6	12.8	11.0	11.1
	일을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0.0	5.5	1.9	1.1	4.5	2.4	0.0	0.0	2.3	2.1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10.3	4.7	16.3	9.3	31.9	11.6	22.2	0.0	13.5	12.6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3.8	6.6	2.0	1.4	0.0	2.3	3.4	0.0	2.6	2.4
기타	5.7	0.0	0.8	1.8	0.0	1.1	2.8	0.0	1.3	1.2	
합계	100.0 (18)	100.0 (49)	100.0 (128)	100.0 (103)	100.0 (14)	100.0 (281)	100.0 (31)	100.0 (21)	100.0 (291)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오늘밤 잠자리 유형별 선택 이유를 비교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지하공간(36.5%), 거리광장(45.4%), 공원녹지(46.2%), 강변(50.0%)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이용(36.7%)과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자원 이용(49.0%)의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5-34〉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 (잠자리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건물 내부	지하 공간	거리 광장	공원 녹지	강변	일시 보호 시설	기타	계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24.4	36.5	45.4	46.2	50.0	2.0	25.0	33.0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26.7	13.5	16.7	19.2	0.0	36.7	0.0	20.2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자원이 가까워서	4.4	4.1	5.6	7.7	0.0	49.0	0.0	11.9
따뜻해서(혹은 춥지 않아서)	17.8	14.9	5.6	0.0	0.0	4.1	25.0	9.3
조용해서	13.3	23.0	13.9	15.4	50.0	0.0	25.0	14.4
일을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0.0	0.0	0.0	0.0	0.0	4.1	0.0	.6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6.7	8.1	8.3	11.5	0.0	0.0	12.5	7.1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4.4	0.0	.9	0.0	0.0	0.0	0.0	1.0
기타	2.2	0.0	3.7	0.0	0.0	4.1	12.5	2.6
합계	100.0 (45)	100.0 (74)	100.0 (108)	100.0 (26)	100.0 (2)	100.0 (49)	100.0 (8)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거리 노숙인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이었다(32.1%). 그 다음으로 ‘잘 몰라서’(19.7%),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14.4%)’의 이유 때문이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 환경 때문에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시설 환경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4-5-35〉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거리	이용시설	계
잘 몰라서	10.9	49.2	19.7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35.3	21.4	32.1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10.9	2.8	9.1
시설환경이 나빠서	3.6	0.0	2.8
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0.5	1.6	0.7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서	1.6	0.0	1.2
재미가 없어서	9.7	0.0	7.5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6.3	7.5	6.5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	17.2	5.0	14.4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음	1.3	0.0	1.0
이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입소되지 않음	0.7	2.4	1.1
기타	2.2	10.0	3.9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고연령층은 잘 몰라서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27.8%)이 높은 반면, 40세 미만은 ‘단체 생활과 규칙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44.6%)이 가장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명이 거주하는 생활 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노숙인(33.9%)일수록 그리고 장애가 없는 노숙인(33.2%)일수록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표 4-5-36〉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잘 몰라서	5.7	33.2	20.2	14.7	27.8	20.6	10.8	32.3	18.8	19.7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44.6	24.0	30.6	37.5	15.4	31.9	33.9	16.7	33.2	32.1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3.7	3.5	9.7	10.8	11.9	9.0	9.5	10.1	9.0	9.1
시설환경이 나빠서	0.0	1.2	2.7	4.1	0.0	2.8	1.8	0.0	2.9	2.8
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0.0	2.7	0.4	0.5	0.0	0.8	0.0	0.0	0.8	0.7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서	0.0	1.3	.7	2.0	0.0	1.2	1.6	0.0	1.3	1.2
재미가 없어서	3.8	1.2	7.9	8.8	16.4	7.8	4.9	2.8	7.8	7.5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20.5	4.6	9.7	2.7	0.0	5.5	16.4	10.3	6.3	6.5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	21.6	19.1	13.9	13.2	6.9	14.7	11.9	19.3	14.1	14.4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음	0.0	1.2	0.8	1.4	0.0	0.7	3.4	0.0	1.0	1.0
이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입소되지 않음	0.0	3.9	1.3	0.0	0.0	0.6	5.8	2.7	1.0	1.1
기타	0.0	3.9	2.1	4.2	21.7	4.4	0.0	5.8	3.8	3.9
합계	100.0 (18)	100.0 (49)	100.0 (128)	100.0 (103)	100.0 (14)	100.0 (281)	100.0 (31)	100.0 (21)	100.0 (291)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리노숙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서비스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 거리상담원과의 접촉이었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도 거리노숙인이 서비스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빈번한 경로가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의 도움이었다. 거리상담원을 만난 빈도를 살펴보면, 거리 노숙인 4명 중 1명은 '일주일에 1~2번 이야기 하는 것'(25.3%)으로 나타났다.

〈표 4-5-37〉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거리	이용시설	계
거리상담원을 만나본 적이 없다	2.4	23.9	7.3
오늘 처음 만나 이야기했다	3.7	7.2	4.5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이야기 한다	18.8	20.4	19.2
한 달에 1~2번 이야기 한다	24.4	17.0	22.7
일주일에 1~2번 이야기 한다	27.7	17.2	25.3
그 이상 자주 이야기 한다	23.0	14.3	21.0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숙인(22.3%)이 여성 노숙인(8.5%)에 비하여 거리상담원과의 접촉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노숙인의 10명 중 8~9명은 적어도 1달에 1번 이상은 아웃리치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여성 거리노숙인의 약 3명 중 1명은 일시보호시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거리 생활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상담에서 여성 노숙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표 4-5-38〉 거리상담원과의 이야기 빈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거리상담원을 만나본 적이 없다	7.2	10.5	6.5	7.3	4.8	7.5	5.7	6.6	7.4	7.3
오늘 처음 만나 이야기했다	3.3	11.8	4.1	2.9	0.0	4.2	7.6	2.7	4.6	4.5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이야기 한다	28.3	23.9	21.1	13.1	26.6	18.5	26.1	26.3	18.7	19.2
한 달에 1~2번 이야기 한다	26.7	11.6	26.1	19.5	45.9	21.6	32.8	18.1	23.0	22.7
일주일에 1~2번 이야기 한다	28.1	32.2	23.7	26.1	9.6	25.9	19.3	21.2	25.5	25.3
그 이상 자주 이야기 한다	6.4	10.0	18.5	31.1	13.1	22.3	8.5	25.1	20.7	21.0
계	100.0 (18)	100.0 (49)	100.0 (128)	100.0 (103)	100.0 (14)	100.0 (281)	100.0 (31)	100.0 (21)	100.0 (291)	100.0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3. 시설노숙인 욕구 실태

다음은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2010년 이전을 제외할 때, 시설생활 시작 시기가 2019년도와 2020년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7%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비교적 최근에 시설 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이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활 시설에서 2019년도부터 시설생활을 시작했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4-5-39〉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1990년 이전(~1989)	0.6	8.5	12.3	8.8
2000년 이전 (1990~1999)	1.1	16.7	17.5	14.7
2010년 이전	6.6	24.1	26.4	22.4
2010	1.2	3.0	6.4	4.1
2011	2.5	3.0	3.9	3.3
2012	1.9	2.7	3.0	2.7
2013	3.1	3.0	2.8	3.0
2014	2.5	4.6	3.3	3.8
2015	3.9	3.1	3.4	3.3
2016	7.3	4.2	5.7	5.3
2017	4.4	4.9	3.5	4.3
2018	7.7	6.4	3.7	5.5
2019	17.0	6.7	5.2	7.6
2020	26.8	6.6	2.2	7.9
2021	13.2	2.5	0.6	3.4
합계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시설에서 생활한 시기를 경과 연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년 이상 장기 생활자 비율은 전체 51.5%이며, 특히 재활시설은 53.9%, 요양시설은 64.5%에 달한다.

〈표 4-5-40〉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생활시설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년 미만	29.5	6.2	2.0	8.0
1년 이상 2년 미만	19.0	6.1	3.2	6.9
2년 이상 5년 미만	21.9	16.9	13.5	16.3
5년 이상 10년 미만	20.1	16.9	16.7	17.3
10년 이상 20년 미만	6.1	24.3	29.9	23.8
20년 이상	3.4	29.6	34.6	27.7
합계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주: 기준은 면접조사 시점(2021년 6월)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학적 특성별로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점을 비교하면, 40세 미만 노숙인 집단에서 2019년 이후 생활시설에서 시작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노숙인이 2019년 이후 생활시설에서 시작한 비율이 높았으며, 장애가 없는 노숙인의 최근 생활 시설 입소 비율이 높았다. 즉, 상대적으로 젊고 장애가 없는 남성 노숙인의 최근 생활 시설 입소 시작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시설 생활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활시설에서 높았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경과 연도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한 비율이 12.3%이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은 2.5%에 지나지 않으며, 66.2%가 10년 이상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10년 이상 생활한 비율은 75.2%에 달한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75.2%가 10년 이상 생활하고 있다.

〈표 4-5-41〉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연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990년 이전(~1989)	0.0	0.0	7.5	12.3	13.2	4.2	17.1	15.8	4.7	8.8
2000년 이전 (1990~1999)	2.3	10.5	13.7	16.7	19.4	11.6	20.1	25.0	8.5	14.7
2010년 이전	5.3	24.0	23.9	22.1	25.5	20.8	25.2	29.7	18.0	22.4
2010	1.6	2.8	3.3	4.4	7.2	3.2	5.6	3.2	4.7	4.1
2011	7.7	2.1	3.3	3.1	2.9	3.4	3.1	3.7	3.0	3.3
2012	1.6	1.5	2.9	3.1	2.9	2.7	2.8	2.7	2.8	2.7
2013	0.0	3.7	3.4	2.6	4.0	3.3	2.4	2.0	3.5	3.0
2014	2.6	2.3	3.8	4.4	3.3	4.1	3.1	1.9	4.9	3.8
2015	4.1	3.1	3.0	3.5	3.3	3.9	2.3	1.6	4.4	3.3
2016	9.5	3.4	5.7	5.4	3.6	5.8	4.3	3.6	6.3	5.3
2017	5.2	3.2	5.9	4.4	1.2	5.2	2.6	2.8	5.1	4.3
2018	6.5	6.8	4.5	5.9	5.3	6.8	3.3	2.1	7.6	5.5
2019	14.4	13.8	8.1	5.4	5.1	10.1	3.3	2.3	10.8	7.6
2020	17.7	17.8	8.7	4.7	2.5	10.4	3.4	2.6	11.0	7.9
2021	21.3	4.9	2.4	2.0	0.7	4.5	1.3	0.9	4.9	3.4
합계	100.0 (62)	100.0 (139)	100.0 (323)	100.0 (466)	100.0 (148)	100.0 (774)	100.0 (364)	100.0 (413)	100.0 (725)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표 4-5-42〉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1년 미만	29.3	15.9	8.0	4.6	2.5	10.9	3.0	2.2	11.5	8.0
1년 이상 2년 미만	16.1	14.9	6.7	4.8	2.5	9.2	2.9	2.2	9.7	6.9
2년 이상 5년 미만	24.5	17.5	17.6	15.8	10.8	19.2	11.3	7.6	21.6	16.3
5년 이상 10년 미만	17.8	13.0	17.7	18.0	18.1	19.3	13.8	12.8	20.0	17.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0	24.6	24.0	23.6	29.2	22.6	25.9	28.8	20.8	23.8
20년 이상	2.3	14.1	26.2	33.3	37.0	18.9	43.2	46.4	16.5	27.7
계	100.0 (62)	100.0 (139)	100.0 (323)	100.0 (466)	100.0 (148)	100.0 (774)	100.0 (364)	100.0 (413)	100.0 (725)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시설 입소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70.9%). 거처유형별로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재활(73.2%), 요양(72.0%), 자활(60.9%)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설 입소 이유는 ‘자활이나 재활 등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때문이었다(16.4%).

〈표 4-5-43〉 가장 중요한 생활시설 입소 이유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60.9	73.2	72.0	70.9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5.2	5.4	5.1	5.2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8.0	6.1	3.6	6.9
자활이나 재활(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	15.9	14.9	18.4	16.4
기타	0.0	0.4	1.0	0.6
합계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로 시설에 입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두 번째 이유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났는데, 40세 미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가 2번째 순위(16.3%)를 차지하였다.

〈표 4-5-44〉 가장 중요한 생활시설 입소 이유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62.7	67.3	71.0	72.2	73.5	67.4	77.1	73.0	69.6	70.9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8.2	5.6	5.9	4.1	5.7	4.9	5.9	5.1	5.3	5.2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6.3	9.4	6.3	5.6	6.0	8.7	3.7	5.2	7.9	6.9
자활이나 재활(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	12.8	17.7	16.4	17.6	13.1	19.0	11.8	15.1	17.2	16.4
기타	0.0	0.0	0.5	0.5	1.7	0.0	1.6	1.5	0.0	0.6
계	100.0 (62)	100.0 (139)	100.0 (323)	100.0 (466)	100.0 (148)	100.0 (774)	100.0 (364)	100.0 (413)	100.0 (725)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거처유형별로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잠자리 제공(50.8%)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안정감(18.8%), 식사 제공(15.4%)이 시설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2번째 순위를 차지한 정서적 안정감의 경우, 요양시설 노숙인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2.2%). 마찬가지로 식사 제공도 요양시설 노숙인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7.6%). 요양시설 노숙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서 잠자리 외에도 정서적인 도움 및 기초적인 식사 해결에 대한 욕구가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45〉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잠자리 제공	55.5	53.7	45.7	50.8
식사 제공	15.9	13.3	17.6	15.4
자활 프로그램 참여	8.7	4.5	2.0	4.1
정보제공 서비스 (일자리, 주거 등)	4.5	2.6	0.8	2.2
정서적 안정감 (동료들과 함께 생활)	9.8	18.8	22.2	18.8
의료 지원	5.6	6.8	11.1	8.3
기타	0.0	0.4	0.5	0.4
합계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시설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인 ‘잠자리 제공’을 제외하면 2번째 순위를 차지한 ‘정서적 안정감’의 경우 60대(20.3%)와 70세 이상(19.6%)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식사제공은 남성(16.1%)이 여성(14.2%)에 비하여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정서적 안정감은 남성(17.0%)보다 여성(22.0%)이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잠자리 제공은 장애가 없는 집단(53.4%)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그 외의 정서적 안정감(21.9%)이나 식사제공(16.7%)은 장애가 있는 노숙인 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으며 여성일수록 그리고 장애가 있는 노숙인일수록 잠자리 외에 정서적 안정감도 시설에서 주는 중요한 도움임을 지적하였다.

〈표 4-5-46〉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잠자리 제공	45.0	53.9	52.9	47.1	57.4	49.7	52.8	46.4	53.4	50.8
식사 제공	12.8	17.4	14.4	15.9	15.3	16.1	14.2	16.7	14.6	15.4
자활 프로그램 참여	18.0	5.2	4.2	3.2	0.0	5.7	1.4	3.9	4.3	4.1
정보제공 서비스 (일자리, 주거 등)	7.0	3.8	2.6	1.6	0.0	2.7	1.3	1.6	2.6	2.2
정서적 안정감 (동료들과 함께 생활)	17.2	13.5	18.8	20.3	19.6	17.0	22.0	21.9	16.9	18.8
의료 지원	0.0	4.9	7.1	11.8	7.0	8.4	8.3	9.1	7.8	8.3
기타	0.0	1.4	0.0	0.2	0.7	0.6	0.0	0.5	0.3	0.4
계	100.0 (62)	100.0 (139)	100.0 (323)	100.0 (466)	100.0 (148)	100.0 (774)	100.0 (364)	100.0 (413)	100.0 (725)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시설이 주는 불편한 요소를 분석한 결과, 기타 이유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48.0%). 그 다음으로 규칙(13.2%), 개인공간(9.5%), 사생활보호(7.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니, ‘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96.6%). 결국 시설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어떠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불편한 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탐색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외의 요소들은 개인 생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설 환경 속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거리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들(단체생활과 규칙, 실내 공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거주유형별로 비교하면 자활시설은 타 시설 유형보다 개인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15.9%). 이렇듯 개인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편함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 비율이 자활시설에서 높은 점과도 연관될 수 있다(9.6%).

〈표 4-5-47〉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규칙	9.8	14.0	13.7	13.2
사생활 보호	7.1	8.6	7.1	7.8
소음	5.3	5.8	6.8	6.1
개인공간(침실면적 등)	15.9	7.1	9.9	9.5
방당 이용자수	4.7	1.5	7.4	4.3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	2.7	1.8	1.5	1.8
화재 등 재해위험	0.5	0.0	0.0	0.1
냉난방	2.6	2.1	2.7	2.4
채광·통풍·습기	0.0	0.0	0.8	0.3
건물 내 이동	0.6	1.1	1.9	1.3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9.6	4.4	4.0	5.0
기타	41.1	53.6	44.1	48.0
합계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주: 기타에는 '없음'도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로 시설에서 불편한 요소를 분석한 결과, 40세 미만에서 규칙에 대한 불편(21.4%)을 호소한 비율이 타 연령 집단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사생활보호(10.2%)와 개인공간(13.5%)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집단도 40세 미만 노숙인에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규칙(14.1%)과 사생활보호(8.1%)에 대한 불편함은 남성 노숙인 집단에서, 개인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여성 노숙인(11.4%) 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장애유무별로 살펴보면, 규칙(15.0%)이나 사생활보호(9.8%)는 장애가 있는 노숙인에게서, 그리고 개인공간(10.3%)은 장애가 없는 노숙인에게서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젊은 노숙인일수록 규칙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앞선 거리 노숙인 분석에서 40세 미만에서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시설입소를 기피한다는 결과와도 연관되는 대목이다.

〈표 4-5-48〉 시설에서 불편한 부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규칙	21.4	18.1	14.6	11.2	8.8	14.1	11.7	15.0	12.2	13.2
사생활 보호	10.2	6.4	8.6	6.7	9.9	8.1	7.3	9.8	6.6	7.8
소음	5.7	8.0	5.8	6.6	3.8	5.2	7.7	8.0	5.0	6.1
개인공간 (침실면적 등)	13.5	13.3	9.7	7.6	9.4	8.4	11.4	8.1	10.3	9.5
방당 이용자수	4.3	3.3	4.5	3.2	8.4	3.1	6.4	7.3	2.5	4.3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	0.0	2.0	0.9	1.9	4.3	1.2	3.0	1.9	1.8	1.8
화재 등 재해위험	0.0	0.7	0.0	0.0	0.0	0.1	0.0	0.0	0.1	0.1
냉난방	3.1	2.4	2.6	2.3	2.1	3.3	1.0	1.2	3.2	2.4
채광·통풍·습기	0.0	0.2	0.6	0.2	0.2	0.2	0.5	0.0	0.5	0.3
건물 내 이동	0.0	0.7	0.9	1.7	2.3	1.4	1.3	0.9	1.6	1.3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9.8	6.2	4.7	4.2	5.3	6.3	2.8	4.1	5.6	5.0
기타	31.9	38.8	47.1	54.4	45.5	48.6	46.9	43.7	50.5	48.0
계	100.0 (62)	100.0 (139)	100.0 (323)	100.0 (466)	100.0 (148)	100.0 (774)	100.0 (364)	100.0 (413)	100.0 (725)	100.0 (1138)

주: 기타에는 '없음'도 포함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웁기고 싶은 거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웁기고 싶지 않다고 웁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76.9%). 특히 요양시설(87.6%)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활(76.1%), 자활(51.1%) 시설 순서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자립'이었다(17.8%)으며, 자활시설 노숙인(47.2%)의 웁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5-49〉 거처를 웁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웁기고 싶지 않음	51.1	76.1	87.6	76.9
거리	0.0	0.0	0.1	0.0
다른 노숙인시설	0.6	0.4	0.7	0.5
사회복지시설 (장애, 노인 등)	0.0	1.4	0.4	0.8
자립(정부지원주택 포함)	47.2	17.0	7.7	17.8
귀가	1.2	4.9	3.7	3.9
기타	0.0	0.2	0.0	0.1
합계	100.0 (171)	100.0 (517)	100.0 (450)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로 옮기고 싶은 거처를 살펴보면, 40세 미만에서 정부지원주택을 포함한 자립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로 선호하였다(41.5%). 또한 남성 노숙인(24.2%)이 여성 노숙인(6.5%)보다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장애가 없는 노숙인(23.7%)이 장애가 있는 노숙인(8.1%)보다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5-50〉 거처를 옮기고 싶다면 가고 싶은 곳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옮기고 싶지 않음	58.5	60.5	75.6	81.1	89.9	70.2	88.8	84.1	72.6	76.9
거리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다른 노숙인시설	0.0	0.7	0.3	0.7	0.7	0.7	0.3	1.0	0.3	0.5
사회복지시설 (장애, 노인 등)	0.0	0.0	1.3	0.7	0.9	1.1	0.3	1.8	0.2	0.8
자립 (정부지원주택 포함)	41.5	33.4	19.0	12.6	7.1	24.2	6.5	8.1	23.7	17.8
귀가	0.0	5.4	3.9	4.7	1.3	3.7	4.2	5.1	3.1	3.9
기타	0.0	0.0	0.0	0.2	0.0	0.1	0.0	0.0	0.1	0.1
계	100.0 (62)	100.0 (139)	100.0 (323)	100.0 (466)	100.0 (148)	100.0 (774)	100.0 (364)	100.0 (413)	100.0 (725)	100.0 (1,1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6절 코로나19 관련 사항

이 절에서는 코로나19가 노숙인의 삶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노숙인의 일상생활, 마스크 착용, 진단검사,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등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숙인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5점 척도(0=유행이전, 5=당시보다 매우 어려움)로 측정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 삶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일자리(2.0±1.8)이었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1.6±1.6)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유형별로 비교해도 일자리와 의료는 노숙인과 쪽방주민 모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와 관련된 어려움이 생활시설이용자(1.7±1.9)보다 거리 노숙인(2.5±1.7)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도 거리노숙인(1.9±1.5)이 생활시설 노숙인(1.3±1.6)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워진 정도 (거처유형별)

(단위: 점, 명)

구분 (정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평균	2.3	2.9	2.5	2.8	2.2	0.7	1.7	1.8	2.3	2.0
	표준 편차	1.7	1.7	1.7	1.8	2.0	1.2	1.9	1.9	1.6	1.8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평균	2.1	1.4	1.9	1.7	1.5	0.9	1.3	1.4	1.8	1.6
	표준 편차	1.5	1.6	1.5	1.7	1.7	1.3	1.6	1.6	1.6	1.6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	평균	1.8	1.1	1.7	1.3	1.1	0.7	1.0	1.1	1.7	1.3
	표준 편차	1.4	1.5	1.5	1.6	1.6	1.2	1.5	1.5	1.4	1.5
규칙적인 식사하기	평균	2.1	0.9	1.9	1.1	1.0	0.5	0.8	1.0	1.4	1.2
	표준 편차	1.4	1.6	1.5	1.6	1.6	0.9	1.4	1.5	1.4	1.5
손씻기샤워 등 위생지키기	평균	2.0	0.9	1.8	1.1	1.0	0.5	0.8	1.0	1.4	1.2
	표준 편차	1.4	1.4	1.5	1.5	1.6	1.0	1.4	1.5	1.4	1.5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에서 잠자기	평균	2.0	1.0	1.8	1.1	1.0	0.5	0.8	1.0	1.3	1.1
	표준 편차	1.3	1.4	1.4	1.5	1.5	1.0	1.4	1.4	1.4	1.4
응답자 수		253	59	312	171	517	450	1,138	1,450	250	1,700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사회별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였다. 남성(2.1점±1.8)이 여성(1.3점±1.7)에 비하여 젊은 층일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워진 정도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점, 명)

구분 (정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평균	2.4	2.3	2.1	2.0	1.5	2.1	1.3	1.3	2.3	2.0
	표준 편차	1.9	1.9	1.8	1.8	1.7	1.8	1.7	1.7	1.8	1.8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평균	1.8	1.4	1.6	1.6	1.4	1.5	1.3	1.2	1.7	1.6
	표준 편차	1.8	1.6	1.6	1.6	1.5	1.6	1.5	1.5	1.6	1.6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	평균	1.7	1.2	1.3	1.4	1.2	1.3	1.0	0.9	1.5	1.3
	표준 편차	1.8	1.5	1.5	1.5	1.4	1.5	1.4	1.4	1.5	1.5
규칙적인 식사하기	평균	1.4	1.1	1.2	1.3	1.1	1.2	0.8	0.8	1.3	1.2
	표준 편차	1.7	1.4	1.5	1.5	1.3	1.5	1.3	1.3	1.5	1.5
손씻기샤워 등 위생지키기	평균	1.3	1.0	1.1	1.3	1.0	1.1	0.9	0.8	1.3	1.2
	표준 편차	1.6	1.4	1.4	1.6	1.3	1.5	1.4	1.3	1.5	1.5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에서 잠자기	평균	1.3	1.1	1.1	1.2	1.0	1.1	0.8	0.8	1.2	1.1
	표준 편차	1.7	1.4	1.4	1.5	1.2	1.4	1.3	1.3	1.4	1.4
응답자 수		90	206	532	656	216	1,261	439	476	1,224	1,700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유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전체적으로 각종의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자리 문제는 수급 유형과 무관하게 미수급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들은 일자리까지 어려움을 겪어서 코로나19 시기동안 이증으로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주거급여수급 노숙인의 경우 의료, 복지시설, 식사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미수급자들에 비하여 어려움을 더 크게 겪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표 4-6-3〉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워진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단위: 점, 명)

구분 (정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노숙인 전체
		수급	미수급	수급	미수급	수급	미수급	수급	미수급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평균	1.6	2.8	1.7	2.7	2.2	2.0	1.7	2.0	2.0
	표준 편차	1.7	1.7	1.8	1.7	1.7	1.8	0.5	1.8	1.8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평균	1.4	1.9	1.3	2.0	1.7	1.5	2.0	1.6	1.6
	표준 편차	1.5	1.6	1.6	1.5	1.6	1.6	0.0	1.6	1.6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	평균	1.1	1.7	1.1	1.8	1.5	1.3	2.0	1.3	1.3
	표준 편차	1.4	1.6	1.5	1.5	1.5	1.5	0.8	1.5	1.5
규칙적인 식사하기	평균	1.0	1.6	1.0	1.7	1.3	1.2	2.3	1.2	1.2
	표준 편차	1.4	1.5	1.4	1.4	1.4	1.5	1.0	1.5	1.5
손씻기샤워 등 위생지키기	평균	0.9	1.6	0.9	1.6	1.2	1.2	2.0	1.0	1.2
	표준 편차	1.3	1.6	1.4	1.5	1.4	1.5	0.8	1.5	1.5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에서 잠자기	평균	0.9	1.5	0.9	1.6	1.1	1.1	2.0	1.1	1.1
	표준 편차	1.3	1.5	1.4	1.4	1.4	1.4	0.8	1.4	1.4
응답자 수		1,095	605	1171	529	251	1449	3	1,697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하루 마스크 착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노숙인 전체적으로 하루 1/3이상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유형별로 비교하면, 거리 노숙인(11.6시간±5.9)이 생활시설 노숙인(7.8시간±4.9)보다 마스크 착용 시간이 평균 약 3시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이면서 장애가 없는 노숙인일수록 하루 마스크 착용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인다.

〈표 4-6-4〉 하루 마스크 착용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평균	10.9	14.1	11.6	9.9	8.0	6.8	7.8	8.5	8.3	8.4
표준편차	6.1	3.9	5.9	5.0	4.7	4.9	4.9	5.3	4.0	4.9
응답자 수	253	59	312	171	517	450	1138	1450	250	1,70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평균	9.1	8.7	8.7	8.5	7.4	8.8	7.4	7.1	8.9	8.4
표준편차	5.2	4.9	4.8	4.9	4.9	4.8	4.8	4.6	4.9	4.9
응답자 수	90	206	532	656	216	1,261	439	476	1,224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대부분의 노숙인(81.4%)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유형별로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65.5%)이 생활시설 노숙인(84.1%)보다 코로나19 검사율이 18.6%p 낮았다. 특히 거리 노숙인 중 이용시설 노숙인(95.2%)보다 거리 생활 노숙인(56.6%)의 코로나19 검사율이 38.6%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선 분석에서 거리생활 노숙인의 경우 약 94%가 거리상담원을 1달에 1번 이상씩 만나는 것을 고려할 때, 거리상담 시 코로나19검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6-5〉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있다	56.6	95.2	65.5	95.3	79.6	84.9	84.1	80.5	82.7	81.4
없다	43.4	4.8	34.5	4.7	20.4	15.1	15.9	19.5	17.3	18.6
합계	100.0 (253)	100.0 (59)	100.0 (450)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있다	83.6	80.3	78.6	82.7	84.0	81.3	81.6	80.6	81.6	81.4
없다	16.4	19.7	21.4	17.3	16.0	18.7	18.4	19.4	18.4	18.6
합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별 상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노숙인 전체 코로나19 진단검사율(81.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64.7%)이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26.5%), 경남(41.1%), 부산(47.1%), 제주(53.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감염예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4-6-6〉 광역자치단체별 코로나19 진단검사 유무

(단위: %, 명)

구분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계 (명)
서울	93.6	6.4	100.0 (479)
부산	47.1	52.9	100.0 (101)
대구	95.7	4.3	100.0 (190)
인천	80.0	20.0	100.0 (114)
광주	77.5	22.5	100.0 (17)
대전	73.5	26.5	100.0 (82)
울산	72.3	27.7	100.0 (8)
세종	92.9	7.1	100.0 (14)
경기	77.1	22.9	100.0 (231)
강원	60.6	39.4	100.0 (35)
충북	99.0	1.0	100.0 (97)
충남	42.5	57.5	100.0 (11)
전북	100.0	0.0	100.0 (34)
전남	99.0	1.0	100.0 (98)
경북	26.5	73.5	100.0 (47)
경남	41.1	58.9	100.0 (120)
제주	53.7	46.3	100.0 (22)
계	81.4	18.6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노숙인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84.5%,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73.1%가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지원금은 쪽방주민의 수급률(88.8%)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자체 지원금 수급률(74.4%)은 노숙인(거리+생활시설)이 더 높았다.

거처유형별로는 수급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2명 중 1명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3.6%).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전체 평균(82.0%)에 비하여 39.0%p가 낮았다. 특히 거리생활 노숙인(34.9%)의 경우, 노숙인 전체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조한 수급률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거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28.8%)의 3명 중 1명만이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하였으며,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비율보다 14.8%p가 낮았다. 거리노숙인 중에서도 거리생활 노숙인의 수급률은 22.5%에 머물러 4명 중 1명만이 겨우 지자체 재난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노숙

인 전체 평균(73.1%)에 비하여 50.6%가 낮은 비율이었다.

〈표 4-6-7〉 긴급재난지원금 유무 (중앙정부, 지자체) (거처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거리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중앙 정부	받았다	34.9	73.0	43.6	73.8	94.6	93.2	90.9	82.0	88.8	84.5
	안 받았다	65.1	27.0	56.4	26.2	5.4	6.8	9.1	18.0	11.2	15.5
	소계	100.0 (253)	100.0 (59)	100.0 (450)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지자 체	받았다	22.5	50.3	28.8	54.3	91.9	88.8	85.0	74.4	71.0	73.1
	안 받았다	77.5	49.7	71.2	45.7	8.1	11.2	15.0	25.6	29.0	26.9
	소계	100.0 (253)	100.0 (59)	100.0 (450)	100.0 (312)	100.0 (171)	100.0 (517)	100.0 (1,138)	100.0 (1,450)	100.0 (250)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인구특성별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노숙인의 수급률이 68.5%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낮았으며, 장애가 없는 노숙인의 수급률이 더 낮았다.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수급률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0세 미만 노숙인의 수급률이 58.0%이었으며, 이것은 타 연령대에 비하여 적게는 12.5%p에서 많게는 21.4%p까지 낮은 수급률이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수급률도 남성 노숙인과 장애가 없는 노숙인의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의 젊으면서 장애가 없는 남성 노숙인의 삶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려웠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6-8〉 긴급재난지원금 유무 (중앙정부, 지자체) (연령별, 성별, 장애유무별)

(단위: %, 명)

구분		연령					성별		장애		노숙인 등 전체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남성	여성	유	무	
중앙 정부	받았다	68.5	86.8	81.5	85.7	91.3	82.6	90.3	91.0	82.3	84.5
	안 받았다	31.5	13.2	18.5	14.3	8.7	17.4	9.7	9.0	17.7	15.5
	소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지자 체	받았다	58.0	70.5	70.7	75.4	79.4	70.0	82.4	89.4	67.5	73.1
	안 받았다	42.0	29.5	29.3	24.6	20.6	30.0	17.6	10.6	32.5	26.9
	소계	100.0 (90)	100.0 (206)	100.0 (532)	100.0 (656)	100.0 (216)	100.0 (1261)	100.0 (439)	100.0 (476)	100.0 (1224)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다음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상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률을 보면, 노숙인 전체 평균(84.5%)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지역(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이었다. 수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울산이 14.5%여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남(30.5%), 강원(73.0%) 순이었다. 지방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률 역시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였다. 노숙인 전체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수급률(73.1%)에 미치지 못한 지역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지역(서울, 인천, 울산, 충남, 전북)이었다.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서 0%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충남(30.5%), 전북(55.0%), 인천(56.5%), 서울(5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9〉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유무 (중앙정부, 지자체)

(단위: %, 명)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받았다	안 받았다	소계(명)	받았다	안 받았다	소계(명)
서울	80.1	19.9	100.0 (479)	58.1	41.9	100.0 (479)
부산	83.9	16.1	100.0 (101)	76.7	23.3	100.0 (101)
대구	85.4	14.6	100.0 (190)	85.5	14.5	100.0 (190)
인천	87.6	12.4	100.0 (114)	56.5	43.5	100.0 (114)
광주	95.5	4.5	100.0 (17)	77.7	22.3	100.0 (17)
대전	87.3	12.7	100.0 (82)	73.9	26.1	100.0 (82)
울산	14.5	85.5	100.0 (8)	0.0	100.0	100.0 (8)
세종	100.0	0.0	100.0 (14)	100.0	0.0	100.0 (14)
경기	81.5	18.5	100.0 (231)	85.4	14.6	100.0 (231)
강원	73.0	27.0	100.0 (35)	73.1	26.9	100.0 (35)
충북	94.7	5.3	100.0 (97)	93.4	6.6	100.0 (97)
충남	30.5	69.5	100.0 (11)	30.5	69.5	100.0 (11)
전북	94.5	5.5	100.0 (34)	55.0	45.0	100.0 (34)
전남	87.1	12.9	100.0 (98)	99.0	1.0	100.0 (98)
경북	100.0	0.0	100.0 (47)	100.0	0.0	100.0 (47)
경남	97.3	2.7	100.0 (120)	91.9	8.1	100.0 (120)
제주	92.1	7.9	100.0 (22)	92.1	7.9	100.0 (22)
계	84.5	15.5	100.0 (1,700)	73.1	26.9	100.0 (1,7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7절 2016년도 및 2021년도 실태조사 주요결과 비교

이 절에서는 2021년도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특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도 결과와 비교를 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특성을 지니며 2021년도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2016년도 조사항목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이번 절에서는 일시집계조사에서 분석된 거처유형별 규모 및 기본 특징, 면접조사에서 분석된 응답자 일반적 특징, 경제, 의료,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주요 변화된 특징을 개괄적으로 서술한다.

다만 노숙인 조사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 방법의 특성 상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하여 결과의 의미를 직접 도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분석 시의 범주가 달라서 두 연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설문문항은 동일하나 분석 범주가 상이한 경우, 설문 문항이 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럴 경우에는 비교가 가능한 범주로만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앞서의 본문에 이미 포함된 항목도 두 연도 조사결과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절에 포함하였다.

1. 노숙인 등 규모

앞서 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숙인 등의 규모는 모든 거처 유형에서 감소하였다. 2016년도 조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 3,128명(17.8%) 감소하였다. 절대 수 감소가 가장 큰 거처유형은 재활시설(947명 감소), 감소비율이 가장 높은 거처유형은 자활시설(30.8%p 감소)이었다.

〈표 4-7-1〉 노숙인 등의 규모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노숙인 등 전체									
		합계	노숙인 전체								쪽방 주민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거리	이용 시설	전체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2021년 전국	14,404 (100.0)	8,956 (62.2)	1,595 (11.1)	1,201 (8.3)	394 (2.7)	7,361 (51.1)	1,107 (7.7)	3,343 (23.2)	2,911 (20.2)	5,448 (37.8)	
2016년 전국	17,532 (100.0)	11,340 (64.7)	2,015 (11.5)	1,522 (8.7)	493 (2.8)	9,325 (53.2)	1,599 (9.1)	4,290 (24.5)	3,436 (19.6)	6,192 (35.3)	
증감	인원	- 3,128	- 2,384	- 420	- 321	- 99	- 1,964	- 492	- 947	- 525	- 744
	비율	- 17.8%	- 21.0%	- 20.8%	- 21.1%	- 20.1%	- 21.1%	- 30.8%	- 22.1%	- 15.3%	- 12.0%

주: 증감비율은 2016년 비율 대비 2021년 비율로 -17.8%는 2016년 해당 수에 비해 17.8%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7.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거리노숙인을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이용시설 제외)은 서울의 240명 감소를 비롯하여 부산 56명, 경기 40명 등 거리노숙인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용시설 역시 거리노숙인 감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숙박이 가능한 이용시설이 설치된 지자체는 2021년 기준으로 6 곳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요약하면, 거리노숙인 감소는 서울, 경기, 부산 등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역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4-7-2〉 광역자치단체별 거리노숙인의 규모 비교 (2016년도, 2021도)

(단위: 명)

구분	거리			이용시설			거리노숙인 전체		
	2016년	2021년	증감	2016년	2021년	증감	2016년	2021년	증감
전체	1,522	1,201	- 321	493	394	- 99	2,015	1,595	- 420
서울	852	612	- 240	415	320	- 95	1,267	932	- 335
부산	171	115	- 56	10	16	+ 6	181	131	- 50
대구	100	116	+ 16	6	15	+ 9	106	131	+ 25
인천	18	41	+ 23	0	0	0	18	41	+ 23
광주	12	4	- 8	0	0	0	12	4	- 8
대전	44	30	- 14	11	11	0	55	41	- 14
울산	6	18	+ 12	0	0	0	6	18	+ 12
세종	4	1	- 3	0	0	0	4	1	- 3
경기	228	188	- 40	50	28	- 22	278	216	- 62
강원	6	14	+ 8	1	0	- 1	7	14	+ 7
충북	3	1	- 2	0	0	0	3	1	- 2
충남	55	40	- 15	0	0	0	55	40	-15
전북	3	6	+ 3	0	0	0	3	6	+ 3
전남	2	0	- 2	0	0	0	2	0	- 2
경북	11	5	- 6	0	0	0	11	5	- 6
경남	4	6	+ 2	0	0	0	4	6	+ 2
제주	3	4	+ 1	0	4	+ 4	3	8	+ 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5.

생활시설 노숙인 규모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활시설 노숙인이 감소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자활시설 492명, 재활시설 947명, 요양시설 525명 감소하였다. 절대 수에서는 재활시설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인원 수 대비 감소비율로는 자활시설이 약 30% 감소하여 가장 컸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거쳐 유형에 상관없이 생활시설 노숙인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3〉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시설 노숙인의 규모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전체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전체	1,599	1,107	-492	4,290	3,343	-947	3,436	2,911	-525	9,325	7,361	-1,964
서울	840	523	-317	235	160	-75	1,249	985	-264	2,324	1,668	-656
부산	103	51	-52	0	0	0	107	87	-20	210	138	-72
대구	114	97	-17	637	462	-175	235	181	-54	986	740	-246
인천	33	17	-16	533	388	-145	48	55	+7	614	460	-154
광주	20	13	-7	130	93	-37	0	0	0	150	106	-44
대전	96	88	-8	162	130	-32	0	0	0	258	218	-40
울산	24	31	+7	0	0	0	0	0	0	24	31	+7
세종	0	0	0	106	91	-15	0	0	0	106	91	-15
경기	252	198	-54	466	368	-98	526	448	-78	1,244	1,014	-230
강원	45	17	-28	124	54	-70	90	123	+33	259	194	-65
충북	12	10	-2	179	162	-17	545	464	-81	736	636	-100
충남	22	21	-1	0	0	0	0	0	0	22	21	-1
전북	34	39	+5	125	120	-5	59	54	-5	218	213	-5
전남	0	0	0	596	514	-82	130	114	-16	726	628	-98
경북	4	2	-2	74	75	+1	268	230	-38	346	307	-39
경남	0	0	0	768	600	-168	179	170	-9	947	770	-177
제주	0	0	0	155	126	-29	0	0	0	155	126	-29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5.

한편, 지역별 쪽방주민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쪽방상담소가 5개소 존재하는 서울지역의 쪽방주민은 2016년 3,577명에서 2021년 2,755명으로 822명 감소(23.0%)하였다. 전체 쪽방주민이 2016년 6,192명에서 2021년 5,443명으로 감소(749명, 12.1%)한 것은 서울지역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약간 증가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표 4-7-4〉 쪽방상당소별 쪽방주민 현황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서울	영등포쪽방상당소	547	488	- 59
	서울역쪽방상당소	1,212	930	- 282
	돈의동쪽방상당소	576	534	- 42
	남대문지역상담센터	893	506	- 387
	창신동쪽방상당소 (구)동대문쪽방상당소	329	297	-32
	소계	3,577	2,755	-822
부산	부산진구쪽방상당소	446	476	+30
	부산동구쪽방상당소	445	440	-5
	소계	891	916	+25
대구	대구쪽방상당소	872	713	-159
인천	인천쪽방상당소	469	461	-8
대전	대전쪽방상당소	403	603	+200
전체		6,192	5,448	-74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p.184.

2. 거처유형별 노숙인 등 특성

아래에서는 일시집계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거처 유형별 성별 및 생애주기별 비율의 증감을 분석한다. 먼저 거리노숙인을 살펴본다. 거리노숙인의 특성상 일시집계조사에 따른 연령대 파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별만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3.4%p, 이용시설은 0.8%p, 거리노숙인 전체 2.8%p 높아졌다. 근소하지만 거리노숙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7-5〉 거리노숙인 성별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 %p)

구분	거리			이용시설			거리노숙인 전체			
	2016년도 (N=1,522)	2021년도 (N=1,201)	증감 (%p)	2016년 (N=493)	2021년 (N=394)	증감 (%p)	2016년 (N=2,015)	2021년 (N=1,595)	증감 (%p)	
성별	남성	88.0	87.6	- 0.4	95.5	94.7	- 0.8	89.9	89.3	- 0.6
	여성	7.0	10.4	+ 3.4	4.5	5.3	+ 0.8	6.4	9.2	+ 2.8
	미상	5.0	2.0	- 3.0	0.0	0.0	-	3.8	1.5	- 2.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5.

다음 생활시설을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모든 시설 유형에서 다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모든 시설 유형에서 높아졌는데, 특히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은 2016년에 비해 10.2%p, 8.4%p 높아져 두 시설 유형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 비율(20~39세)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며 자활시설은 0.3%p 증가하였고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각각 2.8%p, 2.4%p 감소하였다.

〈표 4-7-6〉 생활시설 노숙인 성별 및 생애주기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 %p)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전체		
		2016년 (N=139)	2021년 (N=110)	증감 (%p)	2016년 (N=42)	2021년 (N=34)	증감 (%p)	2016년 (N=3,436)	2021년 (N=2,911)	증감 (%p)	2016년 (N=9,325)	2021년 (N=7,361)	증감 (%p)
성별	남성	91.8	90.1	-1.7	71.7	70.6	-1.1	57.7	56.9	-0.8	70.0	68.1	-1.9
	여성	8.2	9.9	+1.7	28.3	29.4	+1.1	42.3	43.1	+0.8	30.0	31.9	+1.9
생애주기	노인 (65세 이상)	12.9	14.7	+ 1.8	22.6	32.8	+10.2	31.1	39.5	+ 8.4	24.1	32.7	+8.6
	청년 (20~ 39세)	15.4	15.7	+ 0.3	6.1	3.3	-2.8	6.1	3.7	-2.4	7.7	5.3	-2.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72-173.

다음 생활시설 입소기간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생활자의 비율은 높아진 반면, 나머지 입소기간 비율은 대체로 낮아져, 최근의 입소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생활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활시설의 경우에는 최근의 입소자 비율이 높아졌다.

〈표 4-7-7〉 생활시설 노숙인 입소기간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 %p)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전체		
	2016년 (N=1,599)	2021년 (N=1,107)	증감 (%p)	2016년 (N=4,290)	2021년 (N=3,343)	증감 (%p)	2016년 (N=3,436)	2021년 (N=2,911)	증감 (%p)	2016년 (N=9,325)	2021년 (N=7,361)	증감 (%p)
-6개월	33.1	28.5	-4.6	9.9	5.9	-4.0	3.6	1.6	-2.0	11.5	7.6	-3.9
6개월-1년	20.3	22.3	+2.0	4.2	3.6	-0.6	3.4	2.3	-1.1	6.6	5.9	-0.7
1-3년	35.3	37.2	+1.9	10.8	10.1	-0.7	11.3	7.6	-3.7	15.2	13.2	-2.0
3-5년	5.6	7.9	+2.3	9.5	7.0	-2.5	11.2	5.5	-5.7	9.4	6.5	-2.9
5-10년	3.5	3.3	-0.2	13.8	14.8	+1.0	20.3	15.1	-5.2	14.4	13.2	-1.2
10-15년	1.4	0.6	-0.8	10.9	11.5	+0.6	14.8	19.3	+4.5	10.7	13.0	+2.3
15-20년	0.7	0.2	-0.5	11.2	10.0	-1.2	14.6	12.5	-2.1	10.7	9.5	-1.2
20년~	0.1	0.0	-0.1	29.7	37.2	+7.5	20.8	36.0	+15.2	21.4	31.1	+9.7
전체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4.

한편 생활시설 노숙인의 주민등록 비율은 2021년도 98.8%로 2016년도의 97.1%에 비해 약간 향상되었다. ‘연고자 있음’ 비율은 생활시설 전체로는 3.8%p 낮아졌는데, 자활시설은 15.0%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표 4-7-8〉 생활시설 연고자 및 주민등록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명, %, %p)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생활시설 전체		
	2016년 (N=1,599)	2021년 (N=1,107)	증감 (%p)	2016년 (N=4,290)	2021년 (N=3,343)	증감 (%p)	2016년 (N=3,436)	2021년 (N=2,911)	증감 (%p)	2016년 (N=9,325)	2021년 (N=7,361)	증감 (%p)
주민등록 유	98.8	98.1	- 0.7	97.3	99.3	+ 2.0	95.9	98.5	+ 2.6	97.1	98.8	+ 1.7
연고자 유	61.8	46.8	- 15.0	67.8	66.0	- 1.8	66.4	64.6	- 1.8	66.3	62.5	- 3.8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76-177.

쪽방주민의 성별 및 생애주기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비율이 3.6%p 증가하여 성별 비율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노인 비율은 9.4%p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청년 비율은 1.5%p 감소하였다. 쪽방주민의 구성의 변화로 남성 및 노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7-9〉 쪽방주민 성별 및 생애주기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구분		2016년 (N=6,192)	2021년 (N=5,448)	(단위: 명, %, %p) 증감 (%p)
성별	남성	80.8	84.4	+ 3.6
	여성	19.2	15.6	- 3.6
생애주기	노인 (65세 이상)	31.0	40.4	+ 9.4
	청년 (20-39세)	4.0	2.5	- 1.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85.

쪽방주민의 주민등록 보유자 비율은 6.0%p 낮아졌으나, 기초수급 비율은 6.1%p,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1종 6.3%p, 의료급여 2종 3.7%p 높아져, 주민등록 보유 비율과 기초수급 및 의료보장 비율이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1인가구 비율은 1.1%p 높아졌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반대로 0.02명 낮아졌다.

〈표 4-7-10〉 쪽방주민 주민등록, 가구원 수 및 기초보장 현황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구분	쪽방주민 (단위: 명, %, %p)			
	2016년도 (N=6,192)	2021년도 (N=5,448)	증감 (%p)	
주민등록 유	90.3	84.3	- 6.0	
기초수급	수급자 ^{주)}	52.6	58.7	+ 6.1
	비급여	42.8	39.5	- 3.3
	미파악	4.2	1.6	- 2.6
의료보장	의료급여 1종	46.2	53.9	+ 6.3
	의료급여 2종	7.5	11.2	+ 3.7
	건강보험	29.0	27.6	- 1.4
	비보험	13.3	1.2	- 12.1
	미파악	4.0	5.9	+ 1.9
가구원 수	1인가구 비율	97.0	98.1	+ 1.1
	평균 가구원 수	1.04	1.02	- 0.02

주: 2016년에는 조건부 수급 포함 수치, 2021년은 생계급여 수치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일시집계조사(2021. 5. 14. 기준)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87-189.

3. 복지서비스 등 욕구실태

아래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및 2021년도 조사의 복지서비스 등 관련 주요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절 구성에 따라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노숙유형별 현재 근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자신을 근로능력 없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거리노숙 및 이용시설 모두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생활시설의 경우에도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의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 다만 쪽방주민은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의 비율은 높아진 반면,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의 비율은 낮아졌다.

〈표 4-7-11〉 거리노숙인 현재 근로활동상태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거리			이용시설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미취업자 (근로능력있음)	32.8	34.1	+ 1.3	21.4	17.3	- 4.1
미취업자 (근로능력없음)	38.7	54.1	+ 15.4	3.0	16.2	+ 13.2
미취업자 합계	71.5	88.2	+16.7	24.4	33.5	+ 9.1

주: 2016년도 분석 자료에 거리노숙인(거리+이용시설) 총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어 비교를 하지 못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98.

〈표 4-7-12〉 생활시설 노숙인 현재 근로활동상태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미취업자 (근로능력있음)	18.5	28.6	+10.1	18.5	25.9	+7.4	16.6	14.4	-2.2
미취업자 (근로능력없음)	9.1	12.6	+ 3.5	37.4	52.9	+15.5	57.9	70.8	+12.9
미취업자 합계	27.6	41.2	+13.6	55.9	78.8	+22.9	74.5	85.2	+10.7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98.

〈표 4-7-13〉 쪽방주민 및 노숙인 등 전체 현재 근로활동상태 비교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미취업자 (근로능력있음)	6.5	13.1	+6.6	15.2	19.5	+4.3
미취업자 (근로능력없음)	67.8	58.5	-9.3	48.8	54.6	+5.8
미취업자 합계	74.3	71.6	- 2.7	64.0	74.1	+ 10.1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98.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도 5년 사이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은 거리 및 이용시설 각각 16.7%p, 14.6%p 감소하였다. 생활시설은 모든 시설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활시설의 감소폭이 28.0%p로 가장 컸으며 재활시설 18.7%p, 요양시설 6.1%p 순이었다. 특히 요양시설은 일을 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였다. 한편, 쪽방주민도 5.9% 응답하여 2016년에 비해 13.8%p 감소하였다. 이상 노숙인 등 전체는 7.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15.3% 감소하였다.

〈표 4-7-14〉 지난 4주내 일(직장)을 구한 경험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거리			이용시설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그렇다	28.3	11.6	-16.7	50.9	36.3	-14.6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그렇다	54.1	26.1	-28.0	23.0	4.3	-18.7	7.8	1.7	-6.1
구분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그렇다	19.7	5.9	-13.8	22.9	7.6	- 15.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6.

한편,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거리노숙인은 거리노숙 54.6%로 2016년의 90.6%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용시설은 큰 변화 없는 79.9%를 나타내었다. 생활시설은 약 10%p 전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15〉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여부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거리			이용시설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그렇다	90.6	54.6	-36.0	79.2	79.9	+0.7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p)
그렇다	78.5	69.1	-9.4	80.8	66.1	-14.7	82.1	70.7	-11.4
구분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2016년도	2021년도	증감(%p)	2016년도	2021년도	증감(%p)			
그렇다	70.6	66.4	-4.2	77.1	66.8	- 10.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4.

지난 3개월간 가장 큰 비중의 지출(1순위)을 2016년도와 2021년도 상위 3위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상위 1순위는 노숙인 등 전체는 2016년에는 주거비, 2021년에는 식료품비가 차지하였다. 단 쪽방주민이 주거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쪽방주민을 제외하여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은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술·담배가 1순위였던 반면, 2021년은 자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거처에서 식료품비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거리노숙(이용시설 제외)의 경우 2021년에 식료품비 1순위 비율이 60.3%로 2016년의 식료품비 36.5%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공백으로 추정된다. 한편, 식료품비와 술·담배를 제외하고 2021년에 가장 많이 등장한 항목은 교통·통신비였다.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필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보다 상세한 분석과 정책적 지원 도출이 필요하다.

〈표 4-7-16〉 거처유형별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상위 3개 항목 (1순위, 2016년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	술·담배 (38.5)	술·담배 (30.3)	술·담배 (37.4)	술·담배 (39.0)	식료품비 (39.1)	주거비 (74.7)	주거비 (28.8)
2	식료품비 (36.5)	주거비 (23.2)	교통·통신비 (12.8)	식료품비 (29.3)	술·담배 (30.7)	식료품비 (16.5)	식료품비 (25.3)
3	주거비 (9.9)	식료품비 (15.6)	식료품비 (12.0)	여가활동비 (7.9)	생활용품비 (10.0)	술·담배 (3.5)	술·담배 (24.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2.

〈표 4-7-17〉 거처유형별 지난 3개월 가장 큰 비중의 지출 상위 3개 항목 (1순위, 2021년도)

(단위: %)

구분	거리		생활시설			쪽방주민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이용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	식료품비 (60.3)	식료품비 (32.1)	술·담배 (20.3)	식료품비 (34.7)	식료품비 (48.6)	주거비 (70.9)	식료품비 (32.3)
2	술·담배 (20.7)	주거비 (18.0)	식료품비 (18.6)	술·담배 (29.7)	술·담배 (13.4)	식료품비 (18.1)	주거비 (29.4)
3	주거 (6.5)	교통·통신비 (10.1)	교통·통신비 (15.6)	생활용품비 (16.6)	생활용품비 (11.2)	생활용품비 (4.9)	술·담배 (14.1)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2.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다. 주관적 건강수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거처 유형에서 ‘좋다’ ‘매우좋다’의 비율이 높아졌다. 거리(거리노숙과 이용시설 포함)와 쪽방의 비율 증가 폭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4장 제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좋다’ ‘매우 좋다’의 응답 비율은 일반 국민의 55.6%에 비해 약 15%p 정도 낮은 수준이다.

〈표 4-7-18〉 거처유형별 주관적 건강상태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거리			생활시설			쪽방			전체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매우 나쁘다	4.7	2.5	-2.2	3.2	2.4	-0.8	15.8	4.1	-11.7	7.8	3.1	-4.7
나쁘다	24.6	21.6	-3.0	20.1	13.6	-6.5	50.8	36.9	-13.9	31.5	23.2	-8.3
보통이다	36.6	24.4	-12.2	36.1	41.3	+5.2	21.6	27.5	+5.9	31.1	34.1	+3.0
좋다	29.6	42.2	+12.6	35.1	36.2	+1.1	10.9	29.4	+18.5	25.9	34.4	+8.5
매우 좋다	4.5	9.3	+4.8	5.4	6.4	+1.0	0.9	2.2	+1.3	3.7	5.2	+1.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6.

또한 의료공백을 알 수 있는 몸이 아플 때 대처 방안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음’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거리노숙인(이용시설 포함)은 6.5%p 증가하였다.

〈표 4-7-19〉 몸이 아플 때 대처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음’ 비율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거리			생활시설			쪽방			전체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2016 년도	2021 년도	증감 (%p)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음	31.0	37.5	+6.5	3.9	3.1	-0.8	14.1	9.1	-5.0	10.6	9.4	-1.2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6.

다음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 상위 5개를 거처유형별 및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유병비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노숙인 등 전체는 12.1%에서 8.2%로 3.9%p 낮아졌다. 그 외 거처유형별로는 거리 1.9%p, 생활시설 2.9%p, 쪽방 6.1%p가 낮아졌다. 노숙인 등 전체에서 유병비율이 높은 질환은 대사성 질환이 가장 높은 점은 변화가 없다. 거처 유형별로 거리는 2016년도에 치과질환, 관절질환, 대사성질환 순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대사성질환, 치과질환, 관절질환으로 순서의 변동이 있었다. 생활시설은 2016년도에 정신질환, 대사성질환, 치과질환 순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관절질환으로 변동되었으며 치과질환은 4번째가 되었다. 쪽방주민은 2016년도에 대사성질환, 관절질환, 치과질환 순이었으나, 2021년도에 대사성질환, 관절질환, 척추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20〉 유병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질환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거리	생활시설	쪽방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생활시설	쪽방	노숙인 등 전체
1	치과질환 (23.2)	정신질환 (39.7)	대사성 질환 (42.9)	대사성 질환 (36.1)	대사성 질환 (20.4)	대사성 질환 (37.3)	대사성 질환 (43.4)	대사성 질환 (37.6)
2	관절질환 (17.4)	대사성 질환 (36.3)	관절질환 (30.4)	치과질환 (29.5)	치과질환 (14.1)	정신질환 (32.6)	관절질환 (20.1)	정신질환 (22.5)
3	대사성환 (14.8)	치과질환 (32.4)	치과질환 (27.1)	정신질환 (28.6)	관절질환 (13.5)	관절질환 (11.7)	척추질환 (15.5)	관절질환 (15.1)
4	피부병 (11.2)	관절질환 (17.6)	위장관 질환 (19.4)	관절질환 (22.1)	정신질환 (11.6)	치과질환 (11.2)	정신질환 (12.3)	치과질환 (11.8)
5	눈코목귀 질환 (9.5)	척추질환 (10.3)	척추질환 (19.1)	위장관 질환 (13.0)	척추질환 (7.7)	위장관 질환 (8.8)	치과질환 (12.0)	척추질환 (11.0)
평균 유병비율	(7.3)	(11.4)	(14.7)	(12.1)	(5.4)	(8.5)	(8.6)	(8.2)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8-239.

질병이 있다는 응답자 중 치료 경험을 물어봤을 때, 치료경험 있음의 비율이 낮은 질환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전체 노숙인 등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치료경험 비율은 85.1%에서 87.6%로 약 2.5%p 높아졌다. 다만 거리노숙만을 살펴보면 2016년도의 55.5%에서 2021년도에는 46.4%로 질환에 대한 치료경험 비율은 약 9.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치과질환이 가장 치료경험이 낮았으며, 기타감염병, 비노기계 순이었다. 2021년도에도 치과질환의 치료경험이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눈코목 질환, 관절질환 등의 순이었다.

거처 유형별로는 거리를 제외한 생활시설 및 쪽방에서 모두 치과질환의 치료경험 있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거리는 정신질환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의 질환이었고 2016년도에 비해 치료경험 비율도 낮아졌다. 생활시설은 거의 모든 질환이 변화하였으며, 기타감염병, 척추질환, 간장질환, 피부병에서, 척추질환, 호흡기질환, 눈코목귀 질환, 관절질환 순으로 바뀌었다. 쪽방은 비노기계, 눈코목질환의 치료 경험은 여전히 낮으며 2021년도 조사에서 관절질환 및 신경계 질환이 새롭게 치료 경험이 낮은 질환

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4-7-21〉 치료경험 비율이 낮은 상위 5개 질환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구분	2016년				2021년			
	거리	생활시설	쪽방	노숙인 등 전체	거리	생활시설	쪽방	노숙인 등 전체
1	뇌졸중 중풍 (17.1)	치과질환 (64.7)	치과질환 (51.4)	치과질환 (57.7)	치과질환 (31.9)	치과질환 (68.5)	치과질환 (63.0)	치과질환 (61.3)
2	심장질환 (27.2)	기타 감염병 (71.5)	기타 감염병 (57.0)	기타 감염병 (63.0)	정신질환 (32.1)	척추질환 (82.5)	비뇨기계 및 부인과 (80.3)	눈코목귀 질환 (78.4)
3	치과질환 (35.1)	척추질환 (85.1)	비뇨기계 (69.3)	비뇨기계 (83.8)	피부병 (38.3)	호흡기 질환 (84.4)	관절질환 (80.3)	관절질환 (80.2)
4	정신질환 (35.7)	간장질환 (86.5)	암 (74.5)	눈코목귀 질환 (84.2)	눈코목귀 질환 (39.8)	눈코목귀 질환 (84.7)	눈코목귀 질환 (81.4)	척추질환 (81.4)
5	비뇨기계 (45.4)	피부병 (86.5)	눈코목귀 질환 (81.3)	피부병 (85.2)	호흡기 질환 (45.9)	관절질환 (88.2)	신경계 질환 (82.8)	간장질환 (85.0)
평균 치료 경험 비율	(55.5)	(90.2)	(83.7)	(85.1)	(46.4)	(90.7)	(88.1)	(87.6)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8-239.

다음은 주거와 관련된 항목이다. 먼저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물어본 결과이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모든 노숙인에게 질문하였고, 2021년도 조사에서는 거리노숙을 경험한 노숙인에게 질문하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6년도 조사결과 분석에는 거리노숙인을 거리, 일시보호, 종합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2021년도 조사결과 분석에는 일시보호 및 종합지원을 통합하여 분석하여 거처유형별 비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을 감안하고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거리노숙인은 ‘실직’이나 ‘사업실패’가 1순위였고, 생활시설 노숙인은 자활시설은 ‘실직’, 재활 및 요양시설은 ‘질병 및 장애’가 1순위였다. 2021년도에는 모든 거처 유형에서 ‘실직’이 1순위로 응답되었다.

〈표 4-7-22〉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1순위 상위 3개 항목 (2016년도)

(단위: %)

구분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거리	일시 보호	종합 지원	자활	재활	요양	
1	실직 (26.0)	사업실패 (21.7)	사업실패 (28.0)	실직 (18.9)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40.3)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41.1)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2	사업실패 (14.8)	이혼 및 가족해체 (13.9)	실직 (26.6)	이혼 및 가족해체 (17.9)	이혼 및 가족해체 (13.2)	이혼 및 가족해체 (13.6)	이혼 및 가족해체 (15.3)
3	이혼 및 가족해체 (13.2)	실직 (12.6)	임대료 연체로 주거지 상실 (11.7)	사업실패 (14.9)	알코올 중독 (10.1)	알코올 중독 (7.8)	실직 (13.9)

주: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숙'의 계기를 질문하였음.
 자료: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4.

〈표 4-7-23〉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1순위 상위 3개 항목 (2021년도)

(단위: %)

구분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전체
	거리	이용시설	자활	재활	요양		
1	실직 (42.5)	실직 (42.2)	실직 (36.1)	실직 (33.6)	실직 (29.9)	실직 (54.4)	실직 (43.3)
2	사업 실패 (19.0)	사업 실패 (12.6)	사업 실패 (16.4)	질병 및 장애 (13.7)	이혼 및 가족해체 (14.9)	이혼 및 가족해체 (11.1)	사업 실패 (12.4)
3	이혼 및 가족해체 (8.8)	이혼 및 가족해체 (9.3)	주거지 상실 (10.7)	이혼 및 가족해체 (13.3)	가정폭력 (11.6)	사업 실패 (10.0)	이혼 및 가족해체 (11.2)

주: 거리노숙을 경험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거리노숙'의 계기를 질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시설 입소 이유를 물은 결과, 2016년과 2021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의 비율이 두 조사 모두에서 70% 전후를 나타내었다.

〈표 4-7-24〉 생활시설 노숙인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명)

구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소계		
	2016	2021	증감	2016	2021	증감	2016	2021	증감	2016	2021	증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56.9	60.9	+4.0	67.2	73.2	+6.0	76.7	72.0	-4.7	68.9	70.9	+2.0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3.5	5.2	+1.7	4.8	5.4	+0.6	4.9	5.1	+0.2	4.6	5.2	+0.6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1.9	18.0	-3.9	3.7	6.1	+2.4	1.9	3.6	+1.7	6.2	6.9	+0.7
자활이나 재활(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	17.7	15.9	-1.8	24.0	14.9	-9.1	15.9	18.4	+2.5	20.0	16.4	-3.6
기타	0.0	0.0	-	0.3	0.4	+0.1	0.6	1.0	+0.4	0.4	0.6	+0.2
합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8-239.

이어서 ‘웁기고 싶은 거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2016년도와 2021년도 두 조사 결과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웁기고 싶지 않다’ 응답은 전체 2016년 81.9%, 2021년 76.9%로 5.0%p 다소 감소하였으며, ‘자립(정부지원주택 포함)’이 2016년 81.9%에서 2021년 76.9%로 5.0%p 증가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웁기고 싶지 않다’ 비율 증감은 자활시설이 9.2%p, 재활이 8.9%p 감소한 반면, 요양시설은 0.6%p 감소한 것에 그쳐 다소간 시설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7-25〉 생활시설 노숙인의 옮기고 싶은 거주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자활			재활			요양			생활시설 노숙인 전체		
	2016	2021	증감	2016	2021	증감	2016	2021	증감	2016	2021	증감
옮기고 싶지 않다	60.3	51.1	-9.2	85.0	76.1	-8.9	88.2	87.6	-0.6	81.9	76.9	-5.0
거리	0.0	0.0	0.0	0.0	0.0	0.0	0.2	0.1	-0.1	0.1	0.0	-0.1
다른 노숙인시설	1.3	0.6	-0.7	0.9	0.4	-0.5	0.3	0.7	+0.4	0.7	0.5	-0.2
사회복지시설 (장애, 노인 등)	0.5	0.0	-0.5	0.4	1.4	+1.0	0.3	0.4	+0.1	0.4	0.8	+0.4
자립 (정부지원주택 포함)	35.9	47.2	+11.3	9.4	17.0	+7.6	5.9	7.7	+1.8	12.7	17.8	+5.1
귀가	0.7	1.2	+0.5	3.5	4.9	+1.4	4.9	3.7	-1.2	3.5	3.9	+0.4
기타	1.4	0.0	-1.4	0.8	0.2	-0.6	0.2	0.0	-0.2	0.7	0.1	-0.6
합계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8-239.

다음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응답이다. 먼저 쪽방에서 처음 거주하게 된 시기를 물어본 결과를 200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2009년 이전에 쪽방에 살기 시작한 비율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34.1%, 2021년도 조사에서는 32.9%로 5년의 시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쪽방주민의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4-7-26〉 쪽방 생활 시작한 시기 변화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구분	2016년도 조사		2021년도 조사	
	비율	누계	비율	누계
1990년 이전	7.5	7.5	7.9	7.9
1990년~1994년	2.0	9.5	3.9	11.8
1995년~1999년	6.8	16.3	3.3	15.1
2000년~2004년	6.7	23.0	8.5	23.6
2005년~2009년	11.1	34.1	9.3	32.9
2009년 까지	34.1		32.9	
2010년 이후	65.9		67.0	
2010년~2014년	40.4	74.5	20.0	52.9
2015년	11.6	86.1	5.8	58.7
2016년	13.9	100.0	5.8	64.5
2017년	-	-	4.6	69.1
2018년	-	-	9.4	78.5
2019년	-	-	7.3	85.8
2020년	-	-	9.3	95.1
2021년	-	-	4.8	99.9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9.

다음 쪽방주민의 주거비 현황이다. 보증금은 “0” 까지 포함할 경우 3.5만원, “0”을 제외할 경우 58.1만원이 상승하였다. 월 임대료는 “0” 까지 포함할 경우 2.5만원, “0”을 제외할 경우 1.6만원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쪽방주민의 주거비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7-27〉 쪽방주민 주거비 현황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만원)

구분	“0” 포함			“0” 제외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평균 보증금 (만원)	19.7	23.2	+ 3.5	237.3	295.4	+ 58.1
평균 월임대료 (만원)	19.1	21.6	+ 2.5	20.2	21.8	+ 1.6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11.

한편, 쪽방주민에게 계속 거주 의사를 물어본 결과 “계속 거주”라 응답한 비율은 2016년도 53.8%, 2021년도 40.3%로 13.5%p 감소하였다. 또한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로 항목별 큰 차이는 없으며 여전히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4-7-28〉 쪽방계속 거주 의사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계속 거주	53.8	40.3	- 13.5
그렇지 않다	46.2	59.7	+ 13.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19.

〈표 4-7-29〉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교통 편리	3.0	9.1	+6.1
동사무소, 쪽방상담소 직원과 관계 유지	0.8	6.1	+5.3
일자리가 가까워서	1.0	0.0	-1.0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5.9	5.3	-0.6
불편함이 없어서	11.5	8.6	-2.9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67.1	63.5	-3.6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8.6	7.5	-1.1
기타	2.1	0.0	-2.1
합계	100.0	100.0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11.

마지막으로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은 큰 변화 없이 '정부지원 임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일반주택 전월세'가 4.6%p 증가한 21.1%였으며, 그 외 응답은 5% 미만으로 복지시설 등은 대안적 거처로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30〉 쪽방에서 이주 시 가고자 희망하는 곳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일반주택 전월세	16.5	21.1	+4.6
정부지원 임대주택	71.9	72.8	+0.9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	2.5	2.4	-0.1
농촌 등 정착	6.1	3.6	-2.5
기타	2.9	0.0	-2.9
합계	100.0	100.0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0.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조사 결과이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물지원(-28.0%p)과 주거지원(-25.8%p), 정신보건서비스(-22.7%p), 일자리 소개(-20.1%p)가 20%p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긴급복지 생계급여는 2016년도 조사에서는 이용률이 01.%로 미비하였으나 6.0%p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의 감소와 긴급복지 생계급여 이용률 상승은 코로나19의 영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표 4-7-31〉 노숙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2016년도, 2021년도)

(단위: %, %p)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증감
국민 기초생계급여	52.2	41.3	-10.9
국민 기초주거급여	-	20.2	-
긴급복지 생계급여	0.1	6.1	+6.0
긴급복지 주거급여	-	3.0	-
실업급여	5.4	4.4	-1.0
의료급여 및 서비스	73.1	63.4	-9.7
무료진료	69.5	60.3	-9.2
일자리소개 (고용지원)	38.8	18.7	-20.1
직업교육	11.1	11.6	+0.5
자활사업, 공공근로	42.9	28.6	-14.3
복지시설 이용	80.0	61.7	-18.3
정신보건서비스	43.6	20.9	-22.7
장애인지원 서비스	11.0	10.0	-1.0
무료급식 (식사지원)	77.9	67.2	-10.7
현물지원	88.2	60.2	-28.0
주거지원	43.4*	17.6	-25.8
편의시설이용	62.2	53.1	-9.1
여가,문화 프로그램	-	51.7	-
법률지원	-	13.2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2)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28-332.

한편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를 2016년도 조사와 2021년도 조사를 1순위를 중심으로 비교를 하면, 거리노숙인의 경우 거리의 경우 무료급식, 이용시설은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생활시설 노숙인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며 전체 노숙인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으로 변화가 없었다. 다만 거리 및 이용시설의 무료급식 응답비율이 약 5%p, 3%p 높아졌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된 무료급식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표 4-7-32〉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상위 3개 항목 (2016년도)

(단위: %)

구분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노숙인 전체
	거리	이용	자활	재활	요양	
1	무료급식 (57.8)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34.6)	사회복지시설 이용 (30.8)	사회복지시설 이용 (26.7)	사회복지시설 이용 (37.3)	사회복지시설 이용 (27.0)
2	무료진료 (14.8)	사회복지시설 이용 (18.1)	무료급식 (14.7)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21.8)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 (18.9)	무료급식 (16.7)
3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 (6.4)	무료급식 (16.7)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 (13.7)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 (12.7)	무료급식 (11.5)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 (13.2)

자료: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33.

〈표 4-7-33〉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상위 3개 항목 (2021년도)

(단위: %)

구분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노숙인 전체
	거리	이용	자활	재활	요양	
1	무료급식 (식사지원) (62.0)	자활사업, 공공근로 (26.2)	복지시설 이용 (24.3)	복지시설 이용 (30.2)	복지시설 이용 (30.0)	복지시설 이용 (25.0)
2	긴급복지 생계급여 (10.3)	무료급식 (식사지원) (21.9)	무료급식 (식사지원) (13.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2)
3	현물지원 (7.5)	복지시설 이용 (10.3)	무료진료 (10.7)	의료급여 및 서비스 (14.0)	의료급여 및 서비스 (18.2)	무료급식 (식사지원) (15.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한편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물어본 결과에 대해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리노숙인은 2016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주거지원이었으나, 2021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소득보조로 바뀌었다.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주거지원, 재활 및 요양시설은 소득보조로 변화가 없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로 변화가 없으나 응답 비율이 2016년 44.6%에서 2021년도 조사에서는 61.4%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414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표 4-7-34〉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상위 3개 항목 (2016년도)

(단위: %)

구분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전체
	거리	일시보호	종합지원	자활	재활	요양		
1	주거지원 (37.3)	주거지원 (47.4)	주거지원 (51.1)	주거지원 (31.7)	소득보조 (36.9)	소득보조 (34.8)	소득보조 (44.6)	소득보조 (36.9)
2	소득보조 (31.0)	소득보조 (24.5)	고용지원 (19.9)	고용지원 (26.8)	주거지원 (17.4)	의료지원 (20.6)	주거지원 (28.1)	주거지원 (23.5)
3	고용지원 (12.1)	의료지원 (12.9)	소득보조 (16.1)	소득보조 (22.0)	고용지원 (14.8)	주거지원 (9.2)	의료지원 (11.5)	의료지원 (13.0)

자료: 이태진 외(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34.

〈표 4-7-35〉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상위 3개 항목 (2021년도)

(단위: %)

구분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전체
	거리	이용	자활	재활	요양		
1	소득보조 (45.0)	소득보조 (39.3)	주거지원 (34.7)	소득보조 (38.6)	소득보조 (48.6)	소득보조 (61.4)	소득보조 (49.2)
2	주거지원 (20.3)	주거지원 (28.4)	소득보조 (31.5)	의료지원 (17.7)	의료지원 (17.4)	주거지원 (17.9)	주거지원 (17.9)
3	급식지원 (10.4)	고용지원 (21.1)	고용지원 (17.6)	주거지원 (15.1)	주거지원 (12.3)	의료지원 (8.7)	의료지원 (1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면접조사 원자료.



제5장

결론

제1절 노숙인 등 규모 추이 및 제언

제2절 노숙인 등 욕구별 실태 및 정책적 함의

제 5 장 결론

제1절 노숙인 등 규모 추이 및 제언

노숙인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약한 특성상 그 실태 및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실태는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즉, 수치이다. 노숙인 특히 거리노숙인은 특정한 날 밤을 어디서 기거하는가에 따라 특정되는데, 이때 ‘노숙(homelessness)’은 ‘상태(state)’라 할 수 있다. 매일 달라지는 역동적 상황 중에 있고, 행정적으로는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모의 집계방식인 전국적 규모의 일시집계조사(PIT)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전국적 수준에서 노숙인에 대한 일시집계조사는 지금까지 2011년, 2016년, 2021년 3차례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매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노숙인의 수를 행정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1-1〉 연차별 집계에서 나타난 노숙인 등 규모

(단위: 명)

구분	노숙인 등	노숙인						쪽방주민	
		합계	거리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		
2009	행정	20,324	13,930	1,260	-	3,404	9,266	6,394	
2010	행정	19,384	13,152	1,077	-	3,117	8,958	6,232	
2011	행정	19,136	13,145	1,121	-	3,282	8,742	5,991	
	PIT	20,207	13,993	2,689		3,144	8,160	6,214	
2012	행정	18,282	12,391	1,081	-	2,741	8,569	5,891	
2013	행정	18,648	12,656	1,197	844	2,095	4,829	3,691	5,992
2014	행정	18,494	12,347	1,138	899	1,949	4,549	3,812	6,147
2015	행정	17,973	11,901	1,125	1,045	1,683	8,048	6,072	
2016	행정	16,698	10,645	969	798	1,613	3,890	3,375	6,053
	PIT	17,532	11,340	1,522	493	1,599	4,290	3,436	6,192
2017	행정	16,533	10,828	862	994	1,583	4,123	3,266	5,705
2018	행정	16,465	10,801	895	1,047	1,684	3,922	3,253	5,664
2019	행정	16,516	10,875	1,246	1,173	1,523	3,772	3,161	5,641
2020	행정	14,866	9,470	1,241	555	1,209	3,497	2,968	5,396
2021	PIT	14,404	8,956	1,201	394	1,107	3,343	2,911	5,448

주: 2016년 PIT 조사는 10월 20일에, 2021년 PIT 조사는 5월 14일에 실시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각 연도별).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그 수와 관찰 가능한 사항이 확인되었고,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해서는 입소자의 수와 행정자료를 통한 특성이 함께 확인되었다. 그 결과 몇 가지 사항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노숙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일시 집계조사에서 13,993명이었던 노숙인은 2016년 11,340명, 이번 2021년에는 8,956명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의 수도 2011년 6,214명, 2016년에는 6,192명, 2021년에는 5,448명이다. 전체적으로 노숙인 수의 감소 상황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주택상황이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노숙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적 노력이나 정책의 체계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숙인 복지체계와 현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숙인, 특히 거리노숙인은 일시집계 결과 반영된 수치보다는 그 수가 많고, 문제의 규모도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정시점에 집계된 사람의 수는 해당 위험에 직면하여 살고 있는 사람의 수보다는 작다. 특정한 날의 밤에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 명이라면 1년 중에 노숙을 간헐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 몇 배 이상이다. 따라서 노숙문제의 규모

는 여전히 일시집계 결과 이상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 간 노숙인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행정자료와 일시집계조사 결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행정자료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집계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수치를 취합하는 것이다. 원래의 지침에서는 일시집계조사 방식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집계수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실상 임의적인 방식으로 집계된 수치를 보고하고 있었다. 때문에 행정자료의 집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자체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노숙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거리노숙인 등의 규모를 과소집계하려는 유인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표 6-1-1>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와 2016년도의 일시집계조사 결과는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조사의 결과보다 상당히 큰 수치의 노숙인이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거리노숙인은 행정자료의 과소보고가 두드러지게 지적될 정도로 그 수치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의 결과는 그 직전 2020년 말 기준의 행정자료의 보고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행정자료의 노숙인 집계결과 수치가 약간 더 크다. 향후에도 연차별로 이루어지는 각 지자체별 행정자료 보고의 엄격성을 보건복지부가 잘 관리한다면, 이를 유의미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하위범주별로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전체적인 감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감소폭에는 하위유형별 차이가 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다른 범주에 비해 규모감소폭이 적으며 조사시점마다 변화경향이 안정적이지 않다. 시설입소 노숙인이나 쪽방주민의 감소는 해당유형의 시설이나 쪽방 자체의 감소와 관련될 수 있다. 거리노숙인은 정확한 집계거점의 확인과 정확한 포착과 집계의 능력에 좌우된다.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감소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거리노숙인의 집계는 집계거점의 확보나 거리노숙인 통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하여 서울의 강남고속터미널 인근 지역에서 노숙인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나타나면서 해당 집계거점에서의 거리노숙인 수는 줄어들지만 이들이 이동한 지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때문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는 거리노숙인

수는 새로운 거리노숙인이 꾸준히 진입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노숙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노숙인 중 절반에 달하는 48.3%의 노숙인이 수도권에 있으며, 특히 거리노숙인은 서울지역에 전체의 58.4%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에 13.5%의 거리노숙인이 확인되었다. 노숙인이 일자리나 생활의 기회를 찾아 대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집중성이 특히 심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조율된 현장정책이 중요하다.

다섯째, 노숙인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노숙문제가 처음 두드러졌던 외환위기 시점에 비하여 현재는 노숙인이 연령과 성별 등 인구학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과거 중년 4~50대 독신 저학력 남성 일변도의 노숙인 집중성보다는 여성, 가족단위 노숙인,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등 보다 다양한 인구학적 구성이 확인되고 있다. 여성 노숙인 서비스 체계나 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외견상으로 드러나기를 기피하는 여성 노숙인이 오히려 적게 포착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할 때 노숙인에 대한 보호나 지원체계에서, 다양성에 주목하는 관점과 특히 성인지적 관점이 중요할 수 있다. 여성 노숙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체계는 특히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집계수치에서 거리노숙인보다 더 많은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생활시설 노숙인이다. 그런데 일시집계조사 결과 조사당일 재활시설 노숙인 중에서 27.5%, 요양시설 노숙인은 19.0%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일시집계조사 이전의 조사결과에서와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 비율은 상당한 규모이다. 장애등록률이 전체 시설입소 노숙인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2.2%이다. 또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이 31.1%에 달하고 있다. 노숙 문제가 주거취약성에 따른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임에도 실제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건강, 장애, 정신건강, 노령 등 다른 특성에 의한 어려움과 서비스 필요성이 주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 주거생활로 복귀하는 것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비합리적으로 긴 시설거주기간이 일반화되고 있다. 100인 규모 이상의 시설이 아직도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에서 19개소, 300인 규모 이상인 시설도 5개소나 있다. 모든 시설 유형에서 입소 노숙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역시 장기간의 입소

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입소자의 상황에 맞춘 시설의 재편과 서비스 변화 등 개편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노숙인 등 욕구별 실태 및 정책적 함의

1. 경제활동

노숙인 정책에서 경제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노숙인에 대한 규정이 ‘실직 노숙자’에서 시작되었으며,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초창기 노숙인 정책도 출발하였다. 그러나 노숙은 ‘실직’이라는 단일한 사건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일생을 통해 축적되어 왔던 일자리-주거-의료 등 주요 삶의 구성이 하강국면으로 축적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며,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지원은 그 중 중요하지만 하나의 역할로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위기 상황이 노숙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활동 및 최소한의 소득 보장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노숙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업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불안정한 직업으로 혹은 실업 상태로 추락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용직이나 자영업에서 임시·일용직이나 미취업자로 변하되는 과정이 대다수 거처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순간에 노숙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근로상태의 하강에 따라 노숙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노숙생활로 이르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경제적 조건의 악화를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안전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노숙인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었다가 실업 상태로 되거나 이미 자영업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이 계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형 실

업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 계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노숙 상태이거나 시설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권리로써 노동할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양적으로 충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4주 동안 구직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2016년도 조사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이것은 거처유형 등과는 무관하게 공통된 조사 결과이다. 물론 경제활동 참여가 낮아진 것은 노숙인의 고령화 영향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했는지, 또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젊은 층 비율이 높은 거리노숙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자 비율은 전체의 30.3%에 달한다. 이들은 일자리를 희망하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노숙인 등 전체에서 주 수입원 1순위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소득원은 ‘공공근로활동’이다. 특히 자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비율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간 일자리 시장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감안할 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지·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 고유의 일자리 정책 뿐 아니라 지역자활,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제도 자원이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조건은 노숙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촘촘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숙인 복지 영역에는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 다양한 거처유형의 이용인 및 생활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활시설 내에서도 자활시설과 재활·요양시설에 따라서 입소자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정도가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일자리 조건 중 근무시간은 거리 노숙인, 특히 이용시설과 자활시설 노숙인,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이하, 장애가 없는 사람 등은 전일제 희망자 비율이 높다. 또한 희망하는 근무업종도 거리노숙인은 건설일용직이 상대적으로 희망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생활시설 노숙인은 서비스업 희망 비율이 높다. 또한 쪽방주민은 청소(미화)가 가장 선호되었다. 젊은 층은 생산제조 희망자가 많다. 또한 일자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고용안정성)이 공통적으로 꼽혔다. 업종과 근무조건 다양성과 더불어, 기본적 의식주 유지 수준을 넘어서는 임

금과 이를 보장하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이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 지원과 다른 서비스 지원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지원은 사회복귀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재활·요양시설과 쪽방주민은 ‘건강회복’을, 거리노숙인과 자활시설은 ‘일정한 주소지 확보’와 ‘취업알선’ 응답자가 많았다. 즉, 주거의 안정과 심신의 회복, 일자리를 통한 자립은 각각 개별적인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건강회복 혹은 요양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시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통한 자립이 아닌 케어를 통한 자립이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일자리는 자립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택지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 문제 해결과 주민등록 복원 등 경제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법률·행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조사에 비해 채무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은 비교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 및 요양시설 노숙인에 비해 구직에 대한 욕구가 큰 집단인 거리의 노숙인, 거리 이용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등에서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는 9.1%, 9.6%, 12.6%의 응답자가 일자리를 위한 필요한 지원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주민등록 복원을 희망하는 비율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채무 상담, 신용회복 상담, 주민등록 복원 등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행정적 사안이기도 하다. 신속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전문가 지원의 꾸준한 확대가 필요하다.

2. 건강 및 의료

노숙인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실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둘째, 의료이용 실태에 관련된 내용이다.

건강 상태에 조사 내용으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은 거리노숙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나 문제성 음주·의료는 노숙인 등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2016년도 실태조사에 비해서는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리노숙인은 더욱 열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노숙인은 평균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열악한 거처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활시설 노숙인에 비해 유병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치료 경험은 대체로 타 집단에 비해 낮으며 특히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경험은 32.1%에 불과하였다. 또한 몸이 아플 때 대처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의 비율이 노숙인 등 전체의 9.4%보다 훨씬 높은 42.6%에 달하였다. 거리노숙이라는 극한적 생활환경이 거의 그대로 건강 상태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건강상태 특징으로는 노숙인 등의 고령화, 특히 시설 생활자 및 쪽방주민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대사성 질환과 같이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병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경우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등 시설 거주자의 고령화가 필요한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먼저 의료보장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시설은 의료급여 1종의 비율이 높으나, 자활시설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노숙인 1종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자활시설 노숙인 중 의료보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보험’인 상태의 비율이 9.9%로 상당히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및 서비스는 노숙이후를 기준으로 2016년의 73.1%에서 63.4%로, 무료진료는 69.5%에서 60.3%로 감소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의 경우 43.6%에서 20.9% 등 대체로 다른 서비스 등과 유사하게 의료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지원은 12.4%를 차지하여 소득보조(49.2%), 주거지원(17.9%)에 이어 세 번째였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생활시설 입소자들은 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거나 연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안정적 거처 제공만으로는 의료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의료 및 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종합지원 센터가 있는 지역에 무료진료소가 있는 것 이외에 거리노숙인 의료는 많은 부분 민간이나 지자체의 임시적 대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임시적인 상황에서는 안정적 지

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거리노숙인 의료실태 결과 거리의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신보건 지원 인력 배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정신보건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노숙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거처 및 주거지원 연계 방안이 거리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의료제도의 체계화이다. 현재 노숙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거처유형별로 의료보장제도가 모두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쪽방주민은 의료급여 1종, 생활시설 중 재활·요양시설은 시설급여, 자활시설은 의료급여 노숙인 1종 및 건강보험, 거리노숙인은 무료진료 및 의료급여 노숙인 1종이 대응하고 있다. 이 제도들이 각자 포괄하는 대상자들이 상이한데다가, 지역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노숙인 1종의 경우 지정된 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데 대부분 지정병원은 보건소나 공공병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하고 단절적이며 대상 제한적인 의료체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나 의료과잉을 우려하기 보다는 지켜져야 할 최저한도의 의료수준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먼저 정책의 관점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다. 이미 결핵은 체계적 지원과 예방을 통하여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고유의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전문적 의료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확보 및 안정적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전문적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 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거

주거는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노숙인의 자립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수조건이다. 또한 주거는 노숙 문제의 출발 지점이면서 사회복지로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주거 해결을 위한 우선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노숙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실태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노숙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임시주거비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리노숙 계기와 거주경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66.0%의 노숙인이 경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실직, 사업실패, 신용불량 혹은 파산,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지 상실을 거리노숙의 계기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의 58.2%로 나타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노숙의 직접적 계기로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노숙인 들은 현재 거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비정형주거에서 생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제적 취약과 주거 확보의 어려움이 결부되어 노숙상태에 이르는 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상실 위험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불안정한 주거상태로 이동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쉽게 주거상담 및 임시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가 필요하다. 거리노숙 계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리노숙인과 재활시설 입소자, 쪽방주민들은 경제적 요인 비중이 높은 반면,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숙 이전에 근로능력이 낮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가 있었던 취약계층들이 질병 및 장애, 혹은 이로 인한 가족해체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서 탈락되어 노숙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변화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현재 시설 입소 전 거리노숙 경험 없이 주택이나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숙 이전부터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숙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질병, 장애, 가족해체 등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가족이 없더라도 사회적 지원망에 의한 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셋째, 거처유형 및 욕구에 기반하여 탈노숙을 위한 공공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거처유형,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 주거지원 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전체 노숙인 등의 희망 주거지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예: 공동생활주택, 그룹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서비스 욕구에 따른 공공 주거지원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숙위기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신속한 정착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반면, 서비스 욕구가 높은 노숙위기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결합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노숙인 등의 거의 절반은 저렴한 월세를 희망하여 저렴한 주거비로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공주거 지원을 통해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 사생활이 보장되고 안전 및 방역에 최적화된 개별화된 생활이 가능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주거확보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쪽방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쪽방의 거주면적을 분석해 보면, 쪽방주민의 71.6%는 거주면적 6.6㎡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쪽방주민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위임대료 수준이 22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거주면적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상시화 함으로써 쪽방주민을 위한 안정적 주거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쪽방주민 주거지원을 위한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철거 및 퇴거위험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쪽방상담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쪽방상담소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쪽방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 안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거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등의 노숙생활 중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례관리 및 범죄 예

방을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숙생활 중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행, 금품갈취, 명의도용 및 사기 등의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 거리, 시설 및 쪽방 주민 중 6.9%는 노숙생활 중 각 피해 유형을 1개 이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노숙생활에서의 피해경험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의 피해경험 비율은 높은 편이어서 거리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와 거리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와 명의도용 등에 의한 사기 피해, 금품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및 코로나19

노숙인은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 거처 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장애, 연령, 주거, 근로능력 등 다양한 요소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여서 공공부조, 일자리, 복지시설, 현장보호, 보건의료, 급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대체로 거리에서 일단 시설 입소 연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흐름을 보여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거제공을 선행하여 지원하는 주거우선 접근방식이 널리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노숙인의 복지서비스는 과거에는 ‘탈-거리’ 생활에 초점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탈-거리 뿐 아니라 ‘탈-시설’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특히 2020년 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시설 생활 자체가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을 통한 서비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겠다.

첫째, 지역사회 재정착에 필요한 독립생활역량 강화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노숙인은 거처유형별 복지 욕구의 차이가 뚜렷하지만, 또한 동일 시설 유형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능력의 조사 결과, 자활시설에서 재활시설, 그리고 요양시설로 갈수록 일상생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시설 유형 내에서도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수준이 동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

가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인력이나 시설 환경 여건 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탈시설을 추진하는 전략에 대비하여 시설별로 서비스 지원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설은 영구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거처임을 분명히 하고, 시설 거주 동안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노숙인 생활시설 내 프로그램을 자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립수준에 대한 개별화된 상황을 점검하여 시설 입소 동안 본인 희망에 따른 물건 구입, 식사 준비,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을 익숙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시설 내에서 지역사회 생활 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공이 필요하겠다.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서비스 정보 접근 방식으로서 노숙인 시설 안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분석되었다. 이 때 가급적 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시설 내에서 수행하더라도 외부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부전문기관과 연결하여 직접 방문 교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퇴소 준비를 보다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내 프로그램 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독립생활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독립생활 거주를 생생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설 내 완전자립수준이 열악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입소자가 많을 경우 주거지원을 우선시 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 내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시설환경에 익숙한 입소자의 경우에는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마지막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장기거주비율이 높은 요양시설 노숙인의 경우, 요양시설의 환경과 관계에 이미 익숙하여 지역사회나 타전문 요양시설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거처를 옮기고 싶지 않은 비율이 요양시설의 경우 거의 90%에 육박하였다. 그렇다면 요양시설은 끼워 맞추기 식의 자활이나 재활 프로그램이 아닌, 요양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시설 계속 거주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과 더불어 이에 걸맞게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구인회 외, 2019), 한 방에서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8~9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사적 공간이 부재하며, 사람들 간의 불화나 싸움, 말다툼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실 내부를 공동생활가정의 형태나 독립생활지원가정 등의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실제 지역생활처럼 생활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숙인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확인하여 지역사회 거주를 실제화해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서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성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서비스 영역(주거, 정신보건서비스, 일자리)에서 2016년도 조사결과에 비하여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입장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이 실제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으로의 정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저렴한 주택 그리고 회전문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구인회 외, 2019; 민소영·김소영, 2018)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제공 서비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포함),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등이 있음에도, 임대료 마련의 어려움, 시설 생활과 다른 지역생활 환경으로의 부적응, 음주 등 자기 생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시설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숙인의 탈시설, 탈노숙,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라는 유형의 서비스 외에도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무형의 서비스(혹은 사례관리)가 반드시 결합된 지역사회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노숙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제적인 고용지원이 필요하겠다. 실태조사 결과,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고용지원관련 서비스로서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가 언급되었다. 이에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일자리가 짧은 고용기간, 부족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준

희 외, 2021). 심지어 노숙인 고용지원 서비스는 지자체마다도 편차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사업의 예산과 지원내용의 편차가 컸는데, 17개 시도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별도의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수준이었다(김준희 외, 2021). 더불어 최근에는 취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등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이 강조되고 공공 영역에서 점점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앞서 제기된 단기고용이나 저임금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일자리 연계가 민간일자리 연계보다 더 효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김준희 외, 2021)를 고려할 때, 노숙인을 위한 일자리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태조사에서는 이용시설 노숙인의 경우 고용지원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응답되었다. 노숙 이전 보다 노숙 이후의 고용지원관련 서비스(예: 일자리, 자활사업·공공근로) 이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도 이용시설 노숙인이었다. 이용시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 고용지원관련 서비스는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이었다. 일시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경우 시설 입소보다는 거리와 일시적 잠자리를 회전하는 집단이므로 시설 입소를 통한 단계적 지역사회 복귀보다는 지역사회로의 우선 복귀 개입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거주시 적절한 소득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고용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전략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거리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아웃리치를 통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리 노숙인의 경우 서비스 정보 접근 수단 중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현장보호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겠다. 특히 거리노숙인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근거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거리노숙인은 생활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비율이 높는데, 주요 이유가 단체생활과 규칙, 답답한 실내 공간,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등 개인적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집단생활 환경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었다. 또한 거리노숙인의 특성상 만성적 정신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현장보호활동의 방향성은 시설입소보다는 주거우선 전략을 취하면서 알코올 및 중독이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겠다.

한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시설 인지도 및 이용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일시보호시설 이용 경험률이 떨어졌다. 여성 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2021년도에는 다소 떨어졌지만,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이용률은 2016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리노숙인은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의 도움으로 서비스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장보호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보다 다양화하여 여성 노숙인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노숙 환경이 여성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 안내가 여성 노숙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현장보호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현장보호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성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보호활동의 총괄 책임성을 갖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우수 사례 공유 기회를 지원하여 현장보호활동 내용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측면적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 위기 상황일지라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노숙인·쪽방주민 대응 지침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서비스 중단 및 지속 그리고 방역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면서, 다양한 예방 및 대응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나 의료서비스 등 외부 체계와 연계되어 집행되었던 서비스가 단절되면서 노숙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보호활동이 위축되면서 거리노숙인은 필수적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마저 어려움을 겪었다. 거리노숙인의 거리상담원의 빈도가 2016년도에 비하여 2021년도에는 약 3배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거리 노숙인은 생활노숙인에 비하여 코로나19 검사율이 낮았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수급률도 떨어졌다. 특히 중앙정부 재난 지원금의 경우 거리노숙인은 2명 중 1명이, 그리고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거리노숙인은 3명 중 2명이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자리 지원도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실태조사에서도 노숙

인에게 가장 어렵게 된 일상생활영역이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던 건설 일용직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이유가 있겠다. 더구나 노숙인에 대한 편견은 일자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는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행정안전부, 2020).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도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동하여 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렇듯 노숙인은 고용, 의료, 소득 면에서 다층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방역을 준수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지정하고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강제하고 지원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예를 들어, 노숙인 고용지원정책에 대하여 지원사업 이용 당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울러 응급보호시설도 집단적 생활공간이 아니라 개별적 공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재난위기 상황에 더 취약한 거리노숙인이 집단적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적 공간 형태의 응급보호시설 환경 구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5. 여성 및 청년

이번 실태조사 분석에서는 앞선 2016년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만 시행하였던 성별, 연령별 분석을 모든 면접조사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 및 청년에 대한 주요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여성에 대한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이다.

첫째, 여성의 경우 노숙의 경로가 남성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노숙의 원인으로 이혼 및 가족해체나 가정폭력, 그리고 질병과 정신장애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여성 노숙인 발생 예방을 위한 전략이 남성과는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가정폭

력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노숙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던 여성의 경우 가족해체, 이혼이 노숙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숙 예방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 노숙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질병과 정신질환을 포함한 장애의 가능성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둘째, 여성의 경우 거리 생활에서 구타 및 성추행 및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게 주거 또는 시설보호 서비스로 연계하여 여성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여성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호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시보호시설 역시 전국에 한 곳만 존재하고 있다. 여성 노숙인 대상 서비스의 절대부족 현상 및 전문적 인력의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경우 남성 노숙인에 비해 장애 및 정신질환 진단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장애 및 의료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체계 구성이 요구된다. 여성 노숙인 주거지원 및 시설은 장애 및 정신질환 대응 전문인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 설치 및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및 진단 경험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노숙 이전 이후 상관없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적절한 인력과 기관을 통한 서비스 체계를 갖춘다면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지원 및 정신질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일상생활 정도 자립 정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주거 욕구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독립주거보다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거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독립주거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독립주거보다 함께 생활하며 상주하는 실무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거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주택과 같은 형태의 주거가 여성 노숙인에게는 보다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욕구에 맞춘 주거공급 계획 및 서비스 공급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 청년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다.

첫째, 청년의 경우 노숙 경로에 있어 비청년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과 유사하게

이혼이나 가족해체, 그리고 가정폭력이 노숙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청년 역시 노숙 경로를 이해함에 있어 가정폭력 또는 가족해체의 피해자로서 이해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 이전의 노숙 가능성 역시 높일 수 있어 청년 노숙인의 경우 노숙 발생 시점과 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을 떠나게 된 청년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 지원체계가 함께 수립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비청년에 비해 신체적 건강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청년이 비청년에 비해 장애 비율이 높고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 비율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현장의 이해 및 서비스 체계 계획이 요구된다. 음주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 문제음주 정도는 낮으나 노숙이 지속되면 문제음주로 진행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청년의 경우 조기 개입 및 노숙 탈피를 빠르게 돕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비청년에 비해 취약함을 보여주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은 노숙 전후 비청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면 청년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체계로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이 예상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나 적극적 치료 경험은 낮다는 것이다. 의료적 치료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및 치료 체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숙인 서비스체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숙 기간이 짧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립 및 탈노숙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에 주거와 근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원 마련과 연계가 요구된다. 청년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노숙 이후에도 비청년에 비해 낮지만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취업인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근로로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이나 자활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청년 노숙인이 일할 수 있는 루트의 다양화 및 근로능력과 기술 지원 체계를 함께 병행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의 경우 주거에 있어서도 독립주거에 대한 욕구가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청년을 제외한 청년 노숙인에 대해서 독립주거를 빠르게 연결해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주

거 공급을 통해 자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청년 노숙인의 특성인 바 이를 고려한 주거연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여성 노숙인과 청년 노숙인의 경우 한국 노숙인 전략과 서비스 체계가 일반적으로 남성 및 노인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해 이들에게서 확인되는 특수한 욕구와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 인력 및 기관, 서비스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노숙인 정책에서는 여성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전문적 인력 배치와 여성 노숙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체계의 중심점을 차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 노숙인 정책에서는 빠른 탈노숙을 우선적 원칙으로 삼고 주거와 일자리를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노숙인 서비스 체계에서 일자리 지원의 경우 전문성 및 자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지역자활이나 일자리 관련 기관으로의 빠른 연계와 서비스 연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강미나, 박미선, 이재춘, 이길제, 이후빈, 조운지, ... 김승훈. (2021).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 구인회, 신원우, 민소영, 김소영. (2019). 노숙인 요양, 재활시설 생활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돌봄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상청 날씨누리, 과거관측 페이지. <https://www.weather.go.kr/w/obs-climate/land/past-obs/obs-by-day.do> (2021년 11월 10일 추출)
- 김준희, 홍정훈, 김기태, 강다희, 이원호, 남수연. (2021).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점검·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도시연구소.
- 민소영, 김소영. (2018).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사례관리자 경험. 사회복지연구. vol.49, no.1, pp.263 - 296.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 이진우, 기재일, 이우승, 나종택, 최숙현(2017). 쪽방촌 실태조사를 통한 쪽방상담소 기능 재정립 방안.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이태진, 김태완, 김문길, 김현경, 정원오, 주영수, ... 김선.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임덕영, 정원오, 남기철, 신원우, 민소영, ... 우선희. (2020).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정원오, 주영수, 민소영, 신원우, 남기철, ... 우선희. (2018).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미윤, 최은영, 최상희, 정진선, 임덕영, 이원호, ... 이채운.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 질병관리청. (2020). 2020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요약).
- 최은영, 정진선, 이원호, 강지영, 김기태, 이채운, ... 구형모. (2018).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도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 행정안전부. (2020). 출소자·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 보도자료 7월 30일자.



부록1. 일시집계조사 조사표

1. 일시집계조사 조사표 (거리노숙인)

 승인번호 제 117098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사주관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진달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사수행기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보건복지부 </td> <td style="text-align: cente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KMAC </td> </tr> </table>	조사주관기관	연구진달기관	조사수행기관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MAC						
조사주관기관	연구진달기관	조사수행기관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MAC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거리노숙인 일시집계)		ID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20px;" type="text"/>											
1. 조사 장소 및 일시													
지역	() 시도												
실무자 기관명	조사자 명	①(실무자) _____	②(조사원) _____										
조사일	2021년 월 일	조사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지역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명을 기입합니다. 예1) 서울특별시, 예2) 전라북도													
2. 전체 노숙인 수			(단위: 명)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점 코드	거점명	세부 장소	유형 코드	합계	성인		미성년 (18세 미만)		마상
									남	여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거점, 장소 유의사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점코드, 거점명은 CAPi에 자동으로 입력 되어 있습니다. ※ '세부장소'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역 앞 벤치, △△건물 주차장, ××공원 장애인화장실 등) ※ 세부장소의 '유형'은 해당하는 아래 보기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① 건물내부 ② 지하공간 ③ 거리·광장 ④ 공원·녹지 ⑤ 강변 ⑥ 기타													

〈노숙인 집계 유의사항〉

※ **전체 노숙인 수의 집계는 합계와 성인 및 미성년, 미상의 집계가 일치**하도록 기록합니다. 합계가 맞지 않을 경우 CAPI 상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 만약 합당되어 있는 거점 이외의 곳에서 거리노숙인을 발견할 경우, 예비거점 란에 작성합니다. 예비거점의 거점명은 실무자와 조사원의 협의로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현장의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인쇄된 조사표에 직접 기록할 경우〉

- 시군구 및 읍면동은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예 1) 시도: 전라북도 / 시군구: 전주시 완산군 / 읍면동: 효자동 예 2)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유성구 / 읍면동: 노원동
 - 거점코드와 거점명은 지방실사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기재하며, 집계는 **바를 정(正) 표시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3. 가족 노숙인 수

※ 가족 노숙인 수는 **'2. 전체 노숙인 수'에 포함된 노숙인 중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의 수를 집계합니다.

(단위: 명)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점 코드	거점명	세부 장소	유형 코드	합계	성인		미성년 (18세 미만)		미상
									남	여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거점, 장소 유의사항〉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점코드, 거점명은 **CAPI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세부장소'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역 앞 벤치, △△건물 주차장, ××공원 장애인화장실 등)
 ※ 세부장소의 '유형'은 해당하는 아래 보기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① 건물내부 ② 지하공간 ③ 거리·광장 ④ 공원·녹지 ⑤ 강변 ⑥ 기타

〈노숙인 집계 유의사항〉

※ **가족 노숙인 수의 집계는 합계와 성인 및 미성년, 미상의 집계가 일치**하도록 기록합니다. 합계가 맞지 않을 경우 CAPI 상 경고창이 표시됩니다.
 ※ 만약 합당되어 있는 거점 이외의 곳에서 거리노숙인을 발견할 경우, 예비거점 란에 작성합니다. 예비거점의 거점명은 실무자와 조사원의 협의로 결정하여 기재합니다.

〈현장의 피치못할 사정 등으로 인쇄된 조사표에 직접 기록할 경우〉

- 시군구 및 읍면동은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예 1) 시도: 전라북도 / 시군구: 전주시 완산군 / 읍면동: 효자동 예 2) 시도: 대전광역시/ 시군구: 유성구 / 읍면동: 노원동


- 거점코드와 거점명은 지방실사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기재하며, 집계는 **바탕 정(正) 표시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4. 조사장소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입해주세요.

※ '조사장소'나 '조사장소에 있는 노숙인'에 대한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 해당 조사장소에서 노숙은 하는 것에 대한 위험요인 등
- 해당 조사장소에 있는 노숙인 특징(알콜릭, 여성, 가족 노숙인 수가 많은 경우) 등

2. 일시집계조사 조사표 (시설노숙인)




승인번호
제 117098 호

조사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연구협담기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수행기관



KMAC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시설노숙인 일시집계)

ID							
----	--	--	--	--	--	--	--

1. 조사 장소 및 일시

지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조사일	2021년	월	일	조사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조사자명				

※ 지역은 해당 행정구역을 기입합니다. 예 1) (전라북)시·도 (전주시 완산)시·군·구 (효자)읍·면·동
 2) (대전광역)시·도 (유성)시·군·구 (노은)읍·면·동

2. 기본 현황

1) 시설 유형	①노숙인종합지원센터 ② 일시보호시설 ③ 자활시설 ④ 재활시설 ⑤ 요양시설		
2) 시설명			3) 시설 연락처
4) 법정보호 정원	명	5) 조사당일 현원	명

※ 시설유형은 보건복지부 시설현황 제출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일시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유형에 대한 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며, 시설ID도 각각 부여합니다.
 ※ 시설명은 법인명이 아닌 시설명을 기입합니다.

조사당일 기준

※ 다음 장부터 시작하는 문항(문3~13번)은 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당일 귀하 시설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병원에 입원한 노숙인과 외출·외박하는 노숙인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은 문13번까지 모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문7번까지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3 인원 현황의 경우 자활·재활·요양시설은 문 3-1에,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문 3-2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7 가족 현황의 경우 자활·재활·요양시설은 문 7-1에,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문 3-2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3~문5, 문8~문12지의 '계'는 '문2 기본 현황에서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인원 현황(현원 기준)

- ※ 남성/여성 노숙인 수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은 3-1을 응답합니다.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3-2를 응답합니다.

3-1.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과 2) 병원에서 입원 중인 인원, 3) 외출·외박하는 인원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귀하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남성	명	계	명	조사당일 현원 1)+2)+3) 명
	여성	명			
2) 오늘 병원에 입원 중인 인원	남성	명	계	명	
	여성	명			
3) 오늘 외출·외박하는 인원	남성	명	계	명	
	여성	명			

※ 문 3-1), 3-2), 3-3) 계의 총합(①+②+③)은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3-2.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이용시설은 2) 병원에서 입원 중인 인원, 3) 외출·외박하는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1)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귀하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남성	명	조사당일 현원 명
	여성	명	

※ 총계의 합은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연령 및 성별 현황(현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89세	90세이상
계											
남											
여											

- ※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인원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 '계'는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5. 장애 실태 (조사당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①+③+④	미파악 ①	장애 없음 ②	등록 장애 인 ③	장애유형													등록 장애 인 중 중복 장애 인 ④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체 장애	지체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부· 요추장애	뇌전증 (간질) 장애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계'는 '문2 기본 현황에서의 5) 조사당일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에는 등록장애인 수를 넣으시고, '등록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은 중복장애인 수를 기입합니다.

*장애 유형은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단, 중복장애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장애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각장애, 청각 장애에 심한 장애 혹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각각 표기하시면 됩니다.

6. 코로나19 현황

※ 2020년 2월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누계를 응답해주시시오.

시설 이용인 혹은 생활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7. 가족 현황(현원 기준)

※ 가족 현황은 '2. 기본 현황'에서 파악된 5) 조사당일 현원 중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의 수를 집계합니다.

※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은 7-1을 응답합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7-2를 응답합니다.

7-1.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1)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과 2) 병원에서 입원 중인 인원, 3) 외출·외박하는 인원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에는 이 중에서 영유아(0~6세)가 포함된 가구수와 가구원 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귀하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① 미성년 포함 가족 수	가구 명	계	가구 명	조사당일 현원 (1+2+3) 가구 명
	② 미성년 미포함 가족 수	가구 명			
2) 오늘 병원에 입원 중인 인원	① 미성년 포함 가족 수	가구 명	계	가구 명	
	② 미성년 미포함 가족 수	가구 명			
3) 오늘 외출·외박하는 인원	① 미성년 포함 가족 수	가구 명	계	가구 명	
	② 미성년 미포함 가족 수	가구 명			

4 · 이 중 영유아(0~6세) 포함 가족 수 ① _____ 가구 ② _____ 명

7-2.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 2) 병원에서 입원 중인 인원, 3) 외출·외박하는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1)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에는 이 중에서 영유아(0~6세)가 포함된 가구수와 가구원 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귀하 시설에서 잠을 자는 인원	① 미성년 포함 가족 수	가구 명	계	가구 명
	② 미성년 미포함 가족 수	가구 명		

2) · 이 중 영유아(0~6세) 포함 가족 수 ① _____ 가구 ② _____ 명

8. 입소기간별 현황(현원 기준, 귀하시설에 최종 입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파악)

※ 입퇴소가 빈번한 경우, 귀하의 시설에 최종 입소일로부터 지금까지의 거주(생활)한 기간을 파악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구분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남									
여									

※ '계'는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주민등록 현황(현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유	무	미파악
계				
남				
여				

※ '계'는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현황 (현원 기준)

구분	계	수급		비수급	신청중	미파악
		일반 수급	시설 수급			
계						
남						
여						

※ '계'는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11. 의료지원 현황(현원 기준)

	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	노숙인 1종	비보험	신청중	미파악
계								
남								
여								

※ '계'는 '문2 기본 현황'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12. 연고자 유무 및 유형(현원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①+②)	무연고자 (①)	유연고자 (②)	유연고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기타
계									
남									
여									

※ 계는 무연고자 수(①)와 유연고자 수(②)의 합과 동일해야 합니다.

※ '계'는 '문2 기본 현황에서의 5) 조사당일 현원'과 동일해야 합니다.

13. 질병이환 실태(현원 기준)











- ※ **질병이 없는 분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병원이나 의사의 진단 판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한 사람에게 여러 질병이 있으면 해당하는 질병명 모두에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질병건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즉, **인원수보다 질환별 총 건수의 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각 항목들 중에서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병명과 건수를 빈 공간에 직접 기재해 주십시오.

(단위: 명)

구분	세부적 질병구분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기타
호흡기질환	폐결핵		천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기타
간장질환	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간염	간경화 기타
위장관질환	역류성식도염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 궤양	치질 기타
정신질환	조현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기타
신경계질환	간질		치매		파킨슨씨병 기타	
뇌졸중(중풍)	뇌경색			뇌출혈		
관절질환	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무릎관절질환	발목관절질환	기타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분리증	척추측만증	척추골절	기타
외상	외상성 뇌병변			사지·몸통 골절		기타
비뇨기계질환 및 부인과질환	신부전		전립선비대증	방광·요도염	질염	기타
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기타
피부병	곰팡이성 피부염		세균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기타
기타 감염병	음		사면발이		성병 기타	
눈·코·목·귀 질환	백내장	녹내장	비염	후두염	중이염	기타
치과질환	치아질환 (우식증 등)		잇몸질환 (치주염 등)		치아결손	턱관절장애 기타
기타(추가요망)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일시집계조사 조사표 (쪽방주민)

 승인번호 제 117098 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조사주관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연구협담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조사수행기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보건복지부 </td> <td style="text-align: cente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KMAC </td> </tr> </table>	조사주관기관	연구협담기관	조사수행기관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MAC				
조사주관기관	연구협담기관	조사수행기관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MAC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쪽방주민 일시집계)		ID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type="text"/>									
1. 조사 장소 및 일시											
조사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대전										
쪽방 상담소 시설명		쪽방 상담소 연락처									
조사 일	2021년 월 일	조사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조사자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margin: 5px 0;">조사당일 기준</div>											
※ 아래의 문항(2번~6번)은 시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당일 쪽방 상담소에서 파악되고 있는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 문2, 문4~문7까지의 계는 '문2) 연령 및 성별 현황의 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2. 연령 및 성별 현황(조사당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계											
남											
여											
※ 연령은 만으로 계산하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족 현황(조사당일 기준)

※ 가족 현황은 '2. 연령 및 성별 현황'에서 파악된 쪽방 주민 중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의 수를 집계합니다. 3-1에는 이 중에서 영유아(0~6세)가 포함된 가구수와 가구원 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가족 수	가구	2) 미성년 포함 가족수	가구 명
	명	3) 미성년 미포함 가족수	가구 명

※ '1) 전체 가족 수'는 '2) 미성년 포함 가족수'와 '3) 미성년 미포함 가족수'의 합과 동일해야 합니다.

3-1. 이 중 영유아(0~6세) 포함 가족 수 ① _____ 가구 ② _____ 명

4. 주민등록 현황(조사당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유	무	미파악
계				
남				
여				

※ 계는 '문2) 연령 및 성별 현황의 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조사당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	비수급	신청중	미파악	수급	비수급	신청중	미파악
계									
남									
여									

※ 계는 '문2) 연령 및 성별 현황의 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6. 의료지원 현황(조사당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	비보험	의료급여 신청중	미파악
계							
남							
여							

※ 계는 '문2) 연령 및 성별 현황의 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7. 장애 실태 (조사당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①+②+③	미파악 ①	장애 없음 ②	장애유형															
				등록장애인 중 중복장애인 ③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체 장애	지배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만년 장애	장부·요부장애	뇌전동(간질) 장애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계'는 '문2 기본 현황에서의 5) 조사당일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에는 등록장애인 수를 넣으시고, '등록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은 중복장애인 수를 기입합니다.

*장애 유형은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단, 중복장애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장애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시각장애, 청각 장애에 심한 장애 혹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각각 표기하시면 됩니다.

8. 코로나19 현황

※ 2020년 2월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누계를 응답해주십시오.

쪽방상담소 이용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건강(의료) 및 심리

문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 ②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다
- ⑤ 매우 좋다

문2.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진단 이후 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질병구분	질병 유무		치료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01)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①	②	①	②
02)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①	②	①	②
03) 호흡기질환 (폐결핵, 천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	①	②	①	②
04) 간장질환 (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간염, 간경화 등)	①	②	①	②
05) 위장관질환 (역류성식도염, 위 십이지장염, 위 십이지장 궤양, 치질 등)	①	②	①	②
06) 정신질환 (조현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①	②	①	②
07) 신경계질환 (간질, 치매, 파킨슨병 등)	①	②	①	②
08) 뇌졸중 증후군 (뇌경색, 뇌출혈 등)	①	②	①	②
09) 관절질환 (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무릎관절질환, 발목관절질환 등)	①	②	①	②
10)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변위증, 척추축만증, 척추골절 등)	①	②	①	②
11) 외상 (외상성 내반전, 사지용탈, 골절 등)	①	②	①	②
12) 비뇨기계질환 및 부인과질환 (신부전, 전립선비대증, 방광요도염, 질염 등)	①	②	①	②
13) 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	①	②	①	②
14) 피부병 (광과민성 피부염, 세균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	①	②	①	②
15) 기타 감염병 (홍 사면발, 상해 등)	①	②	①	②
16) 눈·코·목·귀 질환 (백내장, 녹내장, 비염, 후두염, 중이염 등)	①	②	①	②
17) 치과질환 (치아질환, 우식증 등, 잇몸질환: 치주염 등, 치아결손, 턱관절장애 등)	①	②	①	②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①	②	①	②
19) 기타	①	②	①	②

문3. 귀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4번으로 이동

문3-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장애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 유형을 중복하여 응답하십시오.

중복 장애	① 중복장애 있음	② 중복장애 없음
-------	-----------	-----------

(1) 자폐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6) 지적장애	(7) 자발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체장애	(10) 학습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11) 호흡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두·요무장애	(15) 뇌전증(간질)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문4. 귀하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 ①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문4-1번으로 이동
- ②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문4-1번으로 이동
- ③ 무료진료소 진료
- ④ 약국 처방
- ⑤ 보건소 진료
- ⑥ 개인병원인 진료
- ⑦ 국공립병원 진료
- ⑧ 종합병원 진료
- ⑨ 기타()

문4-1. (①또는②로 응답한 경우)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병원비 때문에
- ②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 ③ 병원이 멀리 있어 오래 걸리기 때문에
- ④ 건강보험이 채납되어서
- ⑤ 병원에서 차별을 해서
- ⑥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 ⑦ 기타()

문5.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와 병원에 입원한 횟수를 알려주십시오.

응급실	①없음 ②있음(회) ③응급거부	입원	①없음 ②있음(회) ③응급거부
-----	------------------------	----	------------------------

문6.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문7번으로 이동

문6-1. 귀하는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 ② 월 2-4회
- ③ 주 2-3회
- ④ 주 4회 이상

문6-2. 귀하는 한 번 술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 ② 반병 미만
- ③ 반병 이상 1병 미만
- ④ 1병 이상 2병 미만
- ⑤ 2병 이상 4병 미만
- ⑥ 4병 이상

문10. 귀하는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저렴한 월세
- ②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 ③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 ④ 교통이 좋은 입지
- ⑤ 독립된 공간의 확보
- ⑥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 ⑦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 ⑧ 개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 ⑨ 기타 ()

문11. 귀하가 현재 원하시는 주거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기 잠자리만 제공하는 응급임시주거 (예: 응급잠자리)
- ② 단기 거주하면서 장기 거주를 준비하는 주택 (예: 중간주택)
- ③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동생활주택, 그룹홈)
- ④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 ⑤ 혼자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실무자나 복지사가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예: 지원주택)
- ⑥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 (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⑦ 기타 ()

문12. 귀하는 노숙생활 중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피해 장소는 어디입니까?

* 피해 장소는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구분	경험 여부		피해 장소				
	있다	없다	거리	이용 시설	생활 시설	폭방 시설	기타
01) 구타, 기혹행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02) 성추행 및 성폭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03) 금품갈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04) 명의도용, 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05) 기타(변리피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III. 사회복지서비스(지자체, 민간 등)

문13. 귀하는 다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 모두에 표시하시고, 만족도는 최근 받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이용여부				만족도	
	노숙 직전		노숙 이후		불만족	만족
	예	아니오	예	아니오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03) 긴급복지제도 생계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04) 긴급복지제도 주거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05) 실업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06)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 이용	①	②	①	②	①	②
07) 무료진료	①	②	①	②	①	②
08) 일자리 소개 및 알선 등 고용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09) 직업 및 자격증 등 교육	①	②	①	②	①	②
10)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참여	①	②	①	②	①	②
11)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①	②	①	②	①	②
12)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	①	②	①	②	①	②
13) 활동지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14) 무료급식 등 식사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15) 현원옷, 산발, 생필품 등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16) 주거지원 (임시주거지원, 임대주택 등)	①	②	①	②	①	②
17) 편의시설 이용 (휴게실, 샤워실 등)	①	②	①	②	①	②
18)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19) 주민등록 복원, 신용회복 등 법률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20) 기타()	①	②	①	②	①	②

* 노숙 직전과 직후 중 하나라도 '예'이면 만족도에 응답합니다.

* 노숙 이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문 13-1번으로 이동

* 노숙 이후 모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문 14번으로 이동

문13-1. (노숙 이후) 귀하가 이용했던 복지서비스(문 13. 참조)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문13-2. (노숙 이후) 귀하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신청방법 등)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 ① 노숙인 시설에서 안내를 받아서
- ②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 ③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 ④ 주민센터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소개로
- ⑤ 긴급전화(120,1366 등) 안내를 통해서
- ⑥ 직접 정보를 찾아서(인터넷 등)
- ⑦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의 도움으로
- ⑧ 기타()

문14.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소득보조
- ② 의료지원
- ③ 고용지원
- ④ 주거지원
- ⑤ 심리지원
- ⑥ 채무상당지원
- ⑦ 급식지원
- ⑧ 정신건강지원
- ⑨ 등불지원(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등)
- ⑩ 법률지원(신용회복, 주민등록복원 등)
- ⑪ 기타()

문15. 귀하는 주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십니까?

- 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
- ②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
- ③ 민간단체 무료급식 이용
- ④ 자비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이용
- ⑤ 스스로 조리
- ⑥ 무료 도시락/반찬배달 서비스 이용
- ⑦ 기타()

IV. 자립 및 경제활동

문16. 귀하의 ①-④번까지의 근로상태에 대한 변화(이력)을 말씀해주십시오.

* 각 시점의 구분은 근로상태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총 근로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경우만 근로상태로 간주합니다.

기간	근로상태	기간(개월)
① 현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개월
② 노숙 직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개월
③ 노숙 직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개월
④ 노숙 이전 (③ 이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개월

(보기) 근로 상태	① 상용직
	② 임시·일용직
	③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안일자리
	④ 자영업자·고용주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파지 및 고물수거
	⑦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⑧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⑨ 기타()

문17. 귀하는 지난 4주내에 일(직장)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일용직,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경우 일(직장)을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①그렇다로 응답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문18. 귀하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일(직장)을 구하십니까?

- ① 공공안내소·고용지원센터, 동사무소
- ② 사설안내소
- ③ 노숙인 시설
- ④ 사회복지기관
- ⑤ 매체광고(신문, 잡지, 방송, 구직정보지 등)
- ⑥ 인터넷
- ⑦ 친척, 친구, 동료
- ⑧ 학교나 학원
- ⑨ 직접 방문
- ⑩ 직장을 구하지 않음
- ⑪ 기타()

문19.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일자리조건	내용
01) 근무시간	① 전일제 (하루 8시간) ② 시간제 및 반일제 (하루 4시간 정도) ③ 상용직 ④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02) 근무업종	① 건설·일용직 ② 경비 ③ 청소(미화) ④ 생산제조 ⑤ 서비스업 ⑥ 기타() ⑦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03) 일자리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금 ②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③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④ 출퇴근 편의 ⑤ 장래발전 가능성 ⑥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⑦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⑧ 기숙사나 거처제공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⑨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⑩ 기타() ⑪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문20. 귀하가 직업(업)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한 주소지 확보
- ② 직업교육
- ③ 건강회복
- ④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 ⑤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
- ⑥ 주민등록 복원
- ⑦ 가족 돌봄 지원(아동, 몸이 아픈 가족 등)
- ⑧ 기타()
- ⑨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문21. 귀하가 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수입 없음 → 문22번으로 이동
- ② 공공근로활동(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 포함)
- ③ 알한 근로에 의한 수입(임시·일용노동 포함)
- ④ 친구 및 친인척 도움
- ⑤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 ⑥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 ⑦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
- ⑧ 기타()

문21-1. 귀하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 소득이 없으면, 0을 기입합니다.

* 2020년 시행된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소득 종류		소득 금액	
총 소득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근로소득	하계(4-10월)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동계(11-3월)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수당, 연금, 임대료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만원

문22. 귀하의 지난 3개월 동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주거비(임대료 또는 숙박비 등)
- ② 식료품비
- ③ 보건의료비
- ④ 피복신발비
- ⑤ 생활용품비
- ⑥ 교통·통신비
- ⑦ 술·담배
- ⑧ 오락(게임, 도박)
- ⑨ 저축
- ⑩ 부채(빚) 갚기
- ⑪ 가족송금(자녀교육비 포함)
- ⑫ 기타 지출()

문23. 귀하는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 금융 부채, 개인 간 부채, 휴대폰 체납 요금 포함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4번으로 이동
- ③ 모르겠다 → 문24번으로 이동

문23-1. 귀하의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 만원

문23-2. (부채가 있는 경우)

귀하는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이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문24.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문25번으로 이동

문24-1. (저축을 하는 경우) 총 저축액과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저축 총액 천원

월평균 천원

V. 코로나19 관련 사항

문25.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 어려워진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유행 이전을 0이라 했을 때 당시보다 어려워진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응답합니다.

구분	0	1	2	3	4	5
01) 일을 하거나 일거리 구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2)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3)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4) 규칙적인 식사하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5) 손씻기·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6)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에서 잠자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문26. 귀하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_____시간

문27. 귀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_____번
- ② 없다

문28. 귀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차례 지급되었는데, 이 중 2020년 5월에 시행된 모든 국민에게 가구 수(1인가구 40만원)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 수령여부에 대해 응답합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자격조건과 지급액, 지급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자체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응답합니다.

중앙정부	① 받았다	② 안받았다
지자체	① 받았다	② 안받았다

VI. 기본사항

문29.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연도	[] [] [] 년 ※주민등록상 기준	
혼인상태	① 비혼(만18세 미만) ② 미혼(18세 이상) ③ 유배우 ④ 동거	⑤ 별거 ⑥ 사별 ⑦ 이혼
자녀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최종학력	① 무학 ⑦ 고등학교 졸업 ② 초등학교 중퇴 ⑧ 전문대 중퇴 ③ 초등학교 졸업 ⑨ 전문대 졸업 ④ 중학교 중퇴 ⑩ 대학 중퇴 ⑤ 중학교 졸업 ⑪ 대학 졸업 이상 ⑥ 고등학교 중퇴	

문30. 귀하의 주민등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같은 시(군)은 같은 지역으로 구분하며 예전의 '호적없음'은 '출생등록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 ①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
- ② 이용 중 혹은 입소한 시설에 등록
- ③ 다른 지역에 등록
- ④ 거주불명 등록
- ⑤ 말소
- ⑥ 출생등록 없음
- ⑦ 기타()

문31. 귀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을 받고 계십니까?

급여 종류	수급여부		수급유형 (수급 받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예	아니오	
01) 생계급여	①	②	① 일반수급자 ② 조건부수급자 ③ 특례수급자 ④ 사실수급 ⑤ 모르겠다
02) 의료급여	①	②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우료진료 ④ 노숙인1종 ⑤ 모르겠다
03) 주거급여	①	②	① 임차급여 (특례포함) ② 수선유자급여 (특례포함) ③ 모르겠다
04) 교육급여	①	②	

문31-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1-3번으로 이동

문3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 ②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 ③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문32번으로 이동

문3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절차를 잘 몰라서
- ②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 ③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 ④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 ⑤ 영의도용된 재산 때문에(대표자, 주택, 통장 등)
- ⑥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 ⑦ 기타()

문32. 귀하는 현재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 '0'명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관계	수(명)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01) 가족/친지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02) 비노숙인 친구/동료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03) 노숙인 친구/동료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유형별 추가질문 :
거리 노숙인 /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문33. 귀하가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문34. 다음 중에서 귀하가 거리노숙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직
- ② 사업실패
- ③ 이혼 및 가족해체
- ④ 배우자 사망
- ⑤ 가정폭력
- ⑥ 성폭력
- ⑦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 ⑧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
- ⑨ (임대료 연체 등)주거지 상실
- ⑩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포함)
- ⑪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 ⑫ 게임 및 도박 중독
- ⑬ 사회복지시설 퇴소
- ⑭ 교정시설 출소
- ⑮ 기타()

문35. 귀하는 일시보호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포함)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문36번으로 이동

문35-1. 귀하는 일시보호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 포함)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6. 귀하는 오늘밤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 ① 건물내부
- ② 지하공간
- ③ 거리·광장
- ④ 공원·녹지
- ⑤ 강변
- ⑥ 일시보호시설
- ⑦ 기타()

문37. 귀하가 오늘밤 위의 잠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 ②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 ③ 무료급식 및 사회복지 지원이 가까워서
- ④ 따뜻해서(혹은 춥지 않아서)
- ⑤ 조용해서
- ⑥ 일을 구할 수 있는 곳과 가까워서
- ⑦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 ⑧ 노숙인 관련 쉼터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 ⑨ 기타()

문38. 귀하가 현재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잘 몰라서
- ②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 ③ 다른 입소자의 갈등
- ④ 시설환경이 나빠서
- ⑤ 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 ⑥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서
- ⑦ 재미가 없어서
- ⑧ 시설을 이용할 수 가 없어서
- ⑨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
- ⑩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음
- ⑪ 이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입소되지 않음
- ⑫ 기타()

문39. 귀하는 거리상담원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① 거리상담원을 만나본 적이 없다
- ② 오늘 처음 만나 이야기했다
- ③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이야기 한다
- ④ 한 달에 1-2번 이야기 한다
- ⑤ 일주일에 1-2번 이야기 한다
- ⑥ 그 이상 자주 이야기 한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원 성명	(인)
조사원 연락처	
(참여) 실무자 성명	(인)
(참여) 실무자 연락처	

[특이사항 기록란]

2. 면접조사 조사표(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승인번호
제 117098 호

조사주관기관	연구지원기관	조사수행기관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MAC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시설노숙인 조사표) ID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15년에 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숙인 등의 현황·육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실사책임자 마혜진 ☎ 02)3786-23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하은솔 ☎ 044)287-8294

통계법 제33조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지역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역은 해당 행정구역을 기입합니다. 예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시·군·구 (효자동)읍·면·동 2) (대전광역시)시·도 (유성)시·군·구 (노은)읍·면·동	시설명	자동배정됨	배정된 장소 코드	다	동	계	정	립
조사일시	[] 월 [] 일 (오전, 오후) []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								
노숙유형	① 기타 ② 노숙인 자활시설 ③ 일시보호시설 ④ 노숙인 재활시설 ⑤ 노숙인 요양시설 ⑥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⑦ 쉼터								
조사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 사유 ③ 의사소통 불가(알고음력 포함) ④ 조사진행 중 거부 ⑤ 응답자의 건강상태 이상 ⑥ 기타() ⑦ 집중력 저하								

1. 건강(의료) 및 심리

문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문2.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진단 이후 치료를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질병구분	질병 유무		치료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01) 대사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①	②	①	②
02)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①	②	①	②
03) 호흡기질환 (폐결핵, 천식,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등)	①	②	①	②

04) 간장질환 (B형간염, C형간염, 알콜성간염, 간경화 등)	①	②	①	②
05) 위장관질환 (역류성식도염, 위 십이지장염, 위 십이지장 궤양, 자갈 등)	①	②	①	②
06) 정신질환 (조현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①	②	①	②
07) 신경계질환 (간질, 치매, 파킨슨병 등)	①	②	①	②
08) 뇌졸중 증후 (뇌경색, 뇌출혈 등)	①	②	①	②
09) 관절질환 (어깨관절질환, 고관절질환, 무릎관절질환, 발목관절질환 등)	①	②	①	②
10)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골절 등)	①	②	①	②
11) 외상 (외상성 내반전, 사지용출 골절 등)	①	②	①	②
12) 비노기계질환 및 부인과질환 (식부전, 전립선비대증, 방광요도염, 질염 등)	①	②	①	②
13) 알 (위알, 간알, 폐알, 대장알, 갑상선알, 유방알 등)	①	②	①	②
14) 피부병 (광선자외선 피부병, 세균성 피부병,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	①	②	①	②
15) 기타 감염병 (윤, 시면발기, 상해 등)	①	②	①	②
16) 눈·코·목·귀 질환 (백내장, 녹내장, 비염, 후두염, 중이염 등)	①	②	①	②
17) 치과질환 (치아질환, 우식증 등 잇몸질환, 치주염 등, 시아질환, 턱관절장애 등)	①	②	①	②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①	②	①	②
19) 기타	①	②	①	②

문3. 귀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4번으로 이동

문3-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주장애의 유형과 장애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 유형을 중복하여 응답하십시오.

중복 장애	① 중복장애 있음	② 중복장애 없음
-------	-----------	-----------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11) 호흡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 두장애	15) 뇌전증 (간질)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 은 장애

문4. 귀하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 ①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 문4번으로 이동
 ② 노숙인쉼터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 → 문4번으로 이동
 ③ 무료진료소 진료
 ④ 약국 처방
 ⑤ 보건소 진료
 ⑥ 개인병의원 진료
 ⑦ 국공립병원 진료
 ⑧ 종합병원 진료
 ⑨ 기타()

문4-1. (①또는②로 응답한 경우)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 ① 병원비 때문에
 ②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③ 병원이 멀리 있어 오래 걸리기 때문에
 ④ 건강보험이 체납되어서
 ⑤ 병원에서 차별을 해서
 ⑥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⑦ 기타()

문5.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와 병원에 입원한 횟수를 알려주십시오.

응급실	①없음 ②있음(회) ③응급거부	입원	①없음 ②있음(회) ③응급거부
-----	------------------------	----	------------------------

문6.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7번으로 이동

문6-1. 귀하는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문6-2. 귀하는 한 번 술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② 반병 미만
 ③ 반병 이상 1병 미만 ④ 1병 이상 2병 미만
 ⑤ 2병 이상 4병 미만 ⑥ 4병 이상

문6-3. 음주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예	아니오
01)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02)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①	②
03) 술 때문에 좌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①	②
04) 술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앓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①	②

문7. 귀하는 지난 1주일(조사일 기준)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항 목	극히 드물다 (매우 1일 미만)	가끔 드물다 (매우 1-2일)	종종 드물다 (매우 2-4일)	매우 드물다 (매우 4일 이상)
0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02) 비교적 잘 자겠다	①	②	③	④
0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0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05) 잠을 섰대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0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0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0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0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8.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현재 아래의 행동이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 거주할 지라도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도움 필요 여부를 물어봅니다. (예시: 조리를 할 수 없는 거주환경이라도 식사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함)

항 목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01) 용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①	②	③
02) 집안일(실내 청소, 설거지, 침구 정리, 집안 정리 등)	①	②	③
0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①	②	③
0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①	②	③
0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①	②	③
06) 금전 관리(용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①	②	③
07) 근거리 외출(가까운 거리 걸어서)	①	②	③

항 목	완전 자립	적은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0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①	②	③	④
09) 전화 걸고 받기	①	②	③	④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①	②	③	④

II. 주거생활

문9. 다음의 장소 중에서 귀하가 거주한 경험의 변화(이력)를 시간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0' 현재는 현 응답자 거처로 파악된 곳을 기입해야 합니다(예시: 응답자가 쪽방주인이라면 '0' 현재는 ④ 쪽방이어야 함)
 *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로 기입합니다.
 *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거주 유형을 파악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지원 받은 주택도 거주유형에 따라 표기합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은 ① 일반주택으로 표기하고, 임시주거비 지원에 의한 고시원 거주는 ④ 고시원으로 표기합니다)

시기	거주유형	기간
① 현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② (1의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③ (2의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④ (3의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보기〉 거주 유형	① 일반주택(임차, 자가) ② 친인척집 ③ 친구 집
	④ 쪽방 ⑤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⑥ PC방, 찜질방, 민박방 등 ⑦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역, 교회 등) ⑧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⑨ 거리광장 ⑩ 공영녹지 ⑪ 강변 ⑫ 지하공간
	⑬ 사회복지시설(형소년, 장애인, 여성 등) ⑭ 교정시설 ⑮ 병원
	⑯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응급응급방 등) ⑰ 임시보호시설 ⑱ 노숙인 쉼터(원센터) ⑲ 노숙인 자활시설 ⑳ 노숙인 재활시설 ㉑ 노숙인 요양시설 ㉒ 기타()

문10. 귀하는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저렴한 월세
- ②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 ③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 ④ 교통이 좋은 입지
- ⑤ 독립된 공간의 확보
- ⑥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 ⑦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 ⑧ 계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 ⑨ 기타 ()

문11. 귀하가 현재 원하시는 주거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기 잠자리만 제공하는 응급임시주거 (예: 응급잠자리)
- ② 단기 거주하면서 정기 가구를 준비하는 주택 (예: 중간주택)
- ③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동생활주택, 그룹홈)
- ④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 ⑤ 혼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실무지나 복지사가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예: 지원주택)
- ⑥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 (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⑦ 기타 ()

문12. 귀하는 노숙생활 중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피해 장소는 어디입니까?

* 피해 장소는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구분	경험 여부		피해 장소					
	있다	없다	거리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주방	기타	
01) 구다, 가혹행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2) 성추행 및 성폭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3) 금품갈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4) 명의도용, 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5) 기타범죄피해	()	①	②	③	④	⑤	⑥ ()	

III. 사회복지서비스(지자체, 민간 등)

문13. 귀하는 다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 모두에 표시하시고, 만족도는 최근 받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서비스 유형	이용여부				만족도		
	노숙 직전		노숙 이후		불만족	보통	만족
	예	아니오	예	아니오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3) 긴급복지제도 생계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4) 긴급복지제도 주거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5) 실업급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6)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 이용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7) 무료진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8) 일자리 소개 및 일선 등 고용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09) 직업 및 자격증 등 교육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0)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참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1)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2)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3) 활동지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4) 무료급식 등 식사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5) 현월우, 신발, 생필품 등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6) 주거지원 (임시주거비지원, 임대주택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7) 편의시설 이용 (휴게실, 샤워실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8)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9) 주민등록 복원, 신용회복 등 법률지원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20) 기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 * 노숙 직전과 직후 중 하나라도 '예'이면 만족도에 응답합니다.
- * 노숙 이후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문 13-1번으로 이동
- * 노숙 이후 모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문 14번으로 이동

문13-1. (노숙 이후) 귀하가 이용했던 복지서비스(문 13. 참조)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문13-2. (노숙 이후) 귀하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신청방법 등)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 ① 노숙인 시설에서 안내를 받아서
- ②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 ③ 동료 및 지인의 소개로
- ④ 주민센터나 경찰 등 공공기관의 소개로
- ⑤ 긴급전화(120, 1366 등) 안내를 통해서
- ⑥ 직접 정보를 찾아서(인터넷 등)
- ⑦ 거리상담원 등 아웃리치 실무자의 도움으로
- ⑧ 기타()

문14.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소득보조
- ② 의료지원
- ③ 고용지원
- ④ 주거지원
- ⑤ 심리지원
- ⑥ 채무상담지원
- ⑦ 급식지원
- ⑧ 정신건강지원
- ⑨ 돌봄지원(활동지원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등)
- ⑩ 법률지원(신용회복, 주민등록복원 등)
- ⑪ 기타()

문15. 귀하는 주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십니까?

- 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
- ② 노숙인 생활시설 무료급식
- ③ 민간단체 무료급식 이용
- ④ 자비로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이용
- ⑤ 스스로 조리
- ⑥ 무료 도시락/반찬배달 서비스 이용
- ⑦ 기타()

IV. 자립 및 경제활동

문16. 귀하의 ①~④번까지의 근로상태에 대한 변화(이력)를 말씀해주시시오.

기간	근로상태	기간(개월)
① 현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② 노숙 직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③ 노숙 직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④ 노숙 이전 (3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 각 시점의 구분은 근로상태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총 근로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경우만 근로상태로 간주

〈보기〉 근로상태	① 상용직
	② 임시·일용직
	③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④ 자영업자·고용주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파직 및 고용수거
⑦ 미취업자(근로능력 있음)	
⑧ 미취업자(근로능력 없음)	

문17. 귀하는 지난 4주내에 일(직장)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 * 건설·일용직,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경우 일(직장)을 구한 적이 있는 것이므로 ①그렇다로 응답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8. 귀하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일(직장)을 구하십니까?

- ① 공공안내소·고용지원센터, 동사무소
- ② 사설안내소
- ③ 노숙인 시설
- ④ 사회복지기관
- ⑤ 매체광고(신문, 잡지, 방송, 구직정보지 등)
- ⑥ 인터넷
- ⑦ 친척, 친구, 동료
- ⑧ 학교나 학원
- ⑨ 직접 탐문
- ⑩ 직장을 구하지 않음
- ⑪ 기타()

문 19.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일자리조건	내용				
01) 근무시간	① 전일제 (하루 8시간) ② 시간제 및 반일제 (하루 4시간 정도) ③ 상관없음 ④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02) 근무업종	① 건설임용직 ② 경비 ③ 청소(미하) ④ 생산제조 ⑤ 서비스업 ⑥ 기타() ⑦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03) 일자리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1순위</td> <td style="width: 50%;">2순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금 ②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③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④ 출퇴근 편의 ⑤ 장래발전 가능성 ⑥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⑦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⑧ 가족이나 거주지역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⑨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⑩ 기타 () ⑪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1순위	2순위	□	□
1순위	2순위				
□	□				

문20. 귀하가 직업(일)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한 주소지 확보
- ② 직업교육
- ③ 건강회복
- ④ 채우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 ⑤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
- ⑥ 주민등록 복원
- ⑦ 가족 돌봄 지원(아동, 몸이 아픈 가족 등)
- ⑧ 기타()
- ⑨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문21. 귀하가 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수입 없음 → 문22번으로 이동
- ② 공공근로활동(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 포함)
- ③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임시·일용노동 포함)
- ④ 친구 및 친인척 도움
- ⑤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 ⑥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 ⑦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
- ⑧ 기타()

문21-1. 귀하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 소득이 없으면, 0을 기입합니다.

* 2020년 시행된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소득 종류		소득 금액				
총 소득	월평균	□	□	□	만원	
	근로소득	하계(4~10월)	□	□	□	만원
		동계(11~3월)	□	□	□	만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수급급여, 연금, 수당 등)		월평균	□	□	□	만원

문22. 귀하의 지난 3개월 동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주거비(임대료 또는 숙박비 등)
- ② 식료품비
- ③ 보건의료비
- ④ 피복산별비
- ⑤ 생활용품비
- ⑥ 교통·통신비
- ⑦ 술·담배
- ⑧ 오락·게임, 도박)
- ⑨ 저축
- ⑩ 부채(빚) 갚기
- ⑪ 가족송금(자녀교육비 포함)
- ⑫ 기타 지출()

문23. 귀하의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 금융 부채, 개인 간 부채, 휴대폰 채권 요금 포함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4번으로 이동
- ③ 모르겠다 → 문24번으로 이동

문23-1. 귀하의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 □ □ □ □ □ 만원

문31-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1-3번으로 이동

문3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였지만,
신청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 ②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 ③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문32번으로 이동

문3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나 절차를 잘 몰라서
- ②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 ③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 ④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 ⑤ 명의로용된 재산 때문에(대포차, 주택, 통장 등)
- ⑥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 ⑦ 기타()

문32. 귀하는 현재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
'0'명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관계	수(명)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01) 가족/친지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02) 비노숙인 친구/동료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03) 노숙인 친구/동료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유형별 추가질문 :
시설 노숙인 _ 재활 · 자활 · 요양시설 등

문33. 귀하는 거리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33-1로 ② 없다 →문34로

문33-1. 귀하가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 년 □ □ 월

문33-2. 다음 중에서 귀하가 거리노숙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실직
- ② 사업실패
- ③ 이혼 및 가족해체
- ④ 배우자 사망
- ⑤ 가정폭력
- ⑥ 성폭력
- ⑦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 ⑧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
- ⑨ (임대료 연체 등)주거지 상실
- ⑩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포함)
- ⑪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 ⑫ 게임 및 도박 중독
- ⑬ 사회복지시설 퇴소
- ⑭ 교정시설 출소
- ⑮ 기타()

문34. 귀하가 처음 시설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 년 □ □ 월

문35. 시설에 입소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 ②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위험해서
- ③ 경제적으로 지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④ 자활이나 재활(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
- ⑤ 기타()

문36. 귀하에게 현재 시설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잠자리 제공
- ② 식사 제공
- ③ 자활 프로그램 참여
- ④ 정보제공 서비스(일자리, 주거 등)
- ⑤ 정서적 안정감(동료들과 함께 생활)
- ⑥ 의료 지원
- ⑦ 기타()

문37. 귀하가 현재 시설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규칙
- ② 사생활 보호
- ③ 소음
- ④ 개인공간(침실면적 등)
- ⑤ 방당 이용자수
- ⑥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
- ⑦ 화재 등 재해위험
- ⑧ 냉난방
- ⑨ 채광 통풍 습기
- ⑩ 건물 내 이동
- ⑪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 ⑫ 기타()

문38. 귀하는 현재 거처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 ① 옮기고 싶지 않음
- ② 거리
- ③ 다른 노숙인시설
- ④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 등)
- ⑤ 자립(정부지원주택 포함)
- ⑥ 귀가
- ⑦ 기타()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원 성명	(인)
조사원 연락처	
(참여) 실무자 성명	(인)
(참여) 실무자 연락처	

[특이사항 기록란]

문3. 귀하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4번으로 이동**

문3-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유형과 장애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 유형을 중복하여 응답하십시오.

중복 장애	① 중복장애 있음	② 중복장애 없음
-------	-----------	-----------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11) 호흡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간질)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① 심한 장애 ② 심하지 않은 장애

문4. 귀하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 ①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 **문4-1번으로 이동**
 ② 노숙인쉼터나 시립복지관에 도움을 청한다 → **문4-1번으로 이동**
 ③ 무료진료소 진료
 ④ 약국 처방
 ⑤ 보건소 진료
 ⑥ 개인병의원 진료
 ⑦ 국공립병원 진료
 ⑧ 종합병원 진료
 ⑨ 기타()

문4-1. (①또는②로 응답한 경우)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병원비 때문에
 ② 병원까지 데려다 주거나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③ 병원이 멀리 있어 오래 걸리기 때문에
 ④ 건강보험이 체납되어서
 ⑤ 병원에서 차별을 해서
 ⑥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서
 ⑦ 기타()

문5.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횟수와 병원에 입원한 횟수를 알려주십시오.

응급실	①없음 ②1회 ③2회 ④3회 ⑤응답거부	입원	①없음 ②1회 ③2회 ④3회 ⑤응답거부
-----	-----------------------------------	----	-----------------------------------

문6.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7번으로 이동**

문6-1. 귀하는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문6-2. 귀하는 한 번 술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② 반병 미만
 ③ 반병 이상 1병 미만 ④ 1병 이상 2병 미만
 ⑤ 2병 이상 4병 미만 ⑥ 4병 이상

문6-3. 음주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예	아니오
01)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02)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①	②
03) 술 때문에 좌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까?	①	②
04) 술 마신 다음날 아침 불쾌감을 앓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 해장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까?	①	②

문7. 귀하는 지난 1주일(조사일 기준)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항 목	크게 드물다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1-2일)				종종 있었다 (3-4일)				매우 드물다 (5일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2) 비교적 잘 자겠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5) 잠을 잘 못 잤다(대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0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8.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현재 아래의 행동이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 거주할 지라도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도움 필요 여부를 물어봅니다. (예시: 조리를 할 수 없는 거주환경이라도 식사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함)

항 목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01) 용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①	②	③
02) 집안일(살내 청소, 설거지, 침구 정리, 집안 정리 정돈 등)	①	②	③
0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①	②	③
0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①	②	③
0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①	②	③
06) 금전 관리(용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①	②	③
07) 근거리 외출(가게 가까운 거리 걸어서)	①	②	③

항 목	완전 자립	적은 부분 도움	많은 부분 도움	완전 도움
0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①	②	③	④
09) 전화 걸고 받기	①	②	③	④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①	②	③	④

II. 주거생활

문9. 다음의 장소 중에서 귀하가 거주한 경험의 변화(이력)를 시간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① 현재'는 현 응답자 거주로 파악된 곳을 기입해야 합니다(예시: 응답자가 쪽방주민이라면 '① 현재'는 ④ 쪽방이어야 함)
 *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로 기입합니다.
 *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거주 유형을 파악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지원을 받은 주택도 거주유형에 따라 표기합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은 ① 일반주택으로 표기하고, 임시주거비 지원에 의한 고시원 거주는 ④ 고시원으로 표기합니다)

시기	거주유형	기간
① 현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② (①의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③ (②의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④ (③의 이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월

(보기) 거주 유형	① 일반주택(임차, 자가) ② 친인척집 ③ 친구 집 ④ 쪽방 ⑤ 고시원, 여인숙, 모텔 등 ⑥ PC방, 찜질방, 민박방 등 ⑦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 내부(역, 교회 등) ⑧ 비닐하우스, 텐트, 컨테이너
	⑨ 거리·광장 ⑩ 공영녹지 ⑪ 강변 ⑫ 지하공간
	⑬ 사회복지시설(형소년, 장애인, 여성 등) ⑭ 교정시설 ⑮ 병원
	⑯ 응급실(응급호이스, 응급복합 등) ⑰ 임시보호시설 ⑱ 노숙인 쉼터(지원센터) ⑲ 노숙인 지원시설 ⑳ 노숙인 재활시설 ㉑ 노숙인 요양시설 ㉒ 기타()

문10. 귀하는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저렴한 월세
- ② 빨리 거처를 얻을 수 있는 시급성
- ③ 복지서비스를 받기 편한 곳
- ④ 교통이 좋은 입지
- ⑤ 독립된 공간의 확보
- ⑥ 현재 거처와 멀지 않은 곳
- ⑦ 병원 치료를 받기 편한 곳
- ⑧ 계단 등이 없어 이동하기 편한 곳
- ⑨ 기타 ()

문11. 귀하가 현재 원하시는 주거지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기 잠자리만 제공하는 응급임시주거 (예: 응급잠자리)
- ② 단기 거주하면서 장기 거주를 준비하는 주택 (예: 중간주택)
- ③ 동료들과 생활을 지원하는 실무직자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동생활주택, 그룹홈)
- ④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 (예: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 ⑤ 혼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실무직자 복지사가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예: 지원주택)
- ⑥ 혼자 거주하는 일반 주택 (예: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⑦ 기타 ()

문12. 귀하는 노숙생활 중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피해 장소는 어디입니까?

* 피해 장소는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구분	경험 여부		피해 장소				
	있다	없다	거리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쪽방촌	기타
01) 구다, 가축생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2) 성추행 및 성폭행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3) 금품갈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4) 명의도용, 사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05) 기타범죄피해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문19.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일자리조건	내용				
01) 근무시간	① 전일제 (하루 8시간) ② 상·하교 및 반일제 (하루 4시간 정도) ③ 상·하교 ④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02) 근무업종	① 건설업종 ② 경비 ③ 청소(미화) ④ 생산제조 ⑤ 서비스업 ⑥ 기타() ⑦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				
03) 일자리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	<table border="1"> <tr> <td>1순위</td> <td><input type="text"/></td> <td>2순위</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p>① 임금 ② 근무시간 (전일제, 반일제) ③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 안정성) ④ 출퇴근 편의 ⑤ 장래발전 가능성 ⑥ 자신의 적성과 경력에 맞는 직업 ⑦ 노숙 경험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직업 ⑧ 기숙사나 식사제공 등 주거지원과 함께 제공 ⑨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 ⑩ 기타() ⑪ 일자리를 원하지 않음</p>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문20. 귀하가 직업(일)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정한 주소지 확보
- ② 직업교육
- ③ 건강회복
- ④ 채무해소(신용불량회복, 부채감면 등)
- ⑤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제공
- ⑥ 주민등록 복원
- ⑦ 가족 돌봄 지원(아동, 몸이 아픈 가족 등)
- ⑧ 기타()
- ⑨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

문21. 귀하가 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① 수입 없음 → 22번으로 이동
- ② 공공근로활동(노숙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자활사업 등 포함)
- ③ 일반 근로에 의한 수입(임시·일용노동 포함)
- ④ 친구 및 친인척 도움
- ⑤ 교회 및 복지시설 지원금
- ⑥ 모르는 사람에게 얻음
- ⑦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연금 등)
- ⑧ 기타()

문21-1. 귀하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 소득이 없으면, 0을 기입합니다.

* 2020년 시행된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외합니다.

소득 종류		소득 금액	
총 소득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근로소득	하계(4~10월)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동계(11~3월)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수당급여, 연금, 수당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문22. 귀하의 지난 3개월 동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	----------------------	-----	----------------------

- ① 주거비(임대료 또는 숙박비 등)
- ② 식료품비
- ③ 보건의료비
- ④ 피복신발비
- ⑤ 생활용품비
- ⑥ 교통·통신비
- ⑦ 술담배
- ⑧ 오락·게임, 도박)
- ⑨ 저축
- ⑩ 부채(빚) 갚기
- ⑪ 가족송금(자녀교육비 포함)
- ⑫ 기타 지출()

문23. 귀하는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 금융 부채, 개인 간 부채, 휴대폰 채납 요금 포함

- ① 있다
- ② 없다 → 24번으로 이동
- ③ 모르겠다 → 24번으로 이동

문23-1. 귀하의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 만원

문23-2. (부채가 있는 경우)

귀하는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입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문24. 귀하는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25번으로 이동

문24-1. (저축을 하는 경우) 총 저축액과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저축 총액 천원

월평균 천원

V. 코로나19 관련 사항

문25.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 어려워진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 코로나19 유행 이전을 0이라 했을 때 당시보다 어려워진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응답합니다.

구분	0	1	2	3	4	5
01)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02)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03)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						
04) 규칙적인 식사하기						
05) 손씻기·사위 등 위생 지키기						
06)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에서 잠자기						

문26. 귀하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_____시간

문27. 귀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_____번 ② 없다

문28. 귀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차례 지급되었는데, 이 중 2020년 5월에 시행된 모든 국민에게 가구 수(1인가구 40만원)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 수령여부에 대해 응답합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자격조건과 지급액, 지급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지자체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응답합니다.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①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② 안받았다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①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② 안받았다

VI. 기본사항

문29. 응답자 일반 사항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성 <input type="checkbox"/> ② 여성
출생연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주민등록상 기준
혼인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비애매(만18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별거 <input type="checkbox"/> ② 미혼(18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⑥ 사별 <input type="checkbox"/> ③ 유배우 <input type="checkbox"/> ⑦ 이혼 <input type="checkbox"/> ④ 동거
자녀	<input type="checkbox"/> ① 없다 <input type="checkbox"/> ③ 2명 <input type="checkbox"/> ② 1명 <input type="checkbox"/> ④ 3명 이상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무학 <input type="checkbox"/> ⑦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⑧ 전문대 중퇴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⑨ 전문대 졸업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⑩ 대학 중퇴 <input type="checkbox"/> ⑤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⑪ 대학 졸업 이상 <input type="checkbox"/> ⑥ 고등학교 중퇴

문30. 귀하의 주민등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같은 시(군)은 같은 지역으로 구분하며 예전의 '호적없음'은 '출생등록 없음'으로 응답합니다.

- ① 현 생활하는 지역에 등록
- ② 이음 중 혹은 입소한 시설에 등록
- ③ 다른 지역에 등록
- ④ 거주불명 등록
- ⑤ 말소
- ⑥ 출생등록 없음
- ⑦ 기타()

문31. 귀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을 받고 계십니까?

급여 종류	수급여부		수급유형 (수급 받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예	아니오		
01)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②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③ 특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④ 사설수급 <input type="checkbox"/> ⑤ 모르겠다
02)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의료급여 1종 <input type="checkbox"/> ② 의료급여 2종 <input type="checkbox"/> ③ 국가유공자무료진료	<input type="checkbox"/> ④ 노숙인1종 <input type="checkbox"/> ⑤ 모르겠다
03)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① 임차급여 (특례포함) <input type="checkbox"/> ② 수선유자급여 (특례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모르겠다
04)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문31-1.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1-3번으로 이동

문3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②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③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해서
④ 모르겠다
⑤ 기타()

→문32번으로 이동

문3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나 절차를 잘 몰라서
②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③ 근로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④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⑤ 명의도용된 재산 때문에(대포차, 주택, 통장 등)
⑥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
⑦ 기타()

문32. 귀하는 현재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
'0'명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관계	수(명)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01) 가족/친지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02) 친구/동료	()명	주()회 또는 월()회 또는 년()회

유형별 추가질문 : **쪽방 주민**

문33. 귀하는 거리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33-1번으로 ② 없다 →문34번으로

문33-1. 귀하가 거리노숙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월

문33-2. 다음 중에서 귀하가 거리노숙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실직
② 사업실패
③ 이혼 및 가족해체
④ 배우자 사망
⑤ 가정폭력
⑥ 성폭력
⑦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⑧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
⑨ (임대료 연체 등)주거지 상실
⑩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포함)
⑪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⑫ 게임 및 도박 중독
⑬ 사회복지시설 퇴소
⑭ 교정시설 출소
⑮ 기타()

문34. 귀하가 쪽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
까?

□□□□□□ 년 □□ 월

문35. 귀하의 현 거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면적	□□ m ² 또는 □□ 평
자가주택시세	□□□□□□ 만원
보증금	□□□□□□ 만원
월임대료	□□□□□□ 만원
일세	□□□□□□ 천원

문35-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대료 체납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36.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내부시설은 어떠합니까?

시설 종류	내 용
01) 침실(방)	① 1개 ② 2개 이상
02) 거주하는 방의 창문	① 없음 ② 있음
03) 부엌	① 단독사용-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⑤ 없음 ③ 공동사용-인식
04)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⑤ 없음 ③ 공동사용-수세식
05)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④ 공용목욕탕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⑤ 공용목욕탕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⑥ 공용목욕탕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⑦ 공용목욕탕 ⑤ 없음
06) 난방 시설	유무 ① 없음 ③ 있으며 가동함 ② 있지만 겨울에도 가동하지 않음
	형태 ① 연탄 또는 재래식(매김) 아궁이 ② 연탄보일러 ③ 나무-석탄보일러 ④ 기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⑧ 전기장판 ⑨ 기타()

문37. 귀하가 현재 거처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 ① 규칙 ⑦ 화재 등 재해위험
- ② '총난방 ⑧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
- ③ 채광-통풍-습기 ⑨ 사생활 보호
- ④ 소음 ⑩ 건물 내 이동
- ⑤ 침실면적 ⑪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 ⑥ 방당 이용자수 ⑫ 기타()

문38.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 ① 동네에 대한 나쁜 인상과 주변 사람들의 무시
- ② 철거 및 퇴거위험
- ③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재
- ④ 교통 불편
- ⑤ 시장, 은행 등 편의시설 이용 불편
- ⑥ 침수, 화재, 붕괴 등 재해위험
- ⑦ 주민등록 등재 문제
- ⑧ 열악한 교육환경
- ⑨ 치안 불안정
- ⑩ 비위생적임
- ⑪ 복지정보와 자원 부족
- ⑫ 기타()

문39. 귀하는 쪽방상당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① 매일 이용
- ② 주 2-3회 이용
- ③ 월 1회 이용
- ④ 월 2-3회 이용
- ⑤ 잘 이용하지 않음(명절, 후원물품 수령시에만 이용)
- ⑥ 전혀 이용하지 않음

문40.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쪽방(촌)에서 살고 싶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40-2번으로 이동

문40-1. 계속 살고 싶으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편리해서
- ② 동사무소, 쪽방상당소 직원과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 ③ 일거리가 가까워서
- ④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서
- ⑤ 불편함이 없어서
- 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 ⑦ 쪽방에 살면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 ⑧ 기타()

→ 응답 후 조사 종료

문40-2. 이주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 ① 일반주택 전월세로 이사하고 싶다
- ② 정부지원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
- ③ 양로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가고 싶다
- ④ 농촌 등에 정착하고 싶다
- ⑤ 기타()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원 성명	(인)
조사원 연락처	
(참여) 실무자 성명	(인)
(참여) 실무자 연락처	

[특이사항 기록란]

부록3.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추가문항 분석

- 이번 2021년도 실태조사에서는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 표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시 관련된 조사문항(문항번호: SQ1)을 추가하였음
 - 거리노숙인의 면접조사 표본추출은 일시집계조사 시 거리노숙인이 발견된 거점을 기초로 이루어졌음. 그런데 거리노숙인은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A 라는 사람이 B 라는 거점에서 면접조사를 하더라도 A 가 B 거점에서 잠을 자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면접조사 표본이 일시집계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면접조사에서는 ‘30일 이내 거리 노숙 여부’, ‘거리노숙 장소의 근처 여부’, ‘잠을 자는 노숙인 규모’를 추가로 질문하였음
 - 이 조사결과는 거리노숙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정해진 시간에 현장전문가 및 조사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기록한 일시집계조사 결과에 우선시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참고용으로 부록에 게재함
- 노숙인 등의 면접조사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총 312명임
 - 거리 253명(81.1%), 일시보호시설 26명(8.3%),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33명(10.6%)이 응답하였음

〈부표 1〉 거리노숙인 면접조사 응답자 수

(단위: 명, %)

구분	거리노숙인			계
	거리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응답자 수(비율)	253(81.1)	26(8.3)	33(10.6)	312(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원자료.

- 면접조사에 참여한 312명의 거리노숙인 중 최근 30일 이내 거리 노숙 경험이 있는 노숙인은 265명(84.9%)이며, 이 중 ‘이 곳 근처에서 노숙했다’고 응답한

노숙인은 258명(97.4%)으로 대체로 해당 거점 근처에서 거리노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30일 이내 거리노숙을 한 경험이 없는 노숙인은 일시보호시설과 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내고 있음

〈부표 2〉 거리노숙인 노숙 경험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비율)	세부 비율
노숙 경험 및 이력	최근 30일 이내 거리 노숙 함	265(84.9)	100.0
	이 곳 근처에서 노숙	258	97.4
	다른 곳에서 노숙	7	2.6
	최근 30일 이내 거리 노숙 안함	47(15.1)	100.00
	일시보호시설	21	44.7
	종합지원센터	26	55.3
계		312(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원자료.

□ 이 곳 근처에서 거리노숙을 했다고 응답한 거리노숙인은 일시집계조사 시 118개의 거점에서 집계되었음

○ 거점 당 최소 1명 최대 6명의 노숙인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부표 3〉 면접조사에 참여한 거리노숙인이 있는 거점 수

(단위: 거점)

구분	거점 당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숙인 수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거점 수	51	24	24	12	5	2	118

주: 이 곳 근처에서 거리노숙을 했다고 응답한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원자료.

○ 이 곳 근처에서 거리노숙을 했다고 응답한 거리노숙인에게 평소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 정도가 해당 장소에서 잠을 자는지를 조사한 결과, 1~4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5~9명이 같이 잠을 자는 거점이 28개, 10~14명이 같이 잠을 잔다고 응답한 거점이 11개, 그 이상은 5개 이하의 거점으로 조사됨.

〈부표 4〉 거점 당 ‘본인 포함 잠을 자는 노숙인 수’ 응답 분포

(단위: 거점)

본인 포함 잠을 자는 노숙인 수	거점 당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숙인 수						거점(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4명	40	12	11	5	1		69
5~9명	8	9	8	2	1		28
10~14명	3	2	2	4			11
15~19명		1	1		1		3
20~29명			1		1		2
30~39명			1	1			2
40~49명						1	1
50명 이상					1	1	2
계	51	24	24	12	5	2	118

주: 1) 이 곳 근처에서 거리노숙을 했다고 응답한 노숙인 만을 대상으로 함.

2) 1개 거점에 2명 이상의 노숙인이 면접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평균치를 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원자료.

□ 각 거점별로 ‘일시집계조사에서 조사된 노숙인 수’와 면접조사에서 노숙인이 응답한 ‘본인 포함 잠을 자는 노숙인 수’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음

○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에서 각각 조사된 노숙인 수가 일치하는 거점은 27개, 1~4명 차이가 있는 거점이 44개, 5~9명 차이가 있는 거점이 23개임.

- 적은 숫자이기에는 하지만 2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거점도 있음

○ 2명 이상 노숙인이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우 평균값을 구한 값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숙인이 적은 거점(일시집계조사 시 노숙인 규모가 작은 거점)인 경우 일시집계조사 결과와의 일치율이 비교적 높기는 하나 경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부표 5〉 거점 당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 노숙인 수 차이

(단위: 거점)

노숙인 수 차이	거점 당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숙인 수						거점(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일치	24	2		1			27
1~4명	18	11	12	1	1	1	44
5~9명	6	4	5	6	1	1	23
10~14명	2	2	2	2			8
15~19명					3		3
20명 이상	1		2	1			4
계	51	19	21	11	5	2	109

- 주: 1) 이 곳 근처에서 거리노숙을 했다고 응답한 노숙인 만을 대상으로 함.
 2) 1개 거점에 2명 이상의 노숙인이 면접조사에 참여했을 경우 평균치를 구함.
 3) (일시집계조사의 거점당 노숙인 수) - (면접조사에서 본인 포함 잠을 자는 노숙인 수)의 절대값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원자료